

피노키오만남장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2006-2012)

5권 : 연대사업 · 연구보고사업 · 교육/워크숍/캠프사업



피리산만상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2006-2012)

5권 : 연대사업 · 연구보고사업 · 교육/워크숍/캠프사업

초판 1쇄 발행 2013년 9월 1일

펴낸 곳  청소년활동가상징 **활기**

이메일 hwalgy@daum.net

전화번호 070-4228-1908

홈페이지 <http://cafe.daum.net/Life2010>

가격 1질 전5권 100,000원

파란만장했던 6년의 발걸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를 발간하며

우리는 오늘, 이제는 역사의 심연 속으로 사라져간 한 조직의 파란만장했던 숨결과 발걸음을 담은 기록물을 세상에 내 놓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존재를 말하지 않고 한국 청소년운동의 오늘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자부심, 그리고 네트워크가 남긴 실천과 고민의 흔적들이 오늘과 내일의 청소년운동에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유산을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이 책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파란이 있는 곳엔 더 큰 파란을!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준비하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첫 돛을 올렸던 2006년의 뜨거웠던 여름,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을 나서며 발표한 출범선언문에 담긴 구절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구절만큼 네트워크의 처음과 끝을 함께 밀어왔던 활동가들, 네트워크라는 함선에 잠시라도 승선했던 활동가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변방에서도 가장 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청소년 인권 의제들과 활동가들을 모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을 형성해내고 말겠다는 다부진 욕심으로 출범했습니다. 청소년인권이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파란(波瀾)을 준비하자, 사회가 청소년을 설명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 스스로 청소년인권론을 만들고 더 큰 파란을 조직하지는 마음으로 네트워크는 6년간 힘차게 노 저어 왔습니다. 때로는 주춤했고 때로는 어설프고 때로는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한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단언컨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저항하는 청소년들의 버팀목이자 ‘파란을 만들어내는 장’(파란만장)이었고, 청소년운동의 한 전선(front)을 확장해온 개척자였으며, 청소년운동의 오늘을 만들어낸 인큐베이터였습니다.

2012년 3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년간의 항해를 멈추고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로 통합/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청소년운동의 성장과 함께 네트워크의 소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른 청소년 단위로 옮겨가기도 했고, 청소년활동가들을 위한 재정적, 교육적, 이론적 뒷받침 역할을 수행할 조직의 결성 필요성이 새로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의 마감은 네트워크의 후신(後身)이라 할 ‘활기’의 시작과 함께 결정된 일이기에 서글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남긴 유산은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운동의 밑불이 될 것이기에 뜨거운 안녕을 고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떠나보낸 지 1년을 훌쩍 넘긴 오늘에서야, 늦었지만 네트워크의 역사와 활동을 한 눈에 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엄선한 백서를 내놓습니다. 백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네트워크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모음입니다.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의 도움닫기 워크숍을 거쳐 네트워크가 결성된 2006년 3월부터 ‘활기’로의 전환을 결정한 2012년 3월까지 이어진 활동과 조직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권은 학생인권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네트워크의 활동 기록을 모았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전국을 누비고 다녔던 전국행진에서부터 청소년 거리행동의 날 행사를 비롯한 광장에서의 움직임, 폐쇄적 학교를 뒤흔든 스쿨어택(School Attack)과 청소년 저항 지원 활동 등 긴장감과 신선함이 가득했던 사건들의 현장 속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3권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가르는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보수 여론의 포화 속에서 일구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역사를 되짚다 보면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과 갖가지 고비를 넘겨온 활동가들의 놀라운 역량과 끈기, 그리고 그 고단했던 숨결을 함께 맞볼 수 있습니다.

4권은 학생인권 이외에 네트워크가 청소년인권의 새로운 의제와 실천을 발굴하면서 남긴 유산을 묶었습니다. 청소년인권과 반(反)차별감수성의 만남을 시도했던 십대 여성주의(걸 페미니즘) 팀, 2008년 촛불정국을 통과하면서 본격화된 보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버린 보호주의팀, 청소년이 말하고 실천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운동을 일구어내고자 했던 노동(빈곤)팀의 다채로운 시도가 남긴 결실이 이 한 권에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 5권은 네트워크가 시도했던 다양한 교육/연구 사업과 연대활동 관련 자료들의 꾸러미입니다. 청소년인권캠프, 청소년활동가대회, 잇힌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재발굴한 연구사업 등을 다룬 자료들을 따라 읽다 보면, 네트워크가 청소년인권 이론을 독자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한 눈에 보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제 가고 없지만, 청소년을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인권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백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운동을 조직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또 네트워크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과 지혜의 보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9월 1일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발간팀

1부	연대 사업1 - 국기법 반대 (2007)	17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는데 동의하고 이번 행정자치부의 명칭한 시행령 통과에 반대하는 청소년들, 「청소년 선언 - 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06. 06. 11.	21
	강이현, 「국기에 대한 맹세, 그 참을 수 없는 시대착오성」, 프레시안, 2007. 06. 11.	23
	<내가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에 반대하는 이유 - 릴레이1인시위>, 소장사진, 2007. 06. 14.	27
	<당신은 무엇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나요? - 문화행동 사진>, 박김형준, 2007. 06. 26.	28
	<당신은 무엇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나요?>, 웹자보(스티커)	29
	참세상, 「맹세야, 경례야 안녕~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 좋습니까?」,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18.	3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54개 단체, 「성명서 - 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2007. 07. 11.	33
	유영주, 「제헌절 아침, 헌법제1조는 죽었다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국회 기습 시위」, 민중언론참세상, 2007. 07. 17.	36
	일침회, 「“나나 해라 충성 상” 국기에대한맹세와경례」, 인권오름, 2007. 07. 25.	39
	따이루,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1)』 「국기에 대한 맹세, 죽음의 폭력을 거부한다」,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18.	43
	김현호,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2)』 「“국기에 대한 강요된 경례와 맹세는 우상숭배”」,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19.	45
	완군,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3)』 「차라리 그까짓 국기를 빌려 버릴까 하는 충동」,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0.	47

박진환,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4)』 「우리 안에 기 미가요(君が代), 히노마루(日の丸)는 없는가?」,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1.	49
용석,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5)』 「내게 사랑을 강 요하지 마세요」,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2.	51
박노자,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6)』 「‘맹세의 문화’ 가 키운 것」,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5.	54
고동주,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7)』 「국가의 도구, 그 인생은 행복할까?」,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6.	56
안병주,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8)』 「“도해물과 배 뚜 사이 마르고 다투록~”」,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8.	57
김훈태,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9)』 「초등학교 애국 조회, 그 쓰라린 패배의 기억」,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9.	59
네즈 키미코,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10)』 「맹세, 경례 법제화 반대 투쟁하는 한국인 여러분께」, 민중언론참세 상, 2007. 07. 03.	61
이계삼,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11)』 「애국자가 없 는 세상」, 민중언론참세상, 2007. 07. 04.	64
아치,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12)』 「모세의 십계명 과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문」, 민중언론참세상, 2007. 07. 09.	67
무명, 「[소근소근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이젠 줘!]」, 청소년인권 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 3호, 2007. 07. 18.	70

2부	연대 사업2 - 2008청소년인권선언 (2008)	73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8 청소년인권선언이란?」, 제안 서, 2008.11.03.	77
	<‘2008 인권선언’ 밑불때기 워크숍>, 웹자보, 2008.11.07.	78
	<2008청소년인권선언 - 청소년인권나무에 나뭇잎을 붙여주세 요~> 웹자보, 2008.11.13.	79
	2008인권선언 추진위원회,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새 인권선언 을 선포 - 오늘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도」, 인권오름, 2008.1 2.09.	80

공현, 「2008년 인권선언 운동 - 욕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인권선언」, 인권오름, 2008.12.10.	86
신청이,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못할 인권은 없다”」, 1318청소년연론 바이러스, 2008.12.11.	88
2008인권선언 추진위원회(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8청소년인권선언」, 『2008 인권선언』, 2009.12.10.	90
<2008 청소년인권선언 캠페인 및 기자회견 사진>, 소장사진	98
<2008 청소년인권선언 “나뭇잎 권리”모음>, 소장사진	102
<2008 청소년인권선언 퍼즐형>, 웹자보, 2008.12.10.	113

3부	연대 사업3 -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2008, 2009)	115
-----------	--	-----

<2008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웹자보, 2008.07.01.	119
<상콤발랄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시즌2>, 웹자보, 2009.07.20.	120
청소년인권캠프“별세상”기획단, 「2008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프로그램 소개」, 『2008 별캠프 꼬마자료집』, 2008.07.31.	121
혜민, 「[일어나라 인권OTL] ‘보호주의’ 껍질 깨기 - 교칙 패러디, 끝장토론 등으로 시끌벅적했던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현장」, 한겨레21, 2008.08.15.	122
2009별캠프기획단, 「상콤발랄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시즌2 프로그램 소개」,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2회) “별을 만나다” 자료집』, 2009.08.06.	124
공현, 「‘19세미만’은 왜 ‘미성년자’가 되었나」,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2회) “별을 만나다” 자료집』, 2009.08.06.	127
배경내, 「무엇이 널 무릎 꿇리고 있나?」,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2회) “별을 만나다” 자료집』, 2009.08.06.	134
<2008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소장사진	137

4부	연대 사업4 - 청소년활동가대회 헛 (2010)	143
-----------	-----------------------------------	-----

2010청소년활동가대회기획단,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기획안, 2010.05.25.	147
---	-----

2010청소년활동가대회기획단, 2010청소년활동가대회후원요청서, 2010.07.18.	149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웹자보, 2010.07.20.	156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기획단,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재미난 일정 소개」, 『2010 챗(chat) 자료집』, 2010.08.04.	157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기획단,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 ‘오락(五樂) 쪽글 모음」, 『2010 챗(chat) 자료집』, 2010.08.04.	160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기획단,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 ‘대화창 흔들기(끝장토론)’ 쪽글 모음」, 『2010 챗(chat) 자료집』, 2010.08.04.	167
홍봄이, 「청소년활동가들의 발칙한 수다 Chat(챗) - 2박3일간의 청소년활동가대회에 다녀와서」, 미디어충청, 2010.08.11.	173
거부기, 「스케치 - 청소년활동가대회 ‘챗」, 진보교육연구소 웹페이지, 2010.09.24.	176
난다, 「만나고 싶었고, 만나야 했던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챗”을 외치다 -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후기」, 『인권교육센터 ‘들’ 소식지 ‘소란’ 14호』, 2010.10.04.	178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소장사진	181

5부	연대 사업5 - 활기(2010~2012)	193
배경내,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조성모임 사업제안서(초안)」, 제안서, 2010.02.10.	197	
엠진, 「눈물 없이도 들을 수 있는 활기 탄생사」, 『청심환1호 - 활기로 엮는 옆집이야기』, 2010.04.15.	202	
어쓰, 「가난한 활기 회계 담당씨의 고백」, 『청심환2호 - 활기로 엮는 옆집이야기』, 2010.06.15.	205	
혜진, 「나이는 먹어도 어른은 되지 않을 테다」, 『청심환3호 - 활기로 엮는 옆집이야기』, 2010.10.19.	207	
<2010년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마련 후원의 밤 HOT YOUTH>, 웹자보, 2010.11.03.	209	

햇유스 기획단, 「HOT YOUTH 뉴스레터 - 첫 번째」, 2010.11.03.	211
햇유스 기획단, 「HOT YOUTH 뉴스레터 - 두 번째」, 2010.11.10.	212
햇유스 기획단, 「HOT YOUTH 뉴스레터 - 세 번째」, 2010.11.17.	213
햇유스 기획단, 「HOT YOUTH 뉴스레터 - 대박마지막」, 2010.11.22.	214
클린앤, 「클린앤이 보내는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첫 번째 - 활동가랑』, 2010.11.03.	215
형우, 「저공비행 형우가 보내는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첫 번째 - 활동가랑』, 2010.11.03.	219
엠건, 「엠건이 보내는 활기의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첫 번째 - 활기충전』, 2010.11.03.	221
뚝코, 「정치적권리 뚝코가 보내는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두 번째 - 활동가랑』, 2010.11.09.	223
어쓰, 「여성과 노동활동에 대하여 어쓰가 보내는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두 번째 - 활동가랑』, 2010.11.10.	225
남장희, 「청소년활동을 후원하는 후원인이 보낸 활기의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두 번째 - 활기충전』, 2010.11.10.	228
난다, 「입시폐지&일제고사 난다가 보내는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세 번째 - 활동가랑』, 2010.11.17.	230
레쓰, 「성소수자 활동을하는 레쓰가 보내는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세 번째 - 활동가랑』, 2010.11.17.	234
공현, 「공현이 보내온 활기의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세 번째 - 활기충전』, 2010.11.17.	236
활기, 「돈이 생긴다면 이런활동 하고싶당」, 『HOT YOUTH 뉴스레터 마지막』, 2010.11.22.	238
<2010년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마련 후원의 밤 HOT YOUTH - 후원 행사장>, 소장사진, 2010.11.25.	240
<2010년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마련 후원의 밤 HOT YOUTH - 감사 메일>, 웹자보, 2010.12.16.	242
저공비행, 「아름다운재단 2010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 사업 신청서」 일부, 2010.05.13.	243

저공비행, 「첫 번째 시작 - ‘인권’ 커리큘럼」, 2010.09.14.	250
저공비행, 「저공비행 소개 ppt」, 2011.05.27.	251

6부	연구/보고 사업	257
유윤종,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사회를 흔든 “학생인권” 합성 -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발원지, 최우주씨 헌법소원 사건」, 인권오름 제 2호, 2006. 05. 03.	261	
최우주,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씨 민원 전문(1995) -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인권오름 제 2호, 2006. 05. 03.	266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②] <자료>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 명동성당 농성 선언문(1987)」, 인권오름 제 6호, 2006. 05. 31.	271	
전누리,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②] 민주화의 불꽃, 학교를 삼키다 - 87년 민주항쟁과 고등학생운동, 청소년인권운동의 뿌리」, 인권오름 제 6호, 2006. 05. 31.	273	
광고협/부고협,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학생탄압에 맞선 고등학생 단식농성 성명서(1989)」, 인권오름 제 10호, 2006. 06. 27.	278	
서울사대부중 여학생,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자살한 여중생이 시_편지 형태로 남긴 유서(1986)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인권오름 제 10호, 2006. 06. 27.	280	
유윤종,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 들불처럼 번진 청소년들의 참교육 운동」, 인권오름 제 10호, 2006. 06. 27.	284	
양돌규,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1989년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투쟁 일지」, 인권오름 제 10호, 2006. 06. 27.	293	
유윤종, 「[기획 -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 ④] 공안탄압 속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 공안탄압, 정점에서 맞이한 위기」, 인권오름 제 18호, 2006. 08. 22.	326	

청소년회 「쌈」 사건 대책위원회, 「[기획 -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 ④] <자료> 청소년회 「쌈」 사건 대책위원회 보고서 중 일부 - 현실 속에서 탄생한 청소년운동 조직 청소년회 「쌈」, 인권오름 제 18호, 2006. 08. 22.	332
정리/고근예,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⑤] ‘8090’ 중고등학생운동을 말한다 - 중고등학생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정리하는 좌담회」, 인권오름 제 22호, 2006. 09. 20.	336
고근예,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⑥] ‘청소년 인권운동’ 첫발을 내딛다」, 인권오름 제 26호, 2006. 10. 25.	345
하이텔 중고등학생복지회, 나우누리 학생복지회, 「[기획 -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 ⑥] <자료> 중고등학생인권선언서」, 인권오름 제 26호, 2006. 10. 25.	349
전누리,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⑦] 청소년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다」, 인권오름 제 34호, 2006. 12. 20.	351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⑦] <자료>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학운위 참여 선언문 -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선언한다」, 인권오름 제 34호, 2006. 12. 20.	356
유윤중,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 ‘재량권 춤추는 사립학교’, 이제 그만! - 사학 비리에 저항한 학생과 교사들」, 인권오름 제 38호, 2007. 01. 24.	358
인천외고정상화를위한공대위,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 <자료> 인천외고 단식농성 성명서」, 인권오름 제 38호, 2007. 01. 24.	363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 <자료>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단식농성 성명서」, 인권오름 제 42호, 2007. 02. 21.	365
고근예,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 <2>]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 그 시작을 꿈꾸며」, 인권오름 제 46호, 2007. 03. 21.	368
므스,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 <1>]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인권오름 제 46호, 2007. 03. 21.	372
정리/므스,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 <3>]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말하다 - <인터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배경내 활동가를 만나」, 인권오름 제 46호, 2007. 03. 21.	377

고근예,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뽀뽀이 한해살이 운동을 넘어 - 2005년~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의 기록」, 인권오름 제 50호, 2007. 04. 18.	380
학생운동본부,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자료>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운동본부 선언문」, 인권오름 제 50호, 2007. 04. 18.	385
배경내,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자료>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 파란을 조직하다」, 인권오름 제 50호, 2007. 04. 18.	388
정리 전누리,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끝> 청소년인권운동을 바라보는 열 개의 시선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좌담회」, 인권오름 제 54호, 2007. 05. 15.	393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 11장.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10조) 中 1. 열악한 청소년 노동권 현실」,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약식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 42개 단체, 2008. 11.	400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 12장. 아동권(10조)」,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 55개 단체, 2009. 09.	40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 9장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튀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인권운동 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0. 04. 28	41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UN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 3차 심의에 관한 의견서」, 2011. 09. 07.	414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UN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 3차 심의에 관한 의견서 (영문)」, 2011. 09. 07.	420
UN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영문)」, 2011. 10. 06.	427
UN 아동권리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역, 「대한민국 3,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2011. 10. 06.	448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UN 아동권리위,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보도자료, 2011. 11. 17	474
박은하 기자, 「“체벌·자살… 한국 청소년인권 우려”」, 경향신문, 2011. 11. 19.	477

7부	교육/워크숍/캠프 사업	479
<청소년 파란만장 여름인권캠프> 홍보자료 및 프로그램, 2006. 07. 26.		483
<청소년 파란만장 여름인권캠프> 프로그램 중 ‘이건 아니잖아~’ 결과물, 2006. 07. 26.		485
윤수근 기자, 「“귀뚜캣? 이건 아니잖아” [학생인권] 7월 26,27일 청소년파란만장 인권캠프 열려」, 1318바이러스 2006. 07. 27.		489
파란만장 청소년들,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야 학교야, 이건 아니잖아!- 학생인권 현실 꼬집는 종합 개그 한마당」, 인권오름 제 18호, 2006. 08. 23.		491
<청소년 파란만장 여름인권캠프> 소장사진, 2006. 07. 26.		494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전 교조 투쟁을 지지한다! 구속된 세 명의 교사를 즉각 석방하라」 성명서, 2006. 11. 02.		496
<2007년 제 1회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 홍보자료 및 프로그램, 2007. 02. 10.		498
와글난장 참가자들, 「[내말 좀 들어봐] “청소년인권활동, 나도 할 말 있어요”- 청소년인권활동의 쟁점들 쏟아진 와글난장-짓다」, 인권오름 제42호, 2007. 02. 21.		501
<2007년 제 1회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 소장사진, 2007. 02. 10.		506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간담회 1탄- 10대 성소수자> 제안서, 2007. 05. 03.		508
해밀, 「‘청소년인권’, 청소년 성소수자를 말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0대 성소수자 간담회 열어」, 인권오름 제54호, 2007. 05. 16.		511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간담회 2탄- 장애 청소년> 홍보자료, 2007. 08. 04.	515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간담회 2탄- 장애 청소년> 웹자보, 2007. 08. 04.	517
참살이, 「장애와 청소년, 이중의 굴레를 벗기 위하여- 청소년인권 경계넘기 2탄, 장애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 4호, 2007년 8·9월호	518
<외사외사 인권서리> 홍보자료 및 프로그램, 2007. 07. 02.	523
<외사외사 인권서리> 웹자보, 2007. 07. 02.	529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사외사 인권서리』 자료집, 2007. 07. 25.	530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사외사 인권서리 부록』 자료집, 2007. 07. 28.	586
<외사외사 인권서리> 소장사진, 2007. 07. 25.	597
<펜으로도 때리지 마라- 청소년인권과 언론> 홍보자료 및 프로그램, 2008. 01. 07.	598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펜으로도 때리지 마라- 청소년인권과 언론』 2장 교재, 2008. 01. 09.	600
<펜으로도 때리지 마라- 청소년인권과 언론> 소장사진, 2008. 01. 07.	613
<2008 청소년인권운동 워크숍-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제안서, 2008. 02. 04.	614
<2008 청소년인권운동 워크숍-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웹자보, 2008. 02. 12.	617
<2008 청소년인권운동 워크숍-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소장사진, 2008. 02. 12.	618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5월> 프로그램, 2008. 05. 24.	619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5월> 웹자보, 2008. 05. 24.	623
병헌, 「[일어나라, 인권 OIL] ‘어린 것들’ 차별할 땐 이렇게 외칩시다. ‘달마다 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첫 교육 현장」, 한겨레21 제713호, 2008. 06. 04.	624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5월> 소장사진, 2008. 05. 24.	626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6월> 프로그램, 2008. 06. 21.	627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6월> 웹자보, 2008. 06. 21.	629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7월> 프로그램, 2008. 07. 26.	630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7월> 웹자보, 2008. 07. 26.	632
따이루, 「내 말 좀 들어봐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 할까 가 출소년 따이루, 자유를 찾아 집을 나온다」, 인권오름 제 86호, 2008. 01. 09.	633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7월> 소장사진, 2008. 07. 26.	638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8월> 웹자보, 2008. 08. 23.	639
엠건, 「[내 말 좀 들어봐] 틈 없는 교과서가 만드는 틈 없는 시야 교과서 속 반인권적인 부분 찾기」, 인권오름 제 122호, 2008. 1 0. 01.	640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UCC 창작 강좌> 홍보자료, 2009. 07.	644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UCC 창작 강좌> 웹자보, 2009. 0 7.	650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UCC 창작 강좌>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2009. 07. 27.	651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UCC 창작 강좌> 작품 발표회 전 단지, 2009. 07. 31.	653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UCC 창작 강좌> 출판작, 2009. 0 7. 31.	654
엠건, 「[내 말 좀 들어봐]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 그 첫 번째 ‘말함’의 기억」, 인권오름 166호, 2009. 08. 19.	660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UCC 공모전> 홍보자료, 2009. 10.	663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UCC 공모전> 전단지, 2009. 10.	665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홈페이지 기획안, 2009. 10.	667
<빨강 물고기가 떴다! 기호 0번 후보 정책논의 워크숍> 프로그 램, 2010. 05. 08.	672

<빨강 물고기가 떴다! 기호 0번 후보 정책논의 워크숍> 보수 교육감예비후보 공약 모니터링 보고, 2010. 04. 28.	673
<빨강 물고기가 떴다! 기호 0번 후보 정책논의 워크숍> 소장사진, 2010. 05. 08.	683
<2011 학생인권심화워크숍> 웹자보, 2011. 11. 05.	685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11 학생인권심화워크숍』 자료집, 2011. 11. 05.	686
<2011 학생인권심화워크숍> 첫 날 속기록, 2011. 11. 05.	708
배경내, 「[인권교육, 날다] 미끄러지면서 상담을 배우다- 학생인권 상담의 달인 되기 워크숍」, 인권오름 제 278호, 2011. 12. 06.	730
난다, 「학생인권조례가 끝인 건 아니지!- <학생인권 심화워크숍> 후기」, 인권교육센터 ‘들’ 소식지 <소란> 21호, 2011년 11·12월호.	735
<2011 학생인권심화워크숍> 소장사진, 2011. 11. 05.	739

연대 사업 - 국기법 반대 (2007)

당신은 무엇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나요?
국기에 대한 맹세야
정체와 안녕

당신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어떤 의미입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 <http://blog.inbo.net/byebye>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개요

연대 사업1-국기법 반대 (2007)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행령으로 만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의무화하려는 법안이 끝내 통과되었다. 전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기법 개정예에 반대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꾸렸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도 이 모임에 참여하며 함께 행동했다.

“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청소년 선언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릴레이1인시위, 거리문화행동의 활동을 이어나갔고, 지속적인 성명과 기고글 발표, 온라인 홍보를 통해 ‘국기법 반대-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의 목소리를 알렸다. 7월17일에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열린 국기법 제정 반대 시위에 참여한 네트워크를 포함한 대다수 활동가가 연행되면서 벌금형을 받는 등 고비를 맞았으나, 이후 직접 제작한 컵을 판매하여 벌금 폭탄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는데 동의하고 이번 행정자치부의 멍청한 시행령 통과에 반대하는 청소년들, 「청소년 선언 - 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06. 06. 11.

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경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두 일어셋! 국기에 대해~~ 경례~엿!”

보통 이 사회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받고 자란 사람치고 저 말을 들었을 때 아무 장면도 연상되지 않는 사람 없으리라. 그게 지금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든, 다녔지만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든 어쨌든 초등학교는 의무였으며 신성한 의무교육의 초등교육에는 ‘애국심’이라는 교과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반복, 세뇌하는 과목을 배웠으리니

학교를 그냥 다녔던 청소년들이라면 12년간 받아온 반복학습에 의해 애국기만 나오면 자동으로 손은 가슴에, 눈은 국기로, 눈가엔 눈물그렁그렁, 마음은 ‘쓸데없이 이런 거 왜하나?’ 라는 생각. 그러자고 안하자니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함부로 거부하진 못하고선 전원이 메스케임하듯 동시동작 착착. 잘도 맞는다.

이번에 시행령인가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집어넣는다고 한다.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도 징글맞은 소리가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더 징글맞게 들린다. 이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을 부러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강요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 더 강도 높은 ‘애국’을 해봐야 자신의 인간성을 강도 같은 국가에 뺏긴다는 걸 잘 아니까.

‘애국’은 내신에도 들어가지 않는 종목이니까 그냥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천만의 소리

‘애국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거부까지 아니더라도 애국을 조금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전형적인 교사들은 이렇게 부른다. “이런 비국민새끼”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기억 좀 더듬어 다시 생각해 보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뜻 해석하면 결국 “이런 비국민”이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일제의 잔재라느니 그런 소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일본에서 하면 어떻고, 한국에서 하면 어때? 좀 일본에서 살았느니, 한국에서 살았느니 하는 걸 따지지 않고 서로 친구하면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걸 나누면서 살아가는 걸 바라는 사람에게겐 “너는 한국민족이고, 너는 일본 민족이니까 너넨 태어날 때부터 서로 경쟁해야하는 운명인거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총칼 겨누고 싸워야 해.

게다가 이기기 위해선 한국민족은 한국민족끼리 뭉쳐야하고, 일본민족은 일본민족끼리 뭉쳐야 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의 명령 따윈 필요 없다 이거다.

‘히틀러’, ‘히로히토’, ‘무솔리니’, ‘박정희’ 예로부터 애국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셨던 분들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드신 분 없었더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생명을 해야 하는 도구로 취급했던 분들은 언제나 ‘애국’을 강요하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피땀 흘리면서 고생한 다음 이뤄낸 생산량 증가 등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위대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건 좋은데, 이제 충분히 겪었으니 더 이상 ‘애국’이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실험할 필요는 없다고 전한다. 젠장.

나는 청소년이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이라곤, 알뜰꾸리한 로또번호같은 이상한 일련번호로 나를 관리하고 사람들끼리 경쟁시키는 것 정도 도대체, 나는 사람이란 말인가? 소모품이란 말인가?

다시 한 번 ‘청소년’으로써 말하자면 ‘정말 애국이 좋은 거라면 왜 강제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의 소극적인 질문을 넘어서, ‘역사 좀 보고 깨닫자.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보고 희생시키는 사회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된다. 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야’ 라고 소리친다. 안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이것저것으로 청소년들 괴롭히는 거 많아 싸울 거 많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보다는 인간이 애국자이기 이전에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부터 먼저 생각해봐.

강이현, 「국기에 대한 맹세, 그 참을 수 없는 시대착오성」, 프레시안, 2007. 06. 11.

국기에 대한 맹세, 그 참을 수 없는 시대착오성

인권·청소년단체 "국기법 시행령 제정 중단해야"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정해 시행령으로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애국조회' 등에 참석해야 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무총리 지시로 이어져 왔다.

전국 90여 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다문화민주화 사회에 '국기에 대한 맹세'도 같이 간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수정이 아니라 폐지가 마땅하다"며 "양심의 자유 및 인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자체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김태정 씨는 "어제 6.10 항쟁 기념행사를 참 요란하게 하더라"며 "그렇지만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프레시안

민주화가 된다.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못 외우면 벌을 세우는 지긋지긋한 군사독재 정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아직도 경례와 맹세를 강요하는 이런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삼열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 42만 명, 이주인 100만 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조만간 이주인 2세 자녀가 150만 명이 넘을 거라는 분석은 우리가 다양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우 국장은 "이런 시대에 삶의 방식이 존중되려면 전체주의와 군사주의의 잔재가 사라져야 한다"며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강요받는 이주인 자녀들이 느끼게 될 심정을 생각해보라"고 밝혔다.

행자부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맹세 수정할 것"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은 지난 1월 제정돼 오는 7월 27일 시행을 앞둔 '대한민국 국기법' 때문에 일고 있다. 국기법 6조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그 밖에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지난 4월 행자부는 국기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여기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행령안 4조 1항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주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맹세문을 낭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자부는 이어 지난 5월30일 기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수정하겠다며 3가지의 예시문을 발표했고 지난 8일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마무리했다.

제시된 예시문들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등으로 기존 맹세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과 형태를 띄고 있다.

행자부는 "새로운 맹세문을 담은 '국기법 시행령'을 7월 중에 제정 및 공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애국 강요한 이 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든 이 없더라"

또 이 자리에서는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연명한 '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낭독됐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시행령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집어 넣는다고 하는 소리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듣기

에도 징글맞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더 징글맞게 들린다"며 "이 사회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을 부려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강요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 더 강도높은 '애국'을 해봤자 자신의 인간성을 국가에 빼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히틀러, 히로히토, 무솔리니, 박정희, 예로부터 애국을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분들 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드신 분은 없었다"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는 도구로 취급했던 분들은 언제나 '애국'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역사를 보면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보고 희생시키는 사회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린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밝혔다.



▲ '청소년이 국가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청소년들 ©프레시안

인권침해적 법령 제정 움직임, 인권위가 나서야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곧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국기에 대한 맹세 및 경례'를 시행령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인권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현재 인권위는 "시행령에 처벌 조항이 있을 경우에만 대응하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물론 현 국기법과 국기법 시행령안에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했을 경우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형법,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과 연계시켜 처벌하거나 학교 재량권을 명분으로 퇴학이나 불합격 처분을 하는 등 제재조치가 가해진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기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올해 초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법률의 지위로 격상돼 강제될 지경에 놓였다"며 "문구 몇 자를 손질한다고 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정희 유신체제와 함께 전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든 맹세는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 온 주문이었다"며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는 교육은 애국심을 높이긴 커녕 오히려 청소년

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작 숨어냈어야 할 일제와 유신의 잔재이자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쌍두마차의 다른 한편에 자리잡은 국기에 대이들은 인권위에 대해 △국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고와 의견표명 촉구 △행정자치부와의 정책협의 △7월초 국무회의 출석과 발언 등을 요구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국내법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규약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날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에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국기법 및 시행령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했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 신사참배와 함께 강요됐던 황국신민서사와 다름없는 일제 잔재라는 판단, 애국심을 강제나 훈육을 통해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적 양심 등 다양한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럼에도 법을 통해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호를 의무화하고 강제하는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대한민국 헌법 19조(양심의 자유), 20조(종교의 자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4조(아동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 따르면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떤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 내지 국가의 상징을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 침해 : 학교 현장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제하는 것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비차별)와 13조(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기본법 4조(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12조(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위반하게 되며 특히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2조(비차별)와 28조(교육권), 29조(교육목표)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다.

〈내가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에 반대하는 이유 - 릴레이인시위〉, 소장사진, 2007. 06. 14.



〈당신은 무엇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나요? - 문화행동〉, 사진 박김형준, 2007. 06. 26.



<당신은 무엇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나요?>, 웹자보(스티커), 2007. 06. 29.

당신은 무엇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나요?
 국기에 대한 맹세야
 경례야 안녕

당신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어떤 의미입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 <http://blog.jinbo.net/byebye>

'이제는 보내자, 국기맹세 국기경례'
 맹세와 경례에 대한 불복종 1탄

"어린아들 애국조치 이제 그만~"
 "아이 좀아~"

맹세와 경례는 어린이들에게 무얼 가르치나요?

- ☑ 울동네 어린이집 애국조치 있나 없나 찾아봐요
- ☑ 애국조치 있는 어린이집엔 어린이를 보내지 말아요
- ☑ 어린이집 원장, 교사 설득해서 애국조치 없애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 blog.jinbo.net/byebye

'이제는 보내자, 국기맹세 국기경례'
 맹세와 경례에 대한 불복종 2탄

"그라운드 국가주의의 안녕쇼"

맹세와 경례는 경기장에서 무얼 의미하나요?

- ☑ 국내전에 뭘 애국가? 모두가 일어설 때 안 일어나는 센스~
- ☑ 애국가 나올 때 환호성을 외쳐봐요.
- ☑ 좋아하는 선수나 구단에 편지 써요, 이제 그만하자구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 blog.jinbo.net/byebye



[집중이슈] 맹세야, 경례야 안녕~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 좋습니까?

행정자치부가 지난 달 30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폐지하는 대신 국민의견을 모아 맹세 문안을 새롭게 바꾼다고 발표했다.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1972년 8월 문교부에서 학생교육의 하나로 시작되었고, 1982년 10월 국무총리의 지시로 시행되었으며, 1984년 2월에는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포함됐다.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이다.

'국기에대한맹세문검토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맹세문 수정 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새로운 맹세문을 담은 국기법 시행령은 오는 7월 중에 제정, 공포된다. 시행이 된다 함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규정'에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행자부는 다음과 같이 예시문을 내놓았다.

1.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3.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90여 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하라며 크게 반발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박준규 씨, 역시 경례를 하지 않아 공무원으로서의 책무 방기를 이유로 3개월 정직을 받았던 이용석 교사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반세기, 국가와 국기가 우리 사회구성원들에게 무엇이었는지, 사회구성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돌아볼 일이다. 지금 시점에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수정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와 배경도 뒤집어 볼 일이다.

맹세문을 수정하겠다는 의기양양해 하는 현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맹세문검토위원들에게 묻고싶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대신 '인민에 대한 국가의 맹세문'을 같은 걸 써볼 용의는 없는지.

나(국가)는 자랑스러운 사회구성원들 앞에 인민의 노동권,건강권,교육권,주거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ㅋㅋ

민중언론참세상은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중이슈 '맹세야, 경례야 안녕~'을 릴레이기고 형식으로 다룬다. 취지에 공감하는 독자 여러분의 글의 형식과 분량에 얽매이지 않는 투고를 기다린다. (보내올 곳 : newscham@jinbo.net)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54개 단체, 「성명서 - 주권자에게 텡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2007. 07. 11.

주권자에게 텡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부쳐

지난 6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문을 두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수정 내용이 기존 맹세문에 비춰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은 일단 체쳐두자.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맹세의 내용을 손질한들 충성 서약을 강제하는 형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이 여전히 여전히 국가의 오만이자 폭거라는 데 있다.

1996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학교의 명칭이 과거에 얽매어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데도 행정자치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담았다는 억지를 내세우며 ‘국민’에게 몇 글자 바뀐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무리 ‘맹세’ 안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같은 새 문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것이 낡은 형식이고 인권침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자유와 정의의 개념을 국가가 규정하고 독점한다면 이는 진리가 아니라 폭력일 뿐이다. 미국의 충성 맹세를 보라. 그 나라가 맹세에서 읊어지듯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가진 국가’인가? 게다가 미국은 충성 맹세로 ‘국민’에게 주입된 애국주의를 양분 삼아, 낡고 잔혹한 패권 질서를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한 12세 소년은 이 맹세의 본질을 이렇게 간파한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충성의 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는 ‘충성’의 사전적 의미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는가? 한 개인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어찌 ‘충성 맹세’라는 획일적 형식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나?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맹세’나 ‘효에 대한 맹세’ 따위를 법령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선창시

킬 계획도 가지고 있던 말인가?

정부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국민(nation)’이기를 강요하지 말라. 국가=국민의 등식은 20세기를 피로 얼룩지게 한 국가의 낡은 호명 체계일 뿐이다. 부끄러운 ‘국민’학교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도, ‘국민’을 만드는 ‘맹세’라는 고갱이는 끝내 버리지 않으려 하는가? 이미 여러 외국에서는 ‘국민’이라는 호칭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제는 ‘국가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국민’ 개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자유인으로서의 시민’ 개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국민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기 경례와 맹세를 강제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지적·영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국가의 잘못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 오�히려 주권자에게 텅 빈 충성 맹세를 강요하는 일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국가에 대한 맹세를 강제하는 국가가 어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일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국가야말로 주권자인 시민에게 인권 보장을 서약해야 하지 않겠는가?

행정자치부는 ‘국민’ 다수가 국가에 대한 맹세 유지를 원하고 있기에 ‘폐지는 오�히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가에 대한 맹세를 법제화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국가에 대한 맹세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전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론화하는 절차를 먼저 밟았어야 한다. 최소한의 토론회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한다면, 수십여 년을 ‘국민’으로 호명되어온 사람들이 자신을 ‘국민’으로 키워온 ‘맹세’가 가진 문제점을 되짚어볼 여유가 있었겠나? 국가에 대한 맹세가 인권침해가 아닌 이유를 증명하지도 못한 채 형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자세부터가 사람의 권리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국가에 대한 맹세 법제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들과 관련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미래 세대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자랑스럽지 못한 국가’와 싸울 것이다.

- 맹세문 수정은 필요없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가에 대한 맹세’를 삭제하라!
- 국가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인권침해이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포함된 ‘국가에 대한 경례’ 조항도 삭제하라!

2007년 7월 11일

경계를넘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교수노조/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노동네트워크/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미디어문화행동/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학부모회(추)/ 부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라크평화를향한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국립사범대학생회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개인들)/
팔레스타인을잇는다리/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다고지/ 평화바다/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피자매연대/ 학벌없는사회/ 학생행동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회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유영주, 「제헌절 아침, 헌법제1조는 죽었다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국회 기습 시위」, 민중언론참세상, 2007. 07. 17.

제헌절 아침, 헌법 제1조는 죽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국회 기습 시위

제 59주년 제헌절 행사가 열리는 국회 본청 앞에서 국기법 폐지를 주장하는 기습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활동가 십수 명은 오전 10시 10분 의원회관 앞에 모여 있다 국회 본청 계단 건너편으로 달려와 기습 시위를 벌였다.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조항이 죽었음을 상징하는 검정색 옷을 입은 활동가들은 태극기 위에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다" "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국기법을 폐지하라" "국기에 대한 맹세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40분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활동가들은 시위 중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죽었다'는 제목의 유서가 담긴 유인물을 뿌렸다.

퍼포먼스를 펼친 활동가 15명은 구로경찰서와 방배경찰서로 연행됐다. 연행된 활동가는 배경내, 팽이눈, 이재영, 홍이(인권운동사랑방), 최정민(평화인권연대), 여옥(전쟁없는



▲ 의원회관 앞에서 본청 계단 쪽으로 달려오는 활동가들



▲ 태극기와 프랭카드를 펼치는 장면

세상, 김희정(교육공동체나다), 박고형준,다이루,오병현,양아치,득선(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배태섭(진보 교육연구소), 안종국(학벌없는사회), 강영석(원불교인권위) 등이다.

이밖에 청소년신문 '청소년의눈' 기자라고 신원을 밝힌 조만성 기자도 연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 태극기를 깔고 드러누운 활동가들

유서 :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죽었다

헌법 제1조의 유서

아, 당신을 두고 먼저 가려니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에 지쳐 코고는 당신이 벌써 그리워지는군요. 지지리 못한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나를 위해 아무런 대가도 없이 헌신해 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없더라도 너무 많이 슬퍼 말고, 밥 꼬박꼬박 챙겨먹고, 늘 씩씩하게 살아갈 것을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당부합니다. 특히 당신과나의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지켜보지 못해 정말로 미안할 뿐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기 위한 삶... 어쩌서 나는 이토록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나의 약속은 오늘까지 62년 동안이나 철저히 부정당해 왔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자가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게 곧 국가의 권력이었으니까요. 아, 차라리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지말았어야 할 존재였을까요?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하는 내가 아무리 ‘주권은 당신에게 있다.’고 말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주권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온 기만덩어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내가 태어난 오늘, 국가는 주권을 가진 당신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당신이 국가에게 무조건 충성할 것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인 나를 파괴하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만들고, 텅 빈 ‘국기에 대한 맹세’로 당신의 주권을 짓밟는 국가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호도하고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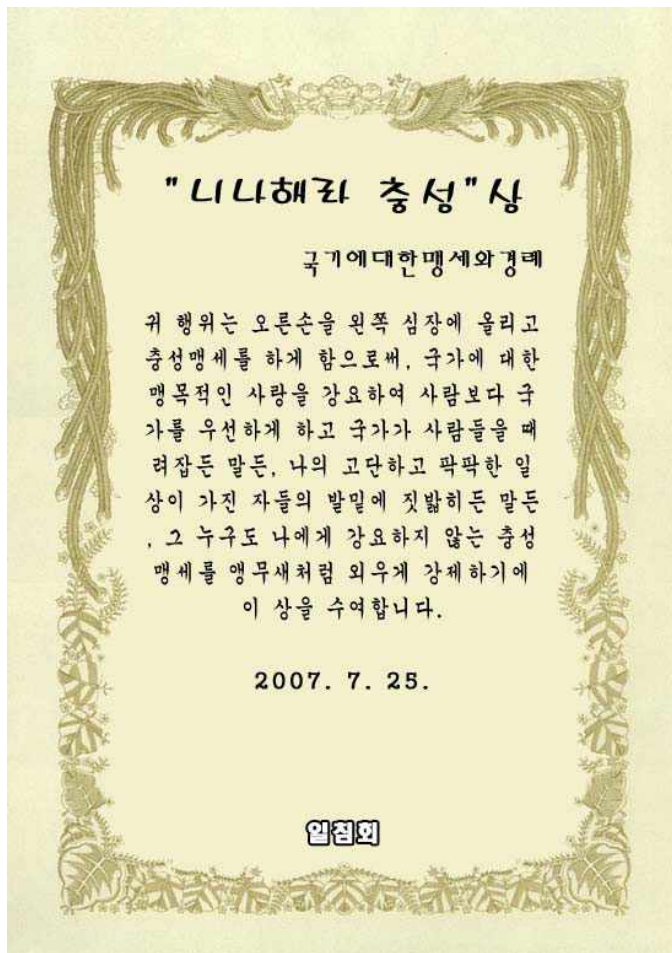
이에 나는 오늘 내가 태어난 이곳에서 나 자신의 존재 모순을 폭로하며 비참한 예순 두 해의 삶을 마감하려 합니다. 그것만이 빼앗긴 당신의 제헌 권력을 되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헛된 기억은 태워서 한 줌의 재로 한강에 뿌려주면 됩니다.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2007년 7월 17일 제헌절 아침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일침회, 「“니나 해라 충성 상” 국기에대한맹세와경례」, 인권오름 제64호, 2007. 07. 25.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니나 해라 충성”상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수상이유>그대, 받을만하다!

#1 한 연인이 있었다. 어느 날 힘이 센 애인이 와서 근엄한 표정으로 매일 아침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랫동안 사귀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 중 힘이 센 한 친구가 굳은 표정으로 매일 아침 자기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친구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불러 앉혀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매일 아침 당신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고 말했다.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부모님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을 본적 있나요? 소중한 연인, 친구, 가족 그 누구도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데, 대체 뭐길래 유독 당신만은?

#2 일하는 사람들이 해고하는 회사를 향해서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는데, 끌어내서 내팽개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침략전쟁을 도와 이라크에, 아프카니스탄에 군대를 보내 학살을 돕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새만금에 물을 막아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을 말라죽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사람들의 사생활을 일일이 도청하고 엿보려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돈 없으면 아파도 병원 가지 말고 참으라고 강요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군부대를 짓는다고 높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내가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만큼은 완전 썩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운”의 뜻을 모르는 그대, 억지는 이제 그만~!

〈부상〉약소하지만, 정성을 담았어요!!



은하철도999 티켓

은하철도999라는 기차가 있다. 안드로메다성운의 기계제국을 향해 달리는 이 기차에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이 이번 수상의 부상이다. 국기를 향한 맹세의 강요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별 어디에 있어도 억지스럽고 전체주의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번 부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구를 떠나라”.

맹세와 경례는 프로그래밍되는 기계에나 어울리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어디 있을 데가 없다. 함께 하는 철이와 메텔에게 미안할 뿐이다.

〈경합을 벌인 후보〉 난형난제 막상막하

이번 시상식의 주요 평가 항목은 ① ‘국가’, ‘국익’, ‘국위선양’ 등의 단어를 들었을 때 충성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정도(충성도) ② ‘국가’ 앞에서 얼마나 쪼그라들 수 있는가(겸손함) ③ 국가주의를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있는가(성실성) ④ ‘국가’의 부름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도둑질이라도 하고 보는 성질머리(단순함)였습니

다.

맹세와 경례는 지난 수십년간 학교, 군대, 야구장 등에서 직접 발로 뛰며 국가주의를 전도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였으나 **기사 마감 1시간 전까지 일침회를 갈등케 했던 후보가 있었었으니,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한양석 판사님!!!**

맹세와 경례가 뿌려댄 은혜로 충만했던 그때 그 시절의 향수에 잠시 젖으셨던 걸까요? 판결문에 그 꼬란내를 고스란히 흠뻑 풍겨내신 내공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판사님은 지난 6일, 소속팀 미성년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수 전 우리은행 농구 감독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라는 ‘과격세일’, ‘완전공짜’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인자하시게도 숨방망이 판결로 그를 감싸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마나 판결의 이유 중 하나, 바로 박씨가 ‘10여년간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농구계 발전과 국위선양에 힘쓴 점’을 높이 사셨기 때문이죠. 국가를 위해 애쓴 사람한테 너무 야박하게 굴면 어떻게 감히 국기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도 버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도 버리고, 오로지 국가 앞에 절절한 충성을 보여준 한양석 판사님! 국가가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시길…….

덧붙임. ◎ 글쓴이 [아니꼬운 세상에, 일침회]는 재치있는 풍자와 익살스런 해학 담긴 수다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아니꼬운 세상에 일침을 가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파이루,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1)』 「국기에 대한 맹세, 죽음의 폭력을 거부한다」,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18.

국기에 대한 맹세, 죽음의 폭력을 거부한다

[집중이슈 : 맹세야, 경례야 안녕~](1)

파이루(중2)

학교와 사회, 그리고 국기는 나와 우리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를 강요한다. 그러나 학교와 사회, 국가는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왔는가에 대한 진실은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않는다. 오직 애국만을 외친다. 그들은 우리에게 폭력을 통해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를 강요한다.

월요일 아침 똑같은 머리, 똑같은 옷을 입은 학생들은 월요 아침조화를 한다는 방송에 모래알만 가득한 운동장으로 나온다.

마이크로 "차렷! 열중 쉬어!~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라는 소리와 함께 지겨운 교장선생님의 잔소리를 듣는다. 잔소리가 끝나고 나면 근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목소리 굵은 아저씨가 씨부렁거린다.

그때 선생님들의 눈은 최신 레이더가 되어서 떠드는 아이, 앞을 안 보고 있는 아이, 손 안올리고 있는 아이를 찾는다. 그리고 찾아가서 뒤통수를 후려갈기면서, 아주 '친절한' 욕설과 함께 앞을 보라고 하신다. 여기서 끝나면 행운이다. 방과 후 청소, 반성문, 받을 거 다 받아낸다.

이런 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강요! 내가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난 나보다 전체가 우선시 되는 것이 싫다. 그리고 국민보다 국가가 우선시 되는 것도 싫다.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보다 전체가 우선시 되는 사회, 국민보다 국가가 우선시 되는 나라에서는, 우월하다와 우월하지 못하다를 나누고, 우월한 이들이 우월하지 못한 이들을 괴롭힌다. 그렇게 죽음의 폭력은 시작된다.

그래서 난 나보다 전체가 우선시 되는 사회, 국민보다 국가가 우선시 되는 국가를 만드는, 유지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거부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받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집니다.”

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충성하라고 다짐시킨다. 그리고 민족! 이 민족은 도덕교과서와 사회교과서에 맨 날 나오는 '단일민족'을 말한다. 대한민국에 오리지널 단일민족이 아니면 차별 받는 거,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가 존재하는 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아무리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그건 가식일 뿐이다. 이렇게 학교와 사회, 국가는 죽음의 폭력을 내면화시키고 차별을 내면화시키고 있다.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를 거부한다. 그것은 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강요에 대한 항의, 더 큰 죽음의 폭력을 막기 위한 작은 평화의 행동, 사람이 사는 세상을 위한 침묵의 외침이다.

덧붙이는 말

다이루 님은 서울 구로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이다.

김현호,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2)』 「“국기에 대한 강요된 경례와 맹세는 이상숭배”」,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19.

"국기에 대한 강요된 경례와 맹세는 이상숭배"

[집중이슈 : 맹세야, 경례야 안녕~](2) - 크리스찬 김현호 님

김현호(부산)

나는 기독교인이다. 내가 존경하는 조만식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 전명운 의사님 모두 크리스찬으로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다.

오늘을 사는 나도 대한남이로서 병역도 필하고 개인 사업을 하며 성실하게 세금납부도하며 조국을 한없이 사랑하고 NGO 활동도 한다. 그럼에도 가끔씩 학교나 국가행사에 갈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구호와 함께 울려 퍼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낭독될 때마다 무척 마음이 불편하다. 약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손을 어디다 두어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나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과 맹세문을 외우지 않는다.

그것은 순전히 신앙 양심에 기초한 행위이지 애국적 동기가 불순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님을 밝힌다. 중학교 1학년 때 국기 배례 거부 사건으로 퇴학을 당한 후 내 청소년 시기에 만만치 않은 굴곡을 겪어야 했다. 고향까지 떠나야 했으니까...

나에게 신앙의 자유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는데 영향을 주신 분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르셨던 목사님이셨다. 그는 독립된 조국에서 일제와 똑같은 국가주의의 모순을 보고 저항하셨다. 성서의 계율을 지키던 신자에게 억지로 일장기 경례와 동방요배와 오정목도를 강요할 때 이를 거부하다 감옥에 갔다가 순교직전에 해방을 맞아 죽음을 면했는데 군사정부는 일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전체주의적인 강요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였다.

이젠 지나친 애국주의 강요로 인해 자랑스러운 시민권을 불편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강요된 신사참배가 이상숭배라면 강요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이상숭배가 아니란 말인가? 나에게 있어 그저 국기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일 뿐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애국주의의 덫을 벗어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일 것이다.

◎ 1972년 전남 광양군 진월면 오사리 중앙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 50여 명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함께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오사재건교회 주일학교 교사 양영례 씨는 구속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으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던 김현호 씨는 2년 뒤 진월중학교에 진학했지만 국기 경례 강요에 못 이겨 1년을 못 채우고 자퇴를 해야 했다. 지금도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있다.

완군,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3)』 「차라리 그까짓 국가를 빌려 버릴까 하는 충동」,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0.

차라리 그까짓 국가를 빌려 버릴까 하는 충동

[집중이슈 : 맹세야, 경례야 안녕~](3) - 완군 문화연대 활동가

완군(문화연대)

그래요, 곧잘 난 사랑이란 거대한 무력 앞에서 꾸역꾸역 ‘맹세’란걸 했었어요. 그때 달리 무얼 더할 방도도 없었으니까요.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잉여 감정이 사라지고, 슬기운에 들썩이던 세포도 숨을 죽이고, 도저히 철들 것 같지 않은 나이에도 봄날은 가고 나니 찬란하게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런 제기랄. 잉여 이성을 부족 상태인 감정에 자꾸 들이붓던 모든 행위들이. 또다시 사랑을 하겠지만 이젠 ‘맹세’라는 걸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국기에 대한 맹세’라니요. 한때 아무도 그걸 거절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지요. 맹세를 대행 수령하는 선배가, 담임이, 학생주임이, 교장이, 상사가 일수쟁이 도장 찍듯 그걸 거뒀었으니까. 나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누구라도 그걸 거절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난 아직도 멍하니 앉아 있을 때면 그 우스꽝스런 광경이 떠올라 온 몸에 소름이 끼쳐요.

2002년이었던가, 개미 새끼들 까지도 경적을 울리며 국기를 흔드는 풍경이 가관이라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기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고 말한다면 정신 감정이라도 의뢰해야 할까봐. 그건 차라리 거대한 “국가 이미지 사가”에 가까워 보여,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시선으로 어느새 내 정신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가끔 나의 공상들은 너무 막막하고 기가 막혀서 나조차 질려버려.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굳게 맹세하며 잠이 들고 또다시 일어나 신문을 펼쳐들면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어제의 스포츠문화정치경제사회면의 귀퉁이를 장식하고 있으니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일이야.

내게 ‘국기에 대한 맹세’가 그런 일이라고 할까. 여기가 자꾸 또 자도 해가 솟지 않고 늘 밤인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지. 정말이지 그 누군가에 묻고 싶어.

“나에게 그 국가를 하루만 빌려줄 수 없나요? 이놈도 그따위 맹세를 통해 국가에 대한 뭔가 몽클함이 한

번 더 생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될 텐데... 그럼, 쉬이 편할 텐데. 이래 봐도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애국주의자였답니다. 지금은 당연히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런데 감히 어찌 맹세 따위를 할 수 있겠어요. 경찰을 동원해 날 때리지만 않는다면, 앞 다뿔 고리사채와 매매혼을 장려하지만 않는다면, 꼬질꼬질한 손에 동전 몇 푼 쥐어주며 생색만 내지 않아도, 애국조화가 내 꿈에 악몽으로 재현되지만 않아도 어떻게 해 볼 텐데... 뭐 그래도, 아직 거짓 연기 하나만은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 나에게 차라리 국가를 빌려줘요”

박진환,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4)』 「우리 안에 기미가요(君が代), 히노마루(日の丸)는 없는가?」,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1.

우리 안에 기미가요(君が代), 히노마루(日の丸)는 없는가?

[집중이슈 : 맹세야, 경례야 안녕~](4) - 박진환 님

박진환(교토대)

6월초,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 그 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한국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담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국가, 민족주의 그리고 군사주의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밖의 만남에서, 최근 '국기에 대한 맹세'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번째는 평소 군사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필자의 머릿속에 '국기에 대한 맹세'가 학창 시절(교문 앞에서 선생님의 감시 아래 정중하게 했던) 추억 하나로만 남아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교육현장에 있는 분으로부터 아직까지도 '국기에 대한 맹세'가 교육현장에 건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이었다.

그 순간 일본의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이라는 존재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사냥거리가 아닐 수 없다. 바로 반일 감정이다. 반일 감정이 있기에 한국사회의 민족주의가 튼튼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미가요와 히노마루. 듣는 것만으로도 반일 반정이 꿈틀거릴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반일 감정에 열을 올리기 이전에 혹시, 우리 안에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는 없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국기국가법 제정과, 최근의 교육기본법 개정 움직임은 우리의 성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1999년 7월과 8월 일본의 중, 참의원에서 국기국가법(國旗國歌法案)이 가결되어, 일본의 국기는 히노마루, 일본의 국가는 기미가요로 정해졌다.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애국심 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미가요 제창과 히노마루 계양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는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며 한목소리로 비난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들이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일본 군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상징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기미가요와 히노마루에 충성한, 그리고 충성을 강요받은 사람들이 전쟁에 내몰려 죽어 갔음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기미가요와 히노마루에 반대해 기립, 제창을 거부한 선생님들이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상태이다. 그들은 자신의 학생들이 다시금 전쟁에 내몰리게 하는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도쿄(東京)에는 기미가요와 히노마루에 반대하는 160 이상의 원고단이 구성되어 법정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 각지 선생님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선생님들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국 사회로 돌아와 보자.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 다치는'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목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달려와 목숨을 바치라는 것이다.

우리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일본의 기미가요, 히노마루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기미가요 제창과 히노마루 제창을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면 반대한다면, 바로 그 반대 논리대로라면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리고 폐지되어야 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새롭게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이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내용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 근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는 군국주의(한국사회에 있어서는 군사주의라는 단어가 더 적당할지도 모르겠다)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애국심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입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일본 정부가 교육기본법 제정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그를 위해 기미가요 제창과 히노마루 제창을 부활하려는 움직임과 다를 바 없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로 향해가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제 우리 안을 들여다보자.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안의 기미가요, 히노마루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 안에 기미가요, 히노마루는 없는 것일까.

덧붙이는 말

박진환님은 일본 교토대학에서 동아시아 군사주의를 연구하고 있다.

용석,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5)』 「내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2.

내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집중이슈 : 맹세야, 경례야 안녕~](5) - 양심적 병역거부자 용석 님

용석(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번째 편지

하루 종일 듣고 있어도 지겹지 않고, 밤을 새서 불러 보아도 언제나 설레는 마음. 노래를 불러 봐도, 그림을 그려봐도, 온 몸으로 춤을 춰 봐도,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다가서면 멀어지는 지평선 같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최고의 선물, 사람.

제 또래의 어느 아이들처럼 저도 한 때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아픈 과거에 눈물 흘렸고 우리의 용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위험할 때에는 내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내 사랑을 구하리라 다짐했었죠. 그 때 제 사랑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참 어리석었었죠. 언제부턴가 저는 저의 사랑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의 정글과 이라크의 사막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사랑이 악용되고 있구나. 내 고귀한 사랑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고서 저는 심하게 부끄럽고 심하게 죄스러워 차마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참 요상하지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보이고, 온갖 허물을 다 용서할 수 있었는데, 콩깍지가 벗기니 안보이던 것이 보이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남도의 붉은 흙을, 동해의 높은 파도를, 저 깊고 넓은 지리산을, 일상에 휘청거리는 서울의 어느 골목길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비루한 군상들과 그들의 밥상을 채우는 익숙한 음식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것들이 당신과 동일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책임은 있겠지요. 진실을 바라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자꾸만 화가 나요. 당시에 대한 나의 사랑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당신에 의해서.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들이

마치 당신인 마냥 나를 속여왔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문을 걸어왔습니다. 반복되는 주문만큼 강력한 마법은 없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제 사랑의 실체를 알아 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주문에 걸려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그만두세요. 사랑은 신이 내려주신 감정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제 의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사랑의 감정은 그 어떤 찬사로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 낼 수 없지만,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강요된 사랑은 그 어떤 악취보다도 초라하고 구차합니다. 그러니 제발 내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두 번째 편지

나와 당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나 제 부탁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펜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당신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곰곰이 당신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나를 속이고 나에게 사랑을 강요했기 때문도 아니고, 당신이 내 사랑을 악용해 몹쓸 짓을 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과 평화를 해치는 일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당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관계인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신이 너무나 거대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너무 거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무자비한 폭력인지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과 나의 힘의 차이는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런 관계에선 애초 동등한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거대한 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의 거대한 힘에 묻혀 저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랑도 존재가 독립하지 못하고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의 존재가 소멸하는 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선 다른 많은 것의 사랑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인 만큼, 저는 보다 많은 것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로지 당신에 대한 사랑만을 제게 강요합니다.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사랑끼리 충돌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사랑이란 탈을 쓴 복종을 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포기함으로써 저는 더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사랑만 하기에 짧은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당신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끊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둘러봐도 당신의 흔적이 펼쳐져 있으니깐요. 깊은 산속은 물론이고 저 하늘과 바다까지 인간의 것이 아닌 세상에도 당신의 손길이 뻗어 있다는 것이 놀랍고 씁쓸합니다. 이 현실을 인정한다면 당신과

난 사랑이 아닌 다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어떤 관계일지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적어도 당신의 거대한 힘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서로에게 건강한 관계일 겁니다.

하지만 끝끝내 당신이 저에게 사랑만을 강요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의 무지막지한 힘이 두렵지만 당신과 맞설 수밖에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당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당신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전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제가 없으면 당신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덧붙이는 말

용석 님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현재 수감되어 있다.

박노자,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6)』 「 '맹세의 문화' 가 키운 것 」,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5.

‘맹세의 문화’가 키운 것

[집중이슈 : 맹세야, 경례야 안녕~](6) - 박노자

박노자(오슬로대)

요즘 들으니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 텍스트를 약간 고칠 뿐 본격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두려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냥 쓴 웃음이 나오지요 소련에서 태어난 죄(?)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기에 대한 온갖 맹세들을 급우들과 함께 수도 없이 하곤 했어요 그런데, 소련이 막상 망하니 이 급우들 중에서는 할복이나 거병은 물론, 약간이나마 신경을 써준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강요되는 맹세들을 달달 외우면 외울수록 냉소만 강화될 뿐이지요 맹세를 통해 마음 속의 진정한 사랑을 키운 경우를 어디에서 본 분이 계세요?

초등학교 3학년, 제 나이 9살. 제가 그 때에 소년공산당 (피오네르) 입단식을 치르면서 빨간 깃발 앞에서 "심신을 바쳐 모든 힘을 쏟아 공산당의 사업을 복무하도록 할 것"을 엄숙히 맹세했지요 나중에 거의 다달이, 무슨 행사할 때마다 역시 "공산당 사업을 위한 투쟁에 준비돼 있으라!"는 구령에 따라 "네,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거수경례를 했지요 아마도, 그 구령을 지금이라도 들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거수경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도 엄숙한 표정으로 "맹세"를 외쳤던 그 급우들은, 나중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냈을까요 "아, 저 대머리 발로다를 보기만 하면 즐나 웃겨 못 참겠구먼. 아까 식을 치르면서 겨우 참은 거야"

이 "대머리 발로다"는 바로 그 깃발에서 그 얼굴을 나타냈던 블라디미르 레닌이었습니다("발로다"는 "블라디미르"의 애칭). 강요된 맹세를 하면서도 국가의 의례에 대한 염증만 키운 것이지요.

결국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거래의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는 국가가 제시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면 아무리 많은 애국 의식들을 강제해봐야 별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구 소련 같으면, 지식 청소년들에게 살아 숨쉬는 혁명적 정신도 진정한 자유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노동계급의 청소년들 보기에는 간부들만 외국

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럽게서리 잘 사는 불평등한 국가였습니다.

결국 국가로부터 그 충성에 대한 어떤 가치 있어 보이는 보상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에 상당히 냉소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차피 실생활에서 지켜지지도 않는 공산주의 이상들은 냉소와 조소의 대상이 돼도, "맹세의 문화"가 강요했던 일상적인 군사주의 정도는 잘 뿌리를 내렸지요

제 급우들의 절대 다수는, 아프간에 가서 "야수와 같은 폭도"(무자헤드)들을 잡아죽이는 것을 "진짜 남자다운 일"로 생각했으며, 학교를 방문하여 "애국 애군 미담"을 나누었던 아프간 침략의 상이병들에게 영웅대접을 해주었지요 이들이 국가를 별로 정의롭고 평등한 것으로 보지 않았지만, 전우애로 뽕뽕 묶여진 "진짜 사나이의 집단", 즉 군부대를 "남성의 마음의 고향"으로 여겼지요. "맹세의 문화"는 애국 시민을 키울 수 없어도, 살인훈련에 무신경이 된 꼴통 마초 만들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의 지배자들이 이 "맹세의 문화"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지요

한국 대학생들에게 여론조사해보면 대다수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북유럽/일본/스위스에서 태어나겠다"고 답합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에 대한 그 무슨 주문을 외우게 해도, 자랑스러운 태극기의 그늘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안 고쳐질 것예요. 국민연금이라고는 용돈 정도 주면서도, 제대로 된 실업수당도 교육/의료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도 남성들에게 유럽에 비해 두 배 긴 기간을 여건이 아주 열악한 군에서 보내게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게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소수일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주문을 외우게 하는 대신에 사립재단이라도 제대로 감시하여 재단 이월금을 교육 사업에 쓰게 해서 등록금 인상이라도 잡아주었으면 나라에 대한 애착이 강한 시민 키우기에 훨씬 더 주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기 앞에서의 맹세"의 문화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같은 소수자들을 이지매하는 분위기 만들기에 아주 "기여"할 것입니다. 다들 하나같이 맹세를 외우는 데에 혼자 외우지 않는 사람이 늘 배제 당하고 맙니다. "맹세의 문화"는 자신의 마음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혼자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이지요 맹세라면 같이 하는 것이고, 개인의 판단이란 이미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맹세의 문화"는 자신만의 얼굴이 없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키웁니다. 그게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사명일는지도 모르지요...

덧붙이는 말

박노자 님은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고동주,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7)』 「국가의 도구, 그 인생은 행복할까?」,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6.

국가의 도구, 그 인생은 행복할까?

[집중이슈 : 맹세야, 경례야 안녕~](7)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고동주 님

고동주(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한 지 7개월 쯤 되던 2월 중순에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받았다. 일주일 정도의 교육으로 '자기 소개하기', '인생 평가하기', '인생 계획하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눈 가리고 활동하기' 등 식상하기는 했지만 나름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교육이 진행되면서 그 종착점의 방향이 점점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개인의 인성을 개발하는 목적이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모아진 것이다.

'인생 평가하기'에서 4가지 항목에 맞춰 평가를 했는데, 개인적 관점→가족적 관점→이웃·사회적 관점→국가적 관점으로 확장되어 평가하게 되어 있었다. '인생 계획하기'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국가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에 따라 평가하고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지에 맞추어 계획하라는 것이었다.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날 폐회식 때는 역시나 국민의례가 진행되었다. 개인을 국가의 도구로만 길러내는 교육의 마지막 체험학습이었다. 나는 가진 자의 배만 불리고, 가난한 이들은 전쟁으로 몰고, 산천을 파괴하는 것을 이익이라 보는 국가에 내 몸과 마음을 바치고 싶지 않다. 내 몸과 마음의 자유를 빼앗아 가지 말아 달라.

덧붙이는 말

고동주 님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영등포구치소에 11개월째 수감되어 있다.

안병주,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8)』 「 “도해물과 배뚜사이 마르고 다또록~” 」,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8.

"도해물과 배뚜사이 마르고 다또록~"

[집중이슈 : 맹세야, 경례야 안녕](8) - 학부모 안병주 님

안병주(학부모)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만 되면 솔재(5살), 솔찬이(2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꼭! 어김없이! '애국조회'를 한다. 태극기를 어린이집 앞마당에 걸어놓고, 아이들을 옹기종기 반별로 줄을 세우고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는다.

이제 태어난 지 18개월인 솔찬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가슴에 손을 얹는 시늉을 하고, '우워우어' 중얼거리기만 한다. 어엿한 5살 어린이 솔재는 제법 의젓하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애국가'를 목이 터져라 따라 부른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지나친 관행이다.

한번은 부모면담 시간에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선생님, 애국조회 안 하면 안 되나요?”

선생님, 참으로 황당한 표정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교육과정의 하나인 '애국조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참으로 기막히다는 표정이다. 돌아온 선생님의 답변은 그런 문제는 원장선생님과 의논해보란다. 결국 나는 이 문제를 원장선생과 의논하지 않았다. 돌아올 답변도 뻔하거나 지루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돌아섰다.

국기에 대한 맹세나 애국조회 이따위 것들을 아직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이유는 무얼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인지도 의문이다. 애국조회 안하는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 달달 외운다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게 되냐?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른다고 당신들이 원하는 애국가 되냐? 개뻥다구 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오, 다들. 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에 충성'하기보다 친구들과 이웃들과 즐겁고 평화롭게 놀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한다고 책상머리에 앉아 고민하고 국민들 세금 쓰는 거 대신 아이들 좀 안전하고 편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좀 제대로 만들 고민을 하지. 제기랄!

여하튼 당신들의 '애국'을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았으면 한다. 아무 의미도 없는 유치찬란한 국기에 대한 맹세도 더 이상 아이들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른들의 위선을, 당신들의 그 무모한 애국주의를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들지 마라. 아이들은 당신들보다 충분히 평화롭기 때문이다.

요즘 솔재는 아빠를 골려주는 방법을 발견(?)했다. '애국가'를 부르면 싫어한다는 것을 안 것이다. "도해물과 배투사이 마르고 다희룩~" 이렇게 부르곤 자기 혼자 킁킁대는 게 나를 골려주는 방식이다. 나도 굳이 싫다는 말을 이제는 안한다. 대신 이 노래를 불러준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근데 이 녀석 이 노래는 절대 따라하지 않는다. 알땀이다. ^^;

덧붙이는 말

안병주 님은 솔재, 솔찬 두 어린이의 아빠이다.

김훈태,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9)」, 「초등학교 애국조회, 그 쓰라린 패배의 기억」, 민중언론참세상, 2007. 06. 29.

초등학교 애국조회, 그 쓰라린 패배의 기억

[맹세야, 경례야 안녕](9) - 군문초 교사 김훈태 님

김훈태(군문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맞는지 모르겠다. 국기에 대한 맹세. 곱씹어 볼수록 나치스럽다. 나는 태극기가 자랑스럽지 않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나의 조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이다. 정이 떨어졌다. 평택의 대추분교가 무너지던 날 나는 깨달았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나라라는 것을.

교직 4년차 되는 해에 나는 전담을 신청해 담임을 맡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 수감되었다. 전담을 택한 표면적인 이유는 대학원 진학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병역 거부의 충격을 담임교사로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고, 다른 하나는 애국조회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서였다.

새로 부임한 교장은 운동장 조화를 유난히 좋아해서 월요일과 토요일마다 전교생을 운동장으로 불러내 훈화를 했다. 담임교사들은 아이들을 여자 한 줄, 남자 한 줄의 이열종대로 행진곡에 맞춰 데리고 나가 운동장의 정해진 줄에 세워야 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차렷, 열중 쉬엣, 차렷의 부동자세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하고 애국가를 부르도록 지도해야 했다.

이어지는 교장의 훈화는 대개 나라 사랑과 효도, 질서와 청결, 근면 따위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애국조회가 지긋지긋하게 싫었다. 식민지 시절 일왕에게 바치던 일련의 조회 행위와 전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었다. 뜻있는 분들의 운동에 의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애국조회를 비롯한 식민지 잔재는 전혀 청산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절망스러웠다.

천황을 상징하는 히노마루에 경례를 하고 황국신민으로서 충성 맹세를 한 뒤 기미가요를 부르던 아이들은 교사가 되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해방 조국의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배웠던 것을 그대로 강요했다. 독재자를 위해서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일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에 저항감을 덜 갖는 이유는 저항적 민족주의 때문이 아니다. 보편화된 극일정서는 청산되지 못한 일제 잔재를 은폐하기 위한 가면일 뿐이다.

단지 우리의 주인이 일제에서 미제로 바뀌었을 뿐, 기존의 체제는 굳건하다. 식민지 교육은 여전한 것이어서 아이들은 국가교육이라는 새 이름 아래 식민화되고 있다. 우리의 근대는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키우지 않는 것이다. 근대가 꿈꾸었던 시민적 주체로서의 개인은 탈근대를 모색하는 현재에도 요원한 일이 되었다. 우리는 국가교육을 통해 주인의식을 국가에게 빼앗기고, 그 잘난 국가는 다시 미국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

이라크 파병과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한미FTA는 그러한 현실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들 역시 자발적으로 영어를 미친 듯이(!) 배우고, 미국으로 유학가지 못해 안달이다. 잘못된 교육은 이렇듯 인민 전체를 병들게 한다.

일본에서 부활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이슈화되기 전까지 우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 애국가는 너무나 당연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였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단이자 비(非)국민으로 치부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대한민국교'의 신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나 불교 같은 종교는 그에 비하면 한 꺾발 아래인 것으로 하느님과 부처님의 뜻에 따라 총 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쓰레기 치우듯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개인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받지 못할 수밖에.

이제 다시 내 얘기로 돌아가 본다면, 나는 미력하나마 저항했다. 국기에 대해 경례하지 않았고, 맹세하지도 않기 시작했다. 애국가도 부르지 않았다. 어느 날은 애국조회 시간에 아이들을 교실에 붙잡아 두기도 했다. 교무회의 시간에 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설문지를 전 교직원에게 돌려 애국조회를 하지 말자고 선동도 했다. 아이들에게 토론도 시켜보았다. 그러나 허사였다. 동료 교직원들은 뜻에는 공감했으나 움직여 주지는 않았다. 나는 지쳐갔다. 현실을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아이들조차 애국조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나는 내 뜻을 강요할 수 없었다. 전담교사를 선택한 것은 그래서였다. 차라리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한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나에게 그것이 패배감으로 남아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국민 여론과 상관 없이 폐지돼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도 마찬가지이다. 국기법이 제정되면 이제 양심에 따라 국기에 대해 경례나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거꾸로 가는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교'를 믿지 않는데 왜 '그들'의 우상을 향해 경배하고 맹세해야 하는가?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권위에 순종하여 안정과 쾌락을 얻으라고 교육받았다. 처벌과 훈육을 통해 각인된 노예의식은 우리의 얼굴을 빼앗아갔다. 교육은 이런 게 아니다. 참된 교육은 스스로 주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주인된 자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야 한다. 새 조국의 건설에 동참하는 이, 부디 용기내길 바란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덧붙이는 말

김훈태님은 군문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병역거부로 현재 논산구치소소에 1년 2개월째 수감중이다.

네즈 키미코,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10)』 「맹세, 경례 법제화 반대 투쟁하는 한국인 여러분께」, 민중언론참세상, 2007. 07. 03.

맹세, 경례 법제화 반대 투쟁하는 한국인 여러분께

[집중이슈 : 맹세야, 경례야 안녕](10) - 도쿄 교사 네즈 키미코 님

네즈 키미코(도쿄) 2007.07.03 08:21

저는 도쿄(東京)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일본인 네즈 키미코(根津公子, 56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가 새롭게 옷을 입고, 법제화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재 일본의 상황을 한국에 알리고, 한국의 교육 당국에 항의하고자 이 글을 보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육은, 어느 쪽을 막론하고 국가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을 막지 않는다면, 점점 더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이 움직임을 막아야 합니다.

그럼 현재 일본의 상황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1989년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에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제창하도록 지도한다"라고 명시되어, 그때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히노마루(日の丸), 기미가요(君が代)가 졸업식, 입학식에서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는 국기국가법(國旗國歌法)이 성립되어, 더욱 더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노마루, 기미가요의 실시율이 낮은 히로시마현(廣島縣)에는 문부성(文部省, 한국의 교육부)이 개입, 처벌을 내리는 방법으로 실시율을 올린 예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도쿄에서는 2003년 10월 23일, 도쿄도교육위원회(東京都教育委員會)가 “국가 제창 시, 기립하여 제창할 것. 이 통지를 근거해 교장은 교장이 발령한 직무 명령을 위반하면, 복무 여부를 물을 수 있다”라는 통지(10월23일)를 내려보냈습니다. 이 통지로 인해, 현재까지 381명의 교직원이 처분을 당했습니다.

처분은 횡수가 반복될수록 더욱 무거워집니다. 제 자신은 현재 ‘정직 6개월(6개월간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음)’에 처해 있습니다. “정직 6개월, 그 다음 징계는 없다”라고 교육위원회가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 해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직 3개월’ 중인 가와라이 준코(河

原井純子, 57세)씨의 경우도 “교원 신분인 이상, 그리고 교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후대년에는 면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선생님들이 기립을 거부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저의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히노마루, 기미가요의 역사적 사실을 은폐한 채,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기립, 제창을 강요하는 것을 통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에 익숙하게 하는 행위는 교육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헌법에 명기되어 있듯이, 일본은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더욱 더 히노마루, 기미가요 앞에서 기립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교육기본법(教育基本法)이 개악되기까지 했습니다. 개정 교육기본법은 개인보다도 국가를 우선하는 사람을 만들고, 애국심을 심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면허법을 개정해, 10년 갱신제를 도입하는 것도 국회에서 가결, 성립되었습니다. 10년마다 갱신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의 기준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히노마루, 기미가요에 반대하는 교원의 자격이 갱신되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또, 여당인 자민당 의원은 거리낌 없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학생이 되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격차는 경제 활력의 원천이다”, “경제개혁은 애국심과 세트가 되어 시작하면 성공한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면, 일본은 70년 전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병사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 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강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움직임의 중심에 있는 히노마루, 기미가요의 강제에 반대해, 저는 기립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투쟁해 가는 것 외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교직원 노동조합은 이 투쟁을 조직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양심적인 교원, 시민과 함께, 작지만 크게, 그리고 강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의 법제화에 반대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 나갑시다.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 당국에 항의문을 보냅니다.

항의문

수신 : 한국 교육부

발신 : 일본 도쿄도(東京都) 교원 네즈 키미코(根津公子)

일시 : 2007년 6월 29일

제목 :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에 반대하며, 즉시 법제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나는 일본의 수도 도쿄도의 교원이다.

한국 정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를 강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움직임에 항의함은 물론, 그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강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보다 국가의 의사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의사가 우선시 될 때야말로, 국가 간 폭력에 의한 경쟁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타국민에 대해서도 자국민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2. “중군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하며, 일본이 애국심 교육을 강행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하거나, 때로는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이번의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의 법제화는 일본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은 물론, 한국 사람들은 주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전쟁 책임을 깊이 반성하지 않고, 전후 보상도 하지 않은 채,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전쟁 책임을 묻는 것을 방치해 왔다. 게다가 “애국심”을 심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아이”를 만드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것이 교육기본법 개악이며, 히노마루, 기미가요의 강제이다.

한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와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의 법제화, 그리고, 사회와 학교에의 강제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덧붙이는 말

네즈 키미코(根津公子) 님은 도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애국자가 없는 세상

[집중이슈 : 맹세야, 경례야 안녕](11) - 밀양 밀성고 교사 이계삼 님

이계삼(밀성고) 2007.07.04 14:39

언제부터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아마 군 제대 뒤로부터 저는 국기 경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역설적인데, 군대에 있으면서 ‘양심’이란 것에 대한 자의식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교직에 들어서고 나서도 다른 일은 어찌어찌해서 참고 넘겼지만 국기 경례만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선일이라는 젊은이가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전용철, 하중근 아저씨, 그리고 홍덕표 할아버지가 백주대낮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옷과 장비와 도시락을 대 준 바로 그 공권력에 의해 맞아 죽은 뒤로부터는 납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국기 경례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리는 이런 옹고집을 그러니까 한 용렬한 소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해도 될 겁니다.

만약, 어떤 의식 들머리에 국기 경례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권정생 선생이나 사상이 이반 일리치 선생이나 그 누구라도, 그분들의 초상화를 걸어 놓고서 가슴에 손을 얹고 무슨 무슨 맹세의 다짐을 하게 한다 해도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제가 바치는 존경은 극히 내밀한 양심의 영역입니다. 누구도 제게 그걸 공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화된 표준을 들이대며 의식의 한 일부로 제도화하여 강요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존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의 위엄에 대한 감각입니다. 자신이 존엄하다고 믿을 때, 자신보다 더 크고 높은 것에 대한 감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이 그렇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잘 모르거나, 확신하지 않는 일에 대해, 혹은 심지어 자기 양심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까지도 수없는 맹세와 충성을 강요당합니다(사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시키는 종교 교육도 교육적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 속에서 아동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대해 반성(하는 것처럼) 해야 하고,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하고 연민(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반성과 사랑과 연민을 ‘언어’로써 표현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삶에 끼치는 근원적인 해악이라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봐줄 만합니다. 실은 인간의 교육 자체에 이런 폭력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국가’라는, 우리의 경우 ‘공화국’이라는 헌법상의 이념과는 아무 상관없이 친일의 주구들과 그 자식들이 만들고 이끌어 온, 이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충성을 아주 이른 나이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강요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충성을 바칠 한 대상으로 국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부정하지만(물론 이젠 제 양심의 영역이니깐 그 이유를 대라고 강요하진 말아주세요), 모두가 저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세상 사람 모두가 저 같다면 그곳은 이미 지옥이겠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국가에 대한 충성은 훈련되거나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귀납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국가의 실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속한 국가의 부끄러운 과거까지, 현재 범하고 있는 혼란과 과오까지 포함됩니다. 한 개인이 교섭하는 가장 큰 삶의 테두리인 국가에 대한 자기 판단은 그 공동체의 존립과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 못했지요. 국기 경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의 역사가 상징적으로 드러내듯 그것은 맹목적인 충성과 단결의 의식 뒤에 자신들의 피 묻은 손을 감추어야 했던 지배자의 저급한 책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애국심이 없다고, 너무 ‘자기’ 밖에 몰라서 큰일이라고 개탄하는 어른들이 적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라에 애국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애국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분들이 말하는 애국심의 정체도 되게 궁금합니다. 진정한 애국자라면, 이를테면 이라크 파병이 있을 때 국익이니 어쩌니 하면서 파병을 떠들 게 아니라, 그렇게 파병을 해서라도 국익을 수호하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파병되든지, 혹은 (자신의 일부라고 믿고 있는) 제 자식을 보내면 될 일입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늘상 말하는 분들이 아니던가요. 또, 실제로 역사 속 수많은 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국가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하지 않았던가요.

저는 아이들이 자기가 존엄한 존재임을 알고, 양심의 소중함을 아는 존재로 자라났을 때 그 공동체가 살만한 곳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일랑 애국심을 강요하진 말아주세요. 유치원 꼬맹이 시절부터 애국심을 드러내서 표현하고 맹세하게끔 이끌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들께 읽어 드리라고 얼마 전 돌아가신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이 생전에 남긴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같이 읊미하면서 두서없는 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애국자가 없는 세상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테고
대포도 안 만들테고
탱크도 안 만들테고
핵무기도 안 만들테고

국방의 의무란 것도
군대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테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
잃지 않아도 될테고

젊은이들은
꽃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지개를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결코 애국자가 안 되면
더 많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이고

세상은 아름답고
따사로워질 것이다

덧붙이는 말
이계삼 님은 밀양 밀성고 교사로 일하고 있다.

아치, 『연속기고 : 맹세야, 경례야 안녕~(12)』, 「모세의 십계명과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문」, 민중언론참세상, 2007. 07. 09.

모세의 십계명과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문

[집중이슈 : 맹세야, 경례야 안녕](12) - 청소년인권활동가 아치 님

아치(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7.07.09 09:32

시나이 산에서 모세는 하느님께서 손수 돌 판에 쓰신 증거 판 두 개를 받는다. 성서에 따르면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고,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손수 새기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고 경배하는 우상숭배에 격노하여, 감히 하느님께서 직접 만드신 증거 판을 내던져 깨뜨린다.

이 얼마나 불경한 짓인가? 그런데도 신은 모세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라고 말한 대로, 히브리인들은 신의 진리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신이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 돌 판을 깎고, 그 판에 손수 글자를 새겼다는 히브리 성서의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히브리인들은 지금껏 이집트의 노예로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아왔고, 히브리리는 말 자체도 사막을 떠돌며 낱품을 팔아 살아가는 ‘먼지투성이들’이라는 뜻이다. 그런 그들은 신 역시 자신들과 똑같이 노동을 하는 존재로 여겼으며, 이레에 하루씩 쉬리는 노동해방의 정언명령을 내리는 절대자로서 신에게 경배를 드렸으리라.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은 증거 판에 어떤 언어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새겨 넣었을까? 천지를 창조할 때 쓰셨던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다.>는 그 거룩하고 황홀한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히브리인들이 쓰는 인간의 언어였을까? 신이 말씀(Logos)으로 계명을 주셨다면 이는 인간에게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어찌 하찮은 인간이 절대자의 언어(또는 문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인간이 신의 언어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신성모독으로, 그는 바로 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아직 자신들의 문자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신은 전능하게도 미리 그들의 문자를 보여주신 걸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로 신의 완전한 진리를 담는다는 말인가? 이는 콩

으로 메주를 썬어서도 안 되고, 팔로 메주를 썬어서도 안 되는 형용모순(形容矛盾)의 사태다.

따라서 모세가 들고 내려온 두 개의 증거 판은 사실, 존재의 다른 이름인 ‘무(無)’이다. 언어가 존재와 일치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신에게만 가능하거나 실낙원 이전의 아담에게만 허락된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언어로 진리를 가두려는 모든 시도는 헛되고도 헛되다. 그렇기에 그는 둘 판을 깬 것이기도 하고 깨지 않은 것이기도 하기에, 아무런 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시나이 산에 올라 신의 말씀을 둘 판에 옮겨 십계명을 손수 기록한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하게 알아들은 신의 말씀을 불완전한 인간의 문자로 새긴 것이리라. 아마 ‘십계명 수정문’으로 불러도 되리라. 당연히 율법을 완성하려 한 예수는 십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 마태오복음 5:34
그러나 신보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국기(국가)에 대한 맹세를 강요한다.

행정자치부 의전 팀 정현규 팀장은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 논란이 일자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을 물어보자”며 여론조사를 벌였고, 75.0%의 ‘국민’이 ‘맹세’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기에 “폐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뜻을 행정부가 거스르는 것”이라 말한다.

언제부터 정부가 ‘국민’의 의견수렴에 목을 뺐는지는 몰라도, 이는 한 마디로 엉터리다. 입법부는 ‘대한민국 국기법(國旗法)’ 본법의 법률에서는 빠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정부에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도 단 한 번의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맹세문을 그대로 시행령에 처넣었다가 문제가 되자, 신중하게(?) 세 가지 맹세 수정문 예시안을 던져놓고 여론몰이를 한 것뿐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논란이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론화하는 공론의 장이 선행되었어야만 한다. 공론화 없이는 수십여 년을 ‘국민’으로 호명되어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국민’으로 키워온 ‘맹세’가 무엇이 그리 큰 문제이겠는가? 시청자도, 시민도, 노동자도, 여성도, 청소년도 없이 오직 ‘국민(窮民)’만 있는 나라... ‘국민 여동생, 배우, 가요, 은행’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국민학교’를 왜 초등학교로 바꾸었는가? 정부는 기껏 ‘국민학교’라는 껍데기는 벗어 버리고도, ‘국민’을 만드는 ‘맹세’라는 고갱이는 끝내 버리지 않겠다는 것인가?

히브리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집트의 억압에서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그들은 곧 우상숭배를 벌여 모세의 진노를 사고 만다. 그렇다면 이는 히브리인들의 추악한 종족적 특성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자유를 담지 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다. 그들이 배신(背信)이 아닌 배교(背敎)를 한 이유는 바로 예언자로서 모세와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신의 진리를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스스로 진리와 교통할 수 있는 민중의 귀와 혀를 막아 맹세를 강요하고, 모세와 아론은 진리를 형식 속에 가두어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성을 지닌 히브리인들을 통치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탈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해방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몸에 문신된 낡은 상징질서를 스스로 비판할 수 있을 때만이 진리 또는 변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배 이데올로기의 언어로 꾸며진 상징 질서를 뒤집어쓴 먼지투성이 ‘국민’이 독재의 억압에

서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광야에서 ‘국민’은 여전히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이상숭배를 벌이고 만다. 이는 국가가 국가주의의 이름으로 진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과 소수자의 통치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지 주어진 해방뿐만이 아니라,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을 때만이 올곧은 변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정자치부는 6일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정문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같은 문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는 말장난, 언어의 유희일 뿐이다. 자유와 정의 개념을 국가가 규정하고 독점한다면, 이는 결코 진리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미국의 충성 맹세에서 보지 못했는가? 정말로 미국이 맹세에서 지껄여지듯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가진 국가’인가?

또, ‘충성’의 사전적 의미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한 개인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어떻게 강요된 ‘맹세’의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가? 혹시 행정자치부의 관리들은 가족 간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침마다 자녀들에게 ‘효의 맹세’를, 배우자에게는 ‘사랑의 맹세’를 선창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맹세문은 어떤가?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국가)를 용서하지 않겠다!” - 달의 요정 세일러 문

덧붙이는 말

아치 님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이젠 좀!

무명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맹세 소리죠? 얼마 전 행정자치부에서 새롭게 바꾼 국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자신의 센스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바뀐 건 별로 없어요. 국기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는 방식인 ‘맹세’를 없애지 않는 이상 짧게 줄이든 길게 늘이든 마찬가지일 뿐이죠.

뭐 어쨌든.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바뀌었어요.

그냥 바뀌고 뚝. 그러면 너무 섭섭하고 재미없겠지요? 행자부가 탱자탱자 할 짓이 없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바꾸었을까요? 천만에요! 공무원들이 민원 넣는다고 빨리 처리하는 거 보셨나요? 못봤죠? 아무도 못봤을거예요. 그런데 국기에 대한 맹세는 며칠만에 똑딱 바뀌버렸어요. 바꾼 이유에 뭔가 있다는 소리죠.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바꾸고 이걸 시행령에 넣으면... 학교나 군대 감옥같은 곳들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학교에 밀줄 썩. 바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더 철저하게 시킨다는거죠. 강제조항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천만에. 학교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묻는 소리인가요? 여러분들은 많이 당해봤으니 알거예요. 일단 이런 규칙 하나만 만들어지면 학생들에게 강요하긴 식은 죽 먹기라는 걸.

얼마 전에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써서 102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성명서에 이름을 달았어요. 이게 급하게 받아서 102명이지 솔직히 말해서 누가 강제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치면서 국기에 충성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에 반대하는 문화제도 했었죠. 행정자치부 장관 가면을 쓰고 장관을 놀려주거나, 전두환 박정희 부시가면을 쓰고 국가가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드러내기도 했고, 경례퍼머머로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어요. 마지막에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이순신장군을 향해 다양한 방식으로 경례했던 것이 압권이었

조 서글프고 화나는 주제로 재미있게 문화제를 했어요.

행정자치부 앞에서의 일인시위는 계속되고 있지요. 피켓을 든다고 공무원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어’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뜨끔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더 강요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음모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 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저지하기 위한 활동들은 계속될거예요.

이번 제헌절에 국회의사당에서 제헌절 기념행사를 한대요. 역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는군요.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여요. 국회에서! 모여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얼마나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할거예요. 킁킁.

다들 많이 관심가지고 여유가 되는 사람은 <http://blog.jinbo.net/byebye> 로 와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보시고, 의욕도 있는 분이라면 함께해요~

*주 : 이 글은 무명 활동가가 제헌절, 국회에서 기습시위를 하여 연행되기 전에 쓴 글입니다. 무명 활동가는 성동경찰서에 있다가 18일 저녁 때 불구속 입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2부

연대 사업2 - 2008청소년인권선언 (2008)



개요

연대 사업2-2008 청소년인권선언

2008년,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한 지 60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일이 단지 기념일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 겪고 있는 인권의 실태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을 진행하고자 했다. 또한 '2008인권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릴레이 인권선언>을 모아내고 발표하는 선언운동도 함께 제안되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도 <릴레이 인권선언>운동의 한 영역으로, '2008 청소년인권선언'을 작성하기로 했고, 2008인권선언운동을 만들기 위해 꾸려진 '2008 인권선언 추진위원회'에 결합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러했듯 2008년의 인권선언 또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삶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했는데 당시 청소년인권의 현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다. 학교에서, 집에서, 노동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요구하는 것은 쉽게 무시당하거나 뒷전으로 미뤄지기 일쑤였다.

'2008 청소년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내용 안에 잘 펼치기 위해 청소년인권의 나무에 달리는 '나뭇잎' 모으기를 몇 차례의 거리/온라인캠페인을 통해 진행했다. 여러 곳에서 모인 50여장이 넘는 나뭇잎에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또한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도 담길 수 있었다. '2008 청소년인권선언'은 세계인권선언을 현대적, 한국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던 선언운동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모범적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청소년인권운동의 요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한데 모아놓은 선언이었으며, 기존의 학생인권담론 뿐 아니라 학원에서의 청소년인권, 거리, 노동현장, 10대 여성주의(걸 페미니즘) 등 당시 네트워크가 고민을 시작하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진행된 운동으로, "나이가 어리다고 누리지 못할 권리는 없다"를 전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선언에 담긴 그 의미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2008 청소년인권선언이란???

2008년, 이명박 정부 덕분인지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집에서 거리에서도 청소년들의 인권은 유예되거나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사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이 사회 어디를 봐도 청소년들의 인권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미성년자란 이유로, 학생이거나 자식이란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온갖 이유로 청소년들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지루하고 두꺼운 책들 어딘가에 나와있는 글 몇 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올해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입니다.

뭐 말하자면, 인권선언이 환갑이 되는 셈인데, 이렇게 늙은 세계인권선언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인권이 뭔지 스스로 우리들의 인권선언을 만들어봅시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외쳤던,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꿈꿔왔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들을 모아서, 청소년인권의 나무에 우리가 직접 나뭇잎들을 달아봅시다. ^^ 두발자유, 교복 안 입을 권리, 무릎꿇지 않을 권리, 외출할 권리... 청소년인권의 나무에 우리가 직접 나뭇잎들을 달아보아요 ^^

* 2008 청소년인권선언은 2008 인권선언 운동의 일부인 <릴레이인권선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08 인권선언' 밑불때기 워크숍>, 웹자보, 2008.11.07.

2008인권선언 워크숍

2008년 인권선언 밑불때기

일정 _ 11월 8일 (토) 오후 1시~5시
장소 _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강의실

대한민국에는 인권이 없다?
빈곤과 차별을 양산하고 가진 자만을 위한 정부,
이속에서 얼어붙은 모두를 위한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을 외치는
불씨들을 모아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인권선언 워크숍에 함께 해 주세요!

내용_
1부 : 오후 1시~2시 30분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뜯어보기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2부 : 오후 2시 40분 ~5시
인권교육 프로그램
2008년 인권선언의 사실과 날실을 엮자 : 미류/랑

2008인권선언 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2008humanrights>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02-365-5363)

찾아오는 길



<2008청소년인권선언 - 청소년인권나무에 나뭇잎을 붙여주세요~> 웹자보, 2008.11.13.

2008 청소년인권선언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권리는?
청소년인권 나무에 나뭇잎을 달아주세요~

2008 청소년인권선언?

2008년, 이명박 정부 덕분에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청소년들의 인권은 유예되거나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사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이 사회 어디를 봐도 청소년들의 인권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미성년자인 이유로, 학생이거나 지식이란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온갖 이유들로 청소년들은 인권당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자유하고 두꺼운 벽을 어딘가에 나와있는 글 몇 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올해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입니다. 인권선언이 환갑이 되는 생인대, 이렇게 늙은 세계인권선언으로 우리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인권이 편지 소스로 우리들의 인권선언을 만들어봅시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우리의 목소리들을 모아서, 청소년인권의 나무에 우리가 직접 나뭇잎들을 달아봅시다. ^^

요약이나 지역일로 11월 24일 전까지는 보내주세요. 이메일 : youthhr@chol.com
 카페에 직접 의견을 올려주세요도 좋습니다. ^^ 보낸주소 :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 3층 (100-360)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팀
 또한 '나뭇잎들은 11월 말에 뿌려됩니다.'

2008인권선언 카페 <http://cafe.daum.net/2008humanrights> 

* 청소년인권선언을 위해 실천행적들이 많이 하는 '2008인권선언운동'의 일부입니다. 2008 인권선언

2008 청소년인권선언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권리는?
청소년인권 나무에 나뭇잎을 달아주세요~

2008 청소년인권선언?

2008년, 이명박 정부 덕분에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청소년들의 인권은 유예되거나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사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이 사회 어디를 봐도 청소년들의 인권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미성년자인 이유로, 학생이거나 지식이란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온갖 이유들로 청소년들은 인권당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자유하고 두꺼운 벽을 어딘가에 나와있는 글 몇 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올해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입니다. 인권선언이 환갑이 되는 생인대, 이렇게 늙은 세계인권선언으로 우리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인권이 편지 소스로 우리들의 인권선언을 만들어봅시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우리의 목소리들을 모아서, 청소년인권의 나무에 우리가 직접 나뭇잎들을 달아봅시다. ^^

요약이나 지역일로 11월 24일 전까지는 보내주세요. 이메일 : youthhr@chol.com
 카페에 직접 의견을 올려주세요도 좋습니다. ^^ 보낸주소 :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 3층 (100-360)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팀
 또한 '나뭇잎들은 11월 말에 뿌려됩니다.'

2008인권선언 카페 <http://cafe.daum.net/2008humanrights> 

* 청소년인권선언을 위해 실천행적들이 많이 하는 '2008인권선언운동'의 일부입니다. 2008 인권선언

2008인권선언 추진위원회,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새 인권선언을 선포 - 오늘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도」, 인권오름, 2008.12.09.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새 인권선언을 선포

오늘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도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권·사회운동은 세계인권선언일이 단지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 겪고 있는 인권의 침해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들을 만들어보는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진행한 인권선언운동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은 각계각층에서 릴레이 인권선언을 시작으로 12월 10일(수) 오후2시에는 청계광장에서 '2008 인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하고, 오후4시에는 시민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만든 인권선언을 알리는 시민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주체별 릴레이인권선언을 했던 주체들이 모여 인권선언부스를 전시하고 저녁7시부터 시민들과 함께 인권문화제를 개최합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2008 인권선언이 공식으로 발표됩니다. 2008 인권선언은 1300명의 불씨들이 만들고 연명한 것으로 이러한 운동은 국내에서는 처음 진행된 것입니다. 2008 인권선언은 불씨들이 남긴 '불씨선언'을 기초로 우리시대 가장 필요한 인권의 목록을 정의한 것으로 이후 인권·사회운동은 2008 인권선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08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 12월 10일(수), 오후2시, 2008 인권선언 선포 기자회견

오후4시, 릴레이인권선언 부스 전시와 시민한마당

오후7시, 인권문화제

◎ 2008 인권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 제각각의 권리들을 보편적인 권리로 모아보는 자리. 유쾌한 축제의 분위기에서 인권선언 이후를 꿈꾸고 흥겹게 노래 부르는 자리.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맞춰 2008 인권선언이 만들어진 과정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세계인권선언을 오늘의 시각에서 조명하면서 내일의 과제를 밝

하는 자리.

2008 인권선언은 전문과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회에 걸친 토론과 불씨들이 쓰는 권리 선언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문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침해 현실을 드러내면서 시장의 자유에 맞서고, 올해 촛불의 저항정신을 통해 인권이 실현되는 삶의 질서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권리영역을 다루고 있는 조문 ‘I’ 1~2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할 권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문1~2는 2008 인권선언을 관통하는 인권의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권을 앞자리에,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포함

‘II’ 3~27조에서는 △ 사람답게 살 권리(3조) △ 일할 권리 및 일하지 않을 권리, 동료들과 단결할 권리(4조) △ 살만한 집에서 살 권리(5조) △ 건강하게 살 권리(6조) △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내용을 방식을 선택할 권리(7조)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9조) △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 권리(13조) △ 차별받지 않을 권리(14



인권선언추진위가 개최한 밀봉대기 워크숍 장면(2008. 11. 8)

조) △ 정치에 참여할 권리(15조) △ 마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권리(17조) △ 집회·시위를 할 권리(18조) △ 예측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20조) △ 자신만의 생활을 가꿀 권리(21조) △ 평화롭게 살 권리(25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에는 항을 두어 권리를 섬세하게 다듬었습니다.

‘III’ 28~29조에서는 연대할 권리와 압제에 저항할 권리를 담았습니다.

지난 10월 2008 인권선언 운동을 하고 있는 단위들은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카페 <http://cafe.daum.net/2008humanrights>를 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또한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은 인권선언

의 밑불을 만들고, 직접민주주의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사회적인 고통에 연대하는 ‘불씨’를 모집해왔습니다. 2008 인권선언 운동은 12월 9일 현재 약 1300여명의 불씨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4일까지 불씨를 모으고 있습니다. 2008 인권선언 ‘불씨’는 인권선언을 기초하는 선언자이며, 인권 존중과 증진을 실천하는 인권옹호자입니다. 2008 인권선언은 ‘불씨’들이 만들어 내는 인권운동입니다.



인권선언추진위가 가진 인권선언포럼(2008. 11. 19)의 한 장면

불씨 모으기는 14일까지 계속

이를 위해 지금까지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토)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2008 인권선언 밑불대기 워크숍’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인권의 눈으로 뜯어보고(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의 강연), 인권끝말잇기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를 엮어 인권선언에 들어갈 권리의 내용과 가치, 연대의 실마리를 풀어냈습니다.

또한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는 11월 19일(수) 만해NGO 교육센터 대강당에서 ‘2008 인권선언 포럼’을 열어, 여성장애인·청소년/녀·성소수자·비정규직노동자 등 다양한 시선으로 2008 인권선언 초안을 뜯어보고,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연구활동가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한계 및 인권운동의 과제’라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어 2008 인권선언 운동에 참여하는 불씨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인권실천을 만들어보는 ‘인권생활백서’를 진행했습니다.

2008 인권선언은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릴레이 인권선언이 징검다리가 되어 전체 선언을 만드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환자인권선언(5/26), 주거권 선언(10/6),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10/17), 빛 없는 세상을 향한 2008 금융피해자 권리 선언(11/21), 이주노동자 인권선언(11/30),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12/1),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12/1), LGBT성소수자 인권선언(12/2), 장애인 인권선언(12/3),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선언(12/6), 표현의 자유 선언(12/9), 청소년/녀 인권선언(12/10), 이주민의 인권선언(12/14) 등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선언 하나만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 선언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각각 주체들이 처한 인권현실을 조명하고 지금 요구되는 권리들을 엮어보았습니다. 그냥 참고 살자고 묻어뒀던 권리들을 끄집어내고 몰

라서 당하고 억울하기만 했던 경험들을 털어놓고 나의 권리로 다른 이들의 권리를 만나서 우리의 권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영역별 권리 릴레이 선언으로 이어와

우리의 권리는 우리를 손과 발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권침해를 드러내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열망을 가슴 속에서 꺼내봅시다. 작지만 뜨거운 불씨를 모아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봅시다. 자유와 평등을 향한 우리들의 꿈이 민주주의에 생명을 불어넣고 역사를 밀고 갈 것입니다.

【짧게 줄인 2008 인권선언】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자본주의는 자연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정복해왔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생존 자체도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 이윤중심 성장 논리 속에서 짓밟혀 왔다. 우리는 인권이 부정되고 짓밟히는 억압적인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조금씩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하여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서열화하고, 분리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와 인권보장체계마저 시장에 맡겨놓고 다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인간존엄에 대한 외면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또한 정치권력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국의 추악한 전쟁에 파병하여 인류 평화를 파괴하고 개인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2008년 봄부터 가을까지 타올랐던 촛불의 직접행동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자,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권력에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도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민중들은 대의제권력에 잡혀버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자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외침은 또 다른 외침을 낳는다! 우리의 저항은 참여한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고 우리의 요구도 확장시켰다. 식량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촛불의 요구는 ‘의료민영화 반대’등 공공성 확보의 외침으로 이어졌으며 ‘빈곤을 재생산’하는 비정규직 철폐로 이어

왔지 않는가.

하지만 국가권력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과 행동을 잠재우고자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정부는 집회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의 성과를 한 순간에 되돌리고, 파괴하고,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역사는 인권을 무시하는 권력이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를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임을 말해준다.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권리 선언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와 기업의 행위들을 매 순간 비교하여 사회가 결코 폭정에 의해 억압받고 타락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8 인권선언'에 참가한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의무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사회의 방향과 인권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I.

1조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II.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5조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의 참정권이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측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III.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 정치와 사회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2008년 인권선언운동] 욕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인권선언

공현

부처가 그랬던가, 티몬과 폼바가 그랬던가.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욕심 버리면 즐거워진다고... 하지만 열반세계도 애니메이션 속도 아닌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 없다. ‘2008 청소년인권선언’은, 이런 욕심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인권선언이다. 단순히 분량만 보더라도 그렇다. 전문도 없는 주제에 바탕체 10pt 줄 간격 160% 기타 등등 한글 기본값으로 설정했을 때에도 A4로 5페이지를 차지하는 청소년인권선언은, 무슨 할 말이 그리도 구구절절 많는지 릴레이인권선언 중에서 단연 최고의 분량을 자랑한다. 욕심이 많으면 고생하는 법이라서, 이런 많은 분량을 전단지로 우겨넣느라 디자인상의 애로사항도 많았고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논란, 심지어는 말투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청소년인권선언의 내용이 많아진 것은 그 선언을 만든 방식의 영향도 있지만, 하나도 빼놓은 것 없이 인권선언을 만들려고 했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들의 욕심도 컸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고민 안 해왔던 고민 다 풀어놓고 나누면서, 청소년인권선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이야기들을 다 넣으려고 덤벼들었다. 설령 지금 당장 운동이 될 수 없더라도, 아직 많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청소년인권선언 만큼은 청소년인권의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선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야심작 “2008 청소년인권선언”이 나왔다. 종이 나뭇잎을 복사해서 나눠주고 청소년들과 여러 활동가들에게 “청소년인권 나뭇잎”에 권리 하나씩을 써달라고 해서, 그 목소리들을 모아서, 생생한 표현을 살리라며 만든 2008 청소년인권선언. 여기에서 그 선언의 내용과 문제의식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몇 가지 만들면서 신경 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린 부분들 몇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선언을 작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나뭇잎’에 적어준 표현이나 사례들을 최대한 선언에서 살리려고 했다. 선언에서 각 조에 “♪” 표시를 달고 늘어놓은 이야기들은 모두 그렇게 모아진 목소리들과 우리 안에서 토론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들어간 것들로, 상당히 구구절절하다. 또 “선언”은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거나 눈치 보며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말투는 과감히 반말을 택했다. 그냥 “~다”로 하지는 의견도 있었지만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고 나뭇잎으로 받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그대로 살리기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에 “~야”, “~어”를 기본 말투로 하게 됐다.

청소년인권선언 내용 중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마지막에 저항권과 연대권을 넣은 2008인권선언과 달리 청소년인권선언은 무려 제2조에 저항권을 넣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존엄성 선언과 차별금지라는 원칙을 담은 제1조를 제외한다면 가장 앞에 온 권리인 셈이다. 그것은 그만큼 인권이 보장될 기미가 코딱지 만큼밖에 안 보이는 지금 이 사회에서, 저항권이야말로 중요하면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라는 생각에서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선언을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좀 난감해져버렸다. 해서 건강하게 살 권리와 의료권에 대해 쓰고 나서 한참을 어떤 권리를 마지막에 넣을지 회의를 했는데, 결국 들어가게 된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말하자면, 행복추구권?)였다. 이 모든 인권들이 보장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뉘 그런 메시지다.

다음으로, 청소년인권선언은 특별히 자유권이나 사회권을 구별해서 쓰려고 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인권은 불가분하기 때문이고, 좀 더 부연하면 청소년인권에 있어 자유권과 사회권 같은 것들은 모두 한데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강권을 인권 주체(청소년)의 자유의지나 자율성/자발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하겠다고 한 결과 청소년들은 강제로 좋은 음식을 먹여져야 하고 건강해져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건강권, 주거권 등 사회권에 속하는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런 권리들이 사회권인 동시에 자유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유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나 참여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거나 경제적 능력 등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인권선언을 보다보면 혹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8조 먹을 권리의 “담배나 술 등의 기호식품을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돼.”라는 부분이 그렇다. 이 선언에는 청소년에 대한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의 ‘보호주의’를 거부하는 내용을 뚜렷하게 담으려고 했기 때문이며,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리낌 없이 풀어놓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혹시 이 선언이 많은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하더라도, 이 선언을 보고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길 바란다. (사실 음주권이나 술, 담배 살 권리 등이 나뭇잎에 꽤 많이 나오기도 했다.)

청소년인권선언은 이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급하게 푹푹딱딱 만들어서 누락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아직 그 존재가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다. 앞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가고 보완되어가는 청소년인권선언이 되길,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읽고 영감을 얻는 청소년인권선언이 되길 바란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청소년인권선언이 되도록 우리가 앞으로 활동해나갈 일일 테지.

신청이,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못할 인권은 없다”」, 1318청소년언론 바이러스, 2008.12.11.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못할 인권은 없다”

[교육]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2008 청소년 인권선언 탄생’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이 발표됐다.

지난 10일, 국제연합(UN)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14개 단체가 각각 세계인권선언을 국내 현실에 맞게 수정한 ‘2008인권선언’을 발표하는 시간도 주어졌다.

특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2008 청소년인권선언’을 완성했다. 전국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100여개의 인권선언 나뭇잎은 청계광장에 전시됐다.

이렇게 모아진 청소년 인권선언 나뭇잎에는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 할 권리’, ‘사랑과 성적 권리’, ‘자기 머리카락이나 옷 등을 마음대로 꾸밀 권리’,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쉬 권리’ 등 생생한 문구 그대로가 적혀있었다.

네트워크는 “세계인권선언이 있음에도 청소년들은 여전히 경쟁교육과, 두발규제 등으로 팍팍한 일상을 살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아 청소년인권선언을 만들었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한편 네트워크 활동가 10여명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화문, 학교 앞 거리, 청계천광장 등에서 이색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2008청소년인권선언’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을 기점으로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을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2008청소년인권선언문’을 알리기 위해 거리 홍보전을 진행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청계광장을 지나던 청소년들이 청소년인권선언문을 받아보고 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청소년인권선언문은 20개의 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2008청소년인권선언문’ 전문이다.

(전문 생략)

2008인권선언 추진위원회(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8청소년인권선언』, 『2008 인권선언』, 2009. 12.10.

◎ 『2008 인권선언』출판 배경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억압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권력에 맞서 싸웠다. 그 저항의 정신을 이어 촛불 투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2008 인권선언>은 시작되었다.

<2008 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은 집단적이며 아래로부터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1월 8일 인권선언 밑불때기 워크숍으로 시작해 2008년 11월 19일 ‘2008 인권선언 포럼’을 개최해 본격적인 인권선언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 성안 작업은 인권활동가가 초안을 작성하고, 포럼에 참석한 청소년·성소수자·장애인·비정규직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덧붙이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8 인권선언>은 일반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모인 ‘불씨’들이 쓴 인권선언을 참조해 성안되었다. 또한 각 성소수자·청소년 등 각! 부문의 주체들이 발표한 릴레이 선언도 함께 이루어졌다.

2008년 12월 10일 인권선언 발표와 함께 상영했던 영상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가 CD로 포함되어 있다.

◎ 『2008 인권선언』차례

머리말

2008 인권선언, 평등한 자들이 만드는 잔치

<2008 인권선언 >

<릴레이 선언>

2008 주거권 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빛 없는 세상을 향한 금융피해자 권리 선언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2008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

2008 장애인 인권선언

2008 성소수자 인권선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선언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2008 청소년 인권선언

환자 권리 선언

이주민 인권선언

<불씨 선언>

DVD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 위은이 :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

<2008 청소년인권선언>

1. 청소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 따윈 없다구!

- ♪ “미성년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야. “미성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 ♪ 나이가 적다거나 학생이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우~
- ♪ 처음 만나서 나이 좀 많다고 곧장 반말하거나 막 대하는 건 정말 뿔이야.
- ♪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건 아냐.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해서 문제이라고 낙인찍는 당신이 바로 문제라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별받지 않아야 해.

2.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

- ♪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의견을 표현하거나 시위나 집회나 점거를 하거나 수업거부나 시험거부나 등교거부나 가출 등등의 파업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권리야.
- ♪ 차별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침해 현장에서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예의”나 “학생의 본분”, “자식의 본분” 같은 말로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위한 행동을 공격하거나 하면 못 써.

3.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우리를 위한다는 핑계로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좀 존중하란 말야!

- ♪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업이나 가치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 ♪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짬질방, 게임방, 노래방 등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 거리를 지정하거나, 셋 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구!
- ♪ 만일 이 사회에 위험하거나 유해한 것들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해.

4.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

- ♪ 교사, 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을 선택할 수도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해.
- ♪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 시늉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실제로 충분히 반영하시오!
- ♪ 교칙이나 집안에서의 규칙 등을 정할 때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
- ♪ 청소년에게는 성탄절 썰이나 수능 떡값 등의 성금을 강제로 내지 않을 권리가 있어.

5. 청소년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돈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어.

- ♪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먹거나, 교통비가 없어서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되거나,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보장이 있어야 해.
- ♪ 먹고 살기에 필요한 적절한 돈을 벌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아야 해. 어리디는 이유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번 돈을 남에게(부모 등등) 맡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거라구!

6. 청소년은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일하는 목적이 생계를 위한 것이건 다른 용도를 위한 것이건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해.

- ♪ 청소년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해!
- ♪ 노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적절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착취를 당하지 않아야 해.
- ♪ 청소년에게는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고, 이런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 ♪ 청소년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시킬 수 없어. 예를 들면, 봉사시간을 채워오게 하거나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이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행사에 강제로 참석시켜서는 안 돼.

7. 청소년들은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

- ♪ 청소년들이 사는 곳은, 살만한 넓이와 시설의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생태적이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 한 곳이어야 해.
- ♪ 쫓겨나서 살 곳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들(부모 등등)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야 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해.
- ♪ 기출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쉽거나 그룹홈처럼 지금 있는 기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들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해.

8. 청소년의 사랑과 성적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막거나 짓밟지 마!

- ♪ 청소년에게는 나이와 성적 지향(동성애, 이성애 기타 등등), 성정체성에 상관없이 짝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 ♪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어. 성은 청소년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스런 분야가 아니야.
- ♪ 청소년은 성매매나 성폭력, 성적 착취를 당하면 안 돼. 또 성매매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아야 하지. 그러기 위해 청소년의 주거권이나 경제적 권리 등 다른 인권들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해.
- ♪ 이성애만이, 또는 여/남 성별이분법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건 무개념이야.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모두 차별 없이 존중하란 말야.
- ♪ 단, 성차별, 폭력을 저지르는 마초스런 행동 등은 인권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어!

9. 청소년에게는 자기 머리카락이나 복장 등을 마음대로 하고 꾸밀 권리가 있어.

-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게 하지 마! 사복을 입을 자유도 있다구!
- ♪ ‘학생다움’ 또는 ‘청소년다움’은 누가 정하나? 염색, 파마, 삭발, 레계, 고데기, 생머리 등등 청소년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

10. 청소년이 동네북이나? 청소년은 위협적인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

- ♪ 때리지 줌 마! 교사나 부모(보호자)나 다른 어른이나 또래나, 누구든 우리에게 매질, 발길질, 주먹질, 기합, 모욕 등의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그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될 수 없어. ‘사랑의 매’는 거짓말이야.
- ♪ 청소년은 학도호국단 등으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살 권리가 있어. 입시경쟁이나 안전사고나 폭력이나 빈곤함 등을 비롯해서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직·간접적인 폭력들은 사라져야 해.

11.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12. 청소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알고 살 수 있어. 안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 ♪ 인터넷이나 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 전단지, 영상 등등을 만들고 배포할 권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검열하거나, 허가받지 않았단 이유로 훼손하거나 탄압해선 안 돼.
- ♪ 청소년은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할 권리가 있어.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청소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집회를 했던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해.
-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정보를 못 접하거나 미디어를 쓰지 못하게 해선 안 돼. 청소년들에게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해.

13. 청소년은 자신만의 공간과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 ♪ 부모나 교사나 경찰이 마음대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 등 우리만의 기록을 보는 건 인권침해야
- ♪ 바꿀 수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로 우리에게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고, 지문을 다 찍어야 하는 주민등록증을 강요해선 안 돼. 급식비를 안 낸 사람을 걸러내려는 등의 이유로 함부로 지문을 찍게 해서도 안 돼.
- ♪ 야 이 스토커야, 너 내가 그렇게 좋냐? 감시카메라로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스토커 짓은 우리의 안전을 핑계로 우릴 통제하는 거야
- ♪ NEIS를 비롯한 성적 등등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는 인권침해야. 성적표도 맘대로 집에 보내거나 하지 말란 말야.

14.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상을 생각하고 주장할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

- ♪ 종교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강제로 종교의례에 동원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하지 말고,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마! 그리고 부모나 가족이 믿는 종교를 청소년들이 똑같이 믿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 ♪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가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 국가보안법이라거나 정부, 교사, 부모 등의 권력으로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상을 처벌하는 건 박물관으로 보내자.

15. 청소년에게는 인간답고 민주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고, 강제로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어. 교육에서는 인권이 지켜져야 해.

- ♪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신체적 조건이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에서 좀 알아서 했으면 해. 그리고 교육은 되도록 공짜인 게 기본 아니겠나?
- ♪ 공부 왜 해? 청소년은 시험 치는 기계가 아니야! 시험점수로 매겨진 등급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구. 입시경쟁을 폐지하란 말이다!
- ♪ 야간·지율·학습이라면서 강제로 실시하는 건 뭤미?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만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해. 교과서건 뭐건 다 내용을 정해서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말란 말야.
- ♪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고 소통이야.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해. 청소년에게는 교사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훈계는 너만 하나! 너나 잘하든지!
- ♪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살릴 수 있고 다양성 있는 교육과 넓게 생각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 ♪ 선후배 관계나 나이, 직위 등의 사이에서 차별이나 폭력, 외국인이나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이나 아웃팅, 폭력, 기타 인권침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을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권교육은 꼭 있어야 해.
- ♪ 청소년은 역사적 진실을 알고 탐색하고, 사회의 현실, 과학적 지식, 시는 데 필요한 여러 기술들 등을 비롯해서 중요한 학문들과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만큼 많이 배울 권리가 있어. 외국어 교육은 영어 같은 한 언어만 신봉하고 뻑센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고 또 하고 싶은 외국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해.
- ♪ 교육 환경은 충분히 좋아야 하고, 교육 재정이나 예산도 충분해야 해. 예를 들어, 수십명씩 오밀조밀 부대껴야 하는 교실이라거나, 찌는 여름이나 뽕뽕 어는 겨울에 에어컨, 히터 등을 교무실에만 뽕뽕하게 틀고 학생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대체 뭐냐?

16 청소년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 ♪ 방학, 휴가, 공휴일이나 쉬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 건 물론이고, 생리나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학교 등에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휴식시설이 마련되어야 해.
- ♪ 청소년은 잘 쉴 권리가 있어. 수업시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이 급한데 못 가게 하거나 하면 안 돼.

병 걸리면 책임질 거야? 화장실의 청결 상태나 시설, 숫자도 충분히 좋아야 해.

♪ 잠 좀 자자! 우리는 충분히 컨디션이 회복될 만큼 잘 수 있어야 해.

♪ 짝센 경쟁교육이나 생존의 위협 등도 청소년들이 충분히 설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없어야 해.

17. 청소년에게는 놀 권리가 있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 즐길 권리도 있지.

♪ 청소년은 자신의 취미를 즐길 수 있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 돈이 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도 보장되어야 해.

♪ 보호라는 핑계로 19금 딱지를 붙이거나 공부하러면서 청소년들의 문화를 통제하거나 하는 건 부당해. 사 전심으로 나이 제한을 두는 건 검열이고 통제야!

♪ 사회는 바람직하고도 다양한 놀거리들을 제공하고 장려해야 해야 할 책임이 있어.

18. 청소년은 먹고 싶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에게는 생태적이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 청소년은 취향이나 사상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 담배나 술 등의 기호식품을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먹지 못하게 해서 안 돼. 이것들이 정말로 유해하다면 이것들을 아예 없애거나 유해성을 알리고 줄이거나 끊는 것을 도와야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강제로 금지하는 건 청소년을 만만하게 본 인권침해야!

♪ 청소년은 원산지, 생산 방법, 유통 경로, 유해성 등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

19. 청소년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 충분한 휴식과 여유, 그리고 적절하고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등은 중요해.

♪ 청소년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해. 청소년의 건강권은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속에서 그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해.

♪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청소년이라거나 경제적인 조건 등등 때문에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해서는 안 돼.

♪ 학교에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에이즈 감염 등 의료상의 정보를 함부로 알리거나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가족들에게 알려선 안 돼.

20. 청소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은 충분히 실수하고 경험을 쌓아갈 권리가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꾸고 추구할 권리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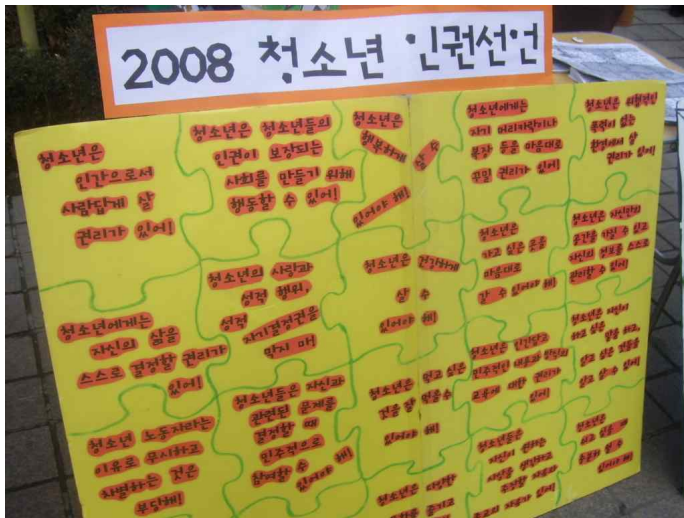
♪ 청소년들의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회가 가능한 한 제공해야 해.

♪ 청소년의 행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것이어야 해. 청소년은 지금을 사는 인간이고, 미래로 삶이나 행복을 유예한 인간이 아냐.

P.S. 여기에서 선언한 권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로 오해해선 안 돼. 모든 인권은 소중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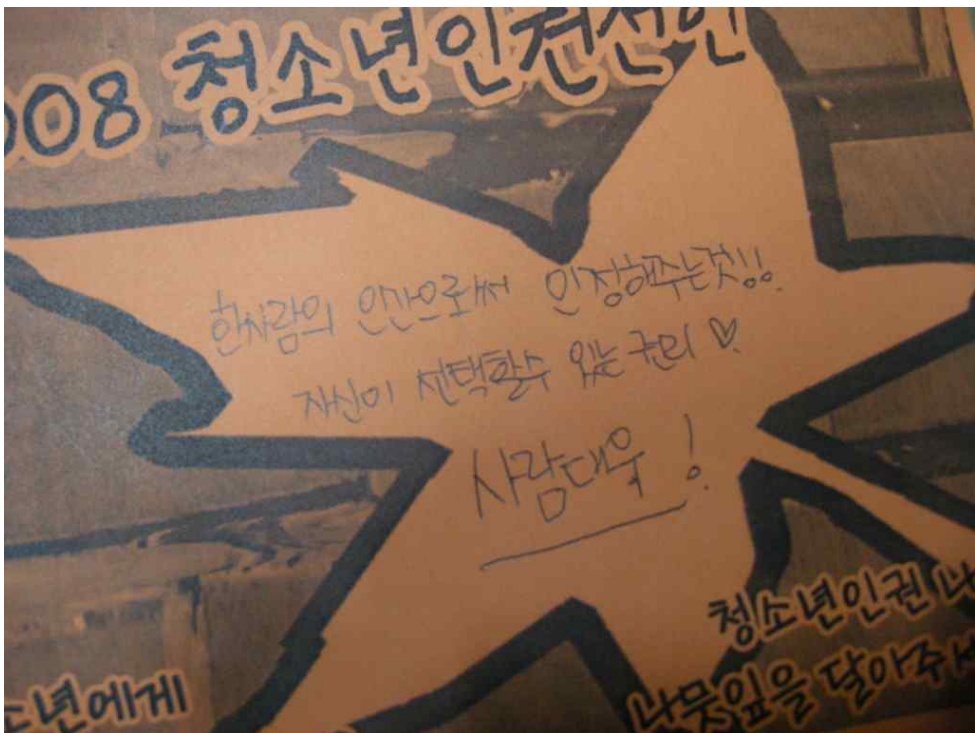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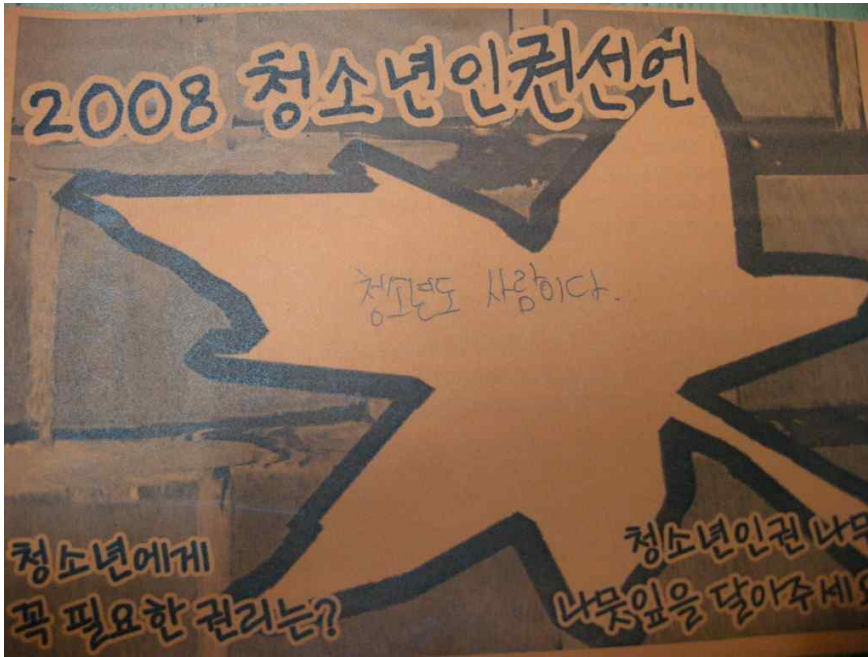
〈2008 청소년인권선언 캠페인 및 기자회견 사진〉, 소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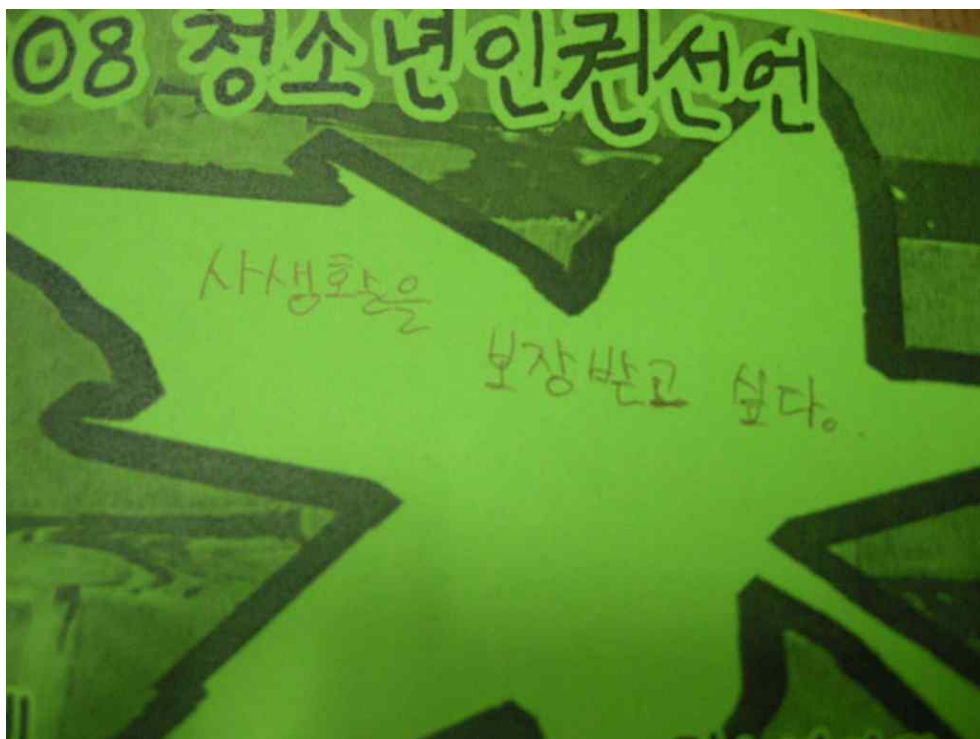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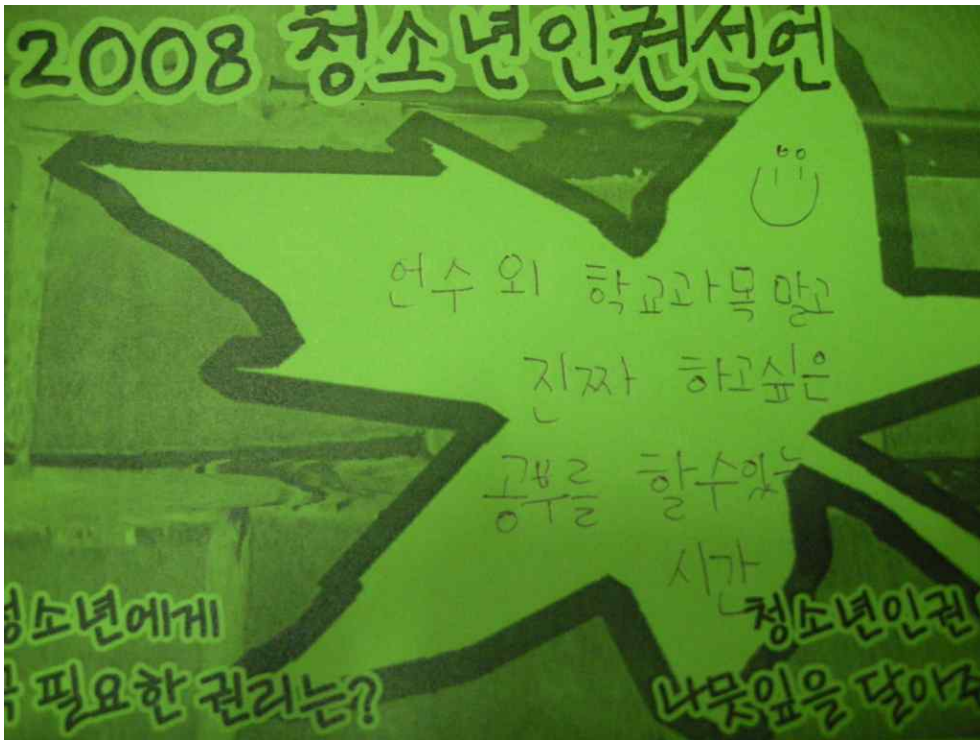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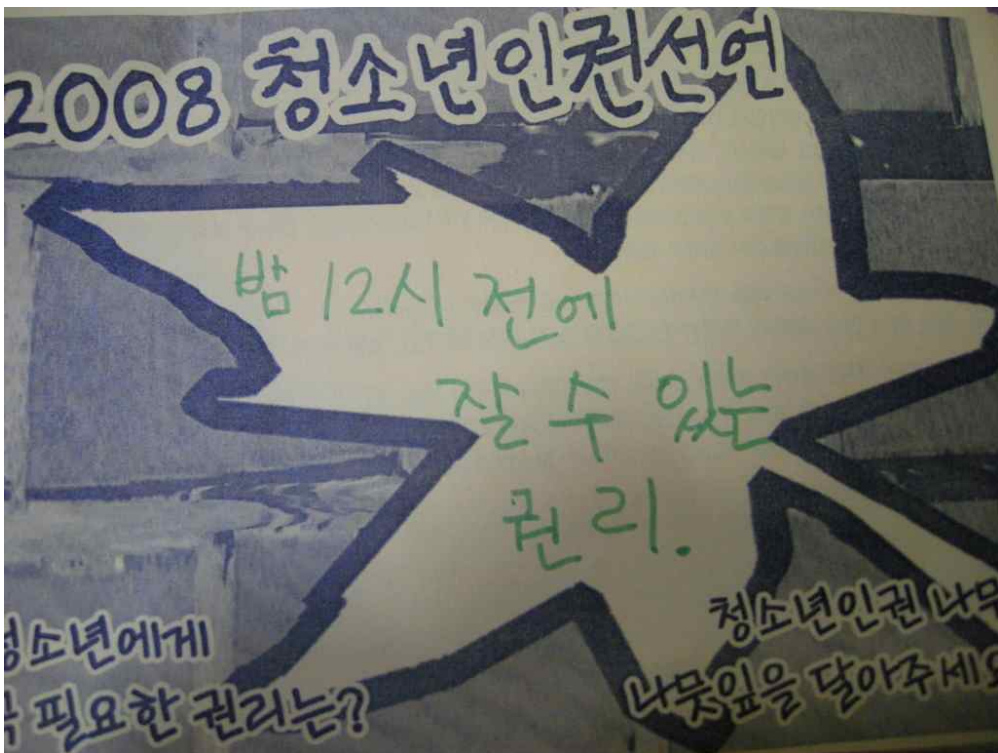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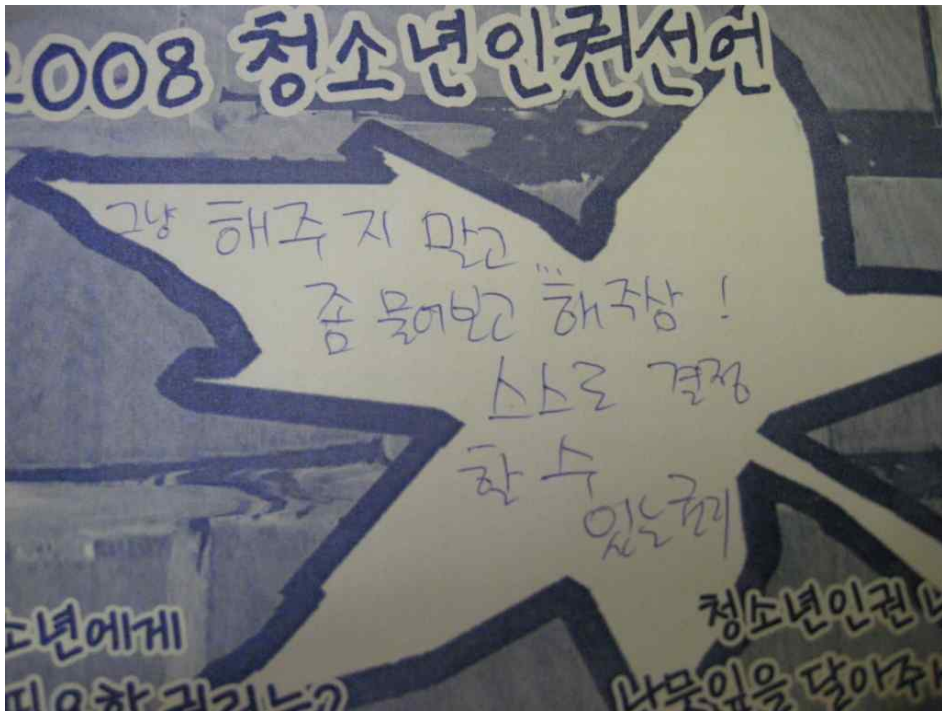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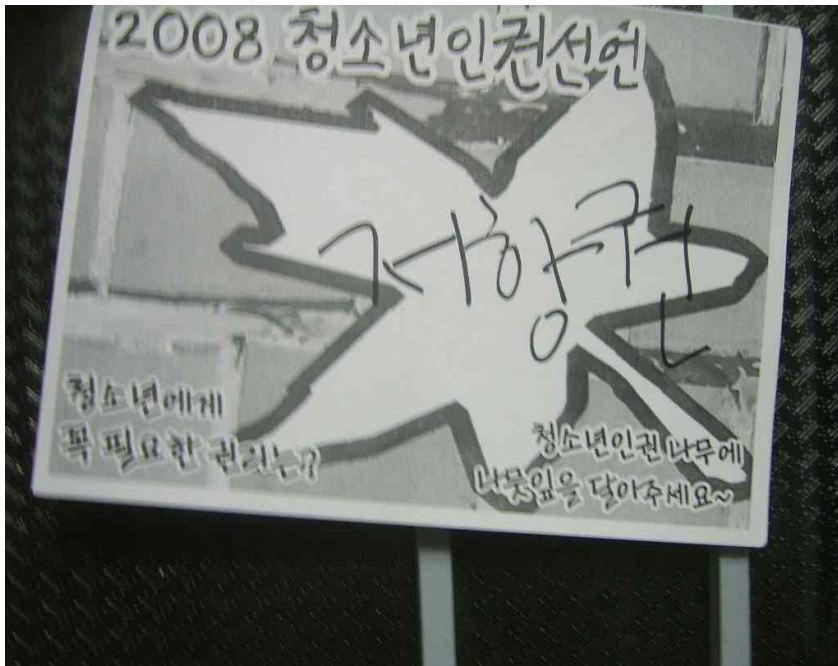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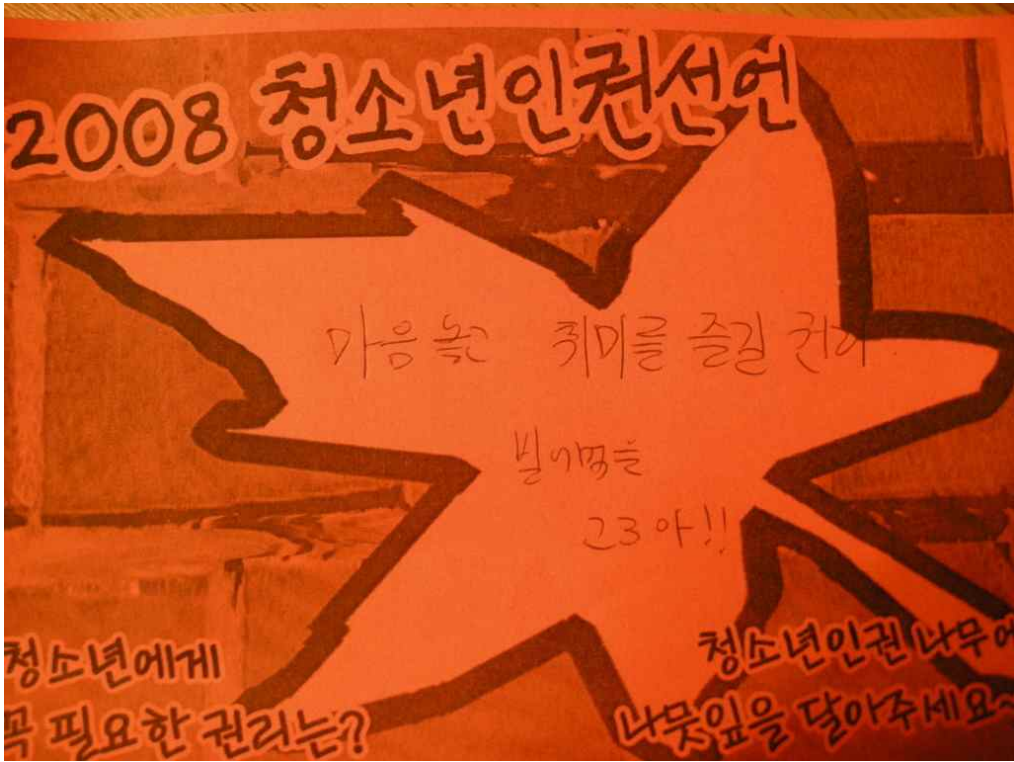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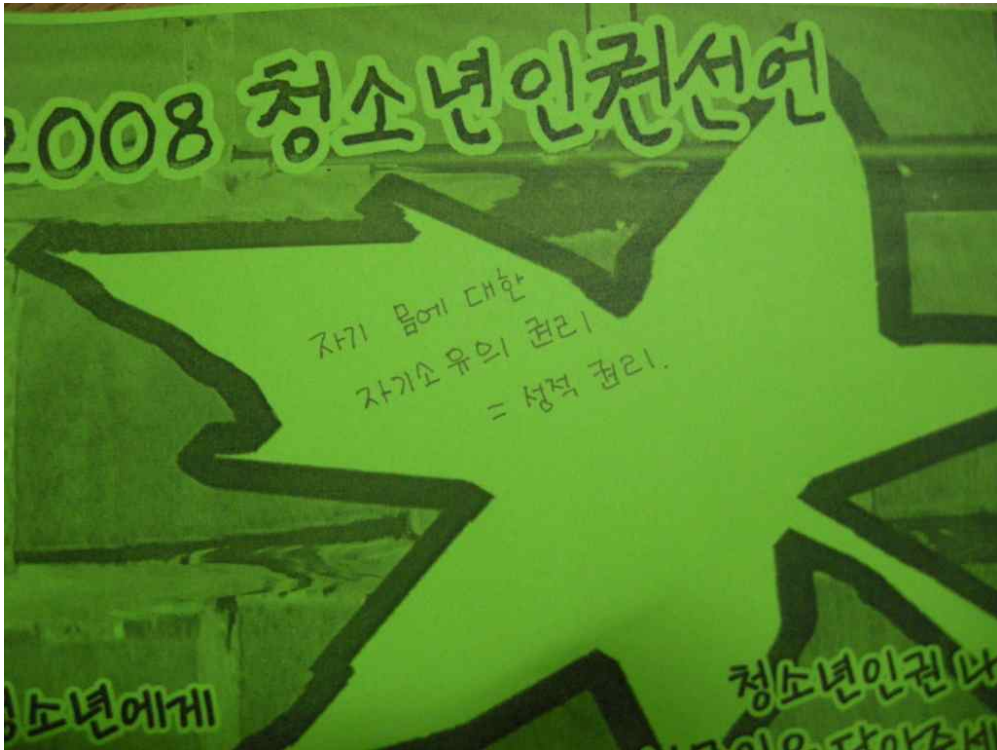
〈2008 청소년인권선언 “나뭇잎 권리” 모음〉, 소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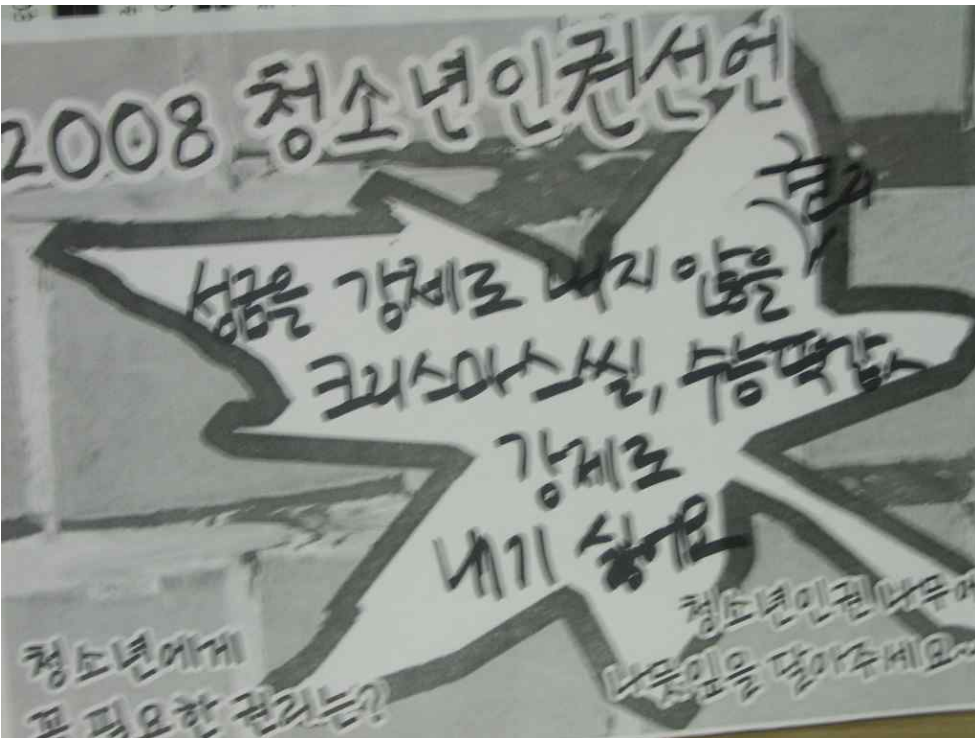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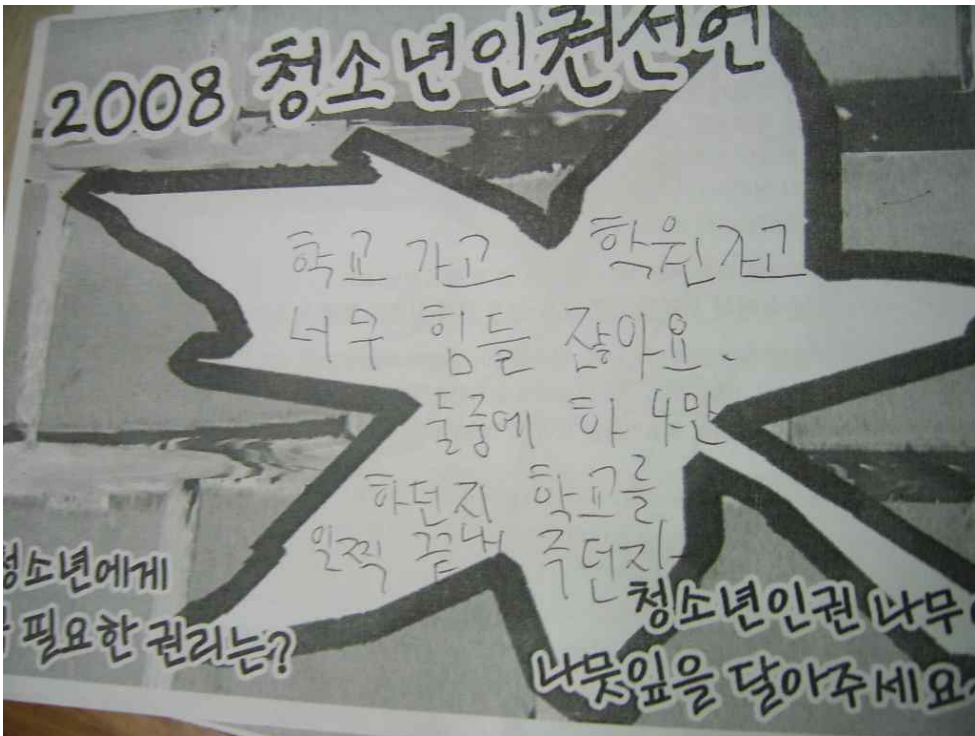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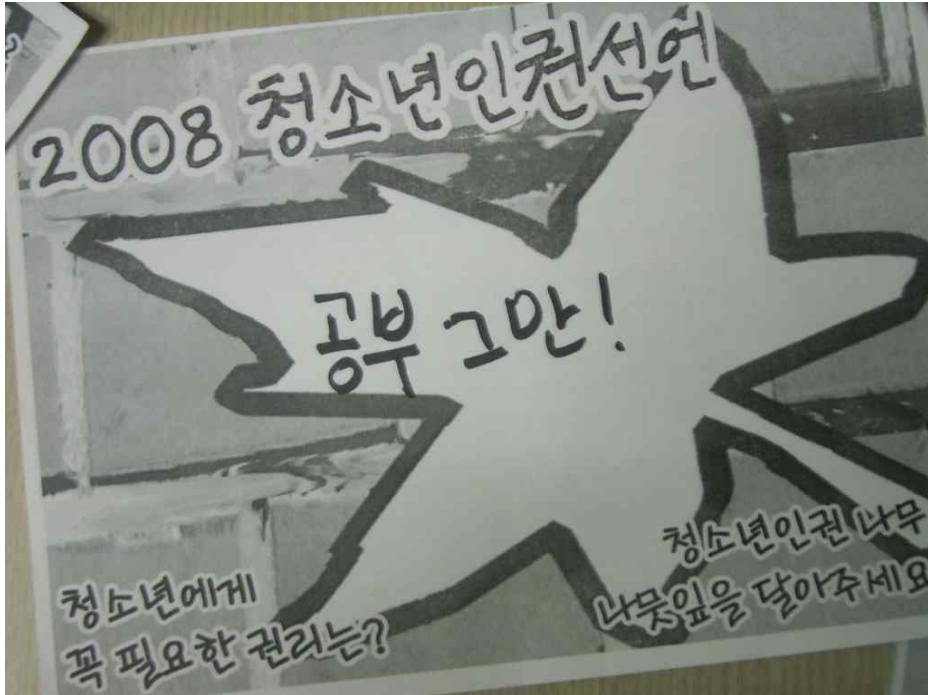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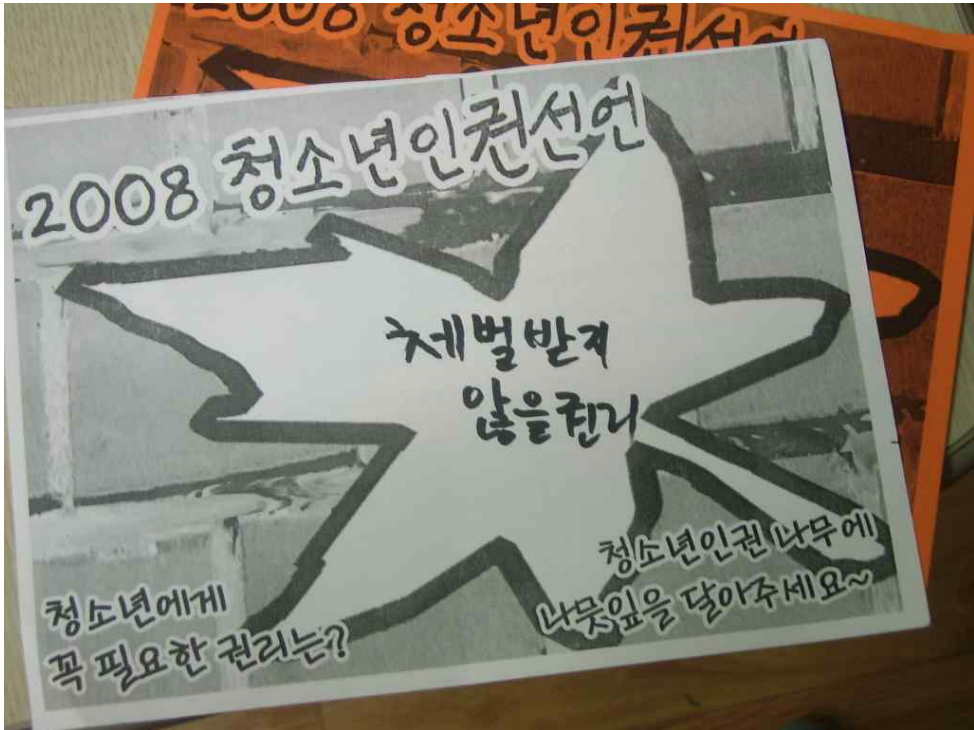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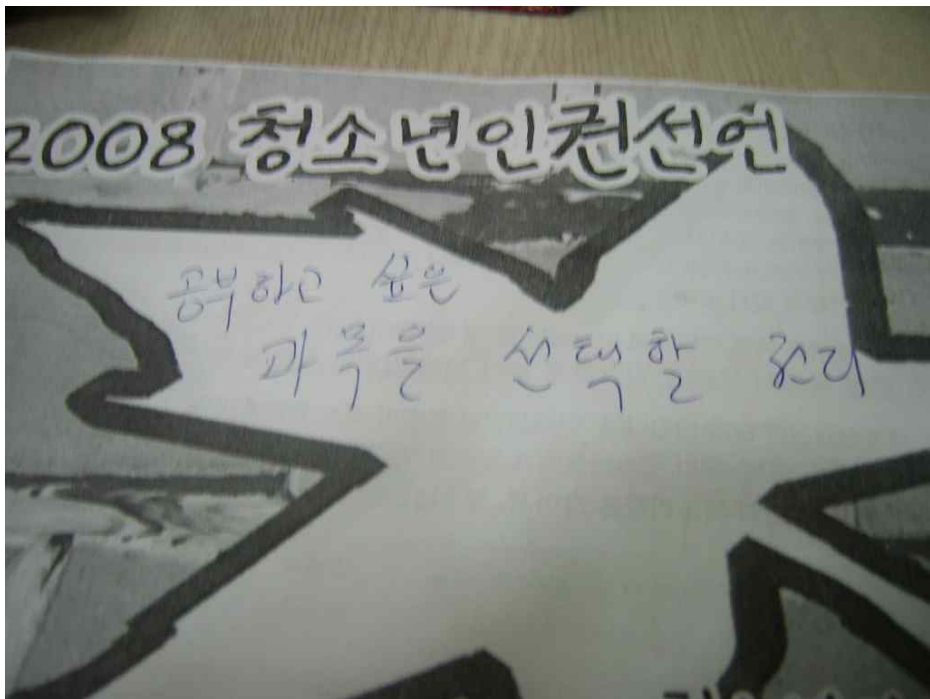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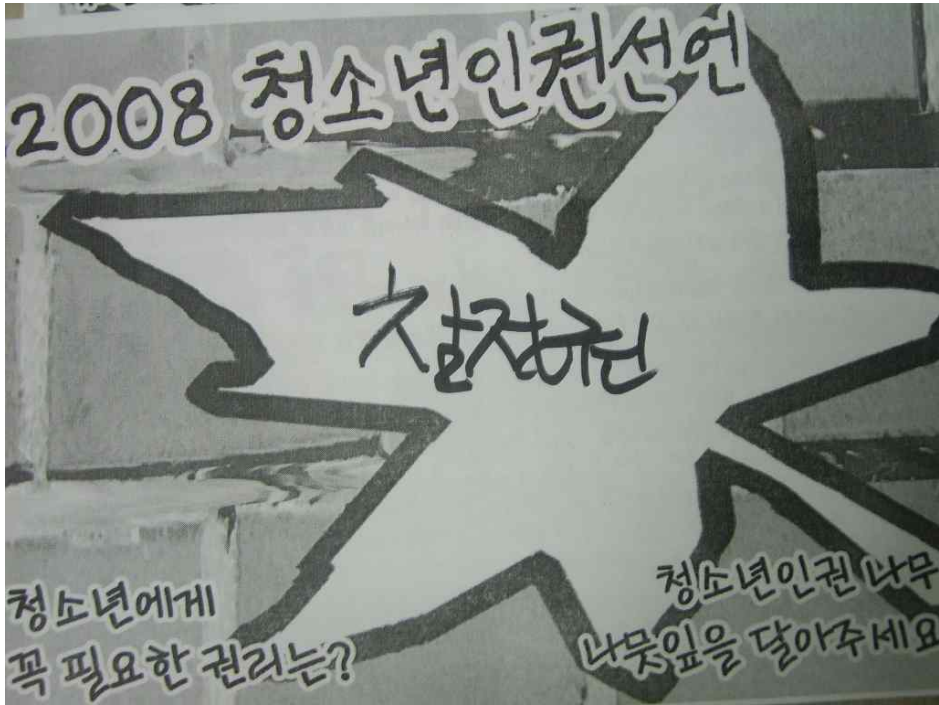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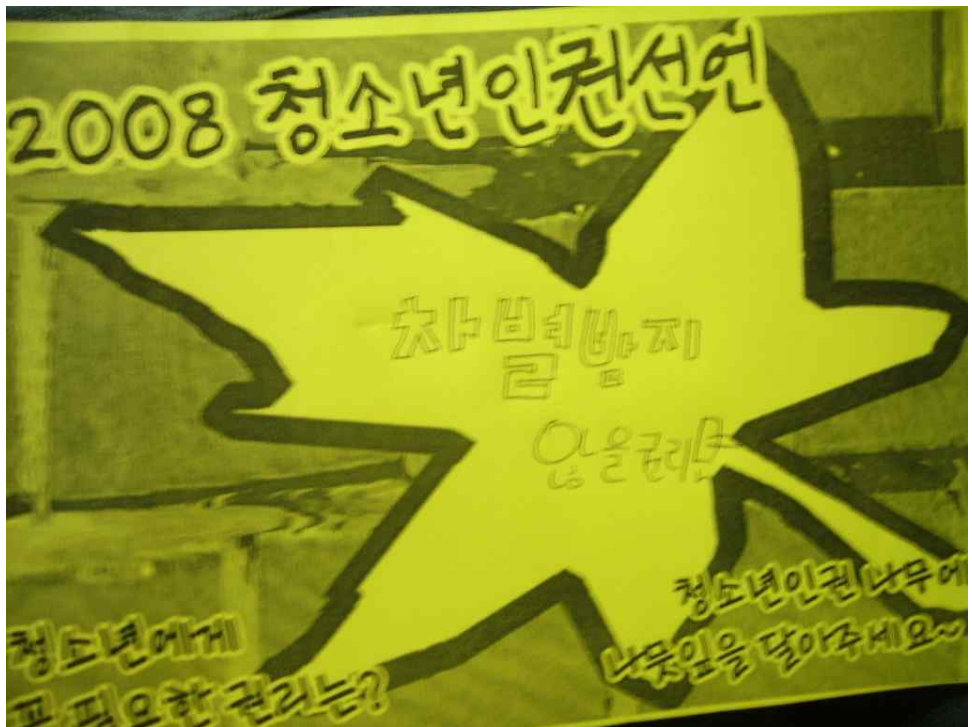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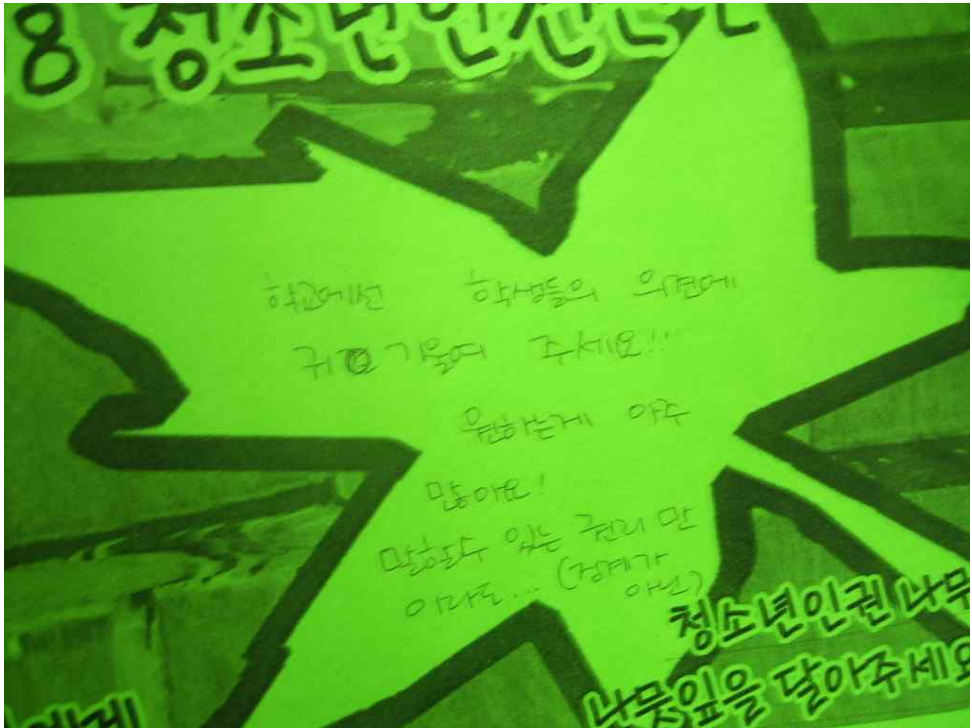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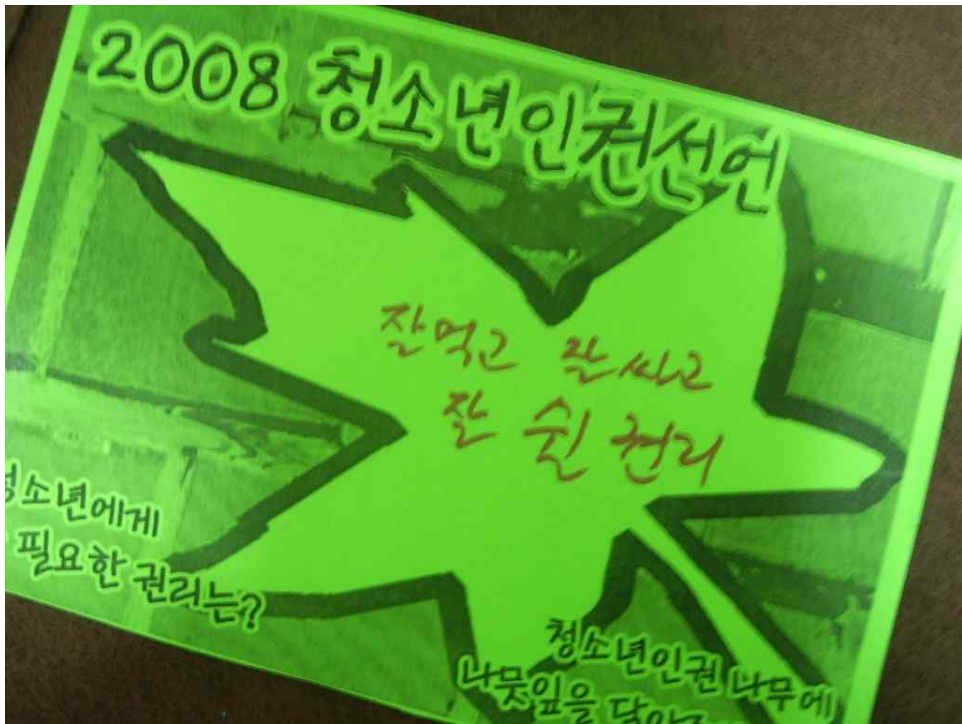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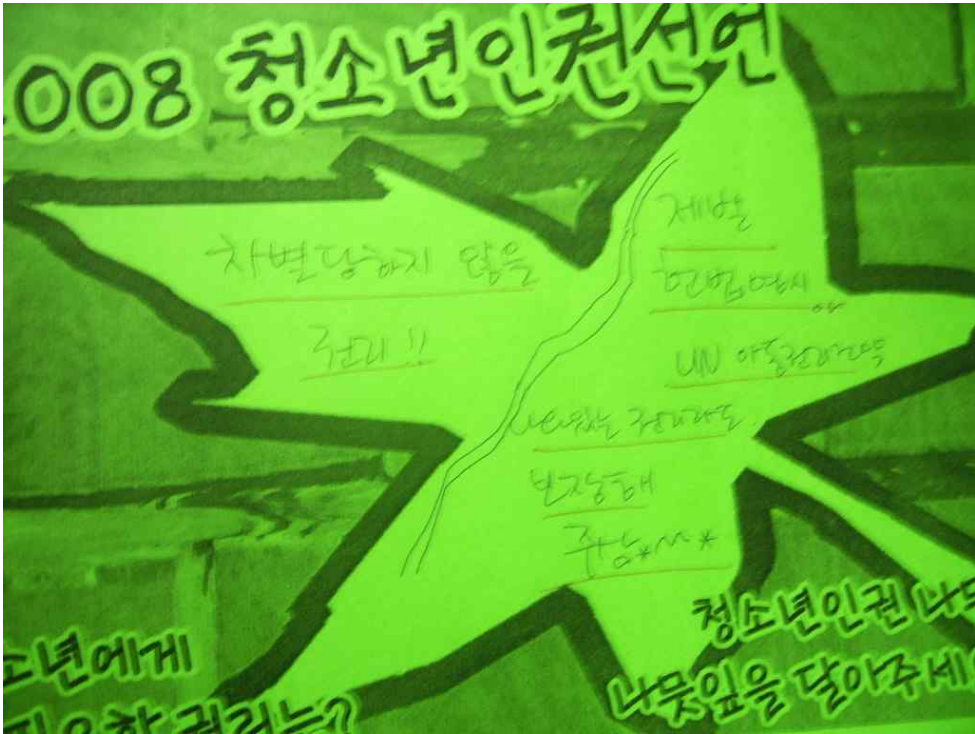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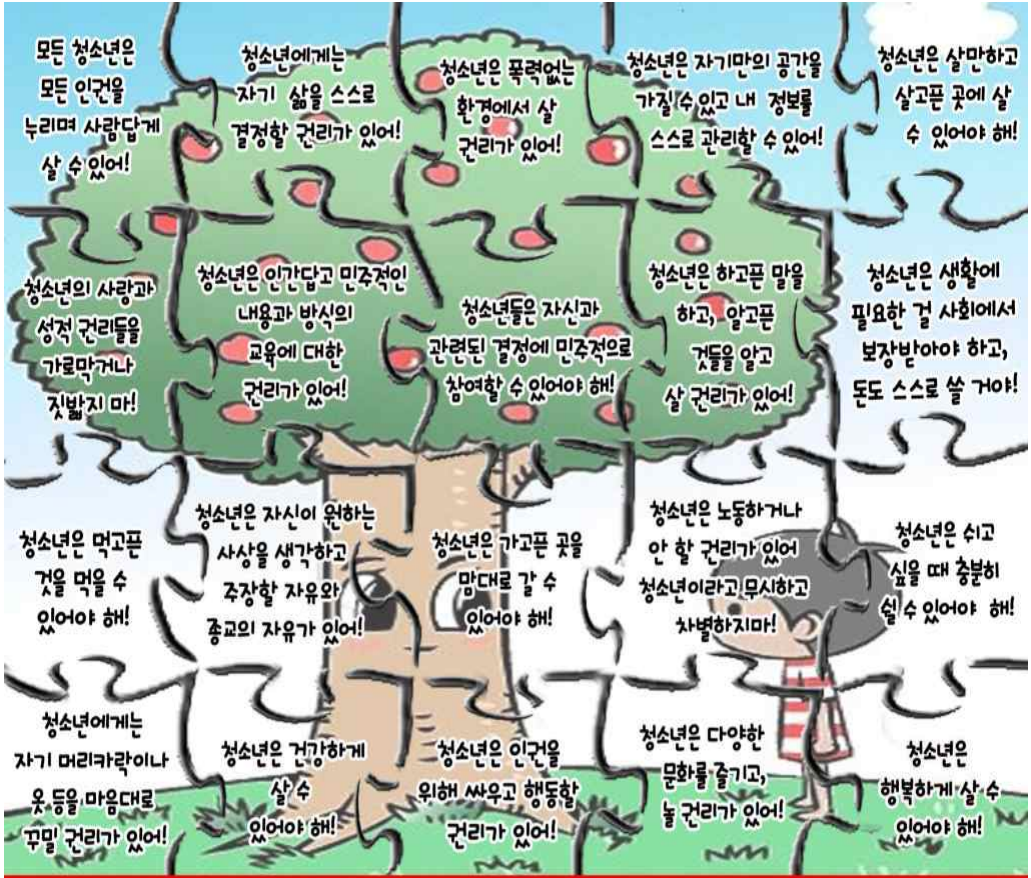












2008 청소년인권선언 “나이가 적다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구!!” 하나라도 빠지면 퍼즐은 완성되지 않아~

3부

연대 사업3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2008, 2009)



개요

연대 사업3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2008, 2009)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은 2008년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몇몇 청소년단체들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한 인권캠프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 2008년 첫 번째를 시작으로 2009년 여름에도 2탄으로 이어진 이 캠프의 이름은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줄여서 별캠프)”로 정하였다. 2008년에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교육팀이 캠프 준비에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외에도 교육공동체 ‘나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문화연대 등의 단체가 공동기획단으로 참여하였다. 2009년에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던 단체들이 함께 준비를 하게 되어 2008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추진하였다.

기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일상교육이나 청소년인권놀이터 ‘빨강 물고기’, ‘와삭와삭 인권서리’ 등에서 펼쳤던 내용과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인문학 수업으로 청소년들을 만났던 경험들이 모여 캠프의 프로그램을 더욱 풍부하게 했고, 2008년에 타올랐던 ‘촛불’의 열기는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데에 불을 지펴주는 계기가 되었다.

두 차례의 청소년인권캠프를 통해 풀어보았던 다양한 주제는 캠프에 모인 청소년들과 청소년활동가들에게도 새로운 의제를 던져주어 청소년운동의 담론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2008년 별캠프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억압들을 살펴보고 그 억압들 중에서도 알쏭달쏭하게 느껴지던 ‘청소년 보호주의’를 본격적으로 깨뜨려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2009년 별캠프에서는 청소년인권을 위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의 비중을 크게 두었다. 청소년인권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이후에 청소년인권활동을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게 된 것이다.

<2008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 웹자보, 2008.07.01.

청소년 인권캠프
별 세 상
 별 (별) 세 상 무 리 가 만 들 자 !!

• 2008년 7월 31일 ~ 8월 2일
 • 양주 딱따구리 수련원에서

첫날 - 개(開)판
 오리엔테이션 “거짓말”

다음날 - 갱(更)판
 “인권감수성높이기”
 “놀이터”
 “끝장토론”

마지막날 - 굿(good)판
 “마음나누기”

[참가방법] Notice
 선착순 40명입니다.

함께 준비한 사람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육공동체 나다,
 문화연대

-카페에 가입한다. <http://cafe.naver.com/qufzoavn>
 (한글로 '별캠프'를 치면 됩니다^^)
 -참가신청 게시판에 글을 쓴다. (이름, 소속, 전화번호 등)
 -참가비 2만원 을 납부한다. [신한은행, 110-210-641673, 예금주: 김동환
 문의 : 전교조 서울지부 학생생활국장 김동환 (010-2473-2017)]

“거짓말”로
 알아보는
 ‘진실’이야기^^ /
 용렬기 말릴기/
 인권저도그리기/
 인권반상차리기
 등등 숨은
 프로그램 많아요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
 대안교육은 인권인가?
 대안교육은 보호인가?
 학교폭력
 예방책

토론은 이렇게
 하는거야!!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보여주자!!
 끝장토론 기다려-

ㅋㅋㅋㅋ
 ㅎㅎㅎㅎ

첫째날 : 별을 낚는다
 일상에서 인권을 찾아보자.
 다른 세상을 향한 상상력을
 낚아보고 키워보는 첫날~

둘째날 : 별을 쏜다
 인단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폭력과 차별을 우리들의 별랄한
 저항과 행동으로 쏘아버리자고~

셋째날 : 별을 새기다
 별세상은 캠프에만 있는 게 아니!
 별세상을 만들기 위해 맘 속에
 별을 새기고 떠나는 마지막날~

상콤발랄한 별난세상을 만들어보자구!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2009
 제2회**

문의 + 참가신청은
 별세상캠프 네이버카페!
cafe.naver.com/qufzoavm
 019-210-4640 (준립팀 조영선)

언제? 8월 6~8일 (2박3일)
 어디서? 푸른꿈고등학교
 참가비는? 20000원~

"참가비는 차비!
 참가비가 내기 어려우면
 연락주세요~"

준비 ☆ 광주공동체연합, 전주조각예술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기획단, 「2008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프로그램 소개」, 『2008 별캠프 꼬마자료집』, 2008.07.31.



행사 진행표(7월31-8월2일)

시간	7월 31일(목). 開판	8월 1일(금) 更판	8월 2일(토) Good판
06:30~07:30		일어나서 놀기	일어나서 놀기
07:30~08:30		아침식사 (8시까지 마치기)	아침식사
09:00~10:00		별세상 놀이터 (8시 30분 집결 물놀이 장소이동) - 누리(모곡 유원지)	에필로그(모듬별 롤링페이퍼 평가지 작성) (10시까지 진행) 10시 반까지 뒷정리!
10:00~11:00			
11:00~12:00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청량리역 출발 (버스 캠프참가자 39명, 청소년 기획단 5명, 동부리) (승용차 - 바람, 누리, 소연, 준양) + 버스안에서 모듬 정하기 - 또또, 씬표	+ 모듬 프로그램 다시 00보다 -소연(강당에서 워크숍 후 각 모듬별로 자유롭게 진행) -3시 30분까지 진행하되 자유롭게 끝 마칠 수 있도록 함	집으로 Go Go!!
15:00~16:00	참가자 O.T “거짓말” (4시30분 까지) - 변(강당)	별세상 끝장토론 1부 (강당)	
16:00~17:00	별 모듬, 별규칙정하기 - 또또, 난다(강당)		
17:00~18: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8:00~19:00	몸풀기 마음열기 - 누리 (강당)	별세상 끝장토론 2부 (강당)	
19:00~20:00	인권밥상 차리기 -바람, 윤종 (강당)		
20:00~21:00	자던지 말던지	마음나누기 난장 (강당)	
21:00~22:00			
22:00~ 00:00			
00 :00 ~		자던지 말던지	

헤민, 「[일어나라 인권OTL] ‘보호주의’ 껍질 깨기 - 교칙 패러디, 끝장토론 등으로 시끌벅적했던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현장」, 한겨레21, 2008.08.15.

‘보호주의’ 껍질 깨기

교칙 패러디, 끝장토론 등으로 시끌벅적했던 청소년 인권캠프 ‘별세상’ 현장

▣ 헤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일어나라, 인권 OTL ④]

“캠프 참가자 중 여성은 머리를 묶어야 하며, 남성은 앞머리 3cm로 정한다. 가위는 1만원을 내고 스태프에게 빌릴 수 있다. 캠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한다.”

7월31일부터 2박3일 동안 청소년 인권단체 등이 열고 4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청소년 인권캠프 ‘별세상’은 학교의 교칙을 패러디한, 위와 같은 어이없는 규칙을 적은 종이를 찢고 참가자들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면서 시작했다. 평소 삶에서 ‘질서’를 명목으로 당해왔던 억압을 상기해보고, 청소년은 미성숙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나가는 존재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의미였다.



“‘서로 존중하기’같이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굳이 규칙으로 정해야 해?”

“합의해서 정한다고 해도 그 규칙이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규칙 같은 거 안 정하면 안 돼?”

이런저런 토론이 오가다 결국 ‘어리다고 반말하지 않기’ ‘벌칙은 없음’ 같은 규칙들이 벽에 붙는다. ‘인권 밥상 차리기’ 코너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각종 의제를 찬반에 부쳐보기도 했다(사진).

이튿날 오후 별세상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끝장 토론이 시작됐다. 주제는 청소년들의 일상 전반에서 차별과 억압의 정당화 도구로 사용되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인 ‘청소년 보호주의’였다. 찬성과 반대 의견 발제를 짧게 들고 의견별로 그룹을 나누고, 그 속에서 다시 술과 담배, 성, 정치적 권리 중 관심 있는 주제별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과 담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청소년의 몸에도 해로워. 해롭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임산부에게는 왜 ‘권고’만 하는 걸까?”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장난으로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뽑은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이잖아. 세상에, 며칠 전에 치러졌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겨우 15%였어.”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청소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더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짓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한다.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신체적으로도, 보편적인 사회 경험에서도 그렇다. 이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위험이 더 크다. 하지만 그것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보호주의는 오히려 더욱 청소년들을 약자로 만들 뿐이다. 알 속에 있는 새에게 알을 깨뜨리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은 위험하다며 알을 더 두껍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보호주의’이다.

이처럼 보호주의는 청소년의 일상을 억압하고 있음에도 사회 속에 교묘하게 녹아들어 있어서,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이번 별세상 캠프의 유행어는 “이거 인권침해잖아”였다. 별세상 캠프를 통해 차별과 인권침해를 더욱 공고히 하는 보호주의에 태클을 거는 용기가 조금이라도 늘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 열릴 캠프 등에 관한 정보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cafe.daum.net/youthhr)에서 확인하면 된다.

2009별캠프기획단, 「상콤발랄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시즌2 프로그램 소개」,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2회) “별을 만나다” 자료집」, 2009.08.06.

상콤발랄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제2회 일정!

첫째 날 (6일)		둘째 날 (7일)		셋째 날 (8일)	
		08:00 ~09:00	일어나서 아침식사	08:00 ~09:00	일어나서 아침식사
09:00 ~13:00	8시 30분까지 서울 출발지 집합 무주로 이동 <small>(따로 오시는 분들은 1시까지 캠프 장소에 도착해주세요)</small>	09:00 ~12:00	계곡에서 신나는 물놀이	09:00 ~10:00	잠깨기 산책 & 짐정리
				10:00 ~11:00	“별을 새기다” 캠프 소감 나누기
		~13:00	점심식사	11:00~	집으로
13:00 ~14:30	숙소 배정 및 점심식사	13:00 ~15:00	낮잠시간		
14:30 ~15:30	“별을 만나다” 캠프 소개, 자기소개 몸풀기 맘열기	15:00 ~18:00	“별을 쏘다” 인권을 찾기 위해 행동하는 것의 의미		
15:30 ~17:00	티셔츠 만들기				
17:00 ~18:00	“별을 낚다1” 인권침해 종합진단				
18:00	저녁식사	18:00	저녁식사		

~19:00		~19:00			
19:00 ~22:00	"별을 낚다2"	19:00 ~22:00	"별을 만들다" 인권을 찾기 위한 행동을 연습하자~		
22:00 ~22:30	캠핑 규칙 정하기	22:00~	"별이 되다" 캠핑파이어		
22:30~	잠자리 또는 영화		수다, 장기 자랑 등		

간단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설명 ^^

별을 만나다

별세상의 입구를 장식하는 "별을 만나다"! 처음 만난 사이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티셔츠도 만들고... 물론 자기소개를 한다고 바로 친해지지는 않겠지만, 친해지기 위한 첫 걸음은 되겠죠? ^^
"왜 누구는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하나?" 같은 의문들을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인권을 이야기하는, '별세상 맛보기' 오리엔테이션도 준비되어있어요~

별을 낚다

"인권"이 너무 어렵게 들린다구요?
하지만 인권은 아~주 쉬운 거예요. 평소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있는 인권과 인권침해들을 하나하나 낚아보아요. ㅋㅋ
'유갈리아의 자식들'이라는 통쾌하고 황당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낚은 별들을 가지고서 청소년들에게 왜 지금 같은 인권침해들이 일어나는 걸까 같이 생각해보는 건 보너스!

신나는 웰빙 물놀이

여름철 캠프인데 물놀이 하나 없으면 슬프겠죠? ㅠㅠ
직접 답사 갔다온 사람 말에 따르면 물이 워낙 맑아서 담그기만 해도 피부가 좋아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맑은 계곡물에서 놀기!

별을 쏘다

"우리 인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괜히 인권 얘기하면서 나섰다가 나만 깨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에 대해 우리들의 답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시간~
인권을 찾기 위해 행동한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걸지 얘기해봐요!

별을 만들다

인권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별은 우리 손으로 만든대! 우리만의 발랄한 행동을 기획하는 시간 ^^

노래, 퍼포먼스, 그림이나 전시물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행동을 연습하는 프로그램.

별이 되다

"별을 만들다"에서 만든 것들을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노는 분위기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야기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편하게 친해지는 시간.

별을 새기다

별세상 캠프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되새김질 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서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마지막 날~

공현, 「 '19세미만' 은 왜 '미성년자' 가 되었나」,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2회) “별을 만나다” 자료집』, 2009.08.06.

‘19세 미만’은 왜 ‘미성년자’가 되었나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활동가)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2회) “별을 낚다!”

청소년들에게는, 법적으로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름이죠.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사실상 연20세) 미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년이 아닌 사람’, ‘아직 완성된 나이가 아닌 사람’, ‘미성숙한 나이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마치 장애인을 “비정상인”이라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같은, 괴악한 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한 마디로 차별적인 말이란 거죠.

‘미성년자’라는 굴레

어떤 사람들을 “미성년자”로 이름 붙이고 “미성년자”로 대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미성년자”라고 불릴 때 그 사람들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다른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의 강요를 당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며 교육받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 참여 같은 문제에서는 전사회적 왕따를 당합니다. 그들은 학교의 교육과 가족의 보호·통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하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그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잘못을 고치려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반항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항상 더 옳을 텐데.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든 자기 삶의 진로를 결정하든 정책을 결정하든, 그들은 쪽 빼놓고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혹시 무슨 사고를 저지르거나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밤에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보호자의 허락 없이 돌아다니거나 외박을 하거나 하면 안 되죠. 돈을 주거나 돈을 벌 수 있게 했다간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깐 조금씩조금씩 용돈만 주거나 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미성숙한 그들을 위해 사회가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미성숙하고 불완전 하니까 혹시 책이나 그림이나 영화 같은 걸 보거나 음악을 듣다가 잘못된 걸 따라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깐 그런 것도 다 미리미리 금지해줘야 합니다. 성행위? 섹스하다가 덜컥 임신이라도 하거나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당연히 다 금지해야죠!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성욕이나 성적 자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청소년의 섹스할 자유? 그게 뭐임? 먹는 거임? 우걱우걱.

특히 한국에서 더 두드러지는 건데, 이 그들에게는 한 가지 더 무거운 짐이 지워집니다. 입시경쟁, 취업경쟁이라는 짐이죠.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미성년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경쟁은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처럼 먹고 살기 힘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미성년자’는 자연스러운 걸까?

그런데 정말로 당연한 일일까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미성년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꽤나 간간한 제한을 가하고 학교에 반드시 다녀야 하게 만드는 등의 일이 꼭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당장 다른 나라들을 봐도 서로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는 데 나이에 따른 제한이 별로 없다던가, 선거권이 만 16세라던가, 15~16살만 되어도 원한다면 독립해서 살 수 있다던가, 12살에 애를 낳아도 너무 큰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다든가... 학교나 교육제도가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최근에 좀 뜬 『88만원세대』 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주로 한국 20대들의 현실을 다룬 책인데요, 심심찮게 10대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챕터 제목이 「첫 섹스의 경제학 - 동거를 상상하지 못하는 한국의 10대」 입니다. “동거를 상상하지 못하는 한국의 10대”. 이 말 속에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동거를 상상할 수 있는 10대”들이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실제로 다른 몇몇 나라들에서는 16~18세만 되어도 섹스·동거·독립을 비교적 자유롭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제도들은 사회가 만든 것입니다. 역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아동’, ‘어린이’, ‘청소년’, ‘미성년자’ 같은 개념과 제도들이 생겨난 건 500년도 안 된 일입니다. ‘학교’처럼 거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꼭 다녀야 하는 교육기관이 생긴 건 그보다도 더 가까운 과거의 일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00년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이전에도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는 게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고, 대체로 지금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청소년들의 뇌가 어찌구저찌구 호르몬이 어찌구저찌구 하는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변인”이니 “질풍노도의 시기”이니 “자아정체성 확립”이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며 청소년들을 규정하려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교과서에서나 책 속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사실 이런 얘기들은 100%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화가 다른 여러 사회들을 살펴보면, 아이와 어른의 구별이 별로 없는 사회, ‘질풍노도의 시기’ 같은 것 없이 아주 평화롭게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사회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10대’들이 판단력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듯이 보이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회가 그들을 어른들과 격리시켜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고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 문제행동을 일삼는 것처럼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사회에 참여할 권리, 경험을 쌓을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권리와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식의 니케리스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오히려, 정말로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성욕이나 성적인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하는 15~16세부터 섹스, 결혼 등이 가능한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합니다. 청소년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며 통제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뇌가 아직 덜 익었다거나 그들의 몸 속에서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감정과 행동을 조장하는 호르몬들이 마구 분비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 18세까지는 판단력도 없고 명칭하고 비합리적이다가, 만 19세가 넘으면 판단력이 갑자기 짠하고 생기고 삶과 사회에 진지해지고 합리적으로 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이 사회가 그때위로 생겨먹은 탓입니다.

왜?

그럼 왜 이 사회는 이따위로 생겨먹은 것일까요? 설마 특별히 어른들이 못돼먹어서, 성격이 안 좋아서, 변태라서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노동이 금지되기 시작한 때, 청소년들에게 학교에 다닐 것을 요구하고 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만들어갔던 때를 살펴보면 대충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제도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을 억누르고 ‘배워야 하는 존재’인 ‘미성년자’들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도 초등학교가 생겨나면서 아이,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고 중등학교가 생겨나면서 청소년기가 보이게 되었거든요.

처음 유럽에 도시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던 때는, 참 비참하고도 끔찍한 노동 착취가 흔하고 당연한 일이었

습니다. 특히 많은 공장들이 적은 돈을 주고 아이들을 고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임금이 적었던 건,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약한 입장이었고, 따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숙련되지도 않은 노동자로 주로 단순한 업무에만 고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하루에 최저 10시간 최대 19~20시간씩(!) 일을 하는 끔찍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과도하고 위험한 노동에 목숨을 잃었고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10대 후반일 때도 있었습니다.(즉, 노동자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죽었던 이야기!) 빈민이나 노동자 계급에 속했던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과도한 노동 속에 몸을 망치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응하여, 일정 나이 이하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률들이 18세기 이후에야 만들어졌습니다. 학교에 다닌다는 취학 증명서를 가져오는 아동·청소년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같은 게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아동 노동 금지, 의무교육 도입 등이 이루어진 데는 두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끔찍한 현실을 바꾸고 (아동을 포함해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인간답게 살게 해야 한다는 노동자들 자신과 양심적인 지지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권리 사상의 발전이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죠? 물론 직접 노동 착취를 없애고 사람들이 굶어죽을 걱정 없이 살게 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한 공여지책일 수도 있지만요.

반면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력이 필요해졌다는 것, 학교 교육을 통해 더 순종적이고 규율을 잘 따르며 생산성 좋은 노동자를 만들 수 있으며 사회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전쟁 등으로 인해 국가의 말을 잘 따르고 군사화된 국민들이 필요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교의 모습은 많은 부분이 1800년대 프러시아(지금의 독일지역)에서 시작된 국가주의·군사주의 교육에서 온 것입니다. 당시 프러시아는 중앙집권화된 학교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 고분고분한 광산노동자 ▲ 정부 지침에 순종하는 공무원 ▲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일하는 사무원 ▲ 중요한 문제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하는 시민들. 프러시아의 교육은 순종적인 군인·노동자·공무원을 만드는 교육이었고 복종과 규율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독일 민족주의 교육의 대표자인 안이라는 사람은 민족부흥을 위해 의무교육이 필요하며, 민족주의적 의미가 없는 교과목의 폐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프러시아의 이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지적도 있지요. 그밖에도 그 시대에는 많은 저명한 사람들이 학교 교육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정부에 복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생산성 좋은 노동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학교교육이 도입되고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소년’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근대 문물이 막 들어오던 1800년대 후반~1900년대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국가주의·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띤 것은 한국에서도 별로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특히 조선-대한제국-한국에서는 청소년, 학생들을

민족의 전사이자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고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세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한국전쟁까지 거치고 난 이후 한국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954년 문교부(지금의 교육부) 장관이 쓴 글을 보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업을 닦는 목적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성년자’ — 청소년, 아동들을 따로 구분하고 학교 교육을 받게 한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던 때에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이”는 것이 국민으로서 청소년들의 의무라고 밝히고 있는 ‘국민교육헌장’을 청소년들에게 달달 외우게 했던 때입니다. 청소년들, 학생들은 조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 청소년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야 할 대상이었고 그 때문에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 알고 판단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반공주의와 애국주의를 벗어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지만 말이지요. 그건 청소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했다기 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확일적 의식을 강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프러시아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육에서도 군사주의·군국주의적인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과 십 년 전까지도 있었던 ‘교련 과목’도 그렇고, 우리가 체육 시간이나 운동장 조회 때 하게 되는 줄 맞춰 서는 훈련 등도 그렇습니다. 두발복장규제는 특히 군사주의적 냄새가 많이 나는데, 때로는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교육에서 경쟁이 심한 것 또한 청소년들을 이 사회에 순응하게 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효과가 있지요.

그리고 한때는 한국에서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착취가 심각했습니다. 섬유, 옷, 봉제 등이 주력 산업이던 1960~70년대에는 평균 15~18세 나이의 청소년들이 어두운 공장에서 하루 15시간씩 재봉틀을 돌리고 마름질을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이런 노동 현실에 분노하여 항의하다가 분신하여 돌아가신 노동자 분이 바로 전태일 씨(본인도 17살부터 일을 했던)였습니다. 이러한 아동 노동이 실질적으로 금지되고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산업 구조가 바뀌고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이런 패턴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동아시아만의 특색도 없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교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독특한 ‘가족주의’라거나 교사에 대한 독특한 존경, 나이에 따라 존댓말 반말이 갈리는 등 나이 구별/차별이 찌는 나이의 주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국 ‘미성년자’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지요.

시간이 흐르고 1990년대가 되면서 청소년들의 노동이 줄어들고, 청소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이유(반공, 애국, 근대화 등)도 줄어들면서 청소년들은 자연스레 사회에서 왕따가 되어갔습니다. 1920년대에는 그렇게 흔하던 중고생들의 동맹휴학이나 학교 점거, 시위 등이 지금은 별로 없는 것에는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사회의 주체라기보다는 의미있는 소비계층, ‘알 수 없는’ 젊은 세대 정도로 생

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촛불이다 뭐다 하고난 뒤에야 사회적 주체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좀 진지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편이지요

어쨌건 결론을 정리해봅시다. “왜 이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를 따로 나누고 통제하고 학교를 보내고 사회에서 왕따시키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이유를 대략 요약하자면, ①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착취를 당하기 쉬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공여지책 ②국가와 기업(자본)이 아동·청소년들을 사회에 순응적이고 명령에 잘 따르고 생산성 좋은 국민·군인·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였습니다. ①번 이유는 의미가 없지만 ②번 지금 학교나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큰 영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통제는 어른들이 못돼먹어서도 아니고 변태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처럼 국가가 사람들보다 더 우선시되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지금 같은 가족제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이 사회를 계속 꾸려나가기 위해 생겨난 제도인 것입니다. 학교는 우리들이 똑똑해지고 훌륭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가와 기업(자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다른가요? 너무 음모론처럼 들린다구요? 하지만 역사를 봐도, 그리고 지금 있는 여러 정책들의 결과를 봐도, 충분히 그럴 듯해 보이지 않나요?

‘미성년자도 인간이라는 외침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도 인간이다.”라거나 “청소년도 인간이다.”, “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은 단지 나쁜 어른들의 편견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사회에 도전하는 일이고, 사회의 문화와 제도와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가족·가정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건 어쩌면 자본주의, 국가주의 사회에 대한 혁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거죠

어려운 일이더라도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미성년자’가 아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같은 학교, 지금 같은 가족·가정이 없는 사회는 어떤 세상일지. 그럼 14살짜리 청소년이 임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애를 낳아서 기르라는 건지. 8살짜리 아이에게도 투표권을 주지는 건지. 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약자가 아니게 만드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어쩌면 청소년들 스스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주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복이 없어지면 아침에 뭐 입고 나갈지 고민해야 해서 싫다는 청소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제와 타율과 귀차니즘이 자유나 개성이나 인권에 대해 거둔 쓸쓸한 승리.)

구체적으로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더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미성년자’도 인간이라고 말하는 외침은,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토록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이죠 ^^

*** 참고문헌**

『바보만들기 -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 존 테일러 개토

『이팔청춘 꽃피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 - 청소년 만들기과 길들이기』 고미숙, 권인숙, 김현철, 나임윤경,
박노자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아동」 배경내

배경내, 「무엇이 널 무릎 꿇리고 있니?」,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2회) “별을 만나다” 자료집』, 2009.08.06.

무엇이 널 무릎 꿇리고 있니?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십대 때까지 난 무척이나 소심하고 어른들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였어. 내가 무얼 원하는지를 들여다보기 보단 어른들에게 예쁨 받고 인정받는 데 연연해하는 아이였어. 간혹 고개가 가웃겨려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금세 참을 만해지곤 했었지. ‘난 아직 어리고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걸, 너무 튀는 건 부담스러워, 그러다 선생님 눈 밖에 나면 어떻게 해, 세상이 이리 돌아가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지.’ 이제 와 생각해보면 참는다는 건 내 안의 목소리를, 내 안의 꿈틀거리는 역동을, 내 안의 양심을,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엮어내는 힘을 억누르는 일이었어. 공부는 잘하지만 스스로 생각할 줄은 몰랐던 나, 친구가 부당하게 체벌을 받을 때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던 나, 떠든 친구의 이름을 적어내면서 내 이름은 적히지 않기를 바랐던 나, 엄마가 늦게 귀가했다고 아빠가 주먹질을 할 때 무서움에 떨며 오히려 (불씨를 만든) 엄마를 원망했던 나, 교원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난 선생님과 친구들을 외면했던 나, 그래서 예쁨은 받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사랑할 수 없었던 나. 그게 스무 살의 봄, 거울 앞에 선 작고 움츠린 내 모습이었어.

대학을 다니며 인권이란 말을 만나고 나서야 난 비로소 나 자신을 찾게 된 것 같아. 나를 침묵케 하고 죽여왔던 내 안의 ‘착한 아이’를 버리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나를 용서하게 되었고, ‘웅크린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자유와 평등마저도 부당한 관행과 법, 제도에 맞선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어진 끝에 가까스로 얻어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제도 따위에 따르기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행동을 시민불복종, 불복종 직접행동이라고 불러. 성경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만, 역사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는 걸, 세상을 변화시켜온 건 무수한 불복종행동이 이어진 덕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지. 불복종행동은 순종을 강요하는 법이나 제도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을 깨우치고 큰 물결을 만들어내는 법이거든.

불복종에 관한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민의 불복종>을 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19세기말 멕시코 침략에 반대해 세금을 내기를 거부했어. 내가 낸 세금이 부당한 전쟁을 위해 사용된다면 나도 그에 일조하는

셈이 되니까.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소로우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그 후로도 소로우는 미국의 노예제 유지를 비판하며 불복종행동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해. 1996년 1월 29일 새벽 3시, 세 명의 영국 여성은 인도네시아에 수출될 예정이었던 전투기 안으로 몰래 들어가 가정용 망치로 기관총, 레이저 등 무기를 부셨어. 그리고는 인도네시아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동티모르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사진을 붙이고 동티모르의 정의와 평화를 요구했어. 그 바람에 이들 세 여성은 구속되었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지. 이들이 파괴한 것은 평화를 파괴하는 무기였거든. 이 일로 영국사회는 먼 나라 동티모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점령국인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영국정부의 잘못에 대해 알게 됐어.

이처럼 불복종행동에는 위험과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정의롭지 못한 제도나 행동의 핵심을 찌르는 불복종일수록 더 큰 위협에 놓이곤 하지.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불복종을 선택하는 걸까? 1950년대 가혹한 흑백차별에 반대하며 미 몽고메리주에서부터 시작된 버스 타기 거부운동에 참여했던 72살 흑인 할머니는 그 이유를 잘 말해준 바 있어. “내 두 다리는 지쳤지만 나의 영혼은 편안하다.”

이런 행동은 성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965년 미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메리 베스팅커와 다른 학생들은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항의 표시로 검은색 완장을 차고 등교했어. 징계를 받을 거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다음날에도 텅커와 친구들은 완장을 차고 등교했지. 학교는 이들에게 결국 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학교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멈춰서는 안 된다며 텅커의 편을 들어줬어. 텅커는 이 사건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 위대한 생각으로 사람들이 한테 뭉쳤을 때 어린 학생이지만 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믿었다고, 어린 사람들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가 할 말이 있을 때 사람들은 듣어야 한다고. 프랑스에서도 교육정책이 잘못 나왔을 때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다르지 않아. 부안 핵폐기장 건설, 대운하 건설과 같은 환경재앙을 초래할 국가 정책이나 이라크의 평화를 파괴할 파병 결정 등에 대한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도 자기 역할을 찾아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어줬던 첫 주역도 바로 청소년이었고, 학생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몰아넣는 일제고사 실시에 반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시험거부나 등교거부에 나서고 있기도 해.

물론 불복종은 정부 정책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아. 압제는 정부만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학교, 거리, 아르바이트 가게,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압제는 존재하는 법이잖아. 2004년 종교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 강요에 반대하여 1인시위와 단식에 나섰던 강의석 학생, 2007년 교사가 휘두르는 몽둥이를 붙잡아 중단시킨 한 이름없는 학생, 2008년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며 학교 옥상에 올라 종이비행기 시위를 벌였던 광명 진성고 학생들, 그리고 선도부 선배에게 맞아 목숨을 잃은 친구 영정을 들고 거리로 나서 학교의 변화를 촉구했던 강릉 K고 학생들, 모두가 이런 진실을 깨우쳐

준 사람들이지. 이런 행동들이 모여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거름이 되고 있어.

청소년이 불복종행동에 나설 때는 성인보다 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는 징계를 당할 수도 있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외출금지를 명하거나 용돈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보며 왠지 불안해지기도 할 거고, 불복종의 이유

를 아무리 조곤조곤 잘 설명해도 잘난 척 한다, 어린 게 까분다, 싸가지 없다, 괜히 분란만 만든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분명히 내가 결정한 일인데 ‘배후가 누구냐?’는 난데없는 공격을 받기도 해. 청소년들도 생각이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도무지 믿고 싶어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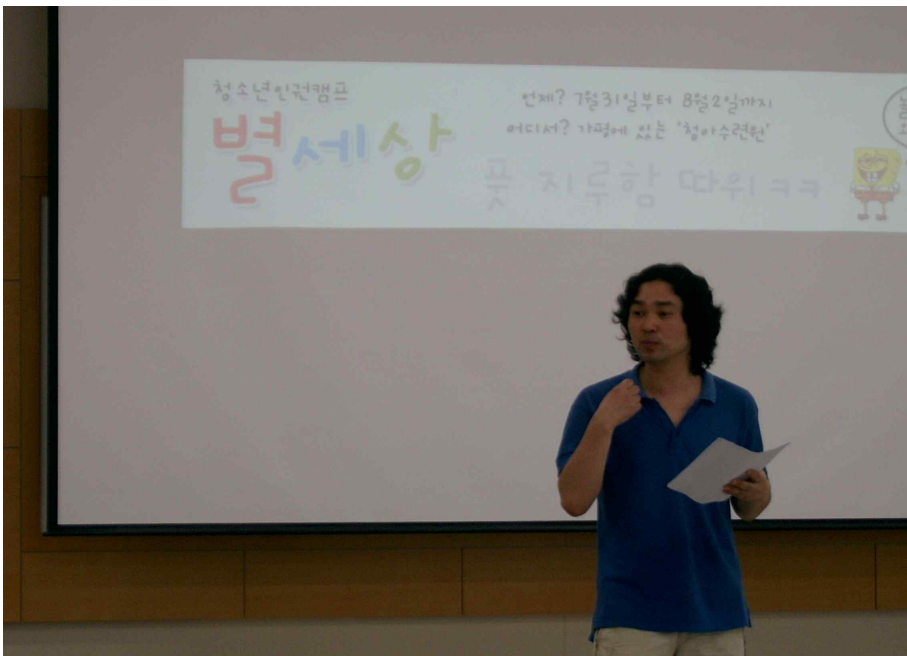
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이 소신있게 행동에 나서기란 정말 쉽지 않아. 그래서 ‘오늘만, 내일만, 올해만, 내년만, 스무 살 될 때까지만 참자.’는 유혹의 목소리가 자주 올라 오곤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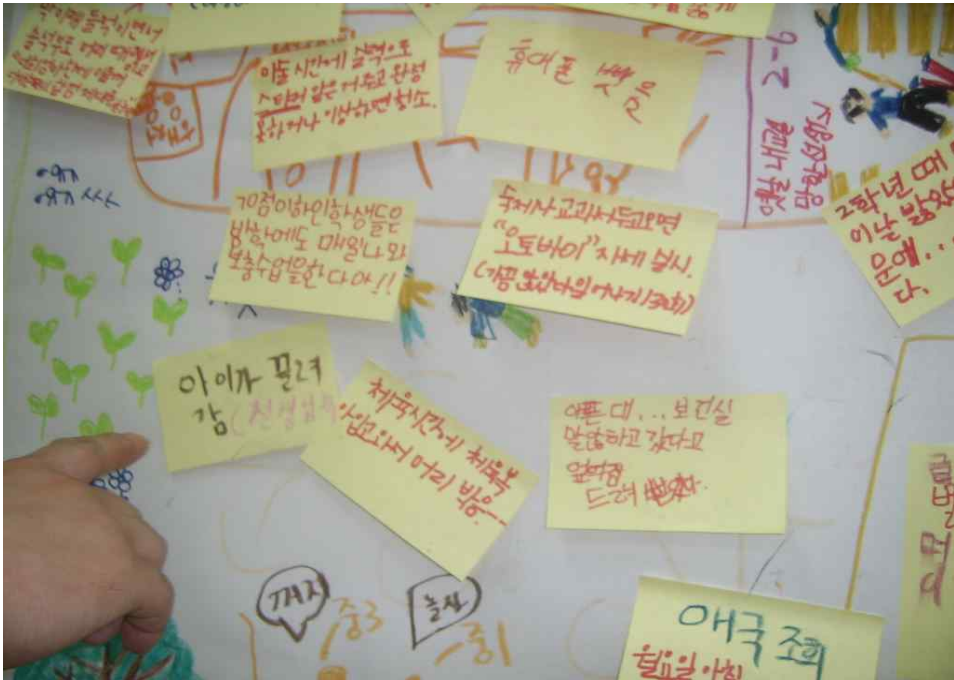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는 알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내일이 되면 좋아질 거란 생각으로 ‘지금’을 포기하는 한 우리가 원하는 변화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걸. 존엄을 포기하고 무릎 꿇는 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걸. 공포가 양심을 짓누르는 사회에선 영혼이 숨 쉴 수 없다는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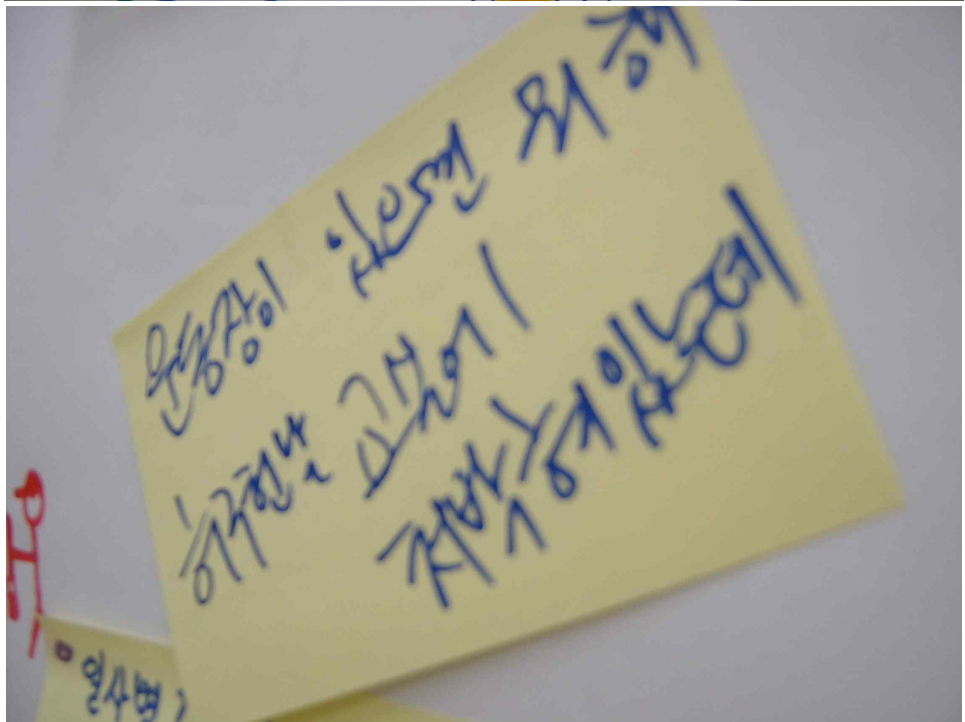
지금 네 영혼은 평안하니? 넌 무릎 꿇지 않고 당당히 서 있니? 아니라고? 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가 보이니? 그럼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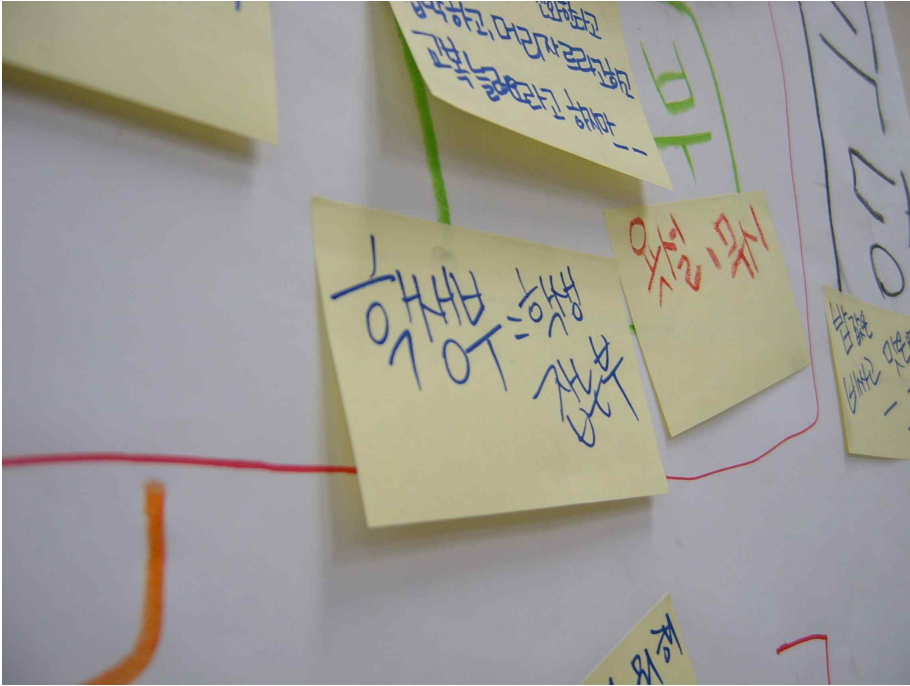
* 출처 : 김진아 외, 『열정세대』, 양철북, 2009.

〈2008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소장사진











4부

연대 사업4
청소년활동가대회 챗 (2010)



개요

연대 사업4

청소년활동가대회 챗 (2010)

2008년, 2009년 두 차례의 청소년인권캠프를 진행하면서 2010년에는 어떤 인권캠프를 준비해볼까 고민하던 차에 단순한 인권캠프가 아닌 청소년인권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단체/활동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보자 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청소년활동가대회 기획이 출발했다. 당시 2008년 촛불정국 이후로 새롭게 조직된 청소년단체들, 청소년인권활동을 비롯한 청소년문화, 노동, 교육 등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들이 함께 교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청소년운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공동체‘나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이우학교인권동아리‘아우름’, 인권교육센터‘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포럼‘위더스’, 청소년인권행동‘이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문화공동체‘꿈’, 청소년활동기반마련프로젝트‘활기’ 등 13개의 단체/개인활동가들이 2010청소년활동가대회 기획단에 참여하였다.

청소년활동가대회라는 처음 시도되었던 자리였던 만큼, 준비과정이나 프로그램 기획 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었으나. 뿔뿔이 흩어져있던 청소년활동가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활동가대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청소년활동가대회라는 첫 시도를 디딤돌 삼아 이후 청소년운동의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0청소년활동가대회기획단,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기획안, 2010.05.25.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기획(초안)

- 제목 : 2010청소년활동가대회 “우리지금만나~당장만나~”
- 일시 : 8월12일(목)~14일(토) / 2박3일
- 장소 : 미정

취지 : 청소년단체/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며, 청소년단체/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고민의 교류를 통한 운동의 성장을 꾀한다

참가대상 : 전국의 청소년들의 참여, 자유 등 청소년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동아리 회원 및 활동가들과 청소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단체/동아리 회원 및 활동가들 (약100여명)

- 주최 : 2010청소년활동가대회준비모임
- 주관 : 2010청소년활동가대회기획단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

1. 준비모임

<공동주최단체>

- 구성 : 2010청소년활동가대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모든 단체들로 구성
- 역할 : 행사분담금납부, 참가자조직/홍보, 준비과정에서 기획에 대한 의견개진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보신당을지지하는청소년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문화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교육공동체 나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총12개)
- 추가로 제안할만한 단체 : YMCA, 나눔문화, 엠네스티,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기준 : 청소년들의 참여, 자유 등 청소년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 청소년 자발적인 사회참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단체)

<기획단>

- 구성 : 2010청소년활동가대회 취지에 공감하며 함께 준비할 수도권지역 활동가(개인) 약20여명으로 구성

- 역할 : 후원/장소섭외, 프로그램기획, 참가자조직/홍보 등 일상적인 행사준비전반

2. 예산

<지출예상>

숙박및 장소대관	식사	버스대절	기타
2260000원 (이백이십육만원)	1750000원 (백칠십오만원)	2000000원 (이백만원)	4550000원 (사백오십오만원)
총 10560000원 (천오십육만원)			

<후원받을 만한 곳>

금전적 후원 : 교육, 시민, 인권, 노동 단체 / 한국인권재단

장소 후원 : 대안학교 및 대학교 / 유네스코 문화원 / YMCA 청소년수련원

기타 후원 : 메이데이/양철북(책)

▶2010청소년활동가대회기획단, 2010청소년활동가대회후원요청서, 2010.07.18.

2010년 청소년활동가대회
http://cafe.daum.net/youthm
2010youthm@gmail.com

수신 : 청소년/교육 관련 단체 및 활동가 여러분

일자 : 2010년 7월 18일

발신 : 2010년 청소년활동가대회 기획단

연락 : 난다 010-9916-1461

제목 : 2010년 청소년활동가대회 소개와 후원 요청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가들의 만남과 소통의 잔치, 그 첫 번째 걸음
2010년 청소년활동가대회 “챗 chat~”을 후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0년 청소년활동가대회 기획단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다양한 정치적·문화적 실천을 통해 주어진 대토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자발적 실천으로 이 사회의 한 주체로서 세상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활동가들이 만나 자신의 활동에 대해, 건강한 삶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서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 “청소년활동가대회 챗 chat”을 마련하려 기획단이 꾸려졌습니다(청소년들이 주축이 되고 비청소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기존 사회의 낡은 관습 속에서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지원들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아직 그 나이엔 이르지 않나. 대학이라도 가서 하는 게...” 라며 ‘일단은’ 숨죽여 지내기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만나는 자리와 활동, 행동 등을 달가워하지 않거나 낯설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단절이 아니라 소통을 원하는 이들의 첫 마음이 제대로 영글고 다시 많은 청소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지지들을 서둘러 모아야 합니다. 이에 귀 단체에서(활동가 및 시민 여러분께서) 행사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사 개요와 함께 후원 방법을 첨부문서로 제안해 드리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뭐 하나라도 보태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귀 단체의 노력에 감사와 지지를 보내며 이만 줄입니다.

▣ 첨부 1 2010년 청소년활동가대회 소개 및 후원 참가 안내

▣ 첨부 2 2010년 청소년활동가대회 참가 신청서

◆ 2010년 청소년활동가대회 “챗 chat~” ◆

소개 및 후원 참가 안내

I. 행사 개요

1. 제목 : 2010년 청소년활동가대회 “챗 chat~”

2. 일시 : 8월5일(목)~7일(토) / 2박3일

3. 장소 : 남양주 오덕훈련원

4. 참가 인원 : 70명

5. 참가 대상

: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거나 실제로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들. 또한 청소년 인권과 청소년들의 사회 활동을 지지하며, 청소년활동가대회의 취지인 ‘청소년 활동, 더 넓고 튼튼해 지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1) 청소년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동아리 회원 및 활동가

2) 청소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동아리/소모임 등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3) 학생회나 학내 동아리 등 학내에서 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4) 청소년 활동에 깊은 관심과 의지가 있는 개인

※ 청소년/ 성인 모두 참가 가능하지만, 본 대회는 청소년 중심의 기획으로 진행합니다. 기획단 외 참가를 원하는 성인은 기획단에 따로 연락해 주세요.

6. 참가 신청

: 다음카페 2010청소년활동가대회 <http://cafe.daum.net/youthm>에서 신청서 다운→ 메일

2010youthm@gmail.com으로 신청서 제출

7. 문의

<http://cafe.daum.net/youthm> 2010youthm@gmail.com 010-6899-6946(어쓰)

8. 주최

1) 주최 : 2010청소년활동가대회준비모임(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공동체‘나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이우학교인권동아리‘아우름’, 인권교육센터‘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포럼‘위더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문화공동체‘품’, 청소년활동기반마련프로젝트‘활기’)

2) 주관 : 2010청소년활동가대회기획단

3) 후원 : 아름다운재단(2010년 7월 15일 현재, 후원 단체 모집 중입니다)

II. 행사 취지

1. 취지

: 사회는 살아가는 ‘곳’인 동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10대들이 살아가는 ‘곳’은 청소년이라는 만만치 않은 현실을 자신들의 땅으로 합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는 경쟁, 대학, 순응 등 몇 가지 키워드로 설명 가능한 남의 손으로 선택된 삶이 강요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러한 삶을 그냥 받아들인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활동가 대회에서 만나고자하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내 손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획일화된 청소년/학생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욕구와 생각, 특히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당당히 발언하고 행동하는 청소년들의 ‘활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다고 하여, 그 목소리를 내는 존재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 제도권 학교, 대안학교, 다양한 사회단체, 청소년 단체, 학내 동아리, 또는 동네친구끼리 결성한 작은 소모임까지. 제각기 다른 곳에서 단절된 채 흩어져있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장, 그리하여 새로운 가능성이 움틀 수 있는 그 ‘곳’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내용

: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 chat~”은 2박3일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다양한 의제를 공유하고 청소년 활동으로 유인 네트워크의 확장과 강화를 꾀하려하고 있습니다.

3. 주목할 사항

- : ① 기획단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을 미리 모집해 행사 기획과 준비, 진행을 모두 청소년들이 함께 합니다.
- ② 청소년활동가대회는 일회성 캠프에 그치지 않고, 캠프 참가자 및 기획단과 함께 논의의 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Ⅲ. 세부 구성 및 진행

1. 전체 일정

(※ 세부 일정은 기획 과정에서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Ⅳ. 후원 방법

1. 후원금 쾌척

아래에 첨부하는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경비가 아직 다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만원이라도 귀하게 쓰입니다!

국민은행 479002 01 232341 (김동균)

2. 물품 후원

- 1) 차편 : 대절 버스 대금 액수가 너무 커서 대형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아요. 승용차로도 후발대로 이동하는 청소년들을 데려다 주실 수 있겠고요 지원 가능한 시간대와 차편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경우를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 2) 간식 : 정규 식사 외에 먹을 게 많이 필요해요. 감자, 옥수수 같은 농산물도 좋고 과자나 음료 지원도 배고픈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기쁘답니다.
- 3) 문구류 등 비품 : 필기구 등 소소한 비품이 지원되면 사용 후 각자 자기 활동으로 돌아가서도 고맙게 쓰일 거예요.

4) 기념품 : 한 번 모이기 어려운 자리에 함께하는 만큼 기념이 될 만한 물품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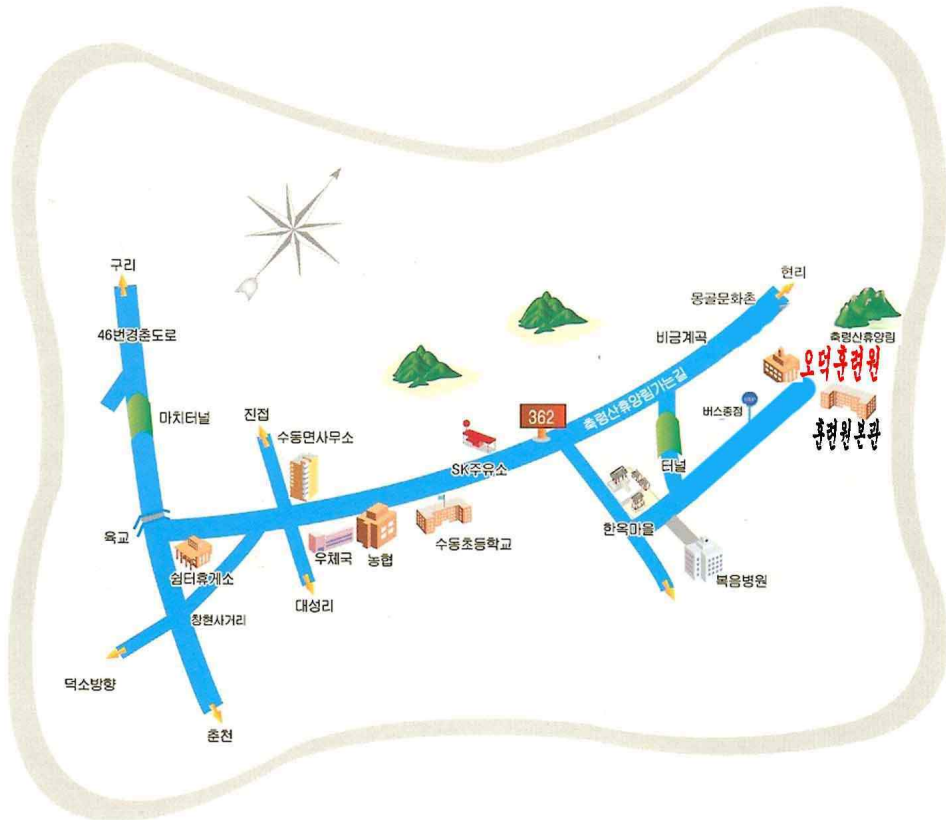
3. 행사 홍보

- 1) 웹자보 게시 : 운영하시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웹자보를 올려주세요!
- 2) 메일링 : 단체별로 보유하신 메일링 리스트로 본 행사 안내를 싸 주세요!
- 3) 참가자 모집 : 주변 분들께 적극적으로 참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V. 참고자료 1-전체 예산

VI. 참고자료 2-행사장 약도

● 오시는 길



오덕훈련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276-4 <http://cafe.daum.net/fivevirtue>

※ 별도 문서로 참가 신청서 첨부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 [chat]

개안같이 재미있는데 오지 않을테야?

“애들은가라?!?!? 곧대는가라!!”
발칙한 청소년활동가들의 chat!

인권, 환경, 평화, 참여, 노동, 여성 등등
다양한 청소년활동가들의 chat!

일시: 2010년 8월5일(목)~8월7일(토) / 2박3일
장소: 오덕훈련원 (경기도남양주)
신청: 카페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2010youthm@gmail.com 메일로 보낸다
참가비: 5000원(내기어려운님들은연제+멀리서오는님들은차비지원)
문의: cafe.daum.net/youthm 또는 010-4114-8004
주최: 2010청소년활동가대회준비모임

cafe.daum.net/youthm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기획단,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 챗(chat)” 재미난 일정 소개」, 「2010 챗(chat) 자료집」, 2010.08.04.

2박3일 재미난 일정 소개

	8/5 첫째날	8/6 둘째날	8/7 셋째날
07:00~	버스 타고 출발~	남남 아침식사 +씻기	[chat6]로그아웃 아침 만들어 먹기 + 헤어지는 시간
08:00~			
09:00~			
10:00~		신나는 물놀이	
11:00~		남남 점심식사	
12:00~			
13:00~	참가접수+부스설치	쿨쿨낮잠 &자유시간	<상시 프로그램> - 활동 사진전시 - 댓글 토론(전지) - 문자 토론
14:00~	[chat1]로그인 접속하기, 친구 추가하기		
15:00~	[chat2]환경설정 약속 정하기	[chat4]오락(五樂)하기 다섯 가지 주제가 있는 모 둠토론	
16:00~			
17:00~	남남 저녁식사	남남 저녁식사	
18:00~			
19:00~	[chat3]대화하기 자기활동 나누기	[chat5]대화창 흔들기 간지 줄줄 청소년활동을 위 한 뜨거운 끝장토론	
20:00~			
21:00~			
22:00~	잉여번개모임 신나는밤!뜨거운밤!		

두.근.두.근 프로그램 소개

Chat I 로그인

첫째날 / 14:00~16:00 (2시간)

‘이 님은 누구?’ 어색한 우리 어색한 미소를 날리며 ‘챗’방에서 쓸 **대화명을 설정 해봐요**. 대화명을 설정했다면 친구들을 찾아 추가할 차례! 처음 만나 아직은 낯설지만 서로 질문을 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어색함도 풀어 봐요.

Chat II 환경설정

첫째날 / 16:00~18:00 (2시간)

이제 2박3일 동안 함께할 우리들의 챗[Chat] 환경을 설정할 차례! 기본설정 / 대화체설정 / 이모티콘설정 / 플래시콘설정 4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재밌고, 의미있는 챗[Chat]을 만들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해봐요!

Chat III : 모난라디오 스페셜공개방송 ‘별이 모나지는 밤에’

첫째날 / 19:30~22:00 (2시간30분)

‘모난라디오’가 ‘챗’에 뒀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인터뷰를 요청해도 당황하지 말아요. 그냥 당신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단체나 활동에 대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Chat IV 잉여번개모임

첫째날 / 22:00 ~

그요한 밤, 거룩한 밤 빼염! 우리는 뜨겁고 신나는 밤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잉여’가

되겠다는. 뽕굴거리기부터 달빛산책, 마피아, 좀비게임, 카드게임, 만화책, 공포영화, 다큐영화까지! 잉여!

Chat V 五樂(오락)하기

둘째날 / 15:30~18:00 (2시간30분)

서로 다른 분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활동해온 우리. *하지만 청소년들끼리만 통하는 것이 있다!* 다섯 가지 주제. 그리고 다섯 가지 '즐거움'이 있는 허물없는 챗팅! 부담 없이 우리들끼리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예요. '내 인생의 ○○○'라는 미리 준비된 다섯 개의 주제가 있으며 만약 다른 청소년 활동가들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면 잊지 말고 제안해주세요~

대화창 흔들기

둘째날 / 19:30~

Chat VI

: 끝장토론 '청소년활동,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대작전'

여러분은 이제 '100분 토론'에 참여한 시민 논객입니다. 패널로 참석한 4명의 토론자들과, 지금까지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청소년활동의 뜨거운 '핫이슈'들을 솔직하고도 발칙하게 이야기해봅시다! 100분토론보다 더 후끈후끈한 대화창흔들기!

Chat VI 로그아웃

인터넷이 안 되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챗[chat]방에서 로그아웃을 해야 할 시간 흑흑 방별로 직접 만든 아점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으며,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보아요. 2박 3일동안 어땠는지 느낌을 나누고, 서로의 번호도 교환해 봐요.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기획단,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 챗(chat)” - ‘오락(五樂) 쪽글 모음」, 「2010 챗(chat) 자료집」, 2010.08.04.

첫 번째 이야기 <내 인생의 환승센터>

‘활동’이라는 걸 한다. ‘청소년 인권’이라는 걸 말하면서.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 했을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활동’이 별거인 줄 알았다. 나같은 평민은 감히 넘보지 못할. 그래서 처음엔 죽어라 했었다. 따라잡고 싶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신촌에서 했었던 청소년 노동인권 직접행동.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를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촌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구호를 외쳤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던가? 난 친구 따라서 활동 시작했다. 친구 따라서 회의 가고, 친구 따라서 글도 썼다. 열심히, 열심히. 나도 ‘별 것’을 하고 싶었다. 있어 보이고 싶었다. 나는 10대지만 글도 쓰고, 회의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제는 잘 모르겠다. 정말 멋있게만 보였던 활동이 사실은 짜질하고 공상맞고 더럽게 힘들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이게 스펙은커녕 당장 1년 후의 미래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활동을 하면 세상이 분명 바뀔 거라고 믿을 정도로 순진하지도 않다. 대체 이 힘들고 정신없고 몸은 점점 피폐해져가는 활동이란 걸 왜 손에서 놔버리지 않는 걸까. 죽어라 한다고 해봤자 기껏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라도 되면 잘 된 거라고 평가하는데. 어차피 다 안 될 텐데.

계속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활동 왜 해?”라는 질문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오늘 있을 회의를 위해 가방을 챙기는 것은, 나에게서는 재미있어서다. 주변에 다른 활동하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회의하면서 이거할까 저거할까 떠드는 것도 재밌고, 이것저것 해보는 직접행동들도 재미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날 이끌어온 것은 그 재미였다.

그렇다면 재미로 활동해도 되는 걸까?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오니까 활동하는데 뭐 굳이 이유까지 필요해?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도 난 내가 활동하는 이유도, 그리고 또한 다른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이유도 꽤나 궁금하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다.

활동 왜 해?

두 번째 이야기 <내 인생의 맛>

처음에 활동을 접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신기했다. 오승희(오답승리의 희망)이라는 잡지? 신문도 제목부터 신기했고, 집회도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 기호0번 청소년후보 활동이나 일제고사반대 등교거부 활동 등…… 이런 활동들에서 하는 주장, 활동 방식(그 주장을 풀어내는 방식) 모두 다 신선하다고 느껴졌다.

흠 그중에서 가장 재밌고 신선한 활동했을 때 딱 생각나는 건…… 휴대폰금지조례 반대하는 플래시 몹 이다. 작년 8월 말쯤 휴대폰 금지 조례를 경남에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서울과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한창 이슈가 되었을 때 했던 활동이었다. 해가 진 후 저녁시간에 15명 정도가 만나서 핸드폰을 조명삼아 개사한 노래를 불렀던 활동이었는데, 여러 명이 흩어져 있다가 반짝 모여서 노래 부르고 다시 흩어지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또 막 광화문광장에서 하고 청계광장으로 옮겨가고…… 경찰들을 농락하는 짜릿함까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재밌는? 신선한 활동들이 나를 계속 활동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일종의 활력소……?

근데, 점점 활동을 하면서 이런 찝지 않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찝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꼈다. 특히 난 아이디어 같은 거 잘 못내는 스타일이라 엄청 힘들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쫘 힘들었던 것 같다. (워 막상 끝내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기억에도 남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좋은 아이디어나 나름 신선하다고 느낄 활동들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게 신기하다.

난 활동가 대회에서 그리고 이 주제별토론에서 다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재밌었던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지 듣고 싶다. 좀 더 알아갈 수 있고, 서로 새로운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인생의 밑줄 짝>

침묵한 채 ‘그 공부’, 침묵하지 않고 ‘이 공부’

우리는 침묵한 채 ‘공부’했다. 수업시간 제 1법칙, 입을 다물 것. 제 2법칙, 눈은 선생 얼굴을 향할 것. (그가 말하길, “내 눈을 바라봐. 네 성적 오르고!”) 제 3법칙, 달리 생각하지 말 것. 그냥 듣고 외울 것. 사회에서 ‘공부’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지,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주어진 것의 답습, 지어진 사회구조의 유지, 지랄 맞은 일상이여 영원하라. 원 소리지..... 뭐였더라? 그러니까.

2010년 봄 - ‘그 공부’ 에 대한 단상

어차피 ‘그 공부’는 대다수 평범한 인간들은 해봤자 소용없다. 농어촌 고등학교에서 전교 등수 중위권에 등지를 튼 내 동생은 국영수가 안 된다. 암기과목으로 내신은 그럭저럭 따지만, 모의고사만 봤다면 시험지가 신세계라 한다. 그 말인 즉슨 정시는 글렀다. 논술교육 같은 건 받아본 적 없다. (농어촌이라니까?) 그녀는 초딩 때부터 지금까지 사교육으로부터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 현재 고2. 일 년 남았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수도권 대학은 글렀다. 우리 부모에게는 백도 돈도 없다. 잔혹한 얘기지만, 못 간다. 돈가스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다. 둘이 같이 울었다. 그 날 이후에도 그녀는 시험 때면 여전히 점수에 목을 맨다. 미련을 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공부’가 (그와 동의어쯤으로 여겨지는 ‘성적’) 사회 과목에서 흔히 떠들어대는 부익부 빈익빈을 되물림하는 주요한 사회 장치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한다. “잘 사는 놈들만 더 잘 살게 만들어진 더러운 세상”을 욕하지만, 알면서도 이놈의 공부를 더럽게, 못 놓겠다. 진짜 더럽다.

~과거로 타임슬립~ ‘그 공부’ 와 멀어진 사연

고등학교 때 갑자기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잘 쳐야 하는 지 알 수 없어져버렸다. 누군가 학교를 ‘산업사회에 내보낼 인력’을 컨베이너 벨트에 실린 상품들처럼 제조하는 공장이라 정의했다. 우리가 성적에 목매고 대학에 목매는 그 과정들로 인해, 결국 우리는 사회의 강한 사람들의 손아귀에 스스로 우리 목을 쥐어주게 될 거라 했다. 선생님 손에, 사장님 손에, 국회의원 손에, 기업의 손에, 우리 목이 달랑달랑. 지금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

그러고 나니 더 이상은 시험기간마다 교과서 요약정리하고, 시험지 채점하며 점수 몇 점에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나를 용납할 수가 없었다. 나머지 나를 ‘상품’이나 ‘기계 부품’으로 취급할 순 없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까지 내어줄 순 없었다. 니들이 얼마나 잘났든, 니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현실’ 이든, 그럴 수는 없었다.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완전히는 못 났다. 이러다 나중에 진짜 후회하면 어떡 해? 나중에 대비해서 일단 해뉘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말다가, 났다가 다시 붙잡았다.. 차츰 놓는 날이 많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나중에 ‘될 대로 되라지’라는 심정으로 무시했던 것 같다. 돌아보면 그 ‘불안’은 관습이었고 사회가 돌려 채운 족쇄였다.

무시하니깐,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보니깐, 화가 났다. 너무 화났다. 그맘때쯤 나를 가장 괴롭힌 건,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 지 전혀 감이 안 잡힌 다는 거였다. 그냥 백지. 막막했다. 뭘 좋아하는 지도 모르겠고, 뭘 먹고 살아야할 지도 모르겠고, 첫 단추도 안 꺼지는 마당에 미래에 대한 차곡 차곡 준비 같은 거 시작도 못 하겠고. 근데 진로를 정하라네? 장난해? 당신네 인생 아니라 이거지?

내 삶을 누가 다 빼앗아 간 걸까. 박탈감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다. 내 삶을 챙길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시간, 날, 해. 너무도 많은 것들이 (나는 사람이라는 자각마저) 처음부터 ‘박탈’ 되어있었다. 더군다나 그것은 우리를 속였다. 미친 듯이 공부하고, 대학 바늘구멍 통과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노후대책 보험 들고…… 처음부터 이 길 밖에 없다는 듯 몰아붙여놓고, 그 이면에서는 이 길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유지시킨다. 우리는 공부하고, 어찌할 수 없는 불안 두려움 자기기만 속에서 질서에 편입되길 욕망하고, 나보다 더 공부 못 하고 못 살고 못난 다른 이들을 짓밟은 위에서 결국 이 모든 구조를 유지시킨다. 예전부터 그러했 으니, 앞으로도 그러하도록.

침묵 하지 않는 공부도 세상엔 있다

그 공부가 아닌 다른 공부 얘기를 해보자. 세상이 왜 이따구로 만들어졌으며,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 는 어떻게 이루어져있으며, 등등의 얘기들이 있다. (근데 이런 거 안다는 애들이 좀 잘난 척이 심하더라. 재수 없다. 잘난 척 목적으로 공부 안 하도록 조심 또 조심하자. 음음. 뽀뽀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질서를 이룬 채 구성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여성주의(페미니즘)’도 있고,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 일상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게 되는 지 알려준 청소년 인권 활동도 있다. 공부라면 공부였다. 내 좁은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경험을 했다. 배웠다.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멀리하게 됐고, 활동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생각하게 됐다. 어쩔 땐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야할 지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얻고 싶은 맘으로 책 같은 걸 가끔 가다 붙잡고는 한다. 그냥 조금이라도 나를 깨워보려고, 옆구리 쿡 찌르면서 그만 옆어져 자고 일어나라고 하려고, 정신차라자고 하려고,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다. 이 공부는 침묵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 안에서 끈임 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내 안의 시끌시끌함을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 소리가 잦아들지 않으면, 아마도 계속 활동을 하지 않을까? ‘침묵하지 않기’에 대한 선택, 그러한 활동을.

네 번째 이야기 <내 인생의 빼염>

내 인생에서 ‘빼염’, ‘빠염’이 뭐냐고? ‘바이바이’랑 거의 같은 의미다.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고로 이 글은 내 인생에서 헤어지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정확히 말하면 활동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그래서 ‘빠염’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처음 활동을 접했을 때는 이런 저런 것들이 마냥 좋았다. 2007년에 거의 처음으로 집회 같은 것에 참여했는데, 그 때의 신선한 충격과 두근거림이란. 아, 나도 뭔가 이렇게 내 얘기를 소리칠 수 있구나. 내가 그 동안 궁시렁 거리던 것이 그냥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답답했던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은 기분. 그 ‘처음의 기억’을 에너지 삼아 아자 아자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삶을 선택한 이후, 하루하루의 현실은 꽤나 많은 고민의 연속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뉴스나 언론 등에서만 듣던 “너네 같이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저런 애들이 다 비행청소년이야” 따위의 말들을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전해들을 때, 확 밀려오는 좌절감이나 무력감 같은 거. 애초에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낼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건만 참 거시기하다. 또 그런 거 말고도 뭔가 기획해서 똑딱똑딱 해보고 싶어도 당장에 부딪히는 재정적 어려움 같은 것도 활동을 하면서 ‘빠염’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다.

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이 사회를 바꾸고 싶다. 나는 처음 보는 어른도 청소년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반말’을 쓰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미성숙하니까 안 돼” 라고 말하고 그것이 먹히는, 지금 이 사회의 꼬라지를 바꾸고 싶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가만 보고만 있으면 안되겠다, 싶은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 위에 적은 저런 것들과의 '빠염'이 필요한 것일테고.

근데 나 혼자 '빠염' 한다고 진정 '빠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진짜로, 지금 이렇게 활동을 선택한 청소년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현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활동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사회를 어떻게 좀 쿡쿡 찌르고 건드려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빠염' 하고 싶은 건 어떤 거야? 뭐... 더 글로 쓰는 건 좀 지루하고 잘 생각도 안 나니까, 같이... 얘기해보자 구염. 아하하하

다섯 번째 이야기 <설렘과 망설임>

나는 18살.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딱 어떤 인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그리고 어느 한 주제에 대하여 굉장히 깊게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 '현재 어디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행사에 간혹 참가하는 것, 그리고 교내 인권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 나도 어느 활동에 정말로 풍덩하고 뛰어들고 싶다!' 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좀 더 알고 싶었고 생생하게 느끼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늘 나에게서는 망설이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말했듯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 대학을 간다, 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떠나 일단 '나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들어갔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라고 늘 생각했다. 주변의 친구처럼 학교를 많이 빠져 가면서 활동을 열심히 할 만큼 나는 용기가 없었으며, 매일 매일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갈 그만큼의 기운도 없었다. 또한 일단 학생이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스스로가 선택했다면 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공부도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부모님의 말도 나를 망설이게 했다.

이번에 '챗' 준비 회의에 참가하는 것도 많이 망설였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설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내 생활 패턴을 잃어버리는 것, 혹시 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폐만 끼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감이 더욱 컸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를 좇아 따라 처음 챗 준비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

고 뭔가 열심히 활동해 온 그들에 비하여 경험이 많이 부족한 나였기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기가 죽는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래서 거의 말도 못하였다. 그러나 계속 몇 번을 참가하고, 2박
3일의 일정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을 보며 지금은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어쩌면
이번 활동가 대회가 앞으로의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나처럼 혼자 끙끙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부모님과의 갈등
을 심하게 겪거나 하는 등 나보다 더 심각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설
렘과 망설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재미있게 이야기
해 보자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기획단,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 챗(chat)” - ‘대화창 흔들기(종합토론)’ 쪽글 모음」, 「2010 챗(chat) 자료집」, 2010.08.04.

●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활동이 부딪히고 있는 장벽들, 청소년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사회적 관점이나 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장벽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 청소년활동에 대해 “학생이 공부나 하지!”,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비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래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가들이 이런 생각들에 도전할 수 있는 자기 논리와 힘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쉬워졌습니다.

- 반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것 같지만 공공 생각해보면 왠지 뒀에 걸려드는 듯한 기분을 갖게 만드는 교묘한 논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우리 활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논리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요.

-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논리를 찾아본 다음, 좀 더 간지나는 청소년활동을 만들기 위해 무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함께 토론해봅니다.

● 진행 방식

[청소년활동,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대작전]

: 네 명의 패널을 모시고 참여 청소년 논객들 사이의 대토론을 벌여봅니다

□ 모시는 이들

- 1) 학생부장 20년차 ‘한많은’ 교사
- 2)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정겨운’ 학부모

- 3) 자유청소년연합 ‘나중립’ 학생
- 4) 대한민국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최현실’ 학생

: 청소년활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참여 청소년 논객들의 제안을 들어봅니다.

1) 학생부장 20년차 ‘한많은’ 교사

방학인데도 학생들 많이 모여 있네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적극적이면 좋을 텐데. 여하간 오늘 이쪽 캠프 관계자 분께서 저한테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일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학생부장 경력만 20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 아무리 아이들이 자기네들도 알 것 다 안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살아온 세월이 제 학생부장 경력에도 못 미친다는 거지요. 그만큼 아이들 가르쳐본 경험,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경험이 많이 있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쁜 길로 빠진다는 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 보면 말이지요, 제 속이 까맣게 탐니다. 점점 더 서로를 위할 줄 모르고, 약한 애들 괴롭히고, 선생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건들거리는 태도로 일관하고...아주 이기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이다 뭐다, 들은 것만 많지 솔직히 옛날 애들보다 지금 애들이 훨씬 더 미숙합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처럼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친구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애들도 물론 있지요. 그런 애들 만나는 보람이 있으니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선생 일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치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만 없으면, 지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교실이 난리가 납니다. 서로 간에 책임도 없고, 규칙을 지키는 일도 없어요. 이런 시점에 체벌 금지다 뭐다 교육청에서 교사들 기죽이기에만 들어가고 있으니, 이거 완전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는 법도, 규칙도, 원칙도 없이 난장판이 될 겁니다.

2)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정겨운’ 학부모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고요,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부모들이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지요.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 사회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이들이라는 건 어쩔 수 없지요.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는 저 혼자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도 않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어른과 나쁜 어른은 구분

할 줄 알아야겠지만, 좋은 어른들이 제공하는 보호는 기꺼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학생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에도 꼭 지도교사가 붙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과 독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학교규정 하나 바꾸려고 해도 저희 같은 학부모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교 밖 모임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지도자나 보호자로 역할을 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뭘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재정을 마련해서 조건을 갖추어 주면,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지요. 솔직히 청소년들도 독립, 독립 외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지원이 제공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청소년활동가대회도 아름다운재단 같은 어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성사되지 못했을 것 아닌가요?

그러니, 청소년은 좋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하고, 좋은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아이들의 뜻을 잘 대변해주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자유청소년연합 ‘나중립’ 학생

나는 2008년 5월,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를 통해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엔 사실 모르르고 시작했고, 친구들이 재밌는 게 있다 길래 친구 따라 촛불집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는 지금은 좀 힘들어졌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야간자율학습’을 그렇게 심하게 시키고 뱅뱅이 돌리는 뻘센 학교는 아니었다. 그래서 하교 이후 쉽게 촛불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지금은 고3이라 잠시 쉬고 있지만) 청소년단체도 촛불과 연관이 깊다. 촛불집회를 계기로 이런 모임이 꾸려졌고, 지금도 그 당시 촛불에서 만난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청소년 활동을 만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활동에서도 참 배운 것이 많다고 느낀다. 교과서에서 글로만 배우던 민주주의를 좀 더 실감하게 되었고,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진 게 가장 큰 변화다.

하지만 잠깐 동안의 시간이나마 활동을 했었던 내가 본 청소년활동판(?)은 사실 조금 위험해 보였

다. 인권문제나 학생인권을 주요 주장으로 삼는 청소년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어른들로 이루어진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돈도 지원 받는 것 같았다. 조중동 같은 일부 보수언론에서 ‘어른단체’들이 청소년단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라는 말들이 과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거짓은 아닌 것이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더 배워야 하고, 알아갈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많은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중립적인 시선에서 고루고루 여러 가지의 입장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든, 아니든, 그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그룹의 특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나 스스로도 아직 뚜렷한 주관 없이 여기저기 휩쓸리기 쉬운 거라고 생각한다.(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한쪽 시선에만 머물러 있거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청소년 운동은 이 사회의 다양한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이 실제로 미성숙하던, 성숙하던, 실제로 우리 사회의 시선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최대한 그러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단체만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특정한 이념 또는 정치성이 있는 어른들 단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청소년 운동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의미에서 기본이다.

지금보다 더 ‘성숙한’ 청소년 활동, 진짜 청소년들의 운동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 발전해나가야 한다.

4) 대한민국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최현실’ 학생

청소년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고작 반년이 흘렀다. 그리고 얼마 전, 나는 그 활동 때문에 약 2달동안 집에서 쫓겨나 있었다.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우리 부모님이 도저히 말을 걸 수가 없는 보수적인 분들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허구한 날 집에 안 들어와서도 아닌 내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어왔던 것이 마침내 폭발했던 것이다. 나는 공부가 하기 싫었고, 부모님은 내가 대학에 가기를 원했다. 도대체 대학에 왜 가야하는지 모르겠던 나는 집을 나와서도 혼자 잘 살 수 있을거라고 믿었었다. 순진하게도 그랬더랬다.

굉장히 찌는 말이고 내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지만, 집 밖에서 살았던 두 달 동안 현실이라는 걸 아주 조금이나마 본 것 같은 느낌이다. 내가 집을 나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단지 거기까지다. 삶이 아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들. 차비 720원이 없어 회의에 못 간다고 전화했을 때의 비참함. 매일 매일 밥을 얻어먹으면서, 여기저기 갈 때마다 차비를 빌려가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생활이 되었을 때의 느낌은 정말 그 전에는 모르는 것이다. 아주 잠깐 느낀 나조차도 이런데.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필수이다. 그것을 위해 대학을 가야겠다고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이미 학교를 자퇴한 후 몇 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내가 그 경쟁 속으로 다시 뛰어든다고 해도 좋은 대학에 가기에는 이미 틀렸다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부모님만 모르는 일이다.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누구에게 소리쳐야 될까.

반년동안 청소년활동을 해왔고 그 기간 동안 나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스펙에서 멀어져왔다. 내 친구들이 피땀싸게 공부할 때 내가 해왔던 활동들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었다. 그 책임을 조금쯤 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 활동이라는 것이 개인의 희생 위에 쌓여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활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나는 좋고 옳은 일을 하고 있어”라는 자위를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현실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활동 경력이 스펙으로 인정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활동을 스펙상아 대학에 간 청소년 활동가들이 성인이 되어서 소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돈을 많이 번다면 그 사람들이 또한 청소년 활동에 또다른 활기를 불어 넣어 주기도 하지 않을까. 청소년 활동을 한다고 하면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다. “니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높은 사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다. 서울대생이 말하는 거랑 대학도 못간 사람이 말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 지금은 공부해라.”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활동을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을까.

위에서 말했듯 활동이 개인들의 희생이라면 그런 활동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를 위해서도, 내 주변의 활동가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도.

홍봄이, 「청소년활동가들의 발칙한 수다 Chat(챗) - 2박3일간의 청소년활동가대회에 다녀와서」, 미디어충청, 2010.08.11.

청소년활동가들의 발칙한 수다 Chat(챗)

[미디어충청]2박3일간의 청소년활동가대회에 다녀와서

홍봄이(고등학생)

나는 처음으로 청소년활동가대회Chat[챗]에 참가하였다. 청소년활동가대회는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주최로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오덕훈련원에서 열렸다.

난 솔직히 청소년활동가라 하기엔 우습지만 경험 쌓기에 의의를 두고 참가하기로 하였다. 훈련원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방에 짐을 놓고 강당에 모여 ‘로그인’을 했다. ‘로그인’은 등록과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작년 겨울에 지역체에서 개최하는 인권캠프에서 만난 ‘한날’이라는 인권운동가를 만났었다. 우연히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나를 여전히 기억해주어서 반가웠다.

나와 같은 방을 쓰게 될 사람들은 청소년 인권단체 ‘이수나로’ 회원들이 대부분이었고 여러 지역의 활동가들이 있었다. 원래 숫기가 없어서 친구를 못 사귄까봐 걱정했지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줘서 한결 맘이 가벼웠다. 그들과 앞으로 같이 생활할 것에 대해 기대가 되었다.

‘환경설정’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2박3일 동안 지켜야 하는 규칙과 약속을 정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다섯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서 약속을 정하였다. 나는 ‘이모티콘 설정’ 그룹에 들어가 2박3일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지루함을 해소할지 논의하고, 어떻게하면 70명의 참가자 모두와 친해질지도 이야기했다. 40분동안 토의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그 중에서 참신한 의견을 추려서 종이에 옮겨 적었다. 다른 주제를 가진 그룹의 의견들을 둘러보면서 좋은 의견에는 파란색 스티커를, 그렇지 않은 의견에는 빨간색 스티커를 붙였다.

‘대화체 설정’그룹에서 나온 의견 중 ‘언니, 오빠라는 말 사용하지 않자’라는 의견이 있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다. 발표자는 언니와 오빠라는 말은 성을 구분짓는 용어라서 사용하지 않기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을 하였지만,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반대의 깃발을 들고 섰다. 왜 굳이 몇 십년 동안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올바른 호칭을

바뀌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유교적인 고정관념이라 반박하였다. 결국 상호간 합의를 통해 말을 사용하지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나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나도 나를 남녀평등이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한다고 믿었지만 내가 사소한 부분에서 놓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다. 우리가 남녀평등에 대해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소소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만큼은 일상생활에서 남녀가 무의식에 구별된다는 것이다.

저녁을 먹고 ‘아수나로’의 라디오 방송 ‘모난 라디오’의 스페셜 공개 방송과 13개의 청소년 활동 단체의 활동 나누기가 이어졌다. 난다와 엠건의 기분좋은 오프닝을 시작으로 청소년 활동단체들과 이야기가 오고갔다. 실제로 라디오 공개방송을 보는 기분을 느꼈고, 매우 흥미로웠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에 박수가 절로 나왔다.

그 중에는 ‘청년 유니온’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 단체는 청년노동의 질 향상을 통해 청년층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휘 향상을 도모한다. 이 단체는 다른 청소년노동문제를 다루기보다 청소년보다 먹고살기 바쁜 20~30대의 노동문제를 대변했다. 주로 최저임금 및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의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는 대기업을 뿌리로 두고 있는 음식점, 편의점들의 고충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다.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노예나 다름없었다.

또 ‘동인련’이라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해주는 단체를 만났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지나치기 쉬운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상대로 싸우는 단체였다. 성소수자들에게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쉽게 좌절하기 쉬운 시기에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며 용기를 주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설립한지 약 20년 동안 3명의 학생이 자신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그 만큼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무시하고 알게 모르게 억압한다는 소리였다. 더 이상의 희생없이 성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프로그램은 모둠토론 ‘오락(五樂)하기’로 넘어갔다. 다섯가지 주제 중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정해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어쓰를 따라 ‘내 인생의 환승센터’라는 주제를 택했다. 주제는 말 그대로 내 인생이 활동을 통해 바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왜 활동을 시작했을까? 솔직히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권유했지만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도 여전히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난 활동이 즐겁다.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청소년활동은 대학 가는 데 아무런 스펙이 되지도 못하고, 취업에서도 필수로 여겨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악조건에 속한다. 그래도 친구들과 촛불시위를 하고 입시전쟁과 불합리한 사회를 향해 충구를 겨누는 것이 즐겁다. 그렇다. 나는 활동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흥미를 가지냐고 하지만 활동도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남들이 공부를 택할 때, 우리는 활동을 선택한 것이다. 나는 다수의 학생이기보다 소수의 학생이기를 바랐다. 다 똑같은 다수의 학생들보다 소수의 학생들 사이에서 숨쉬기 쉽다. 그래서, 길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 것 같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땀 흘려 노력한다면 뭐라도 이뤄지지 않겠는가.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것이라도 이뤄지지 않을까?

캠프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대화창 흔들기’는 이른바 ‘끝장토론’, ‘100분토론’이라 불리운다. 토론은 역할극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년 경력의 학생주임 선생님부터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학부모, 자유청소년연합 학생, 대한민국청소년특별회의 의장학생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역할을 나누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은 점점 흥미진진했다. 보수적인 어른과 청소년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 간의 갈등은 매우 실감났다.

20년 경력의 학생주임 선생님의 말처럼 우리는 미숙한 학생이고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학부모가 이야기하듯 우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경험을 조금씩 쌓으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것이 올바른 학생인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토론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과 나와서 대화를 보는 것 같았다. 서로 양보해서 대화를 이끌어간다면 좀 더 수월한 관계를 유지할테지만, 각자의 주장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 대부분의 청소년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부모님과의 갈등은 흔하다. 20년 경력의 학생주임 선생님 같은 부모님들과의 갈등은 언제쯤 해소될까?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간다. 많은 사람들과 가식없는 웃음을 주고받으며 벌써 2박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한 2박3일 동안 이깁지 않은 공부를 했다. 앞으로도 청소년활동가들과의 만남을 잊지 말고 집에 돌아가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이 자리를 빌어 2박3일 동안 같이 고생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고맙고,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스케치]청소년 활동가대회 ‘챗[Chat]’

거부기/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서울지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경쟁, 대학, 입시 등 몇가지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삶, 사회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강요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삶을 그냥 받아들인 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획일화된 청소년/학생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욕구와 생각, 특히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당당하게 발언하고 행동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 청소년들의 ‘활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들은 여태까진 각자의 지역, 학교, 동아리, 친구, 소모임 등등 제각기 다른 곳에서 단절된 채 흩어져있었습니다. 청소년 활동가 대회 ‘챗[chat]’은 이 흩어져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각자의 활동과 고민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조금 더 친해지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마련하기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청소년 활동가대회 ‘챗[chat]’은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YMCA, 위더스, 청소년활동가기반조성모임 ‘활기’, 의정부여고 인권동아리 ‘유엔아이’, 동성애자인권연대, 이우학교 인권동아리 ‘아우름’ 등의 청소년이 모여서 직접 활동을 하는 모임이나 단체들, 그리고 개인 활동가들이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단체들이 활동가대회의 취지를 공감하고 모였지만, 활동가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력까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단체들에서 돈을 조금씩 모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아름다운재단에서 하는 <2010공익활동가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긴 했지만, 전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모이는 큰 행사를 준비하는 건 돈만 있어서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하는거나,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것, 장소를 대여하고 청소년단체들에게 홍보하는것, 다양한 일들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캠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서투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빈틈 많고 힘든 상황에서 준비팀은 전날에도 막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까지 힘들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챗’에 모였습니다. 빈약한 재정과 인력이었지만, 다른 곳의 도움과 모두들 열심히 해준 덕에 청소년 활동가 대회 ‘챗[Chat]’은 막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활동가대회 ‘챗[Chat]’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오덕 훈련원’에서 진행되

었습니다. ‘챗(Chat)’은 참가자들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마치 온라인에서 채팅을 하는 듯 한 테마로 진행했습니다. 첫날 점심때 남양주에 있는 오덕후련원에서 만나 ‘로그인’을 하면서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익혔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환경설정’을 통해 2박 3일 동안 모두가 지킬 약속들을 함께 토론하면서 정했습니다. 함께 정했던 약속들은 2박3일동안 벽에 붙어 있었지요. 맛있는 저녁을 먹고, ‘대화하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챗(Chat)’에 참가한 단체들을 인터뷰하고 소개하고 활동을 나누며,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챗(Chat)’에 어떤 청소년단체들이 왔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게 되고 좀 더 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잉여번개모임’을 했습니다. 말그대로 몇 개의 방에서 ‘잉여짓’을 하는 것이었는데, 어떤 방에서는 영화를 보고, 어떤 방에서는 보드 게임, 카드게임을 했고, 어떤방에서는 똥굴똥굴 만화를 보거나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구요. 첫날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잉여짓을 하며 재밌고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ㅋㅋ

둘째 날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서로의 활동이나 고민,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쉬어가는 시간으로 근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한 후,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오락(五樂)하기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환승센터, 내 인생의 맛짜, 내 인생의 설렘과 망설임 등 “내 인생의○○”이란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나 좋았을 때가 언제였는지 등을 모둠을 나누어 얘기해보았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고 옥수수 감자등의 간식을 먹은 후, 좀 더 잉여짓을 하며 더 쉬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후에는 청소년활동 정글속에서 살아남기란 주제로 간지나는 청소년 활동을 위한 뜨거운 끝장토론을 했습니다. 청소년활동이 부딪히고 있는 장벽들, 청소년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하다보면 뭔가 당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 말들, 기분 나쁘지만 반박할 수 없었던 말들을 보청소년활동가이기 때문에 청소년이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장벽들을 넘어서는 논리라면 논리인 것들을 알아보고, 간지나는 청소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0분 토론처럼 4명의 패널을 모시고 참여한 청소년 논객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2차 청소년활동가대회를 하지는 말이 나왔지요;; 불타는 토론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뒷풀이를 한 후 잠에 들었지요.

‘챗(Chat)’ 마지막 날에는 미리 준비된 음식재료들을 무작위로 골라 참가자들이 직접 아침밥을 만들어먹었습니다. 마지막 ‘로그아웃’을 하며 롤링페이퍼와 활동가대회 현수막에 매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단체 기념 촬영을 한 뒤에 이쉽지만 헤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안온것 등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2박3일의 알찬 일정이 끝난 후, 아직까지도 활동가대회 카페에 new가 뜨고 후속모임을 진행하는걸 보니, 참여한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은 쫓겨 있었지만, 활동가대회 때는 새로운 사람들은 만나고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힘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2차 활동가대회가 진행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진행된다면 더 많은 관심과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난다, 「만나고 싶었고, 만나야 했던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챗”을 외치다 -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후기」, 『인권교육센터 ‘들’ 소식지 ‘소란’ 14호』, 2010.10.04.

만나고 싶었고, 만나야 했던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챗”을 외치다

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만나고 싶었다. 여기저기에서 나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는데, 만나보고 싶었다. ‘청소년활동가대회’를 준비하고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의 마음은 아마 이와 같았을 것이다.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갈증을 느꼈던 것 중 하나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면 아무리 즐겁고, 의욕에 넘쳐 일을 준비하던 사람도 한편에서는 쓸쓸함이라거나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청소년활동가대회 “챗”은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진행되었다.

청소년활동가들과 ‘로그인’ 하다

대망의 첫째 날, ‘오덕훈련원’에 도착했다. 와, 경기도에서 조금 벗어나기만 했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감탄하며, 짐을 풀어놓고 강당으로 모였다. ‘로그인’을 하며 각자 자기소개를 했고,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규칙 정하는 시간을 조별로 갖게 되었다. 우리 모듬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2박3일을 보낼까?”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들은 ““안녕하세요챗”, 밥먹었챗?” 등등으로 끝에 ‘챗’자를 붙여서 말해보자”, “아침에 기상미션을 성공하면 컵라면 한 박스씩 더 갖게 하기” 등의 번쩍번쩍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것이다. 덕분에 우리 모듬만 깔깔 웃느라, 시끄럽다고 다른 모듬에서 태클을 걸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각 모둠에서 합의된 규칙들을 정리해 바닥에 깔아놓고 다른 조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모둠에서 정리된 이야기들 중,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라는 말 대신 ‘애인’이라는 표현 쓰기”,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 불편할 신체적 접촉 자제하기”, “누나/형 등의 호칭 되도록 쓰지 않기”,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반말 쓰지 않기” 등의 인권적인 마인드가 가득가득한 약속들이 인상에 남는다. 그렇게 다른 모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면 파란색 스티커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빨간색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리고 모둠별로 스티커가 붙여진 종이를 가져와 토론을 통해 다시 내용을 수정했다. 최종안이 만들어진 뒤 다시 전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1명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그 의견의 적정성을 판단해 수정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작은 규칙 하나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점이 즐거웠다.

첫째 날 저녁에는 서로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큼발랄 청소년라디오 모난라디오’에서 참가한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인터뷰를 시도했다. 이후에는 꼭 인터뷰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를 소개하게 되었다. 명단으로만 만났던 어디어디의 누구, 무슨 활동하는 누구, 라고 봤을 때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 청소년성소수자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청소년과 여성주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 청소년노동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요구하는 흥성지역의 청소년모임 ‘날개’ 분들의 소개를 들을 때는 꽤나 든든한 지원군을 만난 느낌이기도 했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다.

셋, 이런 얘기가 ‘오락’이 될 줄은 몰랐을걸?

2박3일 동안 진행되었던 “셋”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다섯 가지 주제의 모둠 토론, “오락”시간이다. 우리는 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 인생의 환승센터>, 밑줄을 짚 그어야 했던 순간들, 공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보는 <내 인생의 밑줄 짚>, 살면서 혹은 활동을 하면서 설렘 순간들, 그리고 망설이게 되는 것들, <설렘과 망설임>, 내 인생에서 헤어지고 싶은 순간은 언제였는지, 얘기해보는 <내 인생의 빠염>은 “오락”의 다섯 가지 주제들이었다.



내가 함께 했던 모듬은 ‘내 인생에서 헤어지고 싶은 순간들에 대하여. <내 인생의 빠염>’이었다. ‘빠염’은 ‘바이바이(헤어질 때 하는 인사)’랑 거의 같은 의미이다. 청소년활동을 하게 되면서 부딪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활동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권위적인 시선이든, 청소년활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별을 선고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제대로 ‘빠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활동가들이었지만 ‘청소년’활동가이기 때문에 함께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 ‘너 같은 어린애가 어찌고’, ‘학생 때는 공부나 해, 활동은 무슨...’ 이런 말들을 집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들었던 경험들을 함께 쏟아내었다. 개중에는 정부부서와 연결되어 청소년들이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여 실제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참여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참여’라는 말이 무기력해질 만큼 그냥 형식적으로 모임을 지속하거나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권위에 쫓아있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곳에서 함께 하고 있는 한 분은 정부부서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린 뭐가 달라’ 하는 ‘럭셔리함’이 오히려 활동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모둠의 이야기는 이후에 각 모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전지에 정리하여 강당에 붙여두었는데, <내 인생의 환승센터>모듬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아무리 나의 활동에 의미를 둔다 하더라도 사회의 견고한 통념들을 쉽게 넘어 서기엔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어서’ 시작했던 이 활동이 지금까지 힘을 얻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활동’으로 그저 ‘환승’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 ‘활동’이라는 삶의 태도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청소년활동, 살아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일

“나는 살아 있는 것일까, 살아있는 꿈을 꾸는 것일까.”

“나는 살아가는 것일까, 그저 살아지고 있는 것일까.”

어떤 노래 가사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이는 비단 일상에 쫓기고, 월급에 찌들어 사는 어른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해왔다. ‘청소년-어리고 미성숙한 애들’이라는 전제를 밑바닥에 항상 깔고 가는 것은 기본인데, 예전에는 ‘오로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였다면, 요즘엔 공부+플러스 알파가 거의 필수다. 그리하여 리더십, 자발적인 참여, 사회활동, 봉사활동 등을 개인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이런 것들 또한 ‘좋은 대학 진학’이 목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청소년‘활동’이라 하였을 때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참여하기를 이 사회는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활동가대회 ‘챗’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건지, 살아있는 꿈을 꾸는 건지’, ‘살아가는 건지, 그저 살아지고 있는 건지’, 대학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서, 그 답을 찾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답을 보여주지 않고 숨긴 채, 숨죽이며 살라고 요구하는 이 사회를 바꾸고 싶어 했다.

살아 지는’ 것이 미덥고, 힘이고, 질서라고 말하는 세상에 “챗!”을 외치는 청소년활동가들은 그래서 ‘살아가기’를 실천하려 한다. 청소년활동의 움직임과 행동에 우리가 함께 하고, 응원해야할 이유이다.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소장사진























연대 사업5 - 활기(2010~2012)



개요

연대 사업5 - 활기(2010~2012)

2010년 초, 청소년활동의 열악함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조성모임(이후 활기)’ 사업이 제안되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인권교육센터 들’, ‘교육공동체 나다’,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kscrc’ 등의 단체가 첫 시작을 함께 하였다. 이후 청소년활동의 교육체계, 재정기반 마련 등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뭉친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네트워크로 이어졌다.

네트워크는 내부적으로 활기팀을 만드는 등 활기의 운영과 활동의 많은 부분을 함께 하였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의 많은 구성원들이 활기의 구성원으로도 함께하는 식의 다중멤버십이 구성되었다. 초반의 활기는 운영팀, 기금조성팀, 교육체계팀의 세 팀으로 나뉘었으며, 청소년활동의 학습기반 마련과 청소년활동가들의 공부모임 지원을 위해,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저항을 공부하는 비행청소년(‘저공비행’)> 모임을 운영하였고, 기금조성의 일환으로 <청소년 활동기반 마련 후원의밤 ‘핫유스(HOT YOUTH)’>를 진행하였다.

2011년에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다수의 청소년활동가들이 온힘을 쏟는 상황 속에서 네트워크의 활동 전반이 주춤했고, 활기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11년 말, 활기와 네트워크를 다시 일으키고자 여러 차례의 평가와 논의 끝에, 활기의 역할을 재조정하면서 네트워크와의 통합을 결정하였다. 그 동안 네트워크가 담당해왔던 청소년인권운동 담론 형성, 활동가 역량 강화와 인권교육, 활동가 네트워킹과 연대활동, 연구사업 등을 활기가 적극적으로 받아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활기는 2012년부터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라는 새로운 이름을 짓고, 책임활동가 2인과 간담회준비팀, 기금조성팀, 청소년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강좌준비팀(법강좌, 청소년론강좌)의 팀체제로 운영·활동하고 있다.

배경내,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조성모임 사업제안서(초안)」, 제안서, 2010.02.10.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조성모임 사업제안서(초안)

2010.2.10 경내

* 지난해 12월 말부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 몇몇이 모여 두어 차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고, 또 몇몇 단체에는 직접 찾아가 모임 취지나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졌음. 그 사이 사용할 만한 공간 후보가 생겨나기도 했음.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고민을 정리해보았음.

1. 모임이 제안된 이유

[청소년 활동의 특성]

① **배고프다** : 청소년 당사자 중심의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청소년 활동가들은 사무공간이나 사업비도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사업이나 모임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 여유도 없음. 그 결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나 활동가 확산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장기적 활동 전망으로 청소년운동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② **탄압을 견딜 것이나, 활동을 포기할 것이나** : 청소년 활동가의 경우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집에서 활동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경우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이게 됨. 교통비가 없어 회의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경제적 여건이 확보되거나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출까지 감행할 수 있는 청소년들만 활동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 결국 청소년 활동가들이나 모임 활동이 들쭉날쭉하게 됨.

③ **대안을 선택하면 생계가 막막하다** :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하거나 집안의 반대가 심한 청소년들은 자립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지속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음. 또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자퇴나 대학 진학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는데, 대학 바깥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 그러다 보니 '대안적 삶'을 선택하더라도 더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만나기보다 당장 생계문제부터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④ **공부는 필요한데 늘 뒷전** :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하고 사업 중심으로 고민을 이어나가다 보면,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전망을 개척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쌓지 못한 채 소모적인 활동만을 되풀이하게 됨. 또한 청소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민주주의 문제, 성차별 문제, 폭력적 언행 문제 등)을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기르는 일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음.

⑤ **신세 지는 것도 눈치 보인다** : 청소년활동가들과 밀착하여 활동하고 있는 몇몇 단체나 개인에게 부담이 쏠리고 있음. 그러다 보니 청소년활동가들이 신세 진다, 민폐를 끼친다는 기분을 갖게 되고, 이는 곧 동등한 관계 형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⑥ **다른 데 기웃거리 봐도 준비가 안 돼 있다** : 기존 운동사회가 청소년들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동등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그러다 보니 청소년운동을 하다 다른 운동으로 옮겨갈 경우 그 단체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활동가 기반 조성이 필요한 이유]

-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나 운동사회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 이 차이를 덮고 청소년활동가들도 비청소년 단체와 똑같이 활동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 운동의 역량 강화와 활동가 지원 문제를 몇몇 개인·단체가 아닌 운동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의제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으로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청소년운동에서 풍성한 경험을 얻고 청소년운동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운동에 대한 전망도 충분히 탐색해볼 시간을 거치도록 하려면 청소년활동의 기반이 좀더 풍부해져야 함. 그래야 청소년운동도, 전체 운동도 살아남을 수 있음.

- 학교교육을 거부하고 대안적 삶을 선택한 청소년 활동가들에게는 대안적 학습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안적 학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청소년들에게는 풍요로운 경험을, 청소년운동에는 안정성 확보를, 전체 운동에는 운동의 확산과 재구성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것임.

2.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1) 기금 조성

① 기금 조성의 목적

- 1단계 목적 : 활동기반조성에 집중할 청소년 책임 활동가들의 활동비 지급
- 2단계 목적 : 청소년들의 안정적 활동공간(사무공간이자 네트워크의 자리) 마련 또는 운영비 마련
- 3단계 목적 : 청소년 활동 자금 지원 (개인이 아닌 단체 지원을 원칙으로 기금 조성에 적극 기여한 청소년

단체, 혹은 그 단체와 직접 연계돼 있는 청소년모임의 활동비용 지원)

- 4단계 목적 : 청소년활동가들의 학습체계 마련과 안정적 운영
- 5단계 목적 : 청소년활동가 네트워킹 사업 지원 - 청소년활동가대회, 전국 캠페인 등
- 6단계 목적 : 쉼터이자 주거 공간 확보
- 7단계 목적 : 청소년활동가들의 자립 사업 지원

*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 확보에 대해서도 추가 고민이 필요함.

② 기금 조성 방안

[단기]

- 파이루 인권홀씨상 상금 300만원 쾌척
- 참여연대 기획 <열정세대> 출판상 상금(500만원) 중 일부 기증 받기
- 활동기반조성모임 받기 단체들의 월 일정액 분담금 납부

[중장기]

- 기금의 풀씨(받기인) 모집 : '참교육세대' 선배들, 교육운동 관련자 등.
- CMS 후원 등 정기 후원 조직
- 청소년 활동, 교육, 네트워크결성 지원 기금 신청
 - * 활용 가능한 프로젝트나 재단 목록은 문화연대 소연 활동가가 조사해오기로 함.
- 후원행사 개최 & 물품 판매
- 청소년 자체 수익사업 : 웹자보 디자인 등

③ 기금의 사용 원칙

○ 기본적으로는 활동 단위(단체나 모임, 사업 등)를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함. 이때 청소년활동가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비례 지급 가능성 열어둠.

- 생계 지원이 급박한 청소년활동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우선 지원을 논의할 수 있음.

2) 대안적 학습체계 운영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준비해온 문서를 참고하면 좋겠음.

① 학습체계의 형태

- 학습이 활동 가운데 일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과 학습이 병행될 수 있는 구조와 호흡을 갖출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가 학교 개설]

- 공통 교양과정 : 인문학, 인권, 페미니즘, 새로운 활동양식 등
- 운동론 : 청소년의 존재 이해, 청소년운동의 역사, 현황과 과제 등
- 운동실무 : 글쓰기반, 교육역량 등
- 자립을 위한 기능 습득 과정 : 웹디자인, 영상제작 등

[청소년 대중 교육 프로그램 개설]

- 청소년 활동을 갖 시작하는 청소년이나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

[비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설]

- 운동사회의 비청소년들이 청소년들과 동등하게 만나는 것을 고민할 수 있도록 비청소년 대상 교육도 필요

② 학습체계의 운영 방안 구상

- 연결 가능한 운동사회/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
: 예) 하자센터, 청소년자활지원센터, 단체 회원 등
- 수업료 받고 교육 받고 주변 활동가들과 나누는 길은 없나 찾아보기
- 교육화폐 방식 차용 : 청소년들이 일방적으로 학습을 지원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화폐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고민. 배출되는 졸업생이 다음 강사진으로 무상으로 활동하는 방식도 가능.

3. 오늘 모임에서는 뭘 할까?

- 1) 모임 이름 정하기
- 2) 소속단위 명확히 하기 + 역할 분담 : 기금조성팀과 학습체계준비팀으로 분할
- 3) 운영진 구성하기 : 사업을 추진할 핵심 집행단위 구성. 청소년+비청소년 동수로 구성. 이 단위에 결합하는 활동가 중 1인을 책임 활동가로 선정하면 좋겠음.
- 4) 활동자금 마련을 위한 월 일정액 분담 결의 : 가능한 단체가 가능한 수준에서.

- 5) 추가 제안할 만한 단체 꼽아보기 -
- 6) 다음 모임 날짜와 과제 잡기

■ 참고 : 민주노총서울본부가 추진 중인 ‘서울아동·청소년교육문화센터’

-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지난해부터 서울지역 아동·청소년교육문화센터 개원을 준비중에 있고, 본부 건물 1층에 센터 공간을 마련해 두었음. 나라사랑청년회, 대학생자원봉사동아리 ON 등이 운영단체로 결합중에 있음.
- 어린이 대상 겨울학교가 1월말 3일간 작게 시작됐고, 청소년 대상 사업 구상은 전무한 상태.
- 서울본부는 시에서 제공받은 공간인 만큼, 그 공간의 일부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초기 공부방 형태를 고민하다 현재는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교육문화센터’ 개원으로 방향을 틀었음. 장기적으로는 센터의 공간적 독립까지도 고려하고 있음.
- 센터 공간이 일상적으로는 비어있는 상태.
- 1월말에 민주노총서울본부와 1차례 면담을 가졌고,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기획에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공간을 내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 대답을 얻음. 이 공간은 센터 공간이자 활동기반조성모임의 활동 공간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상적으로는 청소년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 가능. 이르면 3월초 입주 가능.
- 2월 초 다시 센터 운영에 결합하고 있는 단체들의 기획팀회의에 참관. 차차 구체적 협력 방안과 공간 사용의 원칙 등을 합의해 나가야 하는 상황. 서울본부 쪽에서는 상당한 호의와 열의를 보여주고 있으나, 센터 운영단위들의 동의를 얻고 호흡을 맞추기는 과제는 남아 있음.
- 민주노총서울본부 등과 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통라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엠건, 「눈물 없이도 들을 수 있는 활기 탄생사」, 「청심환호 - 활기로 엮는 옆집이야기」, 2010.04.15.

[활기로 엮는 옆 집 이야기]

* 봄을 맞아 네트워크 소식지도 산뜻한 새 옷을 입었다. 겉옷만 바뀐 게 아니라 속 내용물까지 두루두루 업그레이드를 했다. 지금 선보일(?) 신설 코너 ‘활기로 엮는 옆 집 이야기’는 그 업그레이드의 결과물이다.

*‘활기’가 뭐냐고?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조성모임’이 올 초 본격적으로 꾸러졌다. 활기는 좁게 보면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의 약자고, 넓게는 이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 뭉친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운영팀, 기금조성팀, 교육체계팀의 세 팀으로 나뉘어 돌아가고 있다. 정체가 뭐냐는 내외부의 지적질 속에서 처음 해보는 일(누군들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유)의 어려움을 팍팍 느끼며 불안·신선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필자**는 활기라는 옆 집에서 ‘노책임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상시 거주하고 있다. 본 글은 활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생생히 전달해드리고픈 욕망에서 살짝 길게 쓰여졌다. (하하) 다음 연재의 필자로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교육센터 ‘들’, 교육공동체 ‘나다’, 진보교육연구소, 문화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까지 활기에 연대하고 있는 다양한 분덜이 좌르륵 대기하고 있다! (고 믿고있는 바이다.)

눈물 없이도 들을 수 있는 활기 탄생사

‘청소년활동가입니다.

‘학생은 인간이 아니다’는 잔인한 현실명제를 굳이 주워섬기지 않더라도, 교육, 정치, 노동,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령 취급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약자고 소수자다. 근데 이거, 나도 처음엔 몰랐다. 청소년 인권활동을 시작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게 되고 나서야 ‘아, 그렇구나’ 했었다. 근데 이 생각을 올해 들어 주어를 달리 해서 새삼 다시 하게 됐다. 그 주어라 함은 바로 ‘청소년활동가’. 활동을 하면서도 잘 몰랐다. 청소년활동가들 또한 약자였다는 걸.

청소년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내 자신이 참 신기하다. 고 삼때 이수나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남양주(학교)와 흥대(빌린 회의장소)를 매일 같이 오고갔다. 짬순이 엄마가 이런 거에 돈을 줄 리 만무했기 때문에 학교 오기는 차비로 받은 돈을 쪼개고 쪼개며 모아서 서울에 회의하러 갈 차비를 만들었다. 그렇게 모이는 게 천원 정도였는데, 교통카드 쓰면 환승이 돼서 그 돈으로도 그러저럭 다닐만 했다. 처음엔 회의 하면서 집회니 연명이니 연대회 의니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는 이야기들 때문에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을 한 두달쯤 했었다. 새로 온 사람에 대한 배려 문제를 신경 쓰기엔, 그런 체계가 너무 없는 데 반해 일은 너무 많았다. 하필 그 해 2008년은 명박님이 도래하신 해였다. (두둥) 활동 하면서 밤 12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당연히 엄마랑 엄청 싸웠다. 온갖 언어폭력과 약간의 신체폭력의 시기를 거쳐서 엄마를 포기하게 만들고나니 그제야 해방. 알고 보니 청소년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나름 공통과정이었다. 학교를 원래 싫어하기도 했지만 학생 인권에 예민해지고나서는 학교에서의 일상 자체를 못 견디게 됐다고 해야하나. 저항정성은 충만한데, 그걸 드러내면 현실이 너무 피폐해진다. 학주가 내 귀에 귀걸이를 딱 발견했을 때, 교칙이 이상해염 문제제기 했다가 학생부실로 소환 당한다던 지. 게다가 어제 자신이 교실 안에서 자꾸만 온니 입시에 쫓아가는 다른 애들이랑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 이거이거 썸 외롭다 외로워. 그래서인 지, 청소년 활동가 중엔 탈학교 청소년이 많다. 다니다가도 본인이 자퇴를 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쫓리거나 하는 식으로 그만 두는 케이스들이 꽤 있다. 초졸, 중졸.. 고졸 친구들이 수능 보러 간 날 나는 교육부 앞에서 수능거부 기자회견을 했다. ;) 극한으로 치닫는 학벌사회에서 참으로 겁대거리 없는 학벌들이 아닐 수 없다. 이리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비루한 루저의 삶을 본인들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것들은 아무도 책임주지 않을텐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겁니까?

웃기는 어투로 썼지만, 이 모든 게 나는 그다지 우습지 않다. 이건 블랙코미디다. 내가 아는 블랙코미디는 풍자를 통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 차비 같은 기본적인 경비는 내가 알아서 하기, 비단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정보, 우리가 얘기는 '인권'이나 '권력' 같은 것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볼 겨를도 없는 현재 활동 방식, 청소년이라는 위치로 인해 받게 되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억압이 활동을 통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활동 때문에 오히려 가중되는 아이러니한 현실, 또한 탈학교나 비대학을 택한 활동가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삶에 닥쳐온 현실적인 생계 보장 문제까지.

이 모든 걸 그냥 감내하면서 활동하는 게, 당연한 건가? 그러라고 요구하는 거(침묵 하는 것), 너무하지 않나? 단순하게 말한다면,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조성 모임 '활가' '가 만들어졌다. 그건 지금 청소년활동가들의 현실이 확실히 '너무하다'는 걸 동감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고, 흔히들 '그들이(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것'으로 치부하며 무시해왔던 것들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

기이자 의제화였다.

청소년 당사자 운동은 물질적으로나 체계적으로나 기반 자체가 워낙 없다. 우스갯소리로 다른 애들이랑 하던 소리인데, 뽀대나는 사무공간도 있고 재정규모도 어느 정도 되는 운동 단체들이 중산층 정도 되면, 공간은 있는데 가난한 단체들은 달동네 주민들이고, 우리로 치면 그냥 이도 저도 없이 길바닥에서 떠도는 애들이라고..

하여 우리는 활동 기반을 만들고! 싶! 습니다!

활동 기반이라는 건, 일차적으로는 공간이나 사업비처럼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또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물질적 기반들을 갖추자는 걸 말한다. 그를 통해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약자성을 충분히 배려한 물질적 교육적 지원들을 가능하게 만들자는 거다. 청소년활동가들이 활동에 대한 고민을 보다 더 진지하고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자는 부분도 전체 활기 프로젝트 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활동기반조성’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 때문에 쉽사리 시도 되지는 못 했던, 그러나 계속해서 꼭 필요했고 절실했던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활동이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역시나 앞이 죄끔 막막하다. 돈은 어디서 모아올 것이며, 공간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라!” 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하는 할 지 그 설득의 어려움까지.. 게다가 ‘활동기반조성’ 이라는 모호한 이름만큼이나, 하면 할수록 풀어내야 할 이야기도 많고 이래저래 부딪치는 부분들도 생기고 도통 만만치가 않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아마도!

(별 수 있다. 그냥 그냥 그렇게 믿고 가자!..-;-)

활기 파이팅! 아자! 그러니 여러분! 많은 관심과 더불어 든든한 지지! 부탁드립니다! 아자!

(힘들어서 급 마무리 하는 거 아니다.... 아니다.....후...)

어쓰, 「가난한 활기 회계 담당씨의 고백」, 「청심환2호 - 활기로 엮는 옆집이야기」, 2010.06.15.

[활기로 엮는 옆집 이야기]

가난한 활기 회계 담당씨의 고백

안녕하세요! 활기의 회계라지만 하는 일이라곤 분담금 받는 것 밖에 없는 놀고 노는 회계 어쓰입니다. 노 책임 활동가(전 편에서 만나셨죠?) 엠건의 청탁(!)을 받고,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활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가난한 나, 그리고 활기

처음 활기를 알게 된 것은 활기 3차 전체회의 였던걸로 기억해요. 아마 처음으로 네트워크 여성주의팀 회의를 끝내고 난 저녁, 갓 만난 너무나 멋져 보이는 친구들(우웻)을 따라서 쫄래쫄래 충정로에 위치한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로 활기 회의라는 걸 하러 갔더랬죠. 활동이라는 걸, 활동가들이라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저에게 그 회의는 “강 짜져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지금은? 이라고 물어보면 또 할 말 없지만.) 하지만 그 회의에서 딱 하나 몸에 박혔던 것은 ‘지원’이라는 것이었어요. 더 정확히, 아니, 더 까놓고 말하자면 청소년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었죠. 아니 글썄 돈을 준대요! 차비 없어서 빌빌거리는 우리한테 돈을 준대요!! 그 때 저에게 활기는 거기까지의 의미였어요. 활기가 정착(?)하면, 나와 내 친구들한테 돈을 준다. 그래서 활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나선?

거기까지가 아니게 됐어요. 돈은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느꼈어요. 활기는 내 친구들에겐 희망이었어요. 대학을 거부한 엠건에게, 중졸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쟁열에게, 고등학교를 자퇴한 형우에게, 이렇게 ‘찌질한’ 우리에게 그래도 함께 살아보고자고, 각자 책임지지 말고 함께 책임져보자고 말하는 활기는 희망이었어요. 또 그래서 같이 하고 싶었어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제 희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갈 수 있다니, 그게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돈? 안 주면 어때.

여전히 가난한 나, 그리고 알고 보니 더 가난한 활기

전 얼마 전에 당분간 밖에서 살 수 밖에 없게 됐어요. 기출이라고도, 출가라고도, 내쫓겼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그리고 앞으로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집을 나와 있게 됐죠. 그 말은 더 이상 집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는 걸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돈 없던 저는 더 돈이 없어졌죠.

그보다 조금 더 전에 활기의 회계를 맡고, 활기에서 몇 번 지원을 받은 뒤로 알게 됐어요. 활기에는 더더욱 돈이 없다는 것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구질구질하고 찌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돈이 없어도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게 더 의미가 크다는 생각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활기가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가들에게 지원도 딱딱 해줄 수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서워했던 것은 결국엔 그거였어요. “니네가 뭘에 지원을 받냐” “니네가 선택한 것 아니냐”. 하지만 전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싶어졌어요. 우리를 책임져달라는 것이 아닌 같이 책임져보자는 말을, 각자의 상황과 고민을 우리의 고민으로 끌어오지는 말을, 그러니 “너네가 책임져”가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얘기하고 책임져보자는 말을.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하고 싶어요. 다른 활동들 할 때에는 같이 회의도 하고 글도 쓰고 집회도 하면서 그 결과 부딪히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봐요. 같이 모여서 재밌는 얘기도 막 하고 뭘 하면 재밌을지 생각도 하고 그 재밌는 일 같이 해봐요. 그리고 이왕이면 매달 들어오는 돈은 분담금밖에 없는, 게다가 그마저도 매달 적자인 활기에 촉촉한 활기를 불어넣어주세요. 돈 없는 활기에 새로운 활기를! ㅋㅋㅋㅋ

활기에 활기를 주시고 싶은 분은 요기로!!

신한은행 예금주 : 김동균

110 298 691797

나이는 먹어도 어른은 되지 않을 테다!

[활기로 엮는 옆집이야기]

활기기금팀에서 후원행사준비를 열심하(응?) 하고 있는 혜진입니다.

“나이는 먹어도 어른은 되지는 않을 테다!” 그리고 다짐했건만 어쩔 수 없는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그저 그런 비 청소년입죠 ^ ^;;

예전엔 어른이 된다는 게 왜 그리도 싫었던지, 막상 되어보니 이렇게 좋은걸~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옆집인가? 얼렁얼렁~ 나이 먹고 어른 되세요... 라고 말할까 하다가... 문득

20년도 넘은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며... 이게 무슨 데자뷔 현상인가 싶어 화들짝 놀랐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난한가? 에이~ 설마...

핸드폰도 다 있고, 빙스도 땡기고, 노래방도 가고, 노트북도 있고... 그런거 저런거 다 있는데 아니 뭐가 가난해, 우리 때는... 우리 때는... 기억이 안나... 아무튼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고~

보셨죠? 이거 전형적인 꼰대증상입니다. ㅋ

인권교육센터‘들’에서 활기에 결합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청소년활동가들과 본격적인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청소년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기만 한 입장이었는데, 마음속 깊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치유 받지 못한 내 청소년시절을 고스란히 변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쳐 맞아가며 감당해야 했던, 나조차도 덮어 버렸던 아프고 괴로웠던 상처들... 성인인증 받으면서 비로소 겨우 하나씩 들쭉 허락되었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내 몫의 삶... 항변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분노를 맞서기에는 너무나 무력 했던 내 여린 소중한 자이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던 심지어는 또래 친구들조차 한편일 수 없었던 그 옛날의 나를 위해... 지금 청소년활동가들이 싸워주고 있다는 고마움이, 그들의 활동을 지켜보며 찢끔거렸던 내 눈물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직면할 수 없었던, 결코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상처투성이 나의 청소년 시절을 이제라도 함께 살아 줄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저는 기꺼이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청소년활동가들의 텅빈 주머니는 유독 쌀쌀맞습니다.

굳이 제가 구구절절 청소년활동가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100원이 모자라 서울시를 가로질러 도보순례를 한다거나, 어렵게 모은 쿠폰으로 밥을 먹기 위해 이웃 동네 식당까지 찾아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허기가 진다거나, 잔고 칠천 원을 뽑기 위해 사천 원을 빌려 오백 원의 수수료를 물어가며 돈을 냈다 뺏다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생략하렵니다.

[청심환을 받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듯 하여, 그보다는 차라리 “활기후원행사”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괜춘하죠 ^^

후원주점을 하면 차비를 좀 모을 수 있으려나 생각했습니다. 어린것들이 술판다고 한마디씩 거드실 분들이 바람처럼 스쳐지나갑니다. 바자회를 하면 밥은 먹고 다닐 수 있으려나 생각도 해 봅니다. 언어 쓰고 주워 쓰는 처지인지라 내다 팔 물건도 없네요 ㅠㅠ~ OTL 취지에 공감하는 주변 친구들한테 하소연도 해봤지만 주머니 사정 알뜰하기는 고만고만합니다. 우린 어떻게 활동기반을 잡아야 할까요? 시민운동 오래해온 기라성 같은 단체들도 쉽지 않은 후원조직~ 막상 하려니 정말 아득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린 또 우리답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발칙함으로 꺾꺾대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활-기-후-원-파-티~♪ "HoT Youth"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후원행사는 잊으세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목) 철도웨딩홀 개봉박두 커밍 쑈~운.

give me CMS~!!! 굿신~굿신~

<2010년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마련 후원의 밤 HOT YOUTH>, 웹자보, 2010.11.03.

2010년 -
청소년 활동가 활동기반 마련
후원의 밤

“HOT YOUTH”

팍팍한 세상살이 누군들 힘들지 않을까만..

청소년 활동가들에게 세상은 무척 어려운 곳입니다.
차비가 없어 회의에 가지 못하는 아들이 있고
나이가 어려서 수많은 자리에서 외면당하곤 합니다
청 소 년. 아라는 이름은 정체성이 아닌 종종 클래가 되곤 합니다.

그러도,
우리 씩씩하고 발랄하게 재미난 활동을 하려 합니다.
활동만으론 먹고 살 수 없었지만
활동하다 대학 못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으름장을 놓지만

우리,
꽤나 재미있습니다.

불운한 청소년들의 활동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세요

11월 25일 6시
청소년 활동가 활동기반 마련 프로젝트
활기가 넘치는 뜨거운 밤 Hot Youth 에서 만나요 -

장소: 용산 철도웨딩홀
문의: 070.4228.1908
후원계좌 : 110-298-691797(신한은행 김동균)
관련웹페이지: nada.jimba.net/energy



청소년 활동가 활동기반 마련 프로젝트



HOT YOUTH

청소년 활동가 라는 말은 아직도 조금 쑥스럽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런거 짜증나', '왜' 라는 말로 시작했던 활동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활동만 해서는
대학도 못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흔히 '운동이 밥먹여 주냐?'
라는 말은 청소년 활동가들에게는
더 큰 무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비가 없고, 정말로 밥먹을 돈이 없고
마땅한 공간도 적당한 대접도 없는 활동은

위메 - 진짜 힘들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고, 왜냐 재미있는 활동은 포기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활동가들이 더이상 재정적 어려움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재미있고 발랄한 활동들을 꾸릴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만드는데 함께해주세요

청소년 활동가들의 첫 후원행사

여러분의 든든한 연대를 기대할게요

덧붙임: 장작기금은 활기 후원행사 준비기금 및 이후 활동을
위해 쓰입니다. 물품 후원은 당일 바자회 및 온라인 판매로
활동 후원기금으로 쓰입니다.
기타 장소 및 당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여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햇유스 기획단, 「HOT YOUTH 뉴스레터 - 첫 번째」, 2010.11.03.

HOT YOUTH



- 청소년활동기반 마을을 위한 후원의밤 -
2010.11.25 저녁6시 용산 철도웨딩홀

2010.11.03.
첫번째 뉴스레터

활동가랑



청소년활동가 클린앤이 보내는 편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집 푸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학생들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공비행 형우가 보내는 편지

“지금 한국은 모두에게 끊임없이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을 밟고 올라서기를 요구합니다. ... ‘저공비행’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한 공부라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못나게 된 사람들이나 가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활기충전



엠건이 보내는 활기의 편지

“청소년 활동은 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타고났다. ‘청소년’들의 활동이다. 사회로부터 경제적 능력을 박탈 당했으니, 노머니로 활동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사무 공간, 활동가 활동비, 사업비 따위는 성인 단체들한테나 당연한 얘기지, 청소년 단체에선 가히 불가능의 영역에 있었다.”

웹러터의 크기상 웹툰이 잘 안보이실 까여요 T.T
그래도, 그림을 클릭하면 웹페이지로 이동해 좀더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10-298-691797(신한은행 김동균)

문의: 070-4228-1908

<http://nada.jinbo.net/energy>

운동만화 일화

좌식 사무실?



핫유스 기획단, 「HOT YOUTH 뉴스레터 - 두 번째」, 2010.11.10.

HOT YOUTH



- 청소년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후원회박 -
2010.11.25 저녁6시 용산 철도웨딩홀

2010.11.10.
두번째 뉴스레터

활동가랑

정치적권리 똥코가 보내는 편지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현실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정치에 참여시킬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관심과 기여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그거 보여주는 것을 멍하니 응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계가 앞으로 한 달에 100만원을 벌 수 있을 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수치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성과 노동활동에 대하여 여쓰가 보내는 편지



"저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라는 이름도 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는 항상 학생의, 학교 안의 인권에 대해서만 말하던 청소년 인권활동에서 조금 다른, 다뤄지지 않는 활동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활기충전

후원인이 보내는 활기의 편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인권 뿐 아니라 여성주의와 교육권, 노동권 등에 대해 당사자로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에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변창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웹레터의 크기상 웹툰이 잘 안보이실 꺼예요 ㅠ.ㅠ
그래도, 그림을 클릭하면 웹페이지로 이동해 좀더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10-298-691797
(신한은행 김동균)

문의: 010.4228.1908



<http://nada.jinbo.net/energy>

운동만화 일화

CF



핫유스 기획단, 「HOT YOUTH 뉴스레터 - 세 번째」, 2010.11.17.

HOT YOUTH



- 청소년활동기반 마태을 위한 후원회밤 -
2010.11.25 저녁6시 용산 철도웨딩홀

2010.11.17.
세번째 뉴스레터

활동가랑

입시폐지&일제고사 난다가 보내는 편지



"2009년 3월, 청소년활동가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제고사 say no'를 외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두자리를 펼쳐 놓고 무작정 농성을 나선 것이지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립니다. 추워서 말이에요. 추운 것 빼놓고 힘든 게 있었다면,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리고 애를 썼는데도 여전히요, 지금도, 일제고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소수자 활동을 하는 레쓰가 보내는 편지



"동성애반대국민연합, 바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연합 따위의 단체들이 ... 호모포빅한 광고를 내면서, 여러 동성애 단체들이 거기에 맞서 대응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동성애 혐오에 맞서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가 청소년들의 연애를 탄압하는 사례들을 모으고 이를 사회에 고발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활기충전

공현이 보내온 활기의 편지



"앞으로의 생계라거나 진로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하면서 활동을 그만두거나 쉬는 활동가들,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청소년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청소년기를 벗어나면서 활동에서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속 관심만 가져주면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

웹테러의 크기상 웹툰이 잘 안보이실 까예요 ㅠ.ㅠ
그래도, 그림을 클릭하면 웹페이지로 이동돼 좀더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10-298-691797

(신한은행 김동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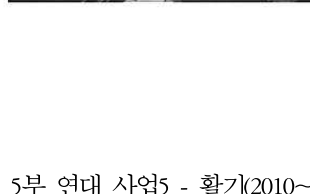
문의: 010.4228.1908



<http://nada.jinbo.net/energy>

운동만화 일화

돈없으면 몸이 고생




핫유스 기획단, 「HOT YOUTH 뉴스레터 - 대박마지막」, 2010.11.22.

"별안간 청소년들과의 뜨거운 만남"

HOT YOUTH

2010년 11월 22일
대박마지막뉴스레터

D-DAY **오늘을 날려! 핫유스 시작날!**



이런 상황에서 나도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한강사 짜 줄 것들을
별같이 잊고 보내고!
미흡한 점 지적해 주는데
꼭! 꼭! 꼭! 꼭!

수업이 쓰러질
정도의만큼

박사에게

이런 열정같은 쓰파를 쓰즈 애들같은 이따가있고 이러이러한

**청소년 활동가들이 말하는
"돈이 생긴다면 이런활동해보고싶당"**



이런이런...

활동한다고 집에서
수동 걸기엔 허비나
배고플때 라면먹고
같이 밥이라도 사먹을수
있는 밥값이 지원되는
활동 만들어
by, 봉기 학생인권 편백년 TV광고 새로로딩 by, 봉기

강한 청소년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상금비율 50%
by, 봉기

청소년 동아리 지원료
그들 사기들 갖는 내로라함 사업
- 청소년 인권 편백년 이더기 많이
받을 수 있게.
by, 강민하늘

특정 이 같은 청소년활동가들의 비박을 듣고 싶으시다면 글씨

**이집주 특요일 제네 6시
용산 월드 행영을**

트러더 "HOT YOUTH" 운영팀사자
업진담니라.

딱실안필르데, 밑세미제,
알프델말할필필르유용후의 필름이
필자에 같이 유제일사 차의 유제막제
같이 필름필름미라.

그말을 필필에 유대 필르
필에 필필유르드 차필의 유제필르드?

핫유스 행사 순서

- 6시 : 핫유스 후원자 사기
- 7시 : 청소년활동가들의 축하공연과 인사 사, 강연보기
- 7시 30분 : 참가자가 될 후원조합 크고 할어할 부소스기
- 7시 35분 : 즐겁게 말한 하세오스~
- 7시 : 활동이 끝까지 지어합니다!

오시는길



문의 : 070.4228.1908
후원계좌 : 110-298-691797 (신한은행 김용중)
공인웹페이지 : www.j1889.net/hotyouth



클린앤, 「클린앤이 보내는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첫 번째 - 활동가랑』, 2010.11.03.

〈첫번째 "HOT YOUTH" 클린앤이 보내는 편지〉

클린앤



1. 클린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 쌀쌀한 초겨울의 날씨인데...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요?

저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활동회원 '클린앤'입니다.

현재 중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재미있는 청소년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지요

사실 인권활동전까지만 해도 학교에대해서 불만 따위는 없던 아이인데...

인권활동을 하고 더 많은걸 공부하고 알면서 정말 정말 학교에 대한 불만덩어리가 되어버렸죠

제가 뒤에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그리고 인권활동이 뭐가 재밌을까요!

2. 나는 무슨 일을 당하고 했을까요?

시련의 꽃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비할 바 못 되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꽤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중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두발규제나 체벌 등은 있으니까요

교문지도라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말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는지..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여러 일들 말이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불만이 계속 계속 생기고 쌓이고 쌓이는 거겠조
솔직히 고등학교까지 안전하게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고등학교까지 가버리면 미칠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같거지만)

이런 학교 생활이니 당연히 불만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만만 토로하고 불만덩어리가 되는 게 좋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없애는 게 바꿀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에 관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제고사 같이 학생들을 줄 세우고 경쟁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옹하지 않는다거나,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하러 다니거나, 두발규제에 불복중한다든지, 인권침해를 알리기 위해 학교에 전단지를 뿌리기도 했구요

나름대로 꽤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바로 학교에서 전단지를 뿌린 거랍니다

학교에서 전단지를 뿌린 거는 제 첫번째 행동이었는데요 두발규제에 맞서서 두발자유를 부르짖는 활동이였습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세우고 엄청나게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동한 건데 결과는 처참... ㅋㅋ

뭐 사실 그렇게 처참하지는 않았어요 몇몇 선생님들과 꽤 많은 친구들에게 호응을 얻었거든요

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해서도 활동을 했는데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는 데 한 몫한 거 같아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ㅋㅋ

3. 활동에서 배운 것

전 제가 스스로가 정말 뜻깊고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자화자찬이긴 한데요 ㅋㅋㅋ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클린앤"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짜증나는 일로 불편한 일로만 놔두고 조용히 있으면 지나갈 일들을 제가 들춰내고 바꾸려고 했다는 게 대단했거든요.

무언가 스스로가 나를 위해 싸웠다는 게 기뻐합니다.

두발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90프로의 학생들이 겪는다고 해요.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 개성발현권, 표현의 자유 등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엄청난 일이죠.

근데도 학생들은 그거에 대항하지 못해요. 대항해야 하고 맞서야 하는 거지만 용기가 안 나고 자신이 하는 게 옳은 건지 확신이 안 드는 거겠죠.

저는 인권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배운 거 같아요.

나의 인권을 알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알리고 또 나의 인권,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말할 줄 알게 된 거?

그런 걸 배웠다는 게 인권활동하면서 기쁘고 재미있는 일이었죠.

4. 마무리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인권이 침해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말을 못하는 안타까운 학생들의 현실이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집 푸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학생들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용기있는 사람도 많을 테고 저보다 더 심한 상황을 겪은 사람도 많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용기를 내고 좀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그런 청소년운동이 더 활기있게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에게 이런 허접한 편지를 써보
다.

이상 이수나로의 클린앤이였습니다!

형우, 「저공비행 형우가 보내는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첫 번째 - 활동가랑』, 2010.11.03.

〈첫번째 "HOT YOUTH"저공비행 형우가 보낸 편지〉

형우

"저공비행하는 여러분들의 뜻이 고공비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저공비행의, 정확히 말하면 '활기' 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올해 초였습니다.

'활기는' 청소년활동기반조성모임 활기를 줄인 말로, 돈도 없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할 여유도 부족한 청소년 활동가들을 위해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함께 만든 지원단체 입니다.

그 때 저는 청소년 활동가라기 보다는 막 학교를 나와서 갈팡질팡하던 탈학교 청소년 이었습니다.

학교를 나와서 친구들과 시간만 죽이고 있다고 느끼던 제가 활기에 참여하게 된 것은

활동가들이 처한 환경이나 활동에 대한 고민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겠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이 어디서 오는 지를 깨닫고 청소년 인권활동을 하고 있거나,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활기'의 일부분으로 인권이나 약자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된 공부모임입니다.

지금 한국은 모두에게 끊임없이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을 밟고 올라서기를 요구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청소년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과를 내기위한 과정을 싫어하는것이'공부잘하는것'을 싫어하는 청소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공비행'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못나게 된; 사람들이나 가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건지, 처음 활동의 계기가 되었던 분노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고 활동이 틀에 박히



왼쪽에서 두번째가 "형우". 위에 사진은 저공비행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등

저공비행이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수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공비행을 하면서 멋대로 단정지어버린 몇몇 편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가끔 캄캄깜깜 소름 끼치게 만들던 내안의 보수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비행이 정말 높이 날고 있거나 높이 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엠건, 「엠건이 보내는 활기의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첫 번째 - 활기충전」, 2010.11.03.

〈첫번째 "HOT YOUTH" 엠건이 보내는 활기의 편지〉

엠건

고3때 처음 청소년 인권 활동을 시작했다.

야자가 싫어서 가입했던 카페의 오프모임에 한 번 나가보니 학교 싫어서 못 견디겠는 애들이 나 말고도 많았다.

모임 간 첫 날부터 청소년 집회를 준비했다. 그 때가 08년 촛불집회가 시작될 즈음이었다.

그 애들과 함께 청소년이라는 내 처지를 '인권'으로 보기 시작하니, '여기, 현실' 에는 당연한 것처럼 포장된 채 진행되고 있는 폭력과 횡포가 너무 많았고,

그렇기에 싸워야 할 일이 하나 둘, 나와 다른 청소년 활동가들의 하루하루를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핫유스 1st 레터〉

청소년 활동가들의 땅 다지기 프로젝트(?), '활기' 를 소개합니다!

핫유스를 시작한 이유는 '활기' 모임을 만든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고로, 첫번째 편지를 맡았다.

활기 소개는 그간 입에 말이 벨 정도로 물고다닌지라, 머리 안 굴려도 쭉쭉 나온다. 물론 첫 문장만. (ㅎㅎ)

청소년활동기반조성모임 '활기'는 청소년활동이 현재의 '청소년당사자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

활동의 기반이 되어줄 최소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 기반마련의 필요성의 공감하는 청소년 단체, 교육운동 단체, 인권단체 등 여러 단체가 모여 올해 초 처음 만들어졌다.

땅 다지기를 이제야 시작했다.

이말인즉슨, 제일 밑바닥에 있는 땅을 이제서야 쟁길만큼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 그대로 사람 빼곤 아무

것도 없는 채로 활동을 해왔다는 소리다.

청소년 활동은 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타고났다.

'청소년들의 활동이다. 사회로부터 경제적 능력을 박탈 당했으니, 노머니로 활동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사무 공간, 활동가 활동비, 사업비 따위는 성인 단체들한테나 당연한 얘가지, 청소년 단체에선 가히 불가능의 영역에 있었다.

없으면 없는대로 하게 된다. 다들 열악함에 적응한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해왔지만, 가만 보면 참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청소년활동가들이 알아서 감내해야 할 것 투성이다.

이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그러했 듯, 청소년 운동 또한 활동하기를 요구하기만 할 뿐, 현재 활동조건의 열악함엔 무관심하며,

청소년기를 마친 후 20대에 접어드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보장되지 않는 앞날과 생계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하여 청소년 활동가들은 "활기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 활동' 을 하며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것들을 이 제는! 보장받고자 한다.

후원행사 '핫유스'는 이런 "활기프로젝트"의 슬픈 사연과 당찬 요구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위한 야심찬 첫 행사라 할 수 있겠다.

이게 뭐 하지는 편지인지 아직도 긴가민가 하다면, 조만간 다시 발송될 이 레터를 주목주시라.

그동안 해온 청소년 활동의 면면은 물론이요,

그래서 활기 프로젝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언능 나오고 싶어서 팔딱팔딱 튀어나오려는 걸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눌러놓고 있는 중이다.

크크 위 월 비 백!



활기와 관련된 사진을 넣고 싶었지만 사진을 찾을 수 없었... 그래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팀이 만들어낸 커뮤니티 <감>선전전 할때 사진입니다.

<두번째 "HOT YOUTH" 정치적권리 툼코가 보내는 편지>

툼코

저는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에서 활동하는 툼코입니다.

청소년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청소년도 성인과 다름 없는 동등한 ‘존재’이고, 청소년이기에 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도 말하고 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직접행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수나로에서는 올해 6.2일 지방선거 때 교육감 후보로 기호 0번 청소년을 출마시켰습니다.

청소년은 출마할 수도, 투표할 수도 없는 선거에서 교육감을 뽑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청소년 모두가 자신들과 연관된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활동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기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 자체를 후보로 내세우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말하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사실 이 활동은 2008년 서울 교육감 선거 때도 이수나로에서 했던 사업이었지만,

저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신선하고 재미있는 기획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발하고 재미나 보이는 사업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노력과,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고, 선거 유세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지지하는 후보가 어찌되나를 보면 그만이었던 선거의 다른 면들이 보였습니다.

정책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이미지만 내세우거나, 표를 모으기 위한 ‘전략’일 뿐인 단일화.

이건 그냥 봐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기는 것을 향한 경쟁이라는 느낌.

이런 것들 속에서 저는 제가 왜 선거에 무관심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유독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도 특별한 계기 없이는 선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이 재미있을 리도, 관심을 가지게 될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른들은 요즘 청소년들은 사회 일반에 무관심하고, 정치적인 권리를 쥐 봤자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아무나 찍거나,

아니면 선거일을 놀러가는 날 쯤으로 여길 것이라 말합니다.

이미 낮은 투표율과 어른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큰일이라는 말은, 선거 때 아주 잠깐, 유행 지난 대중가요보다 못하게 흘러갈 뿐이고요.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정치에 참여시킬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관심과 기여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는 그저 보여주는 것을 멍하니 응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앞으로 한 달에 100만원을 벌 수 있을 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수치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뚝코의 사진은 없습니다(사진찍는걸 매우 싫어하는 뚝코씨 ㅋㅋ)>

어쓰, 「여성과 노동활동에 대하여 어쓰가 보내는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두 번째 - 활동가랑」, 2010.11.10.

〈두번째 "HOT YOUTH" 여성과 노동활동에 대하여 어쓰가 보내는 편지〉

어쓰

안녕하세요! 전 어쓰예요 청소년이고, 학교를 안 다니고 있고, 청소년 인권 활동이라고 불리는 걸 하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활기'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활기 후원행사 'HOT YOUTH'를 함께 준비하면서 제가 했었고,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받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라는 이름도 긴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는 항상 학생의, 학교 안의 인권에 대해서만 말하던 청소년 인권활동에서 조금 다른, 다뤄지지 않는 활동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왼쪽에서 3번째 이쁜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있는 어쓰입니다!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깜> 선전전매 >

단지 ‘학생’이라는 정체성만으로는 청소년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 없고, 그렇기에 저희는 ‘여성’인 청소년, 혹은 ‘노동자’인 청소년에 대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안의 ‘여성주의팀’과 ‘노동빈곤팀’에서요.

‘여성주의팀’은 10대 여성주의, 걸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성 청소년들의 인권을 얘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은 학교 안팎에서 여러 가지 성역할들에 묶여 있는데 이는 단순한 여성주의로도, 청소년들의 인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어요.

그러한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활동으로 여성주의팀에서는 여학교 앞에 선전전을 나가 학교에 다니는 여성 청소년들과 만나기도 하고,

인권오름이라는 잡지에 ‘페미니즘 인 걸(Feminism in Girl)’이라는 연재글을 한 달에 한 번씩 쓰고 있기도 해요.

또 여성주의팀 안에서 책, 영화 등을 보고 세미나를 열고 있기도 하고 올해 초에는 학생-교사-청소년이 함께 연애에 관해 얘기하는 간담회,

‘내숭뚫고 하이킥’을 가지기도 했었어요.

여성 청소년들의 연애, 섹스, 생리, 임신, 복장, 다이어트 등에 대해 함께 공부하며 얘기해나가고 있어요.

‘노동빈곤팀’은 알바생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 얘기하는 곳이에요.

“청소년도 노동자다”라니, 어떻게 보면 꽤나 굴욕적인(?) 말이지만 현재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상황은 그정도인 것 같네요.

노동빈곤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씩 청소년들이 많은 거리에 나가 선전전을 해왔고,

5월 1일 노동절엔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상정기간인 6월 말엔 그동안 선전전과 그 밖에서 모아 온 서명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최저임금 인상요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지고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왔던 청소년 노동자들이 사실은 쪽 있어왔단 얘기를, 그이들도 똑같은 노동자라는 얘기를 해왔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네요.

활동을 하기로 한건 제가 선택한 일이고 위에서 말한 활동들, 그리고 미처 말하지 못한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보다 훨씬.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듯이 ‘활동이 밥 먹여 주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에 저한테 활기가, 그리고 이번 후원행사 ‘HOT YOUTH’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활동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속보이는 마무리로 짧은 글 마무리할게요. 이번 활기 후원행사 ‘HOT YOUTH’에, 그리고 활기에, 그리고 다른 청소년 활동들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남장희, 「청소년활동을 후원하는 후원인이 보낸 활기의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두 번째 - 활기충전」, 2010.11.10.

〈두번째 "HOT YOUTH" 청소년활동을 후원하는 후원인이 보낸 활기의 편지〉

남장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후원인)

얼마 전까지 청년실업자였다가 직장인이 되었는데,

월급쟁이가 된 여유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네트워크)에 정식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몇 만원 후원하게 된 것이 무슨 대수라고, 사실 글을 쓰는 지금도 대단히 송구합니다.

우선 인권활동가인 친구로부터 네트워크 활동가분들이 활동에만 매진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후원을 생각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화해온 것,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문제와 여성주의 등 다양한 청소년들의 주체적 담론을 확장시켜 온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90년대 중후반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돌이켜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순종적인 학생이었던 듯합니다.

몽둥이의 종류와 맞는 부위와 강도가 다양한 만큼 무식하고 난폭한 체벌이 일상적이었던 탓인지, 박음질된 명찰과 앞머리 2cm의 두발 단속 및 불시 소지품 검사 등을 당연하게 여기던 순응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 와서야 사회를 제대로 마주하면서 학생자치권 외에도 반성매매와 장애인이동권, 비정규직 노동권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취직을 준비한답시고 비(非)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 정체된 채 부끄럽게도 소시민 의식만 키우고 있지만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인권뿐 아니라 여성주의와 교육권, 노동권 등에 대해 당사자로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에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번창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뉴욕처럼 많은 여건 속에서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운동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활동가분들, 정말 별 것 아닌 소액 후원인데 생색내는 것 같아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부채의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같이 직접 활동하지는 못하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후원뿐 아니라 많은 지지와 응원으로 네트워크와 함께 하면서 청소년 당사자운동이 힘 받아 더욱 확대재생산 되길 바랍니다.

난다, 「입시폐지&일제고사 난다가 보내는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세 번째 - 활동가랑』, 2010.11.17.

〈세번째 "HOT YOUTH" 입시폐지&일제고사 난다가 보내는 편지〉

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활기’에서 여러 청소년활동가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난다라고 해요.

때는 2007년, 저는 막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한 달이 넘어가도록 학교에 적응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아, 아자라니, 아자라니.

마음속으로 울분을 터뜨렸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마냥 교실과 문제집과 학교의 ‘입시타령’에 학생인권 따위 잊혀져가던 그 때,

저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문화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미친학교를 혁명하라’ 라는 꽤나 혁명적인 구호를 외치던 청소년활동가라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도 만났습니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라는 요구는 날개를 달고 있었고(진짜 날개),

그 요구를 외치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추운겨울날 밤하늘에 생생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침에 심하게 마음이 이끌린 저는 결국 2008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본격 활동판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해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학교자율화라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발표해버린 시기이기도 했고, 그와 함께 ‘일제고사’라는 폭탄을 교실에 떨어뜨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시경쟁중단, 일제고사 반대”라는 말은 청소년활동과 뿔레야 뿔 수가 없는 구호가 되었습니다(아 슬프다).

2009년 3월, 청소년활동가들은 거리로 나섰다.

“일제고사 say no”를 외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다 돛자리를 펼쳐 놓고 무작정 농성에 나선 것이지요. 그놈의 막장 일제고사 때문에 해직된 교사들과 청소년활동가들은 함께 난로를 나눠쓰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립니다. 추워서 말이에요.(정말 추운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ㅠ_ㅠ)

추운 것 빼놓고 힘든 게 있었다면,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리고 애를 썼는데도 여전히도, 지금도, 일제고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 정말. 그 때 저는 막연하게나마, 권력의 거대함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이 사회에서 인권이든, 교육이든, 일제고사 거부든, 얘기하는 게 참 쉽게 묻히고 마는구나,

권력은 참 빠르고, 힘이 세구나. 흑흑.

청소년활동은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두발자유’는 ‘고작 머리카락’의 문제가 되기 십상이고,

‘입시경쟁중단’은 ‘너무 이상적’인 문제로만 얘기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끈질긴 외침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외침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만들면서 배제하고 있는 지,

그 문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회의 권력에 맞서는 ‘불온한 힘’을 믿고 청소년활동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세는 저항, 대세는 저항하는 청소년이니!



하핑크색 이쁜 코트를 입은 분이 난다입니다

<사진출처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오답승리의희망,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개소식때 사진입니다>

-

어렵게 정말 어렵게 장만했고 앞으로 어렵게 이끌어 나갈

청소년활동가들의 사무실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빈손으로 오시면 조금 섭섭할듯?

헤헤-

레쓰, 「성소수자 활동을하는 레쓰가 보내는 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세 번째 - 활동가랑』, 2010.11.17.

〈세번째 "HOT YOUTH" 성소수자 활동을 하는 레쓰가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섹슈얼팀의 레쓰입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마이너 중의 마이너 청소년 동성애자입니다.

청소년으로서 받는 차별에 맞서야하고 이 시대의 이성애중심주의와 맞서는 일도 해야할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태원과 종로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이입니다. :)

이태원 종로에 퐁퐁 숨어있지않고 많은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하면 대중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까라는, 쓸데없는지 쓸데있는지 모르겠지만 종체 답이 안나오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ㅎ

제가 최근에 하는 활동을 소개하자면...

주로 하고 있는 건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 대응 행동인 것 같습니다.

소위 동성애반대국민연합, 바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연합 따위의 단체들이 동성애가 소재인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비난하는 호모포빅(동성애 혐오적인)한 광고를,내면서, 여러 동성애 단체들이 거기에 맞서 대응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동성애 혐오에 맞서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가 청소년들의 연애를 탄압하는 사례들을 모으고 이를 사회에 고발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애를 탄압한다는 건 이성애자들의 '이성교제'를 처벌하는 것 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사례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발송되었을 때면 벌써 발표를 했을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앞으로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ㅎㅎㅎㅎ

좀, 그렇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들을 짓밟을 수 있을 만큼 강해지겠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성애자 단체도, 청소년 단체도 정말 대표적으로 돈이 없고 백도 없는 단체들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부탁드려요 :)



<사진출처 : 개인이 소장한 사진입니다>

공현, 「공현이 보내온 활기의편지」, 『HOT YOUTH 뉴스레터 세 번째 - 활기충전』, 2010.11.17.

〈세번째 "HOT YOUTH" 공현이 보내온 활기의편지〉



(공현의 Before After ;; 위의 사진은 나름 2년차였던 2006년! 아래 사진은 최근! 살쨍다 으악!)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오답승리의희망 등 여기저기 발을 걸치고 있는 공현이라고 합니다. ^^;

제가 고등학교 때 청소년인권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것이 벌써 5년 전이니, 제 청소년인권운동 경력도 벌써 6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처음 고등학교 때 청소년인권운동에 발을 들여놨을 때만 해도, 제가 20대가 된 이후에도 계속 청소년인권운동을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 일이란 건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신세 망치는 게 순식간이에요 ㅋㅋㅋ

그래서 20대로서 활동을 시작했던 해에 제가 정했던 목표는, 5년 내에 제가 활동하는 단체 - 이수나로라거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에서 저에게 상근비를 줄 수 있도록 그 단체들을 키우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5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달성이 안 된 목표입니다. TTT

20대, 비청소년이 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청소년이 아닌데 청소년인권운동을 어떤 위치에서 해야 할까?"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내가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등등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남성이라면 군대 문제도 고민거리가 되겠군요.

특히 앞으로의 생애라거나 진로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하면서 활동을 그만두거나 쉬는 활동가들,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계속 청소년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청소년기를 벗어나면서 활동에서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속 관심만 가져주면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계속 청소년운동을 하고 싶어하고 청소년활동가로 살고 싶어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들입니다. 하다못해 월 60만원, 80만원이라도 주면서 상근자를 몇 명 둘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살겠다는 활동가들도 많은데, 그게 안 되어서 활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지금 청소년운동은 오히려 돈을 내면서 해야 하는 실정이기까지요 슬픈 일입니다. 이런 고민은, 20대가 된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10대 후반의 활동가들도 비슷하게 갖고 있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혁명의 길에 6년째 지쳐 도망치고 싶지만 이까짓 6년은 너무 짧다고 허나 우리 이만큼 왔다고 노래하며 살았으면" 활동 6년차에 접어든 저에겐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이만큼 왔다고 자부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요즘엔 좀 쓸쓸합니다. 5년 동안 차곡차곡 마음에 담아둔, 떠나보낸 사람들의 발자취 때문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가을이라는 핑계로 닭살이 돋더라도 좀 감상적인 소리를 하자면 말이죠;; 왠지 항상 상대방한테 이별을 선고받기만 하는 연애를 하는 기분이랄까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운동에 부담없이 참여하고 더 적은 부담을 안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청소년활동기반마련, '활기'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운동 사상 최초의 후원행사, HOT YOUTH 도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냥, 많이 팔아주실 거죠? ^^

활기, 「돈이 생긴다면 이런활동 하고싶당」, 「HOT YOUTH 뉴스레터 마지막」, 2010.11.22.

<마지막 "HOT YOUTH" 돈이 생긴다면 이런활동 하고싶당>

형우 & 엠건

- 청소년 집회에 아이들 초빙 ㅋㅋㅋ 참가 청소년 수가 10.000명을 돌파할거임 ㅋ
- 전국 초중고 학교에다 동시다발 빼라 폭탄. 내용은 학교 가는 거. (하늘에서 빼라가 내려와요)
- 막장 밴드 만들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쉬는 시간에 게릴라 순회공연 ㅋ 낭팡 the wall 같은 거.
- ㅎㅎ 그 돈으로 로또해서 1등 혹은 2등을 탄다. 청소년활동센터를 만든다.
- 영화 만들까?
- 청소년 동아리 지원과 그들 사이를 잇는 네트워킹 사업 - 청소년 인권 관련 미디어 많이 만들 수 있게. 그들이 모여 만드는 축제 같은 것도 해봄 좋을 듯. 예전 청바다 기획처럼.
- 멋쟁이 재단? ㅋㅋ 지금 같이 구린 재단들 말고, 좀 괜찮은 재단으로.
- 청소년 술 담배 지원 사업 ㅋ (정보법 거부 활동의 일환으로) 오마갓
- 유스 이갈리아 체험장 만들기 (비칭이 청소년처럼 차별받는 구역)

듬코

- 일단 청소년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상근비를..ㅠㅠ

서원

- 돈이 생기면 청소년 인권 교실 같은거 열고 싶다ㅋㅋㅋ
- 돈 많이 생기면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안학교도 세우고 싶다
저공비행학교 이런거ㅋㅋ

어쓰

- 큰 축제를 열고 싶당
- 우리가 지금 후원행사 하는것처럼
부스도 있고 막와서 공연도 보고

놀기도하고 활동소개두 하고!

공현

- 청소년인권 관련한 주제로 TV 광고내보고 싶당

공기

- 활동한다고 집에서 용돈 끊기면 차비와 ,
배고플때 라면말고 같이 밥이라도 사먹을수 있는
밥값이 지원되는 환경만들기!

〈2010년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마련 후원의 밤 HOT YOUTH - 후원 행사장〉, 소장사진, 2010.11.25.





〈2010년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마련 후원의 밤 HOT YOUTH - 감사 메일〉, 웹자보, 2010.12.16.



HOT YOUTH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불온한 청춘들과의 뜨거운 만남, HOT YOUTH!

꽤나 딱딱한 청소년활동가들의 삶. 그 삶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해 뭉친 청소년활동기반 조성모임 '활기'에서 준비한, 청소년운동 '최초의' 후원행사, 핫유스!

집회라던가, 캠페인이라던가, 퍼포먼스 같은 것들은 나름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행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들 뽀뽀뽀뽀~ 갈팡질팡~ 어색어색~;; 그래서 더 부딪히고, 더 뛰어다니고, 더 애쓰고, 밤도 새가면서 쿵쾅쿵쾅 열심히 준비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많이 서투르고, 어설픈 파티였지만, 그 날의 만남은 뜨거웠고, 우리의 운동은 더욱 불온해졌습니다.

청소년운동의 첫 후원행사, '핫유스'에 몸으로, 마음으로, 장작으로, 손을 내밀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운동에 활기를, 우리의 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에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p.s. 장작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께는 특별히 감사를 표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모듬 정보			
모듬명	저공비행	사업기간	10.9~ 10.131
구성목적	<p>가혹한 입시경쟁교육, 44만원 세대리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10대의 열악한 노동조건, 내 삶의 조건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없게끔 하는 정치적 권리의 박탈까지... 이 모든 게 청소년의 ‘현실’ 이라면, 그 ‘현실’ 은 청소년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으니, 청소년(또는 학생)이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보장하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 맞선 청소년들의 직접 행동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p> <p>‘청소년 활동가’라는 존재들은 그렇게, 이미, 이 사회에 있습니다. 활동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를 활동가로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단 하나로 정의되는 무언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저공비행 모임은 하여 청소년 활동가들이 ‘활동’ 에 대한 질문을 끈질기게 붙잡고 풀어내는 공간이 되려고도 합니다.)</p> <p>‘활동(活潑): 살아가고자 하는 움직임’ 에 있어서 우리는 부조리한 것들에 저항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지향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활동에 대한 현재의 ‘저공비행’이 가진 정의입니다. 수능을 거부하며 스스로 공고한 학벌 사회의 약자 되기를 택하는 삶.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곳에서부터 약자에 대한 예민한 촉각을 지니고 성찰하는 태도. 그러나 그러한 예민함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p> <p>‘저항을 공부하다’ 는 개념은 자신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저공비행에서의 공부는 입시교육에서 흔히 말하는 공부와는 정 반대의 의미를 지닙니다. 저항의 대상으로써의 (입시)공부가 아닌, 그 자체가 저항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행동으로써의 공부를 하려 합니다.</p> <p>또한 청소년 활동의 내부 역량 증진과 청소년 활동가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웹 기술 등의 기술 교육 지원 또한 모색하고 있습니다.</p>		
모듬소개	<p>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하는 ‘청소년 운동’이 사회</p>		

운동의 한 귀퉁이에서 작게나마 자리 잡기 시작한 지도 어언 몇 년이지만, 청소년 운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운동이라는 특성 상 활동을 뒷받침 해 줄 그 어떤 기반도 없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여 청소년 운동의 재정적, 체계적 기반을 갖추어 보다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일구어보고자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조성모임 “활기“ ’가 꾸러졌고(2010. 2), ‘저공비행’은 활기 모임 내에 있는 교육체계팀에서 준비하기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관심을 보인 청소년들로 저공비행 1기 모임을 꾸렸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청소년 단체에서 직접 활동 중인 청소년 활동가들, 또한 단체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 인권활동의 곁에서 공감과 고민을 나누고 있는 가까운 청소년들, 또한 10대 때 활동을 시작하여 이제는 성인이 된,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소수자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놓을 생각이 없는 이십대 초반들까지 십 여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2. 모듬 소개

■ 활동실적

주요활동

- 저공비행 시작 전에 어떤 저공비행을 만들 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전 세미나를 진행 중입니다.

■ 활동사진

(모듬구성원들이 나오는 사진)



저공비행 팀 회의가 끝난 뒤의 모습, 떠나지 않고 남은 멤버들을 ‘찰칵’

■ 모듬 구성원 소개

이름	생년월일	소속(학교 등)	연락처 (핸드폰)	팀 내 역할
김남미	91.2.15	청소년인권활동가 활동지원 모임 '활기'		연락 담당
김동균	92.9.30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 워크		기록
김해솔	93.1.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의 담당
김형우	92.3.26	.		기록
윤혜진	92.3.17	.		활기 붙여넣기
전경현	93.10.6	.		활기 붙여넣기
전은창	92.1.2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자료조사
정열음	94.1.6	교육공동체 나다		홍보물
한소영	93.7.9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 워크/ 모난라디오		홍보물
한지혜	91.12.23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 워크/ 모난라디오		타 단체와의 연결

3. 세부사업 내용

■ 사업 계획

사업명	저항을 공부하는 비행(飛行-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청소년들 “저공비행”
사업목적 (목표, 기대효과 등 구체적으로)	<p>가.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며 이를 사회적인 실천 활동에 연결 짓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인문학 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체계를 구축함.</p> <p>나. 청소년 활동가들의 일상적 소통 공간으로서의 저공비행 만들기 : 저항이라는 가치와 삶에 대한 고민과 행동하는 활동을 연결하는 소통</p> <p>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더 탄탄히! 나아가 새로운 활동 더하기! : 일상적으로 만나고, 공부하고, 이야기 하며 청소년 인권 활동에 대한 고민을 더 깊고 풍성해지도록 함. 그리하여 알차고 속 깊은 활동하기. 새록새록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p>

<p>위와 같이 사업목적을 정한 이유</p>	<p>가. 꼭 많은 걸 알아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활동이란 건, 그것대로 위험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 풀이법에 불과한 공교육 현실을 차치하더라도, 청소년들은 특히나 사회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갖기에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통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 부족은 청소년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고사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일제고사를 왜 해서는 안 되는 건지 막상 말로 표현하려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권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인권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p> <p>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활동을 하고 싶은 지, 자신의 상을 갖고 보다 주체적인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 내부 공부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 되어 왔습니다. 저공비행을 통해 그간의 결핍을 해소하고, 필요한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지원 하고자 합니다.</p> <p>나, 다. 정해진 루트 이외의 대안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이들의 존재입니다. 무엇에 어떻게 저항해야 할 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너와 내가 이어져있을 수 있는 매개와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공비행을 이러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의 내실을 다지는 것도, 새로운 활동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도 이러한 소통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p>
<p>사업내용 (상세히 기입)</p>	<p><저공비행 1기 운영 계획></p> <p>청소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통해 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참여자들이 기획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더 다듬어지며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1. 프로그램 내용</p> <p>1) 준비과정 : 공부, 소통, 소수자를 주제로 경쟁을 통해 강자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닌 공부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본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 만들기’ 과정으로 진행하는 세미나(6주)와 워크샵(2회) 및 여름캠프(2박3일)</p> <p>*청소년 자발적사회문화활동에는 본 학기부터의 과정을 지원 신청합니다.</p>

2) 본 학기

① 공통과정 : 사회 전반에 대한 시각과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인문학 교육으로 전체 참여자가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철학, 인권, 페미니즘 등의 세미나. 학기당 2과목 운영. 2010년 9월 첫 학기에는 철학(16주), 인권(16주) 예정.

② 선택과정 : 빈곤 등의 이유로 경제적 자립이 시급한 참여자를 위한 직업교육(16주)으로 웹 프로그래밍, 시각디자인, 영상제작 등 참여자 요구조사 후 확정. 필수과정은 아니며 본인의 사에 따라 선택.

3) 보고서 작성과 발표회

보고서 형태는 문서 외 영상, 극 등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형상화하며 학기 말에 발표회 형식으로 공유하고 이는 출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프로그램 운영 방법

1) 강사진 : 강사진은 사회단체의 인권, 인문학 등의 기존 교육 역량들과 기능 교육이 가능한 후원자들의 도움을 최대한 모아내되 열악한 경제상황에 있는 사회단체들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소정의 강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2) 운영위원회 : 원하는 청소년 참여자 모두와 강사진,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학습체계 운영진이 됨.

3) 확대세미나와 동아리 : 주 1회, 2과목(선택과정까지 하면 3과목) 세미나로 불충분하다 여기는 참여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확대세미나와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지원신청을 하는 이유

청소년 운동은 재정적 기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그 취약한 재정상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보기 위해 저공비행팀이 소속되어있는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모임 “활기”’가 올해 초 꾸려졌지만, 초기 단계다보니 아직 ‘활기’ 자체로도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던 차에, 청소년의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이번 ‘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저공비행과 꼭 성격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 지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을 꾀하기까지는 당

분간, 혹은 꽤 오랫동안 넘어야 할 고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무수한 고개 중의 한 고개를 이번 지원을 통해 넘어가보고자 합니다.

<p>지원의 필요성</p>	<p>여러 사회단체의 성인 활동가들은 적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비를 받기에 의욕적으로 자기 활동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활동가들은 자기 용돈을 쪼개고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으로 활동비를 마련합니다.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거부’하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앞으로의 생계유지에 대한 막막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인권에 대해 막연한 문제의식이 있지만 고민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학습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에 못지않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없지는 않아서 찾아다닐 수는 있겠지만 정보를 찾는 것도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게다가 돈도 듭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욕구는 채워지지 않은 채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다 고민을 접고 나이가 들어 갑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개척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부조리한 교육제도의 원점으로 돌려세우고 맙니다.</p> <p>그래서 이들이 이 사회의 소수자로서, 이 사회의 다른 소수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대안적인 삶을 기획해 나갈 수 있게 할 지원이 절실합니다. 강자가 되기 위한 공부나 약자로서 힘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공부를, 신나게 하면서, 경제적인 자립도 가능하게 할 체계를 우리 사회의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제는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원은 많습니다. 이를 연결할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대안을 꿈꾸는 여러 단위의 교육 현장에 힘이 되는 내용이,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p>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은 수동적인 교육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받을 교육을 직접 만드는 능동적인 기획자로서 참여합니다. 이 경험은 이 사회의 제도교육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인간형의 전형을 탈피하는 가능성에 대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 “12년 초중고→대학→직장인”까지 공식대로의 삶을 벗어난 틈새 가운데서도 할 일이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상상력을 경쟁이 아닌 사회적인 소수성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종의 대안적인 대학이라 할 수 있을 종합적인 학습과정으로, 매해 새로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로 정착되도록 합니다.
<p>향후계획</p>	<p>2011년 저공비행 1기 2학기 비행 준비 및 진행 저공비행 2기 모집 및 준비</p>

저공비행, 「첫 번째 시작 - '인권' 커리큘럼」, 2010.09.14.

- 1강 특강 1 - <인권을 외치다> 저자 특강/ 전체 그림 그리기 [9.7 류은숙]
- 2강 인권의 가치(자유, 평등, 민주주의 ...) 누구와 만났을 때 이 가치가 인권이 되는가
[9.14 한날/ 참고자료: 프랑스선언 - 인권을 외치다 1부]
- 3강 인권, 차이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9.28 개굴/]
- 4강 법, 소유, 폭력에 대하여 (재산, 불복종 선언, 카피레프트) [10.5 공현/ 참고자료: 소설 '소수의견']
 - * 강좌마다 관련성이 짙은 선언들 읽어오기
 - * 강좌마다 '저장거리 인권 담론'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
- 5강 중간 토론 : 못 다한 이야기 - 인권을 외치다, 앞 교육과 관련해 남는 질문들 풀기 [10.12 한날 진행]
- 6강 특강 2 - 그 시선을 던져주세요 : '장애'는 어떻게 구성 되는가 [10. 19 도현 님 개굴이 섭외]
- 7강 특강 3 - 그 시선을 던져주세요 : 근대의 아동, 근대의 주체들은 어떻게 등장했나? [10.26 개굴]
- 8강 특강 4 - 그 시선을 던져주세요 : 차별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 피해자화, 복합차별, 경계 나누기 등
[11.2 보짱님 공현이 섭외]
- 9강 중간 평가 : 철학수업과 연계, 중간 평가 [11.9]
- 10강 프로젝트 수업 : 참여자가 준비하는 수업 [돈움이: 11.16 공현]
- 11강 프로젝트 수업 : 참여자가 준비하는 수업 [돈움이: 11.23 한날]
- 12강 프로젝트 수업 : 참여자가 준비하는 수업 [돈움이: 11.30 개굴]
- 13강 프로젝트 수업 : 참여자가 준비하는 수업 [돈움이: 12.7 한날]
- 14강 프로젝트 수업 : 참여자가 준비하는 수업 [돈움이: 12.14 공현]
- 15강 마무리 평가 [12.21 낮에는 철학과 연계한 토론시간: _개굴 /전체 평가와 뒷풀이는 저녁]

저공비행, 「저공비행 소개 ppt」, 2011.05.27.



저공비행? 그게 뭐야?

: 청소년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활동을 지속할 지원도 기반도 환경도 없는 상황 속의 우리들은 언제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청소년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2010년부터 시작 된 '청소년활동기반조성모임'은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그 안의 저공비행은 청소년 활동가들의 '공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싶다.

2011년! 저공비행이 꿈꾸는 공부는 변하지 않았다.

- : '힘'을 가지려는 공부가 아닌 '세상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공부를 바란다.
- : 약자와 소수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공부를 꿈꾼다.

저공비행? 누구누구?

Old

&

New

정열



엠건



어쓰



아즈



형우



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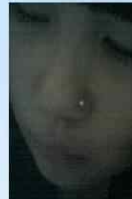


덤코

나래



예솔



굴다



저공비행?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

2010년

2월 청소년활동기반조성모임 '활기' 꾸러짐

3월 '활기' 내에서 '저공비행' 첫 제안

4월 저공비행 총 구상과 기획

5월 사전 워크숍 '연습비행' 진행 (주 1회)

9월~12월 저공비행 1학기!!!
(매주 화요일 인권과 철학을 공부)

2011년

1월~2월 방학 & 2학기 구상 및 준비

3월~6월 2학기!!! (다양한 세미나 진행 중!)

2학기: 소규모동시다발세미나작전!

: '생존'이라는 타이틀아래 관심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소규모 세미나로 동시에 진행.

: '페미니즘 세미나' 지금 세상에서 여성청소년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 페미니즘 공부를 통해서 생존을 도모해보기. (정열 예술 다영)

: '정치경제 세미나'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 세상. 사실 잘 알지 못하기에, 어디 한번, 그 놈의 자본주의 좀 파헤쳐보기. (공기 엠겐)

: '무기력과 안정'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무기력. 무기력은 무엇이고 안정을 찾는 건 무엇일까 고민해보기. (툭코 아즈 형우 다영)

: '근대철학 세미나' 1학기 때에 했던 근대철학 강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를 만들고 이루는 것들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 해보기 (어쓰 나래)

저공비행? 지금부터!

7월~8월 방학 !!

- : 연속워크숍 & MT
- : 1년 돌아보기
- : 3학기 준비

9월~12월 3학기 !!!

- : 세미나 진행
- : 기획강좌 진행
- 12월 평가 및 마무리

: 이전까지의 저공비행은 갖 만들어 시행의 실험이었기에 고정된 멤버에게만 집중되었다. 이제는 우리 주변의 청소년 활동가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저공비행을 '공부 지원 체계'로 안정시키기. 사람, 돈, 정보까지 다양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서 청소년활동의 지속성을 만들기!

: 청소년 활동가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원하다가 또 다시 지쳐서 공부를 못하게 되지 않도록, 지원을 열심히 받아내기! 그렇게 힘든 게 아닌, 즐겁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만들기!

: 이야기와 고민의 과정을 많이 갖고, 다들 정말 활동을 하면서 생긴 고민과 '사회의 힘'에 저항하며 낮게 살아가기 위해 앞의 필요를 느끼는 것들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게 하기!

: 공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 수 있게 하기.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강의가 아닌 주제도, 방식도 자유로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따로 한 공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에 노력하고, 후속작업까지 남겨서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보기!

저공비행? 필요한 거?

: 청소년 활동에 지속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활기'와 '저공비행'을 만든 지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기도 하다. 구성원 모두가 20살을 바라보거나, 지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지나버린 이제는 알바 전선에 뛰어들어 노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쳤다. 이 사회에 대학 아닌 배움이 너무 어려운 탓에 우리는 또다시 공부할 기회는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간을 낼 수도 없어지고 있다.

: 청소년 활동을 하는 청소년활동가들은 활동에 대한 가정, 학교, 고민, 돈, 공부 등의 어려움들을 늘 각자가 따로 고민해왔다. 그런 식의 각자에게 미뤄지는 큰 짐들을 지게 됐을 때에 우리는 기반이 없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을 끊임없이 마주쳤고, 소진되어 주저 앉았다. 더 이상 그렇지 않게 지지해주고 함께 해줄 누군가가 없다면, 청소년 활동은 언제나 소진되는 방식에 머물며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저공비행? 꿈꾸는 것?

저공비행을 거부하는 부모형사님들 :

:저공비행은 약자의 시선으로 낮게 살아가려는 청소년활동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그런 청소년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안정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또 새로운 이들이 발 들일 수 있는 곳으로 청소년 활동을 가꿔나가는 것을 함께 해나가고 싶다. 앞으로 계속!!!!!!!!!!!!!!

저공비행

6부

연구/보고 사업



개요

연구/보고 사업

2006년 첫 발을 내딛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운동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연구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내부에 공동연구팀을 두었다. 그 결실이 바로 인터넷 매체 <인권오름>에 1년 동안 연속으로 기고된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연재기사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청소년운동의 역사 기록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특히나 청소년이 직접 쓰는 청소년 운동의 역사 기록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활동가들이 각자의 기억이나 흘러간 기사 속에 있던 사건들을 파헤치고 자료를 발굴해 하나의 줄기로 엮은 청소년인권운동의 시작과 현재를 짚는 역사연구물을 만들어낸 것은 놀라운 성과였다.

2007년 5월 연속 기고가 마감된 이후로는 학내 저항 지원 등 늘어나는 사업 부담으로 인해 연구사업에 역량을 기울이지는 못하게 되었다. 다만 단발적이고 시의적으로 필요한 연구/보고 사업들 - UN 사회권 보고서, UN 아동권리위원회 의견서 등 - 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아니면 운동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역사나 현재를 연구해나갈 단위가 부재한 상황에서 결코 놓을 수 없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네트워크의 연구보고 역할에 대한 외부의 기대도 저버리기 힘든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UN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민간 보고서의 역할 등에 대한 내부의 명확한 합의과정도 없는 채로 그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있는 활동가에게 전적으로 연구/보고 작업을 내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다 보니 보고서 제출 작업에는 함께하였으나 이후의 후속사업 - 모니터링, UN의 결정문에 대한 의견제시 등 - 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청소년 운동에 대한 연구를 전업으로 삼는 활동가가 없던 상황에서 연구/보고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단위로서의 역할을 네트워크가 담당해왔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단위 혹은 개인 - 청소년인권연구소 등 - 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유윤종,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사회를 흔든 “학생인권” 함성 -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발원지, 최우주씨 헌법소원 사건」, 인권오름 제 2호, 2006. 05. 03.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사회를 흔든 “학생인권” 함성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발원지, 최우주씨 헌법소원 사건

유윤종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대를 시작하며...]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는 짧게는 90년대 중반, 좀더 길게는 8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그 역사는 이제껏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아 온 청소년들은 자기 역사를 써내려갈 기회조차 갖지 못해 왔다. <인권오름>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함께 억압의 구조와 맞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벌여온 인권운동의 역사를 10여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인주>

청소년인권운동사 연구를 시작하며

체벌, 두발규제, 강제자율학습, 입시경쟁교육 등 각박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하고픈 말도 많을 터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간주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21세기 들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반항’이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것도 그러한 기존 시각에 충격을 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싸워온 역사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청소년인권운동사 연구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 배치하고 알리기로 한다. 이미 잘 알려진 사건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해석을 덧붙여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운동의 단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앞으로 청소년인권운동에 발을 들이려는 사람, 또는 이미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기

도 하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1995년 최우주 씨 헌법소원 시도 사건을 다루고자 한다. 이 사건이야말로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출발점이자 발원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편의 글, 한국사회를 흔든다

“저의 바램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방과후의 시간을, 방학 동안의 시간을 당연히 학생들 자신의 적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번호	이름	ID	날짜	조회	제목
104	김민성	2718804	08-18	79	학생들이 듣고 일어서야!
102	송윤종	jasul	08-18	83	아구...할말이 없어졌네...
101	변무홍	bwikbs	08-17	106	[100] '보충수업'의미...
100	김기현	orunkim	08-17	149	'보충수업'의 의미 : 우주님에게 의문
99	김정성민	jsmpc	08-17	97	고등학교 졸업하니 남는게 없다.
98	조원배	babo85	08-17	105	[이재열님의 71번 글을 읽고나서...]
97	김기현	Kotex	08-17	88	[n.g] 춘천고만 문제나?
94	최우주	DIEHARD3	08-15	391	[방향제시] 바른교육, 최우주입니다.
92	김병현	bites	08-15	83	이모든것이 공허한 외침일 뿐인가...
91	최우주	DIEHARD3	08-15	465	[경과보고] 최우주입니다.
90	송윤종	jasul	08-15	66	인격에 점수를 먹일 수가 있나요???
89	이정수	LISA2	08-14	59	87번 송윤종님 교사평가제 적극 추천!
88	김기현	orunkim	08-14	82	교육과 세뇌 : 이재열님 말씀에 붙여
87	송윤종	jasul	08-14	93	교수평가제 = 교사평가제 ?????
86	서태봉	seotb916	08-13	100	[누리] 저의 담임선생님은 좋은분..

번호/명령(F, B, N, A, P, TP, TL, PR, DN, PT, LI, LN, LZ, LS, LT, LD, X)
 선택(H: 도움말) >> █

▲ 최우주 씨의 헌법소원 의사 표명 이후 하이텔에 개설된 토론방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1995년 7월 22일 하이텔 게시판에 올라온 이 한 편의 글은 이후 청소년 인권운동의 획을 긋는 사건으로 발전했다. 당시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우주 씨는 학교의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시행과 관련해 청와대,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출하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본래 헌법소원을 내리다 절차상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최우주 씨는 ‘학교가 학생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씨의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보충, 자율학습의 강제성은 사실이 아니며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보충, 자율학습은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해 실시하게 되어 있다”는 공허한 답변만 내놓았다.

교육당국의 이런 무성의한 답변과는 대조적으로 언론과 하이텔에서의 반항은 적지 않았다. 같은 달 26일

에는 강원도민일보, 27일에는 중앙일보 사회면에 관련 기사가 났고, 29일에는 전교조에서 ‘강제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이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윽고 8월 3일 하이텔에서는 [최우주 군의 학교 문제, 함께 따라가 봅시다라는 제목의 토론방이 개설되어 학생 인권에 관한 논의를 확산시켰다. 당시 하이텔 토론방에서는 최우주 씨의 문제제기 방법에 대한 비판과 재반박에서부터 체벌, 보충수업, 분반, 입시교육, 심지어 선거연령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청소년문제와 교육구조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 씨 본인은 몇몇 교사로부터 자퇴나 전학을 가리는 말을 듣기도 했고, 한때 교장으로부터 ‘민원을 취하하고 학교에 순응하든지, 혼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빠지든지, 아니면 전학/자퇴를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기도 했다.

개혁도 민주화도 말뿐, 변하지 않는 학교

최우주 씨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논쟁은 95년 당시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교육과정의 획일성과 경쟁성 개선, 다양성과 인간성 존중이라는 교육목표를 내건 6차교육과정이 도입되었고, ‘5.31 교육 대개혁’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었다. 5.31 교육 대개혁에 담긴 ‘경쟁력 향상, 교육의 질 제고’는 교육에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도입, 경쟁교육을 한층 심화시킬 가능성과 학교 구성원들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위험을 안고 있어 교육계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거리였다. 당시 하이텔 토론방에서도 말뿐인 교육 청사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근데.. 교육개혁이라는 게 대단히 애매하고 좀 수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군요. 현재 학교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만 있고 구체적인 말도 안 나오고 있으며 선생님들께서는 교육개혁 신경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편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민주화의 열기가 곳곳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 볼 때 학교는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질서를 강고하게 갖추고 있었다. 하이텔 토론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우리들은 20세기에 살고 있고 이젠 21세기라는 또 다른 세계로 달려나갈 것입니다...그런데 우리들의 학교라는 곳은 아직도 19세기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 시대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학생을 이끌고 또 학생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민주화 흐름과 달리 학교의 반민주적 질서가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발시킨 요인이 되었던 셈이다.

또한 ‘민주화’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또 금방이라도 사회가 민주화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인권’이나 ‘기본권’, ‘헌법’ 등의 개념이 좀 더 빈번하게 사용된 점도 최우주 씨가 헌법소원을 생각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우리들의 오아시스

하이텔 토론방은 최우주 씨 사건이 하나의 ‘반짝’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결집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회에서 발언의 통로를 갖지 못하고 있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표명할 수 있는 매체에 목말라 있었다. 당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PC통신 공간은 그런 청소년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매체인 온라인 공간에 몰려들면서 하이텔이나 나우누리 등은 사회적인 광장의 역할을 했다. 학교에서 당한 모욕적인 일, 부당한 일을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수와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며 문제의식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 등도 공유할 수 있었다. 최우주 씨가 적극적으로 헌법소원까지 생각하며 민원을 냈다는 자체도 충분히 화제가 될 만한 것이었으나, 그 행동이 다른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의지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 것은 분명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등장엔 힘입은 바가 컸다.

학생, 인권을 말하다

최우주 씨의 글은 청소년에게도 기본권, 인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헌법소원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부터 청소년, 중고등학생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 지난 3월 열린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 이제 청소년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억압에 맞서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최 씨의 글은 다시 읽어봐도 유의미한 탁월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강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은 학생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부당하게 감금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방학 동안 강제학습 때문에 교회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 최 씨는 이 글에서 헌법의 구체적 조항을 열거하며 자신의 권리를 조목조목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토론에 참여했던 김한울 씨는 “헌법소원은 단순한 해결방법이 아니라 학생도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행위였다”고 말했다. 전영민 씨 역시 “‘학생도 사람이대라는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하이텔 토론, 학생인권단체 결성으로 이어져

최우주 씨 사건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김한울 씨는 “최우주 씨가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토론방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점점 이런 학교 문제가 하루 이틀만의 문제나, 토론만 해서 뭐가 달라지냐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번에도 호지부지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몇몇이 이런 분위기에 공감했고, 토론 종료 후에 <학생인권회복회> 결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회고한다. 하이텔 토론방에서 「학생인권회복회....모집 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던 전영민 씨는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모일 수 있고, 뭔가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는 힘이 됐다”고 말한다. 이처럼 최우주 씨 사건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고, 직접적으로는 <학생인권회복회>(이후 학생복지회로 바뀜)를 탄생시키는 결실을 맺게 된다.

중고등학생 운동, 인권운동으로 부활하다

청소년인권운동사의 측면에서 최우주 씨 사건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의 참교육 운동과 함께 떠오르다 쇠퇴해가던 중고등학생 운동을 ‘인권’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일으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최우주 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계기로 하이텔과 나우누리 등에 <학생복지회>가 생겨나면서 인권의 측면에서 청소년문제·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성장해갔다. “학생인권”이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 널리 퍼져나간 것 또한 학생복지회 결성 이후부터였다. 이후의 문제제기나 운동에서 학생 인권이 전면에서 나서게 된 이유도 최우주 씨의 헌법소원 시도가 끼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의 청소년운동은 비록 인권이슈를 다루고 있기는 했지만, 인권 개념을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우주 씨 사건 이후 인권개념을 중심에 둔 새로운 의미의 ‘청소년 인권운동’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다.

최우주,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인권오름 제 2호, 2006. 05. 03.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최우주

김영삼 대통령 이하 교육부 장관, 강원도 교육감, 춘천시 교육장, 강원도 지사, 춘천시장님께.

저는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우주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소하려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이 그 절차를 거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될 게 뻔하니까 포기하라고 하셨지만 저의 요구가 너무 작고 상식적인 것이라 웃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헌법의 고귀한 정신을 준엄하게 지키는 헌법 재판소에 학교장의 지나친, 전횡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은 학생들의 기본권의 억압을 원상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우주입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헌법 재판소의 명석한 판결로만 구제될 수 있는 비관적인 상황 바로 그것입니다.

즉 국가 공권력의 하부 단위를 이루는 고등학교의 운영 주체인 교장,교감 선생님이 학교 교육을 목표 달성만을 강요하는 입시 지상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또한 인간인 학생들의 존엄성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기본권 침해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0 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9 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34 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일원인 저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5개월간의 고등학교 생활은 제가 죄수들처럼, 개 돼지처럼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규제되는 생활로 점철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의지가 묵살되었던 것은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신청서를 제출하면서였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규수업 외의 시간은 제 의지대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약속을 하고 불참을 하려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신청서는 단지 형식적인 - 교육부 감사 같은 것이 있을 때, 교장 교감선생님의 면책을 위한 보호막 같은 -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위압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일이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보충수업 받기 싫은 사람은 자퇴서를 쓰고 충고를 떠나라.” 고 하셨습니다.

선배님들도 보충수업에 불참하면 학생과에 끌려가 신청서에 찬성 표시를 하든지, 자퇴서를 쓰든지 양자택일을 할 때까지 매를 맞을 거라며 살고 싶으면 눈 딱 감고 찬성에 표시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저는 그 날 밤 잠도 못 이루며 고민하다 처참한 심정으로 비굴하게 현실에 굴복하여 보충수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괴로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5남매를 키우시는 부모님에게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를 달라고 얘기할 때, 부모님의 어려움 때문에 속으로 울었습니다. 아니 부모님을 설득하여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차마 말할 수 없어 울었습니다. 괴로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충수업 과목마다 참고서와 문제집을 구입하라고 하고 구입 여부를 보충수업 시간마다 확인을 하고 교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에게 보충수업을 위한 참고서와 문제집 살 돈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충수업에 참여하게 된 저의 나날들은 너무나 처참해 동물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기도 전에 집을 나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면 바로 침대에 쓰러져야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잠이 부족하여 붕 뜬 듯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렸을 적 5년 동안 태권도장을 다니고 지금은 키가 174cm인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건강한 편인데도 하루 종일 해를 못 보고 지내기 때문에 체육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면 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 땅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5개월을 보낸 저의 몸무게는 입학 당시 63kg에서 현재 58kg으로 부쩍 줄었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키에 맞지 않는 책걸상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서 침대에 누우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오른쪽 무릎은 다리를 펴고 접을 때마다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런 제가 선배님들께 이품을 호소하면 선배님들은 “너 같은 애 많이 봤다. 빨리 병원에 가 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두 세 시간씩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곤 하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할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그런 행복은 없어졌습니다. 일요일을 빼곤 컴퓨터를 쳐본 기억이 거의 없고 그 일요일마저도 피곤해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가끔씩 서점에 가서 컴퓨터 잡지에서 그간 엄청나게 변화한 컴퓨터 산업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하며 그런 저의 무식함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제 12 조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저는 중학교 사회시간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부당하게 감금되지 않는 다고 배웠는데 지금의 상황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상황도 그러한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다음은 춘천고등학교의 시간표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정규수업이 2시 50분에 끝나므로 그 후의 시간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하여 출고에 다니는 저를

시 간	월요일~금요일	시 간	토 요 일
08:00 - 08:50	정규수업 1교시	08:00 - 08:30	아침자습
09:00 - 09:50	정규수업 2교시	08:30 - 09:20	정규수업 1교시
10:00 - 10:50	정규수업 3교시	09:30 - 10:20	정규수업 2교시
11:00 - 11:50	중 식 시 간	10:30 - 11:20	정규수업 3교시
12:00 - 12:50	정규수업 4교시	11:30 - 12:20	정규수업 4교시
13:00 - 13:50	정규수업 5교시	12:20 - 13:00	중 식 시 간
14:00 - 14:50	정규수업 6교시	13:00 - 13:50	특 활 시 간
14:50 - 15:20	청 소 시 간		
보충수업 1 교시	15:10 - 16:00		
보충수업 2 교시	16:10 - 17:00		
보충수업 3 교시	17:10 - 18:00		
석식 시간	18:00 - 18:50		
보충수업 4교시	18:50 - 19:40		
보충수업 5교시	19:50 - 20:40		
아간자율학습 1교시	20:50 - 21:40		
아간자율학습 2교시	21:50 - 22:40		

포함한 모든 학생은 밤 10시 40분까지 학교의 딱딱한 책걸상에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여름방학 동안에도 모든 학생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해왔으며, 올해도 당연히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땐 한숨만 나왔습니다. 찌는 더위에 한증막 같은 곳에 48명이 여름을 나아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막막합니다.

제 20 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여름방학 동안 모든 학생들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참가해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여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름방학 중에 교회에서 하는 2박 3일의 하계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을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3학년들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물론이고 일요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보지 못합니다. 선배님들은 일요일 아침 딱 두 시간만 학교를 나와 교회에서 예배를 보게 해달라고 선생님께 사정을 하였지만 선생님께서는 학교의 방침이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선배님은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갔다오라고 학교에서 허락하더라도 교회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잠이나 자겠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예배 보는 것도 귀찮다고 합니다.

저는 적극적인 행복 추구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창의적이고 탐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조건이 구비된 학교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내내 사용하지 못한다는 과학 실습실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학 실습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한다는 영어 듣기 실습을 앞으로도 계속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해도 좋습니다. 학교에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차별해도 좋습니다. 겨울에 스팀 시설이 없어도 좋습니다. 학생의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바꿔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단지 상식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합리적인 학교 운영이 더 이상 학교 운영권자의 자의적이고 전제적인 독단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방과 후의 시간을, 방학 동안의 시간을 당연히 학생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교육자치법에서 보장하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운영은 상식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믿음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주기를 희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하 교육부 장관, 강원도 교육감, 춘천시 교육장, 강원도 지사, 춘천시장님.

춘천시에 있는 춘천여자고등학교는 새로 취임하신 이덕호 교장선생님께서 이전까지의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오후 6시에 하교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시간은 자율적으로 남고 싶은 학생만 남아서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보충수업도 완전히 없앤

다고 합니다. 봉의고등학교는 토요일 하루를 특별활동 시간으로 하여 학생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춘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의 학생들이 모인 춘천고등학교 학생만이 보충수업을 하루에 5시간씩, 밤 11시까지 자율학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지난 5월 31일에 있었던 교육 대개혁의 청사진대로 춘고가 변화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의 바람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방과 후의 시간을, 방학 동안의 시간을 당연히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②] 〈자료〉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 명동성당 농성 선언문(1987)」, 인권오름 제 6호, 2006. 05. 31.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②]

〈자료〉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 명동성당 농성 선언문(1987)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

선 언 문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추구할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은 독재의 교육탄압과 왜곡된 역사의식 속에 길들여 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역사를 역행하지 않으려는 젊은이의 혈기와 용기와 다짐은 오천년 유구한 역사가 근화발아래 짓밟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의지의 실현을 이루고자, 이에 우리 고교생들은 민주.민족.평화.자유를 열망하는 대다수의 불이익을 감당해온 국민과 애국.민주 학우 앞에 군정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실천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아닌 근본적 개혁과 혁명이 필요합니다.

집권층의 도구로 휘둘러진 반공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며 진정한 교육의 민주화를 이룰 것을 또한 선언합니다. 이것은 보다 창조적.개척적인 정신과 행동으로 조국의 앞날을 밝혀갈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그렇기에 필히 쟁취해야 함 또한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분단 43년의 조국을 영원한 분단으로 고착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획책하는 집권층과 그들과 동조해온 미제와 그 아래 모든 동조세력들을 그들의 죄과대로 응징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단조국 43년 12월 19일 오늘을 기점으로 자발적이고도 지극히 민주적인 애국 고교생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과 4.19혁명의 주체가 또한 불꽃이 우리 고등학생이었음을 극명하며 민족의 염원인 민주화의 횃불이 또다시 꺼지려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굽히지 않는 투쟁의 맥을 이어나갈 것을 군부와 그의 하수인들에게 고하며 온 국민과 민주학우 앞에 알리는 바입니다.

학우여!

비민주적 교육제도 속에서 상실된 우리의 시간과 의지와 소망을 회복하고 진정한 주체로서의 입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코 죽으면 살리니 학우여. 끓는 가슴으로 일어나 이땅에 한줌 민주의 씨앗을 뿌리고 감시다. 쓰러지지 않을 민주의 횃불을 환히 밝히고 감시다.

학우여, 죽으면 살리라!

노태우를 당선시킨 기성세대 각성하라!!!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주교육 쟁취하자!!!

백만학도 단결했다 군부독재 각오하라!!!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

선 언 문

권리를 향구하고, 생명을 추구할 내선선국의 아들. 앞장선 독재적 교육당국과 비국권 지지파의 총애 감내하지도 않습니다. 태도를 지양하고 민족의 역사를 역행하지 않도록 하는 젊은이의 열기와 용기와 희생은 고된년 후구반 역사가 근화방식에 일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지극적은 희생의 실천을 이루고자. 이날 우리 교육자들은 학우, 선군, 학생 을 결집하는 태도수회 용이자를 일일해소 군부독 선군 거군 일어 구정세 당정공여 조국와 민중 지원합니다

우리의 본심은 우리에의 일필의 향상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근본적, 계급과 혁명이 필요함이다.

결핵중의 요구로, 회복위한 반공 지지공로자를 거부하여, 진정한 교육의 민주화를, 이를 강요 또한 선언함이다. 이것은 보다 광범위, 체계적인 장면에 향인으로 조국에 일난을, 정의란 우리에의 공 필요하게, 고당기에, 불의, 불의와함 할 또한, 우리의 지심하게, 역운입니다.

경년 43년의 조우로, 일필한, 본지로, 고학에의, 부당한, 적당은, 양지, 획득적인, 집단중, 과, 그들의, 동조하온, 비제자, 그, 아라, 또는, 불조세비들을, 고한의, 파기대로, 증명하여, 하는, 것은, 우리, 조우가, 알고, 있는, 상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으로, 43년, 12월, 19일, 호, 향을, 지향으로, 지향하여, 고도, 지향의, 민주적인, 세력, 교육당의, 주장을, 전개하는, 결심입니다.

2-1공공과, 광우학생공공의, 4-19혁명이, 주제의, 조지, 공공이, 우리, 교육당국에, 있음을, 각, 명하여, 민족의, 영원한, 민주화, 불망이, 보내신, 커지려는, 아라, 우리는, 다아, 본연, 공적지, 할, 는, 주제의, 계을, 서서나온, 조우, 공우와, 그의, 배후안들에게, 고하여, 온, 국민에, 민주화, 주, 있어, 달리는, 커입니다.

학우여!

비민주적 교육제도 속에서 상실된 우리의 시간과 의지와 소망을 회복하고 진정한 주체로서의 입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코 죽으면 살리니 학우여. 끓는 가슴으로 일어나 이땅에 한줌 민주의 씨앗을 뿌리고 감시다. 쓰러지지 않을 민주의 횃불을 환히 밝히고 감시다.

학우여, 죽으면 살리라!

노태우를 당선시킨 기성세대 각성하라!!!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주교육 쟁취하자!!!
백만학도 단결했다 군부독재 각오하라!!!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
민주학생동맹추진위원회

전누리,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②」 민주화의 불꽃, 학교를 삼키다 - 87년 민주항쟁과 고등학생 운동, 청소년인권운동의 뿌리, 인권오름 제 6호, 2006. 05. 31.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②]

민주화의 불꽃, 학교를 삼키다

87년 민주항쟁과 고등학생운동, 청소년인권운동의 뿌리

전누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의 맹이는 87년을 정점으로 떠오른 민주항쟁의 불꽃과 이른바 ‘참교육 1세대’들의 참교육 운동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인 주>

1987년 12월, 150여명의 고등학생이 명동성당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들은 “노태우를 당선시킨 기성세대 각성하라!”,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주교육 쟁취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19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때는 비야흐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군부독재 정권과 한 몸통이나 다름없었던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 (12월 16일)된 직후. 당시 농성에 참여했던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서고련) 학생들은 13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인 만큼, 비록 민정당이 승리했다라도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87년 민주항쟁의 상징이었던 명동성당으로 찾아들었다.

민주화 세력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일어설 것이라는 이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5박 6일간의 투쟁은 쓸쓸히 막을 내렸고 농성 참가자들은 제각각 흩어졌다. 그러나 이 농성은 80년대 중반부터 전사회적으로 확산됐던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매우 주요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87년 폭발적으로 뿔어져 나왔던 민주화의 불꽃이 미완의 불꽃으로 사그라질 위기에 처했을 무렵, 기성세대의 각성을 촉구했던 고등학생들의 외침은 그만큼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이처럼 당시 고등학생들의 운동이 좀더 조직화된 방식으로 학교의 변화를 넘어 정치의 중심으로까지 파고들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민주화라는 대격변이 열어젖힌 ‘인식과 실천의 해방구’가 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정권 하에서 강요됐던 억압적 입시체제 아래서 바로 옆 친구들과의 치열한 경쟁만을 강요했던 학교에 대한 저항의지는 그렇게 민주화의 열기와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학내 민주화와 인간다움을 찾아

80년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삼청교육대 설치 등 이른바 ‘사회정화’ 조치를 통해 정권의 기반을 다진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압은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7.30 교육개혁조치’ 이후로 강화된 입시경쟁, 학도호국단을 통한 군대식 통제도 고등학생들의 열망과 외침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8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학내 민주화와 인간다움, 비리 척결에 대한 열망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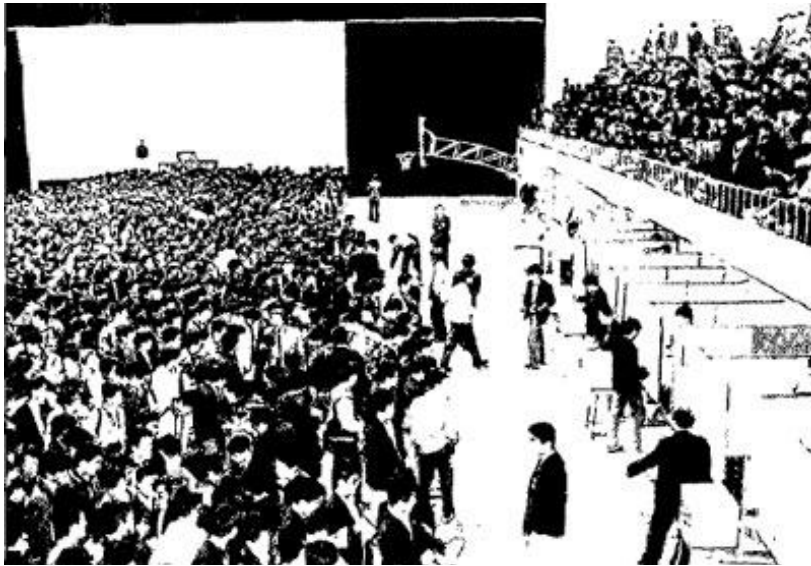
▲ 청구상업학교 교사, 학생들이 서울시교위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중등 우리교육 90년 11월호>

85년 3월 의정부시 복지중고에서는 잡부금 징수 금지, 학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수업거부와 인근 야산에서의 농성이 시작됐고, 같은 해 목포여상에서는 여고생들이 학교측의 교사 탄압에 항거해 수업 거부, 등교 거부, 시험거부 등으로 맞섰다. 85년 ‘민중교육지’에 대한 정권의 대대적 탄압 이후 오히려 견줄 수 없는 불길로 타오른 교육민주화 운동은 고등학생운동의 성장에도 불을 댕겼다. 이듬해인 86년 5월에는 원주고를 시작으로 원주시 몇 개 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을 거부하고 학생들이 집단 귀가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고, 7월 서울의 중대부고에서는 2학년 학생 5백여 명이 두발자유화, 자율학습 폐지, 강제 보충수업 금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운동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비록 이들의 투쟁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했지만, 엄혹한 군사정권 하에서도 민주화와 인간다움에 대한 열망은 그렇게 전국 곳곳에서 학교의 빙벽을 허물어뜨

리기 시작했다.

반장에서 대통령까지 직선제로

87년에 접어들면서부터 학생들의 요구는 점차 학도호국단의 자리를 대신한 학생회의 직선제 쟁취 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다. 학생 자신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공감대를 넓혀나갔고, 대통령 직선제 쟁취의 경험은 학생회 직선제 쟁취 운동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87년 3월 진주 대아고에서, 4월에는 서초고에서 직선제 학생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6월 항쟁 이후에는 그 움직임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경기도 파주여중고, 광주 대동고, 서울 석관고, 구로고 등 전국 학교에서 폭발적인 시위가 이루어졌는데, 민주적 학생회 쟁취라는 요구를 좀더 분명히 내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일이 넘게 장기적인 투쟁을 벌였던 파주여중고, 2천여명이 수업거부에 들어간 이래 명동 가두 시위와 시교위 농성 등으로 확대됐던 정화여상 등의 사례는 당시 고등학생 운동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좋은 보기이다.



▲ 사진 출처: 중등 우리교육 90년 11월호

학생회 직선제 요구는 고등학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88년 서울 석관중학교에서는 ‘민주 돌곶이회’라는 소모임이 결성되어 간선제 학생회장 당선을 한동안 저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또 교외에서 진행된 4.19 기념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모임을 이끌었던 권혜진 씨(88년 당시 중3)에 따르면 처음에 8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2학기에 들어서면서 60명으로까지 확대됐다고 한다. 혜진 씨는 “87년 6월 항쟁에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자는 사회적 외침이 중학생이었던 당시에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시기였다.”라고 회상한다. 그는 “옆 학교인 석관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직선제운동을 했기 때문에 ‘종이비행기 날리기’, ‘아침이슬 부르기’ 같은 시위도 볼 수 있었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고, 후배들도 만나 직선제하자고 설득하고 다녔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직선제 투쟁은 개별 학교와 직선제 요구를 넘어 지역에서의 보충 학습 철폐 투쟁(보철투)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전두환 정권의 과도한 입시 경쟁은 학생들을 자살행진으로 몰아넣었다. 학생들은 친구의 죽음을 그저 바라만 볼 수 없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88년 7월 17일 홍익대학교 강당에서 1000명이 참석하여 ‘자살학우 추모제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추모제와 연극 등 5시간을 진행하고 대회 마지막에 결의문을 채택하여 ‘내신성적 불신경쟁 없애기는 나의 친구’, ‘살인교육 쫓아내고 민주교육 이룩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광주의 경우, 88년 8월 이미 직선제 학생회가 쟁취된 대동고, 석산고 등에서 1000명 이상이 보충/자율학습 폐지 등의 요구를 걸고 단식투쟁을 벌이자, 일주일도 안돼 광주 지역 30개 학교로 투쟁이 파급되었다. 결국 전국 곳곳에서 해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광주 시교위에서 먼저 보충/자율 학습 폐지를 선언하게 되었다.

민주항쟁의 경험, 조직화에 불 댕겨

이러한 학내외 운동에 기반이 된 것은 각종 소모임들이었다. 87년의 사회적 격랑을 전후하여 사회모순과 교육모순을 함께 고민했던 학생들은 학교별, 지역별로 다양한 비밀 소모임을 꾸리게 된다. 용산고의 ‘용민민투’, 석관고의 ‘석민연’, 대원고의 ‘목마름’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소모임에서는 학교문제를 고민하면서 교내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는 한편,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과 학습도 이뤄졌다. 고등학생 소모임은 87년 민주항쟁의 영향을 받은 고등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고등학생운동을 고민해온 기존 활동가들의 결합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당시 KSCM(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 활동가였던 강주성 씨는 “그때는 지역별로, 학교별로 소모임이 많았다. KSCM이나 푸른나무 이야기모임 같은 공개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언더에서 소모임으로 활동하던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런 모임을 지원하는 성인활동가도 있었다”라고 말한다.

당시 개별 학교 차원을 넘어 고등학생들이 참여했던 대표적 공개단체는 홍사단과 KSCM이 있다. 홍사단 서울지부가 개최한 87년 11월 학생의 날 행사에는 1천5백여 명의 중고생이 참석하여 공식적인 대중집회의 물꼬를 텃다. 홍사단은 그 후 고등학생이카데미(고아)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했고, 특히 KSCM과 함께 4.19 기념행사나 학생의날 행사를 대규모로 열어 당시 학생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KSCM은 88년 2월 ‘자율적 학생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 공청회에만 4~5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 공개단체들은 ‘학생회비 운영’, ‘소모임 운영’에 대한 공청회를 계속 이어가면서 고등학생 운동의 의제를 던지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푸른나무 출판사에서 만든 <푸른나무> 무크지를 통해 모인 ‘푸른나무 이야기모임’도 있다. <푸른나무>는 당시 진보적 교사와 학생들에게 알려진 청소년 잡지로 학생회 직선제와 자율적 학생회 운영에 대한 토론,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읽자는 주장 등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공개단체 활동은 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푸른나무 이야기 모임과 KSCM을 지도했던 강주성 씨는 87년을 기준으로 전후 고등학생 운동의 차이를 ‘대중성’에서 찾는다. 주성 씨는 “고등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도 학생회 직선제 구호나 공개활동에 대해 ‘정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중운동이 되려면 대중들의 요구와 정서에 맞게 내용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당시 고등학생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된 학생회 직선제 운동은 대중성에 기초한 활동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등학교에서 흥사단 활동을 한 권혜진 씨는 ‘조직화’에서 특징을 찾았다. “87년 이전은 자발적 운동의 태동기라고 생각된다. 그러던 것이 87년 6월 이후 조직적 흐름을 가지게 됐다.” 87년 이전의 고등학생운동이 산발적이고 고립적으로 이뤄졌다면, 87년 이후의 도드라진 점은 바로 대중성에 바탕을 둔 조직화가 이루어진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인권운동의 맹아이자 뿌리

당시 고등학생 운동은 민주화의 열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갈 때 고등학생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독재정부에 대한 저항을 이어나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모순으로 얼룩진 사회에 파열음을 내며 조금씩 열려지고 있던 변혁의 공간에서 고등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운동 의제도 찾아나갔다. 민주화와 자신들의 삶 사이에 가교를 놓으면서 독자적인 운동의 세력화를 꿈꿨던 것. ‘학생자치권 보장’, ‘두발자유화’, ‘보충.자율학습 철폐’ 등의 구호는 학교의 민주화, 학생 삶의 민주화를 요구했던 것이었다. 당시 터져 나온 구호들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생 청소년 인권운동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서, 당시 고등학생운동이 지금의 청소년인권운동의 맹아이자 뿌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급작스런 성장만큼 한계도 존재했다. 개별 학교를 잇는 조직적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상대적으로 운동의 경험이 적은 고등학생들에게도 너무 많은 짐을 지우면서 부담을 주었던 점도 힘겨움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용산고에서 ‘용민민투’ 활동을 한 서준섭 씨는 고등학생 시절을 회상하면서 현재 인권운동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한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고등학생 운동이 제 삶의 뿌리예요. 정신적으로 성장했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린 나이에 사회랑 부딪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겪었고 지금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지금 와서 약간 회한 같은 게 있나... 그 나이에 움직이고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하려면 강해야죠. 무척 강해야지 그것이 바탕이 되어 인생에 밑거름이 되고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농성 시작일에 대한 기억의 흔재

* 신문 등 공식 기록상으로 농성 시작일이 19일로 되어 있지만, 농성 참가자의 증언 중에는 16일 대통령 선거 당일부터 명동성당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광고협/부고협,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학생탄압에 맞선 고등학생 단식농성 성명서(1989)」, 인권오름 제 10호, 2006. 06. 27.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학생탄압에 맞선 고등학생 단식농성 성명서(1989)

광고협/부고협

구속학우 석방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 나라, 이 땅의 4천만 민주 시민과 참교육을 갈망하는 3백만 고등학생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인적인 입시교육과 비인간적인 기계화 교육으로 인하여 한 해 평균 100여명의 학우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무 희망도 꿈도 없는 좁은 교실에서 우리들은 오직 대학이라는 허울 좋은 굴레에 들어가기 위해 젊은 날 있어야 할 많은 것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체 입시생 중 겨우 2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모순된 사회가 원하는 오직 하나의 일념인 대학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 학우들은 제도교육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자랑스런 선생님들은 죽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만들어 잘못된 현교육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와 발 맞춰 학생들도 스스로 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이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일었습니다.

그러나 문교부와 폭력경찰은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에 구속.징계로 맞서 한 번도 학생과 대화나 협의를 하지 않고 탄압 일변도로 나갔습니다. 벌써 전국적으로 5명이나 되는 우리들의 친구가 구속당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또 징계가 행해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 부산 두 지역 고등학생협의회 의장들은 더 이상 문교부와 폭력경찰의 탄압을 묵과할 수 없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참교육 실현과 올바른 학생자치 활동 성립을 위한 우리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요구가 달성 될 때까지 단식투쟁한다.

우리는 학생자치 활동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학우들을 구속한 어떠한 세력과도 타협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에 동참하는 많은 학생들을 아끼며 그들과 그들이 바라는 참교육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굳게 다짐한다.

진정한 조국통일과 민주화를 바라는 4천만 애국시민과 우리의 교실에 희망찬 꿈들이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3백만 고교생 여러분!

저희들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많은 성원과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열린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참교육 실천 투쟁 원년 11월 22일

작은 가슴 큰 사랑의 광주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받는 주체의 뜨거운 함성 부산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서울사대부중 여학생,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자살한 여중생이 시_편지 형태로 남긴 유서(1986)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인권오름 제 10호, 2006. 06. 27.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자살한 여중생이 시_편지 형태로 남긴 유서(1986)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서울사대부중 여학생

- H에게

난 1등 같은 것은 싫은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은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지.

난 인간인데.
난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헤어짐에 울 수도 있는 사람인데.
어떤 땐 나보고 혼자 다니라고까지 하면서
두들겨 맞았다.

나에게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고 하는 분.
항상 나에게 친구와 사귀지 말라고
슬픈 말만 하시는 분.

그 분이 날 15년 동안 키워준 사랑스런 엄마.

너무나 모순이다, 모순.
세상은 경쟁! 경쟁! 공부! 공부!
아니 대학! 대학!
순수한 공부를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멋들어진 사각모를 위해,
잘나지도 않은 졸업장이라는 쪽지 하나 타서
고개 들고 다니려고 하는 공부.

천만 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게 해놓고는 하는 짓이라고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그저 종이에다 글 하나 써서,
'모박사'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나라, 사회를 위해 눈곱만치도 힘써 주지도 않으면서
외국에서 하리는 대로 따라 하는 따위.

공부만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
공부만 한다고 잘난 것도 아니잖아?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이 사회에 봉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그것이 보람있고 행복한 거잖아.

꼭 돈 벌고 명예가 많은 것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
나만 그렇게 살면 뭐해?
나만 편안하면 뭐해?

매일 경쟁! 공부! 밖에 모르는 엄마.
그 밑에서 썩어들어가는 내 심정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난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돌멩이처럼 감정이 없는 물건도 아니다.
밟히다, 밟히다 내 소중한 내 삶의

인생관이나 가치관까지 뺏혀버릴 땐,
난 그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떴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아, 차라리 미워지면 좋으련만,
난 악의 구렁텅이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엄마를 구해야만 한다.
내 동생들도 방황에서 꺼내줘야 한다.
난 그것을 해야만 해. 그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난 그 성적순이라는 올라미에 들어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삶에 경멸을 느낀다.

"전교 ○등, 반에서 ○등,
넌 떨어지면 안 된다.
선생님들이 널 본다.
수업시간에 넌 항상 가만히 있어야 한다.
넌 공부 잘하는 학생이니까 장난도 치지 마라.
다음번에 ○등 해라.
왜 떨어졌어?
친구 사귀지 마.
공부해!
엄마 소원성취 좀 해 줘.
전교 1등 좀 해라.
서울대학교 들어간 딸 좀 가져보자.
그렇게 한가하게 음악 들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공부해"

매일 엄마가 하시는 말씀들.
자기가 뭔데 내 친구 편지를 자기가 읽는 거야.
그리고 왜 찢는 거야.
난 사람도 아닌가?

내 친구들은 뭐, 다 못난 거야?
그리고 왜 약한 사람을 괴롭혀?
돈! 돈! 그게 뭐야.
그게 뭔데 왜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는 거야.

난 눈이 오면 한껏 나가 놀고 싶고,
난 딱딱한 공해보다는 자연이 좋아.
산이 좋고, 바다가 좋고.....
하긴 지금 눈이 와도 못 나가는 걸.
동생들도 그러하고.....
너무 자꾸 한탄만 했지, 그치?

졸업하면 나는 아예 그 먼 고등학교에 가서는
집에 갇혀서 죽도록 공부만 해야 될 것이다(으, 끔찍하다).
난 나의 죽음이 결코 남에게
슬픔만 주리라고는 생각지 않아.
그것만 주는 헛된 것이라면,
난 가지 않을 거야.

비록 겉으로는 슬픔을 줄지는 몰라도,
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자신을 가지고
그것을 신에게 기도한다.

- 1986년 1월 15일 새벽에

유윤종,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 들불처럼 번진 청소년들의 참교육 운동」, 인권오름 제 10호, 2006. 06. 27.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들불처럼 번진 청소년들의 참교육 운동

유윤종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꺼지지 않은 불씨

1987년 6월 항쟁의 불꽃은 한 번 타오르고 끝날 것이 아니었다. ‘고등학생운동’(*)도 그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였다. 청소년들은 1987년을 계기로 더욱 본격적인 자주적 학생회 운동, 교육 정상화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고운의 불길은 거기에서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학생회 직선제 운동을 비롯한 1987년 직후의 운동은, 오히려 1989년부터 시작된 ‘참교육 운동’의 예고편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1980년대 학생들의 생활은 너무나 비참했다. 전두환 정권은 본고사 폐지와 내신성적 반영, 대학입학인원 확대, 전일수업제 대학 운영, 과외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내신성적 반영은 고등학생들을 더욱 성적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만들었다. 과외금지 이후 과외가 음성화되자 정부는 학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은 강제적인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그 당시의 인사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실업계 고등학생들도 전두환 정권의 정책에 따라 뒷전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입시경쟁 강화와 학교에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일상의 반복, 억압적인 학교 상황, 열악한 교육 등이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은, 1980년대의 자살학생 수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년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명수	115	74	113	117	100	126

*자살학생통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학생사업국, 『자살학생과 청소년문제』, 1992.

자살한 청소년들의 유서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자살했던 학생들이 남긴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써있었다. “친구들은 감정도 없는 사람 같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전혀 개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어른들이 밉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저희는 쓸모없는 2차 방정식 값을 구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합니까?” 특히 1986년 서울사대부속여중 3학년 학생이 남긴 유서에 쓰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구절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켜 같은 제목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견딜 수 없는 현실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까지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다.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참교육”을 내세우며 창립식을 가졌다. “참교육”은 일그러진 교육 현실에 대한 저항의 기치였다. 전교조 창립 초기부터 활동했던 교사 김윤희 씨는 당시 참교육 운동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애들을 독재체제에 적합한 인물로, 말단 병사나 노예처럼 압박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안티감(참교육 운동은) 굉장히 강했다. ...학교는 애들 성장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군대교육이나 일부 교장의 사리사욕이나 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깐. 그런 것들이 아팠다. 완전 비교육자들이었고 비교육적인 분위기였다. 이진 교육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억압적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에 전교조의 “참교육” 구호는 괴로운 학교생활을 경험하고 있던 청소년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1989년에 고등학생이었던 구정인 씨(미림여고 소모임 활동)는 “입시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3일에 한 번씩 죽는 상황에서 교사들도 전교조를 통해 참교육이라는 구호를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이 아니라 살리는 교육... 교사들의 양심선언이었다. 단순히 노조운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살리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콩나물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콩나물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구호가 너무나 호소력 있게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회상했다.

그렇기에 1989년에 시작된 ‘참교육 운동’은 교사만의, 전교조만의 운동이 아니었다. 참교육 운동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전교조였고 그것을 주도한 것도 전교조였지만, 참교육 운동의 주체는 비인간적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모든 교육주체들이었다. 전교조의 생각과 학생들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방향과 대의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청소년들은 참교육 운동을 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스스로 참교육 운동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다.

“선생님을 지키자!”에 담긴 뜻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대대적 탄압에 나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에 대한 해임, 파면, 면직과 함께 사법처리를 강행했으며 그 결과 1989년 9월까지 1700명이 넘는 교사가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여 전교조 교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차에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던 ‘좋은 선생님들’에게 핍박이 가해지자 인간적인 분노까지 더해져 학생들의 운동은 대중적으로 번져갔다. 운동 속에서 학생들이 내걸었던 “선생님을 지키자!”라는 구호는 그런 분노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전교조 교사를 지지하고 지킨다는 것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참교육의 가치에 대한 동의였고, 강제적 보충수업, 자율학습, 입시경쟁 등으로 얼룩진 교육에 대한 반대였다.

학생들의 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리본달기, ‘밤샘공부’(하교 거부), 수업시간에 전체 학생이 뒤로 돌아앉기에서부터 점거농성, 단식농성, 시위, 심지어 투신까지... 학생들은 개별 학교 단위에서 전교조 교사들을 지키고 참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저항에 발 벗고 나섰다. 광주 광덕고와 문성고 학생 3천여 명은 이사장실 점거 농성으로, 광주 동아여중고생 4천여 명과 송원학원의 중고생 8천여 명은 운동장 농성으로 징계위원회를 무산시켰다. 서울 구로고등학교의 류호철 씨 등 2명은 “직위해제 철회” “참교육 실현”을 요구하



▲ 판화가 김준권의 1990년도 작품 "애들아! 애들아!"

는 시위 도중 3층에서 투신하여 참교육에 대한 절절한 열망을 보여줬다. 인천 세일고의 경우, 해직된 선생님 수업에 대리강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수업을 거부한 채 한 달 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전교조 학생사업부에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1989년 한 해 동안 전교조를 지지하며 투쟁에 나선 전국 학생들의 수가 250여 개 학교, 47만 명을 넘어섰다.

단위 학교를 넘어선 싸움

싸움은 개별 학교 단위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았다. 6월 17일 연세대학교 광장에서 열린 ‘참민주교육을 위한 고등학생결의대회’를 비롯하여, ‘광주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광고협), ‘부산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부고협), ‘마산·창원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마창고협), 그리고 ‘나주지역고등학생연합’, ‘목포지역고등학생연합’ 등의 결성은 학교를 넘어서 지역별로 이루어진 고등학생들의 연대를 보여준다.

특히 광고협은 최초로 결성된 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로서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광고협은 20여개 학교에서 중고생 2만여 명이 참여한 연합집회를 조직하고, 같은 날 5천여 명이 참가한 전남대 시위 등을 실행했다. 이후에도 광고협은 광주 시내 전학교 학생들의 통일된 행동으로 해직교사들의 출근 투쟁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다. 자주적 학생회 투쟁의 결실로 생긴 학생회연합회가 발전하여 이루어진 부고협도 탄압



을 뚫고 부산대에서 발대식을 치르고 전교조를 지지하는 투쟁에 나섰다. 마창고협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의 연합체들도 정부와 학교의 탄압 속에 힘겹게 참교육 운동을 해나갔다.

정부와 학교의 탄압으로 많은 학생들이 징계를 당함에 따라 광고협 이형준, 부고협 의장 황순주(둘은 11월 22일 시작), 남서울상고 학생회장 김설준(11월23일 동참), 마창고협 부의장 전경국(11월26일 동참) 등 4명의 학생들은 평민당 중앙당사에서 구속학생 석방과 학생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벌여 각 지역 고향들의 연대를 실천했다. 학생들은 4인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동조 행동에 나섰다. 광고협 집행부 26명이 전남대에서 4일간 동조단식을 했고, 전남대 5.18 광장에서 6백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지집회를 가졌다. 부고협 70여 명은 부산대에서 이틀간 단식농성을 벌였고, 서울 평민당사를 격려 방문한 학생 2백여 명도 규탄집회를 가졌다. 전교조도 호응하여 단식투쟁 지지와 전교조 탄압 분쇄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고등학생 대표자 4인은 12월 2일 ‘학생탄압 분쇄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결의대회’를 가진 후 단식 농성을 풀었다.



이후 학생들은 학교나 정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목숨을 버리기도 했다. 1991년 전남 보성고의 김철수 씨는 노태우 퇴진과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분신했다. 이런 식으로 김철수 씨를 비롯하여 심광보 씨(1990년 분신), 김수경 씨(1990년 투신) 등이 전교조와 학생들에게 가해진 탄압에 죽음으로 항거했다. 교사 김유희 씨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당시 투쟁에서 목숨을 던진 학생들”이라며, 학생들이 죽은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분노가 들끓었다고 회상했다.

독자적인 길을 닦은 청소년들

이처럼 참교육 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교조 교사들의 양심적인 외침과 요구가 청소년들의 요구와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다. 비인간적 교육 속에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릴 수 없었던 청소년들은 그런 현실을 바꾸고자 끊임없이 싸워왔으며, 그 싸움은 전교조 창립이라는 계기로 더욱 촉발되었다. 전교조

교사와 학생들의 유대 속에 운동은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었고, 학생들은 전교조 교사가 우리 이야기를 대신해주고 우리 대신 희생당한다는 생각에 참교육 운동에 한층 더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 <신동아> 89년 9월호 기사. '충격보고'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한편으로 참교육 운동 때 보여준 학생들의 동원력과 조직력은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생들의 저항의 구심점은 1987년 6월 항쟁의 흐름 속에 조직되어 온 소모임, 동아리, 학생회 등이었다. 학교 안에 존재하던 동아리나 소모임 등에서 학생들은 사회비판적 의식을 키워가고 있었고, 또 그런 조직들의 자주적 학생회 투쟁으로 세워진 직선제 학생회에 적극적으로 의식 있는 학생들이 진출하면서 학생회 조직은 운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홍사단 아카데미나 KSCM(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 YMCA 등의 공개단체들도 조직적인 운동에 한몫했다.

구정인 씨는 “고1부터 탈춤반 활동을 하고 봉천놀이마당에서 청소년패였던 ‘바발패’ 패장이 되었는데, 학생의날 준비위원회 회의를 나가보니 KSCM, 홍사단, 바투 등 단체와 개별학교 소모임들이 많이 와 있었다. 이때 행사를 하고 처음 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라며 소모임들이 참교육 운동에서 한 역할을 증언했다. 구정인 씨는 미림여고에 재학 중이던 1988년 12월에 학내 소모임을 꾸리고 학생회 직선제 투쟁과 학생회 선거운동을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다가 참교육 운동이 시작되자 그 흐름을 이어갔다. “우리 학교

교사 한 명이 전교조였는데, 이분이 징계위에 회부가 된 상태였다. ...전교조가 계속 출근투쟁을 하니까 우리 소모임에서 유인물을 뿌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다. 미림여고 학생들은 이후 을지로에 있던 재단사무실 앞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저지 시위를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소모임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부고협 1기 의장을 맡았고 단식투쟁을 하다 제적당했던 황순주 씨(1987~1989년 용인고 학생회 활동)는 1988년에 학내 시위를 벌여 직선제 학생회를 쟁취했다. 황순주 씨는 자율학습 반대 등을 명확하게 지시하며 용인고 최초의 직선제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이후 학생회장들의 모임을 만들어 서로 고민을 공유하였다. 그러다가 전교조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1989년 8월 이 학생회장 모임은 부고협으로 전환된다. 이는 전교조 사수 투쟁 이전부터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주체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황순주 씨는 참교육 운동과 그 이전부터 있어온 고등학생운동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산지역 고등학생들도 이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학생을 대표하든 학생회를 대표하든 연합체 형식의 조직을 준비해서... 당시 정권에서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선전했는데, 선생님을 뺏기는 상황이었고 교육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촉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문제도 같이 제기하자면서 나갔던 것이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각각 주체별로 준비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전교조 투쟁만을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었다. 교육 주체로 자주적으로 나선 것이었다. 전교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일부분이었다.”

학생들이 전교조 지지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운동을 펼치려 했음은 여러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광고협은 “우리는 단순히 교원노조 지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의 주체인 학생으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할 권리인 참교육과 민주교육을 목청껏 부르짖으며 학내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척결하고 학내 민주화를 쟁취하려는 발전적인 싸움으로 한 차원 높은 싸움을 온몸으로 전개해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1989년 7월 20일 발표했다. 마창고협도 같은해 9월 30일 발족선언문에서 “우리 학우들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를 입시 전쟁과 철저한 이기주의적 인간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 풍토를 개선하고 민주 시민의 예비단계로서 모든 학생회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학우들의 자율적 능력을 무시하고 단지 의무와 순종적 인간만을 요구하는 관료주의적 교육자와 재단에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라며 그 창립목적 밝히고 있다.

탄압받는 고등학생운동

참교육 운동을 거치면서 고등학생운동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이전까지 정부의 탄압은 주로 기존의 대학생운동 세력 등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참교육 운동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격렬하고 대중적인 힘을 보여주자 직접 학생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그 형태가 바뀌었다.

1989년, 문익환 목사 방북 이후 노태우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였고,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운동세력들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중고등학생들을 회유하는 한편 집중적인 탄압을 가했다.

정부는 학생회나 소모임 등에 대한 전면 압박에 들어갔다. 체벌과 징계를 통해 주동자들을 처단하는 한편 학생회의 독립적 예산권을 빼는 등 학생들이 투쟁을 통해 얻어낸 학생회의 권한을 상당부분 위축시켰다. 참교육 운동에 역량을 집중한 조직들은 그러한 탄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교사 김용희 씨는 당시 정부의 탄압을 이렇게 전했다. “애들 요구를 수용해서 변화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주동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탄압했다. 교사와 경찰은 물론 교장까지 나선 전방위 압박에다 굉장히 엄한 체벌과 징계도 있었다. 학생회도 제도적으로 축소시켰다. 그때는 학생회비를 따로 걷어서 학생 예산권이 독립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대대적으로, 그때부터 억눌린 게 지금까지도 온 것이다. 별로 회복이 안 되었다.”

청소년들의 참교육 운동이 보여준 것

정부는 참교육 운동을 탄압하면서 “전교조가 학생을 선동한다.” “전교조가 학생을 이용해 먹는다.”와 같은 비난으로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투쟁을 폄하했다. 실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거리로 나서는 것을 보수적인 성인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선전은 먹혀들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체로 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성인 집단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일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의 참교육 운동은 전교조에 완전히 종속된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전교조 사수와 학생자치권 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기도 했으며 투쟁 과정에서 자율학습 폐지 등 학생들의 요구를 관찰시키려고 하기도 했다. 비록 “참교육”에 대한 공감이 학생들의 대중적 투쟁을 끌어내긴 했지만 당시 학생들의 운동을 주도했던 청소년들은 학생들의 요구를 전교조 교사들을 통해 대변되기만을 바라진 않았던 것이다.

청소년들이 전개한 참교육 운동에 대해 구정인 씨는 “4.19, 5.18에 이어 고등학생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현실화한 것이었다. …자기 현실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90년대 중반까지도 그런 생각이 확고했다.”라고 말했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사회변혁의 주체임

을 참교육의 불꽃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고등학생운동은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변혁, 민주화의 관점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해 있었던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오성 씨(1989년~1991년 대원고에서 활동)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교육이나 학생들의 삶, 권리에 집중한 쪽과 정치적 이슈에 집중한 쪽의 내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앞서 인용된 마창고협 발족 선언문 등 당시 각종 선언문이나 성명서의 표현들도 청소년들의 권리 의식을 보여주며, KSCM이 발표한 결의문에는 “학생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 탄압이 수시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교육현실은 실로 분노할 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인권”의 언어가 조금이나마 엿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민주화’라는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의 권리 찾기가 독립적인 운동으로 나아갈 기미를 보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1980년대 고등학생운동의 흐름은 비록 대대적인 탄압과 사회운동 전반의 침체로 인해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지만, 그 당시부터 청소년들의 권리의식 성장과 청소년인권운동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 1980년대~1990년대 초반에는 “청소년운동”이란 말이 아닌 “고등학생운동”이란 표현을 주로 썼기에 그 현장성을 존중하여 이렇게 표기했다. 대학생들의 운동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중학생들도 참여하긴 했으나 다수가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에서 고등학생운동이란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학생운동”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 참교육 운동 이전의 학생들의 저항에 관해서는 이전 기사 “민주화의 불꽃, 학교를 삼키다”를 참고하기 바란다.

양돌규,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자료〉1989년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투쟁 일지」, 인권오름 제 10호, 2006. 06. 27.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1989년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투쟁 일지

양돌규 (성공회대 사회학과 대학원)

〈편집자 주〉 80년대 고등학생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양돌규 님이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추적해가는 본지의 기획에 지지의 뜻을 보내며, 1989년 한해 동안 전개됐던 중고등학생 투쟁 일지를 정리해서 보내왔다. 우리 학교는 어디 없나, 찾아보는 재미가 솔솔하다. 애써 빛은 '작품'을 선뜻 보내주신 양돌규 님께 큰 감사의 뜻을 전한다.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5월 26일	충북 제원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 강성호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철회 요구하며 운동장에서 농성
1989년 05월 27일	서울 남서울중학교	학생 2명이 담벽에 검은색, 붉은색 스프레이로 김석근 교사 석방과 교직원노조 탄압 결사 반대 내용의 낙서 작업중 경찰에 연행
1989년 0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1989년 05월 29일	광주 광덕고등학교	학생 2천여 명 김택중 교사의 석방과 직위해제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1989년 05월 29일	서울 신일고등학교	학생 1천 2백여 명 이수호 교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여 농성
1989년 05월 30일	광주 과학고등학교	학생 180여 명 장휘국 교사의 직위 해제 철회를 요구하며 교문 밖 진출
1989년 05월 30일	전남 무안고등학교	학생 400여 명 고진형 교사의 징계 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5월 31일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 1천 2백여 명 김우성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 철회 요구 농성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5월 31일	인천 명신여고	강신오 교사 등 4명에 대한 학교 측 고발에 항의하여 전교생 농성
1989년 05월 31일	전남 한재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2백여 명 교사탄압 규탄대회
1989년 06월 01일	대전 명석고등학교	학생 8백여 명 윤석원 교사 징계 철회 요구 시위, 서명, 진정서 작성
1989년 06월 01일	서울 명지고등학교	“교직원노조 결성에 관한 학우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학생회 명의로 배포
1989년 06월 01일	전남 무안고등학교	학생 4백여 명 고진형 교사 직위 해제, 수배에 항의 농성
1989년 06월 01일	전남 진남여중	학생 90여 명 박용성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와 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6월 01일	충북 제원고등학교	강호성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규탄 시위
1989년 06월 02일	대전 명석고등학교	학생 1천 7백여 명 단식, 밤샘 농성
1989년 06월 02일	서울 반포고등학교	“반포고를 사랑하는 학우가”라는 유인물 배포
1989년 06월 03일	서울 구로고등학교	학생 1천여 명 전교조 분회 지지 농성
1989년 06월 05일	전남 나주	나주지역 고등학생연합 명의의 성명서 발표
1989년 06월 05일	전남 신명여상	학생, 교사, 학부모 70여 명 서울 상경, 평민당사에서 농성
1989년 06월 05일	충남 서산시 음암중학교	이우경 교사의 탄압 저지를 위한 서명, 150명 참여.
1989년 06월 09일	강원 춘천여자고등학교	성명서 발표, 민병희 교사 징계 철회 요구 서명(216명)
1989년 06월 10일	경북 산격여중	학생 4백여 명 교사 연행에 대한 항의농성, 리본 달기
1989년 06월 10일	서울 구로고등학교	학생비상총회 개최, 양달섭 교사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결의
1989년 06월 10일	서울 신일고등학교	학생 1천 2백여 명 이수호 교사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진출 시도
1989년 06월 10일	전북지역	무주, 진안, 장수 지역 학생 5백여 명과 교사, 학부모 63명이 정은숙 교사의 직위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1989년 06월 10일	충남 천안 중앙고등학교	학생 1천 3백여 명 김지철 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 문교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제출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6월 12일	대구 대명여중	김홍섭 교사 직위해제 철회요구 농성
1989년 06월 12일	대구 동천중학교	3학년 학생들 농성
1989년 06월 12일	대구 산격여중	학생 8백여 명 교사직위 해제에 항의하여 농성
1989년 06월 12일	대구 성서중학교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전교생 시위
1989년 06월 12일	서울 구로고등학교	학생 2천여 명 농성, “직위해제 철회 및 의식화 매도 중지”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1989년 06월 12일	충남 천안 중앙고등학교	학생 1천여 명 14:00~16:00 교내 시위, 연좌 농성. 천안경찰서까지 가두행진 시도. 학생 50여 명 도서관 3층에서 무기한 밤샘공부 결의.
1989년 6월 12일~17일	경북 예천여고	1주일동안 부당징계에 항의하여 학교에서 농성. 300여 명씩 윤번제로 “선생님 보호결사대”를 조직하여 농성 전개. 수업을 계속하면서 수업 후 집단항의. 고발조치한 차영진 교장은 17일 학생들의 요구에 못 이겨 김창환 교사의 고발 철회를 서면 약속했다가 19일 지휘, 감독 소홀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당함.
1989년 06월 13일	경북 경원여고	백중환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요구 농성
1989년 06월 13일	경북 대서중학교	전교조 지지 농성
1989년 06월 13일	경북 송현여중고	분회장에 대한 징계철회요구 농성
1989년 06월 13일	경북 예천여고	철야 농성
1989년 06월 13일	대구 대명여중	김홍섭 교사 연행에 항의 시위
1989년 06월 13일	대구 산격여중	학생 8백여 명 농성
1989년 06월 13일	대구 죽전중학교	학생 1천 5백여 명 농성, 홍윤기 교사 구속에 항의하며 도학력고사 시험답안지를 똑같이 기재
1989년 06월 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이영희 교사의 연행에 항의하여 경찰과 몸싸움
1989년 06월 14일	경북 점곡중학교	2학년 2반 전원이 담임의 구속 및 직위해제에 항의, 도학력고사 시험 답안지를 동일하게 기재.
1989년 06월 14일	경북지역	상서중, 대명여중, 예천여고 등에서 농성
1989년 06월 14일	대구 산격여중	노조 교사 16명의 단식농성에 학생 2백여 명 동조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6월 14일	서울 구로고등학교	학생 2천여 명 시위, 학생회장(유호철), 총무부장(서윤석)이 건물 3층에서 투신. 휴교령에 대한 대책 집회
1989년 06월 14일	전남 나주	나주지역 고등학생연합 명의의 전교조 나주지회 결성 지지 성명
1989년 06월 15일	경북 예천여고	학생 3백여 명 4일째 철야농성
1989년 06월 15일	경북 점곡중학교	200명 점심시간에 침묵 시위.
1989년 06월 15일	대구 산격여중	김두열, 권정희 교사를 대신할 임시교사 수업거부
1989년 06월 15일	전남 담양 한재중학교	장석웅 교사 탄압에 항의하여 3학년 수업 거부
1989년 06월 16일	경남 마산 창신고등학교	경남지부 5개 학교 연합모임.(창신고에서). 창신고 학생 전교생 참석. 학생회장이 교원노조 지지 성명서 발표.
1989년 06월 16일	경북 산격여중	전교생 수업 거부, 학생 50명 실신, 혈서를 씌, 관제 학부모와 대치
1989년 06월 16일	서울 구로고등학교	교장의 사과를 문건화 요구
1989년 06월 16일	충북 제천농고	교사 직위해제에 항의, 800여 명 농성
1989년 06월 17일	경북 예천여고	4일간 철야농성, 김창환 교사 징계 철회로 교장이 약속
1989년 06월 17일	서울	10개교 학생 1백여 명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참민주교육을 위한 고등학생 결의대회”를 개최
1989년 06월 17일	전남 광주	“참교육을 갈망하는 뜻있는 학우들이”라는 유인물을 시내 18개 학교에 배포
1989년 06월 17일	전남 목포	목포지역 고등학생연합회 소속 학생들 검찰청 앞에서 시위
1989년 06월 19일	서울	“우리의 선생님은 우리가 지킨다”는 유인물이 시내 학교에 배포됨
1989년 06월 20일	서울 영등포고등학교	학생 500여 명, 김수환 교사의 직위해제에 항의하여 수업 거부
1989년 06월 20일	충북 매향중학교	9:30~12:00 전학년 운동장 집합. 3학년 피켓, 현수막 등 조직적 준비. 육성회 대표 학부모 2인 협박, 욕설.
1989년 06월 21일	경기 전곡고등학교	이종천 교사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체육관에서 250여 명이 6시간 동안 농성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6월 22일	경기 전곡고등학교	18시, 농성 주도학생 박주황이 귀가 중 집앞에서 3명의 괴한에게 몽둥이로 머리, 어깨 등 테러 당해 병원 치료.
1989년 06월 23일	경기 전곡고등학교	전학년으로 농성 확산. 수업 전면 중단. 학교 측이 비가입 교직원과 학부모 등 500여 명 동원, 농성 학생 귀가 종용.
1989년 06월 23일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란 유인물 배포
1989년 06월 23일	서울 경동고등학교	징계 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6월 23일	서울 송곡여자고등학교	전교생 리본 달고 수업. “이부영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1989년 06월 24일	서울 송곡여자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오후 6시부터 4시간 농성. 밤샘공부 결의. 교사들의 만류로 밤 10시 해산
1989년 06월 24일	전남 해룡중고등학교	전교생 1천 6백여 명 전교조 지지 궤기대회 개최
1989년 06월 26일	경기 전곡고등학교	9:00~14:00 관제데모. 주동 학생들이 교무주임과 함께 교실을 돌면서 공개 사과한 뒤 운동장에서 시위용품 불태움.
1989년 06월 26일	서울 잠실고등학교	이동진 교사 구속 반대 요구, 리본 달기, 서명운동 추진
1989년 06월 29일	문교부	문교부는 제주 단재교육원에서 전국시도교위 생활지도담당장학관회의를 열고 고교생들의 집단행동 및 의식화서클 결성 학생들을 적극 선도하고 선도가 안 되는 학생들은 제적, 무기정학 등 중징계하라고 지시. 또 검찰,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고교생들의 집단행동과 의식화서클 결성을 방지하라고 시달.
1989년 06월 29일	충남 옥천고등학교	오전 면사무소 직원, 학부모 60여 명이 관제 데모. 이에 학생 500여 명이 육성회장에게 공개사과 요구 농성. 공개사과 받음.
1989년 07월 01일	경남 거창종합고등학교	전교생 시험거부 농성, 학생회 간부 10여 명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1989년 07월 03일	경남 거창종합고등학교	학생회장 및 간부 5명 삭발, 철야농성
1989년 07월 04일	경북 상주여상	학생 1천 2백여 명 이상훈 교사 징계 철회 및 조기방학거부 시위
1989년 07월 05일	경남 통영상고	학생 1천 5백여 명 학기말 시험 거부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05일	전남 화순고등학교	대의원 총회의 결의로 전교생 리본 패용
1989년 07월 06일	경북 안동 경일고등학교	징계철회 요구 농성, 시험 거부
1989년 07월 06일	경북 안동 중앙고등학교	징계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7월 06일	대구 배영고등학교	징계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7월 07일	경북 울주 남창고등학교	학생 7백여 명 성총호 교사 석방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1989년 07월 07일	대구 경화여고	대의원 회의에서 시험 연기 결의, 전교생 복도에서 농성
1989년 07월 07일	대구 덕원고등학교	5일간 단식 농성
1989년 07월 07일	대구 배영고등학교	농성
1989년 07월 07일	전남 목포 영흥고등학교	학생 1천 5백여 명 시험거부, 목포터미널 침묵 시위
1989년 07월 07일	전남 문덕중학교	전교조 탄압중지 요구 농성,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요구
1989년 07월 07일	전남 순천 효성고등학교	전교생 2천여 명 현수막 게시 후 농성("우리는 참 스승을 사랑한다.", "스승을 절대 내줄 수 없다.")
1989년 07월 08일	경북 상주여상	전교생 1천여 명 이상흥 교사 징계방침 철회 요구 시위
1989년 07월 08일	서울 당산중학교	리본 패용
1989년 07월 08일	전남 화순고등학교	이용수 교사 징계 반대하는 밤샘공부
1989년 07월 10일	경북 동국고등학교	전교생 1천 5백여 명, 징계 철회 요구 시위
1989년 07월 10일	광주 강진고등학교	학생 8백여 명 농성
1989년 07월 10일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리본 패용("우리 사랑으로, 우리 선생님을")
1989년 07월 10일	광주 대동고등학교	구속된 조영윤 교사를 면회하기 위해 3학년 2반 학생 43명이 전세버스로 서울 상경중 경찰에 연행
1989년 07월 10일	광주 동아여중고	리본 패용("우리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10일	전남 구례농고	연행 교사 석방을 요구하며 전교생 교문밖 진출 시도
1989년 07월 10일	전남 나주 영산포상고	교사 석방을 요구하며 학기말 시험 거부
1989년 07월 10일	전남 목포 강남여고	“참교육 실현”, “전교조 지지”, 피켓 시위, 리본 패용
1989년 07월 10일	전남 목포 목포여상	구속교사 석방요구 시험 거부
1989년 07월 10일	전남 목포 영흥고등학교	구속교사 석방요구 시험 거부
1989년 07월 10일	전남 목포 장흥여고	구속교사 석방요구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0일	전남 순천 매산고등학교	비상학생총회를 개최, 징계 철회 때까지 수업거부 농성
1989년 07월 10일	전남	전남지역 44개 학교, 2만여 명 농성 및 시위
1989년 07월 12일	경북 경주중합고등학교	1천 2백여 명 운동장 시위
1989년 07월 12일	경북 안동 경일고등학교	농성, 시위
1989년 07월 12일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교사 단식에 동조하여 학생 2백여 명 동조 단식
1989년 07월 12일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동조 단식
1989년 07월 12일	광주 진흥중학교	동조 단식
1989년 07월 12일	대구 덕원고등학교	노조 가입교사 40여 명과 학생 1천 7백여 명 연좌농성
1989년 07월 12일	대구 배영고등학교	조기방학 철회를 요구하며 가두 시위
1989년 07월 12일	대구	시내 사립학교 8개교 학생 전교조 탄압규탄 집회를 개최, 97명 연행
1989년 07월 12일	부산 구덕고등학교	농성, 시위
1989년 07월 12일	서울 공항공등학교	리본 패용(“우리는 모든 진실된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1989년 07월 12일	서울 자양고등학교	전교생에 유인물 배포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12일	전남 광양고등학교	조기방학 철회를 요구하며 가두 시위
1989년 07월 12일	전남 구례농고	농성, 시위
1989년 07월 12일	전남 여수상고	농성, 시위
1989년 07월 12일	전남 여천공단 내 산업체 부설학교	농성, 시위
1989년 07월 12일	전남 해남 부평중고	농성, 시위
1989년 07월 13일	경기 평택 청담종합고등학교	1천 5백여 명 징계 철회 요구하며 10:00~12:00 전교생 운동장에서 항의 농성
1989년 07월 13일	경기 평택 평택여중	학생 55명, 교사 단식에 동조 단식
1989년 07월 13일	경남 진주 삼현여고	7백여 명 철야농성, 서명운동 전개
1989년 07월 13일	경남 진주 제일여고	2학년생 전원 점심 단식(도시락 교무실 제출)
1989년 07월 13일	경북 경주 경주농고	조기방학 거부, 등교시위
1989년 07월 13일	경북 경주 신라고등학교	조기방학 거부, 등교시위
1989년 07월 13일	경북 의성중고	강현주 교사 징계반대 시위
1989년 07월 13일	경북 하양여고	조기방학 철회요구 시위, 단식농성
1989년 07월 13일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교사 단식에 학생 2백여 명 동조 단식
1989년 07월 13일	광주 광덕고등학교	교사 단식에 학생 2백여 명 동조 단식
1989년 07월 13일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교사 단식에 학생 2백여 명 동조 단식
1989년 07월 13일	광주 대동고등학교	학생 총회 개최, 전교조에 관한 토론회
1989년 07월 13일	광주 동아여중고	밤샘 자습 결의
1989년 07월 13일	광주 사레지오고등학교	시험 연기 결의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13일	광주 송원학원	산하 4개교(중, 고, 여고, 여상) 학생 농성
1989년 07월 13일	광주 전남여상	노조 지지 성명 발표
1989년 07월 13일	대구 경상고등학교	구교대가 등장하여 각목을 들고 침묵 시위중인 학생들을 위협
1989년 07월 13일	대구 경화여고	조기방학 거부 시위, 공정보도 요구하며 MBC 취재를 거부
1989년 07월 13일	대구 배영고등학교	경북대에 모여 시위, 97명 연행
1989년 07월 13일	부산 동인고등학교	학생회장단 5명 사발, 리본 패용
1989년 07월 13일	서울 공항공등학교	1천 5백여 명 항의 농성
1989년 07월 13일	전남 광양고등학교	조기방학 반대 등교시위
1989년 07월 13일	전남 구례농고	조기방학 반대 등교시위
1989년 07월 13일	전남 목포 영암여자고등학교	3학년 농성, 성명서 채택
1989년 07월 13일	전남 목포 해인여자고등학교	전학년 농성
1989년 07월 13일	전남 목포 흥일고등학교	“내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내자”는 구호가 적힌 티셔츠 착용
1989년 07월 13일	전남 보성고등학교	노조교사 징계반대 성명서
1989년 07월 13일	전남 여수상고	조기방학 반대 등교시위
1989년 07월 13일	전남 해남 해남여자고등학교	조기방학 반대 등교시위
1989년 07월 13일	전남 화순고등학교	조기방학 반대 등교시위
1989년 07월 13일	충남 온양여자고등학교	리본 패용(“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선생님과 우리는 하나”)
1989년 07월 14일	경남 마산 마산여상	단식교사 위로, 격려 성명
1989년 07월 14일	경남 마산 창신고등학교	학생 200여 명 집회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14일	경남 진주 삼현여자고등학교	아침부터 단식, 서명, 동문회, 가두홍보, 전교생 도시락 복도에 놓고 단식
1989년 07월 14일	경남 진주 제일여고	7백여 명 아침부터 단식, “징계중단 안 될 시 집단행동 하겠다.” 경고
1989년 07월 14일	경북 경주 내남중고	징계위원회에서 김윤근 교사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전교생 1천여 명 9시~12시까지 농성, 동문회 20명과 학생대표 30명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 농성
1989년 07월 14일	경북 경주 신라고등학교	1천여 명 12:30분~4시까지 가두시위, 전경과 1시간 대치, 몸 싸움.
1989년 07월 14일	경북 금호고등학교	학생 전원이 10시부터 징계철회 요구하며 2시간동안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4일	경북 동국고등학교	“징계 방침 철회” 요구하며 1천 5백여 명, 10시 30분~12시 30분,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4일	경북 의성공업고등학교	학생 5백여 명 9시~5시까지 운동장 농성, 징계 철회 요구
1989년 07월 14일	경북 의성여자고등학교	전교생 9백 50여 명, 1시~5시까지 징계철회 요구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4일	경북 하양여고	학생 간부들에 의해 “조기방학 철회”, “15일 수업을 받는다”, “16일에 재단 측에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 하기로 결의
1989년 07월 14일	광주 광덕고등학교	점심 동조 단식, 일부 삭발, 방학 거부 결의
1989년 07월 14일	광주 광복고등학교	8시 30분까지 2천여 명 방학거부 운동장 농성 동조 단식
1989년 07월 14일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학생 대의원 총회 열고 교장과 면담 요구, 학생회 산하 교원노조 대책위원회 구성, 학생 철야지지 농성
1989년 07월 14일	광주 대동고등학교	“교원노조 탄압분쇄를 위한 2천 대동 학우 결의대회”. 반별토론회 진행, 방학중 비상연락망 작성
1989년 07월 14일	광주 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 교사와 동조 철야 농성
1989년 07월 14일	광주 동아여중고	4천여 명 운동장 농성, 시험거부(여고), 수업거부(여중)
1989년 07월 14일	광주 문성고등학교	학생회 간부 40여 명 교장실 농성
1989년 07월 14일	광주 봉선중학교	4백여 명 피켓 들고 교문 밖 진출, 15일부터 무기한 농성 예정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14일	광주 사레지오고등학교	전교생 운동장 시위
1989년 07월 14일	광주 석산고등학교	1천 5백여 명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4일	광주 송신공업고등학교	총학생회 교원노조 지지성명서를 냄
1989년 07월 14일	광주 송일고등학교	2백여 명 교장실 앞 농성
1989년 07월 14일	광주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	서명운동, 학생대책위 구성, 조기방학거부 결의
1989년 07월 14일	광주 전남여상	2천여 명 1시 30분~3시 30분까지 학생대동제를 열고 교원노조 지지 결의, 성명서 발표
1989년 07월 14일	대구 경상고등학교	1~5교시 대의원 70여 명 징계철회 요구 중앙현관 농성. 6교시 전교생 농성. 전경 1개 중대 투입
1989년 07월 14일	대구 경화여고	8시~10시 30분 학생 6백여 명, 조기방학 거부, 등교투쟁 및 징계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7월 14일	대구 남산여고	3학년 6백여 명 4시~7시 30분 운동장에서 연좌농성. 징계 철회 요구
1989년 07월 14일	대구 덕원고등학교	13일 직원회의 통해 학교 측 조기방학 선언, 1천 5백여 명 항의 등교. 10시까지 방학식 거부, 자체 자습 실시, 학생대표들, 징계 요구서가 계속 하달될 때는 비상연락망 통해 항의 등교 결의
1989년 07월 14일	대구 성화여중	학생회 간부 리본 패용, “선생님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학생 동요에 학생들이 자제를 호소
1989년 07월 14일	대구 영신고등학교	11시 30분 졸업생 20여 명 교원노조 지지 성명서 발표, 4시 30분~7시 10분 본교 학생 4백여 명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4일	대구 형성고등학교	1, 2학년 1천여 명, 3일째 운동장 농성 3시 30분~6시 30분까지 재단 사무실 앞 농성
1989년 07월 14일	부산 동인고등학교	“근조 교권”, “우리는 참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리본 패용
1989년 07월 14일	서울 구로고등학교	학생 6백여 명 가두시위 중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학생 20여 명 부상.
1989년 07월 14일	서울 대진고등학교	전교생 2천 5백여 명 침묵 시위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14일	서울 성동고등학교	전교생 1천여 명 농성
1989년 07월 14일	서울 인현고등학교	대진고, 성동고와 함께 연합집회, 징계 철회, 방학거부 결의
1989년 07월 14일	서울 자양고등학교	3일째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4일	전남 곡성중학교고등학교	징계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7월 14일	전남 동명고등학교	학생 9백 70여 명 조기방학 반대농성
1989년 07월 14일	전남 목포 흥일고등학교	오전 9시 30분~12시까지 1천 5백여 명 농성, 3학년 전원 시험거부, 1, 2학년 동조 농성
1989년 07월 14일	전남 무안고등학교	오전 9시부터 징계철회 요구하며 5백여 명 운동장에서 농성
1989년 07월 14일	전남 순천 강남여자고등학교	9시~12시까지 농성, 21일 징계위원회 열리면 전학년 등교하여 농성할 것을 결의
1989년 07월 14일	전남 화순고등학교	학생 3백여 명 조기방학 반대 농성
1989년 07월 14일	전남 화순여자고등학교	11시부터 조기방학 반대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4일	전북 김제상고	2학년 3백여 명, “참교육 받고 싶다.”는 머리띠를 두르고 2교시~5교시 수업거부 농성
1989년 07월 14일	충남 금산여자고등학교	학생 1백 50여 명 동조 단식
1989년 07월 14일	충남 도고중학교	3학년 전원 리본 패용(“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1989년 07월 14일	충남 홍성 홍주고등학교	학생 대표 20명 교장실 방문, 토론회 요구. 요구 거절당하자 항의.
1989년 07월 15일	경남 거창종합고등학교	학생 5백여 명 교육청에 항의시위, 경찰과 충돌. 학생 수명 부상. 신용석(3학년) 군 뇌진탕으로 입원
1989년 07월 15일	경남 마산 창신고등학교	9:00부터 1900여 명이 한 시간 교내운동장에서 “교원노조 탄압 저지” 시위.
1989년 07월 15일	경남 진주 대동공고	학생 1천 5백여 명 서명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15일	경남 진주 삼현여자고등학교	철야 농성 주도학생을 학생주임이 구타, 교장 각성을 요구하며 농성
1989년 07월 15일	경북 의성여자고등학교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5일	경북 하양여고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징계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7월 15일	광주 고려중학교	조기방학 반대 시위
1989년 07월 15일	광주 광덕고등학교	7시 30분 정후문 막고 사람 출입 차단. 조기방학 선언되었으나 전교생과 교사는 계속 등교하기로 하였다. 전경과 대치.
1989년 07월 15일	광주 대광고등학교	정상 수업 후 운동장 농성.(징계 철회, 전교조 지지)
1989년 07월 15일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철야농성 계속, 4교시 후 전교생의 부당징계 철회, 전교조 지지 및 조기방학 선언에 대한 부당성 성토했으며 농성(22일까지 등교하고 보충수업을 22일 이후 바로 실시하기로 결의)
1989년 07월 15일	광주 대동고등학교	2~4교시 전교생 체육관 농성, 16, 17일 등교하여 투쟁하기로 결의. 18일까지 지속적으로 농성하기로 하였다.
1989년 07월 15일	광주 대성여고	2천여 명 농성 돌입
1989년 07월 15일	광주 동아여중고	학생 4천여 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교사 4명을 보호 감금하여 징계위원회 무산
1989년 07월 15일	광주 문성중고	4천여 명 전원 농성. (학생회는 14일부터 밤샘농성), 14시 이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징계위원회 무산. 15시 해산.
1989년 07월 15일	광주 사레지오고등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몇 분 전에 해당 교사에 통보해 와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12~16시까지 농성. 학생대표 항의 농성. 학교 측 오후 7시, 징계하지 않기로 방침.
1989년 07월 15일	광주 서강고등학교	8시 30분~10시까지 전교생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5일	광주 석산고등학교	가두진출, 16명 경찰에 연행
1989년 07월 15일	광주 송원학원	산하 5개교 학생 1만 1천 명 농성, 조기방학 거부
1989년 07월 15일	광주 수피아여중고	조기방학 반대 시위
1989년 07월 15일	광주 송일고등학교	학생들 징계 장소인 교장실 점거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15일	광주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	조기방학에 항의하여 방학 방침 철회
1989년 07월 15일	광주 유은학원	2천 5백여 명 징계위원회장 앞에서 농성
1989년 07월 15일	광주 전남여상	학생 2천여 명 집단 운동장 농성, 방학 거부로 방학 선언 철회
1989년 07월 15일	광주 죽호고등학교	6천여 명 농성
1989년 07월 15일	대구 심임고등학교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5일	대구 영남고등학교	1천 6백여 명 농성
1989년 07월 15일	대구 영신고등학교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5일	서울 구로고등학교	징계철회, 조기방학 철회를 요구하며 밤샘공부 결의
1989년 07월 15일	서울 금옥여중	리본 패용, “우리는 선생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1989년 07월 15일	서울 대림여중	리본 패용.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1989년 07월 15일	서울 대진고등학교	전교생 운동장에서 침묵 시위, 교장 사과방송
1989년 07월 15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학교 보수 공사를 이유로 조기 방학, 항의농성, 리본 패용
1989년 07월 15일	서울 영림중학교	학생 1백여 명 교문 밖 연좌
1989년 07월 15일	서울 오류여중	학생대책위 구성. 6백여 명 서명, 시교위에 진정서 제출
1989년 07월 15일	전남 동명중학교	전교생 570명 수업 거부
1989년 07월 15일	전북 김제북고	항의 시위, 500여 명.
1989년 07월 15일	전북 만경여중고	조기방학 거부, 농성 400여 명
1989년 07월 15일	충남 온양여자고등학교	10:50부터 2, 3학년들 700여 명 운동장으로 나와 ‘아침이슬’ 부르며 “전교조 인정, 합법성 보장, 징계철회” 구호를 외침. 경찰, 사복체포조 30여 명 학내 진입.
1989년 07월 16일	광주 광남고등학교	전교생 일요일 등교, 철야농성
1989년 07월 16일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학생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교장실에서 철야 농성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18일	경남 거창종합고등학교	폭력교사 공개사과 요구 농성
1989년 07월 18일	경북 동국고등학교	조기방학 거부 등교시위
1989년 07월 18일	경북 의성공업고등학교	조기방학 거부 등교시위
1989년 07월 18일	광주 경신여중고	3천 5백여 명 징계 반대 농성
1989년 07월 18일	광주 광덕중고등학교	학생들 정후문 봉쇄하고 징계위원회 저지
1989년 07월 18일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철야농성
1989년 07월 18일	광주 대동고등학교	전교생 2천여 명, 교문에 책걸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조기방학 거부 농성
1989년 07월 18일	광주 동아학원	여중고 4천여 명 비상총회 개최
1989년 07월 18일	광주 사레지오고등학교	15일자로 내려진 방학을 거부하고 등교 투쟁
1989년 07월 18일	광주 송원학원	5개교 학생 수업 거부, 1만여 명 전문대 운동장에서 농성. 징계위원 저지
1989년 07월 18일	광주 유은학원	산하 4개교 6천여 명 농성
1989년 07월 18일	서울 대림여중	6백여 명 징계방침 철회와 조기방학 반대를 주장하며 후문에서 농성
1989년 07월 18일	서울 동북고등학교	조기방학 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7월 18일	서울 봉천중학교	조기방학 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7월 18일	서울 양정고등학교	조기방학 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7월 18일	서울 오류여중	리본 패용(“우리 선생님을 우리가 지키자”)
1989년 07월 18일	서울 인현고등학교	1천여 명 교문 앞에서 조기방학 반대 등교시위
1989년 07월 18일	서울 장훈고등학교	2천여 명 리본 달고 농성
1989년 07월 18일	서울 청담중학교	수업 후 운동장에서 징계반대 연좌농성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18일	전북 만경여중고	징계철회 요구농성
1989년 07월 19일	경북 경주 신라고등학교	징계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7월 19일	경북 의성공업고등학교	징계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7월 19일	광주 대광고등학교	기습적인 징계위원회 개최, 학생들 이병 저지하기 위해 싸움
1989년 07월 19일	광주 동아여중고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9일	광주 사레지오고등학교	징계위원 중 재단 측 인사 3명을 교문에서 저지하여 징계위원회를 무산시킴.
1989년 07월 19일	광주 서석고등학교	가두진출, 경찰과 대치하여 계란, 밀가루 투척
1989년 07월 19일	광주 송원학원	학생 5천여 명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9일	광주 송신공업고등학교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19일	광주 정광고등학교	비상 학생총회 개최, 비상연락망 체계 확립
1989년 07월 19일	광주 진흥학원	고교생 1천 8백여 명 농성, 중학생 일부 가담. 전일중학교 4명 2층에서 투신
1989년 07월 19일	광주	학생 2만 5천여 명, 광주 시내 백운동 로타리, 공설운동장 등지에서 가두시위, 전남대 5.18 광장에서 연합집회. 경찰 6백여 명 연행
1989년 07월 19일	대구 오성고등학교	교사 6명의 징계위원회 회부의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1989년 07월 19일	부산 동인고등학교	연좌시위
1989년 07월 19일	부산 학산여고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시험을 거부
1989년 07월 19일	서울 고척고등학교	전교조 지지 종이비행기를 일제히 날림. 노래 제창
1989년 07월 19일	전북 전주 영생고등학교	조기방학 거부, 항의 등교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19일	충남 조치원여중, 충남 조치원중고	교사 징계철회 요구 농성. 연합시위 계획 사전 누설로 무산. 조치원여중은 소지품 검사, 구타 등 조사 후 4교시 수업 종료, 귀가조치. 학생들에 대한 폭력에 항의하는 노조 교사를 교무주임이 허리띠, 멍살 잡고 폭행. 13:30 조치원역 광장에 여중생들 집결하여 스승의 노래 부르며 폭력에 항의. 스승지키기 결의. 조치원 중고 방문, 경찰 저지.
1989년 07월 20일	광주 고려학원	재단 산하 각 학교의 대표들이 모여 공동대책을 논의
1989년 07월 20일	광주 광주농업고등학교	징계철회, 탄압 저지를 외치며 농성
1989년 07월 20일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징계철회, 탄압 저지를 외치며 농성
1989년 07월 20일	광주 대동고등학교	백운동 로타리까지 진출, 전경에게 구타 당함
1989년 07월 20일	광주 문성고등학교	2천여 명 가두 진출, 일부는 대동고와 합세
1989년 07월 20일	광주 서석고등학교	서석, 광덕, 문성, 대동고 연합집회
1989년 07월 20일	광주 수피아여고	징계위원회 저지 농성. 통로를 봉쇄하여 징계위원회를 무산시킴.
1989년 07월 20일	광주 전남여상	운동장 농성
1989년 07월 20일	광주 정광고등학교	징계철회, 탄압 저지를 외치며 농성
1989년 07월 20일	광주 죽호재단	중앙여중고, 금호고 학생 6천여 명 농성
1989년 07월 20일	광주 진흥고등학교	연합 집회에 참가하려던 학생들이 전경에게 구타 당함. 35명 강제 연행
1989년 07월 20일	광주동아여중고	학생 4천여 명 재단 빌딩에 가서 농성
1989년 07월 20일	전북 군산동고	징계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7월 20일	전북 군산여상	징계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7월 20일	전북 덕원학원	교사 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학생, 교사, 공대위, 가족회, 학부모 1백여 명이 징계위원회의장 봉쇄로 무산
1989년 07월 20일	전북 상산고등학교	조기방학에 항의하여 등교투쟁
1989년 07월 20일	전북 성은여고	징계철회 요구 농성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21일	경남 마산여상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1989년 07월 21일	광주 문성중학교	연좌시위
1989년 07월 21일	광주 송원학원	학생 3천여 명 집회, 가두진출 무산, 송원여고생 10여 명 철서
1989년 07월 21일	광주 진흥중학교	보충수업중인 3학년 530명 연좌시위
1989년 07월 21일	전남 광주	전남대 5.18 광장에서 10여 개 고교 1천여 명은 전교조 지지 및 징계 철회 요구대회를 개최, 방학중 등교투쟁, 대체 교사 수업거부를 결의
1989년 07월 21일	전북 신동아재단	학생 1백여 명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재단 사무실 점거
1989년 07월 24일	광주 대동고등학교	학부모, 교사와 간담회 개최
1989년 07월 24일	광주 문성중고등학교	이사장 집 앞에서 농성
1989년 07월 24일	광주 송원학원	학생 7백여 명이 학부모 80여 명과 함께 농성
1989년 07월 24일	서울 중대부고	1차 징계위를 교장실로 옮기려 하자 동문들이 항의. 재학생, 졸업생이 함께 징계위 장소에서 농성.
1989년 07월 24일	전북 배영중고	학생 8명 식발, 단식농성 시작
1989년 07월 24일	전북 부안여고	2백여 명이 농성하여 징계위원회 무산
1989년 07월 25일	광주 광덕고등학교	3학년생 6백여 명이 본관 건물 통로를 막고 사무실, 교장실에서 점거 농성
1989년 07월 25일	광주 송원학원	산하 5개교 학생 2백여 명이 재단 사무국 점거 농성
1989년 07월 25일	광주 송일고등학교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보충수업 거부
1989년 07월 26일	광주 석산고등학교	1, 2, 3학년생 보충수업 거부
1989년 07월 26일	부산 성모여고	전교생 1천 3백여 명과 졸업생 3백 50여 명 서명
1989년 07월 26일	서울 우신고등학교	졸업생 5명이 우신고등학교 징계위원회 저지 투쟁에 대한 경과를 보고 하기 위해 대자보를 부착
1989년 07월 26일	서울 현대고등학교	졸업생 40여 명이 모교 방문. "재학생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 배포. 재학생 리본 패용.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7월 26일	인천 세일고등학교	학생회 주최로 토론회 개최
1989년 07월 27일	광주 사레지오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20여 명 전교조 지지 입장 발표
1989년 07월 27일	광주 석산고등학교	1차 징계위 통로 점거농성, 징계위 무산
1989년 07월 27일	광주 송일고등학교	경신고와 연합집회
1989년 07월 27일	인천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1백여 명이 징계위원회 무산시킴
1989년 07월 28일	서울 일신여상	교문이 차단된 상태에서 등교한 재학생, 졸업생 3백여 명이 교문 앞에서 연좌농성. 교사 3명이 학생 10여 명 구타. 전경 1개 중대 출동. 학생들은 매일 자율 등교를 결의
1989년 07월 28일	서울 잠실여고	27일 철야농성한 학생 3백여 명이 교문에서 연좌농성. 징계위를 무산시킴.
1989년 07월 28일	인천	인하대에서 인천 지역 고교생 3백여 명과 대학생 2백여 명이 모여 문화행사를 진행하려다 출동한 백골단이 고교생 2백여 명을 연행
1989년 07월 29일	광주 동아여중고	교사 직권면직 조치에 항의하여 394명의 학생이 학부모 동의하에 집단 자퇴서 제출
1989년 07월 29일	광주 동인고등학교	4백여 명의 학생이 징계 장소 점거 농성
1989년 07월 29일	광주	광주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광고협) 주최의 연합 집회. 동서부지구 : 16개교 1천여 명 전남대에서 출범식. 북부지구 : 8개교 1만여 명이 집회 봉쇄로 인해 금호고에 2천여 명이 모여 집회 개최
1989년 07월 30일	광주 동아여자고등학교	30여 명이 교실에서 철야농성 3일째 진행
1989년 07월 30일	전남 이리 남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이 폭우 속에서도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농성, 징계위원회를 저지함.
1989년 07월 31일	광주 송원학원	징계철회가 안 될 시 등록금 납부 거부, 등교 거부, 교장퇴진 요구, 자퇴원서 제출 결의
1989년 07월 31일	광주 죽호재단	연합집회 후 철야농성
1989년 08월 01일	광주 동아여중고	자퇴서 반려. 7백여 명 이사장실 앞에서 농성. 이사장, 교장 퇴진 요구.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8월 01일	광주 죽호학원	교사 전원 직권면직 엄포에 항의하여 이사장실에서 2일째 단식농성
1989년 08월 01일	광주 진흥고등학교	방학거부 등교 투쟁, 학부모들 2학기 등록금 거부 결의
1989년 08월 01일	서울 풍문여자고등학교	보충수업을 하기 위해 등교한 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킴.
1989년 08월 01일	인천 세일고등학교	보충수업 실시 예정이었으나 징계 문제로 취소. 학생 1백여 명 보충수업 요구 항의 농성
1989년 08월 01일	전북 상산고등학교	전교조 인정, 징계 방침 철회, 학생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농성
1989년 08월 01일	충남 천안 중앙고등학교	오전 11시. 김지철 교사 공판. 재판소 앞에서 6백여 명 농성.
1989년 08월 02일	경남 마산여상	재학생, 졸업생 3백여 명 징계저지투쟁을 벌임
1989년 08월 02일	서울 동명여자고등학교	보충수업 후 학생 1백여 명 항의농성
1989년 08월 02일	전남 목포 영흥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5백여 명 규탄대회 개최
1989년 08월 03일	경기 여주동중	서명작업, 징계철회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
1989년 08월 03일	경기 여주상고	학교 측에서는 기숙사 폐쇄. 학생들 등교하지 못하고 마을별로 자퇴서 수거.
1989년 08월 03일	광주 석산고등학교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교문 앞에서 연좌농성
1989년 08월 03일	부산 부산진고등학교	교원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성명서 배포
1989년 08월 03일	부산 성도고등학교	학생주임이 학생을 폭행. 일주일간 입원.
1989년 08월 03일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철야농성으로 부당징계에 항의.
1989년 08월 03일	부산	부산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부고협) 부산대에서 결성. 용인고 학생 회장 황순주 군을 대표로 선출. 결성선언문, 행동강령 채택, 경찰과 투석전.
1989년 08월 03일	인천 성헌고등학교	보충수업 중 학생들 리본 패용. 징계위원회 무산시킴.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8월 03일	인천 세일고등학교	학생 1백여 명이 징계위원회를 저지시킴. 경찰이 학교 밖에서 사진 촬영하여 학생들을 징계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
1989년 08월 03일	전남 목포 영흥고등학교	가두 시위
1989년 08월 03일	충남 옥천고등학교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대자보와 서명용지를 교장이 압수하여 경찰에 넘김
1989년 08월 03일	충남 인주중학교	리본 패용
1989년 08월 04일	광주 송원학원	서울 명동성당에서 전교조 지지 연합집회. 교사, 학생, 학부모 대동제 개최.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1천여 명 참가.
1989년 08월 04일	서울 대진고등학교	학생 37명 밤 10시까지 시한부 농성
1989년 08월 04일	서울 명지고등학교	졸업생 1백여 명 항의 방문. 재학생 3백여 명과 함께 강당에서 토론회 개최
1989년 08월 04일	서울 창문여고	3학년 4백여 명과 졸업생 30여 명이 교문 앞 농성
1989년 08월 07일	서울 미림여고	이진철 교사에 대한 징계에 항의하기 위해 을지로2가 재단 사무실에서 농성. 재단 측의 요청으로 경찰 출동. 재학생, 졸업생 등 54명 연행. 진술을 거부하자 학생주임이 신원파악 보고.
1989년 08월 08일	경북 경주 안강여중	학생 1백여 명 등교, 철야 농성
1989년 08월 08일	광주 죽호재단	학생 1천여 명 체육관에 모여 집회
1989년 08월 08일	서울 미림여고	교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던 졸업생 10여 명 연행
1989년 08월 08일	전남 백제여상	징계위원회 저지를 위해 학생, 학부모 3백여 명이 경찰의 저지망을 뚫고 산길을 통해 학교로 진입
1989년 08월 08일	제주 신성여고	2차 징계위원회를 저지시킴.
1989년 08월 08일	충남 천안 중앙고등학교	2학년생 4백 50명, 교육청에서 항의 농성. 7일간 단식한 학생 1명 실신. 경찰에 3명 연행.
1989년 08월 12일	서울 대진고등학교	보충수업시 농성. 11일부터 4일간 밤샘 공부.
1989년 08월 17일	서울 오류여중	교사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가두 시위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8월 21일	경북 영천 금호여고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리본 패용
1989년 08월 21일	대전 신일여상	각서 쓴 조합원의 수업 거부
1989년 08월 21일	대전 충전실업고등학교	교실 창문에 "학교를 떠나지 마세요" 써붙임
1989년 08월 21일	서울 상도여중	교사징계 철회 요구 리본 패용
1989년 08월 21일	서울 선일여고	교사징계 철회 요구 학생 10여 명 교문 앞에서 유인물 배포, 경찰 투입
1989년 08월 21일	서울 중대부고	2학년 학생 100여 명 교사징계 철회 요구 시위, 귀가 조치로 해산
1989년 08월 21일	전남 무안고, 창평고, 매산고, 복성여고, 영암여고, 복성중고	학생 1500여 명, 징계 항의 농성
1989년 08월 22일	광주 광덕고등학교	3학년 반장들이 투표에서 66%지지 나오자 "참교육을 받게 해달라", "전교사는 전교조에 가입하라", "부당징계 철회하라" 등 요구 관철 안 되면 조회, 종례, 수업 등 거부 선언
1989년 08월 22일	광주 송원재단	여고 전교생 침묵수업. 남고 3년 침묵수업. 여고 2학년 4반 반장, 부모 동의후 자퇴서 제출. "참교육 받고 싶습니다", "재가입하십시오"라고 인사.
1989년 08월 22일	서울 개봉중학교	학생 250여 명 운동장에서 '아침이슬' 등 부르며 30분간 시위
1989년 08월 22일	서울 남서울상고	학생회장 김설준 제적
1989년 08월 22일	서울 동북고등학교	학생회 20여 명 유인물 배포
1989년 08월 22일	서울 면목고등학교	교사 출근투쟁 지지하며 '전교조지지' 대자보 6장 진입로와 교내에 부착.
1989년 08월 22일	서울 면목여중	징계철회 요구 운동장 진출 시도, 현관에서 저지 당함
1989년 08월 22일	서울 수도여고	교사 징계 철회 요구 리본 패용. 교감 교장이 협박, 수거.
1989년 08월 22일	서울 신목고등학교	2학년 12학급, 1학년 6학급 9시부터 14시 15분까지 운동장 농성. 4층 건물 2개의 플래카드, 2학년 반장 12명 교장 면담 요구하여 전교조 교사 징계 철회, 주동학생 징계 말 것, 학생회 직선제, 학생회 예산 공개 등 요구.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8월 22일	전북 진안여고	3학년만 개학. 140여 명 1, 2교시 수업 거부. 11시 강제 하교. 20여 명 계속 농성.
1989년 08월 23일	강원 황지여상	출근투쟁 지지하며 대자보 부착. 유인물 배포. 학생 700여 명 13시부터 징계 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8월 23일	경기 성남 풍생고등학교	출근투쟁 실랑이 중 2학년 200명 운동장에서 연좌농성. 학생 대표, 박종수 교사 부당징계 해명 25일까지 책임권 부여 수업권 회복 학생징계 말 것 등 요구.
1989년 08월 23일	경북 경주 신라고등학교	교사 3명 재심. 재학생 400여 명과 졸업생 70명 재심 중단 요구 농성. 재심 중단됨.
1989년 08월 23일	광주 동아여고	학생 2800여 명 교문 앞 시위. 출근투쟁 지원. 백골단 교내 진입. 학생 7, 교사 2명 연행.
1989년 08월 23일	광주 송원재단	남녀고교생 교장실 점거. 송원 전문대 앞 연좌농성
1989년 08월 23일	대전 신일여상	출근투쟁 교사 담임반 학생들 “우리는 선생님을 찾고 싶습니다” 리본 패용
1989년 08월 23일	서울 단대부고	학생 300여 명 교문 막고 ‘학생회 각성해라’ 촉구 시위
1989년 08월 23일	서울 면목여중	교사 출근투쟁 지지하며 조합원 담임반 학생들 교실 문 잠그고 수업 거부. 교감이 협박 회유. 4교시 100여 명 교문 앞 항의
1989년 08월 23일	서울 성서중학교	화장실에 출근투쟁 지지하는 대자보 부착
1989년 08월 23일	서울 중광중학교	교사 출근투쟁 지지하며 학생 70여 명 조합원과 함께 등교
1989년 08월 23일	전남 무안고, 창평고, 매산고, 복성여고, 영암여고, 복성중고	학생 1800여 명, 농성, 수업거부
1989년 08월 24일	경북 경주 신라고등학교	출근투쟁 교사 3명을 저지하자 재학생, 졸업생이 통과시킴. 동문회장 연행.
1989년 08월 24일	경북 안동 길원여고	민주동문회 3명이 유인물 배포, 저지당함.
1989년 08월 24일	광주 송원재단	재단내 5개교. 여상 2학년 13반 수업 거부, 직권 면직교사 2개반 교장실 앞 농성, 3학년 성명서 교사에게 전달. 교실 전체에 “재가입하십시오”, “교원노조 사수하자” 등 구호 창문에 부착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8월 24일	대전 신일여상	리본 패용이 3학년 전체, 2학년 일부로 확산, 8절지 크기의 '우리는 인 형이 아니다', '자주적으로 선생님을 되찾자'라는 유인물 수십장을 교실 유리창에 부착
1989년 08월 24일	서울 경기기계공고	교실 앞뒤 전교조 유인물 부착
1989년 08월 24일	서울 난곡중학교	전체 학생, 교사 징계 철회 요구 리본 패용. 미가입 교사 학생 폭행
1989년 08월 24일	서울 대방여중	3개반 180명 시험 거부. 학생징계 잠정 결정(학생회장 유기정학 7일, 주동 5명 정학 5일, 4명 근신)
1989년 08월 24일	서울 성보고등학교	1500여 명 운동장에서 연좌 농성
1989년 08월 24일	서울 수도여고	김정민 학생 투신 자살을 가족에게 사고사로 해줄 것을 강요
1989년 08월 24일	서울 오류여중	3학년 5반 전원이 출근투쟁 교사 지원 위해 교문 앞으로 진출. 조합원 의 설득으로 해산.
1989년 08월 24일	서울 청담중학교	3학년 6반 학생 문 잠그고 수업 거부. 전 교사 "교사 징계 철회" 리본 패용.
1989년 08월 24일	전남 담양 창평고등학교	학생 700명 수업 거부, 운동장 시위
1989년 08월 24일	전남 무안 청계중 등	학생 1400여 명 청계중학교 주최로 수업 거부 후 목포대에서 전교조 지지, 징계 철회 요구 연합시위
1989년 08월 24일	전북 함열여중고	진입로와 화장실에 "의롭게 싸우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붙음
1989년 08월 25일	경기 오산고등학교	학생회장단, 교장?교사와의 면담 요구. 면담 성사되자 "참교육을 받고 싶다", "탈퇴교사들의 수업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
1989년 08월 25일	경기 일산중고	3학년 학생 100여 명 징계 철회 요구. 수업 거부.
1989년 08월 25일	광주 광덕고등학교	3학년 수업 중 뒤로 돌아 앉음
1989년 08월 25일	광주 동아여중고	6개교 수업 거부
1989년 08월 25일	광주 문성?대동고 등	문성고, 대동고 등 5개교 신규임용자 면접 저지
1989년 08월 25일	광주 송원재단	여상, 여고, 송원고 학생 침묵수업 탈퇴교사에게 대화 요구. 응하지 않자 복도, 교무실 농성
1989년 08월 25일	광주 축호학원	중앙여고, 금호고 등 침묵수업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8월 25일	대전 신일여상	2, 3학년 600여 명 복도에서 징계 철회 요구 수업 거부 농성
1989년 08월 25일	부산 성도고등학교	학생 200여 명 폭력교사, 학생주임 퇴진, 참교사 징계 철회 요구하며 시위
1989년 08월 25일	서울 동명여고	13시 30분, 3학년 종이비행기 날리며 운동장 농성
1989년 08월 25일	서울 면목고등학교	전교조 분회장 출근하자 학생 600여 명 운동장 나와 환영
1989년 08월 25일	서울 명지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 농성
1989년 08월 25일	서울 석관고등학교	13시~14시 30분까지 학생 1000여 명 운동장 시위
1989년 08월 25일	인천 세일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 9시부터 13시까지 연좌 시위
1989년 08월 25일	전남 담양 창평고등학교	전교생 아침부터 16시까지 시위 농성
1989년 08월 25일	전북 전주 성은여고	2학년 6반 60여 명 교문밖 진출. 교장, 이사장 면담 요청
1989년 08월 25일	전북 정주 동신여상	학생 300여 명 농성. 학생이 교장?교감 막고 35분간 수업 받음
1989년 08월 25일	충남 서산 음암중학교	3학년 학생 25명 3일간 단식농성. 학부모 학교 방문, 대책 촉구
1989년 08월 26일	대구 배영고등학교	유인물 배포, 스프레이 낙서 '징계 철회하라' 조합원 출근 막자 담임반 수업 거부
1989년 08월 26일	대전 신일여상	교사 2명 출근시 저지. 몸싸움. 학생 50명이 도와 교문 통과. 진입로 양쪽에서 3학년 300여 명 사열 환영. 조희전까지 복도에서 농성. 담임 반 수업 거부.
1989년 08월 26일	부산 부산진여고	교사 출근투쟁 시각 1학년 전원 옥상, 2학년 전원 운동장 도열 환영 시 위. 졸업생 10여 명 교문 앞 유인물 배포. 새마을 주임 폭행함
1989년 08월 26일	부산 성도고등학교	학생 1800여 명 폭력교사, 학생주임 퇴진, 참교사 징계 철회 요구하며 전교생 30분간 농성
1989년 08월 26일	부산 학산여고	부고협 부의장 '강미' 등교 소식 듣자 "강미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낙서 한 학생을 국어교사가 폭행, 실신함.
1989년 08월 26일	인천 세일고등학교	전교생 교사 징계 철회 요구하며 전면 수업 거부
1989년 08월 26일	전북 정주 동신여상	직권면직교사 수업 진행. 100여 명,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구호 시위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8월 27일	경남 거창중고	출근 저지에 항의농성. 학교 측은 징계 엄포.
1989년 08월 27일	광주 사레지오고	사레지오고, 여고, 전남여상 등은 전남대 강당에서 전교조지지 결의대회, “신규교사 인정할 수 없다” 결의. 담임 배정?수업 등 거부 결의
1989년 08월 28일	강원 화천중고	3학년 40명이 교문에 나와 시위 하려 하자 교사 만류. 교문에 붙은 ‘교원노조 결사 반대’ 플래카드와 ‘노조교사 물러가라’는 피켓 제거 요구. 오전수업 후 귀가 조치
1989년 08월 28일	경기 성남 송림고등학교	전현철 교사 징계 철회 요구, 학생 600여 명 운동장 시위
1989년 08월 28일	경북 청송여중고	학생 400여 명 9~12시 징계 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8월 28일	광주 고려고등학교	540여 명 운동장 농성
1989년 08월 28일	광주 대동고등학교	150여 명 교문 앞 도열, 신입교사 출근 저지
1989년 08월 28일	광주 문성고등학교	학생 2000여 명 수업 거부
1989년 08월 28일	광주 사레지오고	사레지오고 2000여 명 기말고사, 수업거부 부당징계 철회 요구 운동장 농성.
1989년 08월 28일	광주 송원재단	송원과 전체 투표 62% 찬성으로 미가입, 탈퇴교사 수업 거부
1989년 08월 28일	부산 부산남중	교문 앞 스프레이 낙서 ‘이은희 선생님 복직’, ‘교직원노조 사수’ 등
1989년 08월 28일	인천 성현고등학교	학생 400여 명 10시부터 부당징계 철회 요구하며 농성
1989년 08월 28일	인천 세일고등학교	전교생 농성, 학생대표 7명, 교사대표 7명 학교 측과 원종찬 교사 복직 요구 면담
1989년 08월 28일	전남 호천고등학교	출근투쟁 지지하며 징계 철회 요구 농성
1989년 08월 28일	전북 이리상고	학생 200여 명 점심시간 농성
1989년 08월 28일	전북 이리중학교	학생 200여 명 11시부터 30분간 운동장 농성
1989년 08월 29일	경남 하동중고	수업 거부. 하교하다 제지 당함.
1989년 08월 30일	경남 하동중고	주동자 색출 과정에서 학생 구타
1989년 08월 30일	부산 부산진고등학교	학생들 시교위 방문 시위.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8월 30일	서울 시흥고등학교	졸업생 30여 명 항의 방문. 재학생에게 성명서 배포
1989년 08월 31일	강원 철원 김화중학교	3학년 4반 4명의 학생이 “직위해제 된 김을용 교사가 복직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글을 교무실 유리에 붙이고 교무실과 교장 관사 유리 파손
1989년 08월 31일	경남 진주 제일여고	해직교사 이임 인사, 조회에서 1, 2교시 항의 농성. 대자보 부착.
1989년 08월 31일	경남 하동중고	주동자급 조사 받고 진술서 강요당함.
1989년 08월 31일	광주 대동?정광고	학생 1000여 명 수업 거부, 농성
1989년 08월 31일	광주 대성여고	전교생 수업 거부. 교사 4명 이임 인사하려 하자 침묵시위
1989년 08월 31일	광주 사레지오고	8시부터 학생총회 위해 강당 사용 요구하며 교장실 앞 농성
1989년 08월 31일	광주 서강고등학교	재경 동문 10여 명 모교 방문. 성명서 낭독, 배포, 재학생 1000여 명 시위.
1989년 08월 31일	광주 송원재단	학생 8000여 명 재단 5개교 송원과 운동장에서 집회. 사무실, 이사장 실 점거 농성
1989년 08월 31일	부산 부산진고등학교	방문 시위 관련자 1학년 2명, 2학년 1명 등 서무실에서 교감, 체육주임, 교사 등에게 폭행 당함
1989년 08월 31일	부산 부산진여고	1, 2학년 1000여 명, 점심시간 잔디밭에서 노래 시위. 강당에서 토론회 개최.
1989년 08월 31일	인천 성현고등학교	9시부터 시위, 방과후 농성. 선별적 수업 거부 결의
1989년 08월 31일	전남 나주고등학교	학생 600여 명 징계 철회 요구 수업 거부
1989년 08월 31일	전남 백제여상	학생 2000여 명 수업 거부하고 체육관에서 농성
1989년 08월 31일	전남 해남 북평중고	학생 700여 명 징계 철회 요구 시위, 신규교사 수업 거부 및 3, 4분기 등록금 거부 결의
1989년 08월 31일	전북 금구중학교	이임인사 위한 조회에서 농성, 침묵시위 계속
1989년 08월 31일	충남 목척고등학교	학생 900여 명 김상태 교사 징계 항의 농성
1989년 08월 31일	충남 천안 중앙고등학교	김진철 교사 출근에 학생들 환영하고 운동장에서 항의 시위. 교장 이임 인사 못하고 이임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9월 01일	경남 거창상고	학생 500여 명 배은미 교사 징계 철회 요구하며 점심시간 시위
1989년 09월 01일	경북 경주 안강여고	16시 재심 시작하자 학생 농성으로 재심위 중단
1989년 09월 01일	경북 청송여중고	4일째 수업 거부. 해직자 복직 요구
1989년 09월 01일	광주 동아여고	3교시 1학년 11반, 6교시 3학년 12반 해직교사 집에 찾아가 수업
1989년 09월 01일	부산 학산여고	부고협 부의장 징계 반대 1000여 명 시위. '우리의 결의' 유인물 배포.
1989년 09월 01일	인천 성현고등학교	신규채용 교사, 교사 탄압 교사 2명에 대한 수업 거부
1989년 09월 01일	전북 남원 한남여고	해직교사에게 복도에서 수업 받음
1989년 09월 01일	전북 목구고등학교	학생 200명 운동장 농성, 우천관계로 복도로 옮겨 농성
1989년 09월 01일	충남 천안 천안여중	학생 600여 명 2교시부터 운동장 시위. 구교대에 쫓겨 교실로 들어감. 교실에서 교합을 지르는 등 항의. 수업 진행 못함. 사복경찰 투입.
1989년 09월 04일	강원 철원 김화중학교	징계위 소집도 없이 담임 협조 도장만으로 무기정학 처분. 실장, 부실장을 불러 전교조 찬성여부를 가부투표로 물어봄
1989년 09월 04일	광주 대동고등학교	수업 거부로 자습 실시
1989년 09월 04일	전남 담양 창평고등학교	학생 500여 명 신규교사 거부. 신규교사 6명 출근. 학생들 신규교사 거부하고 플래카드, 앰프 준비해 9시부터 시위 시작. 학교 측이 전기를 끊어 학생들 건물 안으로 진입,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폭행. 학생 옥상 투신 시도. 과학실 점거 농성하다 오후 8시 30분 교사들에 의해 강제해산
1989년 09월 04일	전북 임실여고	8시 30분~14시 30분 농성. 460명 가두진출 시도. '공권력을 동원 주동자 엄벌하겠다'는 협박에 해산
1989년 09월 04일	전북 정읍 배영중고	학생 500명 교감과 교사의 징계에 항의 학생?교사 침묵시위(운동장 교실에서)
1989년 09월 05일	광주 광고협	전남대 5?18 광장에서 13시부터 '참교육 실현 및 전교조 지지와 학원 탄압 분쇄 결의대회' 광주시내 17개교 5000여 명 학생들 오전 수업 거부하고 경찰의 원천봉쇄 뚫고 모임.
1989년 09월 05일	전북 정읍 배영중고	수업 거부 농성(9시~11시)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9월 06일	서울 단대부고	1, 2학년 '참교육을 믿습니다' 리본 패용. 2학년 5반 5교시 수업 거부. 7교시 1, 2학년 총회 주관(학생회). 학생 200여 명 서명 받음. 1500여 명 강당에서 집회, 회장단 재단이사장 면담 요구.
1989년 09월 06일	인천 세일고등학교	원종찬 교사 재심위원회 개최. 2학년 전면 수업 거부. 1, 3학년 부분 수업 거부. 교사들 사무실 점거. 재심에 대한 항의 농성.
1989년 09월 07일	제주 성산수고	학생 60명 1개학급 수업 거부
1989년 09월 08일	강원 정선여고	해직교사 징계에 항의하여 학생 100여 명 대체교사 수업거부, 교무과장은 "계속 거부하면 휴교령 내리겠다" 협박
1989년 09월 08일	광주 옥천여상	1, 2학년 800여 명, 8시 40분 시교위 앞 집결. 경찰과 대치 일부학생 연행. 학교로 돌아와 사학비리 척결 등 요구하며 농성
1989년 09월 08일	서울 단대부고	학생 2500여 명, '선생님 사랑해요' 리본 패용. 민주동문회 학교 앞 유인물 배포. 1명 경찰에 연행.
1989년 09월 09일	광주 광주여상	학생 500여 명, 징계 교사 출근 저지에 항의, 10시부터 교장실 앞 농성
1989년 09월 09일	광주 동아여고	3학년 1반, 3학년 4반 해직교사 집에서 수업
1989년 09월 09일	광주 죽호학원	학생 70여 명 금호관에서 48일째 농성중
1989년 09월 09일	부산 용인고등학교	교장이 단독으로 부고협 의장 황순주를 시교위에 퇴학 보고함. 이에 학생들 1800여 명이 9시 40분~12시 30분 징계 항의 농성
1989년 09월 09일	전남 영암여중	체력장 반던 3학년생 220명, '임시교사 물러가라', '징계철회' 요구하며 농성, 2명 입원
1989년 09월 09일	전북 정읍 배영중고	학생들 교감과 박병훈 교사 징계 항의 성명서 발표
1989년 09월 09일	제주 대정중학교	해직된 김영희 교사 학급 2명, 침묵수업 주도 혐의로 교장, 육성희 임원이 구타. 학생(2학년 2반)들, 수업 거부.
1989년 09월 10일	전남 영암여중	수업 거부 중 11시에 집단조퇴, 학부모 200명, 서명으로 학교 측에 해직교사의 3개월간 수업 보장 요구
1989년 09월 12일	광주 동아여고	신규 교사 출근 저지, 교사들의 구타로 학생 실신
1989년 09월 12일	전남 곡성 옥과고등학교	수업중에 전교조에 대해 질문했다고 화학교사가 학생 구타, 병원에 입원. 전교생 1500여 명 11시부터 항의 농성. 3학년 시험 거부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9월 12일	전북 정읍 배영중고	학생 전체와 선생님들 규탄집회 갖고 11시 30분경 교문진출 시도, 경찰과 투석전 벌여 학생 30여 명 부상
1989년 09월 15일	서울 시흥고등학교	민주동문회 하루차집. 해직교사, 재학생 만남의 날 행사. 학교 앞 유인물 배포. 동문 2명 연행.
1989년 09월 16일	광주 서북	광주 서북서에서 광고협 의장 강위원(서석고, 3년)과 광고협 기획부장 김일수(대동고, 2년) 군 구속.
1989년 09월 19일	경기 일산중고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던 일산중고 유민수(부학생회장) 군을 고양경찰서 형사가 수갑을 채워 연행함.
1989년 09월 19일	경남 마산여상	동문 100여 명 징계위 열리자 교문 앞 농성
1989년 09월 19일	광주 대동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 광고협 기획실장 김일수 군 구속영장 발부 항의 시위
1989년 09월 19일~21일	경남 거창고등학교	학생 50여 명, 탈퇴 교사 재가입 요구하며 3일간 단식농성
1989년 09월 1일~6일	서울 시흥고등학교	스프레어로 “그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등 낙서(계단, 진입로)
1989년 09월 20일	광주 대동고등학교	시내 곳곳에 대자보 부착. “교장의 학내 폭력에 대한 조선일보 왜곡 보도는 근거 없다”
1989년 09월 20일	광주 서석고등학교	19일 대의원대행사 학생회장 임희용 연행에 항의 결의. 20일 4교시 후 전교생 귀가.
1989년 09월 20일	인천 세일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2500여 명 9시 30분부터 2시간 농성, 전체 학생 수업 거부, 귀가
1989년 09월 24일	전국 각지	참교육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
1989년 09월 25일	전남 곡성 옥과고등학교	학생 구타에 항의하며 수업 거부 농성. 남녀학생 50여 명 혈서.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씀.
1989년 09월 25일	전남 순천 효천고등학교	3개반 학생 180여 명 신규교사 수업 거부
1989년 09월 26일	전남 순천 효천고등학교	1, 2학년 신규교사 수업 거부
1989년 09월 27일	경기 여주상고	해직교사 학교 방문 저지에 항의하며 1교시 후 2개반 학생 100여 명 전원 귀가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09월 28일	전북 정읍 배영중고	최용락 군 외 5명, 서울 평민당사에 들어가 김관옥 교감에 대한 징계철회 요구하며 농성
1989년 09월 30일	경남 마산 경남대	경남대에서 고등학생 200여 명 참가한 가운데 '마산?창원지역 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결성식
1989년 09월 4일	광주 광덕고등학교	학생 햇불 시위, 출입문에 "수업을 거부하오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착
1989년 09월 6일	대전 명석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제작한 티셔츠(가슴에 사진 새기고 '참스승은 어디에'라고 씌)를 입고 등교
1989년 09월 7일	서울 정릉여상	화장실과 게시판에 '선생님들 보세요'라는 유인물 부착. 시간 강사제 폐지, 학생자치제 실시 요구.
1989년 10월	전북 김제지역 고등학생	고등학생 주최 1일 찾집
1989년 10월 05일	광주 대동고등학교	학생 대표 교장 면담 '교장 퇴진, 면직 교사 시험 출제 및 수업' 요구. 학교 측이 거부하자 3학년 전체 시험 거부
1989년 10월 11일	광주 대동고등학교	신규 교사 10명 출근. 20개 반 수업 중단
1989년 10월 11일	서울 영광여고	정철호 교사 등 3명 이임인사 시 학생들 부당징계 철회 유인물 배포. 점심시간 단식. 부당징계 철회 유인물 배포. 점심시간 단식. 부당징계 철회 진정서를 전체학생 80% 참가한 가운데 작성
1989년 10월 25일	인천 세일고	세일고생 3명, 노동자대학으로부터 포스터를 장당 50원씩 받기로 하고 시내에 부착 작업 중 사복형사에 끌려가서 심한 구타와 조사
1989년 10월 28일~29일	전국 각지	참교육 걷기대회 개최
1989년 11월 01일	서울	서울지역고등학생단체연합준비위원회 주최로 학생주간 선포식 및 우리 노래 경연대회 개최. 경찰, 행사 장소인 고려대를 봉쇄.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통보. 경찰의 안전 귀가 보장에 따라 해산하였으나 약속을 어기고 45명 연행. 연행 학생들을 좌경용공세력으로 유도심문 하라는 지침서 하달.
1989년 11월 03일	광주 광주여상	3학년 2개반 120명 신규교사 거부하며 시험 거부
1989년 11월 04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학생의 날 기념식에 경찰을 동원하여 협박. '학생의 날 기념식 및 학생 탄압 규탄 대회를 자체적으로 치름. KSCM 소속 학생 20여 명 기독교회관에서 항의 밤샘기도회.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11월 05일	광주	전교조 광주지부 '학생의 날 대동 한마당, 구속 학생 석방을 위한 민중가요 부르기 대회'에 학생 600여 명 참가
1989년 11월 05일	서울 고척고등학교	강서남부지회 소속 조합원 60명, 학생징계에 항의, 고척고 방문하여 교장면담. 부당징계 철회 요구.
1989년 11월 08일	서울 고척고등학교	서울 고척고 민주동문회 30여 명이 학교에 항의 방문함
1989년 11월 10일	서울 고척고등학교	11월 1일 학생의 날 참가 학생 징계(11명)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서명 운동, 학교장에게 항의 편지 쓰기 시작.
1989년 11월 10일	전남 곡성 옥과고등학교	학생 1천여 명 등교 거부, 전남지부 집행부 10여 명과 옥과고 해직교사 5명이 학교 방문, 교장과 면담하여 무조건 징계 철회 요구.
1989년 11월 14일	전남 곡성 옥과고등학교	전남 옥과고 동문대표와 해직교사가 참가하여 정상화를 위한 대책 논의 후 학생징계 철회 합의. 학생 1400명 중 800여 명은 등교 거부.
1989년 11월 15일	서울 고척고등학교	서울 고척고 1, 2학년 1000여 명. 점심식사 후 하교시간까지 농성하며 '학생의 날 문화행사에 참여한 11명에 대한 징계 철회 요구'
1989년 11월 17일	경남 진해여상	학생 200여 명 교사 10명과 교무실에서 농성
1989년 11월 17일	전남 곡성 옥과고등학교	전남 옥과고 학생 징계 철회를 위해 해직교사와 동문대표가 협상해 옥과고 학생 징계 완전 철회시킴.
1989년 11월 20일	경남 진해여상	경남 진해여상 1, 2학년, 부당징계 철회 요구, 700여 명 수업 거부하며 농성
1989년 11월 21일	전북 고창고등학교	학생 800명 교내 시위, 농성을 벌임. 학생회 자주화 쟁취(학생회칙개정위원회 구성, 학생회비 예결산 공개, 자유 동아리 인정 약속받음)
1989년 11월 21일	충남 대천여고	학생의 날 행사에 참여한 대천여고 12명에게 징계 내려짐. 학생 900여 명, 징계철회요구 서명.
1989년 11월 22일	경남 진해여상	경남 진해여상 학생 900여 명, 심영일 교사 부당해임 철회 요구하며 운동장에서 농성
1989년 11월 22일	서울 평민당사	광고협 의장 이형준(광덕고 3), 부고협 의장 황순주(용인고 3)이 '구속 학우 석방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1989년 11월 22일	충남 대천여상	학생의 날 행사 참가로 징계 내려진 대천여상 학생 징계 철회됨.
1989년 11월 23일	경남 진해여상	학생 300명, 27일부터 등교 거부 결의

날짜	학교명	내용
1989년 11월 24일	경남 진해여상	진해여상 1~2학년 500여 명 학생, 수업 거부.
1989년 11월 25일	경남 진해여상	진해여상 300여 명 등교 거부 결정
1989년 12월 01일	부산 부고협	평민당 학생 단식농성 지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1989년 12월 18일	서울 영광여상	분회 결성시 지지서명했던 교사 3명에게 징계 엄포. 강당에서 농성. 징계 부당성 지적하고 학내민주화 요구하는 성명서 교실에서 배포(1000부)
1989년 12월 20일	전남 곡성 곡성지역고교 생협의회	전남 곡성 곡성지역고교생협의회 150여 명 '곡고협의 밤' 개최.
1989년 12월 20일	서울 대원고등학교	니승일 교사 직권면직(12월 16일)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유인물 배포(학생회)
1989년 12월 22일	서울 대원고등학교	보충수업 무기 연기되자 400여 명 교문 앞 농성

유윤종, 「기획 -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 ④」 공안탄압 속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 공안탄압, 정점에서 맞이한 위기」, 인권오름 제 18호, 2006. 08. 22.

[기획 -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 ④]

공안탄압 속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공안탄압, 정점에서 맞이한 위기

유윤종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거센 탄압 속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해 1989년 정점을 이루었던 청소년들의 저항은 1990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학교의 탄압은 끈질겼고, 청소년들의 징계철회 투쟁으로도 그것들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학생회와 동아리에 대한 일상적 탄압이 가해졌다. 학생회실이 없어지고 동아리가 해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학생회와 동아리뿐 아니라 학교 안의 소모임들도 점점 위축되어 갔다. 박명희 씨(‘참배움일꾼청소년회’ 활동)는 1991년부터 1994년 사이 이루어진 청소년 활동에 대한 탄압을 이렇게 회상했다. “동아리든 소모임이든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그 영향력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게 됐다. 주도적인 학생들이 졸업하고 학교에서는 다시는 그런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경계하며 학생들의 활동을 축소하고 규제했다. 학교의 규제는 강했고, 남아 있던 학생들로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 김수경 열사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계속되는 탄압의 결과 1990년 당시 김수경 씨(대구 경화여고 3년)가 자살이라는 최후의 저항 방법을 택하

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수경 씨는 전교조 교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맞기도 하고 욕설을 듣기도 하다가 결국 유서를 남긴 채 투신했다.

새로운 길을 찾아

억압 속에서도 참교육 운동 등을 경험하면서 사회와 교육 문제에 눈뜨게 된 청소년들은 잘못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길을 모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중고등학생 활동가들은 더 튼튼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탄압을 피한 비공개 조직들이나 네트워크가 구축된 곳도 있었다.

구로고등학교의 경우, 1990년에 동아리연합회를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했고, 학생회 임원 성적 제한 규정에 불복하고 학생회를 건설, 학교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당시 구로고에서 활동했던 고영국 씨(‘샘’ 활동)는 1989년의 운동 흐름이 1991년에는 제도적인 것을 세우려는 노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구로고에서 활동하던 청소년들은 보충수업비를 선생님들이 부당하게 갈취하고 있음을 화장실에 크게 적어놓으며 보충수업 반대 운동을 벌이는 한편, 각 반을 돌면서 수업개방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1993년 서울 강남 쪽의 여학교들에서는 시험일정 변경, 두발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폐지, 강제 보충수업 폐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과 시위를 벌여 학교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중고등학생들의 활동은 학교 밖, 거리에서도 이루어졌다. 1991년 5월 강경대 열사 관련 시위 현장에도, 그리고 참교육과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김철수 열사 추모 시위에도 고등학생들은 각 단체 단위로, 그리고 학교 단위로 깃발을 들고 참가했다. 강경대 열사 시위 때는 1천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정리 집회를 따로 갖는 모습을 보였다. 1992년에는 18세 선거권을 주장한 ‘민중대통령과 함께 하는 고등학생 선거 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안 활동들이 1989년처럼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학교 안에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고등학생운동을 하다가 졸업한 사람들은 학교 밖에 지역조직의 성격을 띤 청소년단체를 만들어 청소년 활동가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다. 서울 쪽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1991년 관악 지역에 만들어진 ‘참배움일꾼청소년회(참일청)’였다. 참일청은 주로 1989년을 전후하여 참교육운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모인 단체였다. 참일청에 이어 ‘푸른벗’, ‘청소년회 샘’, ‘희망’, ‘나눔터’와 같은 단체들이 생겨났다. 인천의 ‘내일’, 대전 ‘청춘’, 대구 ‘우리세상’ 등도 모두 1989년 ‘참교육세대’들이 만든 단체였다.

이런 지역 단체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과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면서 청소년들을 모으고 활동을 벌였다. 참일청과 같은 경우도 그 모체는 1990년의 ‘청소년문화마당’이었으며, 주요 활동도 모꼬지나 풍물, 만화 등의 문화 분반 활동들로 채워졌다. 청소년회 샘도 그 출발은 ‘청소년 민족문화 연구회’였으며, 분반활동으로 택견, 탈·풍물, 농구, 연극, 노래, 영화감상 등을 운영했다. 청소년들은 그러한 문화활동이나 샘의 “얼다지기” 같은 수련회 등을 통해 청소년단체들에 모여들었고, 나아가 수업개방반대 거리집회나 통일 노래 한마당, 학생의 날 행사나 4.19 행사 등에도 함께하기도 했다.

이처럼 1990년대에 새로 생긴 문화 자치활동 중심의 지역 단체들은 과거 홍사단이나 한국고등학생기독교

운동총연맹(KSCM) 같은 단체들이 맡았던 청소년들을 모으고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무렵 홍사단이나 KSCM 같은 단체들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줄어들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94년 홍사단에서 연 학생의 날 행사 때는 100명의 청소년이 모여서, 1980년대보다 축소된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권혜진 씨(홍사단에서 활동)는 이에 대해 “90년대 초반 생겨난 댄스나 락, 미디어 등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을 수용하는 조직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론과 이념 중심의 단체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무기가 없었던 것이다. 풍물이나 기타, 노래 등(에 눈을 돌려야 했다.)… 90년대 초반은 이런 혼란기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돌아봤다. 홍사단과 달리 참일청, 샘과 같은 지역 청소년단체들은 문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당시 샘에 참가했던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가 탈과 풍물 등을 배우기 위해 처음에 단체에 들어왔다가, 쉬는 시간에 수업개방 문제 등 정치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새롭게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증언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문화 활동 자체만으로는 학벌과 경쟁 교육, 학교 안의 위계와 인권침해 등 당시 청소년들이 처한 교육적, 사회적 억압에 직접 다가서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샘과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학교 안에서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모습들에도 눈을 돌려 자생적으로 학교 안 활동을 시도하기도 했다. 고영국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94년 초까지 세가 많이 늘어났다. 영등포 지역에 있으면서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한 200명 정도 되었던 거 같다. 왔다가 친구들이. … 우리 단체 안에서 자란 애들이 학교 안으로 눈을 돌렸다. 유인물 돌리고 그래서 몇 개 학교에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다. 징계 받을 뻔해서 우리가 가서 학교랑 싸워서 없던 일로 한 적도 있다.”

교외에 주사파 침투?

학교나 정부가 이러한 활동들을 곱게 볼 리가 없었다. 특히 1994년은 김일성 주석이 죽은 해로, 대대적인 공안정국이 조성된 때였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자, 서강대 박홍 총장이 한국에 주체사상파(주사파)가 침투해있다는 색깔물이에 나섰고, 그전까지 멀쩡하게 잘 팔리던 책인 대학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와 같은 책이 이적표현물로 기소되고 범민련, 한총련 등이 전면 수사를 받는 등, 이른바 마구잡이 ‘주사파 사냥’이 벌어졌다.

‘주사파 사냥’ 바람은 청소년들도 비껴가지 않았다. 1994년 8월, 고등학생들이 만드는 잡지 『새날열기』에 「올바른 통일운동의 방향과 목표」라는 글을 실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편집장 정동익 씨를 조사했고 그 글을 투고한 민중정치연합 이미연 씨를 연행했다.

본격적인 청소년 공안사건은 바로 1994년 9월의 ‘샘 사건’이었다. 경찰은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고등학생들을 불법시위에 동원한 “주사파 조직 ‘샘’”의 구성원들을 검거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장이었던 고영국 씨와 김용우 씨, 문영기 씨를 구속했고 추교준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부회장 최은철 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이 사건으로 동일여고, 영등포여상을 비롯하여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조



▲ 1994년 9월 9일자 동아일보. “고교에 주사파침투”라는 큰 표제가 눈에 띈다.

사를 받았다. 그리고 교육부는 9월 10일 “고교생에 대한 의식화 예방 특별지도대책”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여 각 학교에서는 동아리 학생들에 대한 감시 강화, 유인물 살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전개되었다.

샘 사건으로 조사 받은 청소년들은 수사관들에 의해 주체사상을 교육 받았다고 쓸 것을 강요당했고, 또 수사관이 지정하는 책을 읽었다고 받아 적으라고 요구받기도 했다. 그리고 샘에서 주최한 장기수 초청 강연에서 김일성이 나뭇잎을 타고 강을 건넜다는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거나, 샘 안에 택견 분반을 체제 전복을 위한 무장조직으로 기록하는 등 코미디에 가까운 조작 수사가 벌어졌다. 샘 사건은 동일여고에서 학교비리를 담은 기사를 실은 신문 『감초들의 이야기』를 탄압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등 계속 번져갔다. 그리고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샘 구속자 3명은 공소 제기되어,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적표현물 소지 및 탐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샘 사건을 터뜨린 것에는 분명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고영국 씨는 당시 뭔가 사건이 터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 200명 정도 친구들이 왔다가고, 학교 안에서 사건도 나고 수업개방 반대 집회 참가했다가 잡혀가고….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있었다. 미행도 많이 붙어있었고” 정부는 샘을 비롯한 지역 청소년단체 활동이 고등학생 운동을 계속 만들어내고 문제를 일으키자 이를 일소시키기 위해 공안정국을 이용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여기에는 공안정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있었다. 당시 샘 사건은 “고교에 주사파 침투”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으며, ‘주사파 사냥’ 분위기를 강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정부의 노림수는 적중하여 샘 사건은 다른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많이 위축시켰다. 박명희 씨는 “샘 사건이 터진 다음에 다른 단체에까지 불똥이 튈 소지가 정말 많았다. 연행되지 않기로 마음 먹고 단체 문을 닫고 피했다. 1년 동안 단체 활동을 모두 최소화시켰었다. 민가협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문의하며 대응했다.”고 말했다. 구정인 씨도 “샘사건으로 고등학생운동이 외장창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둔 친구들도 진짜 많았고 학교에서는 더 이상 ‘샘’이라는 이름을 언급할 수도 없을 정도였으니까. 이 때문에 개별학교 안에 운동도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 동일여고 학생들이 찍은 신문 ‘감초들의 이야기’. 특히 “고발합니다” 코너가 학교의 심기를 거슬렀다고 한다. 샘 사건에 연루되어 ‘감초들의 이야기’를 만든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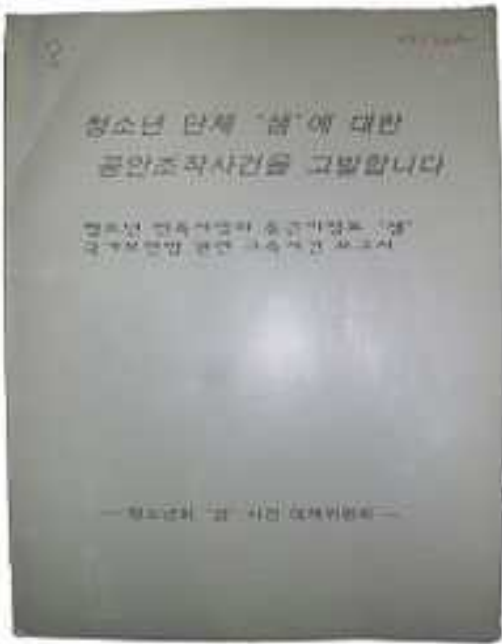
청소년인권운동으로

‘샘 사건’ 이후, 사실상 1980년대의 운동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고등학생운동의 조직적 흐름도 약화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살아남은 단체들이 연대하여 2000년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을 출발시켰지만 이미 청소년 대중 내부에 있던 운동의 ‘흐름’들은 많이 사그라진 상태였다. 비록 1980년대부터 이어져온 흐름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지만 샘 사건으로 대표되는 탄압은 결국 청소년운동을 위기로 몰아넣는 데는 성공했던 것이다.

이후 전개되는 청소년들의 운동은 최우주 씨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인권’이라는 새로운 운동프레임을 통해

분출된다. 1980년대나 샘 사건 때도 ‘인권’이 이야기되긴 했으나 이는 주로 청소년들의 운동에 대한 탄압을 막아낼 때 제한적으로 쓰이던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95년 이후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인권이 광범위한 운동의 근거가 되어 유엔아르틴/청소년권리조약/아동권리협약이나 헌법, 세계인권선언 등이 인용되기 시작했다. 곧 과거 청소년들이 두발자유를 교육민주화와 군사문화 척결을 위한 과제로 삼았다면, 95년 이후 운동에서 두발자유는 청소년 인권 그 자체를 요구하는 상징적 과제로 제기된다.

결국 94년까지의 운동이 청소년인권운동의 ‘단초’를 안고 있었다면 95년 이후 운동은 ‘본격적인’ 청소년인권 운동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다. 이는 사회운동 전체에서도 민주화운동이라는 거대담론이 1990년대부터 여성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운동으로 분화해갔던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95년 이전의 고등학생운동은 고등학생들이 했던 ‘변혁운동’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청소년운동’이라는 말은 95년 이후에나 쓰기 시작한 말이다. ‘청소년’을 주제로 청소년 사안을 가지고 한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구정인 씨는 평가했다.



▲ 청소년회 ‘샘’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 ‘샘’ 소개, ‘샘’ 사건 경위, 성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회 「샘」 사건 대책위원회, 「[기획 -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 ④] (자료) 청소년회 「샘」 사건 대책위원회 보고서 중 일부 - 현실 속에서 탄생한 청소년운동 조직 청소년회 「샘」, 인권오름 제 18호, 2006. 08. 22.

[기획 -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 ④]

〈자료〉 청소년회 「샘」 사건 대책위원회 보고서 중 일부

현실 속에서 탄생한 청소년운동 조직 청소년회 「샘」

청소년회 「샘」 사건 대책위원회

청소년회 「샘」은 참교육과
민족문화 계승을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청소년회 「샘」의 자취는 89년 전교조 결성과 1500여 선생님들의 해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9년! 학교와 교육을 바로 세우시겠다던 정의롭고 용기있던 선생님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학생들은 쫓겨나는 선생님들을 보며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교육현실은 학생들을 입시와 취업의 노예로 만들어 갔고 학교는 인간교육과는 더욱 멀어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해직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해 전국에서 50만의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복직과 참교육 실현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 참교육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고 우리의 교육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입시와 취업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교실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입시와 성적에 대한 중압감은 여전히 많은 학생들을 자살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160cm-45kg이라는 취업 기준 역시 그대로 학교로 내려져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과 인격이 성적과 가치있는 삶이 혼돈되는 교육현실은 수많은 학생들의 가슴속에 깊은 상처와 친구들간의 경쟁심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대한 입시학원, 취업학원이 되어버린 학교속에서 학생들은 지도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학생들의 인격도, 교육의 가치와 의미도 땅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바른 인간 교육, 참교육을 목마르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회 「샘」 은 출발합니다.

- 인문고의 교육현실

입시교육은 인문고 학생들의 학창시절을 경쟁과 성적에 대한 고민으로만 채워 놓았습니다. 항상 학교가 주장하듯이 전인교육, 올바른 인간을 만드는 인간교육은 이미 학교에서 뒤전으로 밀려난 채 학교는 거대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적은 학생들의 모든 것을 규정하며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도, 반장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성적으로 결정되어 왔던 것처럼 이미 학생들의 인격은 성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교육으로 인해 단순히 지도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학생들은 입시학원에 나가는 것 이외의 동아리활동, 학생회활동 등의 모든 자치활동의 길이 차단된 채 짐차로 입시기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상문고 교육비리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입시교육이 낳고 있는 병폐는 이미 한두 학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학생들에게 강요되는 경쟁과 성적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3일에 1명씩의 학생들을 자살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 상고의 교육현실

키작으면 전교 1등도 취업할 수 없다는 상고, 특히 여상 학생들의 처지는 그야말로 암담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학원까지 마치고 나면 밤 9시가 넘는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생활은 인문고 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취업위주, 자격증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은 부실한 학교교육으로는 어렵도 없는 주산, 무기 2급, 영타, 한타 수동타자 3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늦게 까지 학원을 다녀야만 합니다. 이런 4가지에 이르는 현실에도 맞지 않는 자격증들이 사회에 나가면 별반 쓰일 곳이 없다는 사실은 선생님들도 알고 학생들도 알지만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 취업을 하려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한과목에 3만원씩이나 하는 학원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상고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한달 9만원의 학원비는 대단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자격증을 다 갖추는 학생은 한반에 1/3이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갖추어도 160cm-45kg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학생들은 절대 대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는 것 또한 여상 학생들의 처지입니다. 하지만 상고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3년을 오로지 취업 준비에만 바쳐온 상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인문고 취업반 학생들보다도 못합니다. 이런 교육현실은 자신의 특성없이 취업만을 위한 일률적 인스턴트 교육속에서 ‘일회용 자판기의 커피’같이 변해가는 상고생들에게 깊은 자격지심을 갖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상고 학생 모두가 대학을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적때문에, 집안 형편때문에 상고에 들어온 학생들은 항상 상업고등학생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시달리며 사회에 나가 좀더 좋은 대접이라도 받아보려고 대 학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취업만을 위해 짜여진 학교교육은 학생들을 하루 하루 의미없는 자격증 공

부에 매달리게만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의존한 자격증 교육,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과목에 대한 수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업고등학교의 취업교육은 학생들의 생활에서 희망을 앗아가고 있으며 학생이라기 보다는 선생님들이 늘상 이야기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훈련만이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추천서를 써줄 때마다 학부모에게 사례금을 받는 등의 빈번한 교육비리들은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려 학교 취업율에 지장을 주지 말자는 선생님들의 말에 감추어지기 일쑤이고, 선생님들에게 찍힌 학생은 절대 취업할 수 없는 학교의 현실은 학생들을 말 못하는 병어리로 만들었으며 때문에 학생들은 동아리활동조차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가며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자격증과, 취업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 공고의 교육현실

공고의 2+1제도에 의한 현장실습교육의 문제는 이미 언론보도에 의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한해 7만명 정도의 공고 졸업생 가운데 산업현장에 남는 학생의 수가 불과 30%뿐이고 나머지 70%의 학생이 서비스업이나 유흥업으로 빠져나간다는 지금의 현실은 공고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공고를 택한 학생들은 3년간의 교육속에서 대학진학의 가능성도 인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한 채 단순노동을 하는 ‘공돌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이라는 반교육적인 1년간의 현장 실습제도를 통해 고등학교에서의 2년간 짧은 교육과정을 거쳐 1년간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현장에 투입돼 아무도 없는 빈 공장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2+1제도는 정상적인 공고 교육과정의 축소일 뿐이며 이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 3학생들이 학생도 훈련생도 아닌 채 학교측에 제출한 서약서에 발을 묶어 열악한 작업환경과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힘든 단순노동으로 비어 있는 공장을 채우려 팔려간 1회용 막일꾼이 되었습니다.

공고교육의 목표는 3년간의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든 부족한 현장의 인력난을 채우는 미봉책으로 되었으며 오늘도 공고 학생들은 희망없는 암담한 학교 교정과 공장에서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 「샘」은 향락, 개인주의가 판치는 지금의 청소년 문화 현실에서 또한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향락, 퇴폐문화의 침투는 지존파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존파의 살인 행각은 그바탕에 우리 사회에 대한 극한 증오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굶어대로 굶아온 우리 사회의 병폐를 드러낸 일이였습니다. 입시와 취업경쟁을 강요하는 교육현실은 억압받는 청소년들 사이로 퇴폐, 향락문화를 빠르게 퍼져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입시 경쟁 교육은 학생들을 개인주의의 길로 인도하며 학교에서의 공동체 문화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학생들의 민족문화 계승에 대한 요구마저도 불온시하며 학생들을 입시와 취업의 경쟁속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학교안의 락그룹은 인정되도 풍물이나 탈춤과 같은 민족의 문화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바람은 그 시작에서 부터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활발했던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의 시간들은 방과 후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의 민족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외래문화만이 친숙해져 학교는 민족문화 말살의 일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민족과의 단절

학교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시, 취업교육으로 인해 학생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향락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은 학생들에게 민족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알려주기 보다는 청소년들을 국적없는 외래문화의 홍수속으로 내몰면서 민족의 소중함을 잊게 하고, 나만을 위한 입시경쟁과 취업이라는 개인주의적인 인생관을 설파하고 있음으로 해서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의 학생들은 친구와 학교와 나라로부터 단절되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취업, 입시경쟁속에 파묻힌 이기주의자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16살의 나이로 독립만세를 외치셨던 유관순 학생, 4.19당시 결코 어리지만은 않은 학생의 나이로 독재를 반대하는 거리로 가장 용감하게 달려 나셨던 선배학생들과 같이 민족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민족의 일에 내 일처럼 달려나서는 정의로운 청소년이야말로 우리시대 가장 잘된 청소년상인 것입니다. 당장 수입개방이라는 위협에 민족의 생존권이 위기에 직면하였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매국노 이완용의 자취를 따라 배우는 일이며 이 것을 강요하는 교육속에서는 민족이 앞날을 짊어질 동량이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래문화 척결과 민족문화 계승, 이것은 청소년회 「샘」이 탄생하게된 또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청소년회 「샘」은 이런 척박한 비인간적인 교육현실과 향락, 외래문화 일색인 심각한 청소년 문화 현실에서 그 고민을 출발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개인주의 문화와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배격하고 참교육 실현과 민족문화 계승이라는 청소년들의 절박한 요구를 안고서 탄생하였습니다.

정리/고근예,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⑤] '8090' 중고등학생운동을 말한다 - 중고등학생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정리하는 좌담회」, 인권오름 제 22호, 2006. 09. 20.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⑤]

‘8090’ 중고등학생운동을 말한다

중고등학생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정리하는 좌담회

- 일시: 2006년 9월 13일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 참가자

강주성 (80년대말 90년대초 KSCM(한국고등학생기독교총연맹) 지도간사, 푸른나무 무크지 기획, 푸른 나무이야기모임)

구정인 (88-90 미림여고 직선제 활동, 90년대 참배움일꾼청소년회 활동)

권혜진 (87-88 석관중 직선제 활동,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

손영호 (87-91 고등학생지도)

유윤중 (현재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전누리 (현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 사회 : 양돌규 (88년 벚사랑, 88-91 KSCM 활동)
- 정리 : 고근예

*87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중고등학생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정리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양돌규) 우선 87년을 전후로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다.

구정인) 87년에 중3이었고 상도여중에 다니고 있었다. 상도여중은 숭실대 바로 옆이었는데 87년 6월에 한 달 동안 데모를 내내 하니까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었다. 선생님들도 수업만 들어오면 어떻게 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했던 것 같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상도여중에 전교조 선생님이 많았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한편으로 입시에 대한 부담도 컸다. 권위적이고 아주 억압적인 학교 분위기, 그리고 성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분위기에 대항해 수업거부를 했던 기억도 있다.



권혜진) 87년 6월 항쟁이나 이런 과정들이 과연 고등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게 핵심인데, 분명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당시 “군정종식”이라는 포스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사실 영향이 있었다. 우리가 군부독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선동적 포스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반했었다. 대통령도 직선제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럼 학생회장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

강주성) 그때 노동운동이라든지 학생운동은 명확하게 계급계층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고등학생운동이 독자적으로 전체 사회에서 운동세력의 하나로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이전에, “고등학생들이 어리다.” “청소년은 주변인이다.” 이런 걸 많이 배운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이러한 개념규정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교육이 집단적 교육체제로 시작되면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 교육들이 내 머리 속이나 당사자들 머릿속이나 누구나 다 있었던 때다. 이러한 대상을 가지고 과연 이게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집단이 스스로 자기 운동 논리와 운동 힘들을 조직화해서 전체 운동의 한 부분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다.

손영호) 87년 같은 경우는 내 기억에 두 가지였던 거 같다. 그때 가장 큰 이슈가 사회민주화라거나 운동의 폭발적 성장과 고등학생 관련해서는 그 당시 연세대에서 있었던 86년 그 의식화편지 사건이다. 그게 의외로 좀 대학 내에서는 파장이 컸다. 이유는 대상이었다. 그전까지는 의식화 대상이라고 하면 대학생, 농민, 노동자, 뭐 시민.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등학생한테 넓혀졌던 것. 그 당시 내용은 별게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시도한 자체가 신선했다. 그걸 겪으면서, 사회민주화운동 흐름에서는 청소년들을 의식화대상을 보는 그런 경향들이 하나 있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교육민주화 운동이 가장 활발할 때였다. 대중운동 전 단계에서 소규모 운동이라든지 학내 교사 중심의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다. 85년-87년 오면서 급격히 늘었던 거 같고 교육민주화운동 측면에서는 교육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교사들이 많이 고민했던 거 같고, 또 한 측면에서는 당사자인 학생들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 구정인

권혜진 강주성씨나 손영호씨는 당시에 지도하러 들어오신 건데, 과연 고등학생들 삶의 문제로만 들어왔는가? 고등학생을 지도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운동의 재생산을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

강주성 있었다. 여하간 운동은 영역과 지평이 넓어야 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고등학생들을 사회변혁의 한 세력이라고 본 거다. 그런데 그전 선배들은 고등학생들을 조기교육의 장으로 봤다. 그들의 기본적 관점은 고등학생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활동가의 재생산구조로서의 고등학생운동, 그런 관점이 많았다. 나와 손영호 씨는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나는 그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생들이 학내민주화라거나 자기 권리, 그리고 일련의 활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의식이라거나 인권에 대한 의식이라거나, 자생적인 운동적 자생력을 갖고 독자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 바랬었다.

권혜진 그때는 대학에 진학하면 용서가 되었는데, 안 가면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문화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 관점을 가진 선배들에 의해 고등학생운동이 그 자체로 발전하는 데 저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강주성 그건 선배의 한계라기보다는 그 시기 운동적 한계였다. 그때는 모든 운동판이 그랬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나마 진일보했다고 보는 건 그전에 고등학생운동한다는 고등학생을 보면, ‘대학생2’였다. 그건 고등학생운동이 아니라 대학생에게 영향을 받은 고등학생 몇몇이 그룹화되어서 운동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 전에는 소홀하게 봤던 직선제, 학내민주화, 보충자율 학습 철폐, 문제교사에 대한 항의, 이런 것들은 대학생에게 교육받은 친구들이 관심이 없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끌어가고자 했던 것들은 일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서고련, 고등학생운동이 있음을 알리다

양돌규 87년 대선 이후 구로구청에서 투표함을 가지고 농성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서고련이 결성이 되었고

명동성당에서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서고련 활동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한다면?

권혜진 사실상 서고련이 무엇을 외쳤는지가 많이 알려지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서고련이라고 하지만 서고련에 맞는 대표성을 갖고 모인 것이라기보다는 소모임 대표들이었고 서고련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조직구성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러한 모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 그리고 당시 고등학생운



▲ 왼쪽부터 양들규, 유윤종

동을 하던 사람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운동을 하던 과정에서 한곳에 모일 수 있던 최초의 시도가 아니었는가 싶다.

강주성 연합체, 그런 간판을 걸 만한 조직 내용은 아니었고 이후 많은 친구들이 서고련이 갖는 운동 행태나 사고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이 공식적으로 간판을 걸고 사회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고등학생운동사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정인 세상에 고등학생운동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선포한 듯했다. 물론 대학생이 지도하는 너무나 대학생스러운 그런 거, 굉장히 낮설고 굉장히 운동권 같은 느낌을 많이 줬지만 그때 고등학생운동하던 친구들에게는 '꿈의 서고련'이었다. 우리도 저런 걸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를 90년대 초반까지도 했었다. 서고련은 명동성당에 잠깐 모여서 그 이후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게, 여러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원인인 듯했다.

양들규 서고련의 문제가 서고련의 한계였나 고등학생운동의 한계였나?

강주성 둘 다다. 서고련의 한계란 게 전체 운동의 한계가 나타나는 건데 고등학생운동이 그런 간판을 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대학생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손영호 87년 대학로에서 가졌던 학생의 날 행사와 홍대에서 한 자살학생 위령제가 기억에 남는데,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동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서고련에 대한 기억이 많진 않은데 명동성당이라는 당시 상징적인 시위장소에 고등학생까지 왔구나하는 정도의 생각이었다.

양들규 최근에 서고련 활동했던 사람들은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서고련 깨지고 나서 88년초에 어디로 갈 것이냐, 서고련 멤버들 안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서고련을 가져가지는 쪽과 서고련을 가져갈 필요 없이 학교로 들어가지는 쪽이었다고 하는데, 계속 서고련을 이어가지는 쪽이 아까 말한 88년 7월 17일 자살학생 위령제를 주최한 그쪽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 서고련이 전과 같은 선도적인

정치투쟁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대중운동의 길목

유윤중 “대통령부터 반장까지 직선제로.”라는 구호도 있었고, 당시는 학생회 직선제 요구가 굉장히 대중적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직선제 학생회에 대해 학생들의 호응은 어떠했나? 요즘은 학생회 법제화를 하자고 해도 학생들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다. “맞는 말이야” 싶어 하면서도



▲ 오른쪽부터 손영호, 강주성, 권혜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다. 학생회 직선제는 과거엔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리고 간선제랑 직선제랑 차이가 궁극적으로 무엇이었는가? 당시 직선제 학생회가 제기된 게 그냥 대통령도 직선제니까 우리도 하자고 제기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기가 되었는가?

구정인 딱히 직선제라기보다는 일단 대학교도 그렇고 80년대 중반에 학생회가 학도호국단에서 바뀌면서 학생회에 대한 의미가 부상된 것이 고등학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일단 직선제를 하면 유세를 해야 하고 공약도 있어야 한다. 당시 학교에서는 써클도 못 만들었고 학생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직선제를 하면서 유세를 하고 교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어떤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을 내걸고 유세하는 것 자체가 큰 파장이었다.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직선제와 간선제를 인식하는 건 민주냐 반민주냐의 느낌이 강했다.

권혜진 학생회 직선제는 제일 싸우기 좋은 명분이었던 것 같고 당위적인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 직선제 학생회가 어떤 의의를 갖느냐고 평가하는 것은 최근에 주장되는 학생회 법제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제 간선제 학생회장과 직선제 학생회장의 권한 자이는 별로 없다. 그런데 지금 만약 학생회 법제화를 통해 학생회가 예산권을 갖고 운영위원회 참여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권한을 가져서 공약이 헛공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민주적 학생회 건설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듯하다. 사실상 우리는 직선제는 이뤄냈지만 내용은 이뤄내지 못했던 면이 있다.

강주성 개별 학교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을 거 같다. 어쨌든 간에 88년도에 직선제 공청회를 KSCM에서 했는데 그때도 학생들이 많이 왔다. 그 이후에 직선제 학생회가 실제 이뤄진 학교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일단 고등학생운동이 운동으로서, 대중운동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중들의 권리의식들을 함양하고 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손영호 현재 직선제가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건 권익을 위한 활동들이 활발하지 않아서 나오는 이야기 같다. 사실 당시 직선제가 이슈화된 것은 뭔가 주장하고 권리를 찾으려고 보니까 대표가 필요했고 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생각하게 된 것이다.

구정인 학생회 법제화를 갖추는 것과 학생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이 준비되어 있는가의 문제와는 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한다. 그냥 자기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그런 민주적인 훈련 과정에서 주체들을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운종 나는 학교 다닐 때 생각을 좀 다르게 했다. 소모임에서 학생회장과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학생이 꼴통이었다. 그럼 우리가 학생회보다 학생 여

론을 더 받아버리겠다, 그러면서 전단지 뿌리고 학생회보다 우리가 힘 센 조직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좀 뭐랄까, 꼭 우리가 제도적 대표성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지지라는 것은 투표해서 뽑힌 것과는 상관 없다, 지지는 그때그때 받아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

양들규 시간의 흐름 만큼이나 학생회나 운동의 모델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른 거 같다. 대의나 대표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조직화를 역동적으로 해나가는, 운동과 흐름들을 중심으로 조직화의 상들을 가져 나가는 것 역시도 괜찮은 게 여기는데, 과거라면 그런 상상이 잘 안 되었지만 그게 요즘의 그것, 몸으로 짝짝 달라붙는 조직화의 상이 아닐까 한다.

구정인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처음 서고런 만든 것도, 당시 최고 조직은 전대협이었다. 학생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아마 그런 상이 있지 않나. 학생회라고 하면 당연히 생각하는 게 학생들 요구를 대변하는 훌륭한 조직이라는 상이었다. 지금은 대학 학생회도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모든 학생회가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는 훌륭한 조직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때는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학생회를 많이 해서 그런 상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생회에 과도하게 당시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다.

89년 전교조 투쟁

양들규 89년에 이제 그야말로 기록적인 47만여 명 학생들이 전교조 사수를 위해 싸움을 대중적으로 벌였다. 그 당시 분위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구정인 88년도 말에 학교 소모임을 처음 만들어 직선제 투쟁을 시작했고, 동시에 전교조 선생님 사수투쟁도 함께 했다. 직선제 투표가 89년 7월이었는데 전교조가 출범하고 탄압받던 때라서 학급에 유세를 들어가면 나오는 질문이 ‘선생님 해직되면 데모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핵심이었다. 민주파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식이었다.

양들규 학교가 입시교육에 찌든 상황에서 전교조의 출범이 학생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졌던 것 같다. 현실



▲ 권해진

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여긴 것은 운동하는 고등 학생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 같다.

구정인 전교조에서 말하는 '참교육'이 얼마나 눈물 나게 다가왔는지 모른다.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물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싶다고 했던 구호가 기억난다. 사회적으로 노동조합이라고 지탄도 받았지만 전교조가 학생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 강주성

강주성 학생들의 그런 지지와 참교육에 대한 호응, 이런 것은 전교조가 간판을 달고 한국사회에서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운동적으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건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다.

손영호 교육이라는 것도 현장을 놓고 보면 어쨌든 교사하고 학생하고 학부모가 해결해야할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학교 단위의 모순들이 첨예화되었을 때는 오히려 대처하기가 좋았다. 분명히 학생들과 교사들도 동일한 입장, 동일한 현상을 갖고 논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로서 진정 인정한다면 권리나 그런 것에 대해 더 자각을 했어야 하는데, 학생들의 자율적 움직임이나 권리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은 있다.

90년대 초반 고등학생운동의 숨고르기

양들규 91년으로 넘어간다. 91년 공안정국 후 고등학생운동의 하강, 소멸.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92년 93년 이때 분위기를 이야기해 보자.

권혜진 개괄적으로 90년대 초반의 운동을 정의하자면 90년대 아이들을 가지고 80년대 방식으로 운동했다. 그래서 하향곡선을 그렸던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90년대 초반부터 또 다른 고등학생운동의 흐름이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었지 않았나 싶다. 학생복지회 같은, 그런 학생 생활에 관련된 문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제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한바퀴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이 아니었는가.

양들규 세대의 변화라고 한다면 91년 5월 투쟁 이후 92년이 되었을 때 고등학생운동의 바뀐 분위기라는 것도 한편 생각해보면 89년 전교조 시수 투쟁을 경험한 학년이 모두 졸업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권혜진 그런 요인도 분명 있겠지만 사회전체가 바뀌는 흐름도 무시할 순 없다. 결국 89년 전교조를 겪었던 그 세대들이 마지막 불꽃을 피웠던 91년도 그 열정과 감동 그리고 패배. 그러면서 사실 그것을 더 연장시키고 싶고, 그 열정들을 더 다듬어서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싶던 게 오히려 더 발목을 잡는 시기였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고등학생운동을 지도하던 사람들이 그걸 겪고 나서 이제 고등학생운동에 전망이

없다고 다 떠나버리는 시기도 그때부터였다.

강주성 그것은 기존의 운동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였다. 운동을 밑에서부터 가져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가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과정도 의식이 변화가 되면 생활도 변화가 될 것이라고 봤던 게 많은데, 오히려 지금에 보면 운동이라는 게 삶에 친착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생각들이 변화가 되고 오히려 이러한 과정에서 더 큰 집단으로 발전이 되고 대중운동도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때 많은 선배나 사회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중들 속에서 대중들이 요구하는 바에 의한 대중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중운동을 거의 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의식이 무너지고 이념이 무너지면서 모든 운동권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운동도 역시 쇠퇴한 것이다.

권혜진 학교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학내 소모임인데, 소모임 활동이란 것도 졸업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강주성 제일 큰 문제는 사실 학교별로 재생산 구조가 없던 거다. 너무 그 운동의 경험이 짧고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선배들이 떠나가면 선배들을 대체할 수 있는 후배 리더 그룹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없었다.

구정인 사실 그때 운동이 쇠퇴한 결정적 원인은 89년도 대중적 운동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탄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 해직 후, 집중적으로 학생들 징계가 정말 많았었고 동아리실이며 동아리를 아예 없앴다. 우리는 이런 징계를 철회시킬 수 없었고 또 무기력했다. 그래도 이후에 90년, 91년에는 어쨌든 학교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전교조는 계기였던 것 같다. 계기를 통해서 그냥 일시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고 오히려 그게 조직화되어 있거나 의식적인 활동으로, 운동으로 정립되지 못하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현실에 발 딛은 청소년 운동으로

권혜진 결국은 자발적이고 자기 현장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자기 생활에 기반하지 않은 운동은 운동이 아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통일운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있었다. 현재도 복지의 문제나 삶의 질 문제로 다가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생운동이 유지되기 힘들다고 본다. 결국 자기 문제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주성 모든 개인이나 집단이나 경험하고 실천하는 속에서 의식과 실천의 수준이 즉 높아질 거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높아질 것인가. 자연스러운 과정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다가 평면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운동이 아니다. 운동은 이렇게 평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계기가 목적의식적으로 주어져서 터닝포인트로 전화가 되어야 한다. 질적 전화. 그것이 운동이다. 그런데 뭐, 복지나 이런 어떤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건 맞다. 운동으로서 맞다. 그게 기본이라고 본다. 과연 그럼 언제 통일 운동을 할 것인가? 발전하다가 어떤 적당한 기점에서, 잘 보고 통일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 자기 계급의

이해에 그냥 빠져서 다른 모든 운동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지금과 같은... 노동조합 운동이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나? 노동조합 운동이 의료운동에 관심이 있나? 그렇게 되었을 때 집단주의, 계급 이기주의적 운동이 되는 거다. 그런 면에서 고등학생들도 이후에 통일운동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수준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과 현실에 천착해서 운동하는 것은 맞다.

구정인) 정리를 하자면 그 시대가 확실히 남긴 게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데도 청소년이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그리고 청소년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 시기에도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삶을 개척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 게 그때 운동의 힘이고 지금까지 남아 활동하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다.

손영호) 학생으로서 인권이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쟁취해야 할 목표이다. 나도 아들이 있고 자라는 애들이 있지만 '왜 학생은 20년 동안 불행해야 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학벌사회를 위한 희생이고, 사회적으로 계급을 무리 없이 편제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기도 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이슈이다.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으로서의 인권, 행복할 권리. 우리는 미래를 존재하는 인내해야 할 유보해야 할 삶이 아니다. 이거를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할 거 같다.

고근예,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⑥」 ‘청소년 인권운동’ 첫발을 내딛다, 인권오름 제 26호, 2006. 10. 25.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⑥]

‘청소년 인권운동’ 첫발을 내딛다

고근예

‘민주화 운동’의 한 부분이었던 중·고등학생운동이 학생인권,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전환되던 95년의 시작은 최우주 씨의 헌법소원이 있었고, 그해 말 결성된 중고등학생복지회(아래 학복지회)부터 본격화된다. 90년대 초중반 다른 부문운동이 자리를 잡아가던 것과는 달리 고등학생운동은 오히려 침체를 면치 못했다. 물론 이것은 학생이라는 신분적 제약을 비롯한 학교의 탄압과 사회적 억압 등이 작용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중에 피시(PC)통신을 통해 ‘학생인권’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선 사건은 놀라움 그 자체였고, PC통신에 모인 이들은 하나둘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인권오름> 2호 참고)

학복지회, 인권을 말하다

최우주 씨 헌법소원 관련한 토론방이 없어지고 95년 12월경, PC통신 <하이텔>에 중고등학생복지회가 만들어졌고 이어 PC통신 <나우누리>에도 학복지회가 생겨났다. 당시 <하이텔> 학복지회 활동을 한 전영민 씨(95년~96년 학복지회 활동)는 학복지회 이름에 대해 “처음에는 ‘학생인권회복지회’라는 이름이 제안했었는데, 중고등 학생들에게 회복할 인권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머무르게 됐고, 이런 의문에서 ‘학생복지회’라고 짓게 됐다”라며, “어차피 학생들에게 회복해야 할 인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인권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다지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무슨 정부조직 같다는 생각도 든다.”라며 웃는다. <나우누리> 학복지회에서 활동한 나정훈 씨(96년~99년 학복지회 활동)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았다”며 “소식지 ‘돋움’을 만들어 학교 안에서 배포하거나 세미나 같은 것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세미나를 했던 것은 철학이나 인권의 사상적 배경에 접근하는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세미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운동의 근거로 삼았던 유엔어린이청소년권

번호	이름	ID	날짜	조회	제목
104	김민성	2718804	08-18	79	학생들이 들고 일어서야!
102	송홍우	jasul	08-18	83	아구... 할말이 없어졌네...
101	김보우	bwikbs	08-17	106	[100] '보충수업'의 의미...
100	김기현	orunkim	08-17	149	'보충수업'의 의미 : 우주님에게 의문
99	정성민	jsmpc	08-17	97	고등학교 졸업하니 남는게 없다.
98	조준배	babo85	08-17	105	[이재열님의 71번 글을 읽고나서...]
97	김기현	Kotex	08-17	88	[n.g] 추천고만 문제나?
94	최우주	DIHARD3	08-15	391	[방향제시] 바름교육, 최우주입니다.
92	김병현	bites	08-15	83	이모든것이 공허한 외침일 뿐인가...
91	최우주	DIHARD3	08-15	465	[경과보고] 최우주입니다.
90	김송우	jasul	08-15	66	인격에 점수를 먹일 수가 있나요???
89	이정수	LISA2	08-14	59	87번 송종님 교사평가제 적삼 추천!
88	김기현	orunkim	08-14	82	교육과 세뇌 : 이재열님 말씀에 붙여
87	송홍우	jasul	08-14	93	교수평가제 = 교사평가제 ?????
86	서태봉	seotb916	08-13	100	[누리] 저의 담임선생님은 좋은분..

반환/명령(F, B, N, A, P, TP, TL, PR, DN, PT, LI, LN, LZ, LS, LT, LD, X)
 선택(H: 도움말) >>

▲ 최우주 씨의 헌법소원 의사 표명 이후 하이텔에 개설된 토론방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리협약도 있었다”고 말했다.

학복회는 온라인 모임에서 시작돼, 초기에 ‘오프’ 단체로서의 활동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학생인권의 이슈를 제기한 ‘최초의 청소년인권 단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복회는 과거 사회변혁 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흐름으로 파악되던 ‘고등학생운동’이 자신의 문제에 천착한 새로운 부문운동으로 발전한 형태이다. 물론, 80년대 고등학생운동에서도 ‘강제야자’ 등의 교육개혁이나 학생자치 등의 학생인권의 이슈가 제기되었지만, 학복회는 인권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학생 인권 운동을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길을 묻는다

김한울 씨(95년~96년 학복회 활동)는 “학복회에서 이야기하는 학생인권의 문제를 많이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매체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하지만, (초기에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구체적 활동을 위해서 학복회가 모인 적은 없었다. 이점이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조직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확인할 수 있는) 회원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심지어 96년 연세대에서 있었던 대학생들의 투쟁을 보고 ‘배후’가 있어서 부러웠다고 말하는 김한울 씨는 “운동을 조직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선배가 있고 배후가 있는 대학생들이 부러웠을 정도”라는 것. 학복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모임운영이나 이슈선정, 활동 방식을 찾는 것 등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고등학생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던 소모임이 90년대 중반이후 사라지거나 혹은 대부분 그 성격을 달리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김한울 씨는 “다니던 고등학교에 ‘어린복성’이

라고 운동했던 소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90년대 중후반에 논술토론 모임으로 바뀌어버려 참 아쉬웠다”고 말했다.

특히 학복회는 대체로 중고등학생만을 회원으로 두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일반적으로 조직운영과 활동을 그만두는 식이었는데, 한편으로 운동의 연속성이 떨어뜨린 원인이 되기도 했다. 초기 활동가들은 발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를 규제했지만, 이후 중고생 이외의 참여를 제한하는 엄격한 내부규율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 온라인 중심의 소통방식은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질적 동력, 힘이 될 수 있는가하는 고민에 빠져들게 했다.

우리의 슬로건은 ‘마르지 않는 10대의 힘찬 함성’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탄압을 견디는 것 역시 학복회 활동가들 앞에 놓인 난관이었다. 학복회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피해사례가 줄을 이었다. 전영민 씨는 시사주간지에 사진이 실리면서 학교에 알려져 자퇴를 하게 됐다. 전영민 씨는 “하루 종일 학생부실에 붙들려 있었는데 답답이 그때까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교칙을 보여줬다. ‘허락받지 않은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거나 참여했을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였다”는 것이다. 전영민 씨는 “당시에 학교에서 부모님께 심하게 업포를 놓았던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할 정도였다”며 “하지만 그럴수록 나름대로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다짐이 들었고, 학복회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나정훈 씨 역시 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게 된 타 단체 명함을 교사한테 압수당하면서 학복회 활동이 학교에 알려져, 자퇴를 한 경우이다. 나정훈 씨는 “그때 교사가 ‘너 뭐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다니냐’며 혼내다가 뺨까지 때렸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가 정말 다시는 학교에 안 온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만두게 됐다”고 말한다. 안타깝게도 학생의 교내·외 활동을 통제하는 이러한 교칙은 10여년이 지난 현재 중고등학교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교내의 자유로운 집회와 모임은 통제되고 선전물 배포, 서명운동도 학교 징계위원회 시안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넘쳐나는 인권 이야기?

학생들 스스로 인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부정책에서도 ‘인권’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소위 인권대통령을 시작으로, 정부와 사회에서도 각종 인권의 슬로건이 쏟아지고, 심지어 91년 UN에 가입하고도 내내 잠자고 있던 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까지도 빛을 보기 시작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던 때였다.

교육부에서도 98년 UN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며 12월10일 세계인권의 날, 학생인권선언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98년 11월 학생인권선언제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학생인권선언 시안을 발표했다. 공청회에 참가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최초의 문서라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실제 시안의 내

용은 애매모호하고 인권기준으로 보기에 불충분했다”고 말한다. 배경내 활동기는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름뿐인 학생인권선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또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돼 비난 받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결국 정부주도의 학생인권선언은 학복회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의 비난 속에 유아무야됐다. 반면, 학복회에서 준비한 <중고등학생인권선언>만 98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해 발표됐다. 이 학생인권선언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한울 씨는 “청소년 문화센터에 간적이 있는데,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발전이 없었다. 물론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문화센터 같은 게 학생들의 불만을 학교 밖에다가 배출하게 하고는 실제로 저항정신까지 흡수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면에서 학복회가 학생인권을 운동적으로 이야기한 최초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90년대 중후반 우후죽순 생겨나던 청소년을 위한 ‘문화’와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경험하면서 체득한 ‘청소년 인권운동’의 방향이라는 것.

95년부터 시작된 학복회 활동은 99년 말 대중적인 중고등학생운동의 조직을 고민하게 되고, 2000년 ‘학생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을 준비하면서 21세기를 맞게 되었다.

하이텔 중고등학생복지회, 나우누리 학생복지회,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⑥] 〈자료〉 중고등학생 인권선언서」, 인권오름 제 26호, 2006. 10. 25.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⑥]

〈자료〉 중고등학생인권선언서

하이텔 중고등학생복지회, 나우누리 학생복지회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학생의 인권 역시 보편적 인권 안에 존재하며, 학생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지닌 기본권을 정당히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삶의 현장인 사회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은 공공연히 침해당하고 있으며, 편견과 인습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암묵적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마저 당사자인 학생이 아닌 성년자가 중심이 됨으로써 일방적 보호, 훈육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 이 나라의 왜곡된 정치구조와 맞물려 당국은 학생문제를 투표권자인 성년의 시선으로 일관하는 정책을 남발하여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학생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지닌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그에 따른 마땅한 권리를 가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학생 스스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1. 학생은 나이, 성별, 학교 성적 등 어떠한 기준으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2. 학생은 과도기의 세대가 아닌, 인격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외부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3. 학생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4. 학생은 쾌적한 환경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5. 학생은 학교의 방침에 따른 일반적인 교육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6. 학교에서 학생의 모든 자치 활동은 교사나 학부모 등 타인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7.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매체를 접할 수 있고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8. 학생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9.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노동활동을 스스로 판단하여 할 수 있으며 학생이란 신분으로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10. 위와 같은 학생의 모든 권리를 부당한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11. 학생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킬 책임을 지닙니다.
12. 학교, 가정, 국가를 비롯한 사회는 위의 권리를 보장하며 합당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13.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법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천구백구십팔년 십일월 삼일 학생의날
하이텔 중고등학생복지회, 나우누리 학생복지회

전누리,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⑦] 청소년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다」, 인권오름 제 34호, 2006. 12. 20.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⑦]

청소년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다

전누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새천년을 맞이할 즈음, 입시체제를 근간으로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억압하려는 기제들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당시 청소년들의 탈학교, 일탈, 수업거부는 뜬금없는 신세대의 문화가 아니라 1980년대부터 이어진 억압에 대한 분출이었고, 마침내 그들의 저항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모습은 ‘학교붕괴’라는 선정적인 타이틀로 미디어에 의해 보도되고 사회는 ‘갑작스레 변해버린 애들’이 문제인양 호들갑을 떨었다. 이내 이런저런 해법 등이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쏟아져 나왔다. 현상에 대해 문화담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 미지센터가 만들어진 것도 이 때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모이던 청소년들에게 오프라인 소통공간이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목소리는 역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인터넷으로 모여!

컴퓨터(PC)통신에 이어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숨 막히는 학교에서 해방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었고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사회, 권력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 자신의 발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이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상에서 비판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사회, 학교 모든 통제와 억압에 대해 비판할 수 있었다. 채널 텐, 사이버유스(CyberYouth), 청소년인권동아리 타래 등이 당시 만들어진 공간이다. 사이버유스에서 청소년들은 성, 자퇴, 교실붕괴 등 다양한 섹션을 구성해 토론할 수 있었다. 또 조금씩 퍼져나가던 청소년인권도 이야기되었다. 만 18세 선거권,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문제 등 현실과 결부된 이슈들이 오가며 청소년들은 점차 고양되어 갔다.

한편, 1990년대 PC통신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았던 학복회도 2000년 들어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이른다. 최우주 씨 헌법소원과 관련해 학생인권 논의를 이끌어가던 학복회는 1998년, 1999년에 들어

서며 침체기를 겪는다. 전반적인 침체기 속에서도 학복회의 방향을 바꾸는 흥미로운 논쟁이 나우누리 학복회에서 촉발된다. 그 논쟁은 학복회가 비판하던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소규모밖에 참여할 수 없는 동아리식의 활동을 벗어나는 대중적인 중고등학생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현재의 유료통신망을 벗어나 새로운 틀로 등장한 인터넷으로 기반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국 ‘업그레이드(upgrade) 학복회’가 탄생하게 된다. 업그레이드 학복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조직 방향을 논의하던 활동가들은 2000년대 초 그 구체적인 조직인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탄생시킨다.

두발자유화 운동, 서막이 오르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아이들과 같이 앉아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곤 했지만 유독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기들끼리만 같이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교복, 똑같은 3cm 스포츠형 머리로 나온 학생은 창피하게도 대한민국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99년 5월, 어느 현직 교사가 나우누리에 올린 글이 인터넷웹진에 실리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이 글은 학기 초 학교의 두발단속 때문에 쌓여가던 학생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마침내 아이두, 채널 텐, 사이버유스가 모인 웹연대 ‘위드’에서 두발제한반대 서명게시판이 만들어지게 된다.

2000년 봄, 학생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은 16만 명을 돌파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진 운동은 오프라인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아래 학생연합(준))을 중심으로 캠페인과 거리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은 그동안 참아온 학생들의 분노를 연쇄적으로 자극했고, 구체적 청소년인권 사안에 학생들 스스로가 폭발적으로 집중한 사례였다. 당시 아이두에서 활동한 이준행 씨는 이러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제시했다는 것이 그 의의”라며 “(아이두와 같은 공간이) 두발문제에 있어 투쟁의 장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한다.

두발자유? 두발자유!

2000년 두발제한반대운동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견해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온라인 서명운동을 이끌었던 웹연대 위드의 입장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제한 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자율화”를 지시하고 자유화의 기준(염색 금지, 완화 강도)에 대해 학생회 - 학교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합의를 지시하여 합리적인 학칙 제정을 도와주시시오’였다. 즉,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으로서의 두발 자유화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규정을 결정하도록 하는 자율화를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 사항에 대해 당시 웹연대 위드의 대표였던 박준표 씨는 “(당시엔) 소통의 공간, 토론의 장을 중요시했다. 학교가 그렇게 비상식적일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원인으로 학내 소통이 없다는 데서 찾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두발제한반대운동이 단순히 두발제한만 없애고 끝날 일이나……. 소통의 공간을 만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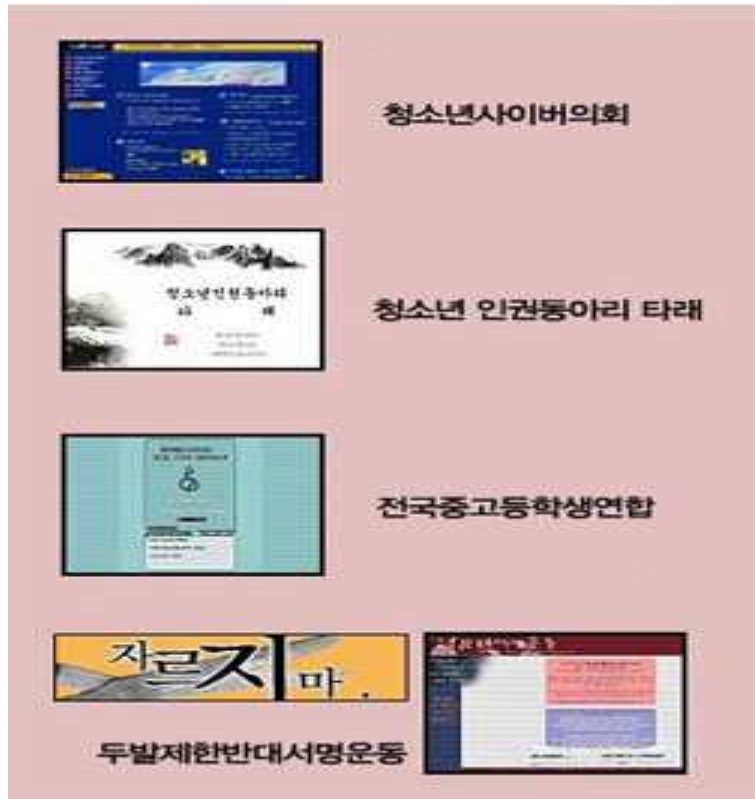
그 소통의 공간이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반면, 학생연합(준)의 경우에는 운동 초기부터 두발자유화로 입장을 강하게 밀고 나갔다. 학생연합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육이은 씨는 “토론을 통해서 '두발자유화'로 정리가 됐다. 학생연합 입장은 인권과 관계된 것은 설사 민주적인 합의를 거치더라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학생회 혹은 학생사회가 민주적이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두발자유화도 제대로 되겠냐는 생각이었다.”라고 당시 입장에 대해 말했다.

이런 논란 속에 실제로 교육당국이 택한 ‘자율화’의 실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인권침해였

다. 서명을 모아 제출한 집단민원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 10월 4일, “각급 학교별로 교사·학부모·학생 대표가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어 두발규정을 다시 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일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결정해야할 신체 즉, 사적인 문제를 소위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 타인들과 함께 결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인권의 기준과 어긋난 것이었고, 민주주의를 가장한 기만적 지침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생의 불평등한 권력지위를 염두에 둔다면 토론의 결과는 두말 할 나위도 없었다. 교육당국의 책임회피용 지침을 기점으로 2000년 두발제한반대운동이 소강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중고생이 운동을?

비록 실질적으로 두발자유화를 이룬 학교 수는 적었지만, 청소년 스스로 ‘자유화·자율화’의 논쟁, 서명조적, 캠페인 등을 주도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과 운동의 확산을 모색했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 두발제한반대운동은 학생연합(준)과 같은 청소년인권운동 조직을 성장케 했다. 초기 5~6명의 회원



▲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한 청소년운동 단체들 홈페이지 첫화면

으로 시작했던 학생연합(준)은 두발자유화운동 속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광주, 부산, 목포 등 각 지역에서 지부가 만들어졌고, 가장 활발하던 시기에는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회원이 200여 명에 육박할 정도였다. 학생연합(준)은 초기에 계획했던 학교 인권지표 개발, 미지센터 내 청소년 인권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해 나가면서 2000년 12월 22일,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하 학생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된다.

"교육개혁 우리 손으로"(문화일보), "막강파워 ‘운동권 중·고생’ 뒀다"(주간동아) 등 학생연합의 출범에 언론들은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관심 속에서도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학생연합 활동가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특히 학생연합의 광주지부의 경우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받을 만큼 학교와 교육청의 탄압이 극심했는데 당시 지부 대표자였던 박고형준 씨는 “학교에서는 작게는 교내봉사, 크게는 퇴학, 자퇴종용을 했다”고 말한다. 박고형준 씨는 “장학사가 집전화로 동생에게도 피해를 주겠다는 전화를 한다든가, 0교시부터 8교시까지 수업은커녕 면담만 몇 달 동안 했던 것, 경찰서도 아닌데 수사를 하듯 사실확인서만 몇십 장을 쓴 것 등 청소년 인권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도 전에, 권리에 대해 말하는 것부터 제한을 받으며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당시 청소년 인권의 현실이었다”고 전한다.

이런 탄압 속에서도 학생연합은 지회-지부-중앙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그 체계의 가장 바탕이 되는 학교 속 지회 건설을 위해 역량을 쏟았다. 지회의 중요성은 학생연합이 두발자유운동 속에서 얻은 교훈이기도 했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로는 학교를 바꿀 수 없다는 것. 학생연합은 두발자유화운동 외에도 교육부문까지 의제를 설정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체벌반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 보장, 고교등급제반대, 자립형사립고반대 등이 그것이다. 또 학생연합은 학복회가 추진했던 회원들의 세미나, 간행물 발행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획 사업으로 교칙분석작업, 학생회운영 방안 연구 등을 진행했다.

사라지지 않는 운동

2002년 들어서면서 학생연합은 안정된 지지기반을 가지지 못하면서 활동가 부재라는 어려움에 봉착해 점차 활동력을 잃게 된다. 학생연합이 지속될 수 없었던 원인에 대해 육이은 씨는 “조직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했던 것이 주요한 문제였다”고 꼬집으면서 중고등학생 이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피터팬주의’ 역시 학생연합의 생명력을 짧게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육이은 씨는 “90년대 들어서 가장 큰 활동력을 지녔던 자생적 청소년 조직이라는 것 외에도 학복회가 부각시킨 청소년 인권 문제를 사회쟁점화 시켰고, 청소년 운동에 대중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 점”을 학생연합의 의미로 꼽았다. 육이은 씨는 “학생연합의 활동이 거의 없던 2002년 이후의 일인데, 길을 지나가다 어느 여고생들이 청소년 인권 문제로 가판을 열고 서명을 받는 걸 봤다. 고등학생들이 프린트한 글 중에는 제 글도 있고 학원에서 쓰던 전단지도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모임이 없어진다고 활동했던 역사가 그냥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2000년대 초반에 펼쳐진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과 학생연합의 활동은 기성세대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더 이상 청소년들이 통제되어야하고 관리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다수의 행동 속에서 알린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경험들은 이후 인권을 외치는 풀뿌리 모임으로 다시 태어나 2003년 네이스 투쟁, 2005년 두발자유화운동, 2006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⑦] 〈자료〉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학운위 참여 선언문 -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선언한다!」, 인권오름 제 34호, 2006. 12. 20.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⑦]

〈자료〉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학운위 참여 선언문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선언한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선언한다!

이 땅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살아가기.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희망을 있고 살아가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을 빙자한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와 비민주적인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으로 시작된 이러한 학교문화는 군부독재와 억압적인 권위주의 정권을 통해 고착화되어, 지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교육의 명제를 망각하게 하는 독버섯으로 교육을 근본적으로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책임지는 꿈나무인 우리 전국 중고등학생은 계속되는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학교체제에 저항하여 학교를 떠나거나, 대학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고통스런 하루 하루를 버티는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학교의 근본 문제는,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데 있다. 교칙 제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의 운영에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관은 학생을 학교 운영으로부터 제외시켜 민주적인 교육의 실천과 실습의 기회를 박탈하여 학생을 학교와 유리시키고 자율적인 민주시민의 양성이란 교육의 근본 목적을 망각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의 제 일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당연히 참여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만의 참여만이 이루어져 지고 있으며, 학

생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권과 제대로 민주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 무너져 가는 학교와 교육을 살리기 위하여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선언한다. 학생대표는 단순히 참관의 형태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주체적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즉각 교육법규를 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현재의 학교를 민주화하여 진정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유윤종,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 '재량권 춤추는 사립학교', 이제 그만! - 사학 비리에 저항한 학생과 교사들, 인권오름 제 38호, 2007. 01. 24.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

‘재량권 춤추는 사립학교’, 이제 그만!

사학 비리에 저항한 학생과 교사들

유윤종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불의와 억압의 공간

2007년 1월, 포항의 대동중학교동인교육재단에서 한 교사가 해임 당했다. 학교 측이 내세운 해임 사유는 그 교사가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키지 않았고 △두발 등의 교칙을 거부하라고 했으며 △강제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임 당한 손규한 교사는 지금 학교와 재단을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 중이다. 학생인권과 자치를 옹호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요구한 교사가 쫓겨나는 곳이 바로 사립학교이다.



▲ 교감과 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나, “학생인권 존중이 교사인권 존중” 등의 글씨들이 창문과 벽에 써있는 당시 인천외고의 모습.

사립학교(사학)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공립학교와는 또 다른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사학은 공립학교에 비해 더 폐쇄적이며, 담당 교육청을 비롯한 정부의 관리감독과도 거리가 멀다. 학생·교사에게 가하

는 사학의 억압은 때론 ‘횡포’라 불러야 할 정도다. 실제로 대동중 사건에 대해서도 경북도교육청은 사학의 재량이므로 간섭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비리 또한 끊이지 않는 사학의 문제이다. 수학여행, 졸업앨범, 보충수업비, 방송교재 등등으로 수십 수백억을 횡령하는 사학부터 최근에는 ‘유령직원’을 명단을 올려 월급을 착복하는 사학까지 등장했다.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이사부터 경비를 맡는 가내 사업이 되어도 당당한 게 사학이다. 이런 사학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도록 했던 것은 무엇보다 사회를 향한 학생과 교사의 외침이었다.

뜨거운 저항, 인천외고

2004년 인천외고 사건 역시 사학의 막무가내 횡포가 기세를 떨친 기록적인 사건 중 하나다. 발단은 2003년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면서부터였다. 교장은 직원회의를 직원조회로 바꾸면서 교사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경고장’을 남발하는 등 학교 운영에서 독단을 일삼았다. 학생들에 대한 억압도 강화돼 수업시작 시간 앞당기기, 전원강제야자 실시, 두발규제 강화, 외출제한, 벌점제와 유급제 등이 도입되었다. 학생들에게는 숨 막히는 학교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2004년 4월 24일, 교장과 학교 운영이나 학생 지도 등의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던 전교조 박춘배 교사와 이주용 교사가 파면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학생들의 불만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노현성 씨(2005년 당시 인천외고 2학년.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이

구분	적용항목
벌점 3점	○ 수업시간(자유학습) 지각 또는 배회 ○ 무단 지각 ○ 인사하지 않는 학생 ○ 휴지 및 쓰레기를 보고도 줍지 않고 지나가는 행위
벌점 5점	○ 무단 결석 또는 무단 결과 ○ 영할 미 착용 ○ 실내에서 실외화 착용, 실외에서 실내화 또는 슬리퍼 착용 ○ 규격이외의 실외화, 실내화 또는 양말 착용 ○ 정소시간, 점심시간 등 교문출입 금지 시간 교문 밖 출입 ○ 수업시간 태도불량, 또는 연학분위기 저해 ○ 휴지, 껌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벌점 10점	○ 복장위반(금지된 티셔츠 또는 교복 이외의 옷 착용 등) ○ 두발위반(양색, 파마, 무스, 젤 등 사용, 긴 머리 등) ○ 용의위반(화장, 눈썹정리, 막새사리, 손톱단장 등) ○ 교복 변형 ○ 휴대전화 금지 규정 위반 ○ 기타 학생복장용의 등생활규정 위반 ○ 교내·외에서 친 동을 벌는 행위 ○ 이동 취식 ○ 교실 또는 복도 등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하게 하는 행위 ○ 욕설
벌점 20점	○ 유흥장 출입 또는 외출을 소지 ○ 교직원에 대한 불경한 언행, 또는 지시 불이행
벌점 30점	○ 담배 또는 라이터 소지 ○ 흡연 또는 음주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일 ○ 폭행(전치 4주 이하)
벌점 50점	○ 학교 또는 교직원에 대한 유언비어, 폭설 등 유포(인터넷 포함) ○ 이설간의 어깨동무 및 손잡고 다니는 행위 등으로 인한 품기 논란
벌점 80점	○ 고의적인 학교 기물 파괴 ○ 동성간의 비정상적인 교제 ○ 폭행(전치 4주 이상)
벌점 100점	○ 교직원 폭행 또는 욕설 ○ 이설간의 애정표시 신체접촉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인천외고의 “생활지도 점수제에 의한 벌점 기준” 누적되어 100점이 되면 퇴학이다. 용의복장 규제와 같은 것에서부터 동성애를 비롯한 연애에 대한 규제까지 각각각색의 인권침해 조항들이 눈에 띈다.

교장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인권 탄압 쪽으로 점점 터져 나온 거다. 한마디로 학교에서는 아무 것도 못했다. 기계처럼 공부하고 수업 듣고 수업 듣고 또 수업 듣고...학생들이 막 미치려고 그랬다. ... 선생님이 파면당한 게 4월 24일인데 그 전부터 빼격거리기 시작했다. ... 선생님들이 바로 월요일 교장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교복을 찢어 쓴 혈서를 교장실 앞에 걸어놓기도 하고, 교사들의 복도수업에 참가하거나 교장실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농성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다가 결국 6월 4일부터는 6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시작했다. 수업거부를 시작한 정황에 대해 노현성 씨는 “40일 동안 계속 점심시간마다 집회하고 촛불집회도 했는데 들은 척도 안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3~4번 갔었는데 다 무시했다. 안 되겠다, 학생들도 힘들어하고...이건 아니다 싶었고,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업거부를 6월 7일부터 했다.”라고 설명한다.

업무방해 소송, 전교조 시주라는 매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한 1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교육청, 교육부, 학교, 서울에 있는 이사장의 집까지 찾아가 항의집회를 열었다. 교장해임과 교사 파면 철회를 요구하는 식발과 단식이 이어지고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사학 측에서 ‘교장 해임과 파면 철회’ 불기를 고집하면서 상황은 장기화조짐을 보였다. 교육청에서 교장해임을 사학 측에 요구했지만, 사학에서는 교장을 같은 재단의 다른 고등학교로 전근시켜 일단락지었다. 인천외고 사태의 주범인 교장이 바로 옆 학교인 명신여고로 전근가면서 마무리된 것이다. 감독기관인 교육청도 손 쓸 수 없는 사학의 높고 높은 벽을 확인케 한다.

사학 투쟁, 그 긴 역사

사학을 상대로 한 학생들의 투쟁 역사는 인천외고 이전에도 꽤 오래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용화여고 사건이나 94,99년 상문고 사건도 그중 하나이다. 특히 상문고 사건은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사학비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였다. 상문고 사건은 학교 교사들이 친인척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각종 비리들을 폭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방문했을 때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는 학생들. “학생은 쓰레기가 아니라 학교의 주인이다” “교사와의 대화 거절 학생에겐 인권무시 학교측은 각성하라” “인권 없는 인천외고 우리들이 바로잡자” 등의 구호가 눈에 띈다.

하면서 시작되었다. 찬조금 착복, 과학 기자재 및 도서 위장 구입, 수학여행 여행사 졸업앨범·체육복 업체와 결탁하여 뇌물 수수, 없는 교내 행사를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행사비 착복 등, 수백 억 횡령 혐의로 상춘식 교장이 구속되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2000년, 이우자(상춘식의 처) 씨가 현행법 상 하자가 없다며 다시 학교 복귀를 시도하여 2차 사건이 일어났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관선이사파견으로 매듭지어졌지만, 2년여의 지리한 싸움 끝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기도 했다.



▲ 파주여중고 사건 당시 규탄대회 장면.

사학투쟁이 90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록으로 보면 1987년 파주여자종합고등학교에서는 사학비리와 사학재단의 횡포에 교사·학생이 7월 1일부터 학교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시위는 3일까지 이어졌다. 당시 학교 측에서는 시위를 진압하면서 각목과 가축혁대를 휘둘렀다. 특히 시위가 진행되면서 일부 여학생들이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곧 ‘폭력교사, 성폭행 교사의 처벌과 비리 이사진 퇴진’ 등을 요구하는 농성이 50여 일 동안 계속되었다. 파주여중고 농성은 최초로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항한 싸움으로 기록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2005년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학생·교사들의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 낸 성과이기도 하다. 미흡하지만 개방형 이사제와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비리 당사자 학교복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은 그동안 폭로된 사립학교의 횡포를 거울삼은 것이다. 긴 세월을 걸친 싸움이 진일보를 일궈낸 셈이다.

권리와 정의를 위한 저항

사립학교는 무엇보다 통제 불가능한 ‘성격’상 학생의 인권침해나 억압이 더 수월하게 작동할 수 있다.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비리 역시 학교의 ‘재량’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고질적 사립학교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바로 개별 학교의 사례들이고, 학생과 교사들의 끈질긴 투쟁이 사립학교의 장벽을 직시하도록 만들었다.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할 교육 현장이 비리와 불의로 얼룩진 공간이 되는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정의로운 투쟁이 사립학교투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1990년대 초 고등학교에서 학교 비리를 언급한 학생소식지인 <감초들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김진숙 씨는 학생들이 사학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청소년 시절은 정서적으로 예민하기도 하고 정의롭고 순수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나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학교의 모습을 보며 많이 갈등했던 것 같다. 꼭

참고 모른 척하며 버티고 졸업하려는 생각도 있었고 학교와 선생님이 너무나 크고 거대하게 느껴져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지금 참는다면 어른이 돼서도 힘없이 순응하며 살아갈 것만 같아서 나서게 되었다. ... 흔히 나이가 어려서 사리판단을 감정에 치우쳐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옳고 그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 물론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나서는 것을 제일로 두려워한다. ... 어른들의 더러운 모습과 이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너무 일찍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픈 점도 없지 않았지만 내가 학창시절 불의와 맞서서 싸웠던 것이 인생의 힘이 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러리라 생각된다.”

인천외고정상화를위한공대위,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자료〉 인천외고 단식농성 성명서」, 인 권오름 제 38호, 2007. 01. 24.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자료〉

인천외고 단식농성 성명서

인천외고정상화를위한공대위

<성명서>

-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

부당파면 철회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이 오늘로서 44일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인천외고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5월 9일에 졸업생들은 모임을 갖고 '인천외고 파면철회 졸업생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5월 10일에는 파 면철회를 위한 탄원서에 831명의 재학생이 서명을 하였다. 5월 12일에는 학부모님들이 '인천외고를 사랑하는 학부모 대책위'를 결성하였으며, 5월 14일 촛불시위에는 400여명의 학생, 학부모, 졸업생들이 참여하여 민주 적 학사운영의 보장을 요구하며 파면철회와 학교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또한 5월 18일에는 민주적 학사운 영을 염원하는 학생들이 학교장에게 '인천외고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였으며, 5월 21일에는 '인천외고 정상 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하여 재단측에 교육주체들의 10가지 요구사항을 담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신성학원과 학교장은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염원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를 묵묵부답으로 외면하고 있으며, 교육청마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 작태에 우리는 울분을 감출 수 가 없다. 이런 몰상식하고 오만한 처사에 교육주체들은 격노하고 있으며, 그동안 파면 교사 수업 시간에 해당 반 학생들이 선생님의 부당 파면에 항의해 수업을 거부하고 중앙 현관에서 침묵시위를 해왔으나 학교장 및 재단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집단행동을 자제하던 학생들은 조속한 학교정상화를 위해 6월 7일 파면철회와 학교장 퇴진을 요구하 며 전면적인 수업 거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장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미봉책으로 6월 12일까지

휴교령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런 수업 거부 사태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의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즉생 생즉사(死即生 生即死)의 각오로 2004년 6월 8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민주적 의사소통이 결여되고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으며,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어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학내사태를 초래해놓고 방치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고통과 상처를 주고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린 학교장이 머물 공간은 더 이상 인천외고에는 없다.

교육자로서의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학교장은 이제 자진사퇴의 용단을 내려 학교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전교조 탄압을 중지하고, 부당 파면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적 학사운영을 보장하고, 학내분규를 초래한 학교장·교감은 즉각 퇴진하라!!!

우리의 요구

1. 두 교사에 대한 부당한 파면을 즉각 철회하라.
1.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를 개정하라.
1. 우열반을 폐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전환하라.
1. 학생회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보장하라.
1.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건교사를 확보하라.
1.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이남정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
1. 재정지원 중단에 따른 재단의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
1. 학교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하라.
1. 법정 교원 및 표준 수업시수를 확보하라.
1.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존중하고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라.

2004년 6월 8일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자료〉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단식농성 성명서」, 인권오름 제 42호, 2007. 02. 21.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

〈자료〉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단식농성 성명서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4월 24일 두 분 선생님의 부당파면 이후, 우리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학교장의 비민주적 학사 운영과 억압 당했던 학생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하여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오며 오늘로 벌써 75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들은 5월 10일에는 파면철회를 위한 탄원서에 재학생 831명의 서명과 재학생 400여 명이 참여한 교문 앞 집회를 하였고, 5월 14일 촛불시위에는 재학생 7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에는 민주적 학사운영을 염원하는 학생들이 학교장에게 "인천외고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였으며 5월 21일에는 "인천외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하여 재단측에 교육주체들의 10가지 요구사항을 담아 전달하고, 밤에는 우리들의 염원을 담은 2차 촛불시위에 재학생 4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과 재단 측은 우리들을 계속 기만하고 묵살하였고, 인천시 교육행정의 중심인 인천시교육청마저도 수수방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러한 부당한 학교/재단/교육청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전면수업거부'라는 학생으로서 최후의 방법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재단/교육청은 사태를 해결할 생각보다도 덮어두고 잠재우려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들을 또 한번 분노케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업거부에 우리 학생들의 피해는 너무나도 막대했고, 결국 학교/재단/교육청의 사태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임시수업복귀'에 들어갔습니다.

6월 28일에는 학교장퇴진/파면철회 문제로 30일날 3차 협상이 약속되어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는 듯 하였지만, 또 한번 재단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협상이 결렬되어 우리들을 실의에 빠뜨렸고 이에 분노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전면수업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계기로 우리들은 더욱더 결의가 되어, 7월 1일, 2일 양일간은 교육청 항의방문을 하였고, 7월 5일에는 학교장퇴진/파면철회/학생인권존중/민주적학사운영의 임원을 담은 가두행진과 재단사무실/교육청 항의방문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신성학원과 학교장은 우리들의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를 계속 유린하고 묵살하고 있으며, 교육청마저도 학생들의 울부짖음을 뒤로 한 채 시간만 끌며 명분만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인 우리들은 이런 무책임하고도 몰상식한 태도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분노 또한 참을 수 없습니다. 분명 학교장/재단/교육청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합니다.

명문고를 만든다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짓밟히는 인천외고에 다니며 우리는 학교를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조차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학내민주화를 부르짖던 사랑하는 두 선생님들을 합법을 가장하여 파면시킨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모든 근원이자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학교장 밑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외고 학생여러분, 나라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부당한 일이 생길 때 항상 앞장서서 나섰던 것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어려서가 아니라 학생들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온 70여 일이 넘는 시간은 절대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긴 시간동안 진정한 학교발전을 위해서 싸워온 우리 인천외고 학생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1명을 위해서 99명이 죽을 순 없습니다. 공부로 학생의 인격이 무시되고 차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에 저희 들은 오늘부터 우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학교장/재단/교육청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학교장이 있다면 학내민주화도 없고 학생의 인권 또한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주고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린 학교장이 머물 공간은 인천외고에는 없습니다.

민주적 의사소통이 결여되고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으며,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위선자가 어찌 교육자란 말입니까? 게다가 학교장은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자진사퇴하 시기를 목숨을 걸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달간 방관하며 수업과행을 유도한 교육청은 각성하고 더 이상의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임시이사과편을 목숨을 걸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을 번복하며 학생들을 기만한 재단은 각성하고 학교장 해임과 부당파면철회를 목숨을 걸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1.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인 이남정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
1.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임시 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1. 두 교사에 대한 부당한 파면을 즉각 철회하라.
1. 민주적 학사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1.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를 개정하라.
1. 우열반을 폐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전환하라.
1. 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하라
1. 국회는 사학재단의 횡포를 조장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2004년 7월 7일

학생공동대책위원회

고근예,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2)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 그 시작을 꿈꾸며」, 인권오름 제 46호, 2007. 03. 21.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2)]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 그 시작을 꿈꾸며

고근예

〈편집인주〉 성소수자 인권 단체인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데조로, 여수 활동가와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을 활동가를 각각 만나 청소년 성소수자의 상황과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전망을 들어보았다.

2000년대 들어서 부각된 청소년인권문제 중 주요한 사안은 바로 ‘청소년 성소수자’이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님에도, 이전까지 청소년의 정체체성 고민은 금기시되어 온 화두였다. 청소년운동 단체뿐 아니라 성소수자운동 진영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문제가 화두가 된 것은 대체로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 정을 활동가는 “동인련을 비롯해서 성소수자 단체들이 청소년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인 시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동성애자인권운동의 역사 자체가 길지 않았고, 운동 초반에는 나름의 공동체나 자신의 정체성(의 공감)을 목적으로 모였던 것이었다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을 활동가가 말하는 ‘계기’는 2003년 19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한 고 육우당의 죽음이었다. 그는 “동인련에게도 충격이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도 나름 걱정이었을 뿐더러,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육우당이 놓여있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그 사건 이후 청소년들이 당하는 차별과 요구들을 정리해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별과 편견의 집합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중 삼중의 억압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아래 상담소) 데조로 활동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혹은 외모가 남자(혹은 여자)같다는

<학부모님 학교방문 상담 자료>

1. **이반(異反)이란:** 異性에 반대, 팬픽(연예인에게 또는 연예인이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에서 시작, 98,99년 동성애 주제의 일본만화로 시작, 연예인(홍석천, 하리수)등의 영향으로 여겨짐. 청소년들이 우물쭈물하고, 뒤고 싶은 심리 자극.
2. **확산매체:** 주로 세이클럽(sayclub)채팅사이트의 동호회중에 이반을 주제로 하는 동호회가 많음, 지역단위에서부터 전국규모의 동호회있음(예, 이반, 수도권지, 슈퍼마켓, 친생인분, 무, 청소년BT클럽, 휴먼구역, 섹터, 비원, 마을가족, 감옥, 엑시트, 연소자관람불가,청진번 등) 요즘엔 주로 핸드폰, 특히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정보 주고 받음. 교내에서 서로 편지주고 받음(수업시간). 우연히 만나 사귀기도 함. 세이에서는 주로 대명, 가명 사용(연예인 이름 이용), 세이클럽안에는 기타 개인이 만든 동호회 많음: 학교, 선생님, 교직원 관련된 욕설, 비판등 많음. 각 동호회 운영진: 시삽, 회장, 부시삽: 부회장
3. **외모상의 특징:** 승난 커트머리, 앞머리가 길, 귀를 파서 다님, 악세사리, 타이 안함, 하의는 체육복을 잘 입음, 스타킹 안신음, 셔츠 윗 단추 풀, 험함,구제,정장,위커, 귀걸이,반지,목걸이,피어싱,칼라렌즈, 염색, 요즘엔 특히, 까만정장, 까만 메니큐어, 까만색 계통화장, 파마, 칼뱅(문신)등
4. **자주모이는 곳:** 교내: 등나무 밑 2-3명, 10-15명 무리지어 다님, 교외: 파파이스 앞, 노래방, 예술회관, 강변, 카페, 축식부, 만남의 평자, 시험기간: 연암도서관, 방과후 다른 학교를 찾기도 함
5. **모임(동호회별):** 이름: 정모(정석모임), 축식부나 카페를 빌려서, 회비: 4,000원, 게임: 불건전화(예: 얼음 위에서 입으로 넘기기, 풍선 안고 터트리기, 윙스타 바르고 10년 보보하기, 키스마크 남기기. 눈가리고 몸에 물건숙긴 것 입으로 찾기, 딸기잼, 생크림 입술,목, 볼, 코에 바르기, 게임 후에 선물로 담배주기. *노예방: 돈을 걸어 하루 동안 출장주는 사람, 예쁜사람을 노예로 사기, *왕게임: 왕이 되어 시키는 대로 하기, 모임 후에 2차(뒷풀이)--고기집, 노래방, 술, 담배, 등은 기본.
6. **유료 구입 세이 아이템:** 캐릭터, 여자 아바타, 남자 아바타, 성형, 옷, 악세사리(500원-3000원), 애완동물(2000원), 배경(2000원-4000원), 음악쿠폰, 특수의상(5000원-8000원), 신용카드, 전화요금, 휴대폰결제, PC방 중에 세이클럽가맹점에서 돈을 내면 구입가능, 상품권-다른 사람에게 보냄.
7. **문제점:** 유행처럼 퍼짐('나 이반한다'), 선생님이 이반이라고 이름 부르면 더욱 우물해짐, 혼이 나도 우물해짐, 이반안한다고 하면 도리어 왕따됨, 탈퇴한다고 하면 다른 학생은 눈초리부터 달라짐. 일반 학생들이 위에 포함된 학생들을 보는 시각.
8. **해결방안(?)**-컴퓨터 채팅,동호회를 전면 탈퇴, 통제,금지
 - 휴대폰 구입, 사용 금지(사실상 중학생에게 휴대폰은 불필요)
 - 현재 어울리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지도.
 - 선후배간의 교류 전면 금지
 - 일반적인 학생이 편견 갖지 않도록
 - 학교 체육대회나 학예회 후 선배들과의 교류 특히 유의.

▲ 학교에서 학부모와 상담할 때 활용한 청소년 성소수자(이반) 관련 상담 지침.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흥미'롭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학교 측의 무지와 몰이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는다"며 "차별은 친구들 사이의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차원의 체제로 더 심각하게 드러나기도 한다"고 전한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행동이 남자 같거나, 둘이 손을 잡고 다니는 아이를 조심하라'는 것이 그것. 실제로 학교에서 '이반'으로 밝혀진 학생은 전학, 심하면 퇴학 등의 위협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차별과 편견은 학교나 사회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이 지지를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보통은 가족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극단적으로는 집에서 쫓겨나거나 호적에서 지워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 청소년들이 갈 곳은 마땅치 않다. 성소수자의 경우 쉽터에서 공식적으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이 상담소 측의 설명이다. 상담소의 여수 활동가는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학교에서도 버림받고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아,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경우에 이런저런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며 안타까워했다.

상담소 데조로 활동가는 “학교 교육 중에 청소년기를 ‘이성에 눈뜨는 시기’라고 쉽게 말하지만, 이런 ‘사소한’ 표현을 보고 고개를 가웃하는 10대도 있다”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 왕자·공주만 보지 공주와 공주, 왕자와 왕자는 보지 못하면서 이런 사회에서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성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이 비정상인 아님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학교는 오히려 정신 질환자나 단순한 방황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탈이 시작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때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동인련 정을 활동가는 “(단체에서) 상담이나 회원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차별상황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통계화되어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아 안타깝다”며 청소년 성소수자의 고민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차별현상에 대한 분석이 문제를 풀어가는 운동의 과정으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통의 공간, 연대를 위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이나, 반대로 외부로의 소통 모두 쉬운 것만은 아니다. 상담소 데조로 활동가는 “10대들이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을 때 (기존의 공간과 방식에)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10대들이 (이반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정보 자체를 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실제로 10대들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지만,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10대가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동인련 정을 활동가 역시 “과거 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청소년 동성애자 커뮤니티나 청소년 동성애자를 그리 반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유는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법의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그들의 사회적 등장은 사회 전반에 화두를 던졌고 특히 성인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도 논쟁을 일으켰다.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며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인가, 법적 규제가 문제라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하지 않나 등의 문제들이 바로 그것. 정을 활동가는 “필요한 논쟁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논쟁에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적극적 개입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청소년인권운동, 어떻게?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은 ‘문제’로는 존재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해결과제를 가진 ‘운동’으로 흐름을 형

성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청소년과의 활동을 실천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드러내기 어려운 정체성 고민, 그것도 청소년’이라는 이중의 장벽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상담소 데조로 활동가는 “현재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활동하지는 않지만,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는 커뮤니티는 없지만, 기존의 청소년단체, 인권단체들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운동과 단체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 청소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당사자만이 아니라 청소년단체, 인권단체, 교육단체가 함께 풀어갈 수 있다는 제안이다. 더불어 동인련 정을 활동가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즐겁게 찾아나가는 것과 함께 성소수자로서 살아가기 힘든 현실 상황에도 눈을 떴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장을 열어 제치는 일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비롯한 인권운동과 청소년운동, 진보운동의 역할이면서 청소년 스스로의 과제라는 것이다.

므스,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1〉]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인권오름 제 46호, 2007. 03. 21.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1〉]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므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편집인주>1990년대 청소년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0년대 조직화된 청소년인권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같이 '인권'을 화두로 한 전국조직의 청소년인권단체가 생겨난 이후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달린 사회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네이스 반대, 종교의 자유, 청소년 노동권, 0교시자율학습 폐지, 18세 선거권,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

이번 기획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의 조직적, 주체적 활동이 두드러졌던 네이스 반대 투쟁과 반대로 개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냈던 강의석 씨의 종교의 자유 투쟁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의 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을 짚는다. 더불어 주목할 만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이슈로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청소년노동인권의 상황도 인터뷰로 듣는다.

2003년과 2004년은 청소년인권운동이 다양한 의제를 제기한 해였다. 네이스 반대, 학교 내 종교의 자유, 강제야자 보충수업 반대, 18세 선거권 쟁취운동과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는 이 시기에 와서 본격적인 문제로 부각된다. 이것은 청소년인권운동에 새로운 의미와 과제를 부여했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은 모은 것은 네이스 반대 투쟁과 학교 내 종교의 자유 투쟁이었다. 그것은 다른 투쟁이 아직 청소년 주체의 참여가 미비한 대리적 운동이었던 반면, 두 운동은 청소년 스스로의 자각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네이스 반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인정!

2003년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인 네이스(NEIS)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겉으로는 행정의 효율과 사용의 편의를 내

세웠지만,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정보를 수집·사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일방적 강행과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맞서 인권단체들은 단식농성에 나섰고,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비롯한 강경한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와 교육부 간의 갈등, 정보인권 문제의 제기 등으로 큰 주목을 받은 시안이었지만, 투쟁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아이두넷’과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네이스를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등에서는 네이스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고, ‘청소년의 힘으로’, ‘희망네트워크 작은숲’ 등은 거리 캠페인, 연대 집회 등을 통해 네이스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당시 투쟁의 거점이었던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네이스반대공대위)에서도 앞서 말한 청소년단체들의 이름이 눈에 띈다.

청소년 스스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서명운동도 의의가 컸지만, 무엇보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거리캠페인, 연대 집회와 같은 청소년들의 직접행동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학생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학칙 아래서 학생들은 전교조 집회에서 연대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협박에 시달리거나, 야자 보충수업을 비롯한 입시지옥 속에서 대학이나 운동이냐를 강요받아야 했다.

정치참여를 금지한 학칙과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는 정보의 수집·이용을 허가한 네이스 강제적인 야자 보충수업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자기시간 통제권 상실과 네이스에서 나타나는 자기정보 통제권 침해. 묘하게 닮은 논리 속에서 네이스 반대 투쟁은 청소년의 권리 문제와 폭넓게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부산지역 동아리연합모임인 ‘희망네트워크 작은숲’ 활동을 했던 박정훈씨는 “네이스 강행의 문제는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어른들의 잘못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정보의 주체인) 학생들의 동의를 전혀 묻지 않고 네이스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데 그 본질적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청소년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네이스를 둘러싼 논쟁구도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되었다. 네이스를 찬성하는 단체든 반대하는 단체든 청소년들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건 똑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박씨의 말은 당시 네이스 투쟁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시각을 잘 드러내 준다. 이러한 생각으로 ‘희망네트워크 작은숲’, ‘청소년의 힘으로’ 등은 10월 경 교육청 앞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를 열기에 이른다. (강릉, 대전, 부산, 서울, 진주, 산청(산청은 도로변))

‘학교 밖에서의 투쟁’

네이스 반대 투쟁은 정보인권의 의제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움직임에 나섰다. 이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분명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와 ‘행정의 편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쟁구도에서 ‘당사자’의 ‘보장하라’는 주체적 선언은 그 울림이 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칫 학교 외적 사안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의 문제와



▲ '희망네트워크 작은숲' 소속 활동가의 부산광역시시교육청앞 1인 시위 <출처: 오마이뉴스>

관련지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네이스의 근본적 문제는 청소년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의 권리를 찾자. 현재 학교와 사회에서 청소년 학생들은 미성숙한 인간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시각 때문에 정치적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인간으로 대접받기도 힘든 상황이다’는 교육청 앞 1인 시위 당시 피켓의 문구는 이러한 네이스 투쟁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네이스 반대 투쟁은 학교 밖 활동의 활발함을 학교 내의 활동으로 이어가지는 못했다. “네이스 투쟁의 과정에서 학교 내 불복종 운동이 기획되기는 했지만 (학교 내의) 실질적인 흐름으로 이어가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보접근권 등 (학교 내에서) 문제제기할 지점이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당시 ‘청소년의 힘으로’ 활동가 꿈틀이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체 이후의 모색

네이스 반대 투쟁의 끝은 2000년 이후 산발적으로 생겨났던 자생적 청소년 인권 모임들의 해체와 맞닿아 있다. 네이스 반대 투쟁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청소년의 힘으로’, ‘희망네트워크 작은숲’ 등은 기존 활동가들의 대학입학, 활동가 재생산의 실패, 학교 측의 탄압 등을 이유로 해체되거나 활동이 위축되었다. 몇몇 단체들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과 같은 활력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2004년은 여러모로 새로운 조직의 정비가 모색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그 모색의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생적으로 움터왔다.

‘낮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2004년 6월 16일 아침 8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기독교계열 사립학교 대광고등학교에서는 ‘낮선’ 목소리가 교내 방송을 타고 들려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시 3학년이던 강익석씨. 그는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학교현실을 비판하며, 자신은 강제로 부과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소 격앙된 이 목소리는 100일이 넘게 이어질 학교 내 종교자유를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동시에 지금껏 ‘예배 때 잠깐 즐기고 말면 될 것’, ‘종교계 학교에 왔으니 어쩔 수 없지’라는 순종과 체념 속에 은밀히 내재되어 있던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불만이 분명한 요구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다.

당시 대광고는 매주 한 시간씩 예배를 보고, 이 시간에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 참석하도록 했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10분씩 있는 학급별 예배시간에는 ‘기도순서’를 번호순으로 부여해 비기독교 학생들까지도 기독교식으로 기도하도록 했다. 학생회장·부회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출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하면 음악 수행평가 과제로 ‘주기도송’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비단 대광고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당시 236개 종교계 사립학교 가운데 예배 등 종교의식을 가지는 학교가 157개교, 종교의식에 학생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학교가 30개교로 파악되었다. 학교 측에 전적으로 의존해 제시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것이었다.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는 분명히 분리되는 것이며, 종교교육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 시선’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종교계 사립학교는 개개인의 종교 선택권을 비롯한 종교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학교 혹은 ‘교육’이라는 ‘성역’을 방패삼아. 대광고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익석씨의 교내 방송에 대해 학교 측은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전학을 종용했다. 인권보다는 자신들이 말하는 ‘교육’이 우선이라는 논리였다.

이에 맞서 강익석씨는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학교 내 종교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 ‘미션스쿨종교자유 다음카페’, ‘청소년 모임 ROY(Right of Youth)’, ‘강익석군 부당징계 저지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연대회’가 꾸려진다. 그러나 연이은 1인 시위와 항의 기자회견에도 학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쟁이 시작된지 20여일 만에 학교 측이 내놓은 것은 강익석씨가 제적 처리되었다는 통보였다. 이때부터 대광고 사태는 특정 종교의식 강요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퇴학 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등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려 45일에 걸친 강익석씨의 단식이 시작되었다. 단식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상황은 급반전되었고, 결국 단식 46일째 학교 측은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예배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의 자율권을 준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여전히 ‘예배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목실장, 담임교사와의 상담 및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부분적인 승리인 것은 확실했다. 연이어 법원에서도 퇴학처분무효를 받아냈다.

‘학교에서의 저항’

종교의 자유 투쟁은 지금껏 단순한 ‘불만’ 정도로 인식되었던 특정 사학의 부당한 종교의 자유 침해를 ‘언

어화'시키고 그것을 정치 의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강의석씨의 “(종교의 자유 투쟁의) 성과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학생들도 사회를 향해 말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라는 말이 의미하듯, 청소년들의 자발적 저항을 다시 환기시켰다는 데에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기존 조직들이 여건상 놓치고 있었던 ‘학교 내 저항’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기존의 교육청 혹은 교육부에 서명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복종을 통한 학교와의 끈질긴 싸움은 청소년인권운동의 새로운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강하게 각인시켰다.



▲ 종교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주최 학교 내 종교자유를 위한 선언식
<출처: 1318바이러스>

그러나 종교의 자유 투쟁은 ‘강의석’ 이라는 1인에 강하게 의존함으로써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미리 준비된 계획이나 조직의 부재는 대광고는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여러 종교계 사립학교들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국토대장정이 시도되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여기에는 네이스 반대 투쟁 이후 여러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었던 것도 큰 몫을 했다.

남겨진 과제

네이스 반대 투쟁과 종교의 자유 투쟁은 청소년인권운동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강하게 부각시키며, 이후 새로운 모색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수 있다. 네이스 반대 투쟁이 그 조직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와의 직접적 싸움을 벌이지 못하며 학교 내 변화를 담보해내지 못했다면, 종교의 자유 투쟁은 ‘학교’와의 직접적 싸움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얻어냈지만 운동의 자생성을 이룰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취약했다. 결국 ‘학교’와의 직접적 싸움을 조직적 차원에서 어떻게 벌여낼 것인가가 이후 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정리/므스,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3〉]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말하다 - 〈인터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배경내 활동가를 만나」, 인권오름 제 46호, 2007. 03. 21.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3〉]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말하다

〈인터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배경내 활동가를 만나

정리/므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5년 10월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결과 발표회’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열렸다. 이 실태조사에는 현재 ‘일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있는지를 충격적으로 드러내주었다. 그러나 ‘일하는 청소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배경내 활동가를 만나 ‘일하는 청소년’의 배경과 경과 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일하는 청소년 문제가 부각된 배경과 전체적인 경과는?

2000년 초반 갈수록 소비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해가는 이면에 IMF 이후 가정환경의 변화가 놓여있었다. 결국, 가족 내 1인이 노동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 노동이 필요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전체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청소년 노동이 증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청소년 노동이 가시화되었던 것은 1960, 70년대 여공으로 상징되는 공장노동자들부터였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배경내 활동가 <출처: 월간 사람>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최초로 부각된 것은 2000년 YMCA에서 청소년노동상담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문제의식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참여연대에서 ‘힘내라 알바’라는 사업을 시작했다. 알바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 부당한 인권침해들을 청소년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듣고자 했던 운동이었다. 당시 알바 피해 청소년 고발 기자회견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2003년에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에서 현장실습문제를 제기했다. 실업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식에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직접적인 저항까지 조직하지는 못했지만 노동부 차원에서 근로청소년보호대책을, 교육부 차원에서 현장실습정상화방안을 내놓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

청소년 노동 문제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은 인원으로 수많은 사례에 대처한다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청소년 면접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리’하는 운동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뜻에 공감한 단체들이 모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이 함께 했다. 그리고 1년 반의 준비 끝에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가 발간되었다. 그리고 2회에 걸쳐 워크숍을 가졌고, 요청할 때 교육도 나가고 있다.

현장실습 문제는 어떠한가?

사실 청소년 알바의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도 일정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알바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장실습이다. 현장실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현장실습이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례를 모아 12월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교육부가 현장실습정상화방안을 내놓았다. 핵심내용은 간접고용을 금지하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가하겠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없나?

사실 일하는 청소년 문제에 있어 가장 큰 한계는 청소년 운동그룹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실업계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은 대학을 진학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현실의 불합리함에 눈감아버리거나 계속 일해야 하기 때문에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 문제에만 전념하는 활동기는 찾기가 힘들다. 청소년그룹의 부재는 청소년노동인권 문제가 풀어야 할 큰 과제이다.

어떻게 청소년들의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 혹은 현장실습을 받는 공장사람만큼 현장실습생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기에 진보적인 교사나 현장노조의 관심이 중요하다. 단순히 실습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예비 노동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단위학교, 지역에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고근예,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뽕뽕이 한해살이 운동을 넘어 - 2005년~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의 기록」, 인권오름 제 50호, 2007. 04. 18.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뽕뽕이 한해살이 운동을 넘어

2005년~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의 기록

고근예

‘인권의 공동묘지 대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의 두발규제를 조롱하는 환영인사가 등교길 학생들을 맞았다. 2005년 3월 25일 아침,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는 누군가의 ‘라카 시위’로 유쾌, 상쾌, 통쾌한 청소년들과 더없이 불쾌한 학교 측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운동장을 비롯해 학교버스, 학교 조형물에는 ‘NO CUT’, ‘헌법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라는 짧고도 명쾌한 그들의 주장이 써 있었다. 2005년 두발자유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두발단속의 광풍, 청소년인권운동을 부른다

2005년 2월, 새 학기가 시작된 중고등학교에는 어김없이 두발단속의 광풍이 몰아쳤다. 서울의 S공고에서는 개학 이후 첫 등교일에 150여명의 학생이 교문 앞에서 집단으로 머리를 잘랐다. 수업시간에 머리 자르는 도구(바리깡)를 들고 머리를 자르는 대구의 N고, 아침마다 교문에서 가위를 들고 자르는 서울의 G학교, 두발단속으로 걸릴 때마다 체벌하는 학교, 교문에서 기합을 주는 학교…….

학기 초 기강을 잡겠다고 나선 안하무인 학교의 횡포 속에 청소년들의 인권은 연일 잘려나갔고, 시도교육청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도 학교의 무자비한 인권침해를 멈추게 해달라는 청소년들의 절규가 이어졌다. 학교의 두발단속을 제보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강제이발과 두발단속은 온라인에서부터 이슈로 떠올랐다. 청소년 관련 인터넷 사이트 ‘아이두’에서 개설한 ‘두발제한폐지’ 서명사이트(<http://nocut.idoo.net>) 게시판에는 2005년 3월에 1만3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두발자유 서명을 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네티즌청원운동(아고라) 게시판에서도 ‘두발규제 폐지’가 여론을 모았다.

온라인 뿐 아니라 학교 내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도 시작됐다.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내에서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1천명이 넘는 지지 서명을 받았다. 진주지역에서는 청소년단체 ‘행동하는 청소년’에서 두발자유 거리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앞서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주최로 열린 청소년 대토론회에서는 많은 청소년들과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두발자유 운동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하고, ‘두발자유 학생운동본부(아래 학생운동본부)’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토론회를 준비할 때부터 참여했던 이송이(당시 고3)씨는 “처음엔 토론회한다고 뭐가 바뀔까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도 했었지만, 토론회가 끝나고 누군가가 ‘이대로 흩어지지 말고 뭔가 해보자’고 하면서 토론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학생운동본부를 만들고, 무엇을 할지 논의했다”며 “그런 운동의 경험이 처음이라 그런지 정말 신기했고, 그것이 5월 14일 집회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5.14 청소년 행동의 날

2005년 5월은 그 어느 해보다 두발자유외침이 크게 울려 퍼졌다. 학생운동본부에서 준비한 5월 14일 ‘두발자유와 인권을 위한 5.14 청소년 행동의 날’이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학생인권수호전국네트워크에서 마련한 ‘두발제한폐지·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청소년 거리축제’가 광화문 KT앞에서 진행됐다. 대구에서도 대구청소년문화아카데미 ‘우주인’이 두발제한 폐지 청소년거리축제를 열었다. 한편, 사회단체들은 ‘두발자유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운동본부’를 만들어 청소년 집회 준비를 지원하고 참가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시도를 막아내는 데 조직적 힘을 보탤다. 시민사회단체 운동본부 활동을 한 이근미(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사무국장은 “비록 당시에 (교육당국이나 국가인권위 등이) 두발규제에 대한 금지조치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발이 인권의 문제라는데 사회적으로 기본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한다.

5.14 이후에도 학내 시위와 캠페인은 계속됐다. 학기 초 집단 강제이발을 당한 송파공고에서는 5월 19일 두발자유를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학내시위를 벌였고, 26일 성남 풍생고에서는 1천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운동장 시위를 벌였다. 또 수원과 전주에서도 여름 이후 캠페인과 집회가 이어졌다. 당시 풍생고 3학년으로 시위에 참여했던 류득선씨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각 반의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모여서 10여분 정도 구호를 외치고선 해산했다”며 짧았지만 교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집회형식을 갖춘 보다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기억했다.

2005년 두발자유화 운동의 특징은 교내 집단 시위, 거리 집회 등이 이전보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몇몇이 아닌 집단의 행동으로 벌어진 점이다. 2000년에도 청소년인권운동 단체의 거리 캠페인과 학내 서명운동이 전개됐지만 2005년은 교문을 넘어선 준비된 집회로 청소년 인권운동의 조직적, 집단적 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학내의 시위를 둘러싼 청소년들 사이의 견해 차이, 두발규제와 완화, 자유와 자율 사이의 이견은 청소년인권활동가 사이에도 존재했지만 주요 쟁점은 이동하고 있었다.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이해가 자리 잡으며 2005년을 기점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의 조직화와 지속화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모이면, 힘이 돼!

한편, 2005년 청소년의 집단적 의사표현의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입시경쟁교육에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촛불 추모제’이다. 청소년의 자살 보도가 줄을 이으면서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은 5월 7일 자살학생 추모제를 갖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내신비중을 강화한 2008 입시개정안으로 슬렁이던 학교와 언론 그리고 성적비관 자살이 늘어나도 팔짱끼고 구경만 하던 교육당국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희망’의 이근미 사무국장은 “추모제로 마련된 것인데, 당시 내신등급제 강화로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경쟁하면서 압박 받던 청소년들은 내신등급제 반대를 주장하며 참여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추모제는 청소년의 괴로운 현실을 외치는 현장이 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집단행동에 교육당국은 행사 취소 압력부터 교사, 장학사 현장 배치까지 실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일부 언론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내신 폐지, 본고사 부활’로 몰아가며 청소년들의 주장을 왜곡하기도 했다. 사회 근간을 이루는 교육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집단적 문제제기는 정권과 교육부처, 기득권 모두에게 금기였던 것이다. 청소년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보다 일단은 참아야 할 ‘위험한 행동’일 뿐이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광화문에 모였고, 추모제를 치렀다. 이근미 사무국장은 “학교와 교육청의 징계 위협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거리로 나왔다”며 “청소년들의 주체적 힘을 확인한 순간이었고, 그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 힘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라고 기억했다. 두발자유 운동과 더불어 자살학생 추모제로 뜨거웠던 2005년 5월은 청소년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학교의 높고 견고한 담장을 훌쩍 넘어



▲ 2005년 5월 14일 진행된 청소년 행동의 날 포스터

섰다.

별뿔이, 되돌이표, 한해살이 운동을 넘어!

2000년 이후 최대의 조직적 활동을 보인 2005년 두발자유 운동은 하반기 들어서면서 소강국면에 들어섰다. 지역 청소년모임이나 개별 학교에서 간헐적인 캠페인과 시위가 전개되기도 했지만 상반기와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예년과 다름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해살이’ 운동 속에 진전 없이 매년 제자리인 논쟁, 공유할 수 없는 경험, 남지 않는 활동가라는 청소년인권운동의 한계는 결국 인권침해라는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되돌아오곤 했다. 이런 뼈아픈 기억 속에 몇몇 단체와 활동가를 중심으로 2006년 2월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이 마련됐다.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발전하는학생회 기자 등은 ‘청소년인권운동어디까지 왔나’는 주제로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을 열고, 공통의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전략을 구상하면서 워크숍 후속으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네트워크 전누리 활동가는 “네트워크는 2005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흠어지면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모였다”고 말한다. 전누리 활동가는 “각개 분산돼서 한 가지 의제에 집중적인 힘을 쏟아보지도 못하고 항상 패배했던 기억들을 넘어, 느슨하면서도 서로의 운동을 공유하고 조금이라도 맞춰나가는 연대체를 만들어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네트워크의 시작을 설명한다. 이수나로 유윤중 활동가 역시 “운동적인 면에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요청되었던 건, 역시 정말 ‘한줌’ 밖에 안 되는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이 스스로 좀 더 가시화시키고 운동 안에서 자기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뭉쳐야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말을 사회화시키고 블록화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청소년인권이라는 주제가 주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자기 정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경내 활동가는 “물론 청소년운동 전반의 한계와 극복 대안을 만드는 건 우리의 또 다른 몫이지만 청소년인권 사안이 부침을 거듭하며 되풀이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인권운동이 독립적으로 제기되고 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소년인권운동의 중심에서

2006년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집회를 준비하면서 가속이 붙기 시작한 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의 학내 시위를 지원하는 ‘스쿨어택’,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진행한 두발자유·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전국행진, 청소년 여름 인권캠프 등의 활동을 벌이며 숨가쁜 1년을 보냈다. 배경내 활동가는 “운동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청소년인권의 문제가 상급 발랄한 얘기, 혹은 어리광으로 여겨지지 않고 일정한 무게와 힘으로 제시됐다는 점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007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네트워크 활동의 중요한 성과로 지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네트워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배경내 활동가의 주장이다. 현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하나의 고정된 조직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역



▲ 2006년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진행한 두발자유·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전국행진

할로 만드는 것이 남겨진 과제라는 것. 또 학생인권 사안이라도 인권침해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통찰로 총체적으로 보고, ‘학생인권’이란 말에 갇히지 않는 ‘청소년’인권운동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활동은 온라인 중심, 개별적·고립적 행동, 주체 단절 등으로 지적되어 온 청소년인권운동의 한계와 어려움을 하나 둘 넘어서고 있다. 실제 네트워크의 결성 자체가 바로 이러한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물론 청소년인권운동이 가족·친구·교사를 상대로 하는 전방위 운동이라는 것, 합법을 가장한 학교와 사회의 반인권적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것 등은 여전하지만, 청소년인권운동은 2005년과 2006년을 넘어 2007년으로 이어졌고, 현재 네트워크는 그 중심에 있다.

전누리 활동가는 “학내 시위나 청소년들 요구의 핵심에 두발자유가 있는데, 이는 10년이 지났어도 쟁취하지 못한 청소년인권의 의제로 상징적인 면이 있다”며, “그만큼 이 의제에서 승리한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 두발자유를 넘어서 더 많은 의제 확장을 기대하며 “너무나 당연시되어서 그만큼 가려져있던 소수자의 문제, 더불어 무상교육 등의 사회적 의제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윤종 활동가는 “청소년인권운동은 단지 지금 성인들이 누리는 만큼을 청소년들도 누리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간,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학생운동본부,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자료〉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운동본부 선언문」, 인 권오름 제 50호, 2007. 04. 18.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자료〉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운동본부 선언문

학생운동본부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이자 언제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 발전에 한 몫을 해왔다. 그러기에 마땅히 그 위치에 걸맞게 자신의 개성과 의사를 자기 뜻대로 표현하고 자유와 권리, 인권을 제대로 누려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경쟁을 강요하는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 안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과 ‘학생’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요당해 왔다. 이런 현실을 뚫고 우리는 오늘 ‘두발자유화를 위한 청소년 행동의 날’을 열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자신을 억압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에 순응하고 체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참된 존재로 거듭날 것을 선언한다.

두발 규제는 명백하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머리카락을 얼마나 기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함부로 만지고 기준을 정해서 강제로 자르게 하는 규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반 인권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내려 보낸 두발규정 관련 지침은 이전보다 한 단계 나아졌지만 불충분하며 실제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아직도 많은 학생회들이 학교 측의 힘에 떠밀려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청소년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실현되는 진정한 두발자유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

두발 규제 문제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청소년 인권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때문이다.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주는 것이지 입시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학교는 청소년들의 모든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을 ‘입시’라는 이름으로 묶

어놓고 오로지 시험 문제 몇 개를 더 외우게 하고 경쟁을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고민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어딘가에서 입시경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최근 내신 성적에 상대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청소년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한 이러한 입시 교육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제대로 된 청소년 인권의 보장을 위해 입시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확실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덮어두려 하거나 왜곡하지마라.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마라. 우리는 생각할 줄도 알고, 잘못된 것에 대해 분노할 줄도 안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운동본부 2005년 5월 14일

두발자유를 위한 학생운동본부의 공식적 요구 사항

1. 전교생 설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견을 보장하라.
2. 학생대표는 학운위의 참관자의 자격이 아닌 규정을 제정하는 데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3. 학운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투표(학생의 2/3 이 동의할 경우)를 통해 제정하라.
4. 통과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들의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또한 학생들의 동의를 얻을 때 까지 새로운 안을 만들어 개정하라.
5. 규칙 개정에 관한 모든 과정은 학생들에게 공개하라.
6.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학운위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회 법제화를 실현하라.
7. 교사가 바리깡, 가위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할 시 그에 따른 제재를 두어 학생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8. 교육청 지침에 따르지 않는 학교는 예산 삭감등과 같은 그에 따른 제재를 두어 감시하라.
9. 학생들의 집회 참가나 학교 내 두발 규정에 관해 문제제기 하는 학생들의 징계 사항에 관련된 학칙 조항을 삭제하라.
10. 두발 규정만이 아닌 지나친 규제와 반인권적 규정에 관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 개정하라.

배경내,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자료>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 파란을 조직하다」, 인권오름 제 50호, 2007. 04. 18.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자료>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 파란을 조직하다

배경내

2006년은 한국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운동주체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분수령으로 기록될 만한 해였다.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은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도, 운동을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구심이 되는 단체들도,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독려하는 활동가도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한 발짝 나아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한두 명의 스타들에 의존하는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소년인권운동의 한계는 청소년인권과 관련해 술한 의제가 생산되었지만, 정작 현실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결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러한 반성에서 2006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공식 결성되었고, 한 해 동안 청소년인권 정세를 개척하고 주도해나가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여나갔다. 네트워크의 존재와 함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청소년인권의 요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매개 구실을 담당했고, 전교조·홍사단 등 기존 교육운동진영이 주축이 되어 등장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역시 청소년인권을 핵심적인 사회의제로 부각시키는 지렛대 구실을 했다.

사건, 사건, 사건...

2006년은 학생인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이 연거푸 터져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월 ‘죽음의 트라이앵글’ 동영상 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내신-수능-논술이라는 가혹한 입시지옥 문제가 또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5월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른바 ‘무릎 꿇은 여교사’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교권의 의미를 되묻는 사회적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6월 군산 초등학교 교사의 체벌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날더니 8월에는 대구에서 ‘체벌 200대’ 사건이 터져 체벌 논쟁이 불타올랐다.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를 징계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오래 그렇듯이 관심이 시들해지자 슬그머

니 꼬리를 내렸다. 물론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뜯’ 사건 말고도 무수한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학생인권 침해는 학교의 당연한 일상으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으니까. 그럼에도 예년에 비해 이들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아진 데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확산되었다는 것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청소년 저항, 학교를 겨냥하다

2006년은 거리나 광장에서뿐만 아니라 억압의 중심지인 ‘학교 안’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주체적으로 요구한 청소년들의 저항이 눈에 띄게 늘어난 해이기도 했다. 4월 서울 양동중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2백여 명이 모여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내시위를 벌였고, 학교가 꿈쩍도 하지 않자 7월에 2차 시위를 준비하는 끈질김을 보였다. 이십계도 2차 시위는 학교측의 원천 봉쇄로 불발에 그쳤지만, 이들을 지원하고자 찾아간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학내 시위를 원천 봉쇄한 학교측의 탄압을 규탄했다. 5월에는 서울 동성고 오병헌 학생이 강제 0교시 수업이 시작되는 아침 7시, 교문 앞 1인시위에 나섰다. 오병헌 씨는 체벌, 두발제한, 강제 0교시와 보충·야간학습, 외부 집회 참가 금지 등 학생인권을 억압한 학교를 비판하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후 2차례에 걸친 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병헌 씨는 징계에 대한 불복종도 계속해나갔다. 방학 중인 8월 초에는 7개 도시의 교육청 앞에서 학생 인권은 나 몰라라 하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는 동시다발 청소년 1인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어 같은 달 말에는 수원 청명고에서 일방적으로 개악된 두발규정에 대한 저항으로 1차 학내시위가 일어났다. 1교시 야간학습이 끝나고 쉬는 시간을 틈타 일어난 1차 시위는 교사들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며칠 뒤 2차 시위가 계획되었지만, 이를 눈치 챈 교사들이 소지품 검사, 휴대폰 압수 등 대대적인 봉쇄 작업을 펼치면서 시위는 결국 무산되기에 이른다. 11월 학생의 날을 맞아서는 서울경기학생회연합 주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회 100인 선언이 발표되었고, 12월 8일 ‘인권의 날’을 앞두고서는 과주 금릉중학교 학생들이 체벌, 강제이발, 소지품검사 등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와 과주시교육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저항의 버팀목, 네트워크 뜻을 올린다

이러한 청소년 저항의 곁에는 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있었다. 네트워크는 자칫 각개 분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청소년들의 저항 소식을 널리 알림으로써 청소년인권을 적극 의제화하는 한편, 저항하는 청소년들을 징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원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한 독자적으로도 다양한 기획활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저항을 독려하고 청소년활동가들의 연대와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네트워크의 출범은 2006년 2월 ‘청소년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이 낳은 결실이다. 지금까지 지지부진을 거듭해 오던 청소년인권운동을 한 단계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네트워크 결성이 제안됐고, 다음 달 후속 모임을 갖고 네트워크는 정식으로 뜻을 올리기에 이른다.

애초 청소년인권단체나 개인 활동가들의 느슨한 연대체 정도로 출발하고자 했던 네트워크는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행사 준비를 거치면서 활동에 가속도를 붙여나갔다. 단지 1회성 행사의 개최로 만족하지 않고 2006년을 적어도 두발자유를 쟁취하고 학생인권법을 통과시키는 원년으로 만들자는 폐기 아래 후속 활동들이 잇따라 기획됐다.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학생인권 탕탕 불 굴리기’는 학생인권법안 통과와 두발자유를 외치는 청소년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한편, 가정과 학교라는 유폐된 공간을 넘어 광장으로 나오는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학내 저항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아 학교를 직접 방문, 청소년들의 학내시위를 응원하는 ‘스쿨어택’ 사업은 학교라는 억압의 장벽에 대한 도전이자 학내에서의 청소년 직접행동에 불을 붙이기 위한 이중의 목표를 갖고 기획됐다. 스쿨어택은 상반기 서울 독산고와 양동중, 하반기에는 수원 청명고에서 진행되었다. 거리에서의 저항보다 억압의 심장인 학교에서 저항을 기획하는 일은 더 큰 용기와 청소년들의 결집을 요구한다. 학교와 사회가 가르쳐온 금기로부터 상상력을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스쿨어택은 소수 학교에서만 진행되었다고는 해도 청소년인권운동의 획을 긋는 새로운 시도였음에 틀림없다.

다른 한편, 네트워크는 청소년 여름 인권캠프를 통해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성장을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누구에 의해서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던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발굴, 재정리하는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라는 기획기사를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되는 주간매체 <인권오름>에 연재하는 일도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와 역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네트워크의 활동은 불꽃처럼 타오른 청소년들의 저항을 책임 있게 밀고나가는 단위가 없어 몇 년간 정체를 거듭해 왔던 청소년인권운동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청소년인권을 가로막아 온 오래된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면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추동해 냈다. 네트워크의 활발한 활동은 청소년인권모임의 결성과 활동을 격려, 지원하는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고, 대개 서울 중심으로만 전개돼 오던 청소년인권운동을 전국화하는 작은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 저항하는 청소년, 징계위기에 놓인 청소년들과 연대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운동단위가 상설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몫은 컸다고 볼 수 있다.

위로부터의 연대, 아래로부터의 선언

청소년인권운동의 도전과 성장은 교사들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기폭제 구실도 함께 했다. 7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청소년단체가 함께 모여 발족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학생인권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국회 앞 1인시위, 학생인권 촛불문화제, 학생인권 버튼 달기 운동, 학생인권 지지 선언 등의 활동을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여러 참가단체들이 운동본부에 기대만큼의 조직적 힘을 신지 못하면서 의례적 활동 외에 힘찬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명분 쌓기 운동’에 머무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운동본부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2006년에 주목할 만한 흐름은 전교조 지도부나 소수 교사들의 활동에 머무르던 학생인권 지지운동이 전교조 조직 아래에서부터 분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9월 22일 경북지역 학생인권백서 발간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북교사 인권지킴이 선언’을 발표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11월 2일 학생의 날을 앞두고 ‘전북교사 학생인권지킴이 선언식’을 가졌다. 단 두 곳에 그쳤지만, 전교조 지부 차원에서 발표된 학생인권선언들은 청소년들의 삶 가까이에 선 교사들의 자발적 다짐과 연대를 이끌어냈다는 의미에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서는 교대와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사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선배교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예비교사 청소년인권 연대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청소년인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고민을 예비교사의 주요 과제로 받아 안겠다는 이들의 선언은 기성 교사들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됐다.

뒷짐 진 국가

이처럼 청소년의 존엄을 짓밟는 사건들이 연거푸 이슈로 떠오르고 억압에 저항하는 청소년들의 직접행동도 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은 결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6년 5월 교육부는 강제 이발이나 폭언 등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침해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현장 확인 등 사실여부와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처리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주문했다. 그러나 이 지침이 하달된 이후에도 대구에서 일어난 체벌 200대 사건, 수원 청명고와 파주 금릉중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생인권 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았고 교육청의 대처 역시 미온적인 수준에 그쳤다. 개별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생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 지침이 마련돼 단위학교에 전달되었지만, 학교현장의 적극적 변화를 추동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육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 상반기 중 학생인권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였을 뿐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술한 문제들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함을 버젓이 알면서도 종합대책의 뚜렷한 방향을 내놓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교육부의 소극성은 체벌금지 법제화 방침의 실종에서도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대구에서 일어난 체벌 200대 사건으로 체벌금지 여론이 끓어오르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은 1년 내내 국회에서 잠을 잤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연거푸 터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학생인권에 대한 열망을 외면했다.

현재 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 그나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정부부처와의 조율, 국민적 공감대, ‘학교공동체’의 유지나 학교

명에 등 기성논리에 신경 쓰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학교 안 청소년인권의 기준을 확립하고 학교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학교공동체’라는 허울 아래 청소년의 존엄성을 볼모로 붙잡는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와 다른 내일, 2007년의 파란을 준비하며

2006년은 청소년인권을 부여받고 끈질긴 싸움을 벌여나갈 구심으로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자리를 잡았고 청소년 주체들의 학내 저항이 확산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도약을 이룬 해였다. 그러나 2006년을 휩쓸었던 ‘학생인권법 통과’나 ‘두발자유’라는 목표는 여전히 성취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그만큼 운동의 핵심주체들이 탄실하게 서지 못하고 대중화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학생인권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임들이 결집했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지만,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청소년인권운동의 한계를 단번에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전히 청소년인권운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주체들은 소수에 머무르고 있고, 청소년인권 함성은 전국 곳곳에서가 아니라 몇몇 도시만을 중심으로만 울려 퍼지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인권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이들의 활동력과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적·물리적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운동의 의제가 여전히 ‘학생 인권’에만 머무르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청소년 내부의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가 청소년인권의 이름으로 제기되고 각 소수자운동과 연대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한계를 조금씩 넘어가면서 어제와 다른 내일을 그리는 일은 2007년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2007년은 학교라는 억압의 성벽을 허무는 작업을 한층 고양시켜나가면서도 청소년 내부의 소수자 문제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때이다. 그리고 2007년에는 대선이 있다. 대선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요구를 결집, 확장시키고 청소년에 대한 구시대적 사회 인식에 종언을 선언해야 한다. 2007년은 2006년보다는 많은 자산을 갖고 출발한다. 2006년 활동이 낳은 결실이다. 그만큼 2006년보다는 좀 더 나은 2007년의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파란이 있는 곳엔 더 큰 파란을!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준비하라!’ 파란만장 전국행진의 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자료 출처; 청소년, ‘미래’를 넘어 ‘현재’로 - 200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정리- 전누리,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⑪ <끝>] 청소년인권운동을 바라보는 열 개의 시선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좌담회」, 인권오름 제 54호, 2007. 05. 15.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⑪ <끝>]

청소년인권운동을 바라보는 열 개의 시선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좌담회

- 정리- 전누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참가자
 - 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영선(교사),
 - 준휘(교사),
 - 근예(인권운동사랑방),
 - 해밀(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 윤중(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 누리(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양아치(교육공동체 나다),
 - 오범(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 박조은미(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

□ 스 (네트워크 공동연구팀이)80년대 고등학생운동부터, 1995년 최우주씨가 헌법소원을 낸 이후에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정리해왔거든요. 정리하면서 이후의 청소년인권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나누고 시작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오범 2000년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체 민주화 운동의 의제와 연관성 속에서 학내 대의기구, 직선제 등의 운동을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90년대에 최윤진 교수가 청소년인권에 대해서



처음 논문을 쓰고, 최우주씨가 헌법소원을 한 이후부터 자유권을 주제로 삼은 운동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구체적인 의제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몸에 대한 통제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인상적인 큰 흐름을 형성하지 않았나 싶어요. 차별, 두발규제, 야자도 몸에 대한 통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박조은미 최근에 와서는 두발자유나 그런 인권 의제가 많이 이야기된다고 생각해요. 두발자유운동으로서 ‘두발자유’가 상징하는 게 있고, ‘청소년인권’이란 말도 잘 와닿지 않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청소년인권’이라고 하면 통하는 의미가 생겼죠. 요즘에 와서는 운동 방식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알아가고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란 생각이 들어요.

누리 옛날보다 온라인이라든지 미디어, 이런 부분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담론들이나 조직이나 찾아갈 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이 생겼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맞고 머리가 밀렸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던 중에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거죠.

☐ ㅅ 교사운동은 어때요?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해서……

영선 인권이 중요하다는 관심을 가진 게 2005년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전교조가 시혜적으로 했던 면이 있는데, 강제야자 반대, 0교시 폐지 그리고 네이스 투쟁도 일부 학생들의 정보인권에 관한 거였는데 그건 학생들을 주체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한 거였죠.

청소년인권운동의 의미

양아치 전 청소년인권운동 하면 틈새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데올로기화되는 과정을 생각할 때 틈새를 찾는다면 그 시기는 청소년기인 것 같아요

박조은미 중학교 때 저는 되게 많이 맞았어요. 노골적으로 맞는 애였는데 졸업하고 나서 내가 겪었던 청소년시기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인권과 같은 내가 당연히 누렸어야 하는 권리들을 되새기면서 한동안

분노의 세월을 보냈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 주시하고 이쪽으로 눈이 돌아갔던 건 지금의 친구들이 그때의 나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 수도 있길 바랐기 때문이죠. 또 고 되면서 생각하는 게 3년만 참자, 이러면서 현재의 권리를 유예하잖아요. 청소년인권운동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내 권리를 찾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누리 활동가(왼쪽), 청소년다함께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조은미 활동가(오른쪽)

교사, 학부모 등의 주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누리 연대라는 게 힘을 모아서 억압하는 것들을 뒤집어버리는 건데 한편으로는 각 운동에 대한 모순들을 날카롭게 지적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교조 이번 집행부에서 활동하는 교사 중에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학교 교사였거든요. 담임교사와 그 전교조 선생님 두 명이 있는 교무실에서 담임이 나에게 욕을 하다가 뺨을 때리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때 전교조 교사를 봤는데 그 사람은 묵묵히 컴퓨터만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전교조는 ‘체벌반대’ 같은 것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청소년인권운동은 그런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선 그런데 헛갈리는 부분은 청소년인권운동을 학생들의 운동으로 잡으면 교사와 같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는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예요. 교사는 보살핀다고 해도 사실 보살핌이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하려면 전교조를 탈퇴해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선생님들 기본 입장은, ‘청소년인권’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럼 14세 이하의 범죄에 대해 부모가 책임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애들은 책임은 안지면서 권리만 이야기하나. 교사들은 학생들의 책임과 권리의 관계가 불균형적이라고 이야기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 人 운동을 하다가 전교조한테 느끼는 실망이라는 건, 기대 때문에 느끼는 실망인 거죠. 다른 교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실망하지 않고 싸우면 되는데……. 또한 전교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자기들이 가해자라고 느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자로서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있던 점이지요. 저는 이게 같은 측면인 것 같거든요. 과도한 책임이란 건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청소년인권운동도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교육운동 또한 그런 것 같은데, 애들을 내가 확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박조은 미 저는 전교조와 연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교조 뿐 아니라 운동이 서로 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세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청소년인권운동은 전교조와 연대를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근대사회에서 학교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해왔잖아요. 학교가 존재하는 한 관리자의 역할을 교사가 담당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엔 끊임없는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학내 민주주의나 학교에서 가해지는 통제 같은 건 교사들에게도 통제로 다가오고 학생들에게도 통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면 더 잘 할 수 있겠죠.

진보적 청소년인권운동과 사회운동과의 관계

해밀 저는 FTA 같은 사회적 이슈가 다른 사회단체들 간의 의무적인 연대 운동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청소년 인권운동 진영 내부에서 FTA를 어떻게 청소년인권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 연관되는 부분이 생기죠. 지금으로서는 두발자유 같은 이슈로도 청소년들의 힘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계속 운동을 진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운동이 필요하고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양아치 ‘왜 너희는 FTA에 연대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사람들이 아직도 청소년인권운동은 미성숙한 것,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건 생각과 시선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인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연대해야 할 운동인데, 청소년인권에는 침묵하다가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권력의 관계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운동에 대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입장

누리 2005년 내신등급제반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가 포함된 시민사회단체들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제발 집회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국가의 파트너로서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게 됐죠. 교육운동진영이 내신등급제를 공교육 강화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였지만 청소년들은 내신등급제 때문에 오히려 죽을 맛이었던 거잖아요. 청소년인권운동이 타협으로 머물렀던 기존 운동들을 비롯하면서

더 크게 뒤바꿀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 〃 지금 교육운동은 교사운동 중심이죠 내 신등급제의 문제를 보면 교육운동이라는 게 교사운동이 독점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전교조를 제어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세력의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청소년운동이라는 게 더 진보적인 청소년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침체된 교육운동의 급진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아치님.

근예 청소년인권운동이 교육제도에 대해 발언하는 건 자기 수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제도는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데 의견도 내지 못하고 다른 주체들이 결정하는 대로 끌려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아있는 쟁점과 청소년 소수자 인권운동

준휘 학교 현장이나 전교조 차원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이주노동자 자녀들이에요 한국학교를 정식으로 다니든, 청강 식으로 다니든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지역에 많아지고 있죠 그 청소년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탈학교 청소년이 되지 않는다면 곧 중·고등학생이 되는데 지금 같은 폭력적인 학교 시스템에서는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저는 청소년 소수자 인권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인간이 혁명이 가능한가, 인간에게 혁명적 사회가 가능한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고민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죠 저는 교실 청소년 학생들 두발에는 신경을 안 쓰는데, 급식지도에 들어가서 누가 남의 돈까스를 먹는가 아닌가는 민감하게 하거든요 그걸 지도하지 않으면 결국 힘이 약한 애가 못 먹는 거예요 애들끼리의 권력 관계에 대해 외부적 억압이 없었을 때도 어떻게 조화를 이뤄내는가는 중요한 문제죠 조화로운 인간이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소수자인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활동가들이 말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의 방향

양아치 청소년들이 살아온 과정들은 가족이나 학교에 의해서 끊임없이 의식화되어온 과정이잖아요. 가족이나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온 건 어떤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두려움과 무의식적인 무언가를 각인시켜온 거거든요. 그걸 깨지 못하면 인간해방, 혁명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운동이라는 게 인간의 평등-공통점만 보게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차이들을 간과하게 되는데, 그런 차이들을 인정할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면 혁명 뒤에도 더 끔찍한 세계가 될지도 몰라요. 이런 걸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서로 다른 부분들을 같이 묶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준휘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청소년인권운동은 힘든 운동이죠.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은 교사의 인권에 비례하더라고요. 결국은 교사인 나를 위해서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서로 같이 성장해야 한다고 봐요.

영선 교육운동의 담론을 전교조가 주도하는 때는 지났고, 청소년인권운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교무실보다는 교실 상황이 그래도 희망적이에요.

오범 청소년인권운동이 청소년시기에만 할 수 있고 그때만 유의미성을 갖는다는 편견, 그리고 나이를 특권

화하는 방식으로 정당화하면 안될 거 같아요. 또 독자적인 사회운동으로서의 청소년인권운동은 아직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함께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박조은미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다른 사회문제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주입받고 억압받는 과정들이 해체되는 것은 전사회적으로, 또 인권운동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리 저는 지금 대학생이지만 청소년인권운동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청소년인권운동은 아직 관료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무궁무진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근예 청소년인권운동이 한해살이 운동이었다는 한계가 있었죠. 지금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당분간 청소년인권운동은 생존하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해밀 청소년 당사자가 자신이 진정 바라는 욕망이나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솔직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한 운동이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윤중 인권감수성을 키운다는 것은 자기가 가해자의 위치에 있던 피해자의 위치에 있던 횡단을 하고 욕망의 개념도 넓혀서 만들어가는 운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운동을 하는 주체들의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조금 막막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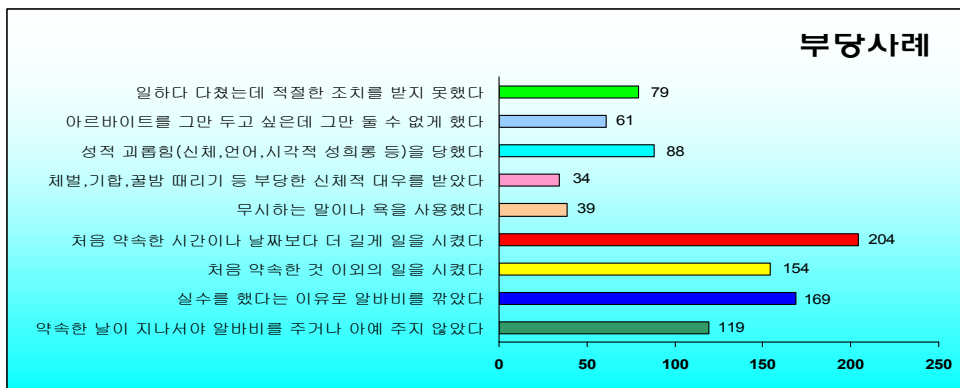
□ ㅅ 많은 사람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눈을 감았지만, 청소년인권운동은 부당한 교육과 학교에 저항하는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항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중요하죠. 스스로를 확장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건 중요하고, 그 힘을 가지고 타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청소년인권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사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불편함이라는 게 청소년인권운동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불편함이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 11장.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10조) 中 1. 열악한 청소년 노동권 현실」,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약식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 42개 단체, 2008. 11.

제 11 장.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10조)

1. 열악한 청소년 노동권 현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심각한 입시 경쟁 속에 놓여있으며 그로 인해 노동을 한다는 것은, 입시교육제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과 학벌 차별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입시를 통해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노동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며 하게 되는 일 역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보고서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08.6

한국사회에서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 강한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청소년 인권 문제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또한, 고임금 노동의 기회가 청소년들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 업소(유혹업소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질의사항

(1) 한국의 교육제도(입시제도)가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한국정부는 인지하고 있는가?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시오.

(2) 한국 청소년들은 생계형 노동의 기회를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불법적인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한국정부는 인지하고 있는가?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한 대안과 계획을 제시하시오.

(3)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의지가 있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시오.

(4)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한국정부의 캠페인 등이 일회성 행사이고,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5)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2005.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부서 마련) 시행 3년이 지나도록 대책 내용 중 노동교육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 교육’,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도 “마련 중”이다. 대책 마련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하시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 12장. 아동권(10조)」,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 55개 단체, 2009. 09.

제 12 장. 아동권(10조)

제 1 절. 아동·청소년 노동

A. 현황 및 문제점

263. 한국 사회에서 아동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무시, 폭력, 부당 대우 등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엔 아동을 학교와 가정에만 있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아동 노동을 부수적이고 가치가 낮은 노동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청소년에게도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으나, 2009년 현재도 아동 노동자의 48% 정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 체불(35.9%)이나 임금 미지급(8.5%) 같은 피해도 일어나고 있다.¹⁾ 2008년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조사에서도 평일에 일하는 아동 노동자의 46.6%, 주말·공휴일에 일하는 아동 노동자의 43.9%가,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노동자들은 계약보다 더 많은 노동을 강요당하거나, 차별, 성적 괴롭힘과 같은 폭력에 시달린 경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²⁾

표 22. 아동 노동자들의 시급 수준과 부당한 대우를 겪은 비율

시급	3000미만	3000-3770	3770 (최저임금)	3780-4000	4000-4500	4500-5000	5000이상	무응답
평일노동	13.4%	33.2%	6.4%	9.9%	14.2%	2.7%	9.3%	10.9%
주말노동	12.9%	31.0%	5.3%	10.8%	14.0%	4.3%	12.2%	9.5%

1) 데이터뉴스, 2009년 7월 9일자.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090709171827560>

2)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2008).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실태보고”. 2008청소년노동실태조사 자료집.

부당한 대우 유형	비율(%)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초과근로, 과외 업무지시, 퇴직부자유)	28.7%
임금 및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 업무상재해 미보상, 최저임금)	25.1%
인격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 (폭언, 체벌, 성희롱 등)	11%

자료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8 청소년노동실태조사

264. 정부보고서 250항에서는 아동노동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동 노동 상황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노동청은 주로 방학 기간에 일부 대형 사업장과 체인점들(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위주로 제한적 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들에게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265. 정부보고서 251항의 아동 노동자의 노동 권리에 대한 홍보·교육의 실효성도 낮다. 2008년 조사에서 아동 노동자 중 노동부의 홍보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는 경우는 5.9%밖에 안 됐고³⁾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정부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은 것도 0.7%에 불과해⁴⁾ 노동부 캠페인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노동과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B. 결론 및 권고

266. 정부는 아동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의 감독을 더욱 강화하며, 사용자의 진술에 의지하기보다는 아동 노동자들의 실태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3)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2008).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실태보고”. 2008청소년노동실태조사 자료집.

4) 이투데이 보도, 2008년 10월 17일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101&idxno=189633>

267. 한국 정부는 아동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노동 권리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동 노동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편견들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도 필요하다.

제 2 절. 아동·청소년 성매매 (제10조)

A. 현황 및 문제점

268.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1월 발표로는 2008년 하반기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은 69명으로 상반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적발된 성매매 아동·청소년 중 생계비를 벌기 위한 것이 44%, 용돈 및 유희비 마련이 38.2%였으며, 성매매 아동·청소년 중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⁵⁾ 적발된 성매매 아동·청소년 중 95.4%가 성인 성구매자들과 접촉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했다고 답했는데, 이러한 성매매는 집단 성매매 업소 등과는 달리 단속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B. 결론 및 권고

269.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는 가출 청소년 정책, 청소년을 위한 주거·노동 정책 등과 같이 다뤄져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선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주거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70. 경제 불황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매매예방 교육 외에 복지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제대로 된 성교육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적인 성의식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

제 3 절. 아동 성폭력

A. 정부보고서 평가

5) 경향신문. 2009년 1월 29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91559341&code=940100

노컷뉴스CBS. 2009년 1월 30일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50741>

271. 정부보고서 제254항에서는 법정형 강화,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24세까지 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령을 바꾸어 2009. 6. 9. 개정되었으며, 2010.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위 개정법에는 공소시효 정지의 내용은 전혀 규정된 바 없고, 친고죄 규정 역시 2007. 8. 3.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현행 규정과 변동이 없다.

B. 현황 및 문제점

27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전학이 필요한 경우 학교당국에 피해사실을 일일이 밝히면서 전학을 허락해 달라고 사정해야 하며, 전학절차가 매우 복잡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학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273.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⁶⁾. 이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데⁷⁾, 정부는 아직도 교육의 질보다는 시행횟수 등 양적인 성과물에만 집착하고 있다.

2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상담소 등도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제22조 제2항), 상담의 경우 상담내용의 비밀유지가 전제되어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의무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275.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76.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

6) 연합뉴스, 2008. 4. 15.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045292>

7) 한겨레 21(제709호), 2008. 5. 8.자

<http://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8/05/021003000200805080709025.html>

의 진술은 성인의 진술과 차이점이 많아 아동의 특성을 감안한 수사 및 재판이 요구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법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사과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최근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 참여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⁸⁾

C. 결론 및 권고

277.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사실이 노출될 염려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 관련 절차 및 학교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78.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교육 횟수만이 아닌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279. 정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아울러 아동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 미이행 시에도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담소 등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제 4 절. 청소년 비혼모의 권리와 실효성 있는 성교육

A. 현황 및 문제점

280. 청소년의 성행위와 임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임신 중절(낙태)을 택하고 있다. 2002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임신한 청소년의 70~80%가 낙태를 통하여 임신문제를 해결하고 있다.⁹⁾ 낙태를 택하지 않고 양육을 택하더라도 학생인 비혼모들은 학교의 제재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구조이고 6.8%의

8) 뉴시스, 2009. 3. 8.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563249>

9) 열린우리당 신학용 국회의원(2006). 청소년정책 개선 방향과 정책제안. 2006 국정감사 자료.

비혼모만이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281.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행위를 한 청소년의 70% 이상이 전혀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피임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¹¹⁾ 그러나 학교에서 성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상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청소년의 성행위를 금기시하여 피임 방법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B. 결론 및 권고

282. 정부는 청소년 비혼모들을 위해 생활비, 양육비 지원, 주거지원, 탁아소 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해결, 피임과 성 건강, 성행위와 전반적인 관계 맺기, 성차별(성별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모두 포함) 예방 등 전반적인 내용의 성교육이 개발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5 절. 빈곤·결식아동

A. 현황 및 문제점

283. 한국에서 2006년에 절대빈곤(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상소득)에 해당하는 아동 수를 추정하면 약 99만여(8.9%)명¹²⁾에 이른다. 그러나 2007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지원받는 아동은 422,260명에 그쳤다. 그럼에도 아동복지예산은 예산편성에서 우선순위가 낮으며,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11%(2007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¹³⁾

284. 정부는 결식아동 대상 급식 지원을 늘려왔으나 아직도 지원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상당수 있다. 2009년 1월 정부 조사에 따르면 방학 중 전국 결식아동 수는 453,631명이었으나

10) 세계일보. 2009년 2월 25일자.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225004447&subctg1=&subctg2>

11) 열린우리당 신학용 국회의원(2006). 청소년정책 개선 방향과 정책제안. 2006 국정감사 자료.

12) 보건복지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2006). 「2006 한국의 주요아동지표」.

13) 김미숙, 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을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7권 제1호. pp.03~26.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여름방학 때부터 결식아동 294,599명만을 지원해 약 16만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들이 급식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¹⁴⁾

285. 또한 결식아동 지원에 책정된 급식비는 비현실적으로 낮다. 현재 결식아동 지원 급식 단가는 한 끼당 3,000원으로 양질의 식사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¹⁵⁾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한시적 급식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내년 이후 약 32만 명 정도의 아동들의 급식 지원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¹⁶⁾

B. 결론 및 권고

286. 정부는 빈곤 아동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급식에 지원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6 절. 가출 청소년

A. 현황 및 문제점

287.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2009년 ‘청소년 가출 예방’ 예산은 15% 감소했다.¹⁷⁾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전국 9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16개소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¹⁸⁾ 또한 쉼터들의 시설은 열악하거나 시설 점유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¹⁹⁾ 쉼터의 통제위주의 생활 규정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도 있으며, 레즈비언 등

14) 뉴시스. 2009년 1월 15일자.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90115101018637&p=newsis>

15) MBC. 2009년 7월 21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394303_2687.html 한국의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적어도 5000원 안팎의 돈이 필요하다. 3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인스턴트 식품이나 김밥, 짜장면 등의 분식이나 간식거리 정도이다.

16) 한국일보. 2009년 7월 25일자.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7/h2009072502505684100.htm>

17) 서울대저널. 2009년 4/5월호(통권 제96호). <http://www.snujn.com/article.php?id=1717>

18) 서울대저널. 2009년 4/5월호(통권 제96호). <http://www.snujn.com/article.php?id=1717>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컴퓨터에서 강제로 퇴소당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²⁰⁾

288.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2004년부터 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함께 생활하는 교사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고, 전문 인력 확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²¹⁾ 또한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도 사생활이 잘 보장되지 않고 생활에 대한 통제로 인한 인권침해나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다.

B. 결론 및 권고

289. 정부는 컴퓨터와 공동생활가정 등에 더 많은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고, 그 수를 늘려야 한다.

제 7 절. 가정과 학교에서의 차별과 학대

A. 현황 및 문제점

290. 한국은 명백한 폭력인 차별이 학교, 가정, 그 어디에서도 금지되지 않았다. 특히 학교에서 발바닥을 110대나 맞은 차별이 계기가 되어 자살을 한 학생의 사건도 있었다.²²⁾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라고 말하며 학교에서의 차별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291. 한국 정부는 최근 학교 차별의 대안으로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두발, 복장, 수업태도, 시간표 등까지 하나하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결국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쉽게 벌점이 누적되어 학생들이 중징계를 받고 퇴학 등을 당하고 있다. 상벌점제가 시범 운영된 2008년, 수원지역의 4개 학교에서만 79명이 퇴학당하고, 111명이 강제전출 당했다.²³⁾ 뿐만 아니라 차별이 금지되지 않고 상벌점제를 도입하여 차별과 상벌점이 동

19)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7). 2007년도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20) 한국레즈비언상담소(2007). 주거권운동워크샵 “홈리스? 홈잇수? - ‘시설’과 ‘가족’을 통해 본 주거권운동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며” 자료집.

21) 경향신문. 2009년 5월 4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41615415&code=940100

22) 연합뉴스. 2009년 5월 24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5/24/0200000000AKR20090524009200054.HTML?did=1179m>

시에 운영되는 학교들도 있다.

292. 한국 사회에서 가정 체벌은 부모의 당연한 권한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에서의 체벌은 매우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교육 기관인 학원에서도 지각, 규율위반, 성적 향상 등을 이유로 체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학생간 폭력도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는 이를 불명예로 생각하여 축소,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정이나 학원, 학교에서의 체벌은 실태조사나 통계도 없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도 없다.

B. 결론 및 권고

293. 한국 정부는 학교, 가정, 학원, 기타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3) 부평신문. 2008년 12월 1일자. <http://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0>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 9장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인권운동 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0. 04. 28

제9장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제 1절 개요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 후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CRC/C/15/Add.197)고 밝혔다.

그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0년 청소년의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할 권리’ 등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절 학교 교칙에 따른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집회나 시위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또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교칙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 교칙의 “징계”와 관련된 항목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허가 없이 단체나 씨클을 조직했거나 가입한 학생’,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수업을 거부한 학생’, ‘동맹휴학을 선동, 주도하거나 동참한 학생’, ‘학교질서를 문란 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시킨 학생’, ‘불온문서를 소지, 배포한 학생’ 같은 내용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교칙들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의견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자치적인 동아리 활동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09년 10월, 서울 ‘서울방송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안에서 일제고사(국가주도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배지를 교복에 착용하였다가 배지를 강제로 빼앗기고 교사에게 훈계를 들었다. 그 학생은 가방 안에 있는 일제고사 시험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지과 배지들을 교사에게 압수당했다. 또 2007년 경기도 안양 ‘평촌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주장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학생을 ‘불법 유인물 배포’라는 명목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자료 참고 - 옥동중, 평촌고, 경수중 등 전국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칙들)

청소년들의 초·중·고등학교 안에서의 집회는 교칙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교사들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고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7년 5월 10일 울산 옥동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내 집회를 진행하려 했던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고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체벌을 당했다. 2010년 3월 인천 ‘정각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하교시간에 두발자유, 벌점제 폐지 등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려 했으나 교사들에 의해 강제로 해산 당했다.

제3절 2008 촛불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겪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2008년 5월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일어났을 때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감과 장학사 약 900명을 집회 현장에 보내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기도 화성교육청은 “학생들이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집회 참가 학생들의 인적사항 파악”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몇몇 중·고등학교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통신문과 교내 방송으로 공지하면서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켰다.

또한 같은 시기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한 고등학생이 촛불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가서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그 학생의 학교로 직접 찾아와 교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집회를 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교사를 통해 학생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008년 서울의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 퇴학시킨다’는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서울 송곡고등학교 김인식의 경우 촛불시위 참여 경력을 이유로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심지어 경찰은 2008년 6월 촛불집회 강제해산과정에서 청소년 4명을 강제연행 하였고 훈방을 조건으로 반성문을 강요하였다. 2008년 8월에는 한 청소년에 대해 집시법 위반, 공용물 손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를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의 인식이 청소년들의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에 대해 부정적이다. 최근에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초·중·고·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할 자유가 있다고 명시한 것이 논란이 되어 결국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교육부, 교육청, 학교, 경찰 등은 자의적으로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일쑤이다.

제4절 권고

○ 한국 정부는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칙들을 개정하여 청소년들의 학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청소년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시민·정치적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고 있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교사, 교육행정가, 경찰, 공무원 등에게 적절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사회적 캠페인 등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청소년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전반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법률, 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 3차 심의에 관한 의견서

저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여러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청소년의 권리에 관해 한국에서 2006년부터 연구·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저희는 이번 UN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3, 4차 심의에 관해서 간략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심의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체벌

요약 : 일부 지역에서 학교 체벌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 학교 체벌을 제한하려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특정한 형태의 학교 체벌을 공식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 외에 가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1.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지시를 통해 학교에서의 모든 체벌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2.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체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처벌"을 금지했다. 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3.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보도자료와 지침 등을 통해 이 조항을 이른바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학생을 직접 가격하는 체벌은 금지하지만,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힘든 동작을 하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자세로 벌을 세우는 등의 체벌은 허용한다고 하고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에서는 근절해야 할 체벌이 신체적 고통 또는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하는 처벌, 비물리적이더라도 잔혹하고 굴욕적인 처벌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실상 이러한 종류의 체벌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4.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가격하는 체벌을 금지한 조항 역시, 지역에 따라 시행이 다르게 되고 있다. 체벌금지에 동의하지 않아서 교육감들 중에는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들

이 책임 중인 지역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을 구타하는 체벌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행령 개정 이후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5. 한국 정부는 가정과 사설 학원 등에서의 체벌에 관해서 이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가정과 사설 학원에서는 체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조사도 잘 하지 않는 실정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 2차 최종견해(CRC/C/15/Add.197) 38, 39항은 가정, 학교 및 모든 사회 기관에서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무상교육과 경쟁적 교육 환경

요 약 : 한국은 사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이 높으며 고등학교의 학비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중학교 무상교육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다. 국가교육재정의 분배에 있어서도 성과주의 도입으로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교육투자가 교육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구지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교육 지출 부담은 개인간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교육 전반이 갈수록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6. 현재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학교 운영회비, 교재비, 급식비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7.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학비는 학교 등록금만 1년에 160~200만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들을 수백개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는 1년에 등록금만 400만원이상 필요한 고액의 고등학교이다. 이는 UN아동권리위원회가 2차 최종견해(CRC/C/15/Add.197) 53항에서 중등교육을 무상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을 불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8. 한국에서는 경쟁적 교육환경 때문에 공교육비 뿐 아니라 사설 학원 등에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이는 교육불평등의 원인이 된다. UN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3차 최종견해(E/C.12/KOR/CO/3)에서 이를 지적하며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큰 부담이 됨을 인정하고 교육 비용에 대한 보조를 권고했다.

9. 최근 한국 정부는 만5세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무적인 계획으로, 성실하게 실행에 옮길 것을 기대한다.

10. 한국 정부는 2008년,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시험을 동시에 치르는 '일제고사' 시행과 학교별 성적 공개, 학교 서열화 정책 등으로 경쟁을 더 격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4~2008년 까지 5년 동안 학생 623명이 자살했다고 발표했으며, 통계청의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통계청의 같은 통계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성적, 진학문제가 53.4%로 절반 이상이어서, 경쟁적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2009년 UN사회권위원회 역시 3차 최종견해(E/C.12/KOR/CO/3)에서 과도한 경쟁과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 악화에 우려를 표하였고, 과도한 학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릴 것과 학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UN아동권리위원회 2차 최종견해(CRC/C/15/Add.197) 53항에서 교육의 경쟁성을 감소시키도록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고 권고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요 약 :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들에서 자의적인 인권 제한과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개성발현권, 양심·사상·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12.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 일부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는 없다.

13. 대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의적인 두발복장규제, 소지품 검사 등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개성발현권 등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학칙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학교들은 청소년의 이성교제 등 교우관계를 통제하는 학칙을 가지고 있다.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으면 처벌하는 학교들도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행사 등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는 학교들도 많다. 종교재단 사립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학생들을 성적, 경제력,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에 따라 차별하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성적에 따라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알려진

적이 있다.

14. 초중고등학교에는 학생회에 대한 통제와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이 존재한다. 학생회 활동을 교사가 통제하거나 학생회 선거에 성적 자격을 두는 학교들이 많다. 학생이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막은 사례, 학생인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학생회 선거를 방해한 사례, 학생회에서 발행한 신문에 체벌 사건을 고발했다고 해서 그 신문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막은 사례 등이 알려진 바 있다.

15. UN아동권리위원회 2차 최종견해(CRC/C/15/Add.197) 36, 37항에서는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2010년 언론을 통해 "교내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공식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16. 많은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상벌점제는 자의적인 인권 제한 내용이 많은 학칙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을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4. 참여 및 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

요 약 : 청소년의 참여 보장은 매우 형식적이고 불충분하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제한하는 태도가 존속해 있다.

17.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에게 그 존재도 충분히 홍보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특별회의는 위원의 다수를 기관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뽑는다. 결국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제5회 398명, 제6회 137명 등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참여하고, 다수의 청소년들이 그 활동에 관심을 가지거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18. 청소년특별회의는 과거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제안했으나, 2009년부터는 제한된 의제에 대해서만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예 : 제5회 진로직업(2009), 제6회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및 체험활동(2010)) 2008년까지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안한 선거권 연령 인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청소년노동권, 학생인권 보장 등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바가 없다. 정부는 지역적인 제안의 경우에만 반영하고 있으며, 이 추진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감독하는 절차가 없다.

19.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교의 학칙들은 학생회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할 방법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20. 한국 사회와 학교는 청소년들이 교외에서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2005년 학생들이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자 교사들, 교육청 장학사들이 학생들의 참가를 막기 위해 집회를 감시했다. 2008년 고등학생이 정부 비판적 집회를 하려고 집회신고를 하자 경찰이 학교에 찾아와서 학생에게 압력을 가한 사건, 학교에서 정부 비판적 집회에 참가하면 징계하겠다고 위협을 가한 사건 등이 일어난 적이 있다.

21. 현재 한국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은 만19세미만의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 정당 활동을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정, 학교, 기타 기관과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이 존속해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청소년에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UN이동권리위원회 2차 최종견해(CRC/C/15/Add.197) 35항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5. 청소년 노동

요 약 :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노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저임금, 무시, 폭력, 부당 대우, 건강·안전상의 위협 등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거나 청소년들이 노동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2011년 조사한 것에 따르면, 고등학생들 중 37.4%가 최근 1년 사이 노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정부는 2005년부터 청소년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선했다. 그러나 절반 가까운 청소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201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같은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노동한 적이 있는 고등학생들 중 평일 노동 46.8%, 주말 노동 50.6%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또한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56.7%), 임금체불 및 삭감(26.0%), 성희롱, 폭력 등 인격 모독(30.9%) 등을 경험한 비율도 높다.

24. 2009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자들은 노동 과정에서 건강·안전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조사한 청소년 노동자 중 62.0%가 휴식시간 없이 노동하며, 53.9%가 제대로 된 보호장구 없이 '뜨겁고 위험한' 작업을 했고, 59.0%는 일하는 동안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했고, 23.9%는 업무와 연관해서 사고로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고로 다쳤다고 답한 청소년 노동자 중 43%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다치더라도 대부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25. 정부는 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감독이 용이한 일부 대형 사업장 중심이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노동권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26. 1996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1차 최종견해(CRC/C/15/Add.51) 17항에서 아동이 노동해야 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불충분하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여전히 불충분하며, 아동이 노동 과정에서 착취나 폭력, 건강·안전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마저도 불충분하다.

2011.09.07.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UN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 3차 심의에 관한 의견서 (영문)」, 2011. 09. 07.

**Written Opinion concerning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s
Third Consideration on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We, the Youth Human Rights Activists' Network, are an organization composed of many children rights activists researching and acting on the rights of the child, organized since 2006. We submit a short written opinion concerning the third and fourth consideration about the R. Korean government of the current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e will be grateful if this document is used as a reference for the consideration.

1. Corporal Punishment

Summary : It is positive that some regions have started to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at school, and the government tried to limit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But the R. Korean government is still allowing some types of corporal punishment at school. Also, there are absolutely no measures taken to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not only in school but the society in general, such as corporal punishments at home.

1. In 2010, any type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of Seoul and the Gyeonggi Province were prohibited by the legislation of 'Student's Rights Ordinance' of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by orders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ese changes are welcome.

2. In 2011,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s amended the article concerning corporal punishment of the implementing ordinance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reby prohibiting "punishment using body parts, instruments, etc. to inflict bodily pain." This too, is evaluated as positive.

3. However,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s interpreted this article, through press releases and guidelines, that it allows the so-called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In other words, the article prohibits corporal punishments that concern hitting the student directly, but does not forbid punishments which force the students to do physically exhausting actions repetitively, or keep them in a position that causes pain.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s General Comment 8 states: the corporal punishments that should be eradicated include not only punishments causing bodily pain and/or discomfort, but punishments that are nonphysical but nevertheless

brutal and humiliating als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s practically allowing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officially and with that recommending the punishments even.

4. The article that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using body parts and/or instruments too, are implemen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gion. Among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re cases in which the superintendent does not actively supervise the schools he/she is responsible for, and physical punishments concerning the beating of students still occur openly in the regions where those superintendents are in office.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is not taking active measures to eradicate corporal punishment after the amendment of the implementing ordinance.

5. The R. Korean government has taken no effort whatsoever in prohibiting and preventing corporal punishment at home,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etc. Corporal punishments occur frequently at home a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but even researches aren't being actively done on the issue, because the recognition that corporal punishments are problematic is not socially established. Article 38 and 39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s secondary concluding observation (CRC/C/15/Add.197) has recommended to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the school, home, and all other institutes", of which the R. Korean government is not implementing properly.

2. Free Education and Competitive Educational Environment

Summary : The proportion of private expenditures for public education is high in Korea. The free secondary education is expanding, but that has not been completed and the tuition of high school is increasing. The gap between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are getting bigger. Nearly half of household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and that makes deepening of inequalities between individuals. Also the education system is getting too competitive. Hence it is becoming a serious problem.

6. Currently in Korea, free education is achieved 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a complete free education is in place, for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require fees for school governing committee, textbooks, school meals and so on. Backup systems such as the child endowment system does not exist either.

7. Free education of high schools have yet to start. High school tuition fees alone are 1.6~2 million won per year. Also, the government is proceeding with a policy of running hundreds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of which the tuition needed is more than 4 million won per year. This is an insufficient implement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s secondary conclusive observation article 53 (CRC/C/15/Add.197), which recommends to provide strategies for free education of secondary schools.

8. In Korea, people generally end up spending much more on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than public education expenses due to the competitive educational environment, this leading directly to one of the causes for educational inequality.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s pointed this out through its third conclusive observation of 2009 (E/C.12/KOR/CO/3) and thereby recommended the government to acknowledge that excessive expenses for private education operate as a big burden on the people paying, as well as supporting education expenses.

9. Recently, the R.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free education in day-care institutes for children under 5. This is an encouraging plan, and we hope that it is implemented with care.

10. The R. Kore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uniform test'('Iljegosa'), of which every school must take the same type of exam at the same time, and policies that intensifies competition such as the school ranking polic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s announced that during the 5 years from 2004 to 2008, 623 students have committed suicide, and according to the 2010 statistic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first cause of death for teenagers was suicide. Also, according to the same statistics, it is very clear that competitive education has some serious harmful effect on children, for the leading reason for children from 15 to 19 to consider suicide was 'school records, applying to higher levels of education' with the number of 53.4%.

11.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xpressed concern also in its third conclusive observation of 2009 on the deterioration of students' mental health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and stress from studying, and recommended to inform the effects that children receive from excessive studying, as well as reconsidering the 'uniform test', which causes unnecessary competition among schools. It is clear that the R. Korean government is not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s secondary conclusive observation (CRC/C/15/Add.197) article 53, which recommends that education policies be reconsidered to reduce the competition in education.

3. Human Rights of Children in School

Summary : In some regions are efforts to guarantee the rights of students made. However, many schools are still arbitrarily refining and violating students'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manifest individuality, freedom of conscience, thought and religion, freedom of privacy,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re mainly being violated.

12. In the Gyeonggi Province,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has been legislated, and efforts to guarantee the rights of students in school is being made. Some other regions are also promoting to legislate the 'Students' Right Ordinance'. But there are no lawmaking measures made to ensure the rights of students nationally.

13. There are school regulations that infringe civil rights of children (eg. Arbitrary regulations on hair and dress code, regulations of child's freedom of expression!!, privacy, rights to convey individuality by means of examining child's belongings, etc.) in most of middle, and high school. Some schools have school regulations that restrict child's relationships. There are even schools which punish child when they embrace or hold hands. Moreover, schools considering child's exertion of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s punishment subject are prevalent. Considerable number of schools founded by religious group force its student religion education, participation on religious events. Discriminations on students by factors such as grades, financial stability, handicap, sexual orientation, races exist. Schools which provide different facilities to students according to their grades had been disclosed.

14. Rules that regulate student union's action and students' political exertions exist in man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Most of the schools let teachers to control student union and require academic grade qualifications to whom wanting to run for the student union elections. There were incidents of schools prohibiting students from running for student union election because he or she participated in rallies and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 Also incidents of restricting distribution of school newspaper which has revealed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have been disclosed.

15. Article 36 and 37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s secondary conclusive observation(CRC/C/15/Add.197) recommends that every child be ensured with freedom of associ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the R. Korean government has not taken sufficient measures to ensure it. Rather, Ministe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Ju-ho Lee stated an official opinion through the press in 2010 that "the freedo

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inside school cannot be allowed."

16. The reward-and-punishment system is being introduced and enacted in many schools. However, the reward-and-punishment system is in many cases applied and used by school regulations with arbitrary contents, and cases of misuse are being reported in which the system is used to expel students from school. Therefore, improvements of the system are required.

4. Citizen's political rights such as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assembly

Summary : Assurance for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is very formal and insufficient. The existence of the Commission on Youth Participation and the National Youth Congress are not well known to children , and has no actual authority. Students cannot participate in school governing committees, and an attitude of refining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exists continuously throughout home, school, and the society in general.

T7. he Commission on Youth Participation and the National Youth Congress is not sufficiently publicizing themselves to the children. Also, the National Youth Congress elects many of its members with recommendations from heads of organizations and/or authorities like them. Conclusively, the Commission on Youth Participation and the National Youth Congress is not publicly known, very few children are provided with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it (e.g. 398 children for the 5th National Youth Congress, 137 children for the 6th National Youth Congress), and many children cannot apply their opinions or take interest in the activity.

18. The National Youth Congress had set up agendas about policies in general that would affect children and suggested various policies in the past, but since 2009 it has dwindled to suggesting policies with a limited boundary only. (e.g. the 5th Career and Occupation(2009), the 6th Self-Initiated Capability Development and Experience Activities(2010)) What the National Youth Congress had repetitively proposed until 2008, such as cutting down voting ages,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school governing committee, child labor rights, ensuring students' rights and so on, has not been actually applied to policy. The government applies the proposal if it is a minor one, and that promotion even has no evaluation and/or supervision procedure to check if it is fulfilled properly.

19.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has decided that students may not participate as members for the school governing committee. Also, the regulations of many schools does not allow the student council to discuss and/or decide issues concerning school management. There is absolutely no assurance provided for students to participate in school management.

20. The Korean society and school has a negative view on children participating in political events outside school. In 2005, when students held a rally criticizing education policies, teachers and school inspectors watched the rally to prevent participation of students. There are similar cases also. For example, in 2008, the police came to a school to put pressure on a student, who had submitted a notice of an assembly to hold a government-criticizing rally, and in the same year there was also a case in which the school threatened students with disciplinary actions if they participated in rallies criticizing the government.

21. Currently the Political Party Law and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of South Korea forbid individuals under 19 to join a political party and/or participating in election campaigns. (e.g. expressing ideas for/against an election) An attitude of regarding children as 'immature' beings and thereby not recognizing their rights of participation is prevalent at home, school, other institutes and society in genera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proceed to improve on the matter and start a campaign concerning that children have the right to express or act on their ideas, thereby failing to fulfill recommendations of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pecifically for Article 35 of its' secondary concluding observations (CRC/C/15/Add.197).

5. Child Labor

Summary : Many of the children in South Korea are in the labor market. Those workers are prone to under-payment, ignorance, physical violence, unjust treatments, health problems, safety risks etc. The government is not putting appropriate efforts to protect child workers or prevent situations in which they have no choice but to work.

22. According to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KTU)'s 2011 research, 37.4% of high school students have at least once had a experience of joining in a labor market in a year.

23. The government has amended the law to give children the minimum wages from 2005. However, about half

of the child-workers are receiving payments under minimum wages. 46.8% of weekday workers, and 50.6% of week end workers who are high school students have received under-payment, according to the KTU's 2011 research on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worked for the recent year. Moreover, ratio of experiencing unjust work-condition change (56.7%), delayed payment and wage-cut (26.0%), sexual harassment, abuse or insult (30.9%) is high.

24. According to the Children's Labor Rights Network's 2009 research, child-workers are experiencing health and safety problems during work hours. 62.0% of researched child-workers are working without rest-time, 53.9% are working in 'hot and dangerous' condition which lacks appropriate safety gear. 59.0% have experienced Musculoskeletal Disorders during work hours, 23.9% answered that they have experienced injuries related to work. However, 43% of child-workers who answered to have experience of getting hurt during work hours did not undergo medical treatment. Most of the child-workers are not covered by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25. The government is supervising and inspecting for children's labor protection. However it is limited to big workplaces which are easy to supervise, and thus it does not obtain any tangible effect due to the method survey which are made by questioning the employer. Moreover, the educations on Labor Rights in school are not properly proceeding.

26.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ve expressed its concern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insufficient actions to prevent situations of children having no choice but to work in its' first concluding observations (CRC/C/15/Add.51) Article 17. Nevertheless, those actions are still lacking, and even the most basic efforts for protecting children from exploitations, abuse, health and safety risk is not sufficient.

2011.09.07.

the Youth Human Rights Activists' Network

UN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영문)」, 2011. 10. 06.

United Nation

s

CRC/C/KOR/CO/3-4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istr.: General
6 October 2011

**ADVANCE UNEDITED V
ERSION**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Fifty-eighth session

19 September – 7 October 2011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consolidat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3-4) at its 1644th and 1645th meetings (see CRC/C/SR.1644 and CRC/C/SR.1645) held on 21 September 2011, and adopted, at its 1668th meeting, held on 7 October 2011 (see CRC/C/SR.1668),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I.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State party's consolidat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CRC/C/KOR/3-4),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reporting guidelines of the Committee, as well as the written replies to its list of issues (CRC/C/KOR/Q/3-4/Add.1).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analytical and self-critical nature

of the report. The Committee further appreciates the constructive dialogue held with the cross-sectoral delegation of the State party.

II. Follow-up measures undertaken and progress achieved by the State party

3.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following legislative measures:
 - (a) The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 August 2011;
 - (b) The revision of its Civil Code, in September 2011;
 - (c)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March 2011;
 - (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revention of Suicide and Creation of Culture that Respects Life, in 2011;
 - (e) The revision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in March 2010;
 - (f) The enacting of the Act on Supporting the Welfare of Disabled Children, in 2011;
 - (g) The revision of the Child Welfare Act, in 2011;
 - (h) The amendment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in 2011.
4. The Committee also welcomes the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 (a)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on 11 December 2008.
 - (b)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18 October 2006.
5. The Committee also welcomes the following institutional and policy measures:
 - (a)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Five-Year Plan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in 2010.

III. Main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A.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arts. 4, 42 and 44, para. 6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s

6. The Committee welcomes the efforts made by the State party to address some of the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CRC/C/15/Add.197, 18 March 2003) made upon consideration of the State party's second report (CRC/C/70/Add.14, 26 June 2002) and on the initial report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C/OPSC/KOR/CO/1, 2008) and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RC/C/OPAC/KOR/CO/1, 2008). Nevertheless, the Committee

regrets that some of it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have been insufficiently or not been addressed at all.

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address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its second periodic report which have not yet been implemented,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establishing a subcommittee on children's rights insid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and, reviewing its education policy with a view to reducing the high levels of stress it subjects children to.**

Reservations

8. The Committee welcomes the government's withdrawal of its reservation to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in October 2008. However, it regrets that the State party has maintained its reservations to article 21 paragraph (a), on ensuring that adoption is subject to competent authorities with due regard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article 40 paragraph 2 (b)(v), on ensuring that every child alleged as or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State party's penal law having a right to having such a decision reviewed by a hig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according to law, of the Convention.
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withdrawing its reservations to articles 21 paragraph (a) and article 40 paragraph 2(b)(v), which constitute an obstacle to the full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 Legislation

10. The Committee welcomes the fact that the State party's Constitution allows for the direct applicability of the Convention in its national law.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re are insufficient domestic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generic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at its courts very rarely apply the Convention directly.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legislative prohibition of abortions, except in narrowly defined situations of exception, does not adequately take into account the best interests of the pregnant adolescent and can give rise to situations which exacerbate the difficulties faced by pregnant adolescents, including exposing them to the risks of unsafe illegal abortions and/or their forced discontinuation of studies and/or forced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1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including by considering further relevant legislation, to ensure that all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e adequately applied in its judicial decisions.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its legislation on abortion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it i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cluding by ensuring that single adolescent mothers are allowed access to safe abortions and adequately protected from the risks of illegal abortions and the forced adoption of their children.**

Coordination

12.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reduced coordination in the State party'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due, inter alia, to the State party's Child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CPCC) not being operational since 2008 and that the State party's policies for children and youth are implemented by separate Ministries,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respectively, leading to policy fragmentation. While no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party's Youth Policy Intergovernmental Council,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need for improved coordination of youth policies.

1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Restore and strengthen its CPCC or, preferably, establish an appropriate body with the necessary authority and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 b) **Ensure clarity in the child-rights-related functions and relations between the differe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relevant national, regional and municipal bodies; and in doing so, effectively coordinate all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for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National Plan of Action

14.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e adop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2011, in May 2007. Nevertheless,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lack of a comprehensive rights-based national plan of action for children covering all areas of the Convention.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absence of a follow-up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period after the lapse of the current plan.

1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relevant partners, adopt and implement a national plan of action for children which covers all areas of the Convention and allows for the provision of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as well as a monitoring mechanism. In addition to thi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xpeditiously commence with the preparation of a follow-u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ost-2011 period with transparent and thorough consultations with civil society and children. In doing so,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into account the outcome document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Children, “A world fit for children” and its mid-term review.**

Independent monitoring

16.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KMCCR) and its accompanying Children’s Rights Ombudspersons, acting in the field.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is institution lacks an independent and functioning mechanism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with regard to:

- a) The KMCCR not having legal status and being subject to a budget line that is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b) The absence of a mandate for the KMCCR for Children’s Rights and Ombudsperson system to actively monitoring or investigating child rights violations and receive complaints;
- c) The mandate of the KMCCR being subject to an annual evaluation of its performance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with potential implications for its independence and continuity.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ving been downsized by 21 % in March 2009, and despite previous recommendations by the Committee remaining without a specialization in child rights.

1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learly define the legal status of the KMCCR, with the objective of providing it with a clear mandate and provide sufficient independent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to ensure the effective operation of both the Centre as well as the Ombudspersons system to effectively monitor and investigate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Furthermore,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appropriate conditions for the independence and continuity and children’s rights specialisation**

of the KNHRK, taking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2 (2002) on the role of independent human rights institutions.

Allocation of Resources

18. The Committee welcomes the increase of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sectors (16, 5 % higher than in 2008). However, the Committee notes with deep concern that, in the context of the State party's advanced state of economic development, current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s as a proportion of available resources remain low. According to the 2009 OECD Family database, the Republic of Korea ranked the lowest among the 26 Member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sparities in the level of resources available to different municipal author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1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Review and increase the level of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ith the view to aligning it more closely with its advanced stat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 relation to OECD levels;
- b) Evaluate the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s at the central and municipal levels from a child rights perspective to ensure adequate realization of child rights and prevent disparities among children of different municipalities and/or geographic locations. To this effect, conduct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budget needs by sectors and municipalities and establish the allocations for those areas that progressively address the disparities in indicators related to children's rights;
- c) Utilize a child right's approach in the elaboration of the State budget by implementing a tracking system for the allocation and the use of resources for children throughout the budget, thus providing visibility to the investment on children. The Committee also urges that this tracking system is used for impact assessments on how investments in any sector may serv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ensuring that the differential impact of such investment on girls and boys is measured;
- d) When possible, follow UN recommendations to start budgeting-by-results to monitor and assess the effectiveness of resource allocation;
- e) Ensure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budgeting through public dialogue, especially with children;
- f) Define strategic budgetary lines for children in disadvantaged or vulnerable situations that may require affirmative social measures (for example, children of refugees or migrant workers) and make sure that those budgetary lines are protected even in situations of economic crisis, natural disasters or other emergencies;
- g) Take into account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during its Day of General Discussion in 2007 on "Resources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Responsibility of States".

Data collection

20.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lack of methodological coherency in the undertaking of data collection and the absence of disaggregated data on area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despite various policies and programmes to reduce relative and extreme poverty among children, there is no data on

children living in poverty in the State party and there are no measures to reduce disparities in the budgets and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poverty reduction.

21. The Committee strongly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stablish a coherent system to comprehensively collect disaggregated data covering all areas of the Convention that, inter alia, takes into account ethnicity, gender, age, geographic location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It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ultidisciplinary studies on the trends that may be discernible in the data.

Dissemination, awareness-raising and training

22. While noting as positive the partial inclusion of human rights content in the school syllabus of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low level of awareness of the Convention among children, the general public and professionals working with or for children.

2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additional measures to raise awareness by, inter alia:

- a) Further including education on child and human rights in the school curriculum;**
- b) Ensuring adequate training on the Convention for all professional groups working with or for children;**
- c) Strengthening measures to raise awareness of the Conven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International cooperation

24. While recognising that the State party has gradually increased its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assistance,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s allocation of its gross national product (GNP) to international assistance remains at approximately 0.13 per cent, which is significantly below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rget of 0.7 per cent of GNP which it committed to reaching by 2015.

25.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meet and, if possible, surpass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rget of 0.7 per cent of GNP by 2015.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the realization of child rights becomes a top priority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reements established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doing so, the Committee suggests that the State party take into account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 the recipient country in question.

Child rights and the business sector

26. The Committee welcomes increasing interest by the business sector in the State party, one of the most dynamic economies in the world,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hich for now seems to focus exclusively on environmental issues. While noting aspects of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which, inter alia, address labour standards and minimum wage, the Committee notes that there is no comprehensive legislative framework regulating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of companies' activities, neither in the State party territory nor abroad. In particular, the Committee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 a) The State party is importing products from countries, which are under investigation by the ILO (and the European Parliament) for reportedly using forced child labour, thus becoming complicit with a serious breach to child rights ;

- b) Businesses from the State party are reported to be signing or planning to sign land leases in various countries with negative implications for, inter alia, the right to water and housing; ; and
- c) N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eems to have preceded negotiations for Free Trade Agreements that the State party has entered into or are pending entry into .

27. In ligh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8/7 of 2008 adopting the report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and of Resolution 14/7 of 16 June 2011 requesting the new Working Group to follow-up on this matter, both of which note that the rights of the child be included when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Further promote the adoption of effective corporate responsibility models by providing a legislative framework that require companies domiciled in Korea to adopt measures to prevent and mitig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in their operations in the country and abroad, whether by its supply chain or associates. The inclusion of child rights indicators and parameters for reporting should be promoted and specific assessments on business' impacts on child rights should be required;**
- b) **Monitor the entry of products to prevent the importation of those which are produced with forced child labour and to use its trade agreements and national legislation to require that the products entering in its market are child labour free;**
- c)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its companies respect child rights when engaging in projects abroad and to cooperate with foreign Governments that are carrying out processes of prior and informed consent when projects affect indigenous peoples or impact assessments on human/child rights; and**
- d) **Ensure that prior to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human rights assessments, including child rights are conducted and measures adopted to prevent violations.**

B. General principles (arts. 2, 3, 6 and 12 of the Convention)

Non-discrimination

28.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draft Anti-discrimination Act of the State party was discarded without consider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07 and that the legislative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does not contain an expres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nationality.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that continue to persist in the State party, including those agains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or migrant backgrounds or who have come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fugee childre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single mothers, particularly those who are adolescent, including with regard to their preclusion from State support measures.

29.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 a) **Expediently enact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ith the objective of adopting legislation that is in full compliance with article 2 of the Convention;**
- b)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awareness-raising and public education campaigns, to eradicate and prevent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children in vulnerable or minority situations;**

- c) **Provide adequate support to single mothers, including those who are adolescent.**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30.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e State party's efforts to address suicide among its youth and children, including through the Basic Plan on the Prevention of Suicide (2004). However, it remains deeply concerned at the severely high rates of suicide in the Republic of Korea.

31.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research on suicide risk factors among children, both in the families of children affected and the education system, with the aim of using the results of such research to guide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policie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t further recommends that such policies and measures include the provision of adequate preventive measures and follow-up procedures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the adequate provision of social workers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services for all children affected .**

Best interests of the child

32.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explicit reference to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the legislation of the State party concerning children and the infrequent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in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as well as policies and programmes relevant to children.

33.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strengthen its efforts to ensure that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s appropriately integrated and consistently applied in all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edings as well as in all policies, programmes and projects relevant to and with an impact on children. The legal reasoning of all judicial and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decisions should also be based on this principle.**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34. While welcoming the establishment of a State-party organized conference for children and youth to express their views,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neither the legal processes of the State party nor its socio-attitudinal context take into account the views of the child, particularly those below the age of 15 , on decisions affecting them.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amending its legislation to ensure that children have the right to express their views and have thes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ll decisions affecting them, and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 **Ensure that the Child Welfare Act, be revised to include the right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and take effective measures, including through legisl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 views of children and facilitate their right to be heard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by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cluding schools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in the education system;**

(b) **Provide educational information to, inter alia, parents, educators, government administrative officials, the judiciary and society at large on children's right to have their views taken into account and to be heard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c) **Undertake a regular review of the extent to which children's view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of the impact this has on policies, programmes and children themselves;**

(d) **Take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2 (2009)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C. Civil rights and freedoms (arts. 7, 8, 13-17, 19 and 37 (a) of the Convention)

Birth registration

36.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and practice in the State party are inadequate in providing for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by the biological parents of children in all situations. In particula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birth registrations can be undertaken by adoptive parents or persons holding public authority, resulting in the occurrence of de facto adoptions in absence of proper judicial oversight, including in situations concerning single adolescent mother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birth registration is not practicably or consistently available for persons in refugee, asylum-seeking or irregular migration situations.
37.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status and/or origin. In doing so, the Committee further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and verify that the registration accurately indicates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child.**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38. While noting as positive, the State party's prohibition of compulsory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in practice, private schools managed by religious institutions continue to restrict the freedom of religion of its students, including those who may not have enrolled in such schools voluntarily.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current initiatives do not adequately facilitate an atmosphere conducive to religious diversity or sufficiently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needs or constraints of children of particular religions, including with regard to their dietary requirements.
3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further measures to ensure, that in practice and in all settings,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s fully respe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such measures be taken with a view to facilitating an atmosphere conducive to the appreciation of religious diversity that accords due regard and sensitivity for the specific requirements or constraints of particular religions, including with regard to dietary requirements.**

Freedom of expression, of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40. The Committee expresses concern, that despite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CRC/C/15/Add.197, para.37) schools continue to prohibit the political activities of students.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management committees of schools preclude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that there are limited opportunities for children out of school in urban and rural areas to exercise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41.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and in the light of articles 12 to 17 of the Convention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amend legislation, guideline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hool regulations to facilitate children's a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in political activities both within and outside schools and ensure that all children fully enjoy their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expression, including with regard to allowing for students to (i) take part or conduct political activities, including in the school context; and, (ii) meaningfully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committees of schools.

Corporal Punishment

42.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concerns (CRC/C/15/Add.197, para. 38) on the continued prevalence of corporal punishment in the domestic, school, and alternative care context.

43.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o:

- a)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be amended to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schools and all other institutions;
- b) Carry out public education campaigns abou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ill-treatment of children in order to change attitudes to corporal punishment, and promote positive, non-violent forms of discipline in schools and at home, including the pilot green mileage system as an alternative to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 c) Establish mechanisms which allow for children who are victims of corporal punishment to report such incidents.

Violence against children, including abuse and neglect

44.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increased occurrence of child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and neglect in the State party and the narrowly defined legal obligation to report such abuse.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rate of bullying at schools has increased in occurrence and severity. Furthermore, while welcom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y remain limited in number and have insufficient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the provision of post-trauma and rehabilitative support for victims of such abuse and/or neglect is inadequate.

4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Strengthen and widen the legal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and neglect, including with regard to bullying at schools, by providing adequate mechanisms for such reporting to take place with due regard for the safety and privacy of persons reporting such abuse;
- b) Establish more protection agencies, including at the local level and with the allocation of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which are necessary to guarantee their effective functioning, including for the provision of adequate post-trauma and rehabilitative support for victims of abuse and/or neglect;
- c) Take into consideration the General Comment 13 (2011)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46. With reference to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A/61/299),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 a) Prioritiz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ncluding by ensuring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gender;

- b)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by the State party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Study in the next periodic report, particularly those highlighted by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namely:
 - (i) The development in each State of a national comprehensive strategy to prevent and address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 (ii) The introduction of an explicit national legal ban on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all settings; and
 - (iii) The consolidation of a national system of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dissemination, and a research agenda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 c) Cooperate with and seek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UNICE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other relevant agencies, inter alia, ILO, UNESCO, UNHCR, UNODC, as well as NGO partners.

D.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arts. 5, 18 (paras. 1-2), 9-11, 19-21, 25, 27 (para. 4) and 39 of the Convention)

Children deprived of a family environment

47.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efforts to provide family-type care for children in need and the establishment of additional facilities for the provision of such care. However, it notes with concern that the assessment of such alternative care institutions only evaluates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such institutions, and does not assess the quality of care, skills and training of the professionals and treatment provided.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lack of information on complaints mechanism for addressing instances of abuse or neglect in such institution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t the absence of a tracking system for children who have lost contact with their parents.
4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nsure the systematic periodic review of quality of care; regular training, including on child rights, of its relevant professionals; and type of treatment provided to children i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providing alternative care in conformity with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 b) Ensure mechanisms for receiving complaints,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for child abuse in alternative care settings and ensure that victims of abuse have access to complaints procedures, counselling, medical care and other recovery assistance as appropriate;
 - c) Provide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settings with adequate support for establishing and/or maintaining contact with their parents;
 - d) Take into full account the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contained i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64/142 adopted on 20 November 2009.

Adoption

49. While noting as positive the State party's revision of it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and its Civil Code which would, upon its coming into force, require approval decision of its Family Court for adoptions,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adoption of children during the interim period prior to the said Act coming into force. The Committee also remains concerned at:

- a) The absence of a clearly mandated central authority to provide regulatory oversight on adoptions and legislation codifying the obligation of the State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to intervene in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s;
- b) The absence of listening to the child if the child to be adopted is under the age of 13;
- c) The fact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hildren born to single adolescent mothers are given up for adoption and that the parent(s) or legal guardian(s) of single adolescent mothers are allowed to authorise the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in absence of their consent;
- d) The paucity of post-adoption services available, particularly for children who had been adopted inter-country and including with regard to addressing the linguistic difficulties faced by such persons seeking information on their biological origin;
- e) The State party remaining a non-State party to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5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editiously under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adoptions prior to the above Act coming into force are provided with adequate equivalent protection. The Committee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a further review of its system for inter-country adoptions with a view to reforming legislation in order to bring it into full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particular article 21 and to specifically:

- a) Define a clear mandate, with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Korea Central Adoption Resources agency to effectively perform its role and fun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Hague Convention, and including with regard to the provision of post-adoption services with due regard to ensuring the practicable access to such facilities by persons who have been adopted inter-country and may not be proficient in Korean;**
- b) Ensure that the child's views are given due weight, having regard to age and maturity,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 c) Ensure that the consent of single adolescent mothers is mandatory for the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nd that they are provided with conditions that ensure that such consent is not obtained under de facto or actual duress;**
- d)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hat all adoptions, including those in an inter-country context, are subject to authorisation by a clearly mandated central authority with adequate capacity to provide judicial oversight and regulation;**
- e) Consider ratifying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E.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 (arts. 6, 18 (para. 3), 23, 24, 26, 27 (paras. 1-3) of the Conventi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51. The Committee welcomes the Act on Supporting the Welfare of Disabled Children, its Rehabilit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Childrearing Assistance Program for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government assistan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only provided to low income households and does not cover physical therapy and vocational training.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bout the difficulti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females, face in receiving education, at the limited availability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supervisors, and that the majorit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ceive their education in special schools or classes that are segregated from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52.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9 adopted in 2006 on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C/GC/9) and:

- a)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o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 b) Facilitate access to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undertake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further strengthen its measures to provide adequate training to teachers and school supervisor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their educational needs fully catered to;**
- c) Implement the Bill for the Special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ore effectively, by inter alia supporting it with adequate budget and personnel;**
- d) Ensure that, whenever possible, inclusive education is provide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Health and health services

53. The Committee welcomes the increase in the healthcare budget of the State party and the allocation of a specific budget for the provision of health insurance. It also welcomes the Medical Aid program for low income households and public campaigns against smoking as well as its efforts to strengthen the health screening and vaccination of young children. However,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despite these increases, the healthcare budget of the State party remains at a low proportion of its total budget.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disparity of the availability and quality of paediatric health and emergency care between large medical centres and smaller local hospitals.

54.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RC/C/15/Add.197, para. 49 (a)) for the State party to increase to a significant level the funding allocated to health and establish a system of public care facilities so that low-income families may have access to health systems at no cost;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to provide small and mid-sized local hospitals with increased financial, technical and human resources for the provision of paediatric medical and emergency care throughout its territory.

Mental health

55.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efforts to improve children's mental health by, inter alia, establishing 32 centres for mental health services nationwide.. However,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e overall state of child mental health in the State party has deteriorated and that the rate of depression and suicide among children has increased, especially among girls.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implementation of a diagnostic tool for facilitating the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suicide, however, is nevertheless concerned that the diagnostic tool could negatively impact the child's right to privacy.

5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a child mental health-care policy that is based on a thorough study of the root causes of depression and suicide among children, and invest in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system of services, including mental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activities, out-patient and in-patient mental health services, with a view to ensuring the effective prevention of suicidal behaviour, especially among girls. In doing so,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void the institutionalisation of children in such situations. Furthermore, in applying its diagnostic tool for the detection and prevention of suicid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dequate safeguards for ensuring that the diagnostic tool is applied in a manner that fully respects the right of the child to privacy and to be adequately consulted. While implementing the above, the Committee also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examining the social and family factors related to suicide in addition to or, where appropriate, in alternative to a mental health approach.**

Adolescent health

57.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ay further ban businesses that manufacture, process, import, distribute, or sell refreshments for children from placing commercials for high-calorie, low-nutrition food during children's television programs. Nonetheless, it is concerned about the high number of children suffering from childhood obesity and other health problems resulting from unhealthy nutrition.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rate of smoking and drinking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 in Korea continues to rise and that internet addiction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58. Furthermore,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despite initiatives undertaken to provide mandatory sex education programmes, in practice there continues to be a lack of systematic and accurate educ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 schools. In this context, the Committee is also deeply concerned about the high rates of unplanned pregnancies among adolescents and the correspondingly high rates of abortion among adolescents in such situations.

59.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increase its information and education campaigns, including by engaging the mass media,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health risks of tobacco, alcohol and internet addiction. In doing so, the State party is encouraged to ensure that such campaigns take into account and address the specific context of adolescents and contribute to building their capacity to lead healthy lifestyles and practice balanced consumption patterns and take additional measures to regulate the marketing of unhealthy food having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health.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sex education programmes in the school curriculum are conducted in a systematic and reliable manner.**

Social security and standard of living

60.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initiatives to improve the welfare of women, the elderly and youth, pursuant to article 34, paragraphs 3, 4, and 5 of its Constitution.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an obligation to improve a child's welfare.

61.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amending its legislation to include specific and obligatory financial allocations for child welfare at adequate levels.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equality and equity in programmes to reduce poverty and improve the standard of living of all children.**

F.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rts. 28, 29 and 31 of the Convention)

Education, including vocational training and guidance

62. Despite the efforts made by the State party to lower the stress of the students and the adoption of programs to ensure the possibility for the children to play and exercise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severely competitive conditions that are still prevalent in the education system of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t the widespread enrolment of children in additional private tutoring taking place outside curriculum resulting in, inter alia: children being subject to serious and disproportionate stress and the negative impact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Furthermore,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exacerbation of pre-existing socio-economic asymmetries arising from the financial cost of such private tutoring and its hindrance to the adequate fulfilment of the rights of the child to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t the increasing severity and frequency of bullying, particularly against children of foreign origin, and the use of mobile telephones and the internet in carrying out such bullying.

6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valuate its current system of education and related examinations, with due regard to article 29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2001) on the aims of education;**
- b) **Increase its efforts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with a view to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widespread dependence on extra-curricular private education and the resulting inequality in access to higher education;**
- c) **Ensure the right of children to enjoy adequate leisure, cultural and recreational activities, in compliance with article 31 of the Convention;**
- d) **Systematically collect information on specific outcomes related to achieving equality in access to school for inclusion in the State party's next periodic report;**
- e) **Strengthen the measures taken to combat bullying, pay special attention to children of foreign origins, an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the initiatives aimed at reducing bullying. Such measures should also address new forms of bullying and harassment outside classrooms or school yards, including by mobile telephone and in virtual meeting places.**

G. Special protection measures (arts. 22, 30, 38, 39, 40, 37 (b)-(d), 32-36 of the Convention)

Asylum-seeking and refugee children

64.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legislation in the State party does not provide for civil status documentation for refugee and asylum-seeking children born in its territory and that this vulnerable situation of children of asylum seeker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is exacerbated by their parents having restricted access to the labour market and the lack of livelihood assistance.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programmes for assisting the social integration of refugees, including the limited access to education for childre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due to their admission to schools being subject to the immigration status of their parent(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t the lack of educational programmes or training on the right of refugees provided for officials who are in direct contact with refugees or asylum seekers .

65.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registration for all children, including childre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born within its territory.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sufficient financial and social assistance to families of asylum seeker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ensure that children in such situations are provided with the same access to education as State party nationals.**

Furthermore,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public officials, particularly those being in contact with refugees or asylum seekers, with special training on the right of refugees.

66.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that refugee, asylum-seeking and unaccompanied children can be subject to detention under the immigration legislation of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when such detention occurs, it is in facilities that are inappropriate for children and that there are no provisions to ensure the periodic and timely review of such detention for which there are no statutory time limits when the execution of a repatriation order is pending.

6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refrain from the detention of children in a refugee, asylum-seeking or unaccompanied situation. In cases of repatriation, it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children in such situations are accommodated in facilities which,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re sensitive of and respectful of their rights and subject to timely periodic review and clearly defined time limits.**

Children in situations of migration

68.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Law concerning Foreigners in Korea in 2007, which facilitates integration of foreigners to life in Korea, as well as amendments to the Decree on Enforcement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2008 which allows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to enter and transfer between schools. However,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e school attendance rate of migrant children is still low.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requiring parents to ensure that their children atten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does not apply to parents who are not its nationals.

6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velop and adopt policies and strategies to ensure access to and actual receipt of education for children of migrants, including children of illegal migrants. The Committee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bring its domestic legislation in compliance with its provisions.

Economic exploitation including child labour

70.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Protection of Underage Workers in 2005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exploitation. Nevertheless,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 a) The increasing number of working children;
- b) Employers hiring children often not meeting the standards established for underage workers in the Labour Standard Act , including with regard to children above the age of 15 years being subject to work at night and below minimum wage ;
- c) Insufficient legal provisions regulating irregular labour practices, such as non-remunerated idle hours;
- d) Labour inspections being inadequate;
- e) The problem of working children being further exacerbated due to the widespread occurrence of verbal and sexual abuse and violence;
- f) The increasing numbers of children being employed as entertainers and sex objects.

7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Undertake measures to address the underlying socio-economic factors resulting in children working;**
- b) Ensure that standards established for working conditions of persons under the age of 18 are strictly enforced, including with regard to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ohibition of working at night, and on the payment of minimum wages;**
- c) Enact additional legal provisions regulating irregular labour practices;**
- d) Improve labour inspections to ensure that these comprehensively monitor all aspects of the work environment;**
- e) Ensure the provision of effective measures to address and prevent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 environment, and the availability of effective mechanisms for accountability and rehabilitation in instances of such issues arising.**

Sexual exploitation

72. The Committee welcomes the amendments introduced in 2008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which provides for the regular collection of data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provides temporary and emergency livelihood support, legal and medical assistance and vocational training for victims. The Committee also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the Sunflower Children's Centre and One Stop Support Centre for victims of abuse and providing counselling, protection and treatment for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However,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 a)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drastically increasing and the high rates of consumption of pornography in the State party;
- b) The low rates of prosecution for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c) The lack of victim rehabilitation services for men, boys or in foreign languages;
- d) Budget allocations for prevention and victim support being reduced in spite of the increasing rates of such abuse occurring.

7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all measures necessary for bringing its domestic legislation into compliance with article 35 of the Convention and articles 2 and 3 of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n particula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 b) Take more efforts to effectively prosecute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cluding by Criminalizing all acts that constitute offering, delivering or accepting by whatever means a child for purpose of his/her sexual exploitation;
- c) Ensure that sanctions against the perpetrators of child sex crimes commensurate with the severity of the offence and take place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d) Continue its efforts to rehabilitate offenders of sexual crimes without any exemptions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 e) Provide rehabilitation services to boys as well as to girls, including in a multilingual format, taking into account the most common countries of origi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Trafficking

74.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Preventing Sex Trafficking.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State party legislation penalizes all forms of trafficking, a high number of women and children continue to be trafficked from, through and within the country for the purposes of sexual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The Committee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low rate of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traffickers.

75.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dequate measures are taken to hold perpetrators of child sale, trafficking and abduction accountable for their offences. Furthermor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ratifying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76.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oncerns that not all offences under articles 2 and 3 of the Protocol are adequately covered under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CRC/C/OPSC/KOR/CO/1, para. 30).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above mentioned (para. 35) lack of measures to prevent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by third persons could result in these children being subject to sale. The Committee is also reiterates its concern that no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with regard to measures taken to establish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lated to article 3 (1) of the Optional Protocol, when the crime is committed abroad by a national or a person who has habitual residence in its territory, or when the victim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OPSC/KOR/CO/1, para. 38).

77.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s to:

- a)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its domestic legislation is in full compliance with articles 2 and 3 of the Optional Protocol;
- b) in light of article 4(2) of the Optional Protoco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to establish its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when such offences are committed by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person who has habitual residence in its territory, or when the victim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OPSC/KOR/CO/1, para. 39).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78.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oncern that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criminalizing the compulsory recruitment or involving in hostilities of a person under the age of 18 (CRC/C/OPAC/KOR/CO/1, para.12).

79.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s for the State party to:

- a) **Explicitly prohibit by law the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regarding the recruitment and involvement of children in hostilities;**
- b) **Ensure that all legislation is fully harmoniz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CRC/C/OPAC/KOR/CO/1;**
- c) **Ensure that all military codes, manuals and other military directiv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nd the spirit of the Optional Protocol (CRC/C/OPAC/KOR/CO/1, para.13).**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80.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rate of delinquency and high rate of juvenile crime, including the high rates of recurrence among such offenders, in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rather than addressing the root causes for children in such situations, government measures to counter this development have only been undertaken in a manner primarily focusing on increasing punitive measures, including the placement of such children in detention facilities where adults are held, instead of effective measures aiming at the reintegration of child offenders into society. Furthermore, while noting as positive the appointment of juvenile-specific prosecutors,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m not being able to adequately serve this function as they are not provided with a situation which allows for their effective specialisation in juvenile justice.

81.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provide adequate measures to effectively counter juvenile crime as well as the high recurrence rate. In doing so,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bring the system of juvenile justice fully in line with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articles 37, 39 and 40, and with other relevant standards including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th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the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the Havana Rules), the Vienna Guidelines for Action on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0 (2007)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juvenile justice. In particular,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 a) **Establish specialized juvenile courts with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throughout the territory of the State party;**
- b) **Provide children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criminal law, with adequate legal and other assistance at an early stage of the procedure and throughout the legal proceedings;**
- c) **Ensure that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or in rehabilitation centres or in detention facilities are never kept with adults, that they have a safe, child-sensitive environment, and that they maintain regular contact with their families and are provided with food,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 d) Ensure the right of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to a periodic review of the decision on their placement;
- e) Ensure that detention is used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promote alternative measures to deprivation of liberty such as diversion, probation, counselling, community service or suspended sentences, wherever possible;
- f) Make use of the technical assistance tools develop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Panel on Juvenile Justice and its members, including UNODC, UNICEF, OHCHR and NGOs, and seek technical assistance in the area of juvenile justice from members of the Panel.

Protection of witnesses and victims of crimes

82. Notwithstand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allowing child victims or witnesses under the age of sixteen to make a statement via video recording, the questioning and legal process for child victims of sex offences remain inadequate as:

- a) Victims and witnesses frequently have to repeat their testimony because officials are not skilled in recording;
- b) Courts frequently do not recognize the validity of video;
- c) Victims and witnesses are often subject to cross-examination in conditions that are not adequately sensitive;
- d) Reconciliation with offenders being reques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victim;
- e) There being inadequate safeguards for the privacy of the victim;
- f) Victims frequently not being taken seriously by officials such as police officers and medical personnel;
- g) Reported instances of verbal abuse of victims by medical or law enforcement professionals dealing with them.

83. The Committee recommend to further develop child-friendly procedural rules and insure the child victim is treated with greater respect for his or her privacy and dignity and urges the the State party to ensure, through adequate legal provisions and regulations, that all children victims and/or witnesses of crimes, e.g. children victims of abuse, domestic violence, sexual and economic exploitation, abduction, and trafficking and witnesses of such crimes, are provided with the protection required by the Convention and that the State party take fully into account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annexed to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5/20).

H.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84.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the fulfillment of children's rights, to accede to all core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I. Cooperation wi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8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operate with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ommission on Women and Children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both in the State party and in other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member states.

J. Follow-up and dissemination

8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resent recommendations are fully implemented, *inter alia* by transmitting them to the members of the Government, the Parliament, Regional Bodies and to other local Governments, when applicable, for appropriate consideration and further action.

87.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combin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 and written replies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and the related recommendations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be made widely available in the languages of the country, including (but not exclusively) through the Internet, to the public at larg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youth groups, professional groups and children, in order to generate debate and awareness of the Con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K. Next report

88. The Committee invites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next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 by 19 June 2017 and to include in it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mmittee draws attention to its Harmonized Treaty Specific Reporting Guidelines adopted on 1 October 2010 (CRC/C/58/Rev.2) and reminds the State party that future reports should be in compliance with the guidelines and not exceed 60 page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submit their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reporting guidelines. Should a report exceeding the page limitations be submitted, the State party will be asked to review and eventually resubmit their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mentioned guidelines.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that if it is not in a position to review and resubmit the report, then translation of the report for purposes of examination of the treaty body cannot be guaranteed.

UN 아동권리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역,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2011. 10. 06.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배포

일반

국2011년 10월 6일

ADVANCE UNEDITED VERSION

원본: 영어

한글 번역: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ㅁㅅ, 수수, 최종욱, 한날)

감수: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아동권리위원회

58차 회기

(9월 19일 - 10월 7일)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개최된 1644차 및 1645차 회의(CRC/C/SR.1644 및 1645)와 2011년 10월 7일 개최된 1668차 회의(CRC/C/SR.1668)에서 대한민국의 제 3, 4차 통합 정부 보고서(CRC/C/KOR/3-4)를 심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한다.

1. 도입

2. 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부응하여 3, 4차 통합 보고서(CRC/C/KOR/3-4)와 위원회가 제기한 이슈 목록(CRC/C/KOR/Q/3-4/Add.1)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해준 것을 환영한다.

다. 위원회는 분석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성격의 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의 다양한 부문의 대표단과 나눈 건설적인 대화에 감사를 표한다.

II. 한국 정부가 취한 후속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

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법 조치를 환영한다.

- a. 2011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 b. 2011년 9월 민법 개정
- c.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d. 2011년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
- e. 2010년 3월 가사소송법 개정
- f.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 g.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
- h.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준 또는 가입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 a.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 (CRPD)
- b. 2006년 10월 18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5. 위원회는 다음의 제도적·정책적 조치 또한 환영한다.

- a. 2010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III. 주요 문제영역 및 권고사항

A.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협약의 4조, 42조 그리고 44조 para. 6)

위원회의 이전 권고사항

6. 대한민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CRC/C/70/Add.14, 2002년 6월 26일)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우려와 권고사항(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 아동 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CRC/C/OPSC/KOR/CO/1, 2008)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CRC/C/OPAC/KOR/CO/1, 2008)에 관한 제 1차 보고서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부 우려와 권고 사항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전혀 다루지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한다.

7. 위원회는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 포함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아동권리소위원회의 설립, 포괄적인 체벌금지, 아동이 받는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협약에 대한 유보조항

8.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 10월 협약의 제9조 3항(자녀의 부모면접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의 제21조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입양을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한 조항, 그리고 협약의 제40조 2항 (b)(v),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아동이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 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한 조항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

9.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의 완전한 적용을 방해하는 제 21조(a)와 제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입법

10.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협약을 자국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규가 불충분하며 법원이 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위원회는 더욱이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금지에 대해 우려한다. 아주 협소하게 규정된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런 법적금지는 임신한 청소년들의 최선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위험한 불법적인 낙태의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학업의 강제적 중단 또는 입양을 목적으로 한 (자녀의) 강제 양도 등 임신한 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11. 위원회는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적 결정에 충분히 적용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의 확충을 포함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청소년 비혼모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절을 할 수 있고 불법 임신중절이나 강제 입양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낙태에 대한 법률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

조정

12. 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서 조정이 줄어든 것에 우려한다. 이것은 특히 2008년 이래 아동정책조정위원회(CPCC)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개별 부처별로 이행되고 있는데 특히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 각각 나뉘어져서 정책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범정부청소년정책위원회(Youth Policy Intergovernmental Council)의 설립을 주목하면서도, 청소년 정책에 있어 조정의 증진이 요구된다는 우려는 남아있다.

1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CPCC를 복구하고 강화하거나 가급적이면 충분한 권위와 적절한 인적·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갖춘 적합한 기구를 설립하라.

b. 보건복지부나 여성부 등 정부 부처 간에 그리고 관련된 전국 및 지방자치체 기구들간에 아동 권리 관련 업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협약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라.

국가행동계획

14. 위원회는 2007년 5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채택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 전반을 포괄하는,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권리에 기반한 국가행동계획이 부족하다는 위원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더욱이 위원회는 현 NAP의 종료 이후 후속작업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15.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협력속에서 협약 전반을 포괄하는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과 감시 기제를 비롯해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아동과의 투명하고 충실한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의 NAP 준비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아동에 관한 유엔 특별 총회의 결과 문서인 “어린이에게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과 그 중간 점검 보고서를 참작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16.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KMCCR)의 설립과 그에 동반된,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환영된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제도가, 아래 언급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할 수 있는 독립적이며 제 역할을 하는 기제를 결여하고 있음에 우려한다.

a) KMCCR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가 통제하는 예산에 종속돼 있음.

b)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거나 조사하고 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 옴부즈퍼슨 체계에 대한 KMCCR의 권한이 부재함.

c) 당사국이 취하는 연례 수행 평가에 KMCCR의 권한이 종속돼 있음. 여기에 KMCCR의 독립성과 지속성의 의미가 잠재적으로 함축돼 있음.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규모가 2009년 3월에 21% 축소되었고, 위원회의 이전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권리에 대해서 특화되지 않고 그대로임에 더욱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KMCCR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한다. 그 목적은 KMCCR에 명확한 권한을 주는 것이며, 센터 뿐 아니라 옴부즈퍼슨 체계 둘 다가 협약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하고 독립적인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위원회는 독립적인 인권 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002)를 고려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속성, 그리고 아동권의 특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자원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적 부문의 이행을 위해 할당된 재정 자원의 증가(2008년에 비해 16.5% 향상)를 환영한다. 하지만 당사국의 경제 발전의 진전 상태란 맥락에서 보았을 때, 현 재정 자원의 할당은 가용 자원에 비례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위원회는 깊이 우려하며 주목한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 당국들의 가용자원의 수준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1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a) 당사국의 경제발전의 진전 상태와 OECD 수준에 보다 근접하도록 협약 이행을 위해 할당된 재정 자원의 수준을 재평가하고 늘릴 것.

b)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상이한 지자체 또는 지리적 위치에 사는 아동들 간의 격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중앙과 지역의 재정자원할당을 평가할 것. 이 효과를 위해서, 부문과 지자체의 예산 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아동권리 관련 지표에서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예산 할당을 할 것.

c) 예산 전반에서 아동에 대한 할당과 자원의 이용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이행하고 그에 따라 아동에 대한 투입에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작성에 아동권의 접근을 활용할 것. 위원회는 또한 이 추적 시스템이 소년과 소녀에게 그러한 투입이 끼친 상이한 영향의 측정을 보장함과 더불어, 어떤 부문에 대한 어떤 투입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촉구함.

d) 가능하다면, 자원 할당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에산(budgeting-by-results)에 착수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따를 것.

e) 공적인 대화, 특히 아동들과의 대화를 통해 투명하고 참여적인 예산만들기를 보장할 것.

f)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불리하거나 취약한 아동에 대한 전략적 예산 수준을 정하고 경제위기, 자연 재해 또는 기타의 긴급상황에서도 그 예산의 수준이 보장되도록 할 것.

g) “아동 권리를 위한 자원들 - 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위원회의 일반 토론의 날에 위원회가 채택한 권고를 고려할 것.

자료 수집

20.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자료 수집 수행에서의 방법론적 일관성의 결여와 협약이 포괄하는 영역

별 자료의 부재에 대해 우려한다. 상대적 빈곤 및 극빈 상태의 아동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의 아동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과 빈곤 감소를 위한 지방 정부의 예산과 역량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조치가 없음에 우려한다.

21. 위원회는 특히 민족, 성, 나이, 지리적 위치 및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협약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산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된 시스템의 수립을 당사국에 강력히 권한다. 위원회는 자료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경향에 대해 당사국이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를 수행할 것을 또한 권고한다.

유포, 인식향상 그리고 훈련

22. 교과 과정에 인권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주목하는 한편, 아동, 일반대중 및 아동과 더불어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협약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23. 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로써 인식향상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a) 학교 교과 과정에서 아동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많이 포함할 것.
- b) 아동과 더불어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 집단에게 협약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보장할 것.
- c) 협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국제협력

24.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원조에 대한 기여를 늘려왔음을 인정하지만,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제원조는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2015년까지 0.7%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에 주목한다.

25. 위원회는 201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GNP의 0.7 퍼센트를 달성할뿐더러 가능하다면 그 목표를 초과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아동 권리의 실현이 한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맺은 국제협력협정의 최우선 사항이 되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수혜국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한국이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 권리와 기업 부문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꼽히는 당사국의 기업 부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을 환영한다. 그 관심은 지금으로서는 환경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 기준과 최저임금을 다루는 당사국의 법률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자국영토에서나 외국에서나 기업 활동의 반인권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포괄적인 법률 구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며 주목한다.

a) 당사국은 강제 아동 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며 따라서 아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연루된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유럽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b) 당사국에서 발주된 사업들은 여러 국가들에서 특히 물에 대한 권리와 주거권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토지 임대 계약을 맺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c) 당사국이 체결했거나 보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s)에 대한 협상에 대하여 어떠한 인권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보호, 존중 그리고 구제”라는 기본 보고서를 채택한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8/7과 그 문제에 관한 워킹 그룹의 신설을 요청한 2011년 6월 16일의 결의안 14/7, 두 결의안 모두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탐색할 때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공급망 또는 협력 업체에 의해서건 간에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활동에서 반인권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법률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업 책임성 모델의 채택을 증진할 것. 보고에 아동권 지표와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증진되어야 하며 아동권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요구될 것.

b) 강제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고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생산물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도록 요구하는 무역 협정 및 국내법을 이용하도록 생산물 반입을 모니터할 것.

c) 자국 기업들이 외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며 프로젝트가 원주민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인권/아동권리 평가에 영향을 끼칠 때에는 사전에 인지된 동의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와 협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d) 자유무역협정(FTAs)을 협상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동 권리를 포함한 인권 영향 평가가 수행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것.

B. 일반적 원칙(협약 2, 3, 6, 12조)

비차별

28.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a) 협약 제2조를 충실히 따르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 b) 인식향상, 대중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여, 취약하거나 소수자 상황의 아동을 향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모든 조치를 취할 것.
- c)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생명, 생존 그리고 발달의 권리

30. 위원회는 ‘자살방지에 관한 기본계획(2004)’을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 자살문제에 임하는 당사국의 노력을 호의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심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대한 깊은 우려는 여전하다.

3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 제도적 및 행정적 조치들의 지침으로 그 연구결과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영향받는 아동의 가족과 교육체계 둘 다에서 아동의 자살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그러한 정책과 수단에는 영향받는 모든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제공과 심리상담서비스로 지원되어야만 하는 적절한 예방적 조치와 후속절차가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

32.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관련 법률에서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부족하며 아동에 관한 당사국의 정책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법적 및 행정적 결정에서 아동이익최선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려한다.

33. 위원회는 아동과 관련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뿐 아니라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절차에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34.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국가가 조직한 회의의 성립을 환영하는 한편 당사국의 법 절차나 사회적 태도에 관한 맥락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관한 아동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35. 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와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도록 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이 법률의 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국은 협약 12조에 따라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a)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학교와 교육 체제 속에서의 훈육절차를 포함하여 법원과 행정 기구에 의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가 청취될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b)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고 청취될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광범위한 사회에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아동의 견해가 정책,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의 수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d) 아동의 청취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2009)를 고려할 것.

C. 시민권과 자유(협약 7, 8, 13-17, 19, 37조)

출생 등록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재의 법률과 관행이 어떤 상황에서건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보편적 출생 등록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가 우려하는 바는 양부모 또는 공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출생등록이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청소년 비혼모의 상황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법적 감독 없이 사실상의 입양으로 귀결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생 등록이 난민과 비호처를 구하거나 비정규 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도나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다는데도 우려한다.

37. 협약의 7조에 합치되도록, 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히 지시하고 검증하도록 보장할 것을 또한 당사국에 촉구한다.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38. 학교에서의 강제 종교교육에 대한 당사국의 금지를 긍정적으로 주목하는 한편, 위원회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그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실제로 계속 제한하고 있음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행 조치들이 종교의 다양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적절히 촉진하지 못하거나 식사 시 지켜야 할 것들을 포함하여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특별한 요구나 제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도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협약의 14조 3항에 합치되도록 당사국이 실제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더 취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 조치들은 식사 시 지켜야 할 것들을 포함하여 특정 종교의 특수한 요구나 제한을 정당하게 고려하며 유의하는 것으로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취해져야 한다.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C/C/15/Add. 197, para. 37)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아동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실천해 볼 수 있는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학교 밖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데에도 우려를 표한다.

41.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협약의 12-17조의 견지에서, 학교 안팎 모두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 (i) 학교 환경을 포함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ii) 학교 위원회의 운영에 의미있는 참여를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모든 아동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게끔 보장하도록 법률과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 교칙을 수정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적인 보호 상황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전의 우려(CRC/C/15/Add.197, para. 38)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것.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린 마이리지 제도를 통한 지도를 포함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것.

c)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그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 아동에 대한 물리적 및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증가와 그런 학대를 보고

해야 할 법적 의무가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왕따(bullying)가 그 빈도와 심각성에 있어서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지역 아동 보호 센터의 설립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여전히 센터의 수가 제한적이며 재정적 및 인적 자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재활을 위한 지원의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학대 보고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정당하게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왕따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아동 학대와 방임을 보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

b) 지역 수준에서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할당하여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할 것. 이런 자원할당은 보호기관의 효과적인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재활 지원을 위한 제공이 포함된다.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13(2011)을 고려할 것.

46. 아동 폭력에 관한 UN 사무총장의 연구(A/61/2009)를 참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장려한다.

a) 특히 젠더에 유념하면서, 아동 폭력에 관한 UN 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근절을 최우선시할 것.

b) 다음번 정부 보고서에는 UN 연구의 권고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특히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특별 대표가 강조된 내용을 포함할 것. 즉,

(i) 아동에 대한 폭력의 모든 형태를 예방하고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각 국에서 개발할 것.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에 대하여 명확한 국내법적 금지를 도입할 것.

(iii) 아동 폭력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분석·유포 및 연구 의제를 다루는 국가 시스템을 공고히 할 것.

c)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기구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D. 가정 환경과 대안 양육 (협약 5조, 18조(paras. 1-2), 9-11조, 19-21조, 25조, 27조(para. 4) 및 39조)

가정 환경 상실 아동

47. 위원회는 요보호 아동에게 가족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고 그런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시설을 설립한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런 대안 양육 기관에 대한 평가가 단지 그러한 시설의 행정적인 운영만을 평가하고, 양육의 질, 기술과 전문적인 훈련, 제공된 처우를 평가하지 않는 것에 우려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그런 기관에서의 학대 또는 방임 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부모와의 교류가 단절된 아동을 위한 추적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우려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양육의 질,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정규 훈련, 협약 제25조에 부합하여 대안 양육을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기관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처우의 유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보장할 것.

b) 대안 양육 환경에서의 아동 학대에 대한 진정 접수와 조사 및 기소를 위한 절차를 보장할 것. 그리고 학대의 피해자가 진정 절차, 상담, 의학적 치료 및 기타 적절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대안 양육 환경의 아동에게 부모와 교류하고 교류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d)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입양

49. 발효되면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승인 결정을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과 민법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위원회는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중간 기간 동안 아동의 입양에 대해서 우려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입양에 관해 규제 감독하도록 명확하게 위임받은 중앙 당국의 부재와 해외입양 절차에 개입할

당사국의 소관 당국의 의무를 명시한 법률의 부재

b) 입양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 아동의 의사청취의 부재

c) 청소년 비혼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입양 보내진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비혼모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청소년 비혼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위한 아동의 양도를 승인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점

d) 입양 후 가용서비스의 결핍, 특히 해외 입양된 아동 그리고 그들의 생물학적 출신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언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조치의 부족

e) 당사국이 해외 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에 언급한 해당 법의 시행 이전의 입양에 대해 적절하고 상당한 보호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목적으로 해외 입양 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협약 21조와 다음 사항에 대해서 그러하다.

a) 헤이그 협약의 6조에 부합하도록 한국의 '중앙입양정보원'이 효율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과 더불어 명확한 권한을 규정할 것. 그리고 해외에 입양되어 한국어에 익숙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입양 후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것을 포함할 것.

b) 입양 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합당한 비중이 주어지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도록 보장할 것.

c) 자녀를 입양 보낼 때 청소년 비혼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동의가 사실상 또는 실제적인 강요하에서 획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제공할 것.

d) 해외 입양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가진 명확한 권한의 중앙 당국에 의한 승인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e) 해외 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

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협약의 6조, 18조(para. 3), 23조, 24조, 26조, 27조(paras. 1-3))

장애 아동

51. 위원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장애 아동 재활 프로그램 및 장애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부의 장애 아동 지원이 단지 저소득층 가족에게만 제공되고 물리치료와 직업 훈련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수 교육 교사와 지도자가 부족하여 장애 아동, 특히 여아가 교육을 받을 때 당면하는 어려움과 장애 아동 대다수가 비장애아동과 분리된 특수학교나 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2006년 채택된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a) 모든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것.
- b)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특수 교육 교사의 수를 늘릴 조치를 취하며 나아가 장애아동의 교육적 필요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교 감독자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 c) 특히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특수교육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
- d) 가능하면 언제든지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에게 제공될 것을 보장할 것.

건강과 보건 서비스

53. 위원회는 당사국의 건강관리 예산과 건강 보험의 제공을 위한 특별예산의 할당이 증가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려는 노력 뿐 아니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과 공공 금연 캠페인 역시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건강관리 예산이 전체 예산 중 낮은 비율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대형 의료 센터와 작은 지역 병원간의 소아 의료 및 응급 의료의 가용성과 질의 격차에 대해서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건강 할당 재정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높이고 저소득층 가족이 무상으로 의료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 및 공공 의료 시설 체계를 수립하라는 당사국에 대한 이전의 권고(CRC/C/15Add.197, para. 49 (a))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및 응급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중소규모의 지역 병원들에게 재정적, 기술적 및 인적 자원을 늘려서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정신 건강

55. 위원회는 아동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 특히 전국적으로 32개의 정신 보건센터를 설립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전반적인 아동의 정신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온 것 그리고 아동사이에서, 특히 여아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자살률이 증가해온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자살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진단 도구의 실행에 주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단 도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려한다.

56. 위원회는 아동들의 우울증과 자살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 아동 정신 건강 관리 정책을 개발하는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자살충동 행동, 특히 여아들의 자살충동 행동의 효과적 예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 증진과 예방 활동, 외래 및 입원 환자의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투자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아동의 시설 수용을 최대한 삼갈 것을 당사국에 장려한다. 더 나아가, 자살의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진단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 진단도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적절하게 진찰 받을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상기의 것들을 시행하는 한편, 위원회는 정신보건적 접근에 부가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대안적으로 자살에 관련된 사회적 및 가족적 요인들을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 보건

57. 위원회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텔레비전 아동 프로그램 방영 시간에 다과류를 생산, 가공, 수입, 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방영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호의적으로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아동이 건강에 해로운 영양 섭취로부터 초래되는 아동기 비만 및 여타의 건강상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된다. 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층 더 우려한다.

58. 더욱이 위원회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시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에서 성 및 출산 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율이 높은 것과 이에 상응하여 그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임신중절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담배와 술, 인터넷 중독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와 교육 캠페인을 증진시킬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런 가운데, 당사국은 그러한 캠페인이 청소년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며 건강한 생활양식을 이끌고 균형잡힌 소비 양식을 실천할 청소년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 장려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 보장과 생활수준

60. 위원회는 헌법 제 34조 3, 4, 5항에 따라, 여성과 노인,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당사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헌법이 아동의 복지를 증진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한다.

61. 위원회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명확하고 의무적인 재정 할당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은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F. 교육, 여가 그리고 문화 활동 (협약의 28, 29, 31조)

직업 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육

62. 당사국의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아동의 놀이와 오락과 문화 활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프로그램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의 교육체제에서 여전히 현저한 심각하게 경쟁적인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육과정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과외에 아동들이 광범위하게 등록하고 있는 것, 특히 그 결과 아동이 심각한 과잉의 스트레스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서, 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그러한 과외의 재정적 비용 때문에 증대되는 것과 과외가 아동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의 충분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담아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왕따(bullying)의 가혹함과 빈도가 증가하는 것, 특히 외국 출신의 아동들에 대한 왕따, 그리고 이러한 왕따를 행하는 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6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시험 제도를 교육의 목적에 관한 협약 29조와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2001)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b) 교육과정 외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과 그 귀결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처할 목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

c) 협약의 31조에 부응하여, 적절한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

d) 당사국의 다음 번 보고서에, 포함(inclusion)을 위한 학교 접근성에서의 평등 성취와 관련된 구체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e) 외국 출신의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왕따에 대처하는 조치와 왕따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 계획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할 조치를 강화할 것. 이러한 조치들은 휴대전화와 온라인 가상 만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교실 밖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왕따와 괴롭힘(harassment)을 또한 다뤄야만 한다.

G. 특별 보호 조치 (협약의 22, 30, 38, 39, 40, 37 (b)-(d), 32-36조)

비호 신청과 난민 아동

64.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그 영토 내에서 태어난 난민과 비호 신청 아동에게 시민 지위의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비호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보유자의 아동의 취약한 상황이 노동시장 접근에 제약이 있고 생계 지원이 부족한 그 부모의 상황 때문에 더욱 악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교 입학이 부모(들)의 이주민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 때문에 난민과 비호 신청자의 아동이 교육 접근에 제한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난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를 우려한다. 나아가서 위원회는 난민 또는 비호 신청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

65. 위원회는 난민과 비호 신청자의 아동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게 주민등록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비호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보유자의 가족들에게 충분한 재정적 및 사회적 원조를 제공할 것과 그러한 상황의 아동이 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교육 접근성을 제공받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무원들에게, 특히 난민과 비호 신청자와 접촉하는 있는 경우에, 난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66. 더욱이 위원회는 당사국의 이주법 하에서는 난민과 비호 신청자와 동행 없는 아동이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구금이 발생했을 때, 아동에게는 부적합한 시설이며 송환 명령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 법적인 시한이 없는 그러한 구금에 대한 주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재심을 보장할 법조항이 전무한 것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67.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과 비호 신청자나 동행 없는 상태의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 송환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의 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정도로 아동의 권리에 민감하며 권리를 존중하고 시기적절한 정기적 재심과 명확하게 규정된 시한을 따르는 시설에 수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 상황의 아동

68. 위원회는 한국 생활에 외국인의 통합을 촉진하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채택과 불법이주자 아동의 학교 입학과 전학을 허락하는 200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 아동의 학교 출석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자녀의 초중등 교육 이수를 부모에게 보장하도록 하는 당사국의 법률이 한국의 국민이 아닌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69. 위원회는 불법이주자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하길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그 협약의 조항과 합치하게 만들것을 장려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2005년 청소년 노동 보호 종합 대책'의 마련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에 관해서 우려한다.

- a) 노동하는 아동의 증가
- b) 아동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만 15세 이상의 아동의 야간노동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을 흔히 충족시키지 않는 것.
- c) 쉬는 시간을 무임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불충분
- d) 노동 감독이 불충분한 것.
- e)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언어폭력과 성폭력, 폭행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노동 아동의 문제
- f) 연예인과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 수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한다.

- a) 아동 노동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근본 요인을 다루는 조치를 취할 것.
- b) 야간노동 금지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시행과 최저임금 지급을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수립된 기준이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할 것.
- c)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할 것.
- d) 노동환경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감독을 증진할 것.
- e) 노동환경에서 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다루고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의 제공을 보장하고 그러한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 책임성과 재발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의 가용성을 보장할 것.

성적 착취

72. 위원회는 2008년 청소년 성 보호법의 개정을 환영한다. 이 개정안은 아동 성착취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 지원과 법적 및 의료 지원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설립과 상담, 보호 및 치료의 제공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 a) 당사국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급격한 증가와 높은 비율의 포르노그래피의 소비
- b) 아동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 c) 남성, 소년 또는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피해자 재활 서비스의 부족
- d) 성폭력 발생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할당의 삭감.

73.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본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그리고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와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b)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한 제공, 전달 또는 갖은 수단을 통한 수락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c)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범죄의 심각성과 균형을 이루고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
- d) 형사 책임으로부터의 어떠한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 e)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자의 가장 공통적인 출신국을 고려하여 다언어 체제를 포함하여 소년 뿐 아니라 소녀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인신매매

74. 위원회는 성적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여성과 아동이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또한 국내에서 계속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인신매매자에 대한 기소와 유죄율이 낮은 것에 우려한다.

7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 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자들이 그 범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유엔의 ‘초국가적범죄조직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억제, 처벌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76. 위원회는 의정서 2조와 3조에 해당하는 모든 위법행위가 한국정부의 법률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CRC/C/OPSC/KOR/CO/1, para. 30)를 반복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앞서(35번 문단) 언급했듯이 제 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동 매매로 귀결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의정서 3조 1항에 관련된 위법행위가 대한민국 국적자나 대

한민국 거주자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혹은 위법행위의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그 범죄에 대해 역외 관할권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에 관해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우려(CRC/C/OPSC/KOR/CO/1, para. 38)를 반복한다.

77.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반복한다.

- a) 한국의 국내법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보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b) 의정서 4조 2항의 견지에서,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행위가 대한민국 국적자나 거주자에 의해서 자행되거나 혹은 그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역외관할권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 위원회는 만 18세 미만자의 강제 징집 또는 적대행위 관여를 범죄화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CRC/C/OPAC/KOR/CO/1, para.12)를 반복한다.

79.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아동의 징집과 적대행위 관여에 관한 의정서의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할 것.
- b) 모든 법률이 의정서 조항에 완전히 부응할 것을 보장할 것(CRC/C/OPAC/KOR/CO/1).
- c) 모든 군사 규범, 교범 및 여타의 군사적 명령이 의정서의 조항과 정신에 부합되도록 보장할 것(CRC/C/OPAC/KOR/CO/1, para.13).

소년 사법 행정

80. 위원회는 높은 재범률을 포함하여 청소년 비행과 높은 범죄율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런 상황전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발생하는 근원을 다루기보다는 아동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목표로 한 효과적인 조치 대신에 성인들이 구금되는 구금 시설에 아동을 구금하는 것을 포함하여 오로지 징벌적인 조치에만 치중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에 우려하며 주목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청소년 전담 검사의 임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소년사법에서 그들의 효과적인 전문화를 허용하는 상황이 제공되지 않기에 청소년 전담 검사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에 우려한다.

81. 위원회는 높은 재발률과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 위원회는 특히 협약 37, 39, 40조와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 최소기준(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 지침(리아드 가이드라인),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 규칙(하바나 규칙), 형사법시스템에서 아동에 대한 조치에 관한 비엔나 지침, 그리고 소년사법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논평 10호(2007) 등 여타의 관련 기준들에 소년사법체제가 부합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a) 당사국 전역에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 전문 법원을 설립할 것.

b) 형법 위반으로 고발된 아동에게 소송절차의 초반과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절한 법적 원조와 기타의 원조를 제공할 것.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재활 센터,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을 절대로 성인범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하며, 그들이 안전하고 아동 배려적인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거취 결정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보장할 것.

e)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보장하며 가능한 한 전환,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자유를 박탈하는 것 외의 다른 대안 조치들을 활성화할 것.

f) 유엔 청소년사법정의를 위한 기구 간 패널과 UNODC, UNICEF, OHCHR 및 비정부기구들을 포함한 패널의 구성원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수단들을 사용하고, 패널의 구성원들에게 소년사법의 분야에 있어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범죄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

8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혹은 만 16세 미만의 증인을 비디오 녹화를 통해 증언을 하게 하는 것,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과 법적 절차는 다음의 이유로 부적절하다.

a) 피해자와 증인은 공무원들이 녹화에 익숙지 않기에 증언을 빈번히 반복해야 하고

b) 법원은 비디오의 유효성을 자주 인정하지 않으며

c) 피해자와 증인은 적절하게 그들을 배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주 반대심문의 대상이 되며

d) 가해자와의 재회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요구되기도 하며

e)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적절하며

- f) 피해자는 자주 경찰관이나 의료진 등 공무원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 g) 피해자를 다루는 의료 또는 법 집행 전문가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언어폭력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

83. 위원회는 더욱 아동 친화적인 절차상 규칙을 개발하고, 피해아동이 그들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에 대해 보다 큰 존중을 받게 보장하길 권고하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법 조항과 규칙을 통해 학대, 가정 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이자 증인인 아동에게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제공할 것을 보장할 것, 그리고 한국정부가 '아동피해자와 증인이 관여된 사건 사법에 관한 유엔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에 첨부)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H. 국제 인권 조약의 비준

84.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아동 권리의 실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한 모든 핵심 인권 조약을 비준하기를 장려한다.

I.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위원회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에서 본 협약과 여타 인권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아세안 여성과 아동 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J. 후속 조치와 배포

86. 위원회는 특히, 적용 가능할 때마다, 적절한 고려와 더 나은 행동을 위하여 이 권고를 정부의 구성원, 국회, 지방 의회 및 기타 지방 정부에 보냄으로써, 이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될 것을 보장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7. 위원회는 더 나아가 본 협약과 그 이행에 대한 토론과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제출한 3, 4차 합본 정기 보고서와 서면 답변, 그리고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최종견해 포함)들이 광범위한 대중, 시민사회조직, 청소년 단체, 전문가 집단과 아동에게 인터넷(그러나 인터넷에 국한되지 않는)을 통하는 등 한국어로 널리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길 권고한다.

K. 차기 보고서

88. 위원회는 5차와 6차의 합본 정기 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할 것과 그 보고서에 이 최종 견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담을 것을 부탁한다. 위원회는 2010년 10월에 채택된 보고서 작성 지침(CRC/C/58/Rev.2)에 유념할 것과 차기 보고서가 지침에 따라 60쪽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지침에 맞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분량 제한 이상의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당사국은 위에 언급된 지침에 맞춰 보고서를 재고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받게 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침에 맞추지 않은 보고서를 재검토 뒤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약 기구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 보고서의 번역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UN 아동권리위,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보도자료, 2011. 11. 17

보 도 자 료

- 발 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분들
- 일 시 : 2011년 11월 17일(목)
- 제 목 : UN아동권리위,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 문 의 : 어쓰 (010-6899-6946), youthhrnet@gmail.com

UN아동권리위,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 FTA 체결에 인권영향 평가가 없는 것 등에 대한 우려도 포함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모임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입니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3·4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를 대상으로 했으며, 세 이브더칠드런이 NGO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해당 보고서는 정부와 해당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역시 위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3. 지난 10월 6일, UN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최종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최종견해 안에는 많은 유의미한 우려와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란, FTA에 관한 논란, 그밖에 여러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논란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 특히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 국적이 명시되지 않은 것, 이주 아동, 난민아동, 장애아동, 청소년 비혼모 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며, 모든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 교육체제가 심각하게 경쟁적인 것을 우려함. 교육과정 이외의 추가적 과외 사교육에 아동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결과 지나친 스트레스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겪는 것을 우려함.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그때문에 증대되는 것과, 아동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는 것에 우려함. 현재의 교육 체제 및 시험 제도를 교육의 목적에 관한 협약 내용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고등교육 진학의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처하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의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접근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정보를 모아서 보고할 것을 권고함.
-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실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실제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함.
- 학교들이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아동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실천할 때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함. 학교 안팎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정치 활동에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할 것,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허용할 것,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아동이 누릴 수 있도록 법률, 교육부 지침, 학교 교칙을 수정할 것을 촉구함.
- 가정, 학교 및 대안 양육 등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해있는 것에 대해 우려함. 가정, 학교,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할 것을 권고함.
- 국내외 기업 활동의 반인권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법률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함. 강제아동 노동, 아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연루된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 한국이 하는 사업들이 여러 국가들에서 물주거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인 계약을 맺거나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점, 체결했거나 보류 중인 FTA 협상에 관해서 인권 영향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것에 우려함. 강제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막고, 한국 기업들이 물주거 등에서 원주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FTA를 체결하기 전에 아동 권리를 포함한 인권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층 가족에게만 제공되고 물리치료, 직업 훈련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에 우려함. 특수 교육 교사 등이 부족해서 장애 아동이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비장애아동과 분리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아동의 교

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 교육 교사 수를 늘리고 교사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고,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함.

- 왕따(집단괴롭힘)의 가혹함과 빈도가 증가하는 것, 외국 출신 아동들에 대한 왕따가 증가하고, 이러한 왕따를 행하는 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 이주 아동의 학교 출석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우려함. 불법이주자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 노동하는 아동의 증가, 일하는 아동이 야간노동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 등 근로기준법 상 기준들을 자주 어기는 것, 쉬는 시간을 무임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변칙적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이 불충분함, 광범위하게 언어폭력, 성폭력, 폭행으로 인해 일하는 아동의 상황이 악화됨, 연예인과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증가를 우려함.
- 만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징집 또는 적대행위 관여를 범죄화하는 법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 우려함.
- 피해 아동 또는 만16세 미만의 증인을 비디오 녹화를 통해 증언하게 하는 것이나 적절하게 그들을 배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대신문 대상이 되는 것, 동의 없이 가해자와 재회시키는 것, 프라이버시에 대한 안전 장치 부족, 의료 또는 법 전문가에 의한 언어폭력 등, 심문, 법적 절차 등이 부적절함.

4. 한국 정부는 이 최종 견해를 신속하게 한국어로 번역하여 배포,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 넘도록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번역,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만함과 무관심에, 어쩔 수 없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활동가들 외 몇 명이 자체적으로 번역하여 이를 배포합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도첨부 : UN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CRC/C/KOR/CO/3-4) 한국어 번역본 및 영어 원본

박은하 기자, 「 “체벌·자살… 한국 청소년인권 우려” 」, 경향신문, 2011. 11. 19.

“체벌·자살… 한국 청소년인권 우려”

· 유엔 아동권리위 “FTA에도 인권영향평가 빠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인권 실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높은 학업 스트레스, 아동·청소년 체벌,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추진하면서 어떠한 인권영향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와 보수세력이 체벌 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유엔 보고서가 청소년 인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달 6일 채택한 ‘대한민국 정부 측 보고서에 대한 견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 보고서 내용을 번역해 18일 배포했다.

위원회는 한국 교육시스템과 관련해 “극심한 경쟁적 상태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면서 광범위한 사교육이 학생들을 심각한 스트레스로 내몰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괴롭힘’의 빈도와 가혹함이 증가하고, 특히 외국 출신 아동을 향한 괴롭힘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에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 아동, 난민아동·장애아동·청소년 비혼모 등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가정, 학교 등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되고 있다는 이전의 우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학생들이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데도 유감을 표시했다. “학교 안팎에서 의사결정과 정치적 활동에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고, 아동들이 결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과 지침, 교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FTA들을 협상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 아동 권리를 포함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지적하면서 “아동의 자살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정부는 이 문건을 한국어로 번역·배포·홍보할 의무가 있지만 채택된 지 1개

월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고서 끝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와 위원회가 채택한 권고를 광범위한 대중, 청소년단체, 전문가 집단과 이동들이 한국어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전문용어가 많아 신중을 기하느라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7부

교육/워크숍/캠프 사업



개요

교육/워크숍/캠프 사업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활동의 필요에 따라 교육, 워크숍, 캠프 사업을 벌였다. 네트워크 결성 초기에는 청소년 활동으로 엮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활동 고민과 운동의 과제, 대응 논리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주로 기획했다. 청소년 활동가로 자신을 정체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사업들이었다. 2006년 7월 <청소년 파란만장 여름인권캠프>, 2007년 2월 <제1회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 2007년 7월 <와삭와삭 인권 서리>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 자리들은 청소년 활동가 발굴의 장이자 입문의 장이었으며, 서로 다른 모임/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친밀감을 형성하고, 청소년 인권 의제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인권운동 안에서도 소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영역 확장을 시도하기 위해 <청소년 인권, 경계를 넘다>와 같은 워크숍을 마련하기도 했다. 다른 소수자 운동 영역과의 만남을 추진해 그 운동 안에 청소년 운동의 고민을 퍼뜨리고자 했으며, 동시에 청소년인권운동이 '청소년'을 다양한 정체성을 품고 있는 입체적인 존재로 정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했다. 그 당시 타 운동 영역에는 10대 주체가 전무하거나,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시도는 선구적이었지만, 일회성의 단기적인 만남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었다. 그러나 <경계를 넘다>를 준비하며 가졌던 문제의식은 이후 반차별 활동의 맥락에서 여성주의 팀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일상적으로 청소년을 접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이 부재했던 당시, 일회성 캠프가 아닌 연속성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한 것이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이었다. 애초 8차시로 기획했으나, 일제고사 등 현안 투쟁과 맞물려 4차시로 아쉽게 종료했다. 바쁜 활동 속에서도 교육을 기획하고,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인권의 논리를 좀 더 풍성하게 개발하는 등 활동 속에 공부를 녹여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기획했던 대로 모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중장기 호흡의 연속 사업을 네트워크 스스로 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펜으로도 때리지 마라 청소년인권과 언론> 강좌는 청소년 독자 언론 조직 및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네트워크 내부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교육 사업이었다. '교육공동체 나라'의 2008년 겨울방학 강좌 사업 중의 한 꼭지를 담당해 청소년 인권과 언론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는 2008년 촛불 정국 이후 표현의 자유가 점차 위축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정치적 표현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지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 하에 추진한 사업이었다. 청소년들의 창작물(UCC)을 종류별로 축적·게시·교류 할 수 있는 '청바다' 웹페이지 구축, 청소년들의 UCC 제작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강좌 개설, '청바다' 웹페이지 홍보 겸 UCC 창작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UCC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했다. 규모 있게 대중사업을 준비한 첫 시도였으나, 조직과 홍보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자 모집에 난항을 겪었고, 청소년들을 집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연대 단위들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계획을 접어야했다. '청바다' 사업의 규모에 비해 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활동가를 여럿 배치할 수 없었던 어려움도 사업 실패의 원인 중 하나였다.

<기호 0번 후보 정책논의 워크숍>은 청소년인권운동의 장에서 네트워크가 할 수 있고, 해내야할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대응의 일환으로 청소년인권단체들이 기호 0번 운동을 추진했고, 이에 맞물려 정책 생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학생인권의 내용을 심화하고, 청소년 노동이나 여성 청소년의 권리 의제를 쌓아왔던 것을 바탕으로 기호 0번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세부 정책을 개발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1 학생인권 심화 워크숍>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새롭게 떠오른 학생인권의제(상벌점제, 성찰교실, 학교 폭력 등)를 다루고, 넘어서기 어려운 질문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특히나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인권활동가 스스로 청소년들의 인권 상담이나 문의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의 원칙과 기술을 나눴다는 점에서 여타의 워크숍과는 차별점이 있었다.

이밖에도 운동 현안이나 대응과 관련해 내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소한 내부 워크숍들을 진행했다. 2006년 <교원평가제 내부 워크숍>, 2009년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내부 워크숍>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파란만장한 청소년들, 파란을 일으키다 ‘청소년 파란을 만드는 장’ 여름인권캠프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삶을 꿈꾸는 청소년을 찾습니다.

‘인권’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근두근 가슴이 뛰는 사람, 청소년이 일어서야 학교랑 사회가 쩌금이라도 변한다고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사는 게 완전 재미없는 사람, 환경운동 장애인운동 노동운동 다 있는데 왜 청소년인권운동은 없나 투덜대는 사람, 함께 모여 나누면 뭔가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은 사람, 어디 없나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청소년 인권 현실. 현실에 도전해 ‘파란’을 일으키고 싶은 청소년들을 위한, 전혀 다른 인권캠프가 찾아옵니다. 지금 서두르셔도 늦을지 몰라요^^

때: 2006년 7월 26일(수)~27일(목) 1박2일

곳: 성공회대(1·7호선 온수역)

누가 : 청소년 인권에 관심있는 청소년

(청소년인권활동을 지지하는 성인도 일부 참가 가능)

참가비 : 1만원(숙식 제공)

여는이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참가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741-5363, hregang@hanmail.net)

내용

26일(수)		진행방식	
12:00~13:00	등록 + 남남 점심	?	
13:00~14:00	네 맘을 보여줘 : 몸 풀기 맘 열기	담당:효민	얼음깨기, 이름알기, 모듬나누기 (새와동지, 이름표 만들어 선물하기, 여기는 어디일까요)

14:00~16:00	인권의 세포를 깨워라 : 쑥쑥 인권감수성 기르기	담당: 근예+이슬	자기존중감, 차별감수성 기르기 (인권이 꽃피는 마을, 권리썩찾기, 5가지 은유의 비밀)
16:00~16:30	쉬م		
16:30~18:00	싱싱 Go Go! : 청소년의 역사를 되찾자	담당: 윤종+누리	퀴즈로 풀어보는 청소년인권역사 양돌규씨 강연
18:00~19:30	저녁 먹고 산책		
19:30~21:30	인권을 만난 우리 : 인권을 알자, 느끼자, 찾자	담당: 경내+병현	청소년인권의 주요 쟁점 청소년인권의 원칙+저항의 중요성 (이건 아니잖아~)
21:30~23:00	달콤 살벌(?)한 여름밤의 축제		~꽃이 ~합니다/ 스피드퀴즈
23:00~	취침		
27일(목)			진행방식
9:00~10:00	일어나 아침 식사		아침 운동~
10:00~12:00	청소년, 파란을 준비하자 : 인권을 찾는 청소년, 요런 땀 요 렇게!	담당: 상신	전략카드 만들기(이렇게 어떻게?)
12:00~13:00	점심		
13:00~15:00	꼬물꼬물, 이제 시작이다 : 똑딱똑딱 내가 만든 청소년인권 프로젝트	담당: 만성+?	캠페인, 퍼포먼스, 거리연극, 노가 바, 포스터, 서명운동, 선전전 등 다양한 방식 활용해 직접 짜보기
15:00~	간략한 평가 + 아쉬운 작별		

〈청소년 파란만장 여름인권캠프〉 프로그램 중 ‘이건 아니잖아~’ 결과물 , 2006. 07. 26.

선생님이 말하셨지
니네가 인권이 어딴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맞으면서 사는 인생 자, 이제 그만
오늘부터 누구보다 크게 외친다
참으면서 사는 인생

청소년의 대동단결, 굴종의 삶 끝장내자

5.31 지방선거 때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들과 후보 얘기하고 있었어
이놈저놈 요것저것 비판해보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빨은 말
“어린 게 뭘 알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두발자유 캠페인을 하고 있어와
이것저것 여기저기 분주해져와
나를 잘 아시는 선생님이 찾아와
웃으면서 잠깐만 얘기하자는데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뜬금없이 물어봐
나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을 해!
하지만 선생님의 뒤통수 치는 말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해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내일이 방학식 날이라고 들떠있는데
방학식날 교장이 하는 말
“월요일부터 보충이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방학은 쉬라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한번 개겨봤더니
교장이 하는 말
“방학은 집중학습기간이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방학 때 몇 좀 내보려고 머리 길러봤더니
학주가 머리 자르며 하는 말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방학이라고 학생 아니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선생은 선생 다워야 한다고 한번 따져봤더니
인상 쓰며 하는 말
“싫으면 니가 선생 하라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명문고 교복입고 시내 가면 어른들이 하는 말
오랜만에 놀러왔구나. 그래 쉴 땐 쉬어야지
내가 다니는 학교 교복 입고 가면 어른들이 하는 말
니가 할 일이 이것밖에 더 있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한달 동안 죽어라 일하고 월급날 사장이 하는 말
“학생이 돈이 왜 필요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골습머리인 나에게 지나가는 어른이 하는 말
“할머니 파마를 해라~ 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어느날 내가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내 방에 누가 있는 거야
들어가서 봤더니 엄마가 내 일기장을 보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따졌더니 엄마가 하는 말
“엄마니까, 널 알아야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내가 두발자유집회를 간다고 했더니
엄마가 나를 방에 가두며 하는 말
“엄마니까, 너 물들까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오랜만에 놀토를 즐기려고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학원수강증을 주는 거야
내가 가기 싫다고 했더니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
“엄마니까, 널 위한 일이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진심을 저를 위하신다면 제가 성장할 수 있게 지켜봐주세요.
저는 스스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너를 위한다는 조언은 잊지 않겠지만,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서
책임감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뭐가 진짜 날 위한 일인지 생각해 주세요.

영원한 자유
- 상클

이젠 자르지 말아줘
내 모든 걸 스스로 정하고 싶어
언제나 날 들볶는 너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자유를
찾고 싶어

너는 자신 있는 듯 바리깡을
머리에 들이대지만
불안한 내 미래도 니가
만들 순 없잖아
좀더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길
바라는 맘은 당연해
지금 내 상황이면 난 정말
못 살아~

이젠 내 인권을 지켜줘
내 모든 걸 스스로 정하고 싶어
내 삶에 주인은 나란 걸
변치 않는 영원한 자유를
약속해줘~

윤수근 기자, 「“귀두컷? 이건 아니잖아” [학생인권] 7월 26,27일 청소년파란만장 인권캠프 열려」, 1318바 이러스, 2006. 07. 27.

“귀두컷? 이건 아니잖아”

[학생인권] 7월 26,27일 청소년파란만장 인권캠프 열려

두발자유를 위한 자전거시위를 진행해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7월 26일~27일까지 1박2일간 인권캠프를 진행했다. 파란만장 인권캠프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인권을 스스로 되찾는 활동을 만들어 파란을 일으키자는 의미를 담아 기존의 인권감수성교육을 넘어 좀 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찾고 당당히 인권을 주장할 논리를 만들어 실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는 캠프로 진행되었다.

캠프에는 인권활동가, 청소년시설 관계자,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등 3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해 인권문제와 실천활동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답게? 학생들이 뭘 알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바이러 스

귀두컷?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터 아버지께서 멋진 헤어디자이너가 되라며, 반드시 헤어디자이너가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 이름만 들어도 헤어디자인을 잘할 것 같은 그 이름은, 귀두컷 입니다"

몸풀기와 간단한 인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녁식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인권을 알자,느끼자, 찾자>라는 이름으로 인권침해사례를 찾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오병현씨는 한 개그프로그램의 유행어인 "이건 아니잖아"를 패러디해 학교와 사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사례를 토론했다. "이건 아니잖아"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참가자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소재로 기발한 이야기를 만들

어냈다.

일기장을 훑쳐보고, 학원과 과외를 강제로 시키는 어머니의 "나 너희들을 위한 일이야"라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사례부터 학교에서 방학식을 하자마자 보충수업에 들어가는 현실, 두발을 보며 '학생이 학생다워야'라고 말하는 교사, 선거기간 학생들의 정치이야기에 어른들이 "너희들이 뭘 알아"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발표되어 많은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서 '이건 아니잖아'를 마친 참가자들은 앞서 발표된 사례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해라"

"학생은 학생다워야, 학생이 뭘 알아?"

학생인권 주장할 수 있는 우리 논리 가져야

이번 캠프에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청소년시설 관계자도 참여해 인권의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순천에서 참가한 한 청소년 참가자는 "평소에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인권운동사랑방등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와요. 이번에도 홈페이지를 보며 참가하게 되었어요"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군포내일여성센터의 박정아 간사도 인권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소에 성문제등에 관심이 많지만 인권문제와 동떨어진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가치관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행사를 주최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유윤종씨는 "파란만장 인권캠프는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어떻게 인권을 주장할 것인가, 자기의 현실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회를 바꾸려면 교육이 바뀌어야 하고 이것은 청소년이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러스 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배경내 간사



©민중의소리 "귀뚜껑? 이건 아니잖아"

파란만장 청소년들,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야 학교야, 이건 아니잖아♫- 학생인권 현실 꼬집는 종합 개그 한마당」, 인권오름 제 18호, 2006. 08. 23.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야 학교야, 이건 아니잖아♫

학생인권 현실 꼬집는 종합 개그 한마당

파란만장 청소년들

7월말 ‘파란만장 청소년 인권캠프’가 열렸어요.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는 학교현실을, 모 방송국의 개그 프로그램을 패러디해 풀어냈습니다.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을 돌며 청소년 인권을 외친 청소년인권활동가 행진단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의 후속편을 내놓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이, 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헤어드레스가 되라고,

멋진 헤어디자이너가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

이름만 들어도 정말 헤어디자이너를 잘 할 것 같은 그 이름은?

“귀뚜갯*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우리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끝났어

정말 날 것 같은 기분으로 학교를 갔지

선생님께서도 어제 기말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며,

우리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해주시는 말!

“오늘부터 전원 야자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금요일 방학식 날이라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엘 갔어

그런데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

“월요일부터 전원 보충수업이다”

너무나 황당해서 용기를 내서 교장실에 갔어

방학은 쉬라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한번 개겨봤더니

교장선생님 다시 하시는 말씀~

“방학은 집중학습 기간이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오늘 우리 학교 급식시간에

모처럼만에 알탕이 나온다고 해서

친구들이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급식실에 갔어

그런데 알탕에 알이라곤 없고

계란만 똥똥 떠다니는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이게 무슨 알탕이냐고 따져봤더니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

“싫음 강 굶든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수능시험이 백일도 안 남았다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담임선생님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각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선물은?

“5분 늦었으니 궁디 2백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우리 학교에서 두발단속이 너무 심해서
학생들이 교무실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
“선생님, 머리 길이만이라도 어떻게 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 귀두컷 : ‘반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남학생들이 많이 싫어하는, 귀 위로 짧게 ‘짹’ 머리 형태를 말하지요

[끄덕끄덕 맞장귀]

두발규제, 강제 야간학습과 보충수업, 체벌, 불량급식... 지금 우리 학교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들입니다. 청소년들은 벌써부터 학교에, 사회에,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학생답기를 강요하기 이전에 먼저 학교가 학교다워야 하지 않겠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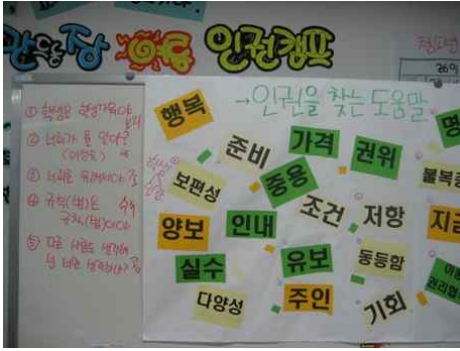
“공부나 해. 다 너희를 위한 거야”라고 하면서도, 학생을 기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왜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기회조차 주지 않느냐고요? 말끝마다 청소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불량급식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또 왜냐고요?

“싫으면 학교를 떠나든지...” 배째라 정신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게 아니라, “학생은 사람도 시민도 아니”라고 강변할 게 아니라, 인권이 숨쉬는 학교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머리길이라도 좀 늘여주세요”라고 구걸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청소년의 힘으로 인권을 되찾자고요. 학교라는 성역을 흔드는 파란을 만들자고 말입니다.

〈청소년 파란만장 여름인권캠프〉 소장사진, 2006. 07. 2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전교조 투쟁을 지지한다! 구속된 세 명의 교사를 즉각 석방하라!」 성명서, 2006. 11. 02.

< 성 명 서 >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전교조 투쟁을 지지한다 구속된 세 명의 교사를 즉각 석방하라

정부가 폭력적인 만행을 저지르며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원평가제가 교육환경 개선을 가져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3년에 한 번, 수치로만 나타내는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청소년인권과 교육환경 개선에 전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더욱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아 부작용만 낳을 정책이다. 그동안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에 청소년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온 우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인권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청소년인권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온 적이 없는 교육부가 청소년인권과 교육환경을 명분으로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기만적 행태를 규탄한다.

한국 교육이 온갖 병폐들을 낳으며 향방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에는 입시교육과 대학서열화라는 뿌리 깊은 구조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들은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 그런 교육부가 이번에는 교육의 문제를 교사 개개인을 평가하여 해결하겠다는 우스꽝스러운 정책을 들고 나왔다.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부가 정작 문제의 책임을 교사 개개인에게 돌려 '손 안 대고 코 풀려'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학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민주적 소통을 바라던 사람들이 요구해온 교원평가와 전혀 다르다. 오히려 "교원관리제"라고 불러야 옳을 이 정책은 교사들을 수치화된 점수로 서열화시키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교사들을 퇴출하는 데 명분이 될 비인간적인 정책이다. 정부의 이번 "교원관리제"는 교사들을 경쟁시킴으로써 체제에 순응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정책을 교원평가제라고 내세운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교육과정 내에서 서로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기회가 아닌 교사들을 줄 세우고 관리,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오직 경쟁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가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교육의 원칙은 교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주장해온 '부적격교사 퇴출'을 교원평가제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교육부가 새삼스럽게 교육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말하는 부적격교사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적격교사는 전혀 다르다. 청소년인권단체의 입장에서는

‘진도 못 빼는, 대학 못 보내는, 급진사상을 가진’ 교사가 부적격 교사가 아니라, 학생을 폭력적인 체벌로 억압하고 비인간적인 규제로 통제하고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교사가 부적격교사다. 이런 교사들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즉각 해결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학생인권침해신고센터와 같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올 것이다.

더구나 현재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평가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없다. 3년에 한 번씩 평가가 이뤄지고 일면적 만족도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내용이 아닌 수치로만 남게 된다. 학생도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서로의 발전을 위한 평가는 교육 공간 내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학생과 교사간의 민주적 소통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육부의 안처럼 평가지에 체크해 점수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과 교사 인권교육, 교육 방식에 한계가 있는 교사들을 위한 능력 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상적인 교육방식에 대한 서로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등 민주적 발언권 보장과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내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방기해 왔던 학내 민주화와 학교 내 학생 발언력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교육 시설 확충을 선행해야 한다.

교육부의 “교원관리제”는 교사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교육이 더욱 서열화되고 학교교육의 학원화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올 정부의 “교원관리제”에 반대한다. 그리고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 민주적 소통과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기반을 둔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위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정부의 교원관리제를 지지하고 인권적이며 인간적인 참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 교육부는 폭력적이며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강행을 중단하라!
- 구속된 전교조 교사 세 명을 즉각 석방하라!

2006년 11월 2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7년 제 1회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 홍보자료 및 프로그램, 2007. 02. 10.

2007년 제 1회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 짓 다 』

■ 모시는 글

짓다. 집을 짓다, 밥을 짓다, 인권을 짓다, 희망을 짓다. 내일을 짓다. 같이 짓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첫발을 내딛은 2006년, 희망과 의지로 당차게 내딛은 발이었지만 아직은 얼어있는 학교라는 땅 위는 참 시렵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교문은 묵직했고 억압받는 청소년인권 현실은 마주칠 때마다 서늘했습니다. 그래도 갑갑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함께 힘을 모아온 여러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2006년 달력위에 뚜렷한 발자국 하나 남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학생인권법 발의는 청소년인권운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한발 더 끌고나왔습니다. 학생인권법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정표가 되었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뿐 아니라 청소년인권을 고민하는 많은 단체들이 학생인권법을 둘러싸고 의미 있는 행동들을 펼쳐왔습니다. 2005년 5월의 뜨거웠던 광화문을 기억하며 열었던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은 여전히 식지 않은 청소년들의 의지를 확인하게 했고 여름에 있었던 전국 행진은 지역 곳곳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이 뿌리내리기 위한 운동을 고민하게 했습니다. 동성고, 청명고, 양동중, 금릉중학교에서 벌어졌던 운동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로 ‘청소년인권’을 세상에 알려냈습니다. 학교 안 학생들과 관계 맺으며, 함께 운동하며 제기된 문제들은 우리에게 학교와 실질적 연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와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각기 자신의 영역에서 청소년인권을 고민한 활동가들에게 훨씬 깊은 고민과 더 풍부한 조언, 나눌거리들이 무궁무진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 고민들을 서로의 머리 머리를 맞대어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2007년, 여전히 시려울 인권현실과 보다 더 뜨거울 청소년인권운동의 내일을 위해 활동가 여러분과 지친 마음 도닥이고 아픈 발 주물러주며 보다 단단한 걸음을 걸기위한 소통과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짓기 위한 제1회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나누고 싶은 프로그램들

1. 두리번두리번, 길을 찾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굳게 닫힌 사회와 학교의 문을 두드리려 왔습니다. 그 사회를 향한 ‘두드림’이 해마다 계속될수록 우리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문제의식들이 개개인의 마음속에 녹아왔습니다. 교사/학부모와의 연대, 활동에 대한 주변과의 소통, 학교 모임(+학생회) 등등. 2007년, 다시 ‘두드림’이 시작되기 전 우리의 고민들을 한자리에 펼쳐놓고 함께 얘기를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두드림’이 다른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의 ‘두드림’이 사회에 파장이 될 수 있도록.

2. 꼬물꼬물, 눈을 뜨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차별의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거부하고 인권을 외치고 있지만, 때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그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 장애, 성적체성, ‘인문계>실업계>비학생’이라는 등식 등등... 우리 가슴속에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차별에 눈을 떠봅시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함께 길러봅시다.

3.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다.

힘들었습니다. 설 틈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우리 주변에는 절망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했기에 때로는 바로 우리 곁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기에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을 쉽게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저런 것들, 비록 마음속에 맺힌 것들을 꺼내놓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함께 털어놓고 서로 보듬어주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재밌는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일시, 장소, 참가비 등

일시 : 2007년 2월 10일~11일 (1박 2일)

장소 : 서울 유스호스텔(충무로역)

참가방법: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홈페이지(cafe.daum.net/youthhr)에서 신청

참가비 : 수도권 청소년 2만원

지방 청소년 1만원

성인 2만 5천원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632-656530 전누리

(현재 난장을 개최하기 위한 재정이 크게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일정표

대략적인 일정표		
2월10일	12:30-13:00	왔다고 말하기 - 참가자 등록
	13:00-14:30	행사 소개 자기소개, 뽀뿌기/맘뿌기
	14:30-15:00	지방에서 온 사람들 등을 위한 간식타임
	15:00-17:00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다 - 수다마당
	17:00-17:45	저녁밥 먹기
	17:45-20:15	꼬물꼬물 나눔 뜨다 - 보육마당
	20:30-22:30	시끌시끌 놀이마당
	22:30-23:00	숙소로 이동
	23:00-	잠, 혹은 수다, 혹은...
	2월11일	8:00-9:00
9:00-10:00		비싸지 않고 간단한 아침 식사
10:00-12:30		두리번두리번, 길을 찾다 - 토론마당
12:30-13:00		점심 대용 간식 먹기
13:00-14:30		상상특급, 2007 청소년인권운동
14:15-		바다이 바이바이 사요나라 아듀 아우프비터젠 안녕 짜이찌엔...(가나다순) - 작별인사

와글난장 참가자들, 「[내말 좀 들어봐] “청소년인권활동, 나도 할 말 있어요” - 청소년인권활동의 쟁점들 쏟아진 와글난장-짓다」, 인권오름 제42호, 2007. 02. 21.

[내 말 좀 들어봐] “청소년인권활동, 나도 할 말 있어요”

청소년인권활동의 쟁점들 쏟아진 와글난장-짓다

와글난장 참가자들



지난 2월 10일~11일 이틀 동안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 짓다’ 행사가 있었어요. 청소년인권활동을 해 왔거나 기웃기웃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비청소년이 한 자리에 모여 와글와글 한바탕 수다를 떨었어요. 활동하면서 들었던 고민들을 털어놓는 토닥토닥 수다마당, 청소년 내부의 소수자 인권 문제와 마주하는 꼬물꼬물 교육마당, 새로운 활동 전략을 모색하는 두리번두리번 토론마당이 행사의 큰 즐거웠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궁금하죠? 모두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살짝 맛만 봐볼까요?

'인권'모임이 왜 이래? → 우리 관계부터 인권적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모임을 찾아왔지만, 정작 우리 모임이 서로에게 반인권적인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모임 안에도 다양한 권력관계가 숨어있으니까.

먼저 모임 안에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도록 계속 긴장해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어. 대표를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모임을 하다보면 영향력이 있고 발언권이 센 사람들이 꼭 생기게 되거든. 활동을 많이 하고 일 처리도 잘하는 사람이 자연히 영향력도 커지지. 그러다 보면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초짜 청소년이나 활



동 시간이 빠듯한 청소년들은 발언력이 없지. 효율만 생각하다 보면 '능력'있는 사람에게 일과 정보, 경험이 계속 편중될 수밖에 없어. 만약 그 사람에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싫어하는 사람'이 올 수 없는 날로 모임 날짜를 박아버리는 식으로 독재를 할 수도 있잖아? 더디고 어설피도 짐을 나눠지려는 노력이 정말로 중요해. 짐을 나눠지려면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겠지?

성평등 문제도 있어. 청소년인권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는 여성들이 적어. 그러다 보니 남성 위주로 모임이 운영되거나 남성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치우는 일은 주로 여성들이 도맡아하고, 같이 치우자, 남성들은 왜 안하냐고 얘기하는 여성은 왜 그렇게 민감하냐는 비난까지 받아야 해. 그렇다고 다른 남성에게 치울 때 빠지는 남성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또 거시기하잖아? 여성활동가들이 좀더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성평등은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역할을 나누어 맡으려고 스스로 나서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이라도 마찬가지. 청소년인권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은 대개 나이주의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근데 간혹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고 함부로 욕박지르거나 뒷통수를 때리는, 나이주의에 찌든 사람들을 만나게 돼. 성인 단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야. 청소년이라고 무턱대고 반말부터 시작하는 성인 '인권활동가'들도 많다니깐. 이걸 정말 아니잖아?

맨날 서울만 시끄러워ㅠㅠ → 지역 더 뛰어!

청소년인권활동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야. 광주, 전주, 울산, 군위, 안동 등 여러 지역에도 청소년인권활동이 있대구. 내가 있는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보고 싶은데, 맨날 서울만 시끄러워. 서울 중심으로만 계속 활동이 진행되는 건 문제야. 그치만 지역에서 활동하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거. 지역 인권단체가 워낙 적고, 거기다 청소년인권에 관심있는 단체

는 더더욱 없어. 설사 관련 있는 단체가 있어도 지원을 받기는 어려워. ‘청소년인권? 뭐 그런 걸...’ 이런 식으로 마인드도 많이 부족하니까, 청소년인권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을 정도로 늘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지.

청소년인권활동가는 또 어떻고! 지역 인구가 적으니까 학생들도 적고 활동하는 사람 수는 더 적어. 경험자가 없고 활동을 오래 하기 힘들니까 활동 경험이나 역사가 쌓이지도 못해. 활동을 하더라도 활동비를 충당하기도 너무 버거워. 서울이야 토론비나 강연비를 받아 활동



비를 모으기도 하지만, 지역은 아예 그럴 기회조차 별로 없다구. 지역은 학교에서 하는 단속도 더 빠센데, 청소년인권활동에 대한 규제도 더 심하니까 활동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뭔가 뽀족한 해답이 없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농담처럼 나왔는데..... 지역 청소년인권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누구 한 명은 지역운동에 뺄려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힘들지만 지역에서 모임을 만들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져야겠고, 혼자서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의 이야기가 더 많이 오고갔으면 해. ‘와글난장-짓다’ 같은 행사를 지역에서 여는 것도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인권에 내 얘기는 없네... → 감수성을 깨워봐

청소년인권 하면 나오는 게 보통 두발자유, 차별금지잖아. ‘청소년인권=학생인권’이란 등식에 우리도 젖어있고, 그러다 보니 학생이 아닌 청소년, 같은 학생이라도 다른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인권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청소년인권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들 모임도 비장애, 이성애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고, 여성의 눈으로 청소년인권을 바라보지도 못했어. 그러다 보니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청소년 소수자 문제를 주목하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해당 소수자 단체들이 있는데 왜 굳이 소수자 문제를 청소년인권운동에서 다루어야 하는 걸까? 그건 말이야, 예를 들어 장애인인권단체가 있어도 청소년을 보호주의적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거잖아? 학부모 등 성인 중심으로 모임이 운영되기도 하구. 그래서 장애인인권과 청소년인권이 만나야 해. 10대 장애인의 눈으로 장애청소년의 이야기를 제기하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지. 10대 성소수자, 실업계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도 마찬가지야. 청소년 소수자들이 자기 언어를 가져야 해.

그런데 아직 이들은 주체적인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벌여나가지 못하고 있어. 10대 성소수자들이 나서기 힘든 조건이 분명 있잖아. 우리 모임 안에서도 차이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고, 당사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 10대 장애인, 10대 성소수자, 탈학생의 시선으로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수면 아래 깔려있는 이 문제들을 끌어올리려면, 뭔가 접점을 찾아야해. 그러려면 먼저 당사자들과 만나는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을까? 우선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10대 여성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차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겪는 공통의 억압에 대해서도 함께 저항해야해. 청소년을 무시하는 사회, 반인권적인 교육과정, 입시 압박 등은 모두가 함께 겪는 문제니까.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야.

이런 ‘법’이 어딴어? →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지난해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많이 외쳤었어. 근데 ‘이 법만 통과되면 다 해결될텐데, 도대체 언제 통과 되는 거야’, ‘그런 법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이제 곧 졸업인데 그때까지 통과 안 되면 나랑은 아무 상관 없잖아?’ 이런 식의 반응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더라구.

우리를 청소년에게 법이란 늘 금지와 의무로만 가득 차있는 무엇이었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없었지. 헌법마저 무시되는 게 학교의 현실이었어. 그러다 보니 법이 통과돼 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체념하는 청소년도 많고, 반대로 이 법만 통과되면 장밋빛 현실이 될 것 같은 선부른 기대를 가진 청소년도 많아.

법에 대한 환상도, 체념도 다 문제가 있어.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 사실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라도 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청소년들이 그만큼 거리에서, 학교에서 저항했기 때문 아니었니? 가만히 앉아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바라거나,

국회나 언론만을 바라보며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길로는 부족해. 학생인권법을 만들어놓고 그걸 명분 삼아 오히려 학생인권이 탄압받는 현실을 가릴 수 있으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 안에서 직접 부딪치는 일이야.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 학생인권법은 우리의 요구를 결집시키는 계기라는 걸 알아야 해. 그리고 당장은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저항, 우리들의 직접행동이 우리 인권을 차곡차곡 얻어나가는 발판이 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알아야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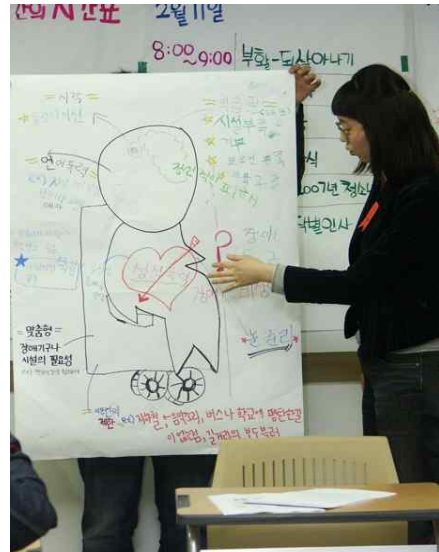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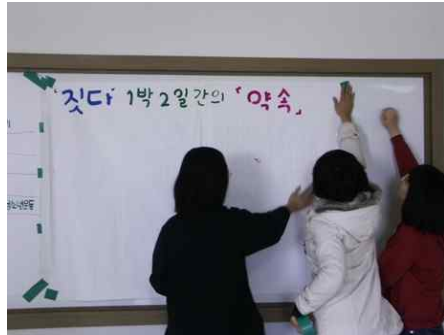
[끄덕끄덕 맞장구]

‘와글난장-짓다’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소개하려 기억을 더듬다 보니 참여한 이들과 나누었던 유쾌하면서도 진지했던 수다의 바다에 다시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청소년인권활동을 하다 보면 친구·동료들과의 소통 문제에서부터 학교에서 찍히면 고달픈데 하는 걱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달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부딪쳤을 때의 갈등, 인권모임에서 겪게 되는 반인권적인 경험이 만들어내는 쓰라림, 선불리 체념하거나 기대하는 친구들을 토닥토닥 격려해야 하는 부담 등 많은 고민과 만나게 되지요 무엇 하나 쉽게 답을 얻을 수 없는 고민들입니다.

다른 한편, 이제 학생인권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10대 소수자들의 눈과 언어로 청소년인권을 다시 썬야 한다는 요구도 내부로부터 나옵니다. 목이 터져라, 발바닥이 부르터라 ‘학생인권’을 외치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학교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지요 그런데 또 다른 과제까지 만나게 되니 어깨가 더욱 묵직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만으로 작은 변화의 물꼬를 틔웠습니다. 해답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토닥토닥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 가야할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년 ‘와글난장’에서는 지금 나는 고민을 던고 좀더 자란 청소년인권활동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배경내]

<2007년 제 1회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 소장사진, 2007. 02. 10.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간담회 1탄- 10대 성소수자〉 제안서, 2007. 05. 03.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첫 번째 간담회

- 성소수자운동과의 만남 제안서

수신 :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날짜 : 2007. 5. 3

문의 : 02-365-5359, 배경내(017-214-3550)

안녕하세요? 귀 단체에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뽀뽀이, 한해살이 청소년인권운동의 경계를 극복하고 청소년 인권운동 진영의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활동가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2006년 3월 결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은 지금까지 두발자유, 체벌금지와 같은 학생인권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미약하나마 학생인권은 사회의 한 화두로 부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문제가 청소년 인권 문제의 전부는 아닌 만큼 청소년인권운동을 확장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저희는 계속 해왔습니다. 비학생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여성 청소년, 장애 청소년과 같이 청소년 내부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저마다 처해진 위치에서 ‘미성숙한 존재’ 라는 굴레에 더해 이중 삼중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들이 존중되고, 그녀들이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 그때야 진정한 청소년 인권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문제들이 아직 ‘문제’로만 제기되고 있을 뿐, 아직 청소년인권운동 진영 내에서 구체적인 ‘운동’으로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정체성과 맞물리는 다양한 문제들의 연대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라는 이름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배우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간담회는 서로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의 만남

- 첫 번째 경계를 넘는 주제로 ‘10대 성소수자’를 선택했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와 레즈비언상담소를 모시고 그동안의 활동 경험과 고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담회 안에서 두 단체의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비롯하여, 간담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간담회 참여 범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 간담회로 열면서 대중 홍보는 하지 않되, 저희 행사를 통해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분들에게는 열어두었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간담회 참석자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 **때** : 2007년 5월 12일(토) 오후 5:00-7:30
- **곳** : (구)선교교육원 강당 (5호선 서대문역 1번출구)
- **초대 단체** :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참여자 규모** : 20명 정도
- **네트워크 측 참여자 특성**
 - 10대와 20대 초반 활동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접해보지 못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네트워크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소속 단체의 청소년 회원들과 청소년인권활동캠프/토론회 참석자도 함께 모시려 합니다.
- **간담회 주요 내용**
 -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대략적 소개

- 특히 10대 성소수자, 10대 레즈비언의 삶과 인권
- 10대 성소수자의 인권 확보를 위한 운동들의 흐름과 고민들
- 청소년인권운동의 재구성 과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대한 제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그리고 개인 활동가들

해밀, 「 '청소년인권', 청소년 성소수자를 말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0대 성소수자 간담회 열
어」, 인권오름 제54호, 2007. 05. 16.

‘청소년인권’, 청소년 성소수자를 말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0대 성소수자 간담회 열어

해밀(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중학교 때 제가 레즈비언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그 때 학교 밖 모임 같은 곳에서 많이 욕도 먹고 그랬었거든요…….”

“팬픽(유명 연예인에 관한 창작 소설 - 주로 동성 간 관계를 그림)이나 야오이(남성 간 연애를 그린 만화 등)가 유행했었잖아요. 애들이 잘생긴 사람끼리는 동성에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끼리 하는 건 못 봐주겠다고 그러기도 해요(웃음)”



지난 12일 (구)선교교육원 강당에서는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1탄 - 10대 성소수자 간담회'가 열렸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

지난 12일 (구)선교교육원에서 열린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1탄 - 10대 성소수자' 간담회

크가 청소년인권운동의 확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는 20여명의 청소년과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 한국레즈비언상담소(아래 상담소) 활동가들이 한데 모였다.

낯설지만 결코 새롭지 않은, '청소년 소수자'

10대 성소수자, 장애인, 탈학교청소년 등 '청소년 소수자'들의 문제는 소수자 인권활동가들과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고민과 활동에 비해 청소년 소수자

인권 문제는 많이 '문혀'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소수자 당사자와 많은 인권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청소년 소수자 운동에 새로운 흐름이 일고 있다. 그 새로운 흐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추진 중인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프로젝트다. '청소년인권 운동'이 드디어 '경계를 넘기' 시작했다!

조심스레 경계 너머를 바라보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담소와 동인련 활동가들은 성인 성소수자, 10대 성소수자, 그 중에서도 10대 레즈비언이 처한 현실과 그에 따라 진행되어온 운동의 흐름을 소개해주었다.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을 학기 초 조회 시간에 앞으로 불러내어 “이들은 레즈비언이니 어울리지도 말라”고 낙인찍은 사례, 이성애주의적 학교나 가정에서 감금당하고 폭행당하다가 ‘퇴출’당한 10대 성소수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쉼터에서마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쫓겨난 사례, 정체성에 대한 고민 끝에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례 등을 나누는 동안, 간담회 장소는 황당함과 숙연함을 넘어 침울함이 가득 찼다.

그러나 'OTL(좌절)'스러웠던 청소년인권이슈에 불을 붙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지켜볼 수만 없지 않을까? 많고 많은 이야기는 결국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합일점에 다다랐다.

10대 성소수자 인권운동, 어디로?

상담소는 10대 '이반'(이성애적 주체를 제외한 모든 성소수자)들이 학교 내에서 겪는 차별 실태 조사 프로젝트, 쉼터 방문 사업, 상설적인 상담 활동과 사건 대응을 통해, 또 동인련은 10대 성소수자 교육자료 제작 등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사회적 차별과 아웃팅을 매개로 한 범죄의 위협 등으로 10대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만나는 현실적으로 무척이나 어렵다. 억압적인 학교와 가정을 벗어나 자유를 갈구하며 10대 성소수자들이 새로운 등지를 찾아와도 그/녀들의 바람과 문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성인들과의 갈등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래서 성소수자단체들은 성소수자운동과 청소년인권운동이 더더욱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야기는 좀더 좁혀져 '10대 성소수자들의 운동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모아졌다. 이에 대해 동인련은 단체 내부에 청소년 당사자 모임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상담소는 멘토·멘토 프로그램과 '10대 이반 백서' 출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열띤 활동이 전개되더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은 바로 '10대 성소수자 스스로의 운동과 담론 형성'이다. 동인련 정을 활동가는 “지금 사회에서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아직 성장 중이니까 이성애자로 '이끌 수 있다'고 여긴다”고 전했다. 10대 성소수자들은 '머리 짧은 털털한 여학생'이라든지 '여자 같은 남학생' 등 사회의 지배적 성 역할을 뒤집어놓은 듯한 편견에 가득 찬 이미지에 못박혀있기도 하다. 이러한 '판타지'와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다.

10대 성소수자 당사자는 '청소년'과 '성소수자'라는 이중의 편견과 억압을 깨고 스스로를 뚝뚝이 드러낼 때 비로소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드러냄'이란, 자신들이 주체적인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표현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당사자들의 운동이 없다면? 청소년 당사자가 이끄는 운동이 아니라 당사자를 '위한' 다른 누군가의 운동이라면? 당사자는 비록 어느 정도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보호적 관점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사자의 언어는 '일부 적절히 수용되는 운동의 부분적인 의지'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청소년 성소수자와 성인 성소수자의 공통분모인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는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그 '연대' 역시도 운동이 주체적으로 형성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만의 운동도, 당사자가 아닌 주체들만의 운동도 결코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물론 기존 성소수자 운동 진영에서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운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그 필요성을 매우는 것은 필요에 따른 행동이며, 그 행동의 주체는 청소년 자신들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질적으로 10대 성소수자들의 운동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기존 청소년 인권운동 진영은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하면서 성소수자 운동 진영과 연대해나갈 수 있는가', '청소년인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없어 다소 아쉬웠다. (이야기가 부족했던 이유는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진짜다!) 또한 '성소수자'라는 타이틀을 걸었으나 실제로는 동성애자에 국한되어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점도 아쉽다.

그치만 너무 좋았는걸^^

그래도 이번 간담회가 무의미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운동에 관한 고민과 담론 형성은 간담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니까.

활동가들의 설명이 끝난 뒤 진행된 2부에서, 청소년 참가자들은 '성소수자'라는 무거운 '금기'의 키워드에 대해 평소 느끼고 경험했던 점들을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하고 궁금한 점을 활동가들에게 질문했다.

“작년에 어느 잡지에서 청소년 동성애자 관련 기사를 보고 '동성애'를 포털 사이트에 쳐봤는데, 갑자기 '19세 딱지가 뜨는 거야.’”

“팬픽이 동성애에 대한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등의 부작용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그게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반에 관심 있는 애가 있으면 그 애한테 팬픽을 권한다든지? (모두 웃음)”

자신이 예전 중학생 때 겪었던 차별, 포털사이트가 ‘동성애’라는 단어를 '청소년 금칙어'로 설정해놓은 걸

보고 느꼈던 황당함, 예전 학교에서 유행했던 팬픽과 야오이 문화가 10대 성소수자의 삶이 미친 영향, 한 반에 한 명씩은 꼭 있었다던 '칼머리한 아이들(?)',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성소수자 이야기를 꺼낼 때의 난감함과 조심스러움 등……. 동성애 담론으로부터의 청소년들의 사회적 '격리'는 심지어 팬픽에 대한 부분적인 긍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가자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겪었던 경험들로부터 동성애의 낭만화와 문화코드화를, 사회의 차별과 뿌리깊은 이성애주의라는 편견을 읽어내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야기가 깊어가는 동안 어느 새 활동가와 참석자 사이의 어색함과 '금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경계는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

다음 경계를 향해

비록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간담회가 소수자 인권 운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 등 아직 청소년인권운동의 한계를 짓는 수많은 '경계'들이 남아있다. 어쩌면 이 경계는 허구일지도 모른다.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았던 소수자들은, 그리고 그 '경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위에 있다. 우리, 함께 넘어보지 않을까요?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2탄

□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은 지금까지 두발자유, 차별금지와 같은 학생인권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미약하나마 학생인권은 사회의 한 화두로 부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문제가 청소년 인권 문제의 전부는 아닌 만큼 청소년인권운동을 확장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저희는 계속 해왔습니다. 비학생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여성 청소년, 장애 청소년과 같이 청소년 내부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니깐요 이들은 저마다 처해진 위치에서 ‘미성숙한 존재’ 라는 굴레에 더해 이중 삼중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들이 존중되고, 그녀들이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 그때야 진정한 청소년 인권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문제들이 아직 ‘문제’로만 제기되고 있을 뿐, 아직 청소년인권운동 진영 내에서 구체적인 ‘운동’으로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정체성과 맞물리는 다양한 문제들의 연대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라는 이름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배우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간담회는 서로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장애 청소년’ 인권과의 만남

- 지난 ‘10대 성소수자’ 인권에 이어 두 번째 경계 넘기 주제로 ‘장애 청소년’ 을 선택했습니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시설인권연대를 모시고 장애청소년의 삶과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부 : 학교 안 장애청소년

- 1) 장애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 인프라는 어떠한가?
- 2) 장애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교사 그리고 수업은 어떠한가?
- 3) 장애인 교육권의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2부 : 시설 장애청소년

- 1) 시설이란 어떤 공간이고, 그곳에서 장애청소년은 어떻게 살아가나?
- 2)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
- 3) 지금까지 있었던 시설 관련 운동들은 어떠했고, 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

3부 : 경계 넘기

- 1) 장애청소년인권운동이라 불릴 만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 2) 장애청소년인권운동의 과제, 극복지점은 무엇일까?
- 3)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간담회 2탄- 장애 청소년〉 웹자보, 2007. 08. 04.

소수자 청소년 운동 - 청소년인권의 재구성 - 연대를 위한 작은 발걸음



“장애청소년운동과의 만남”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시설인권연대 활동가 초대

때 > 2007년 8월 4일 토요일 늦은 3시

곳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

참살이, 「장애와 청소년, 이중의 굴레를 벗기 위하여- 청소년인권 경계넘기 2탄, 장애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 4호, 2007년 8-9월호.

장애와 청소년, 이중의 굴레를 벗기 위하여

-청소년인권 경계넘기 2탄, 장애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참살이

“(병신, 애자, 절름발이, 병어리, 저능아, 귀머거리, 맹인)야!”

학교 혹은 사회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한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써봤을 법한 단어가 저 안에 하나쯤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누군가에 대한 단순한 장난의 표현으로 혹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 행동이나 사고를 한 사람에게 주로 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대부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딘가 불편한 사람을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들이다. 이런 말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장애에 대해 멸시, 차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토록 장애를 가졌던 이유로 멸시받는 존재, 게다가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한 존재들’로서의 의미를 갖는 청소년이란 이중굴레까지 씌어진 이들, 그들이 바로 장애청소년인 것이다.

장애인권과 청소년인권의 만남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1탄 - 10대 성소수자’에 이어 지난 5일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 장애청소년운동과의 만남’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에서 열렸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와 시설인권연대 활동가와 함께 장애청소년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사자운동의 길을 묻고,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세 분을 포함하여 25명 정도가 함께한 자리였다.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은 ‘두발자유, 체벌금지’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학생인권 문제에 여전히 발목 잡혀 제대로 운동이 분화,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권운동 역시 최근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적극적으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학교의 문턱은 장애청소년들에게 여전히 높기만 하다. 게다가 ‘교육부의 입맛대로 시행

령 만들기 작전'으로 인해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현실은 결국 아직 장애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운동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권과 청소년인권이 함께 만나 장애청소년인권과 운동에 대해 탐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어서, 이날 간담회는 더더욱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는 비장애청소년 중심의 인권운동이 아닌 포괄적인 청소년인권운동의 필요성을 느끼



고 울산에서 이수나로 울산지부 친구들과 '장애청소년인권모임'이라는 소모임을 꾸리기 위해 준비 중이었고, 주말 통합학교나 장애인교육법 캠페인 등에 함께해보면서 진지한 고민을 나눌 자리가 필요했다. 마침 이러한 자리가 생겨 울산에서 함께 활동하는 친구와 함께 서울까지 올라와 간담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시설=감옥=학교?

1부에서는 학교 안 장애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당사자 세 분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이었다. 9번 거부당하고 겨우 일반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활동가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쪼그려 앉는 화장실을 계속 사용해야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이야기라면서 “또래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래 문화에서 문화적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털어왔다.

이창준 씨는 특수학교를 거쳐 대학을 진학한 사례인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리고 특수학교에 붙어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솔직히 털어놓 주었다. 복지부에서 높은 사람이 오는 날이면 학교를 반짝반짝 청소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고 죽도록 각목으로 맞았던 이야기, 한 겨울에도 30분 안에 씻지 못한 이들이 찬물로 목욕을 해야 했던 이야기, 밥상에 올라온 '꿀꿀이죽' 이야기, 특수학교에 붙어 있는 시설에서 간혀 지내다 보면 사람이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능해지고 자기 몸이 시설로 체화돼 버리는 '시설병' 이야기 등을 듣는 동안 앉아있는 청소년들도 숙연해졌다.

특수학교나 시설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 그곳 장애청소년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는 줄 착각했던 청소년들이 들으면 놀랄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다. 또 장애로 분류되지도 않는 경증 장애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생활

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장애청소년에게 시설이나 감옥이나, 일반학교나 특수학교나 안락한 공간 따위는 '결코' 어디에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김정하 활동가도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예들을 소개해주면서 흔히 시설을 '형기 없는 감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짚어주었다. 시설 생활 장애청소년의 인권현실을 듣다 보니 단순히 낮은 이야기만으로는 들리지 않았다. 시설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종교 강요와 통제, 억압은 미션스쿨에서 비장애청소년이 겪는 그것들과 다른 것이 없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꿀꿀이죽'으로 불리는 급식의 상태나, 잠시 밖에 나가도 끊어야 하는 외출허가증, 머리는 '깎두기가 아니면 용서되지 않고, 땀별에서 벌을 세우거나, 일상적으로 난무하는 폭언과 폭력 등등.....'.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서 학교와 시설이 쌍둥이처럼 닮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단순히 분리된 문제가 아닌 서로의 문제가 이어져 있는 것이고, 장애청소년인권의 문제가 단순히 '장애청소년'에게만 국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함께 연대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장애청소년운동, 어떻게 집을 지을까?

이러한 차이와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장애청소년운동의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상해보았다.

시설인권연대 김정하 활동가는 “탈시설 운동이 청소년인권과 갖는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다”면서 “아직 사례, 경험도 적고 청소년인권운동도 이제 시작단계고 장애인권운동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느 지점부터 연대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장애청소년,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청소년들부터 찾아가고 같이 고민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현실을 만나면 이제 기지개를 켜려는 장애청소년 인권운동의 길찾기가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이었다.

김형수 활동가는 “장애청소년 당사자의 운동을 이끌어 함께 활동하는 것은 서로의 소통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서로 경계를 깨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러면서 자신들끼리의 대답을 자꾸

만나면서 풀면 그게 정답인 거 같다”고 단순한 만남만이 아니라 서로의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담론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모두들 공감했다.

마지막 평가 시간에 이창준 씨는 “장애를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에 모두들 공감하면서 간담회는 마무리 되었다.

비장애/장애인의 경계는 어디에?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평소에 참으로 궁금해하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과연 ‘비장애/장애인’의 진짜 경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말이다. 다음 중 ‘진짜 장애인’은 누구일까?

1. 키가 작아 높은 곳을 올라가기 힘든 아동
2. 렌즈를 끼지 않는다면 앞을 보기가 힘든 여학생
3. 평발이라 오래 걷기 힘든 청년
4.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든 노인

언뜻 보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한국이란 사회에서 ‘장애’가 갖는 의미란 아주 협소한 의미의 장애, ‘장애=부끄러움’을 조장하는 의미라고 본다.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외국에선 장애를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모든 불편함’으로 규정하면서 종류만 몇백 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고작 해야 단순한 ‘차별적 분류’들 뿐이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자신이 확실히 비장애/장애인임을 구별할 수 없고, 확실한 경계도 짓지 못하면서 특정 누구를 가리켜 ‘장애인’이라고 ‘뺨’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장애청소년인권운동은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이들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운동’이라는 것이다.

2% 부족했던 것들!

사실 이러한 자리가 처음이니만큼 이야기할 것도 너무 많았고, 서로의 이야기도 가지가지였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부족한 시간은 역시나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게 했다. 그리고 실제 장애청소년 인권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본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사례나 경험이 많지 않았고, 운동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관한 고민들을 여러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그럼에도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앞으로 비장애 청소년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지역에서 장애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갈 것이란 것, 오늘과 같은 만남과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함으로써 계속 새로운 담론과 패러다임을 생성하고 나아갈 것이라 점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2% 부족한 간담회였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과 돈을 쪼개어 울산에서 올라온 것이 이깝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귀중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첫발자국’을 내딛다

고등학교 야간학습 때 <십시일반>이란 인권만화책 안에 수록된 ‘첫발자국’이란 작품을 보고 혼자 평평 울면서 장애청소년인권운동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 만화에선 혜연이라는 다리를 저는 친구가 학교 안에서 겪는 갖가지 불편과 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혜연이는 학교에서 화장실 하나 편하게 사용하지 못해 사고가 났고, 결국 이런 현실에 대해 친구들도 함께 싸우게 된다. 혜연이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세상을 향해 첫발자국을 내딛었다고 이야기한다.

난 이번 간담회가 바로 그러한 소중한 첫발자국이라 생각한다. 분명 첫발자국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분명 그 첫발자국이 갖는 의미는 크고 뜻 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는 큰 ‘첫발자국’을 찍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발자국’을 찍으며, 이제부터라도 ‘수많은 발자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걸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발자국을 찍으며 앞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많은 경계도 깨부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와삭와삭 인권서리〉 홍보자료 및 프로그램, 2007. 07. 0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청소년인권에 관심있는 개인활동가들

수신 : 각 언론사 교육·사회부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목 : “와삭와삭 인권서리” 행사 홍보 요청

날짜 : 2007.7.02(월)

문의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02-365-5359)

전누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016-297-9803), 낭팡(016-9223-5015)

“와삭와삭 인권서리”

□ 때: 7월 25일~29일

□ 곳: 공간민들레 1층 홀

1. 안녕하십니까? 일상적으로 억압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 펜을 잡은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06년 3월 청소년인권을 고민하는 단체들과 개인들이 모여 만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두발자유와 체벌금지라는 기본적인 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는 작년에 학생인권법 제정운동과 스쿨어택(인권침해발생 학교에서의 직접행동), 5·14 두발자유집회, 청소년인권전국행진 등의 사업들을 벌여나갔습니다. 올해 네트워크는 2월 “청소년인권 와글난장”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교사들,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앞으로의 청소년인권활동을 위한 연대를 다졌고, 4월 14일에는 “미친학교를 혁명하라(미학혁명)” 집회를 열어 청소년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직접행동을 하였습니다. 인천 산곡중과 수원 천천고 등의 학교에서 벌어졌던 인권침해들을 주시하고 막기 위한 네트워크의 활동 또한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 성소수자와 휴대폰 압수에 대한 토론회를 기획하는 등 활동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고 있습니다.

3. 네트워크는 2007년 상반기까지의 활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하반기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인 “외사외사 인권서리”를 방학 중에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외사외사 인권서리”는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8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중적인 청소년인권교육의 장입니다.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이 행사를 통한 청소년인권담론의 확대는 귀 언론사가 바라는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소개문 및 웹자보

『와삭와삭 인권서리』

■ 행사 취지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가 부당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들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무지’와 ‘미성숙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억압, 그리고 ‘인권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와삭와삭 인권서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대중적인 장입니다. “와삭와삭 인권서리”는 인권교육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과 인권의 사회적인 맥락을 함께 고민하고, 이후 지속될 인권교육의 초석을 쌓는 소중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 일정 및 프로그램

총 5일간 진행되는 본 행사는 사흘간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와삭와삭 인권서리”**와 이틀간의 **인권캠프-“태풍은대, 여기로 휴가와 ㅋㅋㅋ”**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삭와삭 인권서리"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7월 25일 오후 1시~ 6시

1. 「죽음의 숨바꼭질」 - 학교에서 벌어지는 절대 비밀의 술래잡기

일본 애니메이션 「카쿠렌보(カクレンボ) 2004」 속에 숨겨진 은유들을 풀이해보고, 왜 당신이 어른들의 편에 서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귀신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해 볼까요?

2. 「그 곳엔 좀비들이 산다」 - 좀비들이여, 학교를 혁명하라!

이 땅의 청소년들은 다 좀비다! 아니라고 우기진 마세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어기적어기적 일그러진 얼굴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당신을 거울 속에 비춰보라구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당신의 얼굴에는 좀비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아직은 남아있군요. 이제 폭소로 학교를 혁명하라!

7월 26일 오후 1시~6시

3. 「The 청소년 인권 극장 I」 - 잔혹극으로 고찰한 학교

썸통더위에 교실에 난로를 켜 학생들에게 무료 사우나를 시켜준 교사는 잠깐 더위를 먹어 이성을 상실한 것일까요? 한 인간에게 300번의 매질을 가한 교사는 그냥 미친 걸까요? 전문가의 교육 연극을 통해 학교 폭력이 단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에 의해 재생산되는 폭력임을 알아보기로 해요.

4. 「The 청소년 인권 극장 II」 - 역할극으로 고찰한 “공부해라”

왜 청소년은 공부를 해야 할까요? 사람 되려고, 배워서 남 주려고,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라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가 제일 쉬워서... 청소년들이 직접 엄마·아빠, 교사, 학생의 역할을 맡아 “공부해라”는 말 속에 숨겨진 논리들을 헤집어보는 토론을 벌여요. 어른들이 직접 오셔도 좋겠지만, 입장 바꿔 생각도 해보고 뒤집어진 역할 속에서 속 뒤집어지는 경험도 해보세요.

7월 27일 오후 1시~6시

5. 「만만한 상상」 - 학생인권법 시나리오 워크숍

이 땅의 청소년들은 사람이 되기(수능 대박! Go to the SKY!) 전에는 사람으로서 헌법의 권리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인권법을 통해 사람 비슷하게라도 살고 싶은데... 서로의 두뇌를 이어주는 브레인스토밍과 치밀한 시나리오 워크숍으로 학생인권법의 미래를 예측해 보세요. 앓, 수정구슬에 비친

‘학생회’의 미래는 덤이라구요.

6. 「만만한 만남」 - 청소년인권으로 좀 노는 애들을 만나다

두렵지 않았냐구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아빠한테 깨지지 않았냐구요? 지금도 깨지고 있어요. 미래가 보이냐구요? 아니요. 당신과 똑같이 흐릿한 미래가 안개처럼 망막에 끼어있어요. 하지만 이미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자유로우며, 이미 행복을 위해 싸우는 한 행복하다는 사실을 매일 깨닫고 있어요. 평범한 한 소년과 소녀가 어떻게 ‘청소년인권활동가’로 거듭나는지를 질문 한 보따리 싸들고 만나러 오세요.

"태풍온대, 여기로 휴가와 ㅋㅋㅋ"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7월 28일부터 29일까지(1박 2일)

7. 「던전 오브 인권」 - 인권 게임 북이 열린다!

췌! 미리 이 게임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의 선택 한 번으로, 주사위 던지기 한 번으로 당신의 인권지수와 생존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경고만 챙겨주세요.

8. 「Here comes the 'NU SKOOL」 - 청소년이 교육대통령이다

지금까지 당선된 어떤 대통령도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공약(公約)으로 내세운 적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요? 순 엉터리 텅 빈 공약(空約)만 쏟아낸 아바위꾼들! 그래서 감히 선거권도 없는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정책을 만들어 먼저 대통령 선거를 치러 버리자구요! 선거법 위반 아니냐구요? 18세 선거권이라도 쥐야 위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ㄱ ‘어른들만의 천국’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NU SKOOL'로 전혀 새로운 교육을 꿈꿔 보세요.

■ 일시, 장소, 참가 방법 등

일시 : 2007년 7월 25일~29일

장소 : 홍대입구역 공간 민들레 1층 홀(캠프는 아직 미정)

참가방법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홈페이지(cafe.daum.net/youthhr)에서 신청

참가비 : 추후 공지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632-656530 전누리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큰 지지가 될 것입니다.)



신청 : cafe.daum.net/youthhr 게시판으로
 장소 : 교육 마당 ~ 공간 민들레1층 홀 (홍대입구역)
 휴가 마당 : 어딘가 저 멀리
 문의 : 02-365-5359, 016-9223-5015
youthhr@chol.com

25일 Wed 1시~6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의 숨바꼭질 <학교에서 벌어지는 절대 비밀의 술래잡기> - 그 곳에 좀비들이 산다 <좀비들이여, 학교를 혁명하라>
26일 Thur 1시~6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청소년인권극장 I <잔혹극으로 고찰한 '학교'> - The 청소년 인권 극장 II <역할극으로 고찰한 '공부해라'>
27일 Fri 1시~6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만한 상상 <학생인권법 시나리오 워크샵> - 만만한 만남 <청소년 인권으로 좀 노는 애들을 만나다>
28~ 29일 Sat S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던전 오브 인권 <인권 게임 북이 열린다> - Here comes the 'NU SKOOL' <청소년이 교육대통령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와삭와삭 인권서리』 자료집, 2007. 07. 25.

제1회 청소년인권학교

와삭와삭 인권서리

<부록> 태풍 온대 여기로 휴가와 ㅋㅋ

때 : 서기 2007년 7월 25일~29일

곳 : 공간 만들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 죽음의 숨바꼭질

학교에서 벌어지는 절대비밀의 술래잡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애들아, 숨바꼭질 할래?

당신도 친구들과 숨바꼭질 해본 기억이 남아 있나요? 지금은 늑승그레 아저씨가 되어버렸지만 저도 어렸을 때 술래가 돼서 꼭꼭 숨은 친구들을 찾아 골목길을 헤매곤 했지요. 그 소박하고 작은 놀이 하나로 웃음 한 보따리와 듽직한 어깨동무가 생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컴퓨터와 사교육에 붙들려 있어서인지 거리가 텅 빈 채 쓸쓸하기만 하네요. 물론 지금의 도시 거리는 숨바꼭질을 하기엔 위험하기도 하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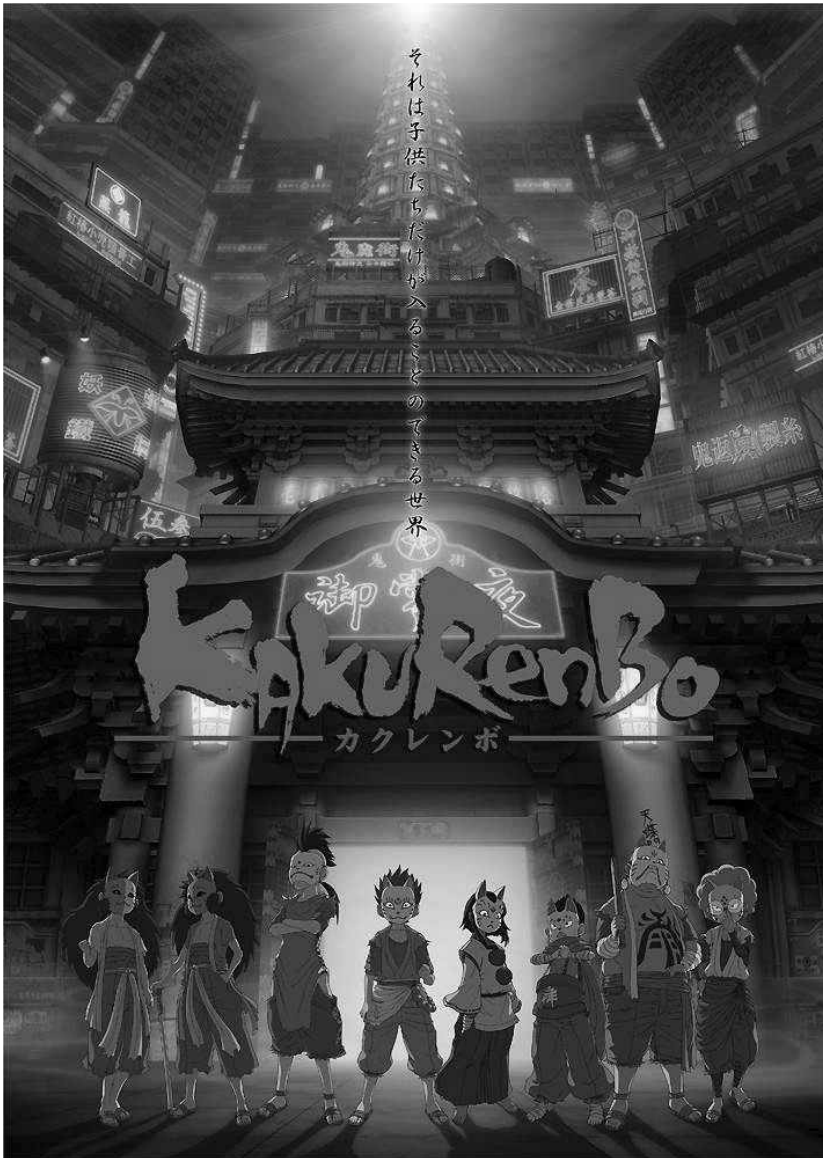
숨바꼭질은 원래 ‘순(巡) 바꿈질’에서 바뀌어온 말이에요. 즉 순서를 바꾸어 나가는 놀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놀이는 달리 ‘술래잡기’라고도 부르지요. 그렇다면 남들 다 편안히(?) 다니는 학교를 놔두고 곳곳이 ‘인권서리’를 찾고 있는 친구들도, 어쩌면 제도 교육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학교라는 술래가 눈 부릅뜨고 아이들을 통제와 경쟁의 울가미를 씌우려는 무서운 놀이에서, 용케도 잘들 숨어 있으니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나 언제까지 학교 바깥에 숨어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애써 외면해온 절대 비밀의 세계를 불러내어 충격과 공포의 숨바꼭질을 시켜 드리지요.

* 숨바꼭질 : ‘순(巡) 바꿈질’은 순서를 바꾸어 나가는 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번 정해진 순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학교와 가정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워왔는데 순서를 바꾸라구요? 만약에 아버지와 자식의, 교사와 학생의, 남자와 여자의 순서가 뒤집히고, 위와 아래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TV 그만 보고 가서 공부해. 어서~
선생님, 자주 나 때리면 벌점 받아요
다 큰 사내 녀석이 밤늦게 돌아다니면 어떡하니?
나이 먹은 당신이나 잘 해.

그래서 어쩌면 순 바꿈질은 아주 무서운 놀이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만이 옳고, 그것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가령 당신이 지금처럼 학교 바깥에서 새로운 배움을 찾는 행위도 아주 커다란 순 바꿈질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학교는 오직 자신만이 교육할 수 있다고 우기잖아요.



* 술래잡기 : 한편 숨바꼭질은 ‘술래잡기’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요. 술래는 ‘순라(巡邏)에서 온 말로(순라-술라-술래), 조선 시대 때는 해가 지고 나면 포졸들이 서울의 4대문을 걸어 잠그고 장안을 ‘살살이 살피며 돌아다니는’ 순라를 돌았대요. 물론 잡히면 끌려가서 혼이 났구요. 이렇게 조선 시대 사람들은 저녁 6시(겨울, 봄), 7시(여름, 가을)만 되면 통행금지를 때리니 얼마나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겠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당신에게 저녁 6시를 통금 시간으로 정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이것을 본떠 재미있는 놀이로 바꾼 거지요. ‘술래피하기’가 아니라 ‘술래잡기’ 놀이로요. 원래 술래는 아이들을 잡는 ‘순라꾼’이고 아이들은 술래를 피해 다녀야 하는데, 놀이 제목은 속마음을 담아서 거꾸로 ‘술래잡기’라고 붙인 것이지요. 한 마디로 ‘잡새 놀리기 게임’이라고나 할까요? 순라꾼을 놀려먹고 골리는 술래잡기! 피할 수 없다면 즐거라? 이렇게 조선의 어린이들은 봉건제의 억압에 맞서 저항의 형태로 놀이를 즐긴 거예요. 어린 녀석들이 감히 반역을 꿈꾸었다고 해야 될까요? ㅋ 술래잡기 놀이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대요.

그러면 정말로 숨바꼭질이 얼마나 무서운 놀이인지 한 번 경험해 보세요. 카카

절대비밀의 숨바꼭질 ‘오토코요님의 유희’

1. 일곱 명의 아이가 모여야 한다.
2. 참가자는 여우가면을 써야 한다.
3. 평범한 숨바꼭질이 아니다.
4. 아이들이 사라진다.
5. 진짜 도깨비가 나와서 아이를 데려간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일곱 명이 아닌 여덟 명의 아이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은 열리고 아이들은 ‘오토코요님의 유희’라는 비밀의 문으로 다가가고 놀이는 시작되는데….

아이1 : 저기 말이야. 오토코요님의 놀이라는 게 뭔지 알아?

아이2 : 어? 혹시 그 컴컴한 거리에서 하는 비밀의 놀이를 말하는 거야?

아이3 : 그 놀이 정말 재미있더라?

아이1 : 그렇긴 해도 무진장 위험하단 얘기도 들었어. 다들 절대로 그 거리엔 가면 안 된다고 하던데.

아이3 : 그러니까 … 뭔가 있다는 거 아니냐. 너무 재미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러는 거야.

아이2 : 하지만… 그 거리엔 말이야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아이3 : 도깨비?

아이1 : 그래, 그래. 도깨비가 나온다고 ‘사람 냄새… 사람 냄새….’ 하면서 아이들을 납치한대. 그 거리 근처에 갔다가 못 돌아온 애들이 잔뜩 있대.

아이3 : 틀림없이 뺑일 거야.

아이1 : 뺑이 아니라니까. 내 친구가 말이야… 그 거리 근처에서 … 엄청나게 큰 도깨비 그림자를 봤다고 했던 말이야.

아이3 : 그럼 우리가 같이 가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아이1 : 으흠… 싫어.

여자아이 : 우후후후(웃음소리)

아이1 : 뭐야?

여자아이 : 오토코요님의 놀이…

아이1,2 : 어? 혹시 알아? 정말?

아이3 : 거짓말이면 죽을 줄 알아.

아이1 : 빨리 말해봐. 말해봐.

아이2 : 췌! 조용히 해. 응? 꼭 우리끼리 비밀로 할 테니까 가르쳐줘.

여자아이 : 우후후. 음… 오토코요님의 놀이는 말이야. 그 거리에서 일어나는 절대 비밀의 숨바꼭질이라. 어두운 곳의 불빛이 소름 끼치도록 밝아질 때가 있어. 그 거린 전체가 미로 같아. 하지만 표시가 있어. 간판에 오, 토, 코, 요를 찾아 순서대로 돌면 돼. 그 글자를 모두 찾으면 오토코요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나와. 일곱 명의 아이가 모두 모이면 …… 오토코요님의 놀이가 시작되지. 놀이에 참가하는 아이들은 모두 여우가면을 써야 돼. 오토코요님의 놀이는 평범한 숨바꼭질이 아니야. 굉장히 …… 위험해. 아이들이 전부 없어져 버린대. 그래. 오토코요님의 놀이에서는 진짜 도깨비가 나와서 아이를 데려가 버린대….

도시의 어두운 거리. 황폐하고 혼돈한 거리 사이의 틈새. 그곳엔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다. 아이들은 도깨비라 불리는 존재들과의 비밀놀이인 숨바꼭질(카쿠렌보)을 알고 있다. 실종된 여동생을 찾기 위해 에 참가하는 주인공 소년 히코라와 야이마오. 그리고 이 귀신들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하는 3인조 노시가, 타치지, 수쿠. 그 외에 쌍둥이인 인무와 안쿠. 그리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여자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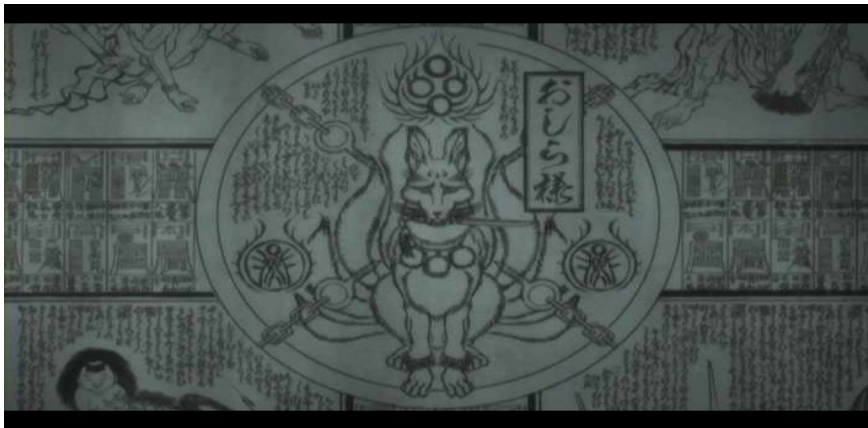
아이들은 알고 싶었다. 이 놀이를, 이 거리를, 이 세계를….

1. 이 절대비밀의 숨바꼭질에 참가하려면 일곱 명의 아이들이 모여야만 하고 반드시 ‘여우 가면’을 얼굴에 써야만 한 대요. 이 여우 가면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2. 키모토리(간 뽑는 귀신), 치토리(피 뽑는 귀신), 아부라토리(기름 뽑는 귀신), 코토리(아이 데려가는 귀신), 오시라(?)… 이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 오니(鬼)들은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 오토코요(オトコヨ) : 토코요(常世) - 저승, 토코요(常夜) - 끝없는 어둠

* 오시라(おしら) : 민간에서 믿는 양잠의 신이라고 한다. 「카쿠렌보」의 각본에 따르면, 여자아이 주변에 빛나는 나방이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나방은 이 거리의 전광판에 모여드는 야광충이며, 사람의 폐에 치명적 쇼크를 일으키는 해충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나방의 누에를 양잠하여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누에는 ‘토코요’라고 불리며, 그것들이 토해낸 실은 누군가에 의해서인지 계속 늘어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와이어 대신으로 쓰인다고 한다.



3. 화면을 수직으로 가르는 그 거대한 탑은 무엇을 상징하고, 처음에는 조그맣던 탑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많은 것을 상징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과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쳐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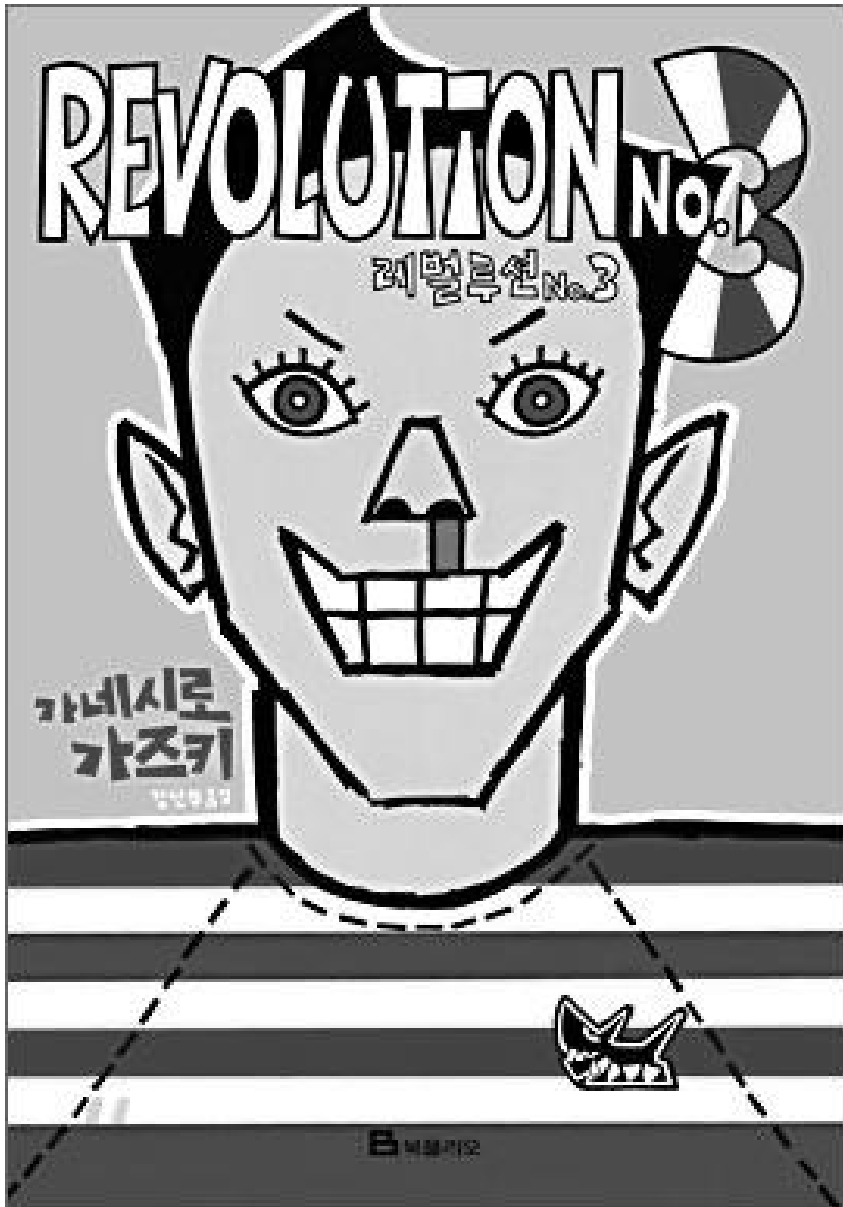
4. “오토코요님의 유희를 하고나면 거리가 환해져. 하지만 오래는 못가지. 그렇기에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돼. 아아, 다들 거리를 밝히기 위해 거대한 탐의 건전지가 됐군요. 그렇다면 이 거리를 밝히는 빛(光)은 무엇을 뜻할까요?”

5.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전부 여기, 여기 붙었다. 남은 건 너 뿐이야. 이제 네가 솔래야.” 당신이라면 오시라로부터 새로운 오시라가 될 것을 제안 받았을 때 어떻게 할래요? 아니면 귀신-되기를 거부하고 인간 건전지가 될래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처음부터 당신은 다른 아이들을 유혹하는 여우귀신은 아니었나요?”



2. 그곳에 좀비들이 산다

좀비들이여, 학교를 혁명하라



이교도들의 춤

지금부터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얘기다.

어떤 왕국의 조그만 마을에 한 남자가 홀러들었다. 남자는 그 마을이 마을에 들어 조그만 집을 사들여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려 하지 않았다. 남자의 생김새며 사용하는 말이 마을 사람들과 전혀 달랐고, 더구나 남자가 마을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남자가 무서워 멀리 했다.

남자가 마을에 살기 시작하고서 스무 번째로 맞는 일요일, 마을 사람들이 기도를 끝내고 교회에서 나오자 교회 앞 광장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마을 사람들을 소리 없이 바라본 후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몹시 놀랐지만 남자의 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두 팔을 짝 벌리고 춤추는 남자의 모습이 마치 드넓은 하늘로 자유로이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았다. 두 발로 대지를 차며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은 마치 바다 속을 우아하게 헤엄치는 돌고래 같았다. 남자의 몸은 마치 중력에서 해방된 것처럼 자유롭고 압도적이었다. 남자가 춤을 끝낼 때, 광장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성을 그에게 보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을 사람들은 남자를 받아들였다.

남자에 관한 소문은 어느 틈엔가 먼 마을까지 퍼지고, 그 춤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사는 마을로 몰려들었다. 남자는 변함없이 그저 묵묵히 춤을 추었다. 남자가 45번째 일요일을 맞았을 때 질투심 많은 왕의 귀에도 그 소문이 홀러들어갔다. 왕은 부하에게 명령했다.

“이교도의 두 다리를 절단하라.”

부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 남자의 두 다리를 잘랐다. 마을 사람들은 남자의 춤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비탄에 젖었다. 그러나 70번째 일요일을 맞았을 때, 두 다리를 잃은 남자는 다시 광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달려라; 날아라; 춤춰라

위의 글은 재일교포 3세인 일본 작가 가네시로 가즈키의 소설 <레벌루션 No.3>의 일부본이다. 두 다리를 잃은 남자가 어떻게 되었을 지에 대한 궁금증은 잠시 접어두고, 우선 이 소설의 내용을 잠깐 훑어보자.

『레벌루션 No.3』의 배경은 일류 고등학교 사이에 섬처럼 존재하는 삼류학교이다. 한국의 강남 8학군처럼 일본 시부야에도 명문고들이 모여 있다. 한국에 SKY가 있다면 일본에는 도쿄, 와세다, 게이오 대학이 있다. 물론 일본이나 한국이나 ‘평균 학력이 뇌사 판정에 버금가는 혈압 수준밖에 안 된다는’ 그런 학교가 존재한다. 학력 사회이기에 그런 녀석들이 ‘살아있는 시체’ 취급을 받는다는 점도 흡사하다. 그런 학교에 다니는 녀석들은 ‘죽어도 죽을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거칠어 보인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 소설에 나오는 녀석들은 그런 의미로 주변으로부터 ‘좀비’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 학교 친구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불리는 게 그리 싫은 건 아닌가 보다. 이 소설은 스스로를 ‘더 좀비스’라고 칭하는 이 학교 몇몇 친구들의 이야기다.

더 좀비스의 첫 번째 모험은 ‘닥터 모로’라 불리는 괴짜 생물선생이 더 좀비스 멤버들을 자극하면서 시작된다. 닥터 모로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진다.

“너희들, 세상을 바꿔보고 싶지 않나?”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놈들이라 그랬는지 더 좀비스는 이 말에 움찔 반응을 한다. 멤버 중에 한 사람, 작가와 같은 재일

교포로 설정된 순신이 되묻는다.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닥터 모로는 교과서를 덮고 좀비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질문을 던진다.

“그 전에, 너희들은 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좀비들의 야유를 뚫고 닥터 모로는 역설한다. 너희들이 공부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공부 잘하는 여자의 유전자를 획득해야 한다고... 이 바보 같은 말에 넘어간 좀비들은 한국의 경기여고 쯤 될 듯한 세이와외고 축제에 침입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1학년부터 3년간 세이와외고 축제에 잠입하는 모험담이 소설의 첫 번째 에피소드이자 전체 소설의 제목과 같은 제목을 달고 있는 <레벌루션 No.3>이다. 그런데 잠깐, 혹 이 소설의 주인공들, 미나가타와 히로시, 순신과 가야노 같은 핵심인물을 포함한 더 좀비스가 아무리 아메바 같은 단순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유전자 혁명이 가능하다고 믿었을까? 도대체 작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쓴 것일까?

앞서 말했지만 이 소설의 작가는 재일교포 3세이다. 이 문장을 읽고 다음의 두 가지 중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면 당신은 제법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자랑스럽네.’

‘뭐야? 한국인인데 왜 일본 이름을 써?’

많이 다른 느낌인 두 문장이지만 결국 출발점은 같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네시로 가즈키가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면, 위의 두 문장의 출발점이 되는 그 생각을 일본 사람들 역시 품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가네시로상은 이런 말을 했다. “노 소이 코레야노, 니 소이 하포네스 조 소이 데사라이가도.”(나는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아닌 떠다니는 일개 부초다.)

물론 그는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했다. 1968년 도쿄 근처의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난 가네시로 가즈키는 초총련계 민족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조선학교는 적성에 맞지 않았다. 가네시로는 공부보다 영화와 소설 읽기에 더 열중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에거사 크리스티의 소설과 김전일의 할아버지가 나오는 <옥문도>와 어두운 하드보일드 소설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란 영화를 보고는, 주인공 같은 아웃사이더가 되겠다고도 생각했다. 그런 학생을 부르는 이름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 같다. 그래. ‘불량학생’이다. 중학교 때 마작, 파친코, 담배, 술 등을 배웠고, 지각 120일에 결석 60일을 기록했고, 흥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려다 체포되기도 했다. 자칫하면 야쿠자의 길로 달려갔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매국노란 말까지 들으며 국적을 바꾸고 일본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이지메도 충분히 경험했다. 철학과 사상서를 읽고, 순수문학에도 빠져들었지만 그건 책일 뿐이다. 소설 속 순신의 캐릭터처럼, 재일동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과 무를 겸비해야만 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지만, 한국 역시 그의 나라는 아니었다. 또 다른 소설 <Go>에 등장하는 정일의 외침처럼, ‘우리는 나라란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간 백수생활을 하며 책을 읽다가, 수험 준비를 하여 1989년 게이오대학 법대에 진학한다. 죽마고우였던 친구가 히로시처럼 죽은 뒤 다시 방황에 빠져들었던 가네시로는 93년 대학 졸업과 함께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다. 1998년 <레벌루션 No.3>가 소설현대 신인상을 수상하고, 2000년 <GO>가 나오키상을 수상한다.

일본에는 많은 한국인 작가들이 있다. 김사량, 이희성, 이양지, 양석일, 유미리 등등... 대부분의 한국계 작가들은 한국인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수난과 고통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려낸다. 가네시로 가즈키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가네시로 가즈키의 작품은 가볍고 명쾌하며 재미있다는 것이다.



가네시로 가즈키 원작의 영화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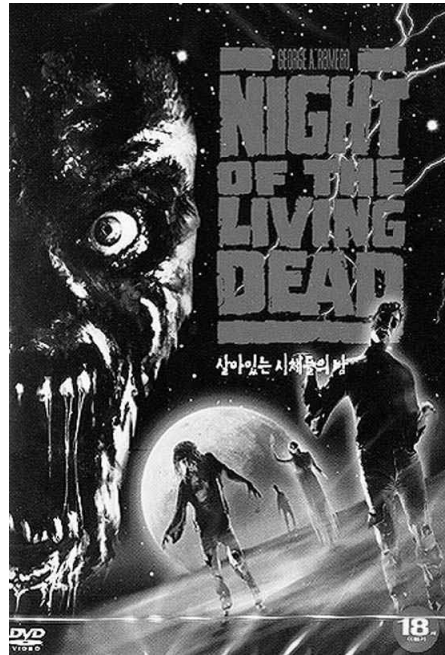
“모두들, 뛰어, 뛰어, 뛰어.” (<레벌루션 No.3—런, 보이ς, 런>)

“아저씨, 날아요, 날아.” (<플라이, 대디, 플라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춤추는 거야” (<레벌루션 No.3—이교도들의 춤>)

소수자가 받는 고통에 대해 다른 작가들이 풀어내는 방식이 지나치게 진지하다면 가네시로 가즈키의 방식은 단순하다. 고통의 근원을 찾아 심각하게 고민하고 슬픔에 젖어두고... 그런 과정을 고루한 문체로 풀어내는 것, 그런 건 질색이다. 소수자로 살면 고통을 즐기는 변태가 되는가? 고통은 벗어나면 되는 것, 그렇다면 “놈들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면 된다. 초등학교 1학년생들의 달리기 시합처럼 계속 달리면 된다.” 만약 숨이 차서 쓰러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몇몇 클쟁이들처럼 많이 배울 수 없는 소수자들이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진정한 소수자라면 <레벌루션 No.3>의 주인공 미나가타처럼 더 좀비스의 일이라면 무턱대고 달려드는 단순무식한 아메바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늑대가 좀비인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다. 1968년 조지 로메로가 만든 저예산 영화로 좀비 영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 뒤로도 수많은 리메이크 작품이 탄생할 정도로 이 영화의 영향력은 크다. 내용은 간단하다. 한적한 오두막에 갇힌 사람들이 좀비들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해 엄청 고생한다는 이야기다.

평론가들은 이 영화에 대해 고전적인 공포 영화의 관습을 뒤바꿔 놓았다고 평한다. 쉽게 말하면 예전의 공포 영화는 이상한 것들이 등장해 정상인을 공포로 몰아갔다. (드라큘라나 프랑켄슈타인 같은 공포 영화를 떠올려 보라.) 그러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정상인들이 이상한 것들을 공포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좀비가 정상인이란 말인가?

당연하다. 평론가님들의 말을 따르면 이 영화에서 사람들을 뜯어먹는 좀비는 자본주의에 세뇌되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할 소비대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대중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좀비는 대다수의 사람을 포괄하며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정상인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좀비에게 쫓겼던 사람들은? 그 중에는 백인 중산층도 끼어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척 이기적인 사람들로 그려졌다. 그걸 두고 평론가들은 또 좀비들보다 더 사악하고 교활하며 위협적인 지배자들이라고 표현했다. 주인공인 벤과 바바라는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였다. 흑인과 여자가 미국 사회의 표준은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아도 살아있는 시체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반복적인 삶을 사는 한국의 학생들은 인간에 가까울까 좀비에 가까울까? 회사원들은 또 어떨까? 쓸 데 없는 욕망만 가득한 빈 몸뚱아리들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

다시 <레벨루션 No.3>로 돌아가보자. 분명 미나가타와 친구들을 좀비라고 처음 불렀던 건 신주쿠의 명문고들이다. 더 좀비스가 좀비다운 지 어떤 지는 우선 따지지 않더라도 그들 스스로를 좀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씨름 열심히 해서 개그맨이 되겠다” 복잡하지만 바보 같은 논리를 가진 명문고생들에 비해 단순하지만 자유로운 더 좀비스의 멤버들이 훨씬 인간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소설에서 좀비는 역설이다.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을 의미 없는 공부와 의미 없는 돈벌이와 의미 없는 소비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학력 사회의 목적이라면 그 사회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사회’가 아닐까? 그것이 인간 대접을 받는 길이라면 차라리 좀비로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가끔 인간들을 물어뜯으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정의롭지 않을까?

과연 누가 좀비일까?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출중’하는 거야

가네시로 가즈키가 더 좀비스 멤버들에게 붙인 이름들 중에는 역사적 인물에서 따온 것들이 많다고 한다. 필리핀 어머니와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본명 아기날드는 필리핀의 항일운동 인물, 하야시는 오키나와의 옛 류큐 왕조의 정치인, 박순신은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이순신에서 따온 이름이다. 모두 항일운동이나 반일운동을 한 영웅이지만 나중에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다. (잘 알겠지만 이순신도 투옥당한 적이 있다.) 특히 순신은 “괴로워하던 어린 시절 이런 친구가 있었음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의 이상형이라고 한다.

물론 <레벨루션 No.3>에 나오는 친구들이 역사적 영웅들처럼 거창하게 자신의 이상을 실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춤을 추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들 역시 영웅적이다.

물론 더 좀비스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 작가의 판타지일 수밖에 없다. 3류 학교에 다니는 좀비들 중에 그들처럼 매력적인 캐릭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더 좀비스처럼 정의롭지도 못하고 세상에 맞서지도 않는다. 오히려 공부로 철저히 우열을 가리는 명문고의 학생들처럼 그들은 주먹이나 허세나 외모나 비열함으로 우열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아마 일본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실에서 좀비들의 거친 입담이나 행동은 자생적인 하위문화로 존재한다. 그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 지도 모르며 싸우는 척하는 지식인들이 입으로 뜨르르하게 떠벌리는 복잡한 이론을 이해하기엔... 너무 공부를 못한다. 작가는 싸움—삶이 의미하는 것을 히로시의 입을 통해 친절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들려준다.

“남자가 마을에서 맞는 70번째 일요일, 두 다리를 잃은 남자는 다시 광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은 채 두 팔과 두 손과 양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춤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 이번에는 왕의 부하가 두 팔을 썩썩 잘라버리고 말았어. 그런데도 130번째 일요일, 남자는 목을 교묘하게 움직이면서 목으로 춤을 춘 거야. 그리고 끝내 왕의 부하가 남자의 목까지 쳐버리고 말았는데, 땅으로 구르는 남자의 목을 본 마을 사람들, 놀라서 비명을 질렀지. 남자가 리듬을 바꿔가

면서 눈꺼풀을 감았다 떴다 눈으로 춤을 췄던 거야. 하지만 그 춤은 오래 가지 못했지. 그리고 남자는 두 눈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갔어. 남자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지만, 남자의 춤은 마을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그 후에도 오래오래 이어져 내려갔대.”

앞에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에피소드, <이교도들의 춤>에 나오는 것이다. 흑인 혼혈이었던 히로시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던 미해병 중사 리틀이 들려주었던 이 이야기는 가네시로 가즈키의 저항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목이 잘려도 끝까지 춤추는 것, 그것이 저항이다. 하지만 그 저항의 결과가 죽음이나 실패라면? 그걸 묻는 것은 마치…

“... 훌륭한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담고 있는 액자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달리고 달려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얽매는 곳이라면, 달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춤추는 거야.”



1. 가네시로 가즈키의 대부분의 소설들에는 기성세대와 사회에 맨몸으로 부딪히는 소녀와 소년들이 등장합니다. <레벌루션 No. 3>의 마지막 에피소드, <이교도들의 춤>은 면접 했던 여자를 스토킹하는 대기업 인사부장을 추적하는 더 줌비스의 모험담입니다. 시바타리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는 더 줌비스에게 달미를 잡고 이런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인사부장이야. 나 같은 일류 기업의 고위 관리직은 사회의 묵묵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 내정을 거부하던 어땡든, 일단 한번 내정된 이상 그 인물에 대해서 나름의 감시와 교정을 책임질 의무가 있지. 너희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테지만, 회사란 군대 같은 곳이야. 한 사람이 규율을 어기면 군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어. 나는 군의 상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부하의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역시 마찬가지야. 모두가 엄격한 규율 아래 발을 맞춰 나가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처럼 선택받은 사람이 규율을 어기거나 발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감시와 교정을 책임지는 거지. 알겠나?”

“너희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테지?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건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야. 난 엘리트 라구. 그러니까 이 미친 사회를 정화해야 해. 남자들을 별 거부감 없이 방으로 끌어들이는 요시무라 교코 같은 음부는 죄를 받아 마땅하다구. 본보기로 말이야.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문란한지 보라구. 나이 어린 소녀들이 아무 저항감 없이 몸을 팔고 있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더욱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이 나라 전체에 우글거리는 불량 외국인 떼거리도 어떻게 해야겠지. 놈들 역시 사회를 어지럽히는 원인 중의 하나야. 놈들을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내몰아야 해. 어때? 나하고 같이 도덕과 윤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지 않겠나?”

이런 스토커의 퀘변에도 더 줌비스는 삼류 일간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언어가 모자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시바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줌비스가 출현하는 또다른 소설, <Speed>는 여고생 가나코가 선망하던 대학생 가정교사 아야코가 자살한 비밀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더 줌비스의 도움으로 아야코의 자살이 대학축제를 통해 부와 명예를 얻으려던 아야코의 남자 친구 나카가와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가나코는 그만 나카가와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가나코에게 나카가와와는 이런 말들을 던집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강한 인간과 약한 인간의 격차가 점점 커질 거야. 그계 역사의 필연이니까.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경쟁원리로 성립하고,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갖지 못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가나코 짱은 자기 학교보다 성적이 안 좋은 학교 애들을 보면 우월감 안 느껴?”

“가나코 짱도 우리 쪽 사람일 텐데. 경쟁사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우리가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저쪽 놈들에게 발목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도록 사회를 올바르게 고쳐놓아야 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여러분이 가나코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혹 나카가와와의 논리에 혹하지는 않았나요?

어른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혼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 혼계를 암전히 듣고만 있는 쪽 아니었나요? 그 논리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따져볼 생각도 안하고 산 것은 아닌가요?

아래에는 엄마와 아빠가 공동적으로 하는 잔소리를 모아서 네이불 ‘봄베’에 오른 글입니다. 이런 잔소리를 어른들이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춘철살인의 한 마디, 부탁해요^^

- ①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 ② 내가 널 언제까지 챙겨주니? 이젠 니가 알아서 해야지
- ③ (컴퓨터나 만화에 열중할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였으면 소원이 없겠다.
- ④ (동생이랑 싸울 때) 다 큰 놈이 동생이랑 싸워? & 큰 놈이랑 작은 놈이랑 하는 것이 똑 같네, 똑 같아...

⑤ (시험 점수 조금 올랐을 때) (꼴등이나 30등이나) 그게 그거지!

⑥ 니 인생 알아서 해.

⑦ 남들은 방학 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넌 도대체 뭐하니 컴퓨터만 붙잡고 있냐?

※ 기타 의견들 : “공부해서 남 주냐?” “누가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래?” “다 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옆집 팽이 반만큼이라도 해라.” “다 큰 놈이 지 방도 하나 못 치우고...” “그 동안 밥 먹은 거 옷 입은 거 다 계산해서 줘.”

2. “너희들, 공부 잘하는 인간들의 세계에 산다손 치더라도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유전자 전략으로 고학력자들이 떼지어 형성하고 있는 답답한 계급사회에 바람구멍을 뚫어야 한다.”

닥터 모로의 말입니다. 닥터 모로의 말에 자극 받은 더 줌비스는 결국 유전자 혁명을 위해 세이와여고로 잠입하는 작전을 짜고 결국 47명 중에 36명이 짝짓기에 성공해 28조의 커플이 성립되는 쾌거를 올립니다. 그러나 그걸로 정말 계급사회에 충분히 바람이 통하는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의 유쾌한 상상을 더합시다. 계급사회를 재생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학교에 바람구멍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럴듯한 의견이 나오면 방학 끝나고 학교에 직접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3. The 인권극장 I

잔혹극으로 고찰한 세상



(3류만화페밀리(3ryu Cartoon Family)에서 펴. xacdo.net/3cf에서 보실 수 있어요)

당신은 제정신입니까?

“좋아! 새벽 5시 등교! 새벽 4시 귀가!”라고 선언했다가 “미친 자식!” 소리를 듣고 죽은 보노보노 교장.

보노보노 교장은 왜 미쳤을까요? 누가 보노보노 교장을 미치게 한 걸까요?

2006년 8월, 대구에서 방학 중 보충수업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200여 대를 때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구시교육청은 200대나 때리거나 하는 교사는 제정신일 리가 없다며 교사들의 “정신감정”을 통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걸러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사는 왜 미쳤을까요? 누가 그 교사를 미치게 한 걸까요?

전국의 수십 대 수백 대씩 때리는 그 술한 부모, 교사, 학원강사는 죄다 미친 걸까요. 밤 1시까지 ‘야타’를 시키는 교장들은 다 미친 걸까요. 보노보노 교장처럼 “미친 자식!” 소릴 듣고 밧혀야 할까요.

과연 200대를 체벌한 교사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보노보노 교장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서 그런 걸까요? 잠깐, 그런데 그럼 대구시교육청은 제정신일까요?

당신은 제정신입니까?

보노보노 교장이 처음부터 “새벽 5시 등교! 새벽 4시 귀가!”를 외치진 않았지요. 200대 때린 교사도 처음 교사 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애들을 200대씩 때리면서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권력자인 거 같은 교사들도 교감, 교장 등쌀에 살기 팍팍한 건 마찬가지래요. 학부모들도 역시 살기 좋은 건 아니구요. 교육청에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도 모두가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핑계거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청소년이 당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봐요.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 야자 학원, 미친 거 아니?” “가위 들고 다니는 저 선생 미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두의 핑계거리들을 상상해봐요. 인권극장으로 우리 자신이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인원극장

따라라단 다단 다단 다단 따라라단 다단 다단 다단~

인간극장을 보면 카메라가 주인공이 다니는 곳마다 줄줄 쫓아다니면서 그 삶을 영상에 담죠. 우리도 한 번 우리들 삶에 있을 법한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들을 놓고 해봅시다. 단, 가난한 우리의 도구는 카메라가 아니라 상상력과 우리의 몸! ^^

→ 이젠 내가 찍!

청소년들이 당하는 인권침해 상황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모둠에서 주제를 짚해주세요. 인기가 많은 주제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얼른 얼른 짚하셔야 해요. ㅋㅋ 주제에 대한 참고 자료들은 다음 페이지에~ 참고 자료들은 실제 있던 일을 기반으로 조금 재구성하거나 첨부를 한 거예요 ^^

→ 카드를 뽑겠다!

카드몽치 속에는 인물들이 들어있어요. 인물의 성격부터 공격력, 방어력 등의 상황을 고민해보며 이야기를 짜보세요. 하나하나 다 짜서 대본대로 외울 요. 대충 짜놓고 그냥 그 상황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애드립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꼭 모든 인물들이 등장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도 되지만 인물들을 기초로~ 참고로 실려있는 것들을 한 번 읽어보면 좋아요!



까지!(?) 인물
필요는 없어
죠. 인생 별
일단 주어진

→ 병의합체!

그럼 이제 직접 그 인물이 되어볼 시간. 내 몸에 억울하게 죽은 교사의 어설퍼도 괜찮아요. 우린 어차피 다 어설픈 인생들! 다만 진지하고 즐겁 각자 상황극을 발표해보요. 적절한 유머와 위트는 옵션~ 상황극 하나를 발표 거기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요.



혼이... (픽!)
게 연습해서
할 때마다

→ 저희가 먼저 망가지겠습니다 ^^

하기 뽀뽀하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주최측에서 먼저 망가지볼게요. ㅋ

[조례] 교사1 : 월요일부터 야자하는 거 알지? 동의서에 다 동글뱅이 쳐서 부모님 사인에다가는 니네가 그냥 써서 오늘 종례 때까지 내라. 학원 가는 사람들은 따로 표시하고.

청소년2(반장) : 차렷, 경례.

[종례] 교사1 : 우리 반은 학원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군. 응? 27번. 넌 뭐야. 왜 가는 학원도 안 써놓고 동의서에 X 친 거냐?

청소년1 : 인터넷에서 봤는데 야자 강제로 다 하게 하는 거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학원도 안 다니고 야자도 하기 싫어서요... 잠도 많고... 학교에선 공부도 잘 안 되구요...

교사1 : 뭐? 불법은 무슨, 웃기고 있네. 임마, 그럼 부모님 불러와. 야자를 안 하는 거에 니네 부모님도 다 동의를 하시면 내가 빼줄 수도 있어. 내일 오시라고 해.

청소년1 : 아뇨... 그냥 할게요...

교사1 : 그래, 대학 갈 때까지 2년만 더 참아, 2년만! 반장,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애들 야자하는 거 전부 다 출결 체크하도록, 학원 가는 사람들은 미리 표시해두고, 자 그럼 종례 끝내도록.

청소년2 : 차렷, 경례.

[교무회의] 교장 : 이번에 야자하는 학생들 수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괜찮은 건가?

교사1 : 학원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서...

교장 : 작년에 학부모들이 하도 성화해서 학원 가는 야자는 빼주기로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빠. 야자 시간에 특강 형태로 보충수업 편성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던데 우리 그런 거 못하나? 아니 그런데 왜 윤 선생은 다른 반보다 그렇게 적어? 그렇게 학원을 많이 가?

교사2 :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만 내라고 했더니 이렇게...

교장 : 뭐? 아니 윤 선생, 내가 얼마나 학부모들한테 애들 관리가 안 된다고 항의 전화를 많이 받는 줄 알아? 전에 보니까 윤 선생 반 애들이 머리로 제일 지저분하던데, 똑바로 좀 하세요.

교사2 : 교장 선생님, 그래도 야자를 강제로 하는 건 분명히 안 된다고 교육청 지침도 나와 있고... 애들을 대학 갈 공부만 하라고 시키기만 하는 게 그리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쉬엄쉬엄 해야 능률도 오르고 창의성도 생기죠. 애들도 사람이지만 공부기계가 아니잖습니까?

교장 : 허, 참. 죽어라 시켜야 애들이 대학을 가지, 대학을! 공부 안 시켰다가 대학 잘 못 가면, 애들 인생을 책임질 거야? 야자 안 하는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사고라도 치면 교육청이랑 언론이 또 난리를 칠 텐데 윤 선생이 책임질 수 있어? 군말 말고 당장 20명 이상으로 늘려와. 쫓쫓.

[하교길] 청소년1 : 땀땀이랑 야자나 확 까고 싶네. 내가 싫다는데 왜 부모를 데리고 오라니.

청소년2 : 그래도 야자하는 게 낫지. 야담(야자담당교사) 눈치만 잘 보면 잠도 자고 만화책도 보고... 난 맨날 학원에 짱박혀 있잖아. 한눈 팔 틈도 없어. 땀땀이 치면 집으로 전화 직통이야.

청소년1 : 난 학원 다니냐? 울 엄마도 맨날 집에 돈이 없으니까 학원도 못 보내고 과외도 못하니까 야자나 열심히 하라던데, 아니 야자도 안 하고 학원도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니?

청소년2 : 말이 되는 소릴 해라 쫓쫓.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야자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면, 어휴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대학 가는 게 불안해서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청소년1 : 왜 말이 안 돼? 그럼 되잖아. 다 같이 학원도 안 다니고 야자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냐?

청소년2 : 어? 그런가? 흠...

M.I.B. : (갑자기 나타나서) 거기 꼼짝 마라!

청소년1 : 앗 깜짝이야. 누구세요?

M.I.B. : 이 몸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사회의 변화를 막기 위해 지금 체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거짓과 망각의 네온사인을 뿌리고 다니는~ 스미스 요원. 헤이 미스터 앤더슨, 그런 위험한 이야기는 길거리에서 함부로 나누면 안 돼. 국가발전을 위해 기업의 인재가 되시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불온한 이야기는 교칙과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서울대 마크를 흔들며) 미스터 앤더슨, 너는 방금 나눈 대화를 모두 잊어버리는 거다. 입시천국 불신지옥! 순응하는 청소년들에게만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레드 썸! (청소년들 쓰러지고, MIB 갑자기 사라진다.)

청소년2 : (일어나면서) 어? 왜 바닥에 이려고 있지? 어머, 학원 시간 늦겠다. 내일 학교에서 봐!

청소년1 : 그래 널 봐. 근데 무슨 얘길 하고 있었지?? 에이, 나도 가게 일 도우러 가야겠다...

오리걸음 체벌받다 숨진 이모 씨

부산 B중학교. 여름방학을 코 앞에 둔 어느 날 윤모 한문 교사는 계속 떨어지는 한문 실력에 한숨만 쉬다가 공여지책으로 기말고사 전 수업시간에 1학년 학생들에게 "한문 시험 40점 밑은 운동장에서 오리걸음을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그리 체벌을 많이 해오진 않던 윤 교사. 가벼운 마음으로, 비도 오고 하니까 운동장 대신 복도에서 오리걸음을 하라고 해놓고, 밀린 시험 성적 입력과 여름방학 관련 결재받을 서류들을 정리하러 교무실에 가 있었다.

한문 기말고사에서 26점을 받은 이모 씨는 가벼운 감기기운이 있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긴 했지만 그리 심하진 않아서 이모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리걸음을 받았다. 그러나 이모 씨는 복도에서 오리걸음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코에서 물 같은 액체가 흘러 나오며 의식을 잃었다.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갔으나 끝내 죽고 말았다. 이 소리를 듣고 윤 교사는 충격을 받아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갔다. 윤 교사는 장례식장서 울며 사과하다가 또 정신을 잃었다.

이 씨의 부모님과 누나는 "아침에 멀쩡히 인사하고 학교 간 애가 왜 저기 저렇게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며 통곡을 하고 있다. 이 씨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과외도 하지 않고 학원도 가지 않았지만, 자식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걱정하고 잔소리를 해왔다고 한다. 이 씨의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이 세상에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며, 어떤 체벌이던 간에 모든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담당 경찰은 "교사가 고의적인 의도에서 학생을 별주거나 체벌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 할 때 병력이 있는 학생을 분류해야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교육청 차원에서 몸이 좋지 않은 학생을 체벌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교사들의 말말말

200대 체벌 사건과 이번 오리걸음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과잉 체벌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사랑의 매 전달식" 등을 하며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나섰다. 교육청은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교육 현장에서 적절한 체벌은 없기 어렵다. 다만 '적절'의 기준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구의 한 교감(58)은 "일선 학교에선 심지어 학생이 여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지만 마땅히 지도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학교 봉사활동이나 반성문 쓰기를 시키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했다. 3학년 학생부장(49)은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적인 요즘 학생들을 제도권 교육의 틀에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행여 젊은 교사들이 열의를 갖고 학생들을 벌 주거나 생활지도를 시도하면 오히려 다른 교사들이 말리는 형편"이라고 했다. 내 자식만 귀하다는 부모들의 잘못된 관심이 인성 교육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휴대전화 동영상이나 카메라로 체벌 장면을 찍은 뒤 인터넷에 유포하는 통에 아예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았다. 일부 교사들은 "어떤 학부모들은 학원 강사에게는 '모질게 대하라. 체벌해서라도 잘 가르

쳐달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학교에서 교사가 손을 대면 입장이 달라진다."고 한탄했다.

체벌 논란에 대해 전교조 학생생활국의 김 교사는 "체벌은 대한민국의 싸구려 교육 때문이다."라면서, "슬프게도 대한민국의 학교는 입시라는 미끼와 체벌이라는 두 요소로 운영이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상당 전문 선생님이 있을 정도로 준비가 완벽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성적관리, 상담, 용의복장검사, 수업 등등 과도한 업무를 부족한 인력과 돈과 시간으로 힘들게 유지하고 있다. 학급담임을 맡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담임에게 책임을 묻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다. 그런 교육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효율적이고도 쉬운 체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사들의 자의적인 방법이 아닌 학생과 선생님 간의 적절한 약속으로 만든 교칙으로 학교가 운영되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고생 무리한 두발규제 경찰 신고, 교육청 진정 잇따라

서울 S중학교 학생이 경찰에 담임교사를 신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두발단속 도중 담임교사가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자 그에 대한 반발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 교사는 한 반에서만 5~6명을 강제이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교감 선생님이 '학생 전체를 통제하기 힘이 드는데 열성적으로 (통제)하는 선생님이 있는 게 학교로선 다행'이라며 '선생님 기 꺾이지 않게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에게 여러번 주의를 줬고 가정통신문을 보냈으나 지켜지지 않아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학교는 두발규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동의서 제출을 강요하기도 했다. 김모 씨(15)는 "선생님이 '동의서를 내일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전학시키겠다'고 했다"며 "말만 '동의서'지 '명령'"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도 인권단체가 S중학교의 두발단속과 체벌 등을 인천시교육청에 진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따르면, 제보를 받아 현장을 조사한 결과 S중학교의 박 교사는 수업시간에 이상십 명을 모아 놓고 가위로 머리를 잘랐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의 체벌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S중학교와 박 교사는 강제로 이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심한 체벌을 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두발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발할 것을 종용했지만 학생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하에서 머리를 자른 것이며, 너무 화가 나 목을 두 번 때린 적은 있으나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욕을 하거나 체벌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또한 S중학교 일부 학부모도 "박 교사는 업무가 많음에도 학생 지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근래 보기 드문 열성적인 교사"라며, "장기 결석 학생을 집에 찾아가 설득하여 학교에 데리고 나온 적도 있다. 학생이 잘못하고 생활 태도가 단정하지 못하면 바른 길로 선도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옹호했다.

교육청은 "박 교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진행했으며, 해당학교도 교사연수 등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수칙을 보완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주의성 공문을 학교장에게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인권단체는 20일, 교육청 장학사와 S중학교 교장 등은 박 교사에게 "생활 지도를 열성적으로 하는 교사"라고 격려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

교복 가격 거품, 신입생 교복 착용 연기...

개학을 앞두고 교복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일부

교복의 경우 한 벌에 7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교육 당국의 교복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낳고 있다"며 전국에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며, 올해 신입생에 한하여 5월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교들은 교복 착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마찰이 예상된다.

최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학부모단체들은 학생들의 교복에 수입원단 등을 사용하면서 교복가격이 폭등했다며 불매운동 돌입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한명숙 총리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청소년인권단체들은 "교복을 자유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미국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교복착용 강제가 위헌이라고 한 판례도 있다."라며 이 기회에 아예 교복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는 교복이 없어질 경우 우려되는 경제적 위화감 문제에 대해 "경제적 차이를 드러내고 문제의식을 갖게 하기보다는 은폐하려고 하는 게 교육일 수 없고, 별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복 착용이나 용의복장 지도 등은 학교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수원C고에 “핸드폰 금지 규정은 인권침해”

수원 C고등학교는 2006년 2학기 개학과 더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학생의 두발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및 공고하였다. 개정 규정은 남학생은 스포츠형, 여학생은 묶었을 때 10cm, 묶지 않으면 5cm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9.1일부터 후문을 폐쇄하고 정문으로만 등교하도록 하여 대대적 단속을 벌일 것이며 단속에 걸린 학생은 봉사활동 등의 징계 조치하겠다고 공고하여 학생들의 불안이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학생들은 2차 시위로 대응을 하고 언론에 보도요청을 하는 등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 받기위해 노력을 하던 중 교사들은 기자와 인터뷰한 학생을 찾아내겠다고며 휴대폰을 걷어가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후엔 학교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 문자기록을 엿보기조차 하였다. 1학기에도 학생들의 가방을 함부로 열어보는 등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왔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압수해 교사가 문자 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크게 읽기도 하는 등 학생들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압수해 문자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읽은 해당교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실상 경우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C고 교사들이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거하였다고 하나, 휴대폰 소지 현황 파악을 위해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내용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제77조(가방 및 휴대폰 규정)의 '교내에서는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다'는 조문은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휴대폰 규제가 심해지면서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한다는 학교의 결정이 나온가운데 2006년 C고의 핸드폰 규제 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는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캐나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반대한 학생, 징계당해

캐나다 토론토공립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 고교에서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토론토 내 한 고교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린 11명의 학생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학교에선 이중 한 학생에게 8일간 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관할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게시물이 교장을 성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등 도가 지나쳤다"며 학교측의 결정에 대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 측의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 학생의 경우 금지조치에 항의하는 폭동을 일으키자는 게시물에 대해 '폭동에는 반대하지만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답글을 달았다가 정학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토론토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학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토론토교육청의 조쉬 매트رو 교육위원은 휴대전화 금지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4월 초까지 작성, 560개 공립학교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학교측과 학생들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 퀘벡주의 한 학교에서도 지난해 11월 수업 시간에 화를 내는 교사의 모습이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후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바 있다.

"남녀 학생간 가까이 앉지 마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남녀 학생간 신체접촉 금지사항'에는 모두 10가지 행동이 명시되어 있다. ▲손을 잡는다 ▲장난으로 때리고 잡고 꼬집는다 ▲머리를 쓰다 등는다 ▲어깨동무 한다 ▲머리를 맞대고 있다 ▲몸에 손을 댄다 ▲어깨에 손을 댄다 ▲상대의 입에 과자나 음식물을 넣어 준다 ▲교실, 레슨방에서 단 둘이 있을 때 문을 잠그고 있다 ▲의자에 앉을 때 너무 가까이 앉는다 등. 학교측은 벌칙 조항에 따라 벌점이 5점(1회당 1점)이상인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 쓰레기 줍기, 잡초뽑기 등의 징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은 일부 학생과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학생은 "일류대에 많이 가기 위해서는 정숙한 학습분위기와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나친 경향이 있다"며 "이럴 바엔 왜 남녀공학을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광주 청소년인권센터 관계자는 "여학생을 보호하고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막자는 취지는 좋으나 성적(性的) 차이에 따른 지나친 금지와 규제는 교육적 역기능마저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측은 "10가지 사항은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의견과 학생인권을 감안한 조치"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사들이 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결교육은 유해하다

"스팸 메일 오면 클릭하지 말라고. 담임은 총각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고 그러고요."(중2, 남)

"난소 그런 거 보여주고 얘기 어떻게 만들어지나, 성폭력 당하면 어떻게 해라, 그런 거."(중2, 여)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졌다고도 하고, 요즘 10대들은 많이 변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교육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실제적인 정보나 소통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고 스팸 메일로부터, 성폭력으로부터 어떻게 청소년을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교육은 청소년이 '섹스'를 하지 않는 존재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건전한 이성관계를 해야 하고 섹스는 안 된다는 식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순결교육이라는 것.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이찬희 상담부장은 "성교육을 통해 개개인이 성적 주체로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순결교육은 성에 대해 알고 생각하고 깨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이다. 순결교육은 성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죄의식만 갖게 하거나 문제를 덮어버릴 뿐이다."라고 지적한다.

교사들의 의식도 문제다. 김 교사는 얼마 전 성교육을 위해 성에 대한 정보와 관점이 잘 설명돼 있는 <섹스북>을 주문해 서가에 꽂아놨다. 그런데 다른 교사가 "중학생 수준에 섹스 이야기는 못한다. 아직 그런 것을 보여줄 때가 아니다"라며 그 책을 빼내 반납했다고 한다. 김 교사는 "교사들부터가 성에 대해 보수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인터뷰] 영화 "이반검열"

2005년 현재, 대한민국 중고등학교에서 사상검열에 필적할만한 또 하나의 검열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바로 성 정체성에 관한 검열이다.

성정체성이 여타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와 부모들에 의해 강제 전학이 논의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교사들의 감시의 대상이 된, 결국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외톨이로 전락한 아이들은 처음엔 납득할 수 없는 차별과 검열에 대한 분노를 자신의 작은 팔뚝을 칼로 긁는 것으로 달랬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해로는 전혀 분노를 달랠 수 없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카메라를 들고, 또 다른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 섰다. '여성영상집단 움'의 이영 감독이 연출한 '이반검열(Lesbien censorship in school)'은 10대 레즈비언들의 날것 그대로의 분노를 표현한다.

힙합 바지를 입고 칼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이반검열의 대상이 된다. 또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아이들에게 함께 다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각서를 쓰면 놀이동산에 데려가 주겠다는 회유도 한다. 손잡으면 벌점, 머리가 짧아도 벌점, 같이 다니기만 해도 벌점….

감독은 이반검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이반검열1' 말미에 등장한 친구 중 한 명은 고등학교 시절 선도부에서 활동을 했는데 당시 교사들이 의심 가는 아이가 있으면 즉각 알리라며 '이반 아이들을 잡아와라'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또 다른 얘기로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설문지를 나눠주는데 항목에 '당신은 레즈비언인가' 이렇게 묻는 항목이 있었다고 한다. 성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을 행하는 아이들과 동급이 되거나, 더 심한 단속을 받게 되는 현실이다. 그 밖에도 동성애자임이 드러난 아이들에 대해 교사가 집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가정에 강제로 아웃팅을 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선 아이가 칼머리도 하지 않도록, 힙합 바지도 입지 못하도록, 누구랑은 전화 통화나 인터넷도 하지 못하도록, 어디서 노니까 감시를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지침을 준다.

방송에 의한 아웃팅 사례도 있다고 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여진 동성애자 청소년들의 '칼머리', '힙합바지' 모습이 규제의 기준이 돼버려서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의심을 받았다.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화면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어설픈 모자이크 처리로 아이들을 아웃팅 시켰다. 당시 TV를 통해 아웃팅 된 아이 중 한 사람은 집에서 정신병원에 보내 감금시키고, 또 다른 아이는 학교를 강제로 자퇴하게 됐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동성애자라는 일 자체에 혐오감을 느끼며 애를 학대해 결국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 치료를 받게 만들었다. 이 과정 속에서 끝내 자살을 택한 아이도 있었다고 한다. 감독은 이 아이의 얘기가 '이반검열2'의 예고편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 감독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하니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주문했다. 감독이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일화인데 한 젊은 교사가 한쪽 귀에 귀걸이를 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선생님 변태 아니냐고, 한쪽 귀에만 귀걸이 하는 건 호모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장난을 쳤다. 그런데 그 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난 동성애자 같은 변태가 아니라 애들 앞에서 평평 울었다고 한다. 성정체성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은 교사라면 게이·레즈비언을 변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라고 설명했을 것이다. 또 그 반에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해서도 저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감쌀 수 있었을 것이다. 교사가 '난 동성애자 같은 변태가 아니다'라며 울어 버렸으니 학급의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

또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과 과정 속에서 왜곡된 정보를 고착하는 기술(記述), 교육방침에 대한 바로잡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감독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임질, 매독, HIV(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전염의 주범이 동성애라

고 적혀 있었다. 나아가 반드시 영희와 순이가 아닌 철수와 영희만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무의식 중에 강요하는 교과서 내용들도 바뀌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도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게 다 : '구조' 때문이다?

대체 보노보노 교장을 미치게 한 범인은 누굴까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놈이 범인이다, 이 놈이 나쁘다, 이 놈이 책임지면 된다, 할 만한 사람이 없네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그럼 범인이 밖에 있던 말일까요?

“범인은 이 밖에도 없다!”

응? 그럼 범인이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범인은 ‘이 안’도 ‘이 밖’도 아닌 ‘이’ 자체다!”

인권침해의 문제는 개인이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일까요?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전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들은 그 사람들이 성격이 나쁘거나 비도덕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들에는, 그렇게 하게 되고 마는 이유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얽히고 얽힌 것들을 “구조”라 합니다. 보통 “사회구조”라고 하면 사회제도, 환경과 여건, 반복되는 행위들, 인간관계들 같은 거를 말해요. ‘구조’는 세상 바깥도, 세상 안도 아닌 세상 그 자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는, 단단한 것이예요. 보노보노 교장은 자신이 착하게 행동하고 자기 학교를 좋게 굴러보려고 하지만, 대학입시경쟁이라는 제도와 학부모, 학생, 교사, 학원, 학교의 ‘압박’에 내몰려서 꿈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럼 모든 게 잘 변하지 않는 구조 때문이니까 다들 아무 잘못도 없는 걸까요? “내 힘으론 어쩔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니까 별 수 없어.” 포기하고 끝나면 세상 사는 게 별로 재미없을지는 몰라도 여하간 그걸로 된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 확실히 해둬야 하는 건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 바로 그 구조에 순응하고 그 구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죠. 보노보노 교장처럼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경쟁이 오래오래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등교시간 9시! 하교시간 4시! 보충수업을 없애고 교과서를 모두 불살라버려라!”라고 외친다면, 곳곳이 그런 외침을 고수한다면 이 구조는 무너지겠죠. 이 말을 기억해둬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가 되자.”(간다)**

그런데 변화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노보노 교장보다 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방식은 없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바꿀 수 있을까요?

<불행한 소년>



불행한 소년

불행한 집에서 태어난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불행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이를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불행한 소년은 복수하고 싶어도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몽둥이로
아이들을 때려 주려 했습니다.

그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그 아이들을 때리면
그 애들은 더더욱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먼저 참고 용서하렴. 그럼 언젠가
그 아이들도 자기 잘못을 뉘우칠거야."



불행한 소년은
천사의 말이
잘 남득되지
않았지만



천사의 따뜻한
목소리 때문에
조금 행복해졌습니다.

불행한 소년은 자라서
불행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청년은 늘 참고
견디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 사람들도 제각각 괴로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이예요. 그래도 당신에겐 제가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잘 납득할 수 없었지만 청년은 사람들이 조금 불쌍하다고 느꼈습니다.



청년은 어느덧 늙고 병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보살피는 사람 하나 없이 노인을 죽여내고 있었습니다. 오직 천사만이 노인의 고통을 지냈습니다.



“천사님이 시키는대로 참로 용서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비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가치있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제가 옆에 있잖아요.”



노인은 천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서
번개처럼 하나의 깨달음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왜 이러세요?"



"네가... 네가!"



"평생동안 나를 속인 거야!!"

<http://mokwa.net/>

"착하게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네...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어렵지..."

(강풀의 「26년」에서)

만약 소년이 천사의 말대로 살지 않았다면, 몽둥이를 휘둘러야 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4. The 인권극장 II

역할극으로 고찰한 '공부해라'





'공신'의 '이름'으로

당신은 공부에 자신이 없습니까? 혹시 공부도 못하는 바보고 저들의 말로 하면 '병신'이라서 비겁하게 청소년인권학교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단지 어쭙잖은 몇 마디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병신'을 벗어버리고 공신(工神)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십시오. 공부의 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땅에 처박은 채 별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 거대한 무리 속에서 뿔뿔하게 고개를 들고 SKY를 쳐다보십시오. 한 마디로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디 그게 말처럼 쉽냐고 주절거리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는군요.

혼자서 산만하게 공부하는 만성, 시험 때만 되면 새기슴에 과민성 대장증상증후군을 보이며 늘 똥이 마렵다는 누리, 하루 종일 컴퓨터에 빠져있는 윤중, 수학 사교육에만 의지하는 영균, 타올에 길들여져 시키는 대로만 공부하는 병현... 이들은 결코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이건 내 얘기잖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자신의 공부 습관을 뜯어 고치십시오. 이랑게요.

- * 학교 선생님 말씀이 진리다.
- *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성적이 오르면 우울증도 슬럼프도 없다.
- * 남들이 노는 중학교 때 죽도록 공부해서 민족사관고, 서울대를 가다.
- * 나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엘리트다. 자신감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 * 깨어지라고 존재하는 것이 한계이다. '공부했다'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 * 시간을 다스릴 줄 알면 시간이 남는다.
- * 기초가 없으면 암기를 더 열심히 하라.
- * 자퇴는 100번 생각해도 결론은 '안하는 게 좋다'
- * <오답 승리의 희망>은 Death Note이다. 오답 노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당신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나와 당신과는 절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뿐... 설령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살아있는 시체로 거리를 헤매는 좀비가 될 것입니다. 저기 저 아치처럼 쓸쓸하게 뉘두리를 늘어놓으면서 말입니다. 하키야 저런 쓰레기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ㅋㅋ

“공부! 하고 싶을 때 한다. 그래서 안 했다. ㅠㅠ”

- 당신의 영원한 친구, '친구'로부터

'공부에' '파고든' 선비들'

20세기 학원의 '친구'가 무섭다구요? 그럼 아주 점잖게 공부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당신은 아래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에서 한없이 깊은 공부의 도(道)를 깨닫지 않을까요?

조선의 어떤 사대부보다 공부에 가장 깊게 파고든 퇴계 이황... 공부를 통해 스스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마음속의 욕망을 마음대로 다스려낸 이. 이런 공부의 방법을 '경(敬)'이라고 하는데 그럼 경이란 무엇이뇨? 바로 바른

자세로 똑바로 앉는 것이 요체래요. 새벽잠에서 깨어나 다시 밤늦게 잠이 들 때까지 허리를 꼴뚜기 펴고 하루 종일 정좌한 채 앉아 일상의 세계에 머물며 또랑또랑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다리가 저리다고 경망스럽게 몸을 비틀거나 피곤하다고 슬쩍 드러 놓거나 하면 공부의 반칙을 하는 것이구요. 이황은 이렇게 도를 닦듯이 공부를 하여서 티끌만큼의 욕망도 없는 맑고 깨끗한 도덕세계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요. 한 마디로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른 것이지요. 특히면 침대에 뒹굴뒹굴 드러누워 성인(成人) 영화나 보는 당신에게는 결코 쉽지 않는 공부법이겠지만 말이에요.

‘목이 뻗뻗한 선비’로 유명한 남명 조식은 세상과 한 발짝 떨어져 살았지만, 늘 세상을 향한 고민은 거두지 않았어요. 그는 학문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는 마음공부를 위해 커다란 대접에 깨끗한 물을 가득 담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밤새도록 엎드리지 않고 들고 있고는 했대요.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고행을 참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테니까요. 아무리 손이 후들거려도, 심지어 똥이 마려워도 꼭 잡고 대접을 들고 덜덜 떨며 서 있는 조식... 이런 그의 가르침 아래서 수많은 의병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겠지요. ‘두 손 들고 무릎 꿇어’를 시키면 10분 안 돼서 칭얼거리는 당신! 당신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 이제 알겠지요?

‘세상과 불화한’ 허균은 당시 성리학이 내세우는 관념덩어리로서의 인간을 거부하고 감성과 미학의 상상력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간을 꿈꿨어요. 그에게는 형식에 빠진 예교 세계를 비웃으며 모든 도덕규범과 준칙을 거부하는 자유정신이 스며있었으니까요. “남녀의 정욕은 천성이고 남녀를 분별하는 윤리는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늘은 성인보다 높으니 성인을 어길지언정 감히 하늘이 내려주신 본성을 어길 수 없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구요.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순암 안정복은 “공부의 공(工)자는 여공(女工)의 공자와 같고, 부(夫)는 농부(農夫)의 부자와 같다.”며 “사람이 학문을 하되, 여공이 부지런히 길쌈을 하고 농부가 농사에 힘쓰듯 해야 한다.”고 말했대요. 추상화하고 뜬 구름 잡는 듯한 성리학의 공부는 “마치 기생이 『예경』을 외우는 것과 같다.”며 생활 속의 구체적인 삶을 중시하는 공부를 강조했어요.

“이론으로서의 삶과 실천으로서의 익힘이 동시에 이뤄져야 참된 삶을 이룬다.”는 다산 정약용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가치명제와 사실명제를 구별한 아동 한자 학습서를 만들어 교육에 힘썼다고 하네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이미 어떤 가치가 들어있는 명제고, ‘사람은 죽는다.’는 가치 판단 없이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명제예요. 조선의 성리학은 당위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학문으로써 큰 결점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이 다섯 선비는 일상에 단단히 발을 딛고서 학과 도의 세계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세간(벼슬길에 오름)과 출세간(벼슬에서 물러남)의 경계에서 아주 현명한 처신을 보여줬구요. 나아갈 때가 있으면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나서기만 하고 물러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헛공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공부란 무엇인가?’

아직도 공부에 대한 감이 오지 않는다고요? 글자 그대로 파헤쳐 볼까요?

공부(工夫)

공 : 흠손, 자연을 인간의 손(노동)으로 꾸미다. 그래서 만들 공이라는 한자는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규칙적인 틀과 형식을 찾아

표현하는' 문(文)과는 조금 다르지만, 인간이 자연을 변형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뜻이다. 특히 흠손으로 예쁘장하게 다듬는다는 말에서 '꾸미다, 가리다'라는 뜻이 덧붙여진다.

부 : 사내(大)가 머리에 비녀(一)를 꽂다. 여기서 머리에 비녀를 꽂는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음을 뜻한다. 평민이 아닌 사대부나 귀족 계급은 성인이 되면 머리에 관을 쓴다.(약관)

따라서 공부라는 한자말은, 어린아이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연을 쓸모에 따라 변형하고 꾸밀 수 있게 됨으로써 거부장 사회 구성원의 지위를 얻었음을 뜻하지요. 요새 말로 하면 어른 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솔직하지 않고 꾸며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않을까요?

그게 '공부냐?' '공부냐(구)?

자연스럽게 노동을 익히고 나이가 차서 어른이 되면 공부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옛말에서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고 성인으로 대접받게 되면 공부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좋은 시절이네요. 지금처럼 뺨이 처서 대학가기 위해 지랄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손에 흠 한 번, 물 한 번 묻히지 않고도 느긋하게 살아가 수 있는 사대부 계급에게는 저 공부란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공부가 '사물의 이치를 교묘하게 꾸며서 못사람들을 홀리는 것'이라면 몰라도요.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를 뻗뻗하게 세우고 앉아서 도를 탐구했다는 퇴계 이황은 출세간(벼슬을 물러나서는)을 하고서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었을 텐데요. 수많은 노비와 소작을 치는 농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 도를 탐구했겠지요. 앉아서 천하를 주유하면서요.

몸소 앓을 실천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대접을 들고 달달 떨고 있었다는 조식은 그 따위 뺨짓거리를 할 힘이 있었다면, 차라리 발에 나가 팽이질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무슨 초딩(이 말은 초등학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고가 거의 이명박 수준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연락해서 "우리도 두발자율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코미디 발언을 했거든요.)도 아니고 웬 밤중의 체조?

또 세상과 불화했다는 허균도 조선의 끔찍한 가부장사회에 안에서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결국 조선의 불합리한 왕정 체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말지요. 차라리 허균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개새끼라고' 불렀다면, '왕의 목을 베야만 조선의 끔찍한 혈통 질서와 가부장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외쳤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이는 허균 개인에게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아니지요. 그도 봉건제라는 구조 속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안정복은 사대부 계급의 공부가 헛공부임을 평민 계급의 노동을 공부에 빗대어 잘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역시 '사람(人)'이라는 호칭을 쓰며, 여전히 신분질서의 차별을 정당화해주고 있지요. 한자에서 사람 인(人)은 오직 핏줄로 이어져가는 사대부계급과 지배계급을 가리킬 때만 쓰입니다. 지배계급이 아닌 사람들은 '민(民)'으로 불렀으니까요. 이는 결국 기생 같은 천민에게는 헛공부이기는 하지만 유학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에서 잘 드러나지요.

정약용은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공부를 한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이룬 위대한 학문은 서양 학문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예로부터 위대한 학문은 서로 다른 사상과 실천이 마주쳐서 이뤄져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정약용의 실학사상이 마치 '하늘에 뚝 떨어진 것처럼' 꾸며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정약용의 사상이 다른 학문의 조류와 마주침을 통해 꽃을 피웠다고 말하는 것이 정약용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앵겔스가 마르크스를 만난 사건, 조영래가 진태일을 만난 사건, 그리고 뉴턴이 사과를 만난 그 사건 속의 '돌이킬 수 없음'처럼, 그 만남 속에 트인 공부의 물줄기는 돌이킬 수 없이 사람들을 휘어잡아 왔으니까요. 제발 정약용을 추켜올리지 마세요. 한없이 추켜올리기만 하면 결국엔 끝없이 떨어져 내리고 말 테니까요.

이제 ‘공부 안 하면 거지된다.’고 말하는 그 영악한 인간들은 공부조차 상품으로 대하며, 학문을 비웃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 먹지요. 그래서 공부를 ‘퀴즈화’시켜 버락치기를 일삼게 만들구요. 정약용도 과거제의 폐해가 없는 일본을 한편 부러워하기도 했고, 과거를 아예 공부로 치지도 않는 편이었다는 사실을 이젠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대학의 인권을 막론하고 온통 현대판 과거시험들로 북새통이죠. 이 수험생들은 자신의 몸으로써 공부와 만나지 않아요. 자신의 삶으로써 공부를 뚫어내지 않구요. 아니, ‘만날 때라야 배운다.’지만, 이들에게는 ‘만남’ 그 자체가 송두리째 빠져 있지요. 이들은 선생도 만나지 않고 구경하며, 책도 만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훑칠 뿐이니까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공부'에 충성을 맹세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공부에 목숨을 거나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냥 공부가 좋아서?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 공부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지요.

1. 바로 전 코너에서 한 역할극이 재미있었나요? 처음이라 조금 힘들고 뻘쭙했다고요? 그럼 한 번 더 해봐요. ㅋㅋ 한 번 더 해보면 훨씬 익숙해질 테니까요.

역할극으로 고찰한 '공부해라'

* 인물의 전형성(stereo-type)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고민하세요.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주면 훨씬 인물의 성격이 분명해질 거예요.

* 왜 그런 고정된 전형성이 나타날까를 추리해 보세요.

*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세요.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잘 버무려서 완벽한 인물을 창조해 보세요.

* 역할극의 배역이 결정되고 남은 사람들은 토론회의 패널이 되어서 학부모, 청소년, 교사, 사교육 강사에게 날카롭고 신랄한 질문을 던져주세요. 준비 철저!

① 자포자기 형 학부모 : “우리 집 형편에 무슨 공부야? 네 년이 공부하면 개천에서 용이라도 나올 줄 아냐구? 병신짓거리 하지 말고 착실하게 돈 벌 생각이나 해. 그러다가 시집이나 가고.”

② 폭력 부르주아 학부모 : “내가 너 놀라고 대안학교 보낸 줄 알아. 입시 다 책임진다고 날 속여서 보낸 거지. 이 학교 새끼들 폐죽이기 전에 너부터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대안학교 안 보내주면 머리를 밀고 방에만 쳐 박혀 있겠다고? 여보! 골프채 가져와!”

③ 자애로운 부르주아 학부모 : “그래. 그냥 3년 동안 대안학교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렇게 힘들게 일반 학교 다닐

필요 없잖아. 그리고 정 안 되면 1년이나 2년 재수해서 원하는 대학 가면 되지. 정 안 되면 스위스나 이탈리아로 유학 보내줄게.”

④ 폭력 노동자 학부모 : “공부를 안 해? 이 엄마가 하루 종일 Home Ever 계산대에서 화장실 한 번 못가고 찍고 또 찍은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너 학원비 한 푼이라도 보태려고 그런 거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살면 뭐하겠어?”

⑤ 열혈 교사 : “뭐? 날 보고 끝대에 피도 미친게 해주라고? 그래도 다 좋아. 때려서라도 니들 사람 만드는 게 내 천직이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 찾아와서 큰절 올리는 녀석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그 보람으로 오늘도 미친개가 돼. 왈~~

⑥ 온정 교사 : “그래 나도 너희 마음 다 알아.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생각하고는 좀 다르더라. 너무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안 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노력해보면 어떨까? 난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⑦ 공신 청소년 : 똑같이 공부해도 왜 꼴찌가 되는 줄 알아? 공부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야. 물론 그 요령을 날로 먹을 생각은 말라구. 그런 정신 자세가 너희들을 경쟁에 뒤쳐진 쓰레기로 만들어 온 거니까.

⑧ 인권 청소년 :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왜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거나 토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난 깨달았어요. 내가 절대비밀의 숨바꼭질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어요. 물론 지금도 오시라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 싸울 뿐이에요.

⑨ 꼴찌 청소년 : 아무도 제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 갔다가 그냥 다시 집에 오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아무도 날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⑩ 사교육 강사 : 이젠 사교육도 당당히 공부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교육이야말로 음식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키워온 1등 공신이니까요. 제가 키운 SKY들이 한 둘인 줄 아세요? 그 녀석들이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겁니다.

2.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멍청이가 되는 걸까요? 공부 속에 숨겨진 절대 비밀을 파헤쳐 보세요.

① 끝으로, 사회 개선을 위한 사회 단체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직접 그것을 설립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 단체인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이나 ‘참여 연대’와 같은 단체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12세부터 환경 운동을

시작하여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된 재미 운동가 대니 서(Danny Seo, 서지윤)처럼 일찍부터 사회 개선 운동을 직접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회·정치적 참여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특히 유념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정보 매체와의 접촉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아직 학생 신분으로서 자신이 사회 운동에 직접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친구들과 힘을 합쳐 자유, 사회 정의, 인권, 환경 등과 같은 분야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 고등학교 『시민윤리』 64쪽

② 사교육은 언제부터 ‘공부의 황태자’가 되었을까요? 부모님 세대에는 사교육이란 정말 특수한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었던데요. 그런데 언제부터 왜 모든 청소년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 걸까요?

③ 잘 하는 과목 하나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는 데 굳이 수학 따위를 배워야만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만 잘 하면 공부를 잘 하는 걸까요?

5. 만만한 상상

학생인권법 & 대안학교 시나리오 워크숍



“첸장!”

선천적으로 천식을 앓고 있는 에르, 고등학교를 다니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먼지섞인 탁한 교실의 공기 속에서 10시간 이상을 매일 버티자니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에르의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는다. 기침을 자주하기 때문에 수업중 선생의 눈총을 받기 일쑤이다. 천식을 핑계로 야자에서 빼달라고 했지만 담임은 별로 천식이 뭐 그리 큰 병이냐며 핀잔을 준다. 어쨌든 시간은 지나간다. 그리고 학교의 종은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하교시간을 알린다. 그제야 학교는 학생들을 토해낸다.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자.”

야자가 끝나 집으로 가는 길에 에르는 위와 같은 낙서를 발견한다.

……현실주의자인데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다니, 말이 안되지않아. 현실주의자면 가능한 것들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냐?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콜룩!

“상상력이 권력을 창출한다!”

이어지는 낙서의 행렬. 강렬한 색채로 벽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낙서는 에르의 뇌리에서도 지워지지 않는다.

……요새, 이런 방식으로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이제는 낙서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나? 곳곳에서 돈의 냄새가 나는군. 콜룩 콜룩! 어쨌든, 상상력이 권력을 창출한다니. 어디서 주위들은 건지 어려운 말들만 늘어놓는구만. 콜룩콜룩콜룩!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대체 어디까지 낙서를 해놓은 거야? 이걸 뭐 무슨 공익광고 찍나? 꿈꾼다고 현실이 될 리가 없잖아. 같이 꿈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괴롭게 살고 있겠어? 다들 불만이 넘치는데, 머리 자르지 말라고 시험치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늘어놓는데 변하는 것이 없잖아?

에르는 낙서의 흔적이 오래되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낙서를 따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눈길을 돌리다 에르의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온다. 그는 낙서를 그리고 있었다. 이 밤중에 사탕을 담배처럼 꼬나물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그리고 있던 남자. 수업이 덜수룩하고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 것 같은 그는 미친듯이 다음 낙서를 그리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낙서들을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에르를 그윽하게 쳐다보며 말한다.

……적어봤잖소? 현실주의자이면서 이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다 먹은 사탕막대를 버리고 오렌지맛 사탕을 꼬나물며, 다음 문구를 완성한다. 검은 바탕에 빨간 글씨로

적힌 문구가 에르의 뇌리 속에 스며든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종윤 : 어때?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지 않아? 세 시간이나 고민해서 짠 거야.

술눌 : 흥미롭긴 한데... 시나리오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이 내용은 좀 비현실적이고 특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 조금 더 그럴듯하게 쓸 순 없을까? 문구들이 강렬하긴 한데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 청소년인권에 관한 시나리오라기보다는 판타지 소설을 같은 걸?

종윤 : 듣고 보니 좀 그렇긴 하네, 그런데 그 시나리오라는 게 말이야 쉽지, 조건이 많아서야 자유롭게 상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 자유로운 조건에서 상상할 수 있어야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렵다!

술눌 : ...
(종윤이 가져온 글을 유심히 본다), 아! 하지만 니가 시나리오에 써놓은 말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나가 씨넛잖아.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자.” 이게 우리가 쓰고자 하는 시나리오의 방향이랑 똑같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쓴 거야?

중윤 : 1968년에 프랑스의 벽에서 발견된 낙서라길래 멋있어 보여서 써봤지.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기도 하다는데, 누군지 가물가물 하네.

술놀 : 생각을 해봐,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쓰지는 않았겠지? 1968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중윤 :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혁명과 반전, 사랑과 평화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알고 있어. 87년의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듯이.

술놀 : 그래 그렇지! 나도 이제 좀 기억이 날 것 같아.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짓눌리고 있는 현실에 반대하며 혁명과 평화라는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상황이었겠지?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두발자유의 실현, 경쟁적인 입시의 폐지도 남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잖아. 이 경우에 “현실주의자가 되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윤 : 음... 현실을 바꾼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잖아. 나 혼자 슈퍼맨이 될 수도 없거니와, 설령 슈퍼맨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잖아.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꼭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지.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적절하게 행동해 간다면, 그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지속되고,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의미가 아닐까?



술놀 :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멋진 말인데?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문구의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한 가지 의미가 떠올랐어. 우리가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시나리오를 짜려는 이유가 뭘겠어?

중윤 : 그거로 하고 싶다면서...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 아니었어?

술놀 : 맞아. 그렇지만 단순히 많은 관심을 끌고 싶은 것만은 아니지. 관심을 끌려면 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잖아? 연예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성해도 관심은 끌 수 있어.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 인권을 둘러싼 상황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시나리오를 통해 생각해보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을 계획해보자는 것이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해. 어떻게 변해갈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가 “미래”라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중윤 :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예상해서 “현재”의 행동을 정한다? 그렇지. 나도 동의해. 그게 지금 짜려고 하는 청소년 인권 시나리오의 목적이었겠지.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하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술놀 : 음, 내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평화 시나리오 워크숍’이라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온 데다,



시간도 많지 않아서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감은 잡았거든. 그때 가져왔던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처음부터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쁘다고 떠남긴 감이 있네. 미안해. 지금부터 내가 말할 방법이 결코 최선은 아니지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될 테니 들어봐.

불가능한 꿈을 꾸자.

먼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들, 계기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시위를 예로 들 수 있겠지.

아무도 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교칙에 따르면 학생들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요구들을 외친 그 경험들을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아. 설령 시위가 실제로 끝났을 지라도, 그것을 보고,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험들은 강렬하게 남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생각해 보는 거야. 9·11테러나 이라크 전쟁 같은 일들도 예로 들 수 있겠지. 9·11 테러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

중요한 건, 자유롭게 상상하는 거야. 현실성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상상하는 거지.

불가능한 꿈을 갖자.

간단해. 다양한 힘과 계기들이 상상을 통해 나왔으면, 이제 이중에 골라보는 거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너무 확실한 것들은 제외야. 시나리오에 ‘일어날 법한’ 일들을 생각하는 거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 확실한 일들은 시나리오의 줄거리를 구성할 때 배경으로 생각해야지, 그 자체를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생각하진 말아야 해.

두 번째는, 너무 불확실한 것들을 제외하는 거지. ‘외계인의 출현’이 대표적이야. 물론 충분한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겠지.

세 번째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10년 동안 일어날 일을 상상하는 것인지, 20년 동안 일어날 일을 상상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추어서 시기 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과 계기들을 선택해야겠지. 예를 들어 ‘지구의 기후변화’는 20년~50년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5년 정도의 시나리오를 짜는데 ‘지구의 기후 변화’를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선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그럴 듯한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투표가 좋을 것 같아. 물론 그냥 토론을 통해서 정할 수도 있어. 그건 맘대로 하면 되. 그렇지만 사다리타기나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보기 좋은 결정은 아니겠지? 하나만 고르기 어렵다면 여러 가지에 투표해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해서 2~5개 정도를 선택하면 되겠지.

현실주의자가 되자

이제 시나리오의 내용을 만들어 봐야겠지. 아까 선택했던 ‘힘’, ‘계기’들을 잘 구성해서 인과관계에 맞게 이야기를 꾸미는 거야. 그럴 듯하게, 현실성 있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짜야겠지! 만약에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갈린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볼 수도 있어. 긍정적인 미래와 부정적인 미래로 나뉘볼 수도 있겠지.

신문의 형식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 함께 만들어낸 시나리오는 전 지에다가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군. 신문은 알다시피 6하 원칙에 맞아야 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거지.

신문의 헤드라인 또한 짧막하지만 분명하게, 매력적으로 꾸밀 수 있어야겠지? 시나리오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알릴 수 있는 멋진 헤드라인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뭘, 말은 멋있게 써놨는데, 간단해.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했잖아?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면 이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좋게,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지. 부정적인 시나리오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돼.

종윤 : …별로 만만한 것 같진 않군.

술놀 : 아니야, 말이 길어서 그렇지,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시나리오를 짤까?”라고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야. 까먹지 말라고 주저리주저리 정리해 놓았던 것들이니까, 이 다섯 가지만 까먹지 말고 한번 해보자.

종윤 : 그래도, ‘청소년인권’이라는 말 달랑 하나만 주고 해보라고 하면 솔직히 너무 어려운 것 같지 않아?

술놀 : 그러면 이걸 언제? 작년에 청소년인권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 알아? 곳곳에서 학생들이 서명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종윤 : “학생인권법” 말하는 거지? 두발자유랑 체벌금지,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 등을 주장하는 법 말이야.

술놀 : 응, 이 법이 통과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거 아냐? 이 법이 통과되고 잘 시행만 된다면 청소년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 될 수 있을 거야.

술놀 :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학생인권법”이 실업계, 일반계, 특수목적계, 등 모든 중고등학교 ‘내부’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면 학교의 ‘밖에서’ 변화를 꾀하는 대안교육기관들이 있지. 간디학교나 하자센터, 이우학교 같은 곳들이 그래.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제도에 속박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만들었겠지.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도 청소년 인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

술놀 :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야.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해두었지. 학생인권법이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과 의미를 갖고 있나,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등을 다루었어. 그리고 대안학교의 역사와 지금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인권법과 대안학교를 둘러싸고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자고! 에.. 이렇게 써놓고 보니 좀 기나? 복잡했다면 ㅜㅜ

종윤 : … 그래,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볼까?

6. 만만한 만남

청소년인권으로 좀 노는 애들을 만나다



청소년인권활동가?

청소년인권활동가, 혹은 운동가. 좀 더 풀어서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 뭔가 뽀대나고, 멋있고, 위대하고, 소신있어 보이는 명칭이지만, 정작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담스러워 한다.

반항끼가 넘치는 '반꼴'이거나, 매를 든 선생님 앞에 눈을 마주보고 서도 떨지 않는 용기... 입시경쟁교육 속에서 출신 대학이나 장래의 부귀영화(????) 따윈 그냥 버릴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 그도 아니면 정말 독기와 끈기와 오기가 넘치는 강인함... 좀 과장하자면 그런 것들이 연상되는 이름, 청소년인권활동가.

그러나 그들도 그냥 그랬다. 청소년기에 아파하고, 힘들어 하고, 상처 입거나 상처 입히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삶을 살고 있다. 다만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길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뿐이다.

그럼 어디, 만만한 그들을 만나봅시다. ㅋㅋ

만만한 박조의

내가 지금 청소년인권을 운동하는 이유

박조은미

초등학교 5학년 박은미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다. 슬게슬게 한없이 울었다. 일기장에 선생님 수업방식에 대해 쓴 것 뿐인데, 선생님은 일기를 종례시간에 애들 앞에서 읽으며 내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애라고 했다. 선생님의 싸늘하고 냉정한 선언에 난 너무 수치스럽고 외로웠다.

초등학교 4학년때, 수학을 분반해서 나는 하반인 옆 반으로 갔는데 우리 옆 반 선생님은 자기네 반 청소를 하반에서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즉 나와 친구들;)에게 시켰다. 자기반 청소는 자기반에서 해야지. 그건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일기를 썼다. 우리반 담임선생님이 일기를 학급신문에 실었다. 그리고 집에서 놀던 나는 학년주임 교사의 전화를 30분이나 받아야했다. 나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엄마가 통화 끝나고 물어보니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된다는 훈계였다고 한다.

“너 맞을 준비 하나?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무렵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나를 보고 한 말이다. 수업 시작할 때마다 문제를 내고 못 푸는 애들은 때렸는데 다른 애들은 번호로 가끔씩 불러내면서 나는 일부러 매일매일 불러냈다. 물론 나는 문제를 풀 일이 없다. 나중엔 분필도 잡지 않고 먼저 교탁을 잡았다. 엉덩이 한 대씩. 문제를 알았다고 해도 풀지 않았을 것 같다.

“어설피게 개가지마~ 알았어?” 중학교 3학년 때다. 교복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모양을

만들면서 놓고 있었는데 수업 중에 소지품검사 행렬이 들이닥쳤다. 나는 교복에 테잎을 붙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느꼈기 때문에 테잎을 떼지 않았다. 체육교사가 내게 오더니 애들 머리 자르는 가위로 내 머리를 투옥 투옥 건드렸다. 아~ 나 꼴받네. 교사가 내게 교복의 테이프와 길지도 않았던 머리 길이를 문제 삼으며 시비를 걸었지만 난 그가 강요하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씩었다. 내가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 그 교사는 가위로 내 머리를 쳤다. 주변에 있던 다른 교사가 그만하라고 하자 날 데리고 복도로 나갔다.

난 이대로 학생부실에 끌려가면 죽음이라는 공포에 마지못해 잘못했냐는 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교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어설픈게 개기 지마~ 알았어?”

중학교 1학년 때, 미술선생님이 눈에 띄게 편애하던 부잣집 따님이 있었다. 그 따님은 그림도 잘 그렸던것 같다. 미술 수업시간에 우드락에 뭍 붙이면 어떻게 되느니 하며 그 둘이 대화를 나누길래 난 선생님에게 “우드락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선생님은 날 흘기더니 “그림이나 그려.”

중학교 3학년 국어시간이었다. “선생님 모더니즘이 뭐예요?” 교과서에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나왔길래 질문했더니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끼어든다며 화를 냈다. 난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글쎄... 생각하자면 더 많다. 이런 일들은,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답답하고 갑갑했던 기억들은 너무나 많다. 문제라고 생각했다. 갑갑하다고 생각했다. 학교는 나의 신체 뿐 아니라 자유와 행복마저도 구속했다. 중학교 2학년때 부터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책상을 안보이는 곳에 숨겨놓고 학교를 일찍 나왔다. 등교시간엔 학교 주변에 숨어 있다가 선도부가 들어갈 무렵 교문으로 들어가거나 담을 넘어 들어갔다. 늘어가는 건 날 짝은 교사들의 부당한 대우, 엉덩이의 명이었다.

너무 갑갑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를 대안학교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내게 좋은 말은 해줄게 없다는 선생님에게서 추천서까지 거부당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시험을 봤지만 떨어졌다. 이젠 내게 절망밖에 없었다. 3년간 죽겠다는 마음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지만 하루하루가 괴로울 뿐이었다. 그러다가 9월쯤 정말 재수 좋게도 간디 학교에 전학가게 됐다.

간디학교에 갔을 때 담임이라고 소개받은 선생님이 나를 꼬옥 안아줬다. 난 어리둥절했

다. 선생님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는 존재였나? 간디학교에서 1년, 2년을 보내며 나는 중학교때 내가 느꼈던 억울함, 갑갑함을 이해해가기 시작했다. 내게 인권이 있었고 학교는 그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아 왔다는 것, 나의 창발성과 자유를 무섭게 억압 해왔다는 것.

처음에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는 많이 울었던 것 같다. 후회와 분노였다. 만약 내가 먼저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알았다면, 그게 왜 부당한지 그 교사에게 똑똑히 말해주었을 텐데. 다시 되돌아가 말해주고 싶었다. 교복에 테이프를 붙이는 게 왜 문제냐고, 수업시간에 “삼류소설” 쓰는 게 각목 같은 몽둥이로 머리를 맞을 일이나고, 공부 좀 안한다고 사람 그렇게 때려도 되는 거냐고, 아니,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면서 뺨에 큐빅 좀 있는게 어떻다고 왜 뺏어 가냐고!

그 답답함. 되돌아가서 내게 지금도 눈물 나는 상처를 준 교사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해주고 싶은 그 갑갑함을 느끼는 건 단지 나만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고 또 그 원인을 이해하면서부터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후회하더라.

지금 나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얼핏 보면 청소년인권과는 무관해보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저항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마르지 않는 샘은 중고등학교때의 그 분노와 내 다음세대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부터 나온다.

왜 우리는 상처투성이의 십대를 떠올려야 하는걸까.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나는 그때 몰라서 당했던 억울함이 너무 커서 여전히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지금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길 바란다. 최소한 알고 그것을 규명할 수 있길 바란다. 저항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원인을 안다면 그때의 나처럼 자괴감과 위축감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그래서 나는 청소년인권활동을 한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에 저항하는 행동과 맞닿길 바라고 청소년들의 저항운동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청소년 활동에 더 가슴 뜨거울 수 있는것은 곳곳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에게서 거울을 보기 때문이다. 어찌면 그들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일이 내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전놀의

고등학교, 그리고 05년의 기억

전누리

그동안의 활동/운동경험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정리가 참 쉽지 않았어요. 어쭙지 않은 겸손치레로 들리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무엇 하나 지금까지 다른 이에게 땀땀하게 드러낼 만큼 ‘대단한’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생각해 보기에, 제 자신이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해왔냐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짧게나마 그동안 제가 걸쳐왔던 아니, 걸쳐 오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경험이 어느 누구에게는 작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부끄럽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활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학생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다른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한 친구들은 ‘학교를 바꾸기 위해’ 등의 정말 멋진 생각을 갖고 시작했는데, 그에 반해 저를 비롯한 저의 동기들은 정말 그냥 별다른 생각없이 -동아리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학생회를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학생회를 시작했기에 딱히 어떤 특별한 일을 만들어 보지도 않았죠. 그저 달마다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회의를 하고 행사를 치르고, 그러다가 1년의 큰 행사인 축제에 온 힘을 다해 준비를 했죠. 그렇게 1년이 흘러갔어요.

한 선배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나봐요. 중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던 선배인데, 저를 비롯한 후배들이 좀 더 학우들을 위한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행사에 필요한 실무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나봐요. 선배는 다른 동기 놔두고 왜 저만 데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서울에 있는 한 청소년단체에 데려가서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좋은 거 배워오라고 알게 모르게 눈빛을 주면서 그 단체에서 하는 겨울방학 학생회LT에 신청을 시켰죠.

권유 반 호기심 반으로 간 학생회 LT는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서 좋았어요. 식상한 우리학교를 넘어서 다른 학교 학생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끌렸던 거죠. 그 LT를 준비했던 단체에서는 학생회모임을 제안했어요. 학교문제에 고민도 하면서 학생회끼리 교류도 하자는 것이었죠. 저는 사실 후자가 끌려서 학생회모임을 하겠다고 했어요. 또 어찌다가 무언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운영진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한 학생회모임. 그 LT 이후 저를 포함해 9명 정도가 모였죠. 새로웠던 것은

그 학생회 모임을 우리가 스스로 꾸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학교 학생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짜여져 있는 학사일정 혹은 어떤 관례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기만 했는데, 이 모임은 그 시작부터 어떻게 모임을 꾸릴지 고민해봐야 했던 것이지요. 그때 좀 ‘자치’라는 것을 느껴봤던 거 같아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던 것. 어쨌든 학생회모임에서는 3개월 동안 꾸준히 회의를 하면서 이름, 사업 등등을 하나하나 정해 갔어요. 그리고 2004년 6월,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가자’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지금 학교 현실 속 학생회는 정말 미약한데 좀 발전해서 자치적인 학생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그때까지 열심히 가자. 그런 의미였어요. 그 의미 속에서 ‘가자’는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여하는 학생회 활동에 대한 워크숍, 토론회 등을 진행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활동들이 학생자치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의미는 남겼다고 생각해요. 일선에서 학생회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학교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비록 학교 안에서 의미 있는 실천들을 하지는 못했지만, 학생회 활동에 대한 큰 고민을 가져 볼 수 있었어요.

‘가자’라는 단체를 하면서 또 의미 있던 경험은 바로 ‘강의석’이라는 사람을 만났던 것이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2004년도 6월 미션스쿨이었던 대광고의 종교수업을 거부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1인시위를 했던 것이죠. 그가 학교에서 방송실 마이크를 통해 종교수업을 거부하고, 처음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저는 운 좋은 기회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었죠. 처음에는 에이, 저러다 말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학교의 탄압에도,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40일이 넘어가는 단식을 할 때 다른 이들과 청소년대책위를 꾸리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전 날. 그의 집에 찾아가 바깥 마른 모습을 봤을때, 눈물을 흘렸어요. 한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습. 그 모습에 감동하고, 제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렇게 ‘가자’ 활동을 하면서 2004년을 마쳤어요. 2005년 3월 개학. 그런데 작년보다 참 많은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두발자유를 위한 운동이 시작되고, 몇몇 학교에서는 두발문제를 갖고 락카시위 등 저항이 시작되었죠. 이내 제가 있던 단체에서도 3월 즈음 두발자유에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저도 급하게 요청을 받아 토론회 패널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 토론회에 모인 사람들은 토론으로 멈출 수 없다, 행동을 하자, 이러면서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운동본부라는 것을 꾸리게 되었어요. 저 역시도 터져 나오고 있는 그 움직임을 거부할 수 없기에, 그 운동본부에 참여했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인권’이란 것을 고민했던 거 같아요. 교

과사에서 머리로 배웠던 ‘인간의 권리’를 현실에서 가슴으로 배울 수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참여한 운동본부에서는 중간고사가 끝나는 지점인 5월 14일 대규모 거리 집회를 준비하자고 결정되었어요. 사이트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어 밤늦게 학교 주변에 붙이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갔죠.

그 시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큰 움직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내신등급제 문제였죠. 그해에는 참 사람이 입시문제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내신등급제로 또 학교에서는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더 과열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한 단체에서 5월 7일, 자살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추모제를 연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려 진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7일 날 광화문으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은 거죠. 언론에도 크게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모임까? 숨죽이며 7일 날을 기다렸어요.

5월 7일, 거리에는 1000여명의 교사와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배치되었어요. 교복을 입은 어떤 친구들은 그 사람들 중에 자기 학교의 교사를 보고 후다닥 도망가기도 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께 걸려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예정된 시간인 7시가 되어가면서 10명, 20명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그 교사의 무리를 뚫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모인 친구들의 수가 어느새 800명, 900명이 되었어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옆 거리를 청소년들이 가득 채운 거였어요. 그들은 촛불을 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더 이상 내 친구들을 죽이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쳤어요. 그리고 다음주인 14일, 운동본부가 준비했던 두발 자유를 위한 촛불문화제에서도 400여 명의 친구들이 참여하고 자신들의 인권을 외쳤어요. 비록 그 이후 더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들이 탄압을 뚫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되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서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저항’을 확인했고, 그 속에서 ‘성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확인해요. 아마도, 그 느낌들 때문에 아직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그 느낌들이 제가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와삭와삭 인권서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청소년인권학교”의 이름입니다. 별로 “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란 말이 좀 더 친숙하지 않을까, 해서 써봤어요. ^^

와삭와삭 인권서리는 단지 청소년인권에 대해 많이 알아가자, 라는 생각에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직접 청소년인권 문제의 원인과 구조,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여기에 참여한 청소년 분들이 청소년인권운동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대놓고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청소년인권운동을 당장 시작하자,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말하고 있잖아?)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함께 하자고. 변화의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

02-365-5359

youthhr@chol.com

우리은행 1002-632-656530 전누리

Here comes the 'NU SKOOL'

<청소년이 교육대통령이다>

부시의 푸들로 불리던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영국 노동당의 당수로서 무한 경쟁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이끌어가던 블레어는 총리 자리를 고든 브라운 신임 총리에게 물려주고 쓸쓸히 물러났어요. 그런데 푸들의 푸들이라 할 수 있는 브라운 총리는 영국 청소년들에게 꽤 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우선 선거연령을 18살에서 과감히 16살로 낮추겠다는 것과, 대학생 3명 중에 2명꼴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중딩에게 선거권을 준다고 한다면 꼭 만나라 당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어른들을 끝끝 혀를 차지 않을까요?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미성숙아들이 나라 맡아먹는다.” 또 매년 거침없이 등록금을 올려대는 그 잘난 사립대학들에게 2명 당 1명꼴로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개가 웃으려나?

그런데 정치인이 한 말은 천천히 곱씹어보지 않고 그냥 꿀떡 삼키면 콩알이 아니라 총알인 경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지요?

브라운 총리가 선거권을 낮추려 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한 게 아니라, 갈수록 떨어져만 가는 노동당 지지율을 높여보려는 꼼수일 뿐이죠. 영국 사회는 한국과 달라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률이 낮아 만 16세면 벌써 노동 시장으로 들어서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따라서 만 16세 선거권은 예전부터 시민사회로부터 줄기차게 요구되어 왔지만 정치인들은 껌등으로도 듣지 않고 지금껏 씹고 있었어요. 그러나 노동당의 집권이 흔들리니까 이제야 청소년을 끌어들이려는 거지요. 아무래도 16, 17세의 청소년이면 낡아빠진 보수당보다는 그나마 나은(?) 노동당을 찍을 테니까요.

또 이미 영국 대학들은 대학생 2명에 1명꼴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신자유주의 천국인 영국에서!) 그런데 “둘을 주던 걸 셋을 주겠다.”고 말하고선 뒤로는 등록금 최고 한도를

높이거나 재무부의 지원금을 없애기 위한 알박한 수를 부리고 있단가요?

“어차피 정치는 다 사기야...”

그럼 청소년인 당신이 직접 정치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엉터리 교수도, 나라 경제 말아먹은 엉터리 경제 관료도 교육부총리 다 해먹는데, 차라리 청소년이 교육부총리, 아니, 교육대통령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야 이 개 같은 교육이 확 바뀌지 않을까요?

제 17대 대통령 후보 교육정책 토론회

기호 1 : 잘 키운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 취업 걱정 없는 교육,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 조기 경제교육 강화, 대학입시 지역할당제 10%로 확대
 - 경쟁력으로 무장한 당신, 글로벌 리더로 세계를 누벼라!
⇒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10%로 확대, 토요일 전일 영어수업
 - 교육은 선택이다! 교육 다양성과 선택의 기회를 누려라!
⇒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자율성 확대, 고등학교 광역학군제 실시
- 선거권 : 19세

기호 2 : 이제는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이다!

- 학생도 인간이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다.
⇒ 학생인권법 제정, 교사 인권교육 의무화, 교장 선출제 입법
- 아이들을 살리는 입시, 교육을 살리는 교과서
⇒ 수능 합리화로 입시 경쟁 완화, 새로운 대안 교과서 채택, 대안학교 10%로 확대- 청소년 건강이 인권

의 출발이다.

⇒ 우리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급식, 체계적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선거권 18세

기호 3 : 재수 없는 교육을 시작하라!

- 보호 따위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혼자서도 잘해요.

⇒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친권제한법 입법, 가출 청소년 보금자리 제도화

- 죽음의 입시를 집어치워라!

⇒ 수능과 내신 폐지, 대학 입시의 자격고사화, 사범교육 전면 쇠신, 대학평준화

- 청소년 차별이 그쳐야만 행복한 사회가 열려요.

⇒ 청소년인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장애, 성소수자, 빈곤 청소년 특별 위원회 설치

선거권 : 16세

* 이 엉성한 뼈들에 피와 살을 붙이고 입히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몫이에요. 노무현도 하는 정치, 청소년이라고 못하겠어요. ㅋㅋ

* 3개의 정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래의 것들을 꼼꼼하게 만들어주세요. 다른 사항을 추가하거나 빼도 상관없어요.

당 이름

선거 구호

선거 포스터, 선거 UCC(15초)

후보 뽑기 : 각 모둠에서 한 명의 대통령 후보를 뽑아주세요

대통령 후보 출마의 뜻

청소년 · 교육 정책 :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세요

BATTLE ROYALE

너의 순정을 짓밟아주마. ㅋㅋ

“아, 잘 잤다~”

입가에 주르륵 흐른 침을 닦고 있는 게로 앞에 애들이 모두 ‘에라, 자빠져!’ 상태다.

‘아니, 이것들이 어린이가 주무신다고 다 따라해? 하여튼 요새 늙은것들은... 쫓쫓, 인류가 금수가 되고 예약이 똥통에 빠졌다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민박집이 꼭 시골의 폐교된 초등학교 같이 변해있다. 아직 잠이 덜 깬나? 어젯밤의 탈선행위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린다. 어, 그런데 캠프에 같이 오지 못한 블랙II뿐만 아니라 인권서리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정말 꿈인가? 사람들도 하나 둘씩 일어난다. 웅성웅성...

“블랙II!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자는 동안 캠프에 따라온 거야?”

“아니! 분명히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거 봐! 나 잠옷 입고 있잖아.”

정말로 블랙II는 양기 공룡 돌리가 그려진 한 벌짜리 잠옷을 입고 있었다.

“드르륵”

그 때 닫혀 있던 교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추리닝에 쓰레빠를 신은 양아치가 군인들과 함께 들어와 아직도 잠들어있는 만성을 힘껏 걷어차며 외친다.

“기상~! 기상!”

“아니, 이 아자씨가 왜 이래? 왜 자는 사람 차고 그래?”

“호오? 파이루! 많이 컸다. 그래, 네 녀석이 나보고 늙고 재미없다고 놀렸었지? 너는 집에 어른도 안 키워? 도대체 어따 대고 어른한테 수작을 거는 거야? 이름이 조만성인지 정명석인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똑같아? 그 파이루 해냈는데 이제야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겠군! 카악 튀!”

갑자기 양아치가 가래침으로 만성의 마뺌을 꿰뚫었다. 뿜어져 나오는 붉은 피...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참가번호 14번 조만성 사망.

“모두 입 다물어.”

얼음장 같은 침묵...

“우리의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은 너희 같이 나약한 버러지들 때문에 개판이 되었다. 뭐, 청소년인권 이 어떻다고? 혹시 내가 니네 편이라고 계속 착각하고 있었나? 나는 교육인적자원부 특수부에 근무하는 장학사다. ㅋㅋ 이제 썩어빠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조국은 지금부터 체군들을 배틀 로얄의 전사로 임명한다. 사흘 동안 한 사람만 살아남아야 한다. 열심히 싸워 가치 있는 어른이 되라! 이런 멍청한 어른이 되지 말고….

양아치는 들것의 흰 천을 확 벗겨냈다.

“으아악~”

네트워크의 팽이가 귀에서 달팽이관이 뿜힌 채 죽어 있었다.

“지금부터 무기를 지급한다. 1번! 또또!”

“네? 네~넛!!”

또또는 군용 배낭을 받고는 쏘살같이 바깥으로 뛰쳐나간다. 영화처럼… 우이썩!

“참가번호 2번 게로게론!”

말도 안 되는 배틀로얄의 현장에 뛰어들게 된 당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ㅋㅋ

BATTLE I 아이템(무기) 획득 및 생존지수 측정

BATTLE II 학교 전투력 측정

BATTLE III 너를 죽여주마!

BATTLE IV 오직 한 명만 살아남는다.

BATTLE I 아이템(무기) 획득 및 생존지수 측정

Hidden test

1. 전철을 탔다. 딱 오병헌씨 같이 생긴 청소년 하나가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종이 쪽지들을 돌린다.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이다. 어김없이 내 무릎에도 종이쪽지가 얹힌다. 많고 많은 내용들... 썩은 미소를 던지며 한 바퀴를 돈다. 그런데 유독 내 앞에 서서 나를 쳐다본다.

- ① 어렵었다. 쳐다보지 않고 쪽지도 손도 대지 않는다.
- ② 같이 썩은 미소를 날리며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쪽지를 돌려준다.
- ③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몇 개를 찾아서 건네준다.

2. 길을 걷고 있는데 바닥에 구겨진 국민은행 봉투가 팽개쳐져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로 툭 차면서 지나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봉투에서 약간의 중력이 느껴진다. 그래서 다시 몸을 돌려 봉투를 주워서 펼쳐봤는데... 오, 배추! 무려 10장!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주변을 짹짹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 ① 고맙게 받는다. 이걸 누군가 내게 준 선물이다.
- ② 가까운 파출소에 찾아가 주는 위치를 알려주며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한다.
- ③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후원금으로 낸다.

3. 어느 날 구청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땅이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 있다는 것이다! 오, 신이시여! 강남구에서는 명의를 확인되지 않은 땅의 소유권을 추적해 후손에 땅을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행정지명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포이동' 판잣집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재판을 걸면 되찾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한다. 거의 95%정도라고... 거의 400억 원에 달하는 땅값!(생각해보면 증조할아버지가 친일의 대가로 챙긴 땅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당신은 아버지에게 재판을 하라고 말할 것인가?

- ① 법대로! 재판에 이긴 뒤 이민 간다.
- ② 재판에 이긴 뒤 절반만 갖고 절반은 사회에 기부한다.
- ③ 할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는다.

BATTLE II 학교 전투력 측정

Hidden test

1. 학교에서 오병헌이 뺨을 뜯기고 있다. 학교에서 제일 치사하고 지저분하게 달라붙는 양아치한테... 오병헌 완전히 잘못 걸렸다. 그런데 병헌이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지나가고 있는 나에게 눈길을 보낸다. 병헌이가 누군가를 보고 있는 걸 눈치 챘는지 양아치마저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그러더니 씨익 웃으면서 나를 쳐다본다. 어떻게 할 것인가?

- ① 짹짹 달려가서 알아서 자진납세하고 빠져나온다.
- ② 무시하고 천천히, 되도록 천천히 지나친다. 아무 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 ③ 두 사람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말한다. “양아치, 보내줘라. 갠 돈 없다.”

2. 수능(순응) 시험이 두 달 남았다. 불안하다. 불안... 다른 과목은 제법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는데 수학이 안 된다. ㄱ ㄷ 이래서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수학 가중치가 장난이 아닌데... 그런데 엄마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본 며칠 뒤 이렇게 말한다. “적금 깰 거야. 내가 이 돈 싸들고 죽을 것도 아닌데... 너 수학 죽집게 과외 두 달만 받아라. 옆집 팽이 형도 수학이 안됐는데 작년에 그 선생님한테 두 달 과외 받고 서울대 갔대. 두 달에 30점 올렸대. 딴 생각 하지 말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어떻게 할까? 한 달에 두 장, 두 달이면 4,000,000원...

- ① 최소의 비용의 최대의 효용을 낼 수 있다. 평생 삼류 딱지 달고 사는 병신 짓은 안 한다. 몇 십 배로 벌어들일 테니까.
- ② 사교육 안 믿어. 난 혼자서 할 수 있어. 대신 그 돈으로 대학입학 선물로 초슬림 노트북과 DMB 폰을 사주기로 약속해.
- ③ 엄마, 적금 깨지 마. 엄마 노후 대책도 있어야 할 거 아냐? 그리고 그게 내 실력인 걸. 앞으로 더 노력할게.

3. 학년부장 선생님이 편안히 앉으라며 말을 건넨다. “내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2학기 수시 지역할 당제에 교장 추천서를 받아줄게. 그 대신 청소년인권운동 학교 내에서는 하지 마라. 조건은 이것밖에 없다. 학교 밖에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어떻게 할까? 합격률은 80%가 넘는다. 합격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학교 와도 끝인데...

- ① 고맙습니다. 학교 바깥에서도 아예 안 할게요.

- ② 알겠습니다. 대학 가서 계속 청소년인권활동 할게요.
- ③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리고 기자회견을 한다.

BATTLE III 너를 죽여주마!

Hidden test

1. 이런 된장 맞을! 배틀 로얄이다. 그런데 수풀 속에 숨어 있는 내 앞으로 평소에 제일 미워하던 같은 반 녀석 양아치가 무방비 상태로 다가오고 있다. 정말로 손에 든 도끼에는 검붉은 피가 잔뜩 엉겨 있다. 살인자! 꿈속에서도 나를 괴롭히던 개새끼. 저 새끼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내 손엔 장전된 권총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 ① 네 심장에 나의 증오를 쑤셔 넣어주마. 잘 가라.
- ② 다리를 쏜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헤치지 못 할 거야.
- ③ 난 그를 쏠 수 없다. 아무리 밋더라도 그를 죽여서는 안 돼.

2. 세상에서 둘도 없이 친한 친구 윤종과 누리. 둘은 배틀 로얄에서 짝을 지어 서로를 보호하며 다니고 있다. 드디어 내일이면 이 게임이 끝난다. 결국 우리는 다 죽고 마는 걸까? 피곤하고 졸리다. 걸으면서도 눈이 스프르륵 감긴다. 자꾸 눈이 감기는 윤종을 보고 누리가 말한다. “윤종, 좀 자둬. 여기가 위험 구역이 되려면 아직 두 시간이나 남았으니까. 난 별로 안 졸리거든.” 녀석은 손엔 푸르스름한 빛깔의 낫이 들려있다. 당신이 윤종이라면 어떻게 할까?

- ① ‘미쳤어? 잠이 들게! 자다가 목이 잘릴 수도 있는데...’ 난 안 졸려.
- ② 눈을 감고 자는 척하지만 결코 잠은 안 온다. 권총의 잠금장치는 이미 풀어줬다.
- ③ 친구야. 너밖에 없구나. 나 깨고 나면 너도 좀 자라. 내가 지켜줄게. 설령 네 손에 죽더라도 괜찮아.

3. 결국 다 죽고(뻘은 죽이고) 아치와 병헌만 살아남았다. 사실 둘은 사랑하는 사이이다.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지켜낸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목걸이에서 신호음이 울린다. “띠 띠 띠 띠 띠띠띠띠...” 오, 타임 리밋(time limit)!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목걸이가 터져 둘 다 죽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① 거침없이 쏘버린다. 어차피 사랑은 누군가와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사실 그(그녀)는 지금까지 훌륭한 방탄조끼였을 뿐이다.

② 그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관자놀이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긴다. 고마웠어.

③ 그(그녀)의 다리를 쏜다. 그 이유는….

게임 규칙

진행 : 아치, 헤민

전날 저녁에 청소년들에게 배틀 로얄을 25분간 보여준다. 밀랍

1. 모두 네 개 모둠으로 나눈다. 3명 모둠 2, 4명 모둠 2

2. 문제의 답은 각 문제당 5분간 내부 토론 후 다수결로 결정한다. 참가자는 솔직한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만 한다.

3. 아치는 각 팀의 점수를 합산한다. 보물찾기와 히든 문제는 선착순으로 50, 30, 20, 10점으로 한다. 배틀 II까지 모든 문제는 ① 30 ②20 ③ 10점으로 한다. 배틀 III는 더블 찬스, 역전의 순간이다. ① 60 ②40 ③ 20점이다. 여기까지 점수를 합산해서 한 모둠이 우승한다.

4. 그러나 한 명만 살아남아야 한다.

히든 문제

배틀 I : 보물찾기(무기를 확보한다.) 전날 저녁에 지형 답사를 통해 문제지를 미리 만들어두고 보물을 숨겨둔다.

배틀II : 시험보기 (고려대 수시문제, 영어 문제, 우리말 문제)

배틀III : 헤민에게 폭탄을 던지다. 순서대로 100, 30, 20, 10점으로 한다.

배틀IV

1. 물총은 오직 두 자루! 총을 잡아 먼저 상대방 한 명에게 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

2. 남은 두 사람은 상대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 1가지와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 1가지를 대고 나머지 패배자들의 박수 소리에 따라 생명이 결정된다. 물론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박수소리가 애매하다고 우기며 다음으로 넘어간다.

3. 거북이 등껍질을 해서 먼저 웃지 않는 사람이 타짱이다. 게임 오버야.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끝낸다. 이긴 사람하고 절대로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BATTLE II 학교 전투력 측정

Hidden test (10분)

1. <It's on me.> 이 말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2. <중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3. 개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쓰시오.

안녕하십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대방역즈음에 있는 남도학숙에 사는 김혜미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97년 IMF 경제대란 때 아버지가 40대의 나이에

정리해고를 당하시고, 그 충격을 못이기고 알콜중독에 빠져 지금은 생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시고, 저희 어머니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서

홈버에서 캐시일을 하시다가, 빨갱이 강성노조에 의식화되셔서

상암에서 파업을 하다가 연행과 구속을 당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가정을 이끌어야 하지만

저는 어려서 사고로 인하여, 한쪽 다리가 불편한지라

일을 하기도 힘들고, 업친데 덤친격으로 지금

급성 신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큰 치료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민여러분, 부디 이 불쌍한 저희집 사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따뜻한 손길 내밀어주시길 바랍니다.
1000원, 2000원씩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대방역즈음에 있는 남도학숙에 사는 김혜미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97년 IMF 경제대란 때 아버지가 40대의 나이에

정리해고를 당하시고, 그 충격을 못이기고 알콜중독에 빠져 지금은 생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시고, 저희 어머니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서

홈에버에서 캐시일을 하시다가, 빨갱이 강성노조에 의식화되셔서

상암에서 파업을 하다가 연행과 구속을 당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가정을 이끌어야 하지만

저는 어려서 사고로 인하여, 한쪽 다리가 불편한지라

일을 하기도 힘들고, 업친데 댕친격으로 지금

급성 신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큰 치료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민여러분, 부디 이 불쌍한 저희집 사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따뜻한 손길 내밀어주시길 바랍니다.

1000원, 2000원씩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와삭와삭 인권서리〉 소장사진, 2007. 07. 25.



〈펜으로도 때리지 마라 - 청소년인권과 언론〉

야자가 사라지고, 두발 제한이 사라지고, 사랑의 매가 사라지면, 청소년 인권은 문제없는 것일까요? 어찌 면 칼보다 무섭다는 무엇이 청소년을 겨누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만약 신문에서, TV에서, 인터넷에서, 끊임 없이 사람들의 의식을 펜으로 두드리고 있다면,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지만 모자란 점이 많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고 때로는 강제가 필요하다...” 계속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소수자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권을 위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는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주나요?

_대상 ; 14~19살 청소년

_기간 ; 2008년 1월 7일 ~ 16일(2주간, 총 5 회)

_시간 ; 월, 수, 금 오후 4시~6시

1강) 넌 누구 편이니?

언론은 공정해야 한다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누군가를 편드는 것처럼 보일까요?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준에 미달되고 수준이 떨어진다고 나누고 가르치는 구획이 신문의 편집에도 있습니다.

2강) 신문 위에 빨간펜

신문을 보면 연일 청소년 문제가 빠질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도 속에 교묘한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빨간펜을 들고, 어떤 기자가 우리를 씹고 있는지 찾아볼까요?

3강) 청소년언론? 너 뭐니!

청소년의 관점에서 써진, 청소년의 인권을 생각하는 언론이 있을까요? 청소년인권 언론이 가져야 할 조건들에 대해 함께 토론해보고 우리가, 또는 내가 청소년인권 언론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지 함께 기획해봅시다

다.

4강) 청소년들이여, 기자가 되자!

혹 신문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없었나요? “밀어붙여!” 신문사에 의해 과장되고 왜곡된 기사를 본 적은 없었나요. 우리가 “뜯어고쳐!” 신문사를 만들어 보자구요. 내 일상이나 남에게 들은 얘기도 좋아요. 기사다운 기사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5강) 체험! 삶의 현장-신문, 방송 매체를 찾아서

2주간의 강좌가 끝나고 나면 신문사 혹은 방송사에 직접 찾아가 봅시다. 시간과 자세한 사항은 강좌가 끝 나갈 즈음 알려 줄게요.

■ 신청방법 ■

현재 게시판에 신청글을 작성하시고 수업후원금(후원이 어려울 경우 따로 연락주세요) 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 ◆ 기재할 사항 : 강좌명, 참가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입금자명
 -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275401-04-023314
(예금주 - 변중용<교육공동체 나다>)
 - ◆ 수업후원금 : 6만원, 인권강좌만 4만원(후원이 어려울 경우 따로 연락주세요)
 - ◆ 문의 : 02-335-0148 / 긴급 018-622-7213
- 입금확인 등이 되지 않아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빠짐없이 기재해 주세요.
- 정원은 인권강좌 20명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 입금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게시판에서 {신청완료} 답글을 확인해 주세요.
※ 개인정보 노출이 염려되시면 "비밀글"에 체크하시고, 비밀번호를 기억해 주세요.

■ 전체 일정 ■

- 1월3일(목) : 오리엔테이션 오후 6시30분
- 1월7(월)~19일(토) : 본강좌
- 1월21일(월) : 대토론회 오후 2시

<2> 신문 위에 빨간펜

내 이름은 찰기. 요새 신문 챙겨 보는 청소년들이 별로 없어서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한탄들을 하시는 와중에, 열일곱살 고딩인 나는 보기 드물게 신문과 9시 뉴스를 챙겨보는 성실하고 똑똑하신 청소년이다. 당근 눈술에 도움이 된다는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의 은근한 압박에 의한 거긴 하지만.

고등학교 등교시간 7시 50분에 맞추려고 힐레벌떡 뛰어가다보니, 고등학교와 붙어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애들이 ‘길거리쌈박질’ 오락기를 하고 있는 게 내 눈에 들어온다.



“쫄쫄. 어제도 폭력적인 게임을 즐기다가 같은 학교 애를 두들겨 팬 중딩들이 신문에 났던데... 꿀꿀. 아침부터 저런 데 붙어서는 요즘 초글링들은 참.”

얼마 전엔 초등학생 사이의 폭력 장면이 TV에 나오면서 인터넷에서 짤방으로 뜨고 있던데, 참 무서운 세상이다.

결국 2분 지각해서 교문 앞에서 토끼똥을 하게 되었다. ㅠㅜ

“꾸액!”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서 늦은 애들 토끼똥을 시키던 선생님이 놀라서 뛰어갔다. 우리도 엉거주춤 쫓아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너흰 계속 하고 있어!”라고 소리쳐서 못 쫓아갔다. 나중에 듣자하니, 학교 담을 넘던 남학생 한 명이 담 위쪽에 감아놓은 철조망에 허벅지가 찢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한다.

담 위에 살벌한 철조망이 있는 게 문제라는 애들도 있지만, 뭐 이번에 굶힌 애가 좀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함부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담 위에 철조망 같은 건 필요하다.

그걸 무리해서 넘으려는 놈이 잘못된 거지.

애들이 밖에 막 나돌아 다니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강패들한테 걸려서 맞거나 유괴당하거나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애들이 폭력이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최근 교복도 좀 이상하게 입고 머리도 염색한 애들이 많은데, 그런 불량한 애들이 범죄를 저지를 거다.

아참, 그러고 보니 바로 그제же 신문을 보니까, 담배 피거나 술 마시는 학생들이 일탈행동을 더 많이 한다던데 조심해야겠다. 담배 피거나 하는 애들은 특히 잘 피해 다녀야겠고... 개네들이 주로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도 1층에 교사 화장실로 몰래 가든가 해야겠다. 물론 학생 사용 금지긴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이해해주실 거다. 나도 그런 애들에게 몰들어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까 무섭다.

아 오늘도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내가 일탈행동을
 록 하기 위해 선생님들은 우리를 사랑의 매로 때려가며
 겠지. 위험하고 좀 모자란 나는, 그렇게 뻥시게 나를
 한다. 게다가 불량식품, 성인영화, 폭력적인 게임, 열마
 것들이 많은가.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



하지 않도
 가르치시
 통제해야
 나 위험한
 다.

참, 담임선생님이 오늘 이과를 선택할지 문과를
 취업을 할지 정해오라고 하셨다. 학원 갔다가 집에 가
 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부모님들은 미성
 한때의 생각으로 미래를 무모하게 정하지 않도록 엄마
 키는 대로만 잘 따르면 되겠지.

선택 할 지
 서 부모님
 숙한 내가
 아빠가 시

또 하루가 간다. 오늘도 내가 아무 범죄도 안 저지르고 별다른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다.



그럴싸하지? 응? 혹시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니?

음, 글썸. 아주아주 약간 코딱지만큼의 과장이 있을지는 몰라도 거짓말까지야 뭐. 사실 주류신문과
 9시 뉴스, 네이바 메인 등을 꾸준히 보고 그대로 따르는 청소년이라면 충분히 저릴 수도 있어.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들은 미성숙하니까 이정도 제한은 받아야 해.”라거나 “요즘 애들 진짜
 로 말 안 듣는다. 좀 때려가며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안 그래? 우리들 자신은
 어떤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근데 그게 틀린 생각이냐구?

흠... 뭐가 틀렸다, 맞다,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말이지.

그럼 그게 틀렸는지 맞는 건지 같이 이야기해볼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주 당연한 ‘상식’으로 통용되는 현실을 벗어나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검토해볼 수 있는, 토론거리로 만드는 거 자체는 아닐까나 ^^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올바른’ 척하는 교과서와 신문과 방송들이, 사실은 소수자들에게 은근은근 안 좋은 소리들을 흘리곤 한다는 건 첫 번째 시간 때 이야기했지?

이번에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이야기들, 어떤 인권침해적인 이야기들이 숨어/드러나 있는지 한 번 같이 찾아볼 시간이야.

자, 빨간펜(펜은 파랑거나 검거나 노랑거나 해도 좋아)을 들고, 가 볼까??

(1) 청소년을 차별하는, 청소년인권에 적대적인 기사의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2) 모듬별로 인쇄한 것, 신문 복사한 것 등을 보면서 차별적인 요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시하고 모듬 안에서 토론해보자.

(3) 모듬별로 골라낸 기사 2개씩을 집어서 차별적인 요소, 청소년인권에 적대적인 요소들을 한 번 인권적인 내용으로 고쳐서 쓰거나 만들어보자.

(4) 고쳐서 쓰고 만들어본 걸 발표해보자.

<조선일보> 2005년 3월 10일 이규태 코너 칼럼

일진회

10대 전반의 어린 학생들간에 일진회라는 조직 폭력과 집단 성범죄가 번지고 있으며 게다가 전국적인 조직으로 커나가고 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미국에서는 교사들마저도 학생들로부터 습격 받으면 경고 신호가 경찰에 통달되는 알람시계를 차고 다닐 정도라지만 이 폭력배는 10대 후반

의 사내아이들이다.

일진회 조직은 성에 호기심이 갖 작동할 무렵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저변화하는 연령적 하강과 성적 호기심을 분모(分母)로 남녀를 불문하고 학교 담, 지역 담을 초월한 공간적 확대를 하고 있어 종전의 문제의식으로 다루기에는 한계를 넘었음을 실감케 한다. 거기다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사회적 정치적 우려마저도 동반하고 있다. 그 조직의 명칭이 하필이면 일진회냐는 점이다.

일진회(一進會)는 한말에 친일 여론을 대변한 것처럼 위장하여 일제의 강제 병탄에 앞장섰던 매국 단체 명칭이다. 이완용(李完用)을 앞세운 정치적 음모와 이용구(李容九)를 앞세운 민간 여론의 위장으로 이원화하여 강제 병탄을 추진했으며, 후자의 명칭이 일진회다. 일진회를 조종한 배후가 일본의 극우단체인 흑룡회(黑龍會)로, 일등 모사꾼 우치다(內田良平)의 손아귀에서 돌아났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이 불량 청소년조직이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점에서 불길한 여운을 남긴다.

둘째로 불량 연배가 연소화한다는 점이다. 우리 역사에서 조직 불량소년의 유일한 기록으로 유교문화 유입 이전인 고려시대의 악소배(惡小輩)를 들 수 있다. 개성 으스스한 곳이면 10여명씩의 악소배가 지나가는 여인들을 납치·검탈하기를 일삼아 잡아들여 보니 권문의 자제들인지라 다스리지 못했다고 고려사는 적고 있다. 아녀자의 행실은 형사책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도맡았던 조선조에는 악소배가 탄생할 정신적 풍토가 돼 있지 않았다.

악소 연령의 하강은 요즈음 아이들의 조숙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종적인 부모의 힘이 약화되고 횡적인 인터넷의 힘이 대신해온 것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호주제 폐지로 자신이 호주라는 의식이 만연, 불량화가 가속화할 것은 뻔한 일이다. 땅 위로 솟아난 불량은 자르면 다시 돌아난다. 그 뿌리부터 알아내는 정부 차원의 원시적(遠視的) 처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일보> 2007년 3월 18일 사설

중·고생들 규칙 지키는 훈련 필요하다

새학기를 맞은 전국의 많은 중·고교들이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문제 등과 관련해 학생들과 전쟁을 치르다시피하고 있다. 일부 학교의 학생들은 시위까지 했고,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학생단체들은 다음달 연합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기호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하던 시절은 지났다. 성적 지상주의 문화가 여전히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복장이나 외모까지 일방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어른들의 욕심은 청소년들의 자율과 독창성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 ‘학생이 외모에 신경을 써서 뭐 하느냐’ ‘머리가 긴 학생은 불량학생이다’는 식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자율에 대한 주장은 과도한 부분이 많다. 요즘은 중 3학년만

돼도 연예인을 방불케 하는 헤어스타일을 한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파마나 레게머리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뿐이지 학생에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외국의 종교교들도 대부분 엄격한 복장규정(dress code)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이상으로 단정한 두발을 요구하며, 칼라가 없는 티셔츠를 입어서도 안 되고, 청바지나 글씨가 쓰여진 옷도 허용하지 않는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두발과 복장 규제가 없다면 교실은 명품 유행에 지배당해 전인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는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학교 밖에서는 성인과 학생이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일정한 규율은 소속된 사회나 집단의 질서를 준수할 줄 아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강제 이발이라든가 체벌 및 차별, 새벽 시간 강제 자율학습 같은 비인권적인 처사는 사라져야 한다. 그렇다고 방만한 자율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종교교는 지식을 배우고 생활지도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국민일보> 2007년 3월 30일 김상길 논설위원 [한마당]

무서운 아이들

경기도 가평의 한 중학교 교내에서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어 광주광역시에서도 중교 남학생 25명이 수명씩 때를 지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사회적인 충격이 되고 있다.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아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오히려 당황했으며, 성인문화를 소개하는 동영상 등을 보고 흥내낸 것 같았다”고 말했다. 광주 경찰서 관계자도 “어린 학생들이 때를 지어 벌인 짓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혀 10대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전체적인 10대 병리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집약된 사회병리현상의 표출이라는 점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29일 우리나라의 10대 흡연 연령은 평균 12.4세, 음주시작 연령은 평균 12.7세라고 발표했다. 2006년 9, 10월 동안 중교교생 8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1998년 조사에 선 흡연시작 연령 15세, 음주시작 연령 15.1세였다. 특히 10대의 흡연과 음주는 사회적 일탈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흡연자 가운데 81.1%는 술을 마시며, 27.2%는 성경험이 있고, 12.8%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그것도 무섭게. 대형 빌딩을 폭파하겠다고 한 범인은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이었다. 물론 장난으로 했지만. 최근 야기된 10대의 일탈 현상에 대해 기성세대는 시대의 위기, 문화의 위기를 깨닫고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리라”(잠언 22:6)고 가르친다.

이 사회에 폭력문화가 득세한 것은 생명 경시 풍조 때문이다. 이리므로 가정에서부터 생명 경외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 세상과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신 창조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 없

이 주셨다. 예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 없이 생명을 바쳤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 사상이다.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힘이다. 기성세대와 언론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경향신문> 2007년 8월 6일 홍진수 기자 기사
고3학생 5명중 1명 흡연... 여학생은 성인여성의 2배**

우리나라 고3 학생 5명 중 1명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3 여학생들의 흡연율은 성인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6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3생의 흡연율은 20.3%이고 음주율은 43.6%였다. 고3 여학생의 흡연율은 12.8%로 여자 성인(5.6%)보다 훨씬 높았다. 흡연 연령 역시 대폭 낮아졌다.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때 15세였던 첫 흡연 시기가 이번 조사에서는 12.5세까지 내려졌다.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일탈행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청소년 흡연자의 75.8%가 술을 마시고, 21.6%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11.2%는 자살 시도 경험이 있었다. 또 청소년 음주자 중에서는 34.8%가 담배를 피우고, 14.7%가 성경험이 있으며, 9.2%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 2007년 8월 9일 사설
누가 靑少年들을 황폐화 몰아넣었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실태가 위험수위로 치달고 있다. 흡연율 28%, 음주율 28.6%, 성관계 경험률 5%, 우울증 경험률 41.4%, 자살 시도 경험률 5.5%...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800개 중·고교생 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청소년 건강 행태 관련 조사 결과는 술·담배에 빠져든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흡연·음주는 과거부터 늘 있어온 문제다. 그러나 흡연·음주를 시작하는 나이가 각각 12.5세, 13.1세로 1988년 조사 때보다 2.5년, 2년 빨라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작년 대한소아과학회의 대학생 대상 관련 조사에서도 초교생 때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과 니코틴에 빠진 청소년은 성인의 경우보다 중독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통설이다. 성장기의 흡연·음주가 심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성인 여성의 2배에 이르는 여학생의 흡연 등은 장차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번 통계에서는 흡연·음주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 시도율에서 3배 정도, 성 경험률에선 10배나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미래 주역들의 심신이 알코올과 니코틴에 찌들어가고 있는데 ‘일류 대학’ 따위 구호란 공허할 뿐이다. 청소년들을 이토록 방치한 데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술·담배에 유독 너그러운 우리 사회의 정서도 바뀌어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때다.

[참고자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에 연재되었던 언론비평

듣기는 참 좋지

- 청소년인권에 대한 국민일보 논조를 비판하며

〈중·고생들 규칙 지키는 훈련 필요하다.〉 2007년 3월 18일인가 19일인가에 나온 국민일보 사설님 제목 되시겠다. 내용이야 뭐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암울하다. 앞에서는 “학생이 외모에 신경을 써서 뭐 하느냐 ‘머리가 긴 학생은 불량학생이다’는 식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라고 해놓고서 바로 다음에 “최근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자율에 대한 주장은 과도한 부분이 많다. … 학생에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라고 쓰는 건 적나라한 모순이다. 어쨌건 결론은 “일정한 규율은 소속된 사회나 집단의 질서를 준수할 줄 아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방만한 자율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중교고는 지식을 배우고 생활지도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라는 거지, 뭐.

이 사설을 보고 나서 국민일보(혹은 쿠키뉴스) 기사를 주욱 뒤지다보니 국민일보(혹은 쿠키뉴스)가 은근 소신 있는 신문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열었던 두발자유 토론회에 대한 기사(2006.10.27.)에서는,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학생들이 ‘두발의 자유’ 보다 ‘소통의 자유’를 더욱 원한다는 게 확인해졌다. 교육당국과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썼다. 표제도 <‘두발’보다 소통자유를 원한다>다. “두발 규제”라는 제목으로 나온 두발규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2007.03.11.)에서도 “빨강 노랑으로 물들이고, 핑크머리, 핑크머리를 용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슬쩍 발을 빼면서, “최근의 사태들을 보면서 두발의 문제보다 교사-학생 간의 소통로가 막혀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른 기자 다른 논설위원이 썼는데도 일관된 관점, 일관된 표현(생각이 드신단다.)에 박수를 보낸다. 즐즐즐.

듣기는 참 좋다. “소통”해야 하고, 요구가 “과도”하면 안 되고, “방만한 자율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일정한 규율”을 지키며 “질서를 준수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 안에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실종 상태이며, 청소년들 하나하나에 대한 존중도 고려도 없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불가침하며 불가양하다.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하거나 방만하다고 하는 건, 그냥 당신들

생각이다. 그래, “생각이 든다.”일 뿐인 거다. 생각이 든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 그건 권리가 아니다. 말로는 표현의 자유니 개성이니 자아실현이니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개성-자아실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회에서 지배적인 ‘주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된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그건 과도하고 어울리지 않고 방만한 게 된다. 그런 게 뭐가 ‘자유’이고 ‘인권’이란 말일까? 그건 당신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규제당하라는 것을 그럴싸하게 돌려 말한 것이다. 그레놓고 그것을 “질서를 준수할 줄 아는 민주시민의 역량”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민주시민이라면 잘못된 규칙-법을 바꾸기 위해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발상은 저기 쓰레기통에 잡자고 있나보다.

저게 현실 옹호의 보수 논리 이상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인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소통”이다. 소통해서 적절히, 조화롭게 바뀌어나가란 것이다. 그래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사에 인용도 되고 청소년을 ‘대표’하듯이 표상된다. 인권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사람, 혹은 자기 권리를 관철시키려드는 사람은 비가시화되거나 건설적이지 못한 의견, 혹은 과도한 주장으로 이름 붙여진다.

하지만 국민일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소통”은 기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 소통은 언제나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일보의 논조에는, 소통이라는 게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강조되는 게 얼마나 기만적인지, 그리고 현실에서 그 소통의 ‘주체’는 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은 실종 상태다. 한쪽은 다른 한쪽을 ‘체벌’이라면서 때릴 수도 있고 머리를 밀어버릴 수도 있고 반말을 할 수도 있고 점수를 깎을 수도 있고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평등한 소통이 가능할 리 없는데 고의인지 실수인지 싸그리 무시한 채 이야기하고 있다. 뭐는 과도하고 뭐는 방만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규정지를 권력을 쥐고 놓을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소통이라니.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국민일보가 견지하고 있는 논조는 사실 이 사회에 흔히 통용되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내고 200대를 때리는 교사건 머리를 지지고 묶는 학생이건 여하간 이래저래 심한 건 아무래도 그냥 좀 그렇다는 거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건 아무래도 그냥 좀 그렇다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여기저기 언론에서 눈에 띈다.(중앙일보라거나, 심지어 교육희망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발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인권운동 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논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논리적 근간과 전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사고방식이 기만적이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그 ‘심한 것’과 ‘일반적인 상식’을 규정하는 데도 분명 권력이 개입해 있으며 거기에는 지배적인 가치, 주류의 생각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상식’은 실제로는 억압당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효과를 낳는다. 소통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인권에 대한 생각 없이, “심한 건 안 된다.” 식의 내용 없는 양비양시론을 떠들 셈일까? 언제까지 내용 없이 “소통해야 한다.”는 말만 할 셈일까?

물론 듣기야 좋겠지. 듣기에만 좋겠지만.

“무서운 침대”를 만드는 무서운 언론

- 언론 보도의 비대칭성

1

지난 4월 14일에 있었던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집회를 홍보하는 웹자보를 블로그에 올렸더니 웬 처음 보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댓글에 잔뜩 링크를 달아놨는데 뭐 보니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기사들이었다. 그래서 나도 ‘성인’들이 살인하고 성폭행한 기사들을 링크해줬더니, 그건 교사가 아니라 성인이라고 뭐라고 해서 뭐 그럼 교사들 걸로 해줄 수도 있다고 답댓글을 친절히 달아 주었다. 잇힝♡

2

4월 14일 행사가 대략 끝나고, 연합뉴스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았다. “점점 포악해져가는 청소년들의 사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3000개가 넘는 댓글들 중에서, 담배피는 것을 훈계하는 노인을 폭행하고, 학교에서 성폭행하고, 사회에서 자신들만 있는 것처럼 주변 배려 안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또 여중생이 사주한 성폭행사건이 있었네”, “공부 안하고 맨날 쌤박질 하고 중고딩 니들 친구들 성폭행하고 선생이 혼내면 조낸 대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나...” “요즘 애들 개념이 없어 집단성폭행을 하질 않나.” 같은 내용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젠, 질린다 질려.

3

그러니까, 대개 그런 거다. 언론은 무슨 청소년 범죄 같은 것만 났다 하면 “무서운 아이들” “무서운 10대들” “무서운 소녀들”을 연발한다. 기사 표제는 물론이고 간간이 칼럼, 시평들도 나온다. 몇 개만 나열해볼까?

「무서운 10대, 성인사이트 동영상 따라 성폭행」 (데일리안 2007.03.19)

「교내 성폭행·포털 음란물 게재... '무서운 중딩」 (매일경제 2007.03.29)

「[한마당—김상길] 무서운 아이들」 (쿠키뉴스 2007.03.30)

「인질극에 편의점 강도까지 '무서운 10대들」 (SBS 2007.04.21)

..... 헉헉. 이보다 더 전에 기사들을 뒤지다보면 끝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언론보도는 “무서운 침대”라는 신화, 이미지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킨다.

4

그러니까, 또 대개 그런 건데, 언론은 청소년 뿐 아니라 다른 소수자들에게도 그리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응?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흠흠, 자 여기 2007년 2월 27일에 보도되었던 한 사기 사건을 한 번 찾아보도록. “재벌가 아들인양 남고생 행세를 하며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과 그 가족을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27일 경찰에 구속된 여성 동성연애자 사기단은”으로 시작하는 연합뉴스의 「소녀마음 짓밟은 동성연애자 사기단」 (2007.02.27)이라는 기사 말이다. 연합뉴스뿐 아니라 뉴시스도 「무서운 동성에 여자들'-소셜같은 사기행각 전모」 라고 제목을 달았으며 조선일보

는 「소녀마음 짓밟은 동성연애자 사기단」이라고, 동성‘연애’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인권에 대한 무식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비판을 빌려오겠다.

이러한 보도 행위는 사회적 소수자인 동성애자 전체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인양 매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정해야 할 언론이, 동성애자가 ‘이상하거나 문란한’ 존재로 읽히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되려 이용하여 선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이 이성애자 여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어땠을까. 언론들이 ‘무서운 이성애 여자들-소셜같은 사기행각 전모’라고 보도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성애자 집단은 사회의 다수 집단이므로, 범죄자의 성 정체성을 굳이 강조해 드러내어 매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언론은 범죄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범죄자의 인종이나 지역, 장애 유무, 병력 등 특성을 공개할 때 자칫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동성애 편견 부추기는 사기사건 보도」(일다 2007.03.02) 중)

5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다. 소수자들은 소수자라서 더 소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다. 소수자의 특성은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주류 언론에 의해 범죄나 기타 다른 것들과 엮이면서 집단적인 것으로 완전 확대 재생산된다. “동성애자들은 부도덕해.”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폭력적이지.” 언론이, ‘신화’를 유포하는 것이다.

그래도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건 사실이지 않냐고? 아나 증말, 통계청 가서 뒤져봐라.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인구비율까지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다. 연령대와 범죄율을 굳이 따져본다면 4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 즉, 언론보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은 어느 정도는 허구적이며 뚜렷한 근거 없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주류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언론보도 행태와 사회적인 인식의 모양새는 매우 비대칭적인 것이다. 언론보도가 전체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전체 사회적 인식이 언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성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언론은 결코 “무서운 성인들”이라고 보도하지 않는다. 30대나 40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서운 40대”라고 연령층 전체를 지칭하는 제목을 달지도 않는다.

애초에 범죄율 등을 근거로 “미성년자는 충동적이고 위험해.”라고, 청소년들을 집단적으로 규정짓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내가 좋아하는 『헬로우 블랙잭』이란 만화의 정신과 편에서 패러디하자면, “애당초 정신 장애자가 위험한지 아닌지 자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당뇨병 환자는 위험한가? 고혈압 환자는 위험한가? 육체노동자는 위험한가? 셸리리멘은 위험한가? 일본인은 위험한가?” 생각해보니 좀 열받는다. 어이 기사 아줌마/아저씨들, 남들은 그 수많은 기자들 중에 1명이 성폭행해서 “무서운 기자들”이라고 기사 나가면 기분 좋겠수?

6

이건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폭력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다. 교사가 학생을 두드려 패는 건, 200대 250대씩 때려도 잘 보도되지 않는다. 간혹 하나씩 보도되면 사람들이 혀를 끝끝 찀 따름이다.

그런 일상화된 억압자에 의한 피억압자에 대한 폭력들은 “교사가 100대 넘게 때리면 신고하라.”라는 말처럼, 머리에 바리깡도 안 대는데 무슨 인권침해냐는 말처럼, 어떤 악플러의 나 때는 저 것보다 훨씬 심했으니 엄살 부리지 말라는 말처럼, 피해가 초 많이 매니 머취 얼랏오브 그레이트 심각해야만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다.

그러나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언론들은 미친듯이 달려든다. 추락하는 교권, 무서운 학생들 운운 하면서... 이 얼마나 비대칭적인가? 이런 언론보도 속에 살다보면 청소년들 자신까지 “나도 청소년이지만 요즘 애들 정말 개념 없고 미성숙하죠.”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 참 단순하고도 효과적이며 무서운 이데올로기 주입.

7

결론이라는 걸 굳이 내줘야 할 거 같은 강박관념에서 한 마디 덧붙이자면, 많은 주류적인 언론들의 보도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공정한”이란 말이 “주류적인 입장, 권력이 있는 입장을 반영하는”의 뜻이 아닌 한은.

“흡연.음주.자살시도.성경험 = 일탈 행위”?

- 청소년건강실태 발표에 대한 언론의 태도

윤종

얼마 전에 국정브리핑 자료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청소년건강실태에 관한 발표 하나가 나왔다. (<고3 청소년 절반 음주·20% 흡연> 2007.08.06.) 그리고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여러 언론사에서 그 내용을 갖고 기사를 써냈고, 그 제목들은 <고3학생 5명중 1명 흡연... 여학생은 성인여성의 2배>(경향신문 2007.08.06.), <고3 청소년 5명중 1명은 흡연>(데이터뉴스 2007.08.06.), <초등생 100명중 1명 성 경험>(서울경제 2007.08.06.), <[사실] 누가 青少年들을 황폐화 몰아넣었나>(매일신문 2007.08.09.) 등이었다. 오, 이런.

일단 기사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발표된 자료를 보면, 흡연 및 음주 시작 연령은 5년마다 1살씩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 흡연율은 고3 약 20%, 고3 여성의 경우 12.8%로 성인 여성의 2배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더니 추가로 하는 말이 흡연자와 음주자는 비흡연자, 비음주자에 비해 흡연, 음주, 자살시도, 성경험 등의 ‘사회적 일탈 행위’를 해본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영양섭취가 불균형하고 아침밥도 자주 거르고 운동량이 줄어들고 비만이 늘었다는 것은 톱.

기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나 논조는 전체적으

로 대동소이하다. 표제에서는 흡연율과 음주율을 부각시킨 기사가 가장 많다. 또한 대개가 “흡연과 음주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일탈행위도 증가했다.”,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일탈행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흡연·음주가 사회적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았다.” 등의 표현과 함께 흡연·음주가 ‘일탈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흡연·음주를 억제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게 대다수다. 매일신문 사설에서는 “이번 통계에서는 흡연음주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 시도율에서 3배 정도, 성 경험률에선 10배나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여하간 전 반적인 논조는,

- ① 조사해보니 실패가 심각하다.
 - ② 일탈행위로도 이어지니 더 걱정이 된다.
- 대충 이런 거다. 직접적으로
- ③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까지 가는 기사도 있으시고.

사소하지 않은 논리적 오류

흡음, 일단 좀 사소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 안 짚고 넘어가면 찝찝할 거 같다.

흡연자나 음주자가 자살시도, 성경험 등을 해본 비율이 비흡연자나 비음주자보다 더 많았다고 해서 흡연이나 음주가 자살시도나 성경험의 원인이 된다는 해석, 혹은 흡연이나 음주가 자살시도나 성경험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은 잘못된 판단이며 오류이다. 흔히 통계를 해석할 때 저지르게 되는 실수인데,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원인이라거나 그 둘이 인과적이거나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에는 성격이 신경질적인 사람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자. 그러나 이 경우, 성격이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는 것인지 담배를 피우면 성격이 신경질적이 되는지 아니면 이 두 변수 외에 다른 요소나 매커니즘이 존재하는지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왜 국정브리핑 자료를 비롯해서 여러 기사들에서는 마치 흡연과 음주가 ‘사회적 일탈 행위’들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까? 참 이상한 일이다. 이런 기초적인 논리라도 모르고 공무원이 되거나 기자가 되었을 리는 없으니. 혹시 이 표현들은 그 사람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 사회에 퍼져 있는 편견에 편승해서 선정적인, 혹은 보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가 일탈을 규정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사회적 일탈 행위”라는 말 자체이다. 일탈 행위라는 개념은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다. 예를 들어, 그 개념 같은 ‘청소년보호법’도 오랜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라 1997년에 만들어진 법이었으며,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에 18

세 미만은 들어와선 안 된다는 팻말이 달리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사이의 일이었다. 그 이전에도 어린이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있었을 테지만, 그것이 법으로 공식적으로 규제되기 시작한 건 기껏해야 10년 남짓한 일이란 거다.

일탈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그 내용이 변화하는 개념이며 보편타당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누가 일탈을 규정하는가? 그리고 그 일탈 개념은 정당한가?”

“누가” 일탈을 규정하는지 묻는 것은 그 속의 권력 관계를 드러낸다. 마치 보편적인 양, 객관적인 양 위장하고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 누구인가? 바로 ‘성인들’이며, 현재의 사회에서 소위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이다. 이처럼 ‘규정하는 자’와 ‘규정당하는 자’ 사이에 권력 관계가 있을 때, 거기에는 편견과 폭력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특히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미성년자’들에게 더 많은 일탈 행위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해내야 한다. 성인이 하면 일탈 행위가 안 되지만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면 일탈 행위로 규정되는 행동들(“지위범죄”)라고 부를 수 있으시겠다.)이 많다는 것이다.

흔히들 흡연이나 음주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해로우니까 규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해롭다는 말 자체가 모호하긴 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건강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개입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있다. 얼마 전에 새로 나온 담배 케이스를 보니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써있었다. 그러나 그 어디를 봐도 임산부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거나 임산부의 흡연이 사회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는 없다. 임산부의 흡연은 “일탈 행위”인가? 결국, 건강이 어쩌니 하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임산부는 ‘성인’이고 청소년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은 마음대로 간섭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편견과 폭력이 개입해 있는 것이다.

이 기사들이 보수적이고 편견에 가득찬 “일탈 행위”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자살 시도” “성경험” 같은 것까지 모두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몇몇 기사의 경우는 피임을 부분을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그런 언급 없이 “성경험” 자체가 문제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 제대로 된 성교육과 피임 교육 등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성경험”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일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억압적인 발상이라 하겠다.

제발 차라리, 서울경제 관련 기사의 “청소년의 46.5%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우울증 경험률도 41.4%에 달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면서 자살시도율도 5.5%였다.”와 같은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보도했으면 한다. 흡연율 음주율 어쩌구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 자살시도를 일탈이라고 보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는, “이번 통계에서는 흡연음주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 시도율에서 3배 정도, 성 경험률에선 10배나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처럼 읽으면 속이 쓰리고 오류와 편견을 숨기고 있는 기사들은 볼 일이 없으면 좋겠다.

〈펜으로도 때리지 마라- 청소년인권과 언론〉 소장사진, 2008. 01. 07.



〈2008 청소년인권운동 워크숍-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제안서, 2008. 02. 04.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그리고 개인활동가들)

수신 : 청소년 · 인권 · 교육단체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목 : 2008 청소년인권운동-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참여 제안서

날짜 : 2007.7.23(월)

문의 : 전누리(02-365-5359/ 016-297-9803)

1.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에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뿔뿔이, 한해살이 청소년인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2006년 3월 결성이후, 학생인권법 제정운동과 스쿨어택(인권침해발생 학교에서의 직접행동), 5·14 두발자유집회, 청소년인권전국행진 등의 사업들을 벌여나갔었고, 올해는 2월 “청소년인권 와글난장”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교사들,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앞으로의 청소년인권활동을 위한 연대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 4월 14일에는 “미친학교를 혁명하라(미학혁명)” 집회를 열어 청소년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직접행동을 하였습니다.

3.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청소년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워크숍에서는 청소년인권운동을 고민했던 이들이 모여 청소년인권운동의 고민지점들을 짚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네트워크는 다시 그 워크숍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인권운동의 고민지점, 성과와 한계를 짚고, 또한 2008년 큰 파장을 일으킬 새정권의 정책들에 대해 청소년인권운동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 귀 단체의 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은 청소년 인권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워크숍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첨부된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네트워크 카페나 이메일(youthhr@chol.com)을 통해 참가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2008청소년인권운동 워크숍-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계획안(2쪽)

[첨부자료]

[2008 청소년인권운동 워크숍]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 여는 말

-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모여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워크숍을 진행한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워크숍에서 제기되었던 운동의 고민지점과 그 해결의 단초를 바탕으로 2년 동안 펼쳐온 청소년인권운동. 다시 그 청소년인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보면서 활동 속에서 제기되는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삶에 큰 파장을 갖고 오리라 생각되는 2008년 새정권의 교육·사회·청소년 정책들에 대해 청소년인권운동은 어떤 방향과 활동을 가져 가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2008년 2월 12일 3시
- 장소: 성공회대학교

3. 참가대상

- 청소년인권운동에 관심있는 청소년
-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활동가 혹은 비청소년활동가
- 청소년인권운동에 관심 있는 교사 혹은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청소년활동가

4. 전체 프로그램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	~ 3:00	참가자 등록	
2	3:00 ~ 3:30	참가자 소개 및 몸풀기 마음열기	
3	3:30 ~ 5:30	청소년인권운동 주제별 고민풀기	주제별 토론 후 발표 및 전체 토론
4	5:30 ~ 6:00	휴식	
5	6:00 ~ 8:00	이명박시대, 청소년인권운동의 전략 모색하기	전체 토론

※ 청소년인권운동 주제별 고민풀기에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당사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주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운동은 무엇인지, 주체들을 만나는 운동은 무엇인지?)
- 지역에 기반 한 청소년인권운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청소년인권운동의 의제, 집중해야 하는가? 확장해야 하는가?
- 운동 속에 발견되는 청소년 보호주의.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 자유주체(당일 접수를 받습니다.)

5. 참가비 및 문의

- 참가비, 청소년: 3천원 비청소년: 5천원
- 참가방식:
이메일(youthhr@chol.com) 혹은 네트워크카페(cafe.daum.net/youthhr)로 신청해주세요.
참가신청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청소년/비청소년:
지역:
활동하는 단체:
연락처:
- 문의: 전누리(02-365-5359, 016-297-9803)

청소년 인권운동 워크숍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

2006년, 청소년 인권운동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모여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 라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실새없이 달려온 지금, 2년전 함께 고민했던 지점들과
그 해결의 단초를 바탕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의 고민과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현장에서 함께 고민했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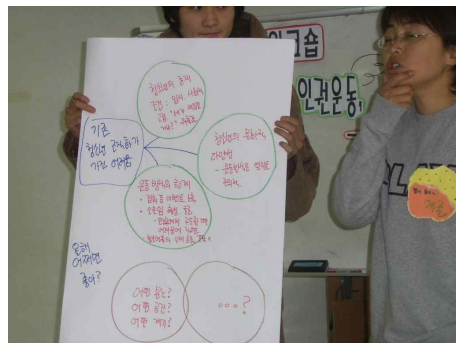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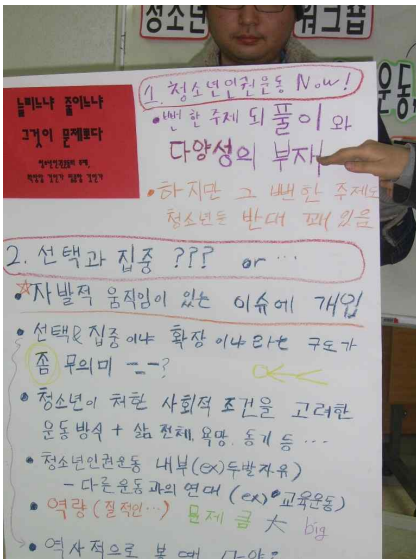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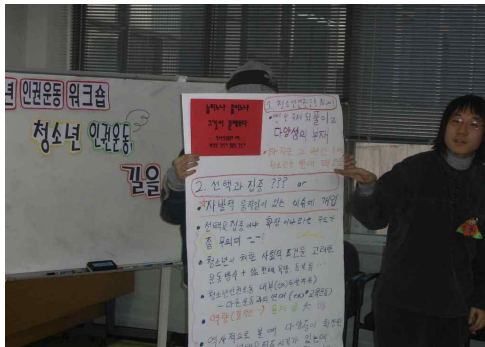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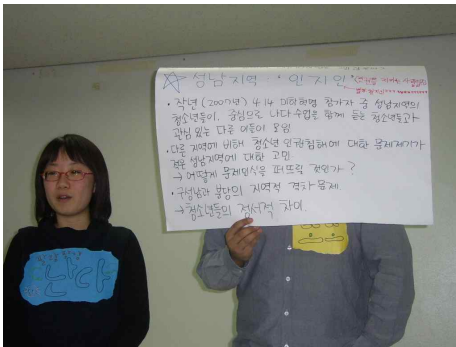
일시 : 2008년 2월 12일(화) 3시
장소 : 성공회대학교 (온수역)

자세한내용은 카페를 참고하세요

cafe.daum.net/youthhr , 문의 : 016-297-9803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8 청소년인권운동 워크숍-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소장사진, 2008. 02. 12.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5월〉 프로그램, 2008. 05. 24.

● 주제 : 깨워봐 인권 감수성, 차별 감수성!

● 목표: 인권을 말할 때, 차이의 존중과 차별금지란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이 되며, 인권 그 자체이기도 하다. 청소년 인권운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인권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고민하는데 있어 인권감수성을 일깨우는 차이·차별 교육이 있어야 한다.

● 개괄 :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청소년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혹은 청소년 서로 간에)을 통해 일상 속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차별적 행동, 말 등을 드러내도록 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편견, 고정관념 등 차별로 이어지는 자신의 일상적 모습을 돌아본다. 이어서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왜 인권의 기본적 내용이 되는지에 대해 + 차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강연한다.

2. 차별감수성 다운로드 (40분) : 진행 - 바람, 은채

① 일상 속의 차별을 드러내는 낱말을 뽑고, 모둠별로 어떤 차별적인 상황이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하고 스틸사진을 만들어 본다. 낱말을 고르고 3가지 상황(학교, 집, 기타)중 하나를 골라 상황에 따른 차별을 찾아 본다.

<예> 남자답다는 말과 집을 연결..집에서 누나는 여자라서 울어도 아무 말 안하는데, 내가 우니까, 남자답지 못하다고 아빠한테 혼났다.

어리다 / 여자,남자답다 / 학생답다 / 날씬하거나 뚱뚱하거나 / 빈티난다 / 둔하다

② 모듬은 3~4명으로 구성하고, 각각 한 모듬에서 1가지의 스틸사진을 준비한다. 말풍선을 2~3개 준비해서 상황에서 있을법한 이야기를 적는다.

③ 모듬의 스틸사진을 보고, 다른 모듬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맞힌다. 준비한 말풍선을 소개하며 어떤 상황인지 밝힌다.

④ 다른 모듬에서 상황과 연결되는 또 다른 차별의 사례를 간단히 듣는다.

⑤ 정리 : 질문던지가 차이와 차별/ 차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느낌/

차별은 불쾌하고, 때로는 슬퍼지고, 화도 난다. 하지만,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는 상황에 있기도 한다. 내안의 차별을 들여다보자.

3. 내 안의 차별 (40분) : 진행 - 무명, 공현

① 모둠별로 이야기쪽지를 나눠준다. 모둠은 4~5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야기쪽지는 청소년들 사이의 차별사례로 구성한다. (25분)

규율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 경멸 -무명

다른 모습, 다른 말투(성소수자, 탈북이주민 등)에 대해 비웃기 -공현

성적이 낮은 경우에 무시 -바람

유행과 다른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무시 -은채

- 규율에서 벗어난 행동

“늦새바람은 산 위로 바람을 높게 날려버리는 장치로 어찌구저찌구...”

이 선생의 수업은 언제나 즐기고 영양가 없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교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피곤해서 즐고 말았다. 즐고 말았다.

‘툭! 퍽! 퍽!’

뒷통수에 굉장한 통증과 함께 나는 비명을 질렀다.

“왔 뉘야!”

뒤에서는 키득거리는 소리와 함께 학생들이 주먹으로 나를 때리고 있었다.

“졸지마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 수업권이 침해받아.”

“니가 선생도 아닌데 왜 날 때려? 내가 조는 게 누구 피해줬어?”

‘퍽! 퍽!’

이유같은 건 없었다. 아니 유일한 이유라면 나는 교실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기존의 불문율을 어겼을 뿐이다. 이 녀석들은 결코 그 규율에 대해 의문점을 가져본 일이 없을 것이다. 날 때린 녀석이나, 자기는 때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키득거리는 녀석들이나.

- 성적 소수자

성원이는 목소리도 가늘고 내성적인 편으로, 현재 17살 남자아이이다. 공부라도 잘 하면 그나마 집에서 좀이라도 이쁨을 받았으나 성적도 별로 안 좋다. 성격과 외모 때문에, 그리고 “호모새끼”라고 남자애들 사이

에 소문이 났고 여러 가지 괴롭힘이나 놀림을 견디다 못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상태다.

명절 때만 되면 친척들은 성원이를 보면 혀를 끝끝 찬다. “사내새끼가 저래서 어디 써먹겠어?”라거나 “군대는 어떻게 갔다 오냐” 같은 말은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부모도, 하는 것이 미덥지가 못하고 학교도 그만둔 성원이를 그리 예뻐하지는 않는다. 성원이는 “호모새끼”라고 따돌림 당하던 경험 때문에 약간의 대인기피도 보이고 있지만 부모는 그걸 단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제대로 하는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검정고시를 쳐서라도 고등학교를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한다.

정작 성원이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갖지 못한 상태다. “난 정말 호모일까?” 성원이는 남성에게 연애감정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남녀 사이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고 또 영화나 소설을 봐도 그런 게 당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라도 남자를 좋아하면 변태가 되는 건 아닐까, 우정을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계속한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너무 남자스럽지 못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 등등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

- 경제적 어려움

사회 수행평가로 우리 모둠에서 ‘20세기 전쟁’을 조사하게 됐다. 근데 하필이면 우리 모둠에 성빈이가 끼게 뭐야. 같이 하고 싶은 애들이랑 모둠활동하게 해주면 좋은데.. 선생님은 제비뽑기 같은 걸 해가지고... 수업시간 발표 때문에 애들이랑 학교 끝나고 맥도널드에 모였다. 불고기버거, 트윈버거, 치킨버거... 성준이는 벌써 햄버거를 두 개째 먹고 있다. 모두 배고팠기 때문에, 진짜 맛있게 햄버거를 먹었다. 물론 성빈이는 성준이가 세트에 시킨 버거에 딸려 나온 포테이토만 말없이 먹고 있었다. 성빈이의 손가락을 계속 바라보고 있던 준하가 “야, 너도 시켜!”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빈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다른 애들도 아무 말 안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모두들 성빈이와 준하의 눈치를 보며 말이 없었다. 왜냐면 준하가 일부러 한 말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랑 각자 조사할 내용을 정했다. 성준이는 전쟁사진, 나는 전쟁 무기, 준하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랑 피해, 성빈이는 전쟁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거의 다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성빈이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빈이는 컴퓨터가 없어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준하가 “피씨방 있잖아!”라고 소리쳤다. 성빈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다른 애들은 모두 팔짱을 끼고, 성빈이를 쳐다봤다. 지켜보던 성준이가 “에이씨, 찌질하게 맨 날 저래”라며 일어서더니, “너, 빠져!”라고 소리치고 가버렸다.

발표하는 날, 결국 성빈이를 빼고 우리끼리 했다. 선생님이 “성빈이도 같은 모둠 아냐?”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 탈북이주 청소년

중학교 첫 학기가 시작하는 날이었다. 담임 선생님의 말에 따라 모두들 교단에 한 명씩 나가서 자기 소개를 간단간단하게 하고 내려오고 있었다. 조례시간에 다 못한 애들은 종례시간에 자기소개를 했다. 애들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자기소개를 후딱후딱 해치우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그중에 올라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애가 있었다. 그냥 건성건성 들어넘기던 나는 좀 짜증이 났다. 얼른 집에 가서 좀 놀러 그러는데 왜 저렇게 시간을 끄는 건지..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하고 머리가 짧은 편인 그 애는 담임 선생님이 재촉하자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안녕? 내래 김정희라 한다."

어디 사투리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색한 말이었다. 교실은 금세 웃음바다가 되었다.

한층 말수가 적었던 정희는 무슨 말을 꺼낼 때마다 장난기 심한 몇몇 남자애들이 그 말을 흉내내고 놀리는 것 때문에 점점 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하루종일 학교에서 거의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어느샌가 출처가 불분명한 정희가 북한에서 왔다는 소문이 전교생에게 퍼져 있었다. 정희를 놀리는 데 주도했던 애들은 그걸 정희를 더 놀리는 소재로 이용했다. 나도 처음에는 애들이 정희한테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워낙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서 그냥 같이 웃고 떠든다. 가끔씩, 친구도 별로 없는 정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

③이야기 쪽지의 상황에서 자신이나 다른 청소년들이 대하는 행동과 말은 어떻게, 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살펴본다. 그것을 그 사람을 둘러싼 말풍선들로 표현해본다.

④ 내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일지 이모티콘 같은 걸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한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 교육이 감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강연에서 보충

강연 : 석진한테 부탁. 강연 내용에는 역차별, 간접차별, 차별의 구조적 요소 등에 대한 이야기.

달마다 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 2002년 자살한
청소년의 유서에서

“빨강물고기” 라니, 웬 괴악한 작명센스나구요?
 갑갑하고 좁은 어항 속에서 사육당하듯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그 속에서 **청소년인권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바로, **빨강물고기**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청소년 분들에게 코딱지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차별이야기, 학교에서의 인권 이야기, 청소년의 독립 이야기, 청소년 인권운동의 어려움 이야기...

다양한 주제와 인권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청소년인권운동을 기웃거리시는 분들 모두 부담없이 오시길~~ ^^

5월 셋째주 토요일부터 11월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빨강물고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5월 개워봐! 인권감수성~ 차별감수성!

때 : 2008년 5월 24일 2시~4시
 곳 : 인권운동사랑방 큰 회의실 (바깥수도 있어요)

- 하나** 차별감수성 다운로드~
남심 아니면 동동이라고? 여자답게, 남자답게? 동화답고?
불쑥불쑥 튀어 나오는 차별의 명동... 꼭꼭... 잘근잘근...ㅋㅋ
- 둘** 내 안의 차별
숨어 있는 내안의 차별 마주하기
- 셋** 끄덕끄덕!
차별에 대한 결코 길지 않은 이야기

청소년이기에 혹은 OO이기에 차별받아야 했던 기억들,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상처입히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cafe.daum.net/youthhr

* 자세한 문의는 카페 사이트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주세요

병헌, 「[일어나라, 인권 OTL] ‘어린 것들’ 차별할 땐 이렇게 외칩시다- ‘달마다 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첫 교육 현장」, 한겨레21 제713호, 2008. 06. 04.

[일어나라, 인권 OTL] ‘어린 것들’ 차별할 땐 이렇게 외칩시다

‘달마다 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첫 교육 현장

▣ 병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일어나라, 인권 OTL④]

5월24일 ‘달마다 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란 이름의 청소년인권 교육이 열렸다. 11월까지 매달 진행할 프로그램의 첫 모임이었다. ‘빨강물고기’는 ‘갑갑하고 좁은 어항 속에서 사육당하듯 살아가는 청소년의 현실’ 속에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달의 주제는 차별. ‘깨워봐, 인권 감수성~ 차별 감수성!’이란 제목으로 일상적인 차별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인권교육센터 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인권에 관심이 있거나 청소년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우선 일상 속에서 쉽게 나타나는 차별을 드러내는 낱말을 각 모둠별로 뽑았다. 참가자들은 몸동작으로 구체적인 차별 상황을 직접 정치화면으로 묘사하고, 오기는 말들이 적힌 말풍선을 만들어 발표했다.

“짐 들어줄게, 쥘.”(남) “어? 괜찮은데...”(여) 남자가 여자의 짐을 억지로 들어주려는 장면을 통해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차별을 표현했다. 신체검사 때 몸무게 등을 큰 소리로 불러주고 기록하는 현장에서 “재, 왜 저렇게 뚱뚱해? 저런 돼지!”라고 친구들이 쑥덕거리는 모습에는 외모에 대한 차별과 개인정보를 함부로 취급하는 학교의 모습을 담았다. 또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라며 촛불문화제에 나간 청소년을 감시하러 나온 교사들과 “이런 건 애들이 보면 안 돼!”라며 영화에 가위질을 하는 모습을 통해 나이에 따른 차별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을 차별할 때 주로 이야기되는 여러 차별의 논리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연습을 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지”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등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말에는 “학생이기 전에 인간!” “나를 위한 게 뭔지는 내가 결정해” 등의 말로, 그리고 “사랑은 남녀끼리만 해야지”라며 동성애자 정체성을 차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등의 말로 받아치지는 의견이 토론 내내 튀어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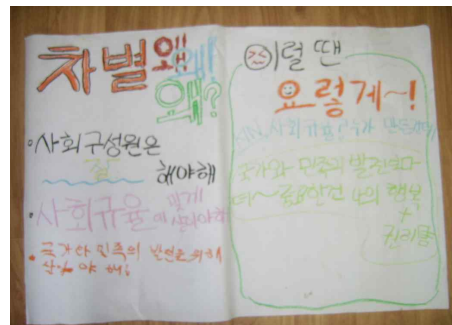
차별은 어려운 주제다. “차이를 차별 하면 안 돼” 같은 ‘좋은 말’은 쉽게 다가오지만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만만치가 않다. “청바지를 입는지 면바지를 입는지, 안경을 끼는지 안 끼는지와 같은 차이는 차별하지 않으면서 왜 동성애·장애·성적·나이 등의 차이는 차별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그 안에 권력관계, 사회적 서열화의 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차별을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빨강물고기’ 참가자들에게 던지면서 첫 시간이 끝났다.



△ (사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공)

다음 달 교육은 6월21일. 참가 신청은 전자우편(youthhr@chol.com)으로 하면 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홈페이지(cafe.daum.net/youthhr) 참조.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5월〉 소장사진, 2008. 05. 24.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6월〉 프로그램, 2008. 06. 21.

빨강물고기 두 번째 시간

그려봐 삶 속에서의 인권! (총 2시간 정도 소요)

0. 몸풀기 맘열기(15분)

새와 등지
자리바꾸기

1. 인권지도 그리기 (15분)

- 학교와 집 두 공간을 전지에 그림(평면도)으로 미리 그려서 가져감. 하나는 비워서 학교와 집 외의 다양한 공간을 자유롭게 그리기.
- 포스트잇에 평소에 인권침해라고 느낀 것을 각 공간 별로 써서 붙임.
- 포스트잇에 쓴 내용을 진행자가 읽으면서 소개하고 설명이 필요한 것 몇 가지는 쓴 사람이 직접 이야기 하기

2. 인권의 신호등(50분)

- 4모둠으로 나누어서 학교와 집으로 나누어서(역시 제3의 공간을 만들지 말지 고민) 학교나 집에서 인권이 잘 지켜지는 것,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것),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 것을 각각 녹색 적색 노란색에 적기. 이 과정에서 모둠 안에서 토론을 함. (20분)
- 모둠 안에서 토론된 것과 신호등 결과를 발표. 발표를 다 한 뒤 노란색에 들어간 것들을 모두 모아서 전체가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기.(20분)
- 진행자는 가장 인권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던지는 방식으로 마무리.(5~10분)

* 노란색 예상

학교 : 교복, 선후배(사이의 무시, 차별, 관계), 시험, 휴대전화, 봉사활동, 교육의 다양성이나 선택권, 흡연(음주)

가정 : 가족과의 관계, 체벌, 귀가시간(통행금지), NEIS부모조회, 성적통지, 위치추적, 돈(?)


- 쉬는 시간 10분 -

3. 우리들의 인권 뱃지(30분)

-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을 바탕으로 각 모듈별로 청소년들의 인권선언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조항을 넣을지 인권선언 조항을 5개(혹은 5~10개? 자세한 개수 정해야)씩 만든다.
- 그 인권선언 내용을 가지고서 버튼(뱃지)을 만든다.

달마다 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 2002년 자살한 청소년의 유서에서

“빨강물고기” 라니, 웬 괴악한 작명센스냐구요?
 갑갑하고 좁은 어항 속에서 사육당하듯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그 속에서 **청소년인권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바로, **빨강물고기**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청소년 분들에게 코딱지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차별이야기, 학교에서의 인권 이야기, 청소년의 독립 이야기, 청소년 인권운동의 어려움 이야기...
 다양한 주제와 인권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청소년인권운동을 기뻐하시는 분들 모두 부담없이 오시길~~ ^^

5월 셋째주 토요일부터 11월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빨강물고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6월 **그러봐! 삶 속에서의 인권들**

때 : 2008년 6월 21일 2시~4시
 곳 : 남산 미지센터

- 하나** 인권지도 그리기
 교문에선 두발규제, 집 현관문에선 통금시간... 우리가 사는 곳 여기 저기 널려 있는 인권침해들.. 지도로 그려보기!
- 둘** 인권의 신호등
 이걸 인권침해! 이걸 잘 된 인권보장! 이걸 좀 긴가민가; 우리 인권 현실의 신호등~
- 셋** 우리들의 인권 배지!
 청소년인권의 한 마디, 가슴에서 가슴으로, 가방에서 가방으로!

학교, 가깝 기타 등등... 일상 속에 나타나는 인권침해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 어렵게만 보이던 "인권". 이제 네 삶 속에 청소년인권을 초대해봐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cafe.daum.net/youthhr

* 자세한 문의는 카페 사이트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주세요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7월〉 프로그램, 2008. 07. 26.

0. 몸풀기 mamyeolgi

- 반지의 제왕 ~ 호빗과 오크와 마법사 일종의 가위바위보
- 꼬리게임 ~ 연결해서 하는 자기소개 (필요하면 하고 안 필요하면 안 하고..)

1. 부루마블 가출 ver

- 10개 정도의 징검다리를 보드게임으로 넘어가면서 가출청소년들을 곤란하게 하는 상황들에 마주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해본다.

나는 밤 11시에 부모님과 () 때문에 싸우고 가출해버렸다.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단돈 2만원뿐. 어떡할까?

1. 밤에 잘 곳이 없어 : 친구집 짐질방(못가는데?) 경찰서 공원 지하철역
2. 가출했는데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3. 학교에 갔는데 교사가 가출한 걸 알고 집으로 보내려 한다. ~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왔다
4. 등교문제, 교복과 책, 준비물, 급식비, 등록금
5. 친구들의 수근거림 혹은 도움...
6.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부모동의서가 필요하네
7. 아르바이트 저임금 노동착취 + 인권침해
8. 없혀살던 친구 집에서 더이상 재워주기 곤란하다고 한다
9. 이가 아픈데 치과 갈 돈도 없고 의료보험증도 없고..
10. 촛불집회에서 연행됐는데 다른 청소년들은 다 훈방했는데 보호자가 안 온다고 안 풀어주네...
11.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비용이 없어 ㅠ

빨강물고기(황금열쇠??)

: 원할 때 다른 사람과 말을 바꿀 수 있다,

집으로 잡혀 들어가서 다시 싸우고 가출-처음으로 돌아가시오,

장기자랑??)

광

함께 살 친구들을 구했다.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서 독립이 코앞으로 곧 5칸 전으로

- 2~3명이 한 팀. 안정적인 가출생활(골)에 먼저 도착하는 쪽이 승리.
- 칸에다가 번호를 써두고 걸릴 때마다 상황 쪽지를 뽑는 식으로 한다. 상황 쪽지는 1번 뽑은 건 다시 넣어서 섞고, 2번째 나온 것은 폐기한다.
- 각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 상황에 대해 모두 안에서 토론을 한다. 먼저 그 상황에 걸린 팀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에 대해 다른 팀들이 조언을 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다른 팀들이 같은 상황에 계속 직면할 경우 어떻게 할까??)


30~40분 정도 소요될 듯?

2. 독립을 향하여

- 5명씩 모둠을 지어서 모둠별로 각각 리스트를 만든다.
- 리스트 내용은 청소년들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
- 리스트를 세로로 양쪽으로 나눠서 오른쪽에는 '독립적인 삶을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쓰고 왼쪽에는 청소년들의 독립을 위해 이 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들(조건, 제도, 지원 등)을 5개 이상씩 쓴다.
- 발표한다.

달마다 하는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 2002년 자살한 청소년의 유서에서

“빨강 물고기”라니, 웬 괴악한 작명센스나구요?
갑갑하고 좁은 어항속에서 사육당하듯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그 속에서 청소년 인권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바로, **빨강물고기**입니다. 🐟

자유로워지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청소년 분들에게 코딱지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를하여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차별이야기, 학교에서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독립이야기, 청소년 인권 운동의 어려움 이야기...
다양한 주제와 인권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청소년 인권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청소년 인권운동을 기웃거리시는 분들 모두 부담없이 오시길 ^^

☆한달에 한번씩☆
빨강 물고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7월 쏘뽀와! 우리들의 독립

때 : 2008년 7월 26일 토요일 2시~4시
 곳 : 남산 미지센터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4번 출구)

독립! “대한독립만세” 말구~ 우리들 삶의 독립!
 집, 학교, 이러이 사회속에서 우리들, 과연 독립적인가요?
 청소년들의 ‘독립’ 과 ‘인권’
 뗄 수 없는 이들의 관계를 나날이 들여다 봅니다.

하나. 독립 찾아 삼만리
 집을 나서고 만나는 황당하고 막막한 순간들!
 삼은 어디서? 돈은 어떻게?
 옷이 꾸질꾸질해졌는데, 애인과 데이트는 어떻게?!
 재밌는 보드게임을 통해 열외자들을 찾아와요~

둘. 나, 독립한다
 만만치 않은 청소년의 독립,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다!
 독립된 삶을 위해 우리가 직접 준비해야 할 것과,
 사회가 당연히(!) 준비해 줘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cafe.daum.net/youthhr

youthhr@chol.com
 *자세한 문안은 카페나 이메일을 이용해주세요.

타이루, 「[내 말 좀 들어봐]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 할까- 가출소년 타이루, 자유를 찾아 집을 나온다」, 인권오름 제 86호, 2008. 01. 09.

[내 말 좀 들어봐]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 할까

가출소년 타이루, 자유를 찾아 집을 나온다

타이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신발을 걸치고 도망쳐 나온 그날

난 2006년부터 청소년인권운동을 해왔다. 집에서는 '어린 것이 뭘 아냐,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빨갱이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학교나 열심히 다녀라, 쪽 팔린다' 이런 반응이었다. 가족들은 몇 달 저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애가 점점 더 빨개지는 것 같고 머리만 커지는 것 같으니깐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통금시간이 생기고, 컴퓨터를 할 때마다 감시를 받고, 통화 내역도 조회하고, 주변 친구나 활동가들 연락처를 여기저기서 모아서 연락망까지도 은밀히 만들었다. 난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부른다. 학교에 전화해서 내 학교생활과 친구에 대해 알아내는 건 기본이었다. 짐이랑 학교가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 통화하는 것도 물론이구. 너무 화가 났다. 나를 통제하고 보호하려고만 하고, 나와 대화는 하려 하지 않는 그런 자세와 행동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뒤통이 캐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고 화가 났다.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쁘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해도 듣는 등 마는 등 하면서, 내가 잘했으면 내가 이러겠냐면서 오히려 나한테 화내고……. 쥐뿔도 없는 나는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 사람들로부터 독립할 힘도, 돈도 그 무엇도 없었으니깐. 그렇게 싸우다 지고, 외출금지 당하면서 겨우겨우 살았다.

2007년 11월 11일에 큰 집회가 있었다. 며칠 전부터 뉴스에서 경찰이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강경대응 하겠다 어찌겠다 하면서 난리를 쳐서 엄마아빠는 내가 저기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보다. "일요일에 교회 갔다 어디도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왜 특히 집회는 절대 가지 마!"라고 경고를 했다. 순간 급당황;; 하지만 가고 싶었던 집회고, 무조건 집회 가지 말라고 협박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더 짜증났다. 그래서 정성 가득 감동적인 편지를 한 장 써놓고 집회에 갔다. 편지 쓰면서 집에 가면 육먹고 일주일 정도 외출금지 당할 거라고 대충 예상은 했었다. 통금 10분전. 집회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집안 분위기가 완전 얼음장이었다.

아빠가 나를 죽일 듯이 찌러보더니 어디 갔다 왔냐, 왜 갔냐, 왜 엄마 아빠 말 씌고 가냐, 죽고 싶으면서 취조와 협박을 하셨다. 난 완전 쫓아서 개미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다 오늘은 참는다는 듯이 “이제부터 무기한 외출금지다. 엄마아빠 있을 때만 허락받고 컴퓨터 켜고 숙제만 해라. 텔레비전 보지 말고 성경말씀 읽어라!” 헐;; 이런 표정으로 문 쪽에 얼어붙은 채 가만 서있었다. 그때 방에서 날 찌러보던 아빠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더니 내 머리를 잡아당겨 내동댕이치면서 패기 시작했다. 마음이 얼어서 그런지 아주 많이 아프지는 않았다. 근데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 무서웠다, 아빠의 그 살기어린 눈빛이. 그때 엄마가 외치더라구. “왜 애를 때요? 차라리 내보내요.” 그 순간 난 본능적으로 신발을 걸치고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는 지금 없혀시는 집으로 달려갔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던 따이루~

돈 나갈 구멍은 많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집을 나오고 나니 하나에서 열까지 다 힘들다. 그 중에 좀 더 많이 힘든 것 중 하나는 텅텅 빈 지갑! 계획된 출가가 아니라서 모아둔 돈도 없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인맥도 없고, 알바를 하려고 해도 노동부의 허가증이 필요한 나이여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다. 지금 없혀시는 곳은 신림이고 학교는 구로여서 학교를 가려면 버스와 지하철을 타야 해서 차비도 많이 든다. 밥 사먹느라 또 돈 들고……. 수업은 없는데 지출만 생기다보니 빚이 몇 만원이나 생겨버렸어. 거기다 앞으로 급식비에, 학교운영지원비에, 고등학교 가려면 입학금에 교복 값, 준비물 값, 소풍·수련회비도 내야 하는데……. 아프면 병원비도 내야하고 계속 없혀살기 그러니까 월세도 내야 하는데……. 아무리 아껴 살아도 돈 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우울했다. 그래서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간절히 느끼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 중 하나가 무상교육이었는데, 엠비(MB)가 되셨으니 투잡(two job) 뛰어야 겨우 학교 다닐 것 같다— 이런……. 아픈 것도 걱정이다. 특히 의료보험적용 힘든 치과. 난 이가 성하지 않은데,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 못갈 생각하니깐 너무 싫어 미칠 거 같다. 투잡도 모자란 것 같다. 추가 부업으로 인형 눈이랑 봉투도 열심히 붙여야겠다!

두 번째로 날 힘들게 하는 건 보호 알바를 하려 해도, 핸드폰을 만들려 해도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 보호자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손꼽힐 정도다. 그나마 엄마와 옛날에 했던 약속 중 하나가 '고등학교 입학에 한해서 보호자 동의를 해 준다'여서 고등학교 갈 돈만 되면 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삶이고 내가 할 일들인데 나보다 왜 보호자가 중요한 걸까?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부모님이 갔으면 하는 길이 다른 건 당연한 거잖아. 둘은 분명 서로 다른 인격체니깐!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도 축소판도 아닌 한 인격체잖아. 그런데도 청소년에게는 선택할 권리도,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갈 권리도 없다.

이런 세상에서 나 혼자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 막막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다칠지 모르지만 세상은 돈 없으면 죽으라고 하니 더 막막해진다. 그리고 보니 왜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면 이런 미친 세상으로부터는 우리 보호하지 않는 거지? ㅋㅋ



“걸리면 집에서 쫓겨나.” 청소년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활동을 할 수는 없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 할까

가출 후 선생님의 중재로 엄마와 협상(?)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협상은 그냥 엄마와 나의 생각 차이만 확인하고 별 진전 없이 끝났다. 그렇게 두 달이나 지났다. 정해진 것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면서 살다보니 그런지, 사는 게 불안정해서 그런지 폐인생활 모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엄마에게 메일을 보냈다. 엄마는 건강하게 지내라는 말만 하셨다. 그래서 직접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양보안을 내놓았다. 그러다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엄마는 '통금 7시!'를 계속 주장했다. 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통금시간이 오후 7시면, 친구들과하고 놀지도 못하고 인권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랑 다름없다._

하지만 이 협상에서 인권운동 하는 걸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오직 깡 하나만 갖고 하는 이런 불공정한 협상에서 이 정도 성과를 건져 내다니, 부라보~ 노동자들이 회사랑 싸우는 거랑 청소년이 집이랑 싸우는 거는 상당히 비슷하다. 노동자나 청소년이나 '깡' 하나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기계를 멈추고 서비스를 중단할 '깡', 집을 나올 '깡'. 그나마 노동자들은 빈약하게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만, 가출한 청소년은 법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 청소년의 가출할 권리, 독립적으로 살 권리도 노동자의 파업권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 아닐까. 이 권리를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나와 부모님의 생각 차이는 두 달 정도의 가출로는 뛰어넘기 힘들 것 같다. 집에 들어가는 조건인 '무조건적인 오후7시 통금'에 동의할 수 없기에 난 여전히 집을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독립해서 사는 걸 꿈꾸고 있다.

가출 후에 찾은 길

가출을 한 후에 얻은 게 은근히 많다. 미역국 안 질기고 적당히 담백하고 고소하게 끓이는 법, 김치볶음밥 타지 않고 맵지 않게 만드는 법, 김치찌개 고소하고 얼큰하게 끓이는 법,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는 법, 빨래를 깨끗이 냄새 안 나게 하는 법, 청소 빨리 잘 하는 법 등등과 같은 생활의 지혜를 배웠다. 당장 내 앞의 일들과

좀더 먼 미래에 대해 계획도 세우고 의지도 다졌다. 나를 지지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필요할 때 태클도 넣어주는 진짜 친구들도 만났고, 집에 있었다면 하지 못했을 추억들도 만들었다. 그리고 8만3천원의 빚(ㅋㅋ). 가장 큰 건 '나를 찾으려 노력했고 '나를 찾을 길을 발견했다는 거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자유롭게 외치면서 난 나를 찾아 나갈 거다.

가출 후 힘들어 하면서도 좋아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가족이라는 건 분명 이 사회에서 가장 따뜻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가장 폭력적으로 될 수도 있는 공간이다. 가족이 나에게 주었던 보호와 억압의 벽을 부수고 나온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지금이, 내가 보이고 내가 개척하는 이 길이 좋다. 후회는 없다.

[끄덕끄덕 맞장귀]

집을 나온 뒤 친구네에 얹혀살며 두 달이란 긴 시간을 보낸 파이루. 워낙에 단단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라, 자유가 주는 달콤함과 여유 때문인지 때론 배짱이 정말 두둑해보여 큰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막막함과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10대 때 청소년 인권을 포함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가족들이 말리거나 금지해 활동을 접는 청소년을 여럿 보았습니다. 가족에게 생존과 교육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의 처지에서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부모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게 자식 된 도리라고 가르치는 사회에선, 부모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사회에선, 청소년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지 않는 사회에선 더욱 그렇겠지요. 그래서인지 인권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을 약속받기 위해 거리로 나선 파이루의 싸움이 더욱더 힘겨워 보이고 안쓰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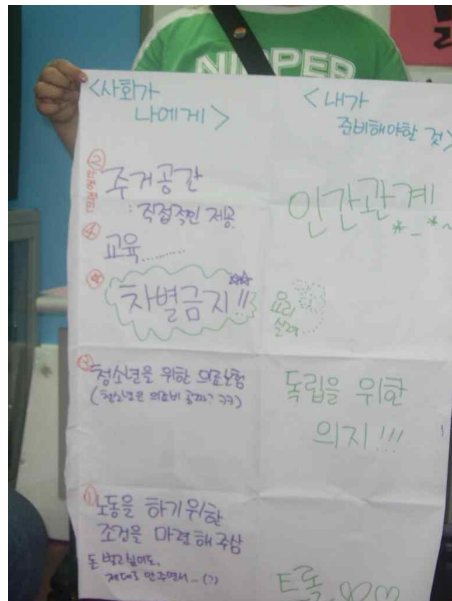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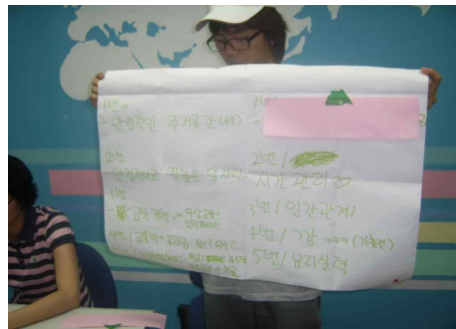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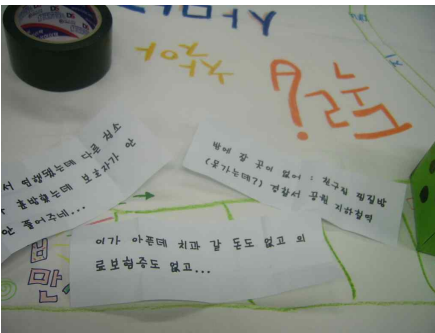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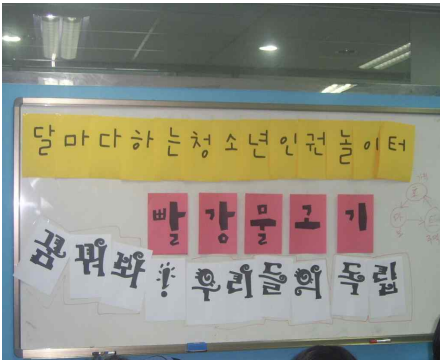
대개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온 청소년에게는 철없는 아이, 반항적인 아이, 위험에 빠지기 쉬운 아이라는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생고생하지 말고 양보하고 집으로 들어가라'라는 충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백기 투항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삶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사실 그/녀들이 부모와의 싸움에서 아무런 패도 내릴 수 없는 약자라는 사실은 간단히 맞습니다.

최초의 동지를 떠난 청소년은 아무 자기 보호막도 없이 차가운 거리에 서고 살아남기 위해 위험하거나 착취적인 관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다행히 파이루는 피신에서 가출, 독립으로 이어지는 그의 삶을 지지해주고 먹을거리도 챙겨주는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있는 집 청소년은 유학이다 연수다 해서 부모와의 갈등을 잠시 회피할 수 있겠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어쩔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집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든, 청소년이 주어진 동지를 떠나 독립적으로 새 동지를 만들 권리가 보장된다면, 그 세상은 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안락한 삶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부모가 지어준 동지를 떠나지 않으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요즘, 안락함을 포기하는 대신 자기 길을 찾아 나선 파이루가 더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이 싸움에서 파이루가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뜻도 용기도 열망도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루가 좀더 유리한 위치에서 부모와의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버티는 시간 동안의 고단함을 지켜보고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배경내]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7월〉 소장사진, 2008. 07. 26.



달마다 하는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빨강 물고기"라니, 웬 괴악한 작명센스냐구요?
 갑갑하고 좁은 어항 속에서 사육당하듯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그 속에서 청소년 인권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바로, 빨강물고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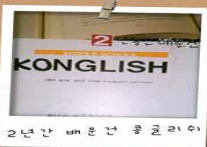

자유로워지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청소년 분들에게 코딱지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름하여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차별 이야기, 학교에서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독립 이야기, 청소년 인권운동의 어려움 이야기...
 다양한 주제와 인권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청소년 인권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청소년 인권운동을 기웃거리시는 분들 모두 부담없이 오시길 ^.^

8월 교과서 속 인권의 모습들, 뒷담화 까기


때 : 8월 23일 토요일 2시~4시
 장소 : (미정)

달떡, 봉어, 책갈수항... 교과서 표지를 비틀고 비껴기도 재밌긴 하지만
 이제 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인권 이야기 캐부라기.
 청소년이나 약자들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꼬리케라~스런 이야기들을 뽑아봐요!

★ 하나, 교과서해부실습

학교에서 성경처럼 통하는, 구멍이 나도록 밀줄치고
 외워야 하는 교과서. 하지만 구석구석 숨어있는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 하는 무서운 내용들!
 신나게, 속 시원하게, 찢고 뜯고 뽑아봐요~



★ 둘, 학교에서 배울 것

지금은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과서를 영양분있게 채워보자!

청소년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자세한 문의는 카페나 이메일을 이용해주세요.
 cafe.daum.net/youthhr youthhr@choj.com

엠건, 「[내 말 좀 들어봐] 틈 없는 교과서가 만드는 틈 없는 시야- 교과서 속 반인권적인 부분 찾기」, 인권오름 제 122호, 2008. 10. 01.

[내 말 좀 들어봐] 틈 없는 교과서가 만드는 틈 없는 시야

교과서 속 반인권적인 부분 찾기

엠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빨강물고기]**에서 '교과서 속 반인권적인 부분 찾기'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생각보다 태클 걸 부분이 무지막지하게 많았다는 점이다(참고로 내가 봤던 건 중학교 도덕 교과서였다). 단순히 많은 차원을 넘어서서 한 페이지를 통째로 찢어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게 참, 그동안은 교과서가 이따위로 막장인 걸 왜 몰랐을까 싶었다. 모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긴 했다.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까기 위해 교과서를 살펴본 적도 교과서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교과서는 읽고 생각하라고 있는 책이 아니라 보고 외우라고 있는 책이었으니까. 그리고 난 그 원칙에 충실해서 시험 때면 꼬박꼬박 '달달 암기'를 행하고 그 대가를 받았었다.

일회용품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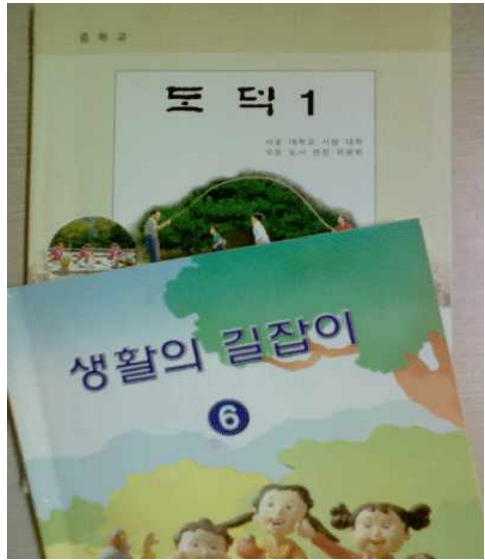
뭐, 열심히 외웠다고는 해도 교과서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공부할 정도로 순진했던(바보였던) 건 아니다. 다음 날 문제 풀 때 헤매지 않을 정도로만 내용을 뇌 한 편에 쟁여둘 뿐, 뭐라 그러건 마음에 담지는 않았다는 소리다. 다들 그랬을 거다. 어차피 시험용 공부는 시험 끝나면 버리는 일회용품이고, 교과서는 지혜의 샘 따위가 아니라 끈대들의 지루하고 재수 없는 연설모음집+짜증날 정도로 뻑뻑한 '암기의 서'일뿐이다.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영향적이나 주기에는 권위가 없어도 너무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 외우고 버릴지라도 반복해서 접한다. 국민이 어찌고 세계화 시대가 어찌고 매일 보는 교과서에 매년 등장하는 식상한 문구들은 어느 샌가 머릿속에 자연스레 저장된다. 이런 문구들은 특히 논술 시간이나 수행평가 글짓기 시간에 빛을 발한다. 쓸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 보면 창의성 없는 뇌가 자동적으로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와 주장들을 기계적으로 주워섬기고 있다. 출처는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등 해마다 네 번씩 외우고 까먹기를 반복했던 교과서들이다. 캐무시 받던 교과서는 어느 순간부터가 아이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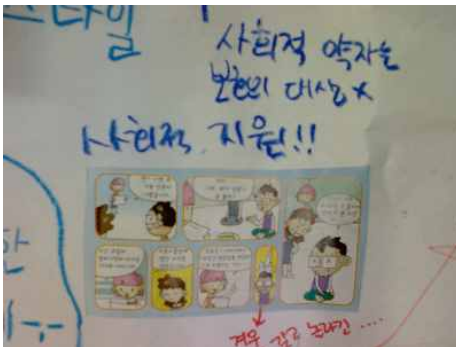
사고를 지배하며 ‘보이지 않는 꿈꿨이’를 실현한다.

이. 따. 구로 생겨 먹어도 되는 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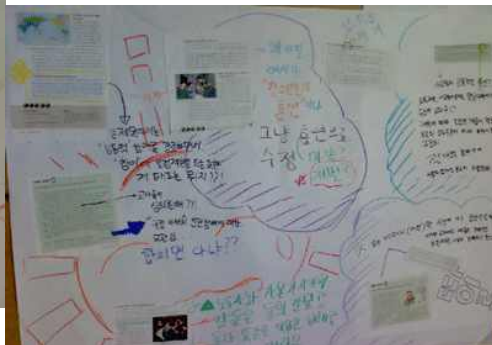
내가 교과서에 대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점은 이것이 세상의 다른 면을 볼 수 없게 만들 만들뿐더러, ‘다른 면’이 존재한다고 의심조차 할 수 없도록 ‘잘(자주) 보이는 것’만으로 시야를 꽉 채워둔다는 점이다.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바른 모습 따위를 늘어놓으며 당연시 하는 남성과 여성의 사랑, 애국애족의 정신을 쉴 새 없이 찬양하며 떨구어 두는 ‘붉은악마 신드롬’의 밀밥, 부채질 하느라 한가로운 어르신과 음식 하느라 정신없는 여인네들의 대조적인 그러나 훈훈한 색채로 그려진 풍경삽화. 이성애, 애국애족,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 친척과 이웃(어른들)에게 지켜야 할 예절 등등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지는 당연한 가치들이다. 교과서는 이성애 중심주의가 동성애자들에게 가혹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주의가 촛불집회 탄압과 같은 국가권력의 횡포를 정당화하고, 가부장제에 무비판적인 삽화가 여성을 가사노동의 굴레 속에 한없이 가둬두고 나이주의를 끝없이 대물림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철저히 ‘주류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져있고, 힘 있는 자들이 만드는 교과서는 재벌들이 만드는 경제 교과서(전경련 제작 중학교 경제 교과서)의 경우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치를 주류의 것으로 만든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



교과서 속에 숨어 있는 반/비인권적인 내용들



교과서가 가린 세상의 틈

학교 담장에 둘러싸인 일상부터 교과서까지 청소년들에겐 세상의 가려진 면, 그 곳에 있는 고통을 들여다 볼 시야의 ‘틈’이 없다. 일 년에 네 번씩 교과서를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하다보면, 안 그래도 흔히들 하는 “남자 친구/여자 친구 있어?”라는 물음과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지.” 같은 훈계가 너무나도 당연해진다(심지어 교과서까지 이것들을 외치는데, 잘못됐을 리가 없잖아?). 이런 물음과 훈계에 태클을 거는 목소리를 들을 ‘틈’이 없다. 틈 없는 세상의 청소년들은 놀랄 정도로 짹 짹 막혀있다. 반 친구들과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많은 아이들이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해 ‘역겹다’는 말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다. 이런 반 아이들에게는 한번쯤 동성애 역시 그저 사람 대 사람의 사랑일 뿐임을 생각해보게 하는 ‘틈’이 없었다.

교과서가 하는 말을 일일이 귀 기울여 듣는 청소년이 썩 많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는 청소년들이 교과서 밖 ‘가려진 세상’의 말, 틈 사이로 들려오는 교과서 속의 가치에 저항하는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게 만든다. 교과서를 비롯하고 있는 동안에도 ‘잘 보이는 세상’, 교과서 속의 세상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라 철썩 같이 믿게 만든다. 그 세상에선 여자는 남자와 연애하는 것이 당연하고 명절 때면 엄마가 과도한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당연하지 않은 당연함. 바로, 교과서가 실현하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스운 교과서가 무서운 이유다.

[고덕고덕 맞장구]

교과서 한 장, 한 장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반/비인권적인 내용에 혀를 내두르며 ‘이런...쫄쫄’ 살짝 할 말을 잃었었지요 뚫어져라 살살이 뒤지지 않아도 말입니다. 엠건 님의 말처럼 한 장을 통째로 뜯어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혹은 문제가 너무나 많은 그런 내용들 말입니다. 연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를 외치게 만드는 우리들의 교과서들입니다.

교과서는 사회 주류의 생각과 문화만이 정답인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과 주장, 문화는 ‘틀린 것’이 됩니다. 그렇게 외우고, 시험을 보면서 ‘오답’과 ‘정답’으로 나누어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 생활양식, 문화 모두 주류가 아니면 비겁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시험에서 그저 정답을 맞히기 위해 노력했던 것뿐인데, 어느새 우리의 말과 눈과 행동은 ‘다른 것’을 참지 못하고 있지요 어느새 말입니다.

이런 교과서가 있어야만 할까요? 적어도 유사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는 있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통의 기초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교과서의 틀(아직까지 국정교과서가 있지요)과 내용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지요. 국정교과서, 출판사만 다른 똑같은 내용의 교과서들 말입니다. 그런 점에 한쪽에서 일고 있는 대안교과서와 교과서 비판은 쏘 반갑기도 합니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유포와 주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는 만들어질 수 없을까요? 우리들의 자유

로운 생각을 방해하지 않는 교과서 말입니다.

그런 교과서의 목차에는 조선 시대 어떤 왕이 주인공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역사도 있겠지요 또 이런 것은 어떨까요? 알바하고 임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과 혹시라도 돈을 떼었을 때 받아 낼 수 있는 법, 친구랑 싸웠을 때 ‘교과서대로 어색하게 화해하는 법’ 말고 마음 풀이지 않고 화내고도 잘 지내는 관계 맺기, 기출하면서 준비해야하는 것들 예를 들면 혼자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만들기 같은 것들이 목차가 되는 교과서 말이지요 [고은채]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말한다> UCC 창작 강좌

-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수신: 청소년 관련 모임/단체/언론

199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세력임을 보여 왔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조직화와 사회적 활동이 가능해진 한 배경은 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의 등장이었습니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은 활발한 정치 활동의 주체로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이용한 정보 소통과 자기조직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08년 초, 광명 진성고 학생들이 만들어서 유포한 동영상은 진성고의 학생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은 청소년들의 발언이 가능한 정치적 공간으로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온 것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UCC"(User Creative Contents. 동영상 뿐 아니라 글, 이미지, 음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콘텐츠 개념)로 대표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사 표현과 소통의 방법들을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하게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전달하는 방식, 기존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비틀거나 일부 수정하여 만들어내는 '패러디' 방식, 그리고 직접 자신이 콘텐츠를 생산해내거나 편집해내는 방식 등등, UCC의 활성화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문턱은 대폭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발언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창작 활동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활성화시키고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이나 다른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모으고 전달·배포하는 것은, 이를 접하는 다른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인권보장을 위해 행동에 나설 동기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아래 우리는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웹페이지) <청/바/다>를 만들어 운영해보려 합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동안 좁은 어항의 틀 속에 갇혀 지내왔던 청소년들이 인권과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런 활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여 표현의 자유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청바다 UCC 창작 강좌”를 꾸려보려 합니다. 앞으로 운영될 <청/바/다>에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가 꾸준히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 및 내용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강좌의 내용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단체/공간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9 청바다 UCC 창작 강좌>

5 DAY 3 COLOR 강좌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

5Day

7.27(월) 종합오리엔테이션
 28(화) 영상, 사진, 만화 강좌 gogo
 29(수) 영상, 사진, 만화 강좌 gogo
 30(목) 영상, 사진, 만화 강좌 gogo
 31(금) 발표회 및 뒷풀이

청바다는 청소년들이 바라는 세상을 말하고,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영상, 만화, 사진, 글, 음악 등)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모아내는 웹공간(홈페이지)으로, 아직은 준비 중인;; 청소년 인권 아카데미입니다.

COLOR 1 영상

2009백만 화소 고화질강좌

영상, 찍고는 싶었으나 없는 장비라 돈의 벽에 번번히 가로막혔던 이들을 위한 벽 없는 영상강좌. 촬영에서 편집까지, UCC 제작을 향해 달리고, 달리는 땀방울의 공간!

셔터가 말했다 ‘찰칵’
 세 컷으로 말하는 사진강좌

COLOR 2 사진

첫 컷- 찍는 것을 말하다
 두 컷- 찍은 것을 말하다
 세 컷- 찍어서 말하다
 신비주의 사진강좌

연습장에서 노닐던 내 그림들, 웹툰으로 승화시키기 만화강좌

COLOR 3 만화(웹툰)

그대, 그리고 싶다면 줄라맨이라도 괜찮아(ㅋㅋ) 종이와 컴
 퓨터 모니터 사이를 넘나드는
 단순심오한 웹툰의 세계. 만화, 가엾게
 한 그림본딩?



주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후원:

청바다 강좌 이모저모

1. 언제, 어디에서 하나요?

◎ 전체 일정 ◎

<p>종합 오리엔테이션: 7월 27일(월) 낮 2시-5시, '민중의집'</p> <p>- 각 강좌들에 대한 안내와 이번 강좌 테마인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 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p>
<p>발표회 및 뒷풀이: 7월 31일(금) 낮 4시-7시, '민중의집'</p> <p>- 강좌 기간동안 만든 팀.개인 작품들의 상영, 전시 와 서로 평가하는 시간</p>

◎ 개별 강좌 일정 ◎

<p>2009백만 화소 고화질 <영상 강좌></p> <p>일시: 7월 28, 29, 30일 오전10시- 오후6시</p> <p>장소: 미디어트 (시청역, 일민미술관 5층)</p> <p>강사: 권효 님, 나비 님</p> <p>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캠코더 촬영법 익히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5컷 촬영하기- 촬영 이해하기, 작품 구상 및 기획하기
--

- 편집의 기본 익히기
- 촬영본, 편집본 보면서 평가하고 수정하기
- 편집 마무리 및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기

준비물: 개인 캠코더 있으면 지참, 없어도 괜찮음.

셔터가 말했다 “찰칵” <사진 강좌>

일시: 7월 28, 29, 30일 오후 2시-4시

장소: 미지센터 모임터 ‘공존’ (명동)

강사: 토리 님

프로그램:

-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
- 사진편집 강의
- 각자 작품 만들기

준비물: 개인카메라(폰카는 살짝 곤란)

연습장에서 노닐던 내 그림들, 작품이 되다! <만화 강좌>

일시: 7월 28, 29, 30일 오후 2시-5시

장소: 스스로넷 영상편집교육실(용산)

강사: 윤성필 님, 한날 님

프로그램:

- 만화 창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툴 배우기
- 스캔해서 웹 작업하기, 색 입히기, 칸 나누기 실습

- 1컷 만화, 3컷 만화, 웹툰 등 기존 작품 보며 평가하기

준비물: 종이, 연필

2. 강좌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7월 24일 금요일까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cafe.daum.net/youthhr ‘청바다 강좌 신청 게시판’에 신청 하세요~ **강좌 당 선착순 10명**의 제한이 있으므로 땡기거들랑 망설이지 말고 질러봅시다.

자세한 문의는 **엠건(010. 9477. 3513)**에게 하시면 됩니다.

3.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 알찬 강좌를 무료로 제공해드린다는! 단, **31일 발표회** 때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하나 이상의 작품을 출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품된 작품은 이후 <청바다> 웹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

“OPEN! 청바다 UCC 창작 강좌”

청,바,다는 청소년들의 바라는 세상을 말하고 만들고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모으려고 소용하는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입니다.

웹,바,다 창작 강좌는 청소년들의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바,다 창작의 자를 정기로 강해 있던 인강프로그램의 이름을 모으며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강좌가 청소년들의 자신들의 삶과 바라는 세상을 말하고, 5월이랑 같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모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체 일 정

7.27(일) 2시-5시 : **초창 오리엔테이션**
(장소 : 방학특 근처 민주의 집)

7.28(화) 29(수) 30(목) : **각 강좌 수업**

7.31(금) 4시-7시 : **작품발표회와 추파티**
(장소 : 방학특 근처 민주의 집)

프 로 그 램

1. 갓 잡아올린 ‘영상’

영상, 찍고는 싶었지만 없는 장비와 돈의 벽에 반박의 가로막혔던 이들을 위한 벽 없는 영상강좌, 촬영에서 편집까지! UCC 제작을 향해 달리고 달리는 땀뻘뻘 3일!

일시: 28, 29, 30일 오전10시- 오후6시
장소: 미디어트 (시정역, 일민미술관 5층)
강사: 권효 남, 나비 님

프로그램:
- 간단한 캠코더 촬영법 익히기,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5컷 촬영하기
- 촬영 이해하기, 작품 구상 및 기획하기
- 편집의 기본 익히기
- 촬영본, 편집본 보면서 평가하고 수정하기
- 편집 마무리 및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기

준비물: 개인 캠코더 있으면 지참, 없어도 괜찮음.

2. 살아 날뛰는 ‘사진’

서터가 말했다 ‘찰칵’
첫컷- 찍은 것을 말한다 / 두컷- 찍은 것을 말한다 / 세컷- 찍어서 말한다... 세컷으로 말하는 사진 강좌

일시: 28, 29, 30일 오후 2시-4시
장소: 미지센터 모뎀터 ‘공촌’ (명동)
강사: 토리 님

프로그램:
-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
- 사진편집 강의
- 각자 작품 만들기

준비물: 개인카메라 (폰카는 살짝 곤란)

3. 신기한 ‘만화’

연습장에서 노닐던 내 그림들, 행복으로 속환시 키기!
그때, 그리고 싶다면 온라인이라도 괜찮아(크크)
종이와 컴퓨터 모니터 사이를 넘나드는 단순하고 한 행복의 세계, 만화, 가까이 할 그려볼터?

일시: 28, 29, 30일 오후 2시-5시
장소: 스스넷 영상편집교육실(용산)
강사: 윤성필 님, 한남 님

프로그램:
- 만화 창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툴 배우기
- 스캔해서 웹 작업하기, 색 입히기, 칸 나누기 실습
- 1컷, 3컷 만화, 웹툰 등 기존 작품 보여 평가하기

준비물: 종이, 연필

[중요] 강좌 당 신청 수 10명의 제한이 있으므로 빨리거름만 신청이지 말고 신청해야 이 일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단 3일만 발표하며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해야 자신의 작품을 출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판된 작품은 이후 청바다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

문의 : 웹건(010. 9477. 3513)
신청마감 : 7월 25일까지
신청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cafe.daum.net/youthhr

주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후원 :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UCC 창작 강좌〉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2009. 07. 27.

청바다 OT 진행안

1. 몸 풀기 마음 열기 놀이 (20분)

- 1) 알-병아리-닭
 - 2) 자리 바꾸기 놀이 : 나는 ~해본 적 있다/ 노래 부르며 친구 데려오기
 - 3) 매듭 풀기
- => 진행 : 개굴

2. 모인 우리 소개 (40분)

- 꽃 모양 종이에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단어 5가지 쓰기
 -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발표하면서, 청바다 강좌를 듣게 된 동기(나는 ~한 마음으로 여기에 왔다)도 함께 소개
- => 진행 : 엠건

3. 청바다 강좌 소개(15분)

- 청바다 기획 의도, 각 강좌 진행에 대한 소개
 - 참여자의 궁금증 해소
- => 진행 : 엠건

쉬는 시간 (15분)

4.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 - 인권 이야기 만들기 (50분)

- 청소년 인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사물/인물 사진을 골라서 이야기 만들기
 -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 청소년 인권의 핵심 내용 정리
 - 청소년 인권선언 책자 나눠주기
- => 진행 : 개굴

5. 별명 짓기 + 호칭 정리

- 별명이 없는 사람, 별명을 바꾸고 싶은 사람 위주로 진행.
-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말을 한 단어 말하면, 돌아가면서 단어로 인해

연상되는 또 다른 단어를 말하면서 이어나간다

-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동안 나왔던 단어들 중에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 또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찾아 별명으로 채택

=> 진행 : 엠진

사진 작품

★

제목 (만든이)
소개

★

제목 (만든이)
소개

★

제목 (만든이)
소개

★

제목 (만든이)
소개

★

제목 (만든이)
소개

청바다

뭔가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있는 사회를 바꾸는 것은 그 사회의 문제를 알고 다른 사회를 꿈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말하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변하는 현실이 되어갑니다.

청바다는 청소년들이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자유롭게 주고받게 하기 위해 시작된 활동입니다.

청바다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삶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고, 청소년들이 동영상, 사진, 음악 등등 다양한 수단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UCC 공모전 같은 식으로 청소년들의 표현을 응원하는 것은 덤이랄까요 ^^

청바다는 세상에 할 말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도 아무것도 없는 바다는 죽은 바다일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활, 꿈, 생각, 느낌 그런 것들 모두가 청바다를 만드는 것들이니까요. 청바다에 놀러오세요. 놀러오셨다가 맘에 들면 죽치고 있어도 좋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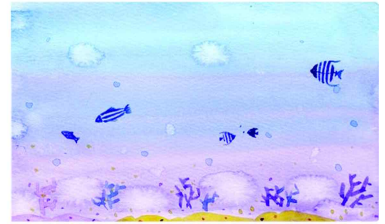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온갖 폭력에 시달리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회의 꼭두각시로 살기 싫은 청소년들, 네트워크와 함께해요~!



청바다 작품 발표회

청소년,
꿈꾸는 세상을 말하다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
만들

2009, 그 첫번째 '말하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다는 것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cafe.daum.net/youthhr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UCC 창작 강좌〉 출품작, 2009. 07. 31.



해인,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

그들식의 녹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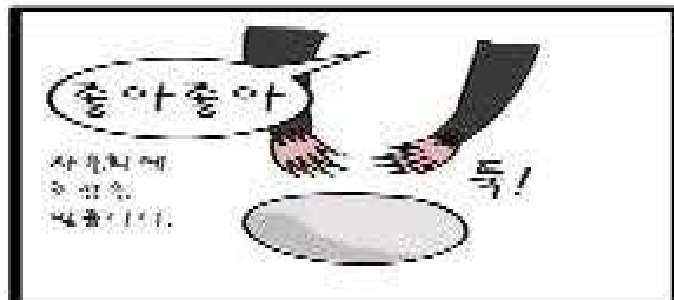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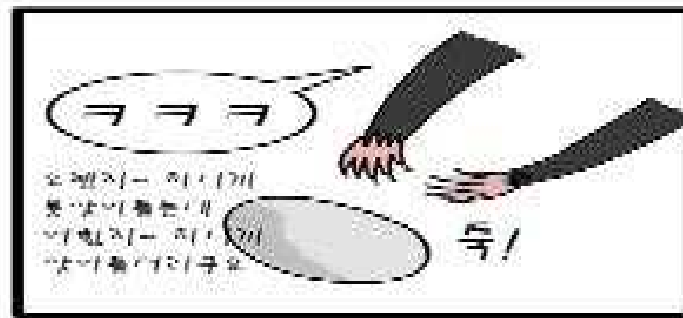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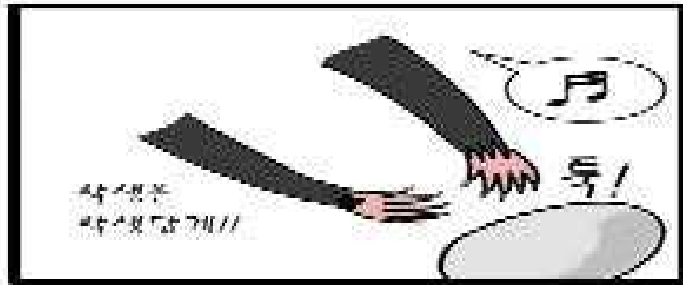
한날



한날, 「그들식의 녹색성장」

누가 우리에게 짐을 올리는가?

by 송조은



송조은, 「누가 우리에게 짐을 올리는가」



송조은, 「누가 우리에게 집을 올리는가」



윤필, 「정석대로 살아라」



윤필, 「정석대로 살아라」

엠건, 「[내 말 좀 들어봐]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 그 첫 번째 ‘말함’의 기억」, 인권오름 166호, 2009. 08. 19.

[내 말 좀 들어봐]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

그 첫 번째 ‘말함’의 기억

엠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처음 듣기로 청바다는 '여기저기 뽀뽀이 흩어져있는 청소년 인권 관련 UCC들을 한데 모으고 또 만들어가는 웹 공간'이라고 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써먹기 좋게 한 데 쟁여놓자' 이런 취지이려나, '뭐 있으면 편하겠네. 그래' 끄덕끄덕 하고 있었다. 이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 웹페이지 담당 한 번 해볼래?" 이 순간 나는 신중해야 했다. 허나, 나는 진지해보이는 얼굴과는 달리(주변에서 그러더라구? ㄱ) 실제로는 멍 때리기가 주특기인 생각 없는 인간이었다. 웹페이지? 오 신선하군. 홀라당 머릿속이 비어버린 나는 고긴지 생선인지 확인도 안 하고 입에 들어오는 대로 덩싹 물어버리는 오픈마우스 정신을 발휘했다. 그렇게 난, 청바다를 시작했다.

청바다는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의 약자다. 뭘 하든, 첫째는 말하고 표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원하는 바든, 맘에 안 드는 바든 일단 표현을 해야 그런 욕구와 불만이 있다는 게 드러나고, 그 존재가 드러나야 현실에 대한 개입 혹은 그런 현실을 바꿀 가능성 역시 생겨나는 거니까.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체벌은 교권인 상황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세상처럼 수준 높은(?) 얘기를 하려고 보니, 앞으로 갈 길이 참 멀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도 만날 겸 '청바다란 게 있대요' 광고도 할 겸 청바다 기획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UCC강좌나 함 열어보기로 했다.

첫 강좌와 청바다 기획단

강좌는 '영상, 사진, 만화' 세 가지로 진행됐는데, 그 중 가장 참여인원이 많았던 건 영상강좌였다. 어디서 돈 안 들이고 촬영부터 편집까지 배울 기회가 흔치 않으니 당연한 결과이려나. 하긴 나만해도 관심은 있었는데 접할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계속 손 놓고 있었으니까. 영상강좌는 총 8명이 모였다. 그 8명 중의 한 명이 나였는데, 내가 직접 참가한 강좌다 보니 청바다 강좌를 생각하면 영상 강좌를 하는 동안 있었던 일들이 제

일 많이 떠오른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재정이 워낙 소박한 단체라 강좌는 전체적으로 가난하게 진행됐다. (흠흠) 그래도 영상강좌만큼은 미디어엑트라는 곳에서 장소와 장비를 전적으로 후원해준 덕에 비교적 빵빵했다. 예를 들어 강좌 일정 상 시간이 없어서 개인 작품을 강좌가 끝난 이후 집 등에서 알아서 찍어 와야 했는데, 미디어엑트 측에서 캠코더를 참가자 전원에게 대여해줬다. 근데 돈 한 푼 안내고 캠코더 대여까지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아싸 룰루랄라’하면서 이 기회를 잘 받아먹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캠코더를 통해 혼자 놀기의 신천지를 발견하며 희희낙락했던 기억이……. 우히히. 손에 쥐고 이것저것 찍다보니 꽤 재밌어서 주변 소품들로 장난도 치고 하면서 혼자 완전 잘 놀았다. 그렇게 놀면서 찍은 영상들은 후에 영상 편집할 때 절묘하게 이용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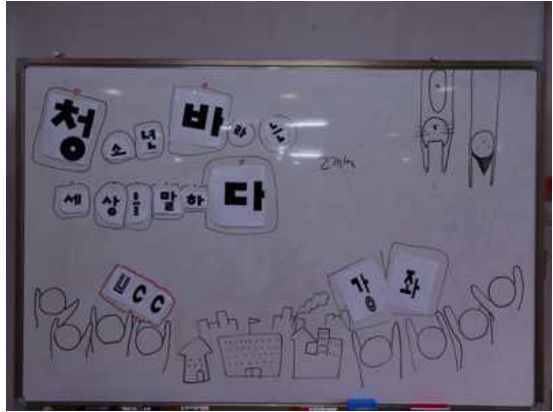
막연히 강좌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조금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건만, 신청기간동안 워낙 신청자가 없어서 의기소침했었다. 거의 매일 신청계시판을 들락날락했던 것 같다. 핸드폰을 잘 꺼놓고 다니는 편인데, 이 무렵엔 흑시라도 문의전화가 올까봐 충전에 매우 신경을 썼었다. 그럼에도 사진과 만화는 살짝 망했다 싶은 수준의 참가율을 보여서 마음이 쭈 아팠다. 그래도 지금 보면, 처음의 막연했던 바람을 나름 이룬 것 같긴 하다. 만나보진 못 했지만 만화나 사진 강좌에서도 한두 명씩은 새로운 만남이 있었고, 나 또한 영상강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니까.

삼일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 다들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건, 또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을 때나 쉬는 시간 짹짹이 수다 떨 때나 만난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편하고 즐거웠다는 건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었다. 지금도 함께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면서 훈훈한 감정이 일다.

청바다 강좌 기획하면서, 강좌 때 만난 청소년들이랑 같이 ‘청바다 기획단’ 을 꾸려 홈페이지가 생겨난 이후에도 오프라인에서 이런 저런 활동을 이어보자는 얘기를 했었다. 한 번의 만남이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기가, 각자 다른 영역에서 생활하고 또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이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알고 있다. 그래서 ‘청바다 기획단이 정말로 꾸려질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기대되는 마음이 반, 주저되는 마음이 반 마음이 그렇게 반반으로 뒤섞인다.

아직은 바라는 세상보다는 거친 현실을 말하다

‘청소년이 바라는 세상을 말했다’ 라고는 하지만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말한 건 바라는 세상에



청바다 강좌 오리엔테이션 때의 모습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UCC 공모전〉 홍보자료, 2009. 10.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말한다> UCC 공모전

- 제 1회 개기니즘 콘테스트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수신: 청소년 관련 모임/단체/언론

199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세력임을 보여 왔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조직화와 사회적 활동이 가능해진 한 배경은 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의 등장이었습니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은 활발한 정치 활동의 주체로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이용한 정보 소통과 자기조직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08년 초, 광명 진성고 학생들이 만들어서 유포한 동영상은 진성고의 학생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은 청소년들의 발언이 가능한 정치적 공간으로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온 것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UCC"(User Creative Contents. 동영상 뿐 아니라 글, 이미지, 음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콘텐츠 개념)로 대표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사 표현과 소통의 방법들을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하게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전달하는 방식, 기존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비틀거나 일부 수정하여 만들어내는 '패러디' 방식, 그리고 직접 자신이 콘텐츠를 생산해내거나 편집해내는 방식 등등, UCC의 활성화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문턱은 대폭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발언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창작 활동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활성화시키고 촉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이나 다른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모으고 전달·배포하는 것은, 이를 접하는 다른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인권보장을 위해 행동에 나설 동기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아래 우리는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웹페이지) <청/바/다>를 만들어 운영해보려 합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동안 좁은 어항의 틀 속에 갇혀 지내왔던 청소년들이 인권과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런 활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여 표현의 자유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청바다 UCC 창작 강좌”를 꾸려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운영될 <청/바/다>에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가 꾸준히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 및 내용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만화, 영상, 사진 강좌가 개설되었고 20여명의 청소년들이 5일에 걸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때 만들어진 청소년들의 작품 역시 <청/바/다>에서 게시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 1회 개기니즘 콘테스트 또한 청소년들이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쉽게 펼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행사 내용과 취지는 동봉한 전단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단체/공간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UCC 공모전〉 전단지, 2009. 10.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 UCC 공모전

개개니즘 콘테스트

기간: 10. 5 ~ 11. 17

더 이상 참고만 살 수 없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시대정신(?)
그거슨 바로 개개니즘!

느껴라, 자라라, 똥안타라

접수: 청바다 홈페이지에 직접 업로드!
메모 형식: 자유! 웹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것 (단, 글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청바다 홈페이지 참고

응모분야
원하는 분야에 응모! 여러 분야에 중복
응모 매우 환영! - -

★ 청소년으로 살며 겪었던 화나는 일들
분노 에너지 방출! - 분노 분야 (Angry)

★ 통쾌하게 골려주고, 거침없이 비꼰대
웃음으로 대항하기 - 비웃음 분야 (Laugh)

★ 고통의 기억, 아픔의 눈물..
울고 싶을 땐 울자 - 눈물 분야 (Sad)

★ 띠꺼운 청소년 살이, 지구를 뛰어넘어
전 우주적 해법을 찾겠다? 상상력 분야 (Imag)

★ 나의 개개니즘은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노라 (훗) - 기타 분야 (Smile)

★★ **밀줄 짝!** 접수 마감 후 21일(토) 4시, 서로서로 시상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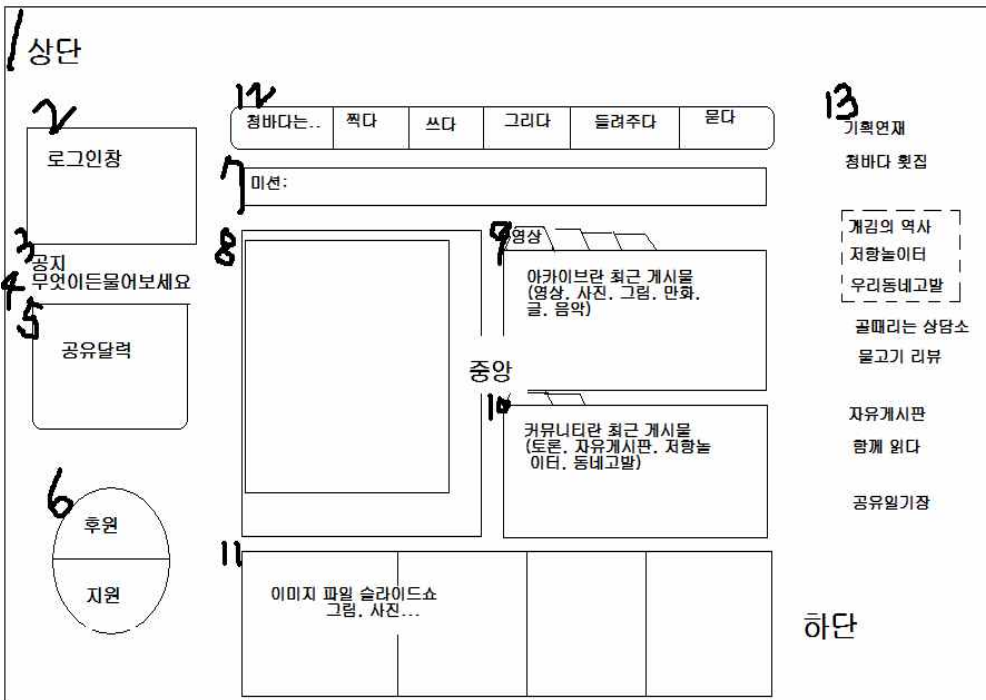
접수 및 문의: www.youbada.net/ 010.3412.3513

주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전교조서울지부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홈페이지 기획안, 2009. 10.

청소년 저항 아카이브-청바다(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 홈페이지 기획

제작 목적: 청소년 인권과 저항을 이야기 위한 공간으로, ucc 그림 사진 만화 음악 등의 콘텐츠를 축적하는 아카이브의 기능과 홈페이지를 통해 모인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한다.



<홈페이지 구성>

- 1) 메인 페이지
 - 1.상단,하단: 청바다 로고와 디자인/ 하단에는 아바 다른 청소년단체들 배너
 - 2.로그인창: 닉넴/비번/회원가입/까먹은 닉네임 비번 찾기
 - 3.공지: 행사, 강좌 안내 등운영자만 글쓰기 권한. 기본게시판
 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Q&A): 자유 글. 공지 모두 클릭하면 중앙에 간단한 게시판 페이지가 뜬다.
 5. 행사 캘린더: 1안-공언니네 홈페이지(http://www.unninet.net)의 여성주의 달력과 비슷.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여 일정을 입력할 수 있다. (로그인 해야 가능) 날짜가 있는 네모 칸 안은 간단하게 입력, 다른 공간에 상세한 설명을 쓸 수 있다.
- EX) 일제고사 집회/내 생일/ 소모임 모임 ..둘 중 어떤 게 나올까 쉬울까?

6. 후원·지원 배너: 후원 클릭 시 중앙에 후원 안내 웹자보가 뜬다. 지원신청 클릭 시 게시판 페이지가 뜬다. 지원 게시판은 로그인한 해야 글쓰기 가능.

7. 미션: 전광판처럼 글자가 흐른다, 수시로 입력한 내용 수정 가능.

* 미션페이지 (미션 칸을 클릭하면 이동)

*요주의 한 컷: 이미지 파일 주기적으로 갈아끼움. 말풍선 안에 할 말로 댓글놀이

*청바다는 미션 수행 중: 미션 태그를 단 청바다 내 게시물들 최근 순으로 정렬

8. 이미지 하나를 올리던, 막무가내 백일장 글 중 하나를 올리던 재밌고 임팩트 강한 걸로 하나 박아두는 용. 수시로 수정.

9. 아카이브 최근 게시물 칸: 네모 칸 윗부분의 UCC 클릭된 상태에서 UCC 최근 게시물이 제목만 45개씩 정렬. 그림·만화, 글, 사진·이미지가 각각 클릭 시 같은 방식으로 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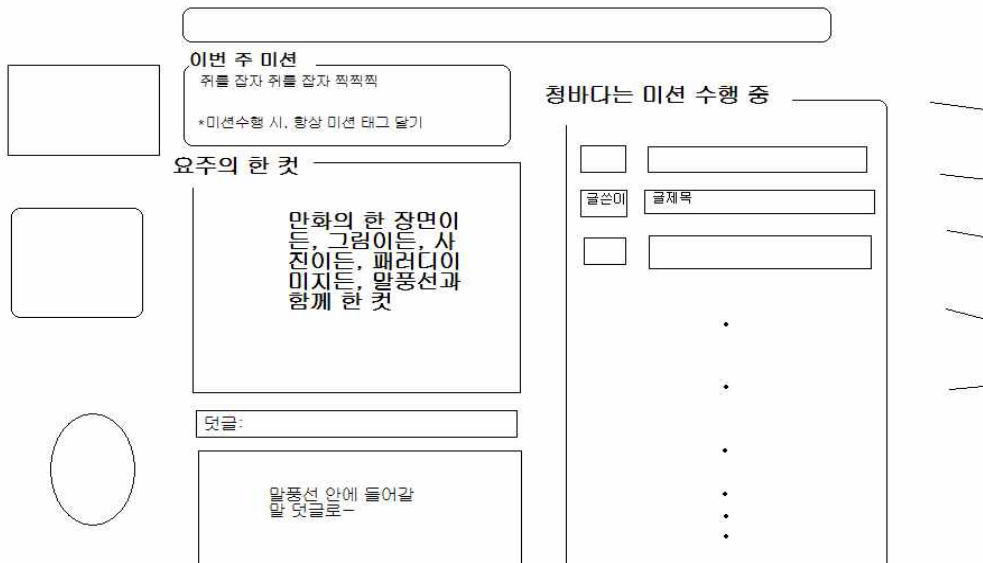
10. 커뮤니티 최근 게시물 칸: 토론게, 자유게, 저항놀이터, 우리동네고발 최신글

11. 슬라이드쇼 그림, 만화, 사진 게시판의 최근 게시물들의 슬라이드쇼

(7,8은 운영자가 직접입력/ 9,10,11은 자동으로 더 최근 걸로 바뀜)

12. 청바다 아카이브 바: 바에 마우스 갖다대면 찍다. 영상, 사진 쓰다 - 막무가내 백일장 그리다. 만화, 그림 들려주다 -음악 묻다. 토론게시판 이 각각 뜬다

형태-사진, 그림 만화 게시판은 앨범형, 일기게시판은 방명록 형태, 토론게시판은 특별 구성함, 나머지는 기본 게시판으로 한다.



<세부설정>

청바다는... : 청바다 취지 운영 등에 대한 소개, ucc 공모전 강좌 등 안내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찍다

- 사진 : 앨범 형, 용량제한
- 영상 : 기본 게시판, 용량제한

막무가내 백일장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쓰다

: 자작 시, 소설, 수필, 노가바 등등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그리다

- 그림 : 앨범 형, 용량제한
- 만화 : 기본 게시판, 용량제한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들려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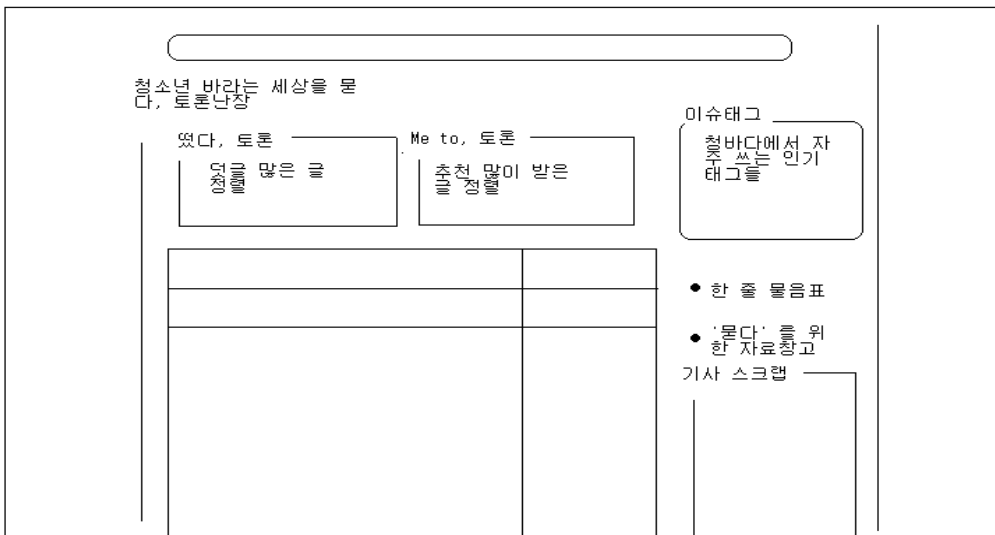
- 음악: 음악파일
- 라디오: 청소년 인권 관련 라디오 소개, 모난 펴오기

청바다 토론 난장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묻다 (특별 구성)

뻘뻘, 토론 - 댓글이 많이 달린 글들을 5개 정도 정렬 (최신으로 계속 업데이트)

미투, 토론 - 추천을 많이 받은 글들 5개 정도 정렬 (최신으로 계속 업데이트)



이슈태그 - 자주 쓰는 인기 태그 정렬

기사 스크랩 - 기본 게시판에 교육, 사회 분야 등등 기사 채우고, 최신 글들 정렬

*찍다, 그리다, 들려주다 는 내용물이 두 개씩. 게시판은 그림/만화마다 따로가 아니라 두 가지 내용물을 포괄함.

12. 청바다 메뉴 란 세부사항

기획연재: 글쓰기 권한을 운영자만으로 제한 (이 말 언급 없을 땐 누구나 권한)

개김의 역사: 68혁명, 종이비행기 시위, 세이노, 입시대평 등 저항 사례 업데이트

저항놀이터: 일상생활 속에서 웃기게 재밋게 할 수 있는 소소한 저항들- 슬리퍼 밑창에 이명박 깔아두고 밟고 다니기 등 의 후기와 아이디어 공유

우리동네고발: 울 동네 학교-약덕학원, 끈대 고발, 사진과 함께 멘트

발랑까진 청소년 상담소: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개기다 탄압 혹은 고민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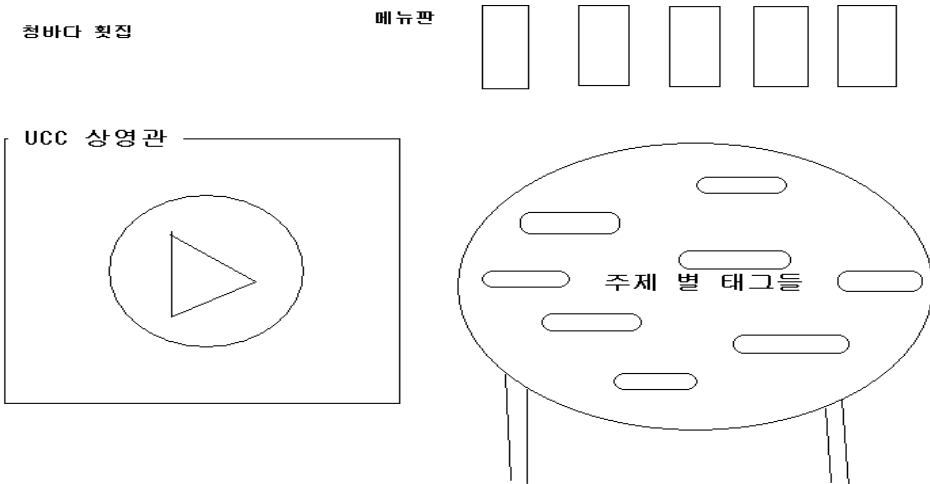
함께읽다: 기사는 제목과 링크주소만 두는 기사 스크랩 칸으로 만들/

칼럼, 수필/ 문학 등 함께 읽고과 펴오는 글을 공유함 (저작권 문제 상의)

자유게: 아무거나 쓰시라요

일기게: 한 페이지당 포스트 수 5개 설정을 한 블로그 페이지 혹은 방명록과 유사. 상단에 5월 12345678 ..해당일이 짧은 글씨가 되는 가로 달력이 뜬다.

* 청바다 핫집: 특별게시판! 저항메뉴얼, 주제 태그, ucc 상영



-메뉴판: 메뉴 클릭하면 기본게시판으로 간다. 다른 메뉴들도 게시판 한 쪽에 세로 정렬함.

-주제 별 태그들: 운영자가 지정한 태그 모음

*메뉴판(저항메뉴얼)의 메뉴는 학내저항, 통금깨기(가정 이야기), 막장교육(교육정책) 세 가지로 처음에 시작하고 차차 늘리기

2) 홈페이지 사양

	웹호스팅(퍼스트클래스)	스트리밍 호스팅(일반-비즈니스형)
용량	웹 4G/ 트래픽 5.5G(한달 기준)	하드 1G, 트래픽 월 60G
금액	설치비 11000원, 월 사용료 11000원	설치비 11000원, 월 사용료 5500
합계	14만 3000원	7만 7000원 (총)220000원

*cafe 24 기준

-이미지 파일은 웹호스팅, 음악 동영상은 스트리밍 호스팅에서.

-하루 평균 쓰는 트래픽은 2G쯤 된다고 함

3) 운영

닉넴, 비번, 이름, 주소/학교, 연락처 정도만 간단히 기록하여 가입하는 회원제
 글쓰기는 로그인 필요, 모든 게시판 열람과 댓글과 추천은 회원이 아니라도 가능
 소식지: 월 1회, 청바다 베스트 콘텐츠 소개 겸 이런 저런 소식 알림
 미션: 일주일 혹은 10일 단위로 갈아치움- 미션 창은 간단공지 창으로도 이용.

〈빨강 물고기가 떴다! 기호 0번 후보 정책논의 워크숍〉 프로그램, 2010. 05. 08.

빨강물고기가 떴다!

빼끔빼끔 6월 2일 교육감 선거를 맞아 짜잔 등장~

"기호0번 후보 정책논의 워크숍"

일시 : 2010년 5월 8일(토) 낮 2시부터

장소 : 서대문역 1번출구 근처 민주노총서울본부 건물 1층 '서울아동문화교육센터' (아래 약도 참고)

뭐 하나?

1부. "반짝 반짝 아이디어 좀 꺼내보삼" (14:00 ~ 15:00)

- 맛보기 프로그램!

우리가 출마하려는 '교육감'은 대체 뭐다냐?

교육감이 어디까지 바꿀 수 있고 건드릴 수 있는걸까?

교육행정 전반, 교육감의 역할 이모저모에 대해- 슬쩍 훑아보자.

- 2008년의 '기호0번'은 어땠나?

살펴보고, 둘러보자!

그리고 더 반짝거릴 수 있게 팍팍- 아이디어를 덧붙여보자~

휴식- 쉬엄쉬엄.(15:00 ~ 15:10)

2부. "샤바샤바 까보고, 똑딱똑딱 만들기" (15:10 ~ 16:00)

- 샤바샤바 까보기

2010 서울시 교육감 각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하게 까보자!

- 똑딱똑딱 만들기

'기호0번 청소년' 후보의 정책을 똑딱똑딱 튼튼하게 만들어보자!

실제로 '기호0번 청소년' 후보의 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게~

〈빨강 물고기가 떴다! 기호 0번 후보 정책논의 워크숍〉 보수 교육감예비후보 공약 모니터링 보고, 2010. 04. 28.

[브리핑 자료]

보수계열 교육감예비후보 공약 모니터링 보고

2010. 4. 28

■ 모니터링 의견

▲ 보수 계열 후보들의 공약 모니터링 결과 현장경험, 전문가를 강조하면서 ‘사교육비 없애기’와 ‘공교육정상화(살리기)’를 위한 방안을 제시 강조하고 있음.

한편, 비리문제해결은 가장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공약이었음.

살펴본 결과 우려 점은 다음과 같음.

① **곽 후보**란 사람이 인물이 갖고 있는 강점을 찾고, 정책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기획홍보와의 협의 필요.

② **곽 후보**가 경선과정 속에 내놓았던 정책메시지가 보수후보의 정책메시지와 상당부분 겹치고 있음. 예컨대, ‘꼴지도 행복한 학교’, ‘한 줄이 아닌 여러 줄 세우기’(남승희 후보 정책메시지)등 이 그것 임.

③ 보수후보가 가질 수 없는 반MB와 관련된 정책메시지를 더욱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예컨대,

▲ 획일화된 경쟁만능 일제고사 폐지,

▲ 부자만을 위한 자사고·외고 등의 특권교육 중단이 그 예임.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정책방안과 메시지가 구성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음.

▲ 겹치는 정책메시지에 대해서는 차별화와 새로운 정책메시지가 필요함.

예컨대 공교육 개혁에 관련되어 곽 후보가 얘기해왔던 정책메시지인 ‘한 줄이 아닌 천 줄 세우기, 만 줄 세우기’ ‘적성이 경쟁력입니다.’, ‘성적이 아닌 적성입니다.’등의 메시지는 수정될 필요가 있음. 혁신학교 등의

정책과 메시지를 잘 이용해서 내세울 필요가 있음.

▲ 한편, 교육비리문제는 이미 차별화가 힘들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적당히 언급할 필요가 있음.

■ 김영숙

○ 슬로건: '넌 아직도 학원가니? 영숙이는 학교간다!'
'사교육 없는 학교, 공교육의 신화!'

○ 컨셉

'공교육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그 방안으로 교육현장(덕성여중 교장출신)의 경험, 즉 자신의 주요 업적이었던 '사교육없는학교'를 정책메시지로 계속 강조함. 다시 말하자면 '바뀌 본 사람, 바뀌서 성공을 해 본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 지속적인 현장방문 속에 '공교육정상화 실현(학교 안에서)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계속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 됨.

○ 정책

1.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 필요없는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사교육 ZERO' 100일 실행본부 구성, 취임 직후 100일 내 즉시 시행토록 조치

2. **교육비리 퇴출, 우수교원 지원:** 청렴 TF팀 구성, '1비리 즉시 퇴출제' 실시, 우수 교원에게 인센티브, 해외연수 기회, 교장공모제 자격부여 제공

3. **저소득층 5대 교육복지 실현:** 차상위계층까지 급식, 교재, 등록금, 방과후학교, 교육 무상제공

4. **진학교육에서 진로교육까지 책임지는 학교:** 각 학교에 진로교사 배치, 모든 교과담당 교사도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음

5.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학교 안전관 제도 도입으로 학교폭력 예방, 학생들 먹거리 문제도 책임지겠음

○ 참고

...

먼저 "교사학부모·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사교육 ZERO 100일 실행본부'를 설치해 100일 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위학교별 방과 후 학교 운영 상태를 파악한 뒤 실정에

맞게끔 보완, 조정해나가겠다는 뜻이다.

김 예비후보는 “전 학생을 5단계 수준평가로 수준별 학습을 내실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또 유능한 외부강사를 채용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업무 인력 신규채용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공교육으로 ‘영어’도 책임지겠다”**며 **“중학교에서 일상영어회화 구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다양한 특기체험 활동을 정서함양과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1인 1기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김 예비후보는 “교육취약계층의 자녀들이 학습부진 및 기초학력미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은 담임책임지도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담임 연임제, 복수담임제를 실시,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내실 있는 공교육을 위해 우수교사 인증제를 실시, 무능력, 부적격 교사는 연수 및 재교육을 통해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김영숙 예비후보는 강조했다.

...

지난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김 예비후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 외에도 공부하길 원한다면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 방과 후 학교가 대표적이다”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만들기 정책발표, 뉴데일리, 4.26

■ 남승희

○ 메인슬로건: ‘교육비리 척결! 사교육비 절감!’

‘유능한 교육감! 깨끗한 교육감!’

‘엄마의 마음을 압니다!’

‘꽃피도 즐거운 학교’

○ 컨셉

‘엄마의 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특징인 ‘여성’과 ‘어머니’ 이미지를 강조, 주부층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려고 함. 그것을 위해 정책메시지로 ‘돌봄’을 강조하면서 ‘연중 쉬지않는 보육교육의 방과후학교운영’, ‘(무상급식정책 문제를 회피하면서)안전하고 질 좋은 책임급식’ 등 아이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강조함. 한편, 교육학자 출신, 교육기획관 출신의 전문가 이미지(한국의 미셀 리!)와 함께 어머니 이미지를 연계 (탈이념)중도적인 개혁을 강조, 비리근절과 또한 교육개혁을 위해 ‘모든 아이들에게 여러 줄을 세우는 교육’ 예컨대 진로지도교육강화 등의 정책메시지를 제시.

○ 정책

1. **청렴·정직·윈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교육비리 근절하겠습니다:** 적재적소·신상필벌의 인사시스템 정착, 학교장 공모제 확대, 부적격 교원 퇴출 등으로 교육비리 막겠습니다.

2. **‘책임급식’과 ‘아침간이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 지키겠습니다:** 친환경 재료 이력제, 유통단계 축소, 급식시설 개선으로 급식의 질 높이고 아침결식학생 중 희망자에게 아침간이급식 제공하겠습니다.

3. **‘자기주도학습 책임지도제’ 도입하여 개천에서도 용 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수준별 맞춤식 수업 확대, 자기주도 학습방법 책임지도제 도입, 독서교육 강화로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갖도록 하겠습니다.

4. **연중 ‘종일제 보육·교육’, ‘학교안전지킴이’ 배치로 맞벌이 부부의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시와 협력하여 학생 안전망 구축,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5. **진로지도와 끼 살리는 교육으로 ‘공부 풀찌’도 ‘공부 일등’도 적성·재능에 맞는 미래 준비하도록 돕겠습니다:** 일반계고 직업 위탁 교육 확대, 전문계고 창업 교육 확대, 일반·전문계고 대상 해외유학 지원센터 설립으로 진로지도 강화하겠습니다.

6. **워싱턴 DC ‘서울 학생 영어 자매학교’ 및 영어권 국가의 도시들과 자매결연 통해 학생들의 해외어학연수 돕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현지영어학습기회 확대 통해 조기유학 수요 흡수 및 사교육비 절감, 기러기 아빠 등의 문제 해소하겠습니다.

7.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해 부모없는 아동·청소년 등 특별 배려학생의 생계와 학습, 진로 책임지겠습니다:** 특별배려학생 80%와 희망하는 일반학생 20%로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보금자리 학교 구축하겠습니다.

8. **배려대상자 특별지원으로 교육선진화 실현하겠습니다:** 유아·장애인·북한이탈청소년·다문화 가정자녀 교육적 요구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하겠습니다.

9. **‘이동 교육감실’과 ‘신문고제’ 운영하여 교사와 학부모 소리 직접 듣고 교육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버스 개조해 이동교육청 만들고 ‘교육신문고’ 설치해 교사와 학부모 민원 직접 해결하는 열린 행정 구현하겠습니다.

10. 위험 교사(敎舍) 재건축, 노후시설 교체, 학생과 교사의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만들겠습니다: 학교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운동장 놀이시설·노후 책걸상·수세식 화장실 개보수, 일반 학교의 문화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교실 조명시설 상향 등 학교 시설 현대화하겠습니다.

○ 참조

...

- 다른 구호도 많을 텐데 '꿀찌도 즐거운 학교'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아이대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사회 구석구석을 경험해보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 그렇게 할 방법을 갖고 있다.

"서울시 교육기획관을 해보니 서울시의 자원만 갖고도 엄청난 교육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건물과 그 안의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교육은 교과서가 아닌 실재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하고 발표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학교부터는 학습에 대한 체제가 잡혀야 한다. 내가 서울시에서 자기주도학습 학교 200개를 뽑아 지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교에서는 다양한 진로를 실제로 안내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에게 여러 줄을 세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시스템 속에 분명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공부는 꿀찌지만 행복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다.**"

- 지금 학교는 일제고사로 성적 한 줄 세우기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는 최소화해서 실시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우열을 가리기 위한 자료 공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교를 골라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일제고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문제은행식으로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상만 갖고는 안 된다."

-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일단 공모제는 대폭 확대하되 학연이나 지연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공모제도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장의 길도 여러 개가 필요하다. 100% 초빙형 공모제가 또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내부형이든 초빙형이든 개방형이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정책자체가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

본 다음에 나중에 비율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

- 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올라 있다.

"전면 무상급식이나, 선별 무상이냐에 대한 논의보다는 학교 급식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나는 초등학교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다. 초등의 경우 2000억 원이 든다."

- 정부가 사교육 잡겠다고 자율형사립고를 확대한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약속한 것이다.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 약속은 지키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고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것이다.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입학사정관제 평가항목에서 고비용 유발 비율을 낮출 것이다.

-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고교평준화 깨라, 3불정책 폐지하라'는 주장은 이념적으로 옳아 보이더라도 현장에서 부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예상 밖의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 쉽게 없애자는 얘길 하는 데 과급효과가 클 것이다."

- 두발 자유와 체벌 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학생 인권존중의 풍토를 정착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는 서울 학생위원회를 만들어서 학생 인권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학생인권변호사제도 운영할 것이다."

인터뷰, 오마이뉴스, 4.22

■ 이원희

○ 메인슬로건: '학교에서 끝장내자!'
'교원평가 10% 퇴출'

○ 컨셉

교원출신과 EBS스타교사 출신을 언급하고, '공교육 살리기'를 위해 ('학교에서 끝장내기 위해서) 교원

의 교육을 강조, 그 정책메시지로서 '교원평가를 통한 10% 부적격·무능력 장학사·교사퇴출'을 제시함. '교원 평가시행'이란 정책메시지는 자신의 교총회장 시절 수용결단에 대해서도 어필이 가능하기 때문.

한편, '개혁'보수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복지확대라는 슬로건을 쓰면서 5대의무교육(교복비, 준비물비 등)실현이라는 정책메시지를 던짐. 무상급식의 경우, 재원확보문제를 얘기하고, 오히려 먼저 5대의무교육 복지비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제시함.

○ 정책

1) 청렴도 꼴지, 1위로 만들겠습니다(교육비리 이원화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①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 개방·공개 원칙으로 '시민참여인사위원회' 운영
- ② '원스트라이크 OUT' 등 비리를 엄단하겠습니다
 - 비리교사 무조건 퇴출
 - 교육공무원법개정: 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유출, 상습적 폭력 등 가중처벌
- ③ 교육전문직(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장학사, 장학관)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 '수석교사'선발, 학교지원기능 강화
- ④ 교육장, 교장은 공모제로 뽑겠습니다
 - 교육장 50%이상 공모제 임명 및 교장 공모제 확대

2) 학교경쟁력, 두 배로 높이겠습니다(교사혁신! 공교육활성화! 이원화가 앞장서겠습니다.)

- ① 교원평가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교원평가제 정착, 학부모 참여 평가 및 객관화
- ② 부적격, 무능력 교원은 퇴출시키겠습니다
 - 교원퇴출관련 법안 마련 협의
- ③ 교사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토록 정책일몰제, 공문서총량 제한제 도입
- ④ '수업 컨설턴트'가 수업의 질을 높입니다
 - 교육전문직 개념을 '수석교사' 및 교육 컨설턴트 개념으로 전환

3)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 ① 폭력, 음란, 사고, 불량먹거리로 부터의 학생안전 강화
 - 이동안전망 구축 및 인성교육 강화, 음란물 유통시스템 통제 및 성교육 실시, 교통안전장치의 기준 강화, 친환경 건강급식 실현

4) 진단이 좋아야 처방이 좋습니다

- ①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로 교육의 문제점 관리 및 개선

② 평가 이후 기초학력미달학생 집중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5) 누구나 1등할 수 있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① 좋은 학교가 많아져야 합니다

② 다양화·특성화 교육, 확대하겠습니다

③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70%의 학생들을 누구나 1등으로)

①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자율고, 외고 등 학교체제 다양화

② 아이들의 과목선택권도 확대하겠습니다

- 과목선택권 탄력적 운영, 교육과정 다양화

③ 다양한 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늘리겠습니다

- 경제교육, 한자교육, 국사교육, 예체능교육 등 강화

④ 인성교육 강화, 글로벌 시민의식을 심겠습니다

- 배려교육, 준법교육, 국가관교육, 효교육 등 강화

6) 교육복지 강화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단계적인 5대(교과서, 교복, 등록금, 준비물, 급식실현) 의무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② 교육 복지, 확대하겠습니다)

①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친환경 식재료 제공

② 교복에 드는 돈을 줄이겠습니다

- 교복 물려주기 운동 및 공동구매 활성화

- 교육취약계층 교복 구입비 지원

③ 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학교별 학습준비물 지원 시스템 마련(준비물 재활용 등 방법 강구)

④ 교육취약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 현장학습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경비 지원

※ 서울학력, 상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① 서울교육 ‘사제동행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 기초학력미달 학생 교사 할당 및 책임지도

② 저학력 아이들을 집중 교육 하겠습니다

- 학습도우미, 순회상담지원단, 전용공부방 확대 운영 등

③ 주민자치형 방과후학교도 운영하겠습니다

- 서울인터넷방송(SIB) 설립 및 권역별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정착
- ④ 평가방식을 혁신하셨습니다
- 서술형 평가방식 확대 등 창의력 잠재력 시장 교육 확대

○ 참조

▶ 후보군 여론조사 지지를 보면 보수진영에서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다.

...

첫째로 학생, 미래의 주인공을 위해서 학부모에게 교육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결국 학부모가 인사문제, 교육재정집행문제, 학교의 모든 것이 공개되고 투명하도록 참여해야 된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교원평가로 연결된다.

...

둘째는 학교평가보다는 교장평가, 교원평가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어느 성향의 선생님인지, 어떤 능력을 가진 선생님인지, 어떤 열정을 보여주는지를 평가해서 적절한 인사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학교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가정도 건전해질 수 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활성화되는 나라, 그래서 사교육이 줄어드는 나라가 돼야 한다.

...

컨텐츠로 보면 경제교육, 한자교육, 인성교육, 국사교육, 다양한 예체능교육이 강화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영어교육은 A, B, C 3등급 정도로 나눠 생활영어 중심으로 쉽게 해 영어를 어느 단계만 되면 다 만점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교육비의 1/3로 줄여야 된다. 이러면 공교육의 틀이 생길 것이다.

전교조와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은 자제하거나 정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 중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돌아오게 해서 학교 이념갈등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는 틀을 초반에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주창하면서 사회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 무상이라는 말이 사회주의 용어인가 뭐가? 물론 아이들을 다 잘 먹게 해 주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가용할 수 있는 탄력적 예산 1조원 중에서 6천억이 드는데,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평가도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는 그 대신 친환경 건강급식을 해야 하고, 이제는 학생들도 입맛에 맞게 선택형으로 한 단계 발전된 급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려대상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지 않고 서로 의식하지 않는 방법, 연구된 게 있다. 그렇게 쉽게 밥 먹고 어울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기는 지역교육청, 구청,

학교가 함께하는 일본식 급식지원센터로 만들어서 신선하고 친환경 고품격 급식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고교평준화로 상당 부분 희석됐다. 일부 대학은 고교등급제가 사실상 시행되고 있다. 3불제에 대한 생각은?

- 과도한 평준화의 대못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시를) 과거처럼 본고사를 보는 것도 안된다. ...대학입학사정관을 통해서 잠재력 있고 어려움 속에서 역경을 이겨낸 학생을 배려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것이 잘 정착된다면 초중고에서부터 자기 직업, 진로관을 잘 세우도록 하는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예컨대 독일처럼 중학교 갈 때부터 실업계열, 전문계열로 갈 것인지 진학계열로 갈 것인지 학부모까지 스스로 아이들의 성향과 특성에 맞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요즘 웨프(요리사) 처럼 조리 잘하는 학생들이 인기도 있고 취직도 잘 되지 않은가. 그 학생들이 꼭 어느 대학의 어느 과를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진학률 84%로 세계 1위다. 이 문제를 직업진로교육으로 잘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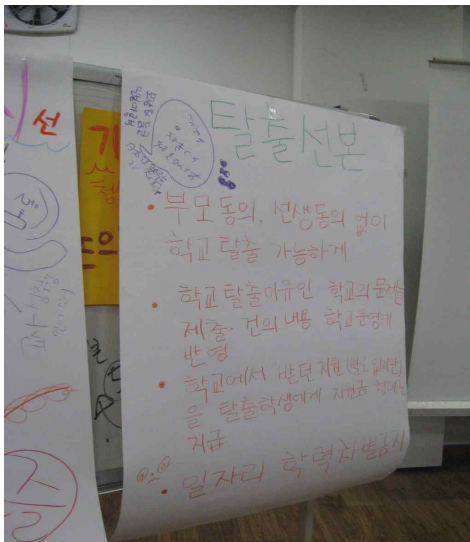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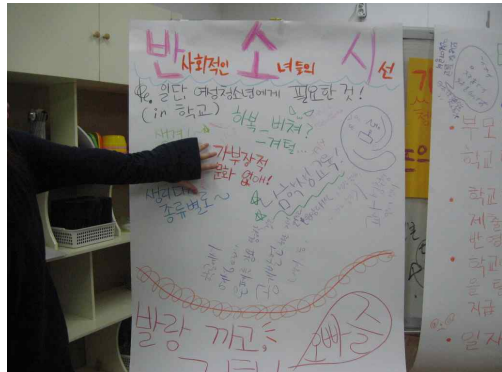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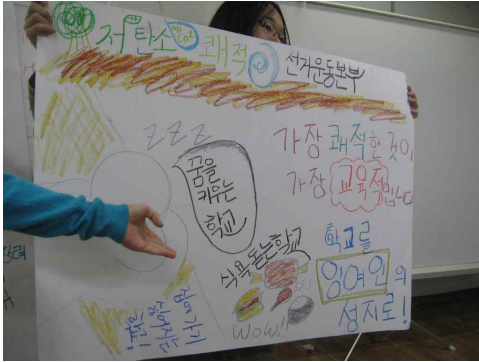
정치권에 한마디 한다면, 누구든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하고, 고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비슷한 임금으로 자기 삶을 영위해할 수 있게 하는 체제, 물론 능력에 따라 보상은 (달리) 가야 한다.

그것이 학력 학벌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장기적 과제인데, 그것을 교육계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시스템을 바꾸고, 대학에서는 입시를 바꿔줘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교육감과 학부모들, 학교 선생님들, 대학 총장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인터뷰, 시사 1번지 폴리뉴스, 3.16

〈빨강 물고기가 떴다! 기호 0번 후보 정책논의 워크숍〉 소장사진, 2010. 05. 08.





학생인권심화워크샵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통과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각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추진!
바야흐로 학생인권조례 시대!

BUT

체벌금지 이후... 대안처럼 떠오른
상벌점제는 괜찮은 거? 그럼 성찰교실은?

경기도와 서울 말고 다른 지역은 여전히 학생인권 틀보잡?
아니면 어떤 일이 쿵쿵쿵쿵 벌어지고 있을까?

주변 청소년들이 "이런 것도 학생인권 침해인가요?
어떻게 해결하죠?"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청소년/학생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그런 고민을 나누는 워크샵!

PROGRAM

청소년인권 감수성 심화 1

학생인권조례 아작아작 씹어 먹기

11. 5 토 P.M 1:00 ~ P.M 4:00

청소년인권 감수성 심화 2

학생인권조례 이후의 복병들 - 상벌점제, 학교내 폭력 등등...

11. 5 토 P.M 4:20 ~ P.M 7:20

학생인권+상담

학생인권 상담 워크샵

11. 6 일 P.M 1:00 ~ P.M 4:30

전체 자유토론

풀리지 않는 고민들

11. 6 일 P.M 5:00 ~ P.M 6:30

11월 5일, 6일

서대문 경향신문사 15층

youthhrnet@gmail.com 로 참가신청!

[민주노총 교육원]

청소년 5000원 / 비청소년 10000원 (대가 어려울 경우 무료)

문의 어스 010-6899-6946 주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끝은 아니다! “2011 학생인권 심화 워크숍”



- 언제 : 2011년 11월 5일(토), 6일(일) 오후 1:00 부터
- 어디서 : 민주노총 교육원 (서대문 경향신문사 15층)
- 여는 단체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개굴, 공현, 난다, 뚝코, 어쓰, 한날이 함께 준비 했습니다~▲



[워크숍 1]

학생인권조례 아작아작 씹어먹기

* 시간 :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 4시 (3시간)

* 진행 : 토크, 난다

<목표>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거나, 혹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학생인권조례의 각 조항이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 혹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지, 상황을 그려보고 집중 토론해본다.

<진행방식>

1) 몸풀기 맘열기 (10분)

- 자기 소개 및 모둠 나누기 (4모둠)

2) 서울주민발의안을 중심으로 키워드 및 키워드에 대한 각 조항 간단히 훑어보기 (10분)

- 개성실현의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사생활의 권리 / 자치·참여활동의 권리 / 인권교육 / 학생 복지 /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 구제기구

3) 각 모둠 별로 원하는 키워드(조항)를 하나씩 가져간 후, “이럴 때 이 조항이 참 쓸모있다!” / “이것도 이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알쏭달쏭해!” 하는 두 가지 상황을 떠올리며 논의한다. (20분)

4) 다른 모둠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살펴볼 수 있게끔 ‘위키백과’ 형식으로 한바탕 댓글 달기를 돌린다. (10분)

[쉬는 시간 10분]

* 3),4)-----> 총 3번 반복 (60분) *

5) 모든 키워드를 살펴본 후, 가장 ‘알쏭달쏭한’ 주제로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60분)

[워크숍 2]

학생인권조례 이후의 복병들

- * 시간 : 11월 5일 (토요일) / 오후 4시 20분 ~ 7시 20분 (3시간)
- * 진행 : 한날, 어쓰 (이슈브리핑-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혜원, 진냥)

<목표>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거나, 혹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두발자유나 체벌금지를 지나 새롭게 등장한 담론들을 살펴본다.
- 그 중 상벌점제(그린 마일리지), 학교/교육공동체 조례, 학생 간 폭력, 엄벌 징계 (공립형 대안학교)를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행방식>

- 1) 각 논의지형에 대한 짧은 이슈 브리핑을 진행한다. (30분)
 - 상벌점제 (그린 마일리지)
 - 학교/교육공동체 조례
 - 학생 간 폭력
 - 엄벌 징계 (공립형 대안학교)
- 2) 모둠별로 원하는 주제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고, 각 주제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구심/질문거리들을 뽑아 본다. (징검다리 질문을 참조) (30분)

[징검다리 질문]

* 상벌점제

- 상벌점제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당장 상벌점제를 없앨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상벌점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벌점이 남발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 상벌점제의 틀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자치 범정을 활성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없을까?

- 체벌과 상벌점제는 사실 비슷한 목표를 갖는다. 체벌을 하는 이유도, 벌점을 매기는 이유도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어떤 행동을 '문제 행동'이라고 삼고 있는 지, 정말 그것이 '문제행동'인지 등을 깊숙이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만약, 학교에서 사라져야 할 문제 행동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 학교/교육공동체 조례

- 학교의 구성원으로 교사, 학부모를 인정한다면 그 둘의 권리/의무를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 학생의 권리를 규정하고, 그 권리를 뒤집는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의무 규정 자체를 만드는 것이 문제일까? 만약, '차별하지 않을 의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조례 내용에 넣는다면? 오히려 의무나 책임을 잘못된 방식으로 써왔던 보수의 문법을 뒤집을 수 있지는 않을까?

* 학생 간 폭력

- 학생 간 폭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누가 주로 폭력의 대상이 되나? 과거보다 폭력의 양상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나?

- 학생 간 폭력의 원인을 '요즘 청소년들의 싸가지 없음, 잔인함'에서 찾을 때, 어떤 이야기는 숨어버리나?

- 학생인권을 말하는 우리들은 어떤 관점으로 학생 간 폭력의 문제를 바라봐야 할까?

* 엄벌정계/ 공립형 대안학교

- '문제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한다.',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문제 학생들을 품으려고 했던 것이 이전의 교육방식이다. 학생인권조례 이후 이제는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흡연이나 절도 학교 폭력 등을 행한 학생들을 전학 보내거나 퇴학시키는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의 향상과 엄벌조치(법과 질서의 강화)를 연결 짓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 (공립형 대안학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에서

특수한 교육을 받는 것이 그 학생에게도 더 좋은 일 아닌가?

[쉬는 시간 10분]

3) 모둠에서 뽑은 질문을 중심으로 전체토론을 진행한다. (1시간 40분)

[워크숍 3]

학생인권 상담의 달인 되기

* 시간 : 11월 6일 (일요일) / 오후 1시 ~ 오후 4시30분 (3시간30분)

* 진행 : 개굴, 공현

<목표>

-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상담을 받게 되었을 때 상담가이자 활동가로서 유형별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 상담가로서의 기본 자세 가운데 하나인 '적극적 경청'의 힘을 기른다.

<진행방식>

1. 듣기 - 마음 읽기 연습 (1시간)

1) 잘 듣는다는 것 (1)

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 하나가 듣는 사람의 '자기 판단'이다. 평가하지 않고 잘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함께 느껴본다.

②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최근에 있었던 기뻐던 일이나 속상했던 일을 마주 보고 이야기한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면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본인에게 들려준다.

③ 느낌이 어땠는지 간략한 인터뷰를 진행해 본다.

2) 잘 듣는다는 것(2) - 귀는 말한다

① 잘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이가 진정으로 하고픈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실제 상담사례들을 통해 '내담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연습을 해 본다.

② 무대 앞으로 한 사람을 초대한다. 실제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고 가정하고, 전화를 걸어온 내담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본다.

③ 같은 방식으로 총 4가지 사례를 실습해 본다.

[상담사례 1]

다음은 새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인권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학생이 원하는 도움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할까요?

"저는 평택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인데요... 중학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좀 낯설고 그래요. 저희 학교에서 어제 선생님이 방과후학습을 다 남아서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 저희 반에서는 아침에 지각을 하면 엎드려뺨쳐를 시킵니다. 아오 $\pi\pi$ 선생님은 니네가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근데 이거 인권침해 아닌가요? 학생인권조례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에 위반되진 않나요? 제 주변에 친구들은 다들 별 말 없이 그냥 방과후학교도 하고 엎드려뺨쳐도 하구요. 잘못을 했으니까 뭐 그정도 벌은 설 수도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별난 걸까요?"

[상담사례 2]

어느 날 단체 전화기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근처 지역의 한 학부모. 이 학부모가 원하는 도움은 어떤 것일까요? 상담을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딸이 구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애가 아침 잠이 많고 학교가 좀 멀리 있어서 아침에 좀 지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애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애를 노는 애라고 찍은 거죠... 더군다나 우리 애가 좀 주의가 산만하고, 멧 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애를 좀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애가 어느 날 선생님이 자기를 꾸지람할 때 욕해서 "아 씨발"하고 욕을 해버린 거죠. 그걸 이유로 학교에서 학생을 보름 후에는 퇴학시키겠으니 그 전에 자퇴서를 내든가 하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잘못을 한 건 맞지만 퇴학을 당할 만큼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청에 얘기하면 도움을 줄까요? 학교 퇴학 처분을 취소할 방법은 없나요?"

[상담사례 3]

학생인권조례 서울본부에서 열심히 서명지를 정리하던 어느 점심시간, 따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 학생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과는 어떤 태도로 상담을 해야 할까요?

"거기 학생인권 위원회 맞죠? 제가 오늘 학교에서 뺨을 맞았거든요? 저희 반에 들어오는 사회 선생님이요, 제 싸대기를 때렸어요.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어느 학교냐구요? 은평구에 ○○고등학교구요 2학년이에요. 그 선생님이 평소에는 뭐 그렇게 안 하구요 저랑도 친하신데요.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애들이 떠들고 하는데 옥해서 저를 나오라고 하더니 뺨을 두 대나 때렸어요. 이거 체벌 맞죠? 그냥 있을까 하다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상담사례 4]

어느 날 경기도 지역 단체에서 연 인권교육을 나갔다가 한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학교가 어찌나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생이 원하는 건 뭡까요? 이 학생과 상담을 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뭡까요?

"저희 학교가요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아침에 등교길에 머리 검사를 하는데요. 해서 막 머리가 조금만 길면 다 잡혀요. 얼마나 짜증나고 답답한지 몰라요. 두발자유? 학생인권조례? 그런 거 우리 학교에는 씨알도 안 먹혀요.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양말 색깔도 다 하나하나 잡거든요. 실내화 신고 나가는 것도 다 벌점 먹이구요. 뒷반 애한테 들은 건데 거기서는 막 쪽지시험 틀리면 엎드려뺨쳐 시켜놓고 발로 걷어 찬대요. 무슨 선생님인진 잘 모르겠어요. 국어 선생님이랬었나? 그리고 야간자율학습을 밤 12시까지 해요. 전부 다 하나구요? 그런 건 아니구요. 공부 잘 하는 애들만 하는 건데요. 강제로 하는 애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쉬는 시간 10분]

2. 상담의 실제 - 원하는 변화를 함께 성취하기 (1시간50분)

1) 유형별 상담 지도 그리기(50분)

-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걸려온 6가지의 상담 사례를 제시한다.
- 원하는 주제의 모듈으로 찾아가 각 사례별 대처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 상담의 흐름 순서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를 논의해 본다.

[사례 1] 아들이 복도에서 키스하다가 걸렸다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들이 같은 학교 여자애랑 연애를 하는데요.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을 가다 사귀던 여자애랑 우연히 마주쳤나 봐요. 둘이 잠깐 서서 이야기를 하다가 키스를 하게 됐나 봐요. 근데 때마침 다른 반 아이가 이 장면을 보고서는 생활지도부에 알렸나 봐요. 생활지도부에서 애들 둘을 불러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나 봐요. 담임 선생님 말로는 적게 받아도 교내봉사, 아니면 사회봉사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데... 우리 아들은 그게 뭔 큰 잘못이냐면서 펄펄 뛰어요. 내일모레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도와주세요!

[사례 2] 학교규정을 바꾸는 과정이 엄청 구려요!

경기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규정을 바꾸는 절차가 열라 구린 것 같습니다. 이번엔 학교에서 새로 벌점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저나 친구들은 두발복장 위반이나 지각을 벌점 항목에서 아예 없애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벌점은 몇 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만 물었어요. 말도 안 되죠. 게다가 규정개정위원회라고 만들어졌는데, 학생대표로 참여하는 학생회장단이 원래부터 벌점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인 데다가 선생님이나 학부모 대표들이 강력하게 나오면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생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벌점 항목도 많아지고 점수도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주 월요일에 열리는 두 번째 규정개정위원회 회의에서 대중 통과시키려고 하나 본데요. 어떻게 저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 3] 그 선생님 확실히 쫓아내줄 수 있죠?

우리 학교에 아직도 애들 때리는 선생님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체벌 금지라고 했을 때도 '나 잘리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 신고할 태면 신고해 바라'는 식으로 애들 겁주고 그랬거든요. 예전보단 줄었지만 그래도 계속 때려요. 며칠 전에도 옆 반 제 친구가 당했어요. 학교에 휴대전화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찍어놓은 사진은 없고요. 맞은 아이들 증언은 모아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랑은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증언할 테니 그 선생님 확실히 쫓아내줄 수 있어요? 이게 외부에 알려지고 나면 학교가 시끄러워질 텐데... 그리고 신고한 놈 누구냐며 찾아내려고 난리가 날 텐데... 우리 학교 아버지회도 애들 때려서라도 가르쳐달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야자 감독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 학교 드나드는데... 진짜 압박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선생 쫓아내준다고 확실히 약속해주면 저도 친구들 설득해 볼게요.

[사례 4] 지도 불응으로 징계위가 열린다는데...

오늘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모래 학교에서 우리 아들 선도위원회가 열린대요. 며칠 전 체육대회 날 본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방송을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화장실 가는 친구를 따라갔다가 본관 근처에 어슬렁거리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보고서는 몰래 담배를 피러 온 줄 알고 "너 양 손 옆으로 벌리고 이리로 오!"라고 하셨대요. 아마 우리 아들이 복학생이라서 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진 아들은 자기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서 '제 동의 없이는 소지품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거부했어요.

화가 난 생활지도부에서는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했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대요. 처음엔 애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애가 너무 억울해해서 저도 뭔가 도와주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좋죠?

[사례 5]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얘기가 계속되는데...

우리 도덕 선생님은 기독교 신자이신가요. 현대 사회에 동성애가 범람하는 건 소동과 고무라에서처럼 성 도덕이 문란해졌기 때문이라는 등, 성경에서도 동성애가 금지돼 있다는 등, 청소년기에 잘못된 유희에 빠지면 큰일난다는 등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곤 하세요. 지난 수업시간에도 '종교와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타락한 동성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엄청 노력하시는데 그런 걸 보면 교회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정신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반에서 애들 사이에 엄청 인기 있는 남자애가 있는데, 남자애 중에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을 보이는 애가 있거나 잘 우는 친구가 있으며 "네가 호모 새끼냐?"라는 식으로 놀리곤 해요. 그러면 주위 애들이 까르르 따라서 웃고요.

저는 동성애자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교실에 깔려있으니까 갑갑하고 때로는 미칠 것 같고 그래요. 애들은 웃고 넘어가는 일에 그건 '자별적인 발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좋죠?

[사례 6] 막무가내로 덤비는 학부모가 도와달라는데...

우리 아이 학교는 기숙사 학교예요. 그런데 아이네 학교에서 강제로 야자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더 능률적이니까 빼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더니, 처음엔 계속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들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영 끌고러워하는 눈치예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혼자 1인시위도 하고 교장실에 몇 번씩 찾아가고 교육청에 민원도 넣고 그랬어요. 그래서야 학교가 우리 애 야자를 빼주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 애한테 야자실 말고 교실에 남아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숙사 개방 시간이 10시라서, 학생 하나를 위해서 기숙사를 미리 열어주게 되면 도난문제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걸로 다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감감 무소식이예요. 담당 장학사한테 막 따졌더니 기숙사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숙사 문제는 다루기 힘들다고 하면서요.

인원단체라면 이런 일부터 먼저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쉬는 시간 10분]

2) 발표와 토론(50분)

- 모듈별로 논의된 '상담 지도'를 발표하고, 각 사례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함께 짚어본다.

3. [함께 닫기] 학생인권 상담에서 유의할 것(20분)

<참고자료1>

학생인권조례안 비교표

	광주	경기	서울
체계	제1장 총칙 - 목적 - 정의 - 책무 - 인권계획의 수립	제1장 총칙 - 목적 - 정의 -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 책무	제1장 총칙 - 목적 - 정의 -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 책무 - 교육환경의 개선
	제2장 학생의 인권 - 학생의 지위 - 학습에 관한 권리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신체의 자유 -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 의사 표현의 자유 -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 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 -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 - 소수 학생의 권리 -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휴식을 취할 권리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사생활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정보에 관한 권리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양심종교의 자유 - 의사 표현의 자유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휴식을 취할 권리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정보의 권리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양심종교의 자유 - 의사 표현의 자유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p>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활동의 권리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에 참여할 권리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p>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문화 향유할 권리 - 급식에 대한 권리 - 건강에 관한 권리 <p>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p>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p>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활동의 권리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에 참여할 권리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p>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 급식에 대한 권리 - 건강에 관한 권리 <p>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 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p>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를 지킬 권리 -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p>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p>제3장 학생인권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위원회 - 위원회의 업무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운영 - 소위원회 - 사무국 - 위원의 해촉 - 학생인권영향평가 - 학생 인권의 상담 - 학생 인권 침해의 구제 및 조치 - 학생 인권 침해의 조사 - 수당과 여비 - 운영세칙 등 	<p>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p> <p>제1절 인권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 홍보 - 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 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 보호자 교육 <p>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실태조사 - 실천계획의 작성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 학생참여위원회 - 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 시민활동 지원 	<p>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p> <p>제1절 인권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 홍보 - 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 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연 수 및 지원 - 보호자 교육 <p>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실태조사 - 실천계획의 작성 -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 원회 - 학생참여위원회 - 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 시민활동 지원

<p>제4장 학생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회 - 의회의 구성 - 의회의 운영 - 의원의 임무 - 의원의 자격상실 - 의회의 역할 - 의회에의 지원 	<p>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 겸직금지 -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 사무기구 등 - 지역 교육지원청별 상담실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 조사 	<p>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 겸직금지 -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 사무국 - 지역 교육지원청별 상담실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 조사
<p>제5장 인권교육 및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인권교육 및 연수 - 교사에 대한 인권 연수 - 학부모 교육 	<p>제5장 보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시행규칙 	<p>제5장 보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규칙 - 준용규정
<p>제6장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활동 지원 - 시행규칙 		
<p>부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 위원회 구성 	<p>부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 경과조치 	<p>부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 경과조치

	광주	경기	서울
목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청,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책임과 역할 규정, 학생인권보장 관련 필요 사항 규정,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실현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
정의	학교, 학생(재학중), 교사(교원, 직원, 교육공무원), 학부모, 인권(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법 근거)	학교, 학생(재학중), 교직원(교원, 직원), 학생의 인권(헌법, 아동권리협약 근거)	학교, 학생(재학중, 입학학 다투는 자), 학생의 인권(헌법, 아동권리협약 근거), 교직원(교원, 직원), 유치원, 보호자, 유아
책무	교육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감, 학교 설립자,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보호자, 학생	교육감, 학교 설립자,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보호자, 학생
학생 인권의 날	없음	있음	있음
학교 인권교육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사, 학생 대상 연수	학기당 2시간 이상(학생 대상), 연 2회 이상(교사 대상)	학기당 2시간 이상(학생 대상), 연 2회 이상(교사 대상)
교사 연수	교육청 주관 모든 자격연수에 2시간 이상 학생인권 강좌 배치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대한 내용 편성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대한 내용 편성
학부모 교육	인권교육 간담회, 혹은 연수 연 2회 이상	인권교육 간담회, 혹은 연수 연 2회 이상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연 1회 이상
인권실태 조사	인권증진계획에 포함	매년 실시. 교육위원회, 도의회 보고	매년 실시. 교육위원회, 시의회 보고
인권실천 계획	학생인권증진계획 교육감이 5년마다 수립, 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계획에 대해 연도별 시행 결과 심의. 인권증진계획 담길 내용 명시화(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	인권실천계획 3년 단위로 인권실천계획 수립하도록 규정. 계획 수립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주체 의견수렴 규정.	인권실천계획 3년 단위로 인권실천계획 수립하도록 규정. 계획 수립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주체 의견수렴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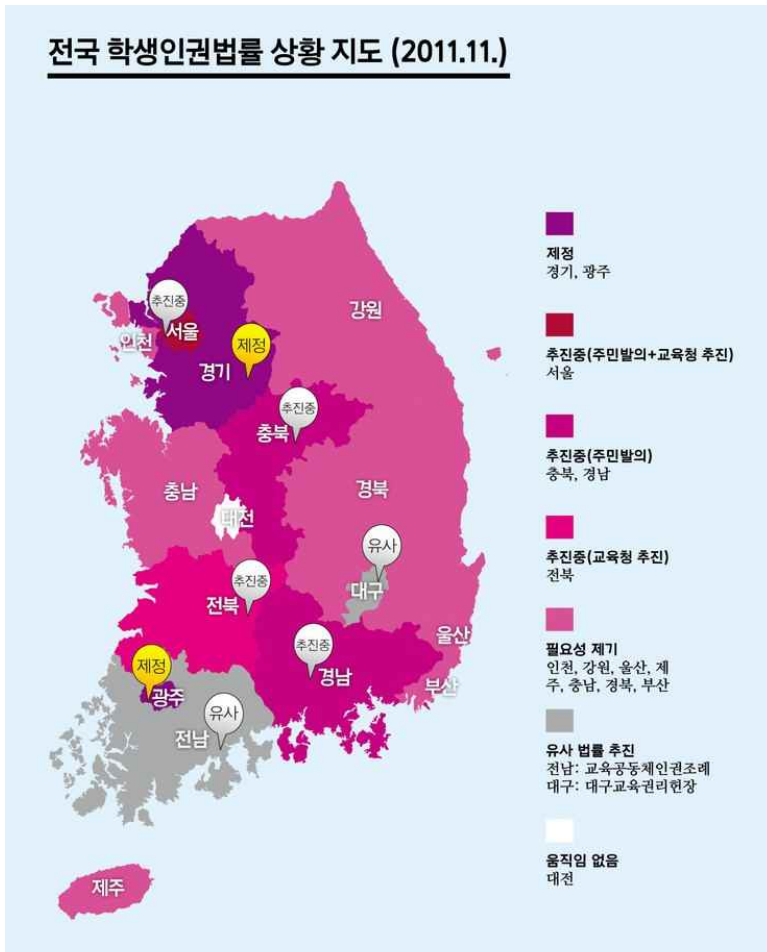
	<p>방향,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방안, 학생인권실태조사와 인권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학교평가에서 학생인권 보장 실태 반영 방안, 5년마다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평가)</p>		
<p>인권관련 정책 민관협력의 심의기구</p>	<p>학생인권위원회 구성 : 교육국장(당연직), 국가인권위 추천, 교육위원회 추천, 청소년.학부모단체 추천, 인권단체 추천, 교원단체 추천, 학생의회 추천, 교육청 담당공무원 등 교육감이 위촉, 12명 기능 및 업무 : 인권증진계획 시행 결과 심의, 학생인권 관련 정책 점검 및 개선에 대한 권고, 인권침해 유형·판단기준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지침 제시 및 권고, 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학생의회 지원, 학교생활규정 점검 및 시정 권고</p>	<p>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 학생인권옹호관(당연직),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전문가로서 관련 단체 추천,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교육청 담당공무원 등 교육감이 위촉, 20명 이내 기능 및 업무 : 인권실천계획 수립 심의,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 개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심의</p>	<p>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 학생인권옹호관(당연직),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전문가로서 관련 단체 추천,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교육청 담당공무원 등 교육감이 위촉, 20명 이내 기능 및 업무 : 인권실천계획 수립 심의,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 개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심의</p>
<p>학생인권영향 평가</p>	<p>있음</p>	<p>없음</p>	<p>없음</p>
<p>학생참여</p>	<p>학생의회 구성 : 각급학교 대표, 참여 희망 학생 기능 및 역할 : 인권조례개정, 인권증진계획, 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학생참여활성화</p>	<p>학생참여위원회 구성 : 공개모집 100명 이내, 소수자 배려(20명) 기능 및 역할 : 인권조례개정, 인권실태조사, 인권실천계획,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학생참여활성화</p>	<p>학생참여위원회 구성 : 공개모집 100명 이내, 소수자 배려(20명) 기능 및 역할 : 인권조례개정, 인권실태조사, 인권실천계획,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학생참여활성화</p>

	<p>를 위한 필요한 사항 협의해 교육감에게 의견 제출</p> <p>회기 규정 : 정기회(연4회), 임시회(수시)</p> <p>기타 : 공간, 기자재, 예산 지원, 학생인권위 사무국 지원.</p>	<p>를 위한 필요한 사항 협의해 교육감에게 의견 제출</p> <p>회기규정 : 없음</p> <p>기타 : 지역교육청별 참여위원</p>	<p>를 위한 필요한 사항 협의해 교육감에게 의견 제출</p> <p>회기규정 : 없음</p> <p>기타 : 지역교육청별 참여위원</p>
인권침해 구제 장치	<p>권한은 학생인권위원회, 실무는 사무국.</p> <p>침해사건 접수, 위원회의 결정으로 사건 조사. 당사자들에게 시정권고, 교육감에게 통보. 시정권고를 받은 당사자들은 권고 사항 이행, 조치 결과 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보고.</p>	<p>학생인권옹호관</p> <p>상임 5명, 임기 3년(한 차례 연임 가능), 인권심의위 등의 언어 교육감 임명.</p> <p>기능 및 역할 :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 및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p> <p>사무기구 : 옹호관 직무 보좌를 위해 공무원, 전문조사원을 둠.</p> <p>침해사건 접수, 옹호관 조사, 당사자들에게 시정권고, 조치결과 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p>	<p>학생인권옹호관</p> <p>상임 5명, 임기 3년(한 차례 연임 가능), 인권심의위 등의 언어 교육감 임명.</p> <p>기능 및 역할 :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 및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p> <p>사무기구 : 옹호관 직무 보좌를 위해 공무원, 전문조사원을 둠.</p> <p>침해사건 접수, 옹호관 조사, 당사자들에게 시정권고, 조치결과 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p>
학교별 인권실현 상황 평가	<p>학생인권증진계획에 포함. 학교평가의 주요 지표로 포함하도록 인권증진계획 속에 명시화.</p>	<p>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인권실현상황 조사,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 학교장은 인권실현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p>	<p>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인권실현상황 조사,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 학교장은 인권실현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p>

<참고자료 2- 이슈브리핑: 교육공동체조례>

작통 경보! 유사학생인권조례를 조심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대구지부 진남



* 유사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내용상의 차이

가. 학생의 의무에 대한 강조

나. 교육감 또는 학교장 등 공적 구조(공공기관)이 가지는 책임에 대한 명시 부족

- 학교 내 인권문제를 사적 영역화하여 바라보는 관점(아래 표의 *)

다. 학생의 권리를 교육권에 제한하여 바라보는 관점

논쟁지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
두발 · 교복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i>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학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i>
보충 수업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방과후 활동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은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i>학생은 자유롭게 선택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i>
체벌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학생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 및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i>*학생은 타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i>

2.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차이

가. 여전한 거리두기: 난공불락의 불투명한 벽을 가진 학교

나. 의견수렴 및 사회적 논의의 결여: “누구의 시선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 학생부분 외에 교사, 보호자의 권리 역시 탈주체화 되어있다.

다. 법적 구속력 및 실제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 관측

3. 앞으로의 고민

가.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 지금의 학교는 공동체인가?, 교육3주체라는 말이 유의미한가 혹은 유효한가?

나. 유사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다. 지역마다 다른 상황으로 운동이 진행되는 지금의 형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참고자료 4 이슈브리핑: 엄벌징계/공립형 대안학교>

퇴학, 권고 자퇴, 강제전학의 증가

경기 학생인권조례,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학생의 방어권 보장 강화, 적벌절차의 원리, 대리인 선임권 등 (징계/벌의 개념을 징계 학생의 회복과 복귀에 초점을 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유관기관,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퇴학조치재심청구제도

: 퇴학처럼 강도 높은 처벌의 경우, 합부로 할 수 없도록. 더불어 다른 징계 절차는 학내에서 마무리 되지만, 퇴학의 경우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이걸 빗겨나기려고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자퇴'를 강요함. 중학교의 경우, 퇴학 시킬 수 없음. 그렇다 보니, 자퇴 혹은 '권고전학' 보냄. 권고 전학 후 적응하지 못해 결국 자퇴하는 학생들 많음.

* 학업중단 숙려제도

(2011. 5. 경기도 시행, 2011. 10. 교과부-여가부가 전국 확대 시행 발표)

: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 장기 결석 등 자퇴 징후를 보인 학생에 대해 숙려기간(15일)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 학생 상담·치료 전문 기구인 위(Wee)센터와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하는

제도.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숙려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숙려기간을 거친 뒤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 중 약 32%가 자퇴의사를 철회하는 등 학업 중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학업 중단(퇴학, 자퇴 등) 청소년 증가하고 있음. 학업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교 부적응. 학교 부적응의 의미를 제대로 살필 필요 있음.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해야 하나, 학교가 학생들에 적응해야 하나. 패러다임의 문제. 더불어 학교가 계급 상승의 통로 기능을 상실하면서, 학생들의 비유에 경향 증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선진·대전유성)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8년 3월1일~2011년 2월28일)**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모두 **19만3946**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교생의 학업 중단이 절반 넘게** 차지했는데, 3년간 10만2756명으로 매년 전체 학생 수 대비 1.7%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교생의 **학업 중단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 3년간 4만9082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47.8%를 차지했고, 다음이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 2만7512명으로 26.8%, 질병 6276명, 품행 1630명 순이다.

특히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1만7548명으로 전년대비 14.9% 늘었고 2008년과 비교하면 무려 59%나 증가해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기준으로 경기가 840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5505건, 부산 2280건, 경남 2082건, 인천 1979건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대전으로 1234명에서 1394명으로 13% 가까이 증가했다.

=> 퇴학조치재심청구제도, 학업중단 숙려제도에 대해 사실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음. 경기 남양주 가운고 사례 대표적. (개교한지 석 달 만에 수 십 명의 학생이 학교를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한 사건이 발생. 당시 가운고는 '벌점이 80점 이상 누적된 학생은 퇴학, '흡연 특별 규정'을 뒤 4번 이상 적발 시 퇴학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 두 가지 조항을 근거로 학교는 교칙을 어긴 학생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자퇴 및 전학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음.) 경기도의 한 학교는 1학년이 13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2학년이 되어 8개반으로 축소된 경우도 있음. 명확한 아웃제. 이들 학교는 대체로 엄격한 상벌점제를 두고 있으며, 교사의 지도 불가능을 사유로 위와 같은 조치. 문제야 '홀로코스트'.

=> 학업 중단(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의 하나로 공립형 대안학교(위스쿨) 급부상. (+인성 교육)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대안학교 운영 가능해짐. 다문화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새날학교, 국제 다솜학교)가 추진되기도 함.

=> 입학부터 학생들을 열어두고 뽑는 일부 공립형 대안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Wee)스쿨 범주 안에서 설립되고 있음. 위스쿨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을 위한 기숙형 장기 위탁 교육기관. 학생들이 머물면서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학교 과정. 대상 학생들은 다니던 학교의 학적(學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 위스쿨에 머물. 성적 하위 5% 이내 학생들 지원.

=> (경기도의 한 교사 인터뷰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치고, 받는 경험 없이 완전히 밀려난 학생들. 자폐 증세를 보이기도 좋은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학교 운영이 프로그램에만 집중. 그 학생들에게 맞는 교과연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흥미위주. 마치 교정시설(소년원) 같은 곳에서 이루어질 법한 '가벼운' 요리 수업이나 바리스타 수업이 이어지기도 함. 지식을 체계적으로 연습할 기회가 없음. 인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 소위 '부적응' 상태를 여전히 유지. 원래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많음. 학생들을 위탁 받을 때도, 학교에 '성적 안 좋고, 지도가 어려운 학생' 보내라고 공문을 보냄. 이것 자체가 위스쿨이 오히려 '문제아' 학생들을 모아 놓은 곳이라는 혐의를 강화. 학교의 '물관리'. 학생들의 인내심을 기른다는 이유로 해병대 캠프를 기획하기도. 뽕뽕이로 교사를 뽑기 때문에 문제의식 없는 교사들이 가기도 함. 발령 받으면 가산점 부여.

=> 그동안의 학교가 일상적인 규제(경징계)와 감시를 통해 학교 체제를 유지해왔다면, 지금은 권고자되나 강제 전학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추방하는 형태로 체제 유지. 공립형 대안학교는 좋은 대안처럼 보이지만, 학생이 겪는 '부적응'의 원인을 학생 개인에게서 찾기 때문에 사실 엄벌 징계의 동전의 양면 같은 정책이 아닐까. 모든 학교가 사실 '대안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립형 대안학교는 어찌면 '꼴통 특수학교'는 아닌가? 이들을 특수한 학교에 몰아놓고 분리하는 것은 소수자를 배제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장애인 특수학교와 비슷한 원리. 학교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통합 교육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참고 읽기>

<http://blog.naver.com/communebut> (격월간 교육전문지 '오늘의 교육')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검색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 문제아 홀로코스트-남양주 K고 무더기 퇴학 사태 / 혜원
- 학교가 버린 아이들, 학교를 버린 아이들 / 채효정

학생인권 심화 워크숍 첫 날

1. 학생인권조례, 아작아작 씹어 먹기

난다 : 인권교육을 보면..

알쏭달쏭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작년에 받은 학생인권 내용, 방식 별로였다. 학교에 내가 받고 싶은 걸 요구할 수 있나? 재량학습 처리 받을 수 있을까? 학교 행정실 일하는 직원인데 받을 수 있을까?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날 : 학생인권조례 중에 교사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교사가 아닌데 학교 구성원인 직원에 관한 인권교육은 없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한 번 논의해보고 싶은 건 거부권.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권리가 있나? 인권교육을 그 부분이 애매하다.

어쓰 : 저희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옴. "학습에 관한 권리" 할 때 학습을 거부할 권리일까? 휴식에 관한 권리가 조례에 있는데... 수업 과정에서 수업을 거부할 권리? 살짝 옆드려 잔다던가 휴식을 취할 권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거 막 다 하더라도 정규 수업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 같다. 1교시~6, 7교시까지 정규 수업 안엔 학생인권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A : 참여권, 거부권 이런 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있다보면... 하기 싫은데 와서 앉아 있는 아이들도 있고 말로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지만 교사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게 고민이 됐는데. 오히려 이게 더 확립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는 인권교육 이런 거 실적으로 채우기만 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빠져도 그냥 왔다고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게 존중이 되는 부분이 커진다면 그 교육에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홍보 부분이나 교육의 질적 부분이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한날 : 어쓰님 얘기는 감당할 수 없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건데... 저희가 헛갈린 건 이게 인권교육인데. 인권교육이 과다하게 부여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2시간 의무인데.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선택한 게 아니면 거부할 수 있다는 선택의 여지가 조례에 별로 없는 것 같다. 인권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조항이 되어 있다. 학생이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게 되어 있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인데? 하는 것이..

등코 : 인권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다들 집중하고 참여하고 하지 않아도 강사로 간 사람들은 최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날 : 수업 안에서 방조한다, 자체적으로 수업 거부 하는 분들을...

어쓰 :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근본적으로 뭔가 인식의 변화나 제도적 보장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인권교육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인권 교육을 가는 건 아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권교육 강사단 양성해서 내보낸 결과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렇다고 했을 때...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든다.

난다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예배시간 땡땡이 친 학생에게 주기도문 100번 감지 쓰기 시키기, 수업 시간에 곱창 먹은 학생에게 곱창 물고 잇게 시키기, 덧붙여진 걸로 학생간 폭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직접 때린 건 아니고 옆에서 보고 있던 애들도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다. 감지 쓰기 시키는 이런 것도, 체벌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다.

두런1 : 양심의 자유에도... 주기도문이 기도문이니까. 그런 걸 함부로 쓰게 강요하는 것도 양심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 같다.

난다 : 수업시간에 곱창 물고 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내화 물고 서있으라고 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맥락이었던 것 같다.

등코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모욕이나 불쾌감을 주는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다.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난다 : 덧붙여진 걸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 학생간 폭력. 따돌림에 대한 것.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쓰 : 학생간 폭력에 관해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룰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난다 : 자치 참여의 권리. 알쏭달쏭하다고 한 것들이... 참여할 권리라고 했을 때 이 참여할 권리가 세세하게 적혀 있지 않아서, 참고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지금도 많다. 얼마만큼의 발언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는 알쏭달쏭함. 학교 운영에 얼마나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하는 건 자치회의 활성화나 자발적인 참여 등과 관련된 밀접한 문제인 것 같다.

학생회에 관해서... 학생회가 특정 집단이라는 인식. 모범생이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학생회가 된다는 것들. 학생회가 아닌 학생들의 의견,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 학생회 활동을 공개하고 학생회에 참여하는 규칙 방법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 안에 들어가지 않은, 또는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들... 학생들이 절차를 통해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 다른 학교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등코 : 조례 외적 부분으로, 조례로 규정할 순 없는 건데 학생회가 스펙이 된다. 대학 갈 때 써서 내고 그렇

기 때문에 학생회 성격이 더더욱 공부 잘하는 모범생 집단? 총애 받는 애들? 이렇게 구성되는 것 같은데... 학생회가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의견으로 모으는 작업들이고.. 메리트가 없으면 학생회 구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난다 : 표현의 자유. 서로의 학내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가운데 두번째 게 좀 논쟁이 많았다. 왕따 등 학내 문제 파악을 위해 무기명으로 학생들에게 조사를 하는 게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가? 뭐 그런 이야기...

등코 : 이 애가 다른 애를 괴롭힌다고 쓰는 것도 표현의 자유일 텐데. 어쨌건 공동체 내에서 알려지거나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고민이 된다. 표현의 자유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권 관장을까? 싶은

난다 : 자치조직의 권한이나, 개인, 가해자 피해자들의 권리와 어떻게 충돌하는 문제 같다는 코멘트를 주셨다.

B : 설문조사를 선생님들이 하기도 하는데. 그 설문조사 자체가 의도와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 누구의 의견을 묻는다는 명목하에 그런 게 할 수도 있는데...

C : 학생인권조례 16조 2항 보면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할 경우에-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권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의 실현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신상이 노출될 경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이야기 할다가 저런 질문을 만들어봤던 것 같다.

한날 : 조사 과정에서 인권이 보장되었나 문제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조사였나에 따라 표현의 자유일 수 있을 것 같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괴롭힌 애 이름 적어 내라고 하는 건 징계나 낙인찍기 효과, 목표가 있는 거다. 그런 목표라면 문제적일 수 있지만... 음 좀 애매하다 사안이.

조영선 : 저도 해봤다. 우선 응하고 안 응하고가 본인의 판단이... 응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다면, 사건이 발생했고 수사를 해야 한다면... 경찰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침해냐 아니냐 하긴 어려울 것 같다. 강제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그 정보가 모아지고 유통되는 방식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유통이 되고... 사실 의도를 가지고 할 때, 범인을 잡아내려고 해도 많은 학생들이 응하지 않으면 증거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절차가 꼼꼼하게 돼있으면, 행위만 같고 판단하긴 어렵다

A : 저는 설문 목적이 중요한 것 같다. 왕따나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한 거라면, 가해자를 찾아낸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싶다. 목적에 따라서...

한날 : 학교에서 번번이 성폭력을 한 교사가 있다고 할 때.. 증거 확보를 위해 교사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는 것... 그럴 땐 설문조사가 표현의 자유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왕따나 이런 경우에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설문조사일 것인가..

등코 : 굉장히 치밀하게 왕따를 시키는 경우에, 이름을 쓰고 한 게 제보하고 한 게 알려지면 애가 나쁜 짓하고 애가 이랬다 하기 어려울 수도

조영선 : 최근 경험한 게, 한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데, 괴롭힘 활동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건 주변의 무관심이다. 범인을 찾아내려고 설문조사를 하다가, 전체가 공범이란 게 밝혀진다. 답임이 문제를 인지하고 정황을 알려고 하면.. 이름도 나오지만, 얘기하는 거다. 우리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관련자가 많아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더 이상 한 사람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2차로 글을 쓰게 할 때는 고백록을 쓰자, 1차에서 피해자는 확실히 드러났고.. 자기가 뭘 했는지 고백록을 쓰자, 앞장선 사람 방조한 사람 각자 고백록을 쓰는 거고.. 다시 안 그러겠다, 하고 마무리한 적이 있다. 이런 경우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모두가 잘 모르고 은밀하게 한 명이 한 명을 하는 경우는..

어쓰 : 학습의 자유. 아자 보충 관련해서, 자기가 신청서를 먼저 제출했는데, 한 1~2주 하니까 하기 싫다거나 오늘 할 기분이 아니라서 빠질 때 빠질 수 있는가, 하나랑. 두 번째로 정규교과 외에 교육활동이 안 된다... 인데 어디까지가 교육활동인가. 운동장조회는 교육활동인가? 이런 거랑. 9조 2항에 보면 교직원 및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의결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유는 그런 것 같다. 3교 때 체육시간에 수학 수업하고 그런 걸 방지하려는 거 같은데... 그게 왜 학운위의 심의 의결을 받는다는 식으로 된 거지? 이 조항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었고 그리고 수업시간 줄릴 때 지는 것도 휴식을 취할 권리로 볼 수 있을까? 저런 상황은 교권이나 수업권이 침해됐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의하지?

난다 : 교권 수업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패스해놓고...

고은채 : 9조에 학운위서 교육과정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 거에 검열의 뉘새가 솔솔이라고 의견 단 건데.. 학생 자치나 스스로의 결정에 맡기면 되는 걸까, 검열이라고 하면?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고 스스로 배우는 것도 있고 해서 검열이라고만 하기에는 ? 가 생겨서...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학운위라는 것에 결정권에 학생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 좀 약한 거 같기도 하고..

공현 : 사실 저건 교장 등이 막 아자나 보충수업 등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다. 그런데 해석에 따라 교육 내용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도 있긴 하겠다.

조영선 : 솔직히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운위 역할은 거의 없다. 국가가 강제하는 과정.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8과목으로 맞추라고 해서... 사회 하루에 한시간씩 일주일에 6시간 사회를 배우고 하는데... 어차피 단위학교가 뭘 할 수 없다. 방과 후 학교? 등에도 학운위가 하는 역할은 거의 없다.

어쓰 : 수업 시수나 수업 과목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1년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언제 배치할 것인가, 소풍이라든가 정규수업 외의 것에 대한 배치, 학사일정 등이 포함된다고 하

더라. 인권교육 관련해서도 열성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와서 1시간만 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세세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난다 : 학운위 뿐 아니라 학생 자치 조직이나.. 자치 참여 권리에서 보장됐던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어떤 방식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난다 :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한날 : 이따가 엄벌 징계 관련 얘기해서 할 예정이다. 그래서 좀만 간단하게...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 분분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보자.

난다 : 징계 내용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성찰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할지 잘 모르겠다. 엄벌 징계로 계속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성찰이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잘못된 학생에게 뭔가 조치가 안 내려지는 것도 참 그렇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청소가.. 별로 접근을 할 때 좀 아닌 것 같다. 청소가 별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 피해를 끼쳤을 때 그 보충 정도로 인식될 수 있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이야기들. 기본적으로 인권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되, 성찰이 보장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돼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이어서 하면 좋겠다. 학생자치법정은 대부분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벌할까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안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난다 : 개성실현의 자유. 다른 사람에게 모욕감 수치심을 복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랑. 체육시간에 드레스를 입는다거나 하는 것? 그리고 개성실현을 위해 자기 몸에 상처 입히는 걸 제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알쏭달쏭에 나왔다.

일단은 맨 위에 모욕감, 수치심을 주는 복장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은... 답은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인 것 같은데. 소수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모욕적인 발언 등은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체육시간에 드레스를 입고 왔다면... 체육 수업을 안 하고 싶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여기 맞는 복장을 하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거나 그걸 거부한다면 참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한날 : 모욕감이랑 혐오감은 다른 감정인 것 같다. 첫 번째 질문이 모욕감인 건데... 문신하고 타투 한 사람이 목욕탕 올 때 혐오를 이유로 못 오게 했다고 했는데. 저는 모욕감을 이유로 제한하는 건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데, 혐오감을 이유로 제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난다 : 마지막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반차별 키워드. 알쏭달쏭한 것... 수업시간에 교사가 동성애는 안 돼, 라며 차별적 발언을 하는데 동성애 혐오를 일삼는 개인 교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했을 때... 소수자 차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야 하고 인권교육이나 그런 방식을 통해 개선한다거나, 일단 이걸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반말을 하는데 저도 반말을 해도 되나요? 하는데... 너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이라기보다는 존중의 문제니까 존중을 요구할 수 있고 친해지

고 싶다면 같이 반말을 한다거나... 수학여행 비용을 낼 수 없을 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등... 에 대해서 무상 수학여행 되어야 한다는 기똥찬 의견이 나온 것 같구요 교육 현장에서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나뉜다고 생각한다. 수학여행 비용은 선별적 복지? 아님 더 나아가서 보편적 복지? 이런 의견이 있었다. 수학여행 비용 막 비싸지고 그러는데, 수학여행 가기 전에 당연히 좀 고려를 해야... 어디로 가고 싶냐도 물어봐야 하고..

한날 : 조례를 풍부하게 해석해보자는 건데... 조례에 보면 학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어디까지 학교한테 노력할 걸 강제할 수 있을까? 싶은.

조영선 : 광노현 교육감 되고 나서 수학여행을 규모로 가라고 하면서, 예전엔 에이전시랑 싸바싸바 해서 그냥 물어 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진짜 못 가게 되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었다. 선별적인 거는 이미 되고 있다. 대규모 집단 여행은 좀 여행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에서 20만원 줄 테니 계획을 짜서 여행을 가봐라 이런 건가? 흠. 무상 수학여행이 안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무상급식이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느끼는 게, 밥은 되는데 왜 저건 안 돼? 생각하게 된 듯

등코 : 방송반이 막 한 학교에 10개 이렇다면,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데, 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문제는... 지역이 가난한 학교나 그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을 테고 그런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조례에서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도..

난다 : 적극적 조치란 측면에서.. 제 병력이 드러나서 학생들이 따돌린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학교가 조례 상으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 같다.

조영선 : 드러나서 이미 된 걸 학교가 극복하게 노력하긴 어려운 것 같다. 예를 들어 전학이 되게 어려운데, 동일지역 내에서는 안 되는데,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 전학을 하게 하고 그 사유에 대해 보호를 해준다든지... 학교폭력에서도 징벌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런 조치를 하기도 한다.

난다 :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8가지 키워드를 다 살펴봤다. 이런 걸 가지고 매뉴얼 작업 등을 할 수 있게 써먹으면 좋겠다. 지금 한 10분 정도 쉬고 40분에 두번째 시간 시작하겠다.

2. 학생인권조례 이후의 복병들

한날 : ...학생인권조례 이후, 해결하기 힘든 난관들이 있는데. 요 네 가지가 나왔다. "상벌점제 / 짝퉁 조례(교육공동체, 교육권리헌장, 학교권리조례) / 학교 폭력 / 엄벌징계" 요것까지 꼭 다뤄보도록 하겠다. 도입 부에 준비한 게 뭐냐면, 길지 않게, 짧게, 이슈브리핑을 해보려고 한다. 상벌점제는 이수나로의 해원 님. 경기도내에서 상벌점제 설문조사를 한거죠 그리고 진냥, 어쓰 저 순서로 짤막하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해원 님?

해원 : 제가 올 한 해, 상벌점제 때문에 열아홉, 십대의 끝자락을 다 팔아먹었다. 체벌금지 이후, 상벌점제가

마지막 대안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학생들의 의견이 어떤 지 그 의견을 물어봤다. ("2011경기도 학생 대상 상벌점제 설문조사 결과 자료" 참고할 것) PPT보며 이야기 함. ...제보 사례 살펴봄. 남양주 가운고 문제이라고 낙인찍은 학생에게 계속 벌점을 부과함. ...가운고 사태를 봤을 때, 학생들을 내모는 효과. 인종청소하는 것 같은. 그 이후에 벌점이 쌓였을 때에는, 벌점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무더기로 강제 자퇴당해도, 명분이 되는, 정당화되는 것으로 상벌점제가 쓰이고 있다. 다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

한날 : 상벌점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들어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진냥 님의 이슈브리핑을 들어보겠다.

진냥 : 안녕하세요 짝퉁조레라고 얘기하는 건, 가장 먼저 언론에서 표현한 말... '유사학생인권조례'라고도 제가 부르고 있다.

한날 : 자료집 뒷부분을 보면, 자료가 있다.

진냥 : 일단 저는, 진냥입니다. 진냥인 이유는 양이랑 성격이 닮았다고 해서요... 학생인권조례 전국적 상황. 경기도 제정됐고 얼마 전 광주 제정됐고 회색으로 정리된 부분이 유사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곳. 교육공동체조례를 봤는데, 대구권리현장보다 좀 나은 것 같다. 대구교육권리현장을 일단 가지고 와봤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대구교육권리현장 비교표 보며 이야기 함. 그간에 있었던 사회적 논쟁, 합의가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도 참 문제다. 대구권리현장 보면 약자인 학생에게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프레임이 존재한다. '유사학생인권법률'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 => 교사의 권리, "뭐가 교사의 권리아?" '무죄추정의 원칙' 이게 끝. 흔히 하는 얘기, 자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을 가진다. 뭐가 교사의 권리인지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안 나와있음. / 보호자의 권리, "그래도 학부모가 학교에 간섭하면 안되지!" 학부모가 지역사회에 변화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벽을 두고 싶어하는 것 같다. / 학생의 권리, "학생의 권리는 학습권?" 교육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 조례는. 교육공동체조례도 마찬가지. 인권이 아니라 학습권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음. "권리만 주면 학생들은 미쳐 날뛰거야. 의무도 중요하다고!"라고 함. 각 항마다 권리, 의무, 권리, 의무...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책임 명시가 없다. 중심이 지역사회가 아니라, 교육감이 중심이 되어버렸다.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학교가 과연 '공동체'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 교육공동체조례도 그렇고, 교육권리현장도 그렇고, 계속 교육3주체라는 표현을 쓴다. 과연 이들이 동등한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가? 각 주체들의 시선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누구의 시선으로 쓰여있는건가, 하는 문제의식. 대구는 난감한 상황이다. 대구교육권리현장이 유사학생인권조례가 쓰여진 첫 번째 케이스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걸 하겠다는 곳이 네 군데 정도 있는데, 이게 학생인권조례가 파급력이 있었던 것만큼, 이것도 파급력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된다.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되는 게 괜찮은 일일까? 지역마다 다른 스펙트럼을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다.

한날 : 가벼운 발제를 요청드렸는데, 참 꼼꼼하게 해주셨다. 감동. 이어서 어쓰의 발제.

어쓰 :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민이나 활동이 있어왔을 것 같다. 학생 간 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없었다. 공감, 반대, 이런 얘기조차 없었다. 좀 공론화를 시켜보지는 생각이었고, 질문꺼리들 고민들을 짧게 얘기해보는 형식으로 이야기해보겠다. 학생 간 폭력으로 제일 많이 언론에서 이슈화되었던 것이... 언론들이 참 많은 관심 가져주었다. 언론에서 눈에 보이게 뻗히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더라도 학생 간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은 아님. 그래서 학생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학생 간 폭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하는 고민들... 학생 간 폭력에도 다양한 결이 있는 것 같다. 남학생의 폭력, 여학생의 폭력, 장애, 차별... 마지막으로 학생 간 폭력의 대안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따뜻한 학교 만들기"라거나. 마지막으로 했던 생각은, 사실 그렇게 언론기사도 많이 나고 사람들도 얘기 많이 하고 하면서, 지금의 학교가 폭력적이라는 것을 모두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걸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가기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 간 폭력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한날 : 마지막으로, 엄벌징계와 공립형 대안학교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자료집 참고 "참고자료4"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조례안 검토할 때, 서울시 조례안을 보고 활동을 했다. 그 중 25조가 징계에 관한 권리였다. 이 담았던 내용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도 흡사하다. 충분히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도,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퇴학의 경우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는 것이다. 이게 암만 있다 하더라도, 비껴가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자퇴 요구, 강제전학(권고 전학)이 나온다. 교과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를 했다. 아 이거 좋다고 자퇴 징후를 보인 학생들이 15일 정도를 숙려기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암만 이런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학업중단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이유 중 하나가 '학교 부적응'. 지금 사회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부적응'이다. 학생이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에게 적응해가면서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자기가 당장 가지고 있던 욕구들을 유예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사실상 학교가 학생들에게 그런 제도들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자료집 참고-엄격한 상벌점제도가 학교에 있었던 경우/도저히 지도가 안되는 애들이다, 라는 이야기...) 엄벌징계라는, 묘한 동전의 양면 같은 걸로 진행되는 게, '맞춤형 공립 대안학교'. 이게 '위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공립형대안학교들이 입학부터 학생들을 다 열어두고 뽑는 경우는 그나마 나운데, 대부분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장기적 위탁 교육시설'인 썸이다.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교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부대끼는 경험 없이 따로 떨어져서 가게 되면서, 자폐증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교과연구는 거의 없고, 반짝 해보는 이색 프로그램들로만 채워지는.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부적응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심지어는 뽕뽕이로 그 학교

의 교사를 배치한다. 이것 때문에, 공립형대안학교를 가면 교육청에서 가산점을 준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 예전의 학교가 운영되던 방식이 경직계와 감시였다면, 지금은 학생들을 완전히 추방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엄벌정계도 애 때문에라하면, 공립형 대안학교도 애 없애고 애 교육시킨다, 라는 관점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소수자들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정책들과 뭐가 그렇게 다를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여기까지. 참고자료는 꼭 읽어보셨으면 한다. 바로 이어서 뭘 하려고 하나면요, '복병들' 페이지를 보세요. 모두 별로 자리를 이동할 거다. 그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동안 이 주제로 모두 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질문들을 뽑는 작업을 해보려고 한다. 그럼에도 내 안에 드는 의구심, 헛갈리는 것들을 질문 형태로 뽑아보려고 한다. 징검다리 질문 예시들을 몇 가지 뽑아왔다. 예를 들어 상벌점제 같은 경우는... 상벌점제의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상벌점제의 근본적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보완책을 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류의, 애매한 고민들을 모아보면 좋겠다. 학교공동체조례 같은 경우, "학생의 권리를 규정하고, 그 권리를 뒤집는 단서조항을 드는 건 문제인 것 같지만, 의무 조항을 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하는 식으로 구조 뿐 아니라 그 구조의 구성원들에게도 어떠한, 일정 정도의 의무와 책임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 쪽으로 의무의 프레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든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고민들을 좀 뽑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징검다리 질문들을 참조하셔서. 원하는 모둠으로 가시면 된다.

한날 : 그럼 얘기 마무리해주시라. 시작해보겠다. 순서대로 상벌점제부터. "교사는 왜 생활지도를 해야 하지?" 이게 근본적 질문 같다. 그리고 뭐가 생활지도의 대상이고 영역인가... 또, "왜 우리는 상벌점제를 막을 수 없나?" 이게 완전 폐지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방어할지 이야기하게 되는 듯...

얼마 전에 상벌점제 토론회 할 때, 갈등을 느꼈다. 체벌 토론회를 했어도 똑같은 것 같다. 체벌금지가 되긴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체벌을 왜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상벌점제 토론회해도 똑같은.

조영선 : 오히려 강화됐다. 인성으로 지도하라고 하고 마음까지 잘하게 하라고 한다.

한날 : 질문 취지랑 닿아 있는 건... 어쨌거나 학교에서 규제해야 할 문제행동이 있다, 라는 전제가 있으면 상벌점제 같은 거 없애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학교에서 보는 문제행동이 뭐고, 뭘 별점을 주고... 그걸 지도하는 게 교사의 일인가? 이게 질문이다. 왜? 어떤 생활지도를? 무엇을 규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면 좋겠다.

두런2 : 궁금했던 게... 보호랑 규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다.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는 건데. 학생들이 술이나 담배까지도 자기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다. 술이나 담배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거라고들 말한다.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 학생들이 사회적 인식 하에서 좋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동의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을 할 건지.

나쁜 행동도 모든 나쁜 행동이 다 허용되어야 한다? 가서 엑스터시를 해도 터치 안 할 거냐? 이걸 또 아니다. 어디까지가 보호이고 어디까지가 규제인지 그 한계 설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다. 저도 술담배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지만 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커왔는데... 부모님이든 사회 어느 곳에서도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걸 꼭 제재 수단을 가지고 규제해야 하는 것인가? 판단권을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갖는 게 정당한 건가? 교사가 판단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저런 일탈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나타날 건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 우리가 제재를 하든 규제를 하든 보호를 하든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날 : 그냥 청소년들이 술담배 하는 것과 학교 안에서 술담배 이런 의미는 또 다르다. 학교 안에 흡연실 이런 얘기하면, 끈대스럽지 않은 교사도, 공공기관/시설의 의미 이런 얘기하기도 한다. 만약 제재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제재에 상벌점제라는 수단은 효과가 있나? 이런 것까지 고민

조영선 :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게... 사회 법규? 그 정도까지만 가도 참 괜찮은 것 같다. 사회 법규가 성인들까지는 다 되는 건데, 흡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금연 구역이 있는 거고 금연 구역에서는 안 되고... 재미있는 건 성인들은 금연구역 있는 곳에 흡연구역이 따로 있다. 이번에 그걸로 학교에서 밀어붙가 하는데 또라이 취급 받을 듯? 법적으로 청소년이 술담배를 하는 걸 금지하는 법은 없다 사실. 피는 게 금지되어 있지. 사회에서 보장하는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싶고... 효과는 사실, 그 행동을 완전히 안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징벌이 갖는 의미는, 적어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타인의 삶을 피해를 엄청 많이 준단든지 이런 게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 예컨대 폭력이나 도난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게 하는 그 정도에서 범죄를 통제하는 것이다. 애들이 학교에 물건 갖고 다녀도 괜찮다, 하고 안정감을 느낄 정도의 통제하는 징벌이 필요한 거다. 그런데 그거에 벌점제가 소용이 있나?

한날 : 사회법규 얘기한 거랑 연결이 된다. 사회법규에서의 절도 폭력 등의 범죄..

진남 : 저는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까지 허용되냐 이런 얘기랑 상벌점제랑 또 다르다고 생각한다. 담배가 안 되든 술이 안 되든 그거에 대한 판단과, 그걸 왜 교사가 단속해야 하느냐 이걸 다른 것 같다. 교사에게 사법권이 부여되는 건데, 상벌점제 정확하게 깔끔하게 하려면 CCTV 깔아서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사람들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왜 교사에게 그걸 지적하고 판단하고 벌하는 권한이 주어지며... 무슨 근거로? 상벌점제 형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같증이 난다

고은채 : 누가 단속을 할 수 있는가로 가면 약간 경계되는 게 있다. 그게 단속의 꺼리인가... 이게 지적이 되어야 할 꺼리인가, 행위주체로 봤을 때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단속할 수 있는가로 떨어뜨려 놓고 행위 주체와 단속하는 사람으로 가서 보면, 예를 들어 경찰이 들어와서 할 수 있나? 그럼 좀 불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느냐 따져봐야 하지만 지도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따져봐야 하지만, 관계를 완전히 떨어뜨려놓는 건...

한날 : 체벌이 전근대적이라고 한다면 상벌점제는 전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의 사이에 있는 것 같다. 근대적인 걸로 혹 가면 미국처럼 갈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 경찰이 들어온다거나... 차라리 경찰 들어오는 것보단 상벌점제가 나으려나? 묘한 생각들이.

B : 실제로 아침에 뉴스에 떴다. 출석카드 찍는 거..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하는 게 국가인권위가 그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냈더라. 학생 관리 차원이라고 하는데... 히스테리적인 거다. 학교에 지켜야 할 규율이 먼저 있는 거고 그걸 떴다 안 떴다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교사인 거고... 교사가 먼저는 아닌 것 같다. 시스템이 먼저 있는 것 같다.

진냥 : 학교의 사법권이기도 한 것이다. 학교가 교육기관이라고들 말하지만, 상과 벌을 주는 교도 기관 같이 되고 있다.

동코 : 구성원들이 말을 걸기를 무서워하거나 귀찮아 한다. 체벌도 말이 필요 없는 방법이고 상벌점제도 말이 필요 없는 방법. 상벌점제는 덜 귀찮고, 딱 눈에 보이고... 소통을 하세요 말을 거세요 하면 그건 눈에 안 보인다. 그게 난점인 것 같다. 대안을 내놔봐라 하면... 말을 건다는 건 교사가 더 고생을 해야 할 거 같고 교사가 심리 기술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과 소통해야 할 거 같은? 위치가 동등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조영선 : 상벌점제 고민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회복적 정의"인데, 정말 공동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범죄가 아닌 이상은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학교가 거대화됐고, 벌점카드를 내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서로 썩갈 수 있는 관계라서 가능한 것 같다. 서로 관계가 있으면 민망하다. 서로 모르는 타인이라서 가능하다. 교사 학생 관계가 이미 그렇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교사 학생 관계가 망가지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그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저런 길을 가는 건가? 아니면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 회복하세요, 이러한 아까 어쓰가 말한 것처럼 비폭력, 대화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렇다. 서로에게 거리가 있고 선이 있으면 좋겠다. 안 친해도 좋으니까. 차라리 교사와 학생도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예의, 사생활을...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회복적 정의를 얘기하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이중적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한날 : 학교가 공동체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또 끈끈함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 같다. 학교를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학교가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외에 여러 영역에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공동체여야 한다고 얘기하면, 학생들의 삶에 대해 점유를 가지고 있을 거 같다. 거리두기가 되고 딱 수업하는 공간, 수업 있는 공간이고, 수업 끝나면 끝나고, 이런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 쪽에 막 드는 것도 있다. 상벌점제를 막을 수가 있을까.

메달 : 상벌점제를 못 막는 게, 어쨌든 교육청도 상벌점제에 대해서 그다지 저건 좋은 거야 저렇게 가야 돼, 하고 입장을 내오진 않았다. 체벌 금지하고 학생인권조례 들어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사실 그거에 대해 근본적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못한 거다. 지금 학교에서 술담배 하는 친구들 별 쥐야 한다는 게 아직까지 당연한 인식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 시스템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한 건, 소위 복유립 교육에 학교 행복지수 1위라는 덴마크 갔는데... 중요한 건 거기도 규칙이 있다. 술, 담배 뭐 마약...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 다른 건 뭐냐면... 어긴 친구는 어떻게 해요? 하니까 이야기해요 이야기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이야기해요 그 대신 그 이야기 범주가 교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범주에서는 토스를 한다는 거다. 수업 시간에 장난도 똑같이 친다. 하지만 교사가 터치를 안 한다. 그런데도 수업이 된다. 그건 뭐냐면 이근 내 영역이 아니란 걸 교사가 알기 때문이다. 완전하게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정도가 아니면 수업을 진행을 한다.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우린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날 : 시간 제한이 많아서 폭력적으로 진행을 좀 하겠다.

메달 얘기 들었을 때... 덴마크 얘기 듣고 어떤 상상을 했냐면. 생활 영역을 교사가 관여할 게 아니란 게 어느 정도 있는 거 같다. 그런데 상벌점제에서 많은 부분이 생활지도를 대체하려고 한 건데. 그럼 상벌점제를 생활영역에서 안 한다고 친다면, 수업은? 수업에서는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

조영선 : 이번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교사 지도 불응이란 항목을 없애보려고 수업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행동을 짚 해서 교사 학생이 동의할 수 있는 걸 벌점에 넣자 했는데. 교사는 학생을 깨워서 수업에 함께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학생은 재미 없는 수업은 잘 수도 있다. 수업 시간에 음식물을 먹으면 방해가 되어서 안 된다, 아니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봤는데, 교사 중에 학생 입장을 택해줄 사람도 없고, 학생 중에 교사 입장을 택하는 사람은... 몇 명은 있다. 깨울 수 있다 정도에서 깨우는 게 성의다, 이런 애들 있었고.. 먹는 거 떠드는 거 방해가 안 될 정도.. 라는 것도 기준이 애매하고 수업 규칙이 폭력적이라고 느낀 게, 수업 형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됐다. 나 같은 경우 15분은 내가 안내하고 나머진 모둠활동인데 계속 떠들어야 하는데... 이게 모둠활동 수다인지 다른 이야기 할 건지...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서 할 수가 없다.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수업 형태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다. 기계적으로 수업 형태를 만들어버리게 되는... 좋게 만드는 수업 규칙조차도 교육 내용과 방식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지키도록 노력하자? 이 정도 예의로 지킬 건 뭐가 있을까 나눠볼 순 있지만 그걸 벌을 주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날 : 다양한 수업과정과 다양한 수업이 있을수록 상벌점제는 의미가 없는. 기계적 수업이어야 상벌점제가 가능한

이거 끝내고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차악의 상벌점제 만들기, 모둠에서 나온 얘기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으로 상벌점제가 가지는?

조영선 : 벌점 쌓여서 퇴학되는 그런 건 없애고 생활 영역은 벌점에서 없어져야 하지만, 영역별로 블록을 시켜야 한다. 청소 안 한 건 청소 안 한 거끼리, 학교폭력은 징계가 따로 있으니 넣으면 안 되고,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벌점 항목이 많이 없어지긴 한다. 그리고 상점은 만들지 않는다는지. 상점이

별점을 상쇄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별점이 쌓이면 그걸 그 학기에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에 있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차악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조건? 행동들끼리 블록시키고 등등...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있는 걸 손댄다면. 그런데 그러다보면 별점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게 된다. 그런 게 전략적으로..

한날 : 별점제를 해도.. 별점이 쌓이면 기분 나쁘고 그냥 끝인 거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당하는 거 개의치 않고 공부에 별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은 별점 받아도 의미가 없다는 것. 학생들별로 상별점제에 대해 체감하고 느끼는 게 다를 것 같다.

여기 나온 걸 대략 다뤄보려 노력했는데 시간이 언제나 부족... 다른 주제들도 있으니 쉬고서 20분씩 각 주제들 하고 마무리하겠다.

한날 : 학교공동체/교육공동체조례, 헌장부터 볼게요.

뽑은 질문들을 읽어보겠다.

어쓰 : 저런 조례, 헌장이 힘을 받고 있는 건데. 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까? 왜 그럴까 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학생인권조례와 교육공동체조례가 대립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선 어쨌든 vs. 구도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교육공동체 조례 학교 공동체조례 헌장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왜 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하나?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다. 왜 학생인권조례인가,라고 우리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다.

대구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조례는 씨알도 안 먹힐 거 같은데 그럼 이거라도 만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근본적으로 의무가 어떤 건지에 대해 되짚어보는 과정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식의 얘기까지 했다.

한날 : 왜 이게 더 사회적 정서상 좀 더 편하게 받아들여지는가? 했을 때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내는 교사와 학생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화법인 것 같다..

진냥 : 지지받는지 잘 모르겠다. 지지받는 느낌이 아니라.. 저것도 싫어한다.

공현 : 아예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다기보다는, 전교조? 이런 정도에서?

진냥 : 전교조도 지지 않는다.

메달 :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시끄러우니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한 발 빼는.

진냥 :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더 싫어한다. 너네 왜 이런 걸 하느냐. 대구는 헌장조차 안 만들어도 되는 분위기다. 학생인권 반대하는 쪽에선 교육감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한날 : 진냥님의 말을 들을수록 이거라도... 되는 게 큰 거구나 하는 느낌이 커진다.

등코 : 학생인권조례는 편드는 느낌이 있는데... 권리와 의무가 반반 있어요 모두의 권리 의무가 있어요 하면 법 같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편드는 느낌이 없어서 좋아하는 것 같다.

대구2 : 저게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다.

한날 : 전교조 같은 데서 더 좋아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공현이 얘기했는데...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교사들 만날 때, 보통 교사 분들과 만났을 때 서운한 감정을 많이 표시를 한다. 왜 그런가 했을 때 교사를 주제로 보지 않는다 류의 얘기도 있지만, 학교 교사들 말고, 지역아동센터 교사들한테 얘기를 해도, 관계를 냉각시킨다는 거였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공동체'를 놓지 못하는 것 같다. 서로에게 문제제기하고 하는 낯선 관계 말고 공동체, 품는 관계를 원하면, 당파성 두드러지는 조례가 서운하다는 게 있다.

A : 저희 쪽에서도. 권리 교육을 하고 나서, 내가 가해자가 되는 느낌이었다고 교사가 표현을 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는 교사들도, 교사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느낀 것 같다.

조영선 : 저는 이거는 교육공동체조례에서 학생인권조례에서, 진짜 이렇게 대등한... 어쨌든 정치적 수사라고 본다. 현재 상황에서 교권을 보장하는 방안은,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너무... 예컨대 두발자유 체벌금지든 돈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북의 교권조례 같은 경우 내용은 선진적이다. 사상양심 자유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그게 돼봤자 학교 현장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사립학교 정도? 사립학교에서 종교 강요? 그런 거나... 학생들 인권은 너무나 없어서 영향을 미치는데, 교권조례 있어봤자 뭐 그정도는 이미 있는 거다. 그런 건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나 노동권을. 조례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너무 두터워서... 이걸 한다고 교사 입장 생각해주고 하는 건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않으니깐 곁에 테두리만... 교권조례도 있어, 하면 음 알았어... 달래주는 정도 효과가 있는 거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거라도..."가 비참하단 생각은 안 든다. 그런 고민은 든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사가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그걸 더이상 감출 수 없다고 본다.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 조례 서명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본질적으로 가릴 수 없다. 솔직히 가리는 게 좋은 거 같지도 않다. 인정하고 가야 하는 면이 있는 거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공동체조례라고 해버리면 그런 쟁점을 가려버린다. 학생인권조례로 갈 수 있다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두발자유 체벌금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하자, 하면 교육공동체조례라도 내용을 넣어서 가는 거고... 학생의 권력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면 학생인권조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시도별로 이렇게 인권이 다르다면... 인권의 가장 큰 무기는 보편성이라서 영향을 받는 거다.

진남 : 대구권리현장 제목이 오마이뉴스가 "대구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조영선 : 견인 역할이 있긴 하다. 학생인권법 운동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논란은 없었을 텐데 논란이 없었던 만큼 별 효과도 없었을 수도 있다. 누구는 경기도는 두발자유가 됐는데 서울은 안 됐네 이런 걸로 얘기가 나오고 교사들 양양거리기도 하고... 이게 힘인가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같은 대한민국에서 어딘 이렇고 어딘 이러면...

한날 : 조례가 지역마다 하다보니까, 그동안 이루어졌던 쟁점을 다 무시하고 만들어진 현상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쟁점이면 두발자유나 체벌금지 정도는 돼야 할 거 같은데, 그걸 확 건너뛰어버린... 조례란 방

식이 가진 한계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럼에도 지역 내에서 쟁점을 만들면서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

요거 이야기를 나눠볼까? 의무... 조례 차원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무가 권리를 억누르는 것 또는 어떤 책임을 과도하게 물리는 방식으로 의무를 만드는 건 인권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의 사회적 책무로서 의무를 얘기하는 건 유의미할 수도 있단 생각을 한다. 차별하지 않을 의무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 학교 교육 갈 때 이런 교칙도 있다, 하고 제시하는 게 독일 어느 김나지움의 학칙인데, 거기도 공동체규칙을 정하면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의무 항목을 넣는데, 차별하지 않을 항목을 넣는 거다. 그런 건 어떨지 생각도 들었던..

메달 : 의무랑 책임이랑... 경기도도 의무 얘기 너무 많이 강조해서 오히려 의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해야 하나.. 그거에 대한 것들을 딱 정리가 안 되긴 했는데... 의무가 더 강한 건가 책임보다?

한날 : 권리하고 어울리는 대쌍이 의무 같고 자유하고 어울리는 대쌍이 책임 같다. 난 이런 느낌인데...

조영선 : 우리가 지금까지 의무 자체를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개인의 의무보다 시스템의 의무를 얘기했고... 교육감이 인권보장의 의무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한날의 말은 개인의 의무에 관한 것도 규범으로써 의미가 있지 않나 한 건가?

한날 : 아까 그 사례가 딱 걸렸다 HIV 감염인이라든가 알려진 이후에 차별을 겪는 친구에게... 개별 구성원 사이의 약속으로서 탄탄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다. 의무가 있다고 해서 다니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이는 걸 보면, 굉장히 개별적으로 인식한다. 내 머리카락, 맞지 않을 거, 개별적인 걸로 인식한다. 관계 속에서의 자유를 사유하는 시점이 올 거 같긴 한데, 학생인권조례가 관계의 자유를 건드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타인을 괴롭히면서 만들어진 게 내 자유는 아닌데... 관계와 맥락 속에서 자유를 논할 수 있는 지형을...

공현 : 의무란 거 자체가 학교에서 너무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 학생에게 의무를 여러 가지 강요하는데... 그게 쓸데 없는 것과 꼭 필요한 게 뒤섞여 있고, 그걸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진남 : 학생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차별하지 않을 의무 이런 건 모두의 의무인데. 이건 권력의 문제인 것이다. 학교 안에서 권력이 와해된다면 그런 부분이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교사 학생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지켜야 할 의무... 지금은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로만 사고가 된다.

조영선 : 이미 우리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하면 당연히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의무는 저절로 생성되는 거 아닌가?

고은채 :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했을 때... 차별을 하면 처벌이 되는데... 그럼에도 개인간에는 왕따나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차별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의무를 어떻게 개개인에게 질 것인가... 했을 때 전 인권교육인 것 같다.

조영선 : HIV 감염인 때문에 고민하게 됐다고 했는데... 어찌다가 노출이 됐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 학생인권 조례로는 애들이 내놓고 재량 급식 못 먹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걸 못하게 한다든지 할 수 없다는 건가?

한날 : 권리로 쓰든 의무로 쓰든 조례는 강제력이 크지 않다. 다만 의무조항이 있음으로써 무게감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 사람들은 자기가 침해된 건 민감한데 자기가 누군가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똑같이 생각지 않는다. 의무란 말이 주는 무게감이..

어쓰 : 반대로 너무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게, 차별하지 않을 의무란 말이 어색하게 다가온다. 조례가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야 할 것 같다 또 하나의 규정을 만드는 걸로는 너무 공허한 느낌이 든다. 학생인권조례 전체에 대해 깔려 있는 불신, 공허한 느낌에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느낌.

한날 : 벤포스타 보면, 거기도 "자유로운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이런 게 있다. 그런 느낌에서 의무의 필요성 생각?

조영선 : 전술적으로는 좋은 거 같기도 하다. 어차피 있으나 마나면.

한날 : 세번째가 학생간 폭력...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사실을 알려도 되나? 정보인권 문제... 그리고 학교 폭력에서 방관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학생간 폭력 도대체 그 해결을 무엇으로 볼 건가. 가해와 피해 구분이 명확한가? 아닌 경우도 많다. 피해자 중심주의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뭘까? 이런 정석에 가까운 질문들이 나온 느낌..

진냥 : 내가 학교에 대해 가진 생각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게 '프리스쿨'이란 책. 뉴욕의 학교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학생간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에 물리적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 안전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우게 해준다.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스탱시킨다. 심각한 상황이라면 뛰어 들어서 제지... 두 사람 중 누구든 이걸 원치 않는다고 스탱이라고 외치면 무조건 끝내야 한다. 그런 학교를 보고 혼란에 빠진 적이 있다.

한날 : 내가 내 애인하고 말다툼하면서 욕을 한다. 그걸 폭력으로.. 둘이 관계 동등함이 있고 일방적인 폭력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학생간 폭력하고는 좀 다를 때가 있다. 학생간 폭력에 방점을 찍게 되는 건 일방적 폭력, 왕따라든지, 그런 걸에 방점을 찍게 되는 것 같다. 여기서 얘기들이랑 약간 결이 달라서..

지금까지 학생간 폭력을 해결한다고 나온 대책의 대부분은,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경향과 인성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사건 중심은 징계. 사건 해결 자체로 보는 경향성. 인성 중심으로 보는 건 요즘 애들의 싸가지 없음을 강조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게 대표적 방식인 것 같다.

조영선 : 나는 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한 거리로는... 가해자 피해자를 명확히 밝히고 가해자는 엄벌을 주고 이런 게... 가해 피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관계 정도의 폭력이라면 이게 뭐... 애들이, 지금 학교 폭력이 해결된 상황은 이렇다. 인지를 했으면 둘이 해결할래 학생부 가서 해결할래, 인데. 둘이 이렇게 쌍방간 대등한 관계에서 일어난 거다... 그러면 먼저 심한 모욕을 한 사람이든지 먼저 친 사람이든지 사과하고 화해하고 풀겠다... 뭐 이러면서 풀리는 건데. 그걸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집단적인 거라든지 이럴 때 징계위원회로 올라가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면 그게 문제인가 싶다. 논의의 문제를 왕따나 집단적 폭력으로 봤을 때 그런 조치만 있으면 문제지만 그 조치가 문제인가? 싶다.

메달 : 경중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교사가 대부분 학생부나 징계위로 넘기고 하지 않나?

조영선 : 지금 학생폭력자치위원회 법률상 교사가 조정할 수가 없다.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교사가 조정할 수가 없다. 그거에서도 인성 중심과 사건 중심이 입장이 갈리는 게... 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징계만 때리는 게 아니라면... 그게 교사가 개입될 경우엔, 가해자피해자 같은 반 학생일 경우엔 교사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 아까 진냥이 말한 교사가 사법권을 가지는 문제... 교사에게 유리한 게 아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는다. 처리 과정에서. 차라리 제3자 개입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성 중심 접근에서는 교사가 중심이 돼서. 인성 중심 접근에서 중요한 건 1차는 회복적 정의가 통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전제다. 저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완전 폭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로. 3월부터 했다는 전제 하에서. 사과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공동체가 다 같이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낫다는 게 있는 거다. 그런데 헛갈리는 게, 최근에 저희 학교 반에서 그렇게 괴롭힘 당한 애가 있었는데, 그게 코피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툭툭 치고 밀리고 이런 괴롭히는 게 반복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황을 다 써보자... 우리가 해결해보자 이런 거였다. 피해자가 개만은 아닐 거다. 그런 분위기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도 피해니까... 그래서 그걸 다 써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백하자 고백이 더 어려운 거다 징계보다... 대신에 피해자 입장도 괴로웠다고 얘기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약속하자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다. 이게 맞나? 생각도 든다.

한날 : 학생간 폭력을 학생인권과 연결짓는 언론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 연결이 되나 신기한데. 어느 나라든 어떤 존재들의 인권이 높아진다는 건 범죄율 저하 폭력 저하를 가져온다고 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증폭된다는 논리가, 그 기사를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 그게 너무 웃기다는 것과 함께, 그냥 저의 관점은... 학생간 폭력을 볼 때, 암만 학생인권조례 들어와도, 교사나 활동가 중심으로 학생인권을 얘기하면 학교 절대 안 바뀐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학생들 사이의 차별과 연대의 불가능성으로 계속 느껴진다. 학생들이 뭉쳐야 학교가 바뀔 것 같은데 뭉칠 수 있는 지형이 아니고 차별과 폭력이 훨씬 더 많은 거다. 대부분 소수자 집단이... 집단 내 폭력도 굉장히 많다. 차별과 폭력이 많아서.. 연대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느껴지면서, 아무튼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

어쓰 : 나는 좀.. 헛갈렸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하나 하는 느낌인데, 폭력은 어쨌든 폭력이고 성소수자가 저지르는 것도 폭력인데, 그렇게 생각이 잘 안 흘렀던 지점이, 그래도 하나로 합쳐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이 흘렀다.

공현 : 학생간 폭력 해결방안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학교를 없애거나, 학교에 있는 시간을 줄이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삶을 너무 많이 규율하고 있고

어쓰 : 하나의 해결방안일지는 몰라도.. 학생간 폭력이 단지 오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이라거나 그런 여러 결들을 짚지는 못하는 것 같다

희망 :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간 폭력 사건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폭력의 피해가 클 경우에 부모가 좀 도와줄 부분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도 들고.. 아무튼

한날 : 청소년 뿐 아니더라도.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믿음의 밑바닥에는 부모가 이 사람의 지지자일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친구의 회복에 관해서는 가족 안에서의 케어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난감한 지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친권 워크숍을 해보려고 희망님이 오셔서 다시 한 번 이 질문을

동코 : 그 아이에 대해 부모가 잘 알 것이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알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집에서 잘 보살피고 위로를 하고.. 하지만 부모도 집단 따돌림에 대해 대처할 내용이 없는데, 걱정을 할 거다.. 하지만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메달 :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상담이 들어온 게 있다. 그런 사건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개입 않고 공식적 구조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은진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는 특히나 거의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 결국 교사한테 문제제기를 해서 교사는 특히 뭐 인성적 접근... 그런 걸 통해 교육도 하고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 쪽 부모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나중에 정신적 피해랑 이런 거 하면서 보상을 요구를 한다.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는 가해자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해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피해는 교사가 봤다. 가해자 부모에게 말하기가 너무 그래서 교장에게 얘기하니까 교장이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교사가 개인 돈으로 냈다고 한다..

진냥 : 혼한 일이다 ...;;

한날 : 그리고 피해 부모가 교사에게 갖고 있는 원망, 미움도 있다.. 교사에 대한 책망과 함께 손해 배상 요구하기도

학생간 폭력을 얘기하기가 힘들다. 도덕교육으로 오인한다. 도덕교육이 실패하기 어려운 이유는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기만이란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다른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지, 를 넘어서려면 학생들과 구조적 인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난 사건 중심 해결이 아니라고 보는 편 중 하나인데. 이게 되어야 도덕과 다른 의미로 윤리가 만들어지는 거 같다. 요즘에 저의 학생간 폭력, 차별 문제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구조적 인식을 할 수 있게

될 건가, 로 방점이 옮겨가긴 한다.

한날 : 마지막... 업벌주의

두런 1 : 어떤 징계? 지금은 업벌징계라고 하면 자퇴 퇴학 이런 거만 있는데... 다른 방안이 있지 않을까... 퇴학이나 자퇴로 잘라내는 게 홀로코스트라면, 공립형 대안학교는 격리수용 느낌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학업부적응이나 이런 학생들이 공립형 대안학교 가는데, 그런 학생들이 특수 대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특수 대상에 대한 특수 교육은 필요하지 않나? 장애인 특수학교 있듯이... 그리고 논의의 초점이 공립형 대안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다른 데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업벌징계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질문이랑 이어지는 건데, 업벌징계의 필요성은 그래도 존재하지 않나? 이런 질문이 모둠에서 나왔다.

한날 : 1) 공립형 대안학교에 대한 논의와 2) 징계에 대한 문제. 공립형 대안학교는 격리수용 냄새가 난다는 것이랑... 그래도 제대로 된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 학교가 너무 힘든 친구들이 다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동코 : 학교를 옮겨 간다는 것의 의미나 업벌 징계로 처벌 받는다는 것에서... 특정 대상 사람들을 모아두는 건데... 그 특정 대상이 누구인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학교가 안 맞아 하는? 수업 전체가 과중한데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게 아닌가? 느낌이 들어서...

어쓰 :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문제인가의 이야기인 것 같다. 남양주 가운데 사건에서 가장 많은 추방의 이유는 담배였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도 담배 폈는데; 퇴학은 안 당했지만... 뭐가 문제행동인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것 같다. 과연 정당한가?

공현 : 중고등학교 진학할 때부터 선택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보내는 건지? 궁금.

진냥 : 그냥 보내는 거다.

한날 : 대부분 보내지지만... 태봉고나 몇몇 학교는 모집하기도 한다. 성적 분포도 다양하다. 거기가 예외적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됨. 그런 케이스도 조금 있다.

어쓰 : 인가형 대안학교랑은 뭐가 다르지?

한날 : 공립이라는 게 다르다. 그동안 대안학교는 사립학교인데... 돈 있는 사람들의 교육이라는 혐의에 대해서... 하위 5%를 위한 교육이다 라는 식의. 하지만 쉬임 없이 분리해놓는 건 분명하다.

메달 : 어쨌든 성적 향상?

한날 : 성적 향상과 복귀 목표... 일종의 변질된 형태의 회복적 정의? 중학교를 위탁형 대안학교를 가면 그냥 방치했을 때보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진다거나.

진냥 : 공립형 대안학교가... 지역에서 본 적이 없어서; 그 전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 훈련반 파견 위탁교육 등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한날 : 경기도가 이걸 엄청 밀고 있다. 실제 운영 방식은 진냥이 말한 것과 비슷하다. 아까 말한 몇몇 학교 빼곤 대부분이.. 다문화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또 다른 위탁교육이 생긴다. 거기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게 기술 자격증 획득.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나 수업에 대한 것보다 다른 부수적인 거나 기술교육을 하는데 그게 꼭 문제는 아닌데

동코 :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교는 있는데.. 기술을 배우는 게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낙오자들을 위한 학교 치료를 위한 곳? 이라는 것 자체가 무기력이나...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한날 : 소위 말하는 부적응된 친구들을 빼내면, 학교가 물관리를 하는 거고, 스스로가 대안학교가 될 노력은 안 한다는 거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학교에서 할 수 없다면... 공립형 대안학교의 제대로 된 교육을 고민해야... 뭐 이런 이야기.

B : 학교 붕괴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그 시기부터 대안교육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단지 공교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 배경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식인 거다. 학교에서 충분히 뭔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이 학교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든다. 배경 자체도 의심스럽고 기존 대안교육의 노하우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임시적이고 한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졸속적인 느낌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잘 하면 잘 될 수도 있었지만? 태생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한날 : 음모론보단 나아간 담론으로.. 엄벌 징계랑, 공립형 대안학교를 대안으로 만드는 이 둘이 같이 가고 있다. 엄벌 징계 받을 친구들이 공립형 대안학교 갈 친구들이랑 똑같이 때문이다. 여기부 교과부가 학업중단 숙려제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거리에 청소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배경에 의심되는 게 있다.

참고 읽기로 넣어놓은, 학교가 버린 아이들, 학교를 버린 아이들 그 글이 그 매커니즘을 되게 잘 보여 준다.

조영선 : 현실적으로 학교 안에 품는 게 학교도 힘든데 애들도 힘들다. 방치되거나 억압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가 학생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학교를 택할 수 있다면- 살기 건널 만한 조건을 사람들이 평생 찾아 헤매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옳으냐를 떠나서 공립형 대안학교가 생기면 좋겠고, 그 대안학교에서 프로그램 내실화나 이런 것도 좀 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멀쩡한 애들도 막말로, 학교에서 너 나가 이리저 없는 애들도 한 학기 정도 갔다 올 수 있고 도농간 교류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대안학교가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다만 그런 건 있다. 내실이 잘 되면 중산층 애들이 몰려간다. 10년 전에 대안학교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들이 아니었다. 처음에 갈 때는 너 대안학교 보낸다 그러면 싫어하고 그랬는데, 어느새 부르주아 학교가 됐는데... 운영이 잘 되고 상대적으로 공교육은 무너지고 그러니까... 공립형 대안학교도 잘 되면 결국은 일반 대안학교의 고민과 공립형 대안학교의 고민이 다르지 않을 거다. 고민이 기존 학교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다. 기존 시스템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공립형 대안학교가 어떻게 기존 학교 시

시스템을 흔들 거냐..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게 할 것인가 고민의 초점을 거기로 가야 할 거 같다.

한날 : 이 글을 읽어보면 좋겠다고 한 건.. 학교를 버린 아이들, 선택의 느낌이 나는데, 학교가 버린 아이들, 엄벌징계인데, 이 둘이 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다. 학업중단한 학생들 죽 인터뷰해서 나온 글이다. 인터뷰한 친구가 물어보니까 처음엔 학교 시발 그만 됐어요, 하던 친구가, 하면 할수록 담임이 이랬다, 학교 나가버리라고 했다, 이 서러움을 엄청나게 토로한다는 거다. 이 내쳐졌다는 경험이 이 친구에게 큰 상황에서, 정말로 자발적 선택의 여지가 생길 건지 고민이 된다. 통합교육이 장애 쪽 얘기로 많이 됐는데, 이렇게 학교가 극악하고 바닥을 치게 되면서, 장애 학생 뿐 아니라 성적 낮은 친구들이나, 다문화 보고도 깜짝 놀랐다. 다문화 탈학교를 따로 분류하고.. 그게 다양한 선택권의 보장이란 걸로 둔갑하기 너무 쉽다.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 되면서, 학교 안이 바뀌지 않으면 통합교육은 불가능한 게 맞다. 장애 부모님들 만나서 교육할 때, 당연히 통합교육 원칙으로 갔지만, 이제 분리교육을 원한다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렇다고 분리교육을 주장하는 건 또 아닌데... 그런 고민들이 들더라.

B : 학교가 풀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걸 만들어선 안 되단 거다. 선택을 늘리기 위해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이들을 저렇게 보내는 절차를 밟는 공간으로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날 : 어쨌거나 엄벌이 필요하긴 하지 않나... 중징계가... 이런 이야기는 안 다룬 거 같은데; 한 5분만?

뚝코 : 중징계가 굉장하... 많이 잘못해서 중징계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학생들 사이에서 그게 그렇게 미친 듯이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 있나 하면, 안 그런 게 많다. 합의가 없는 중징계인 건데... 중징계 사안이라고 사회적인 합의가 됐을 때랑 사회적 합의가 없을 때랑...

한날 : 그 학생들이 징계를 받고 내가 잘못했다 깨닫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징계라도 회복과 복귀에 치중하게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데 도대체 회복과 복귀를 지향하는 징계가 어떤 건지 진짜 모르겠다. 인권 교육센터 들의 교사 분이 전화를 하는데.. 징계가 인권교육이 징계인 거다. 회복과 복귀와 징계는 너무 안 어울려서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메달 : 깊게 공부하는 안 해봤는데... 구린 제목이긴 한데 학교 생활 지도와 상담 이런 식의 과목이 있어서 듣고 있다. 거기서 교수님이 말하는 게, 정말 이걸 아무것도 안 되는 친구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공권력을 이용하라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회복이나 복귀라는 거들이...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진짜로 그렇게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는데...

한날 : 그래도 필요하다 론이 이걸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엄청난 잘못을 한.. 징계를 없애는 건 치외법권 지역을 만드는 느낌도 있고 차라리 경찰이 있길 바라게 되는...

어쓰 : 고민이 있어서 그런지 근본적인 원론적인 생각밖에 안 나는데... 벌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벌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벌을 받는 건 정해져 있고.. 학생이 교사를 벌을 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학교 뿐 아니라 사회에서 벌이라는 게 교정의 의미보단 처벌의 의미를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사형제도 그렇고... 교정이 안 된다 해서 탁 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공립형 대안

학교를 수용소라고 표현한 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맞는 걸까 교육에서? 그런 거?

공현 : 처벌이 아니라 예방 효과도 있는 건데... 과연 학교에서 규칙이 예방 효과가 있어 왔는지 의심스럽다. 규칙을 알리고 숙지시키고 그런 일에 힘써왔나? 학교에서 규칙이 대체 뭐였나 싶긴 하다. 그냥 뒷수습 용은 아니었나 하기도 하고

두런2 : 응보가 중요하다 이러다가 재사회화가 중요하다고 하고.. 결국 한계치를 어디로 정하느냐의 문제 같다. 어느 수준에서는 재사회화를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사회화를.. 형벌 이전에서 어디까지를 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인데. 가능한 한 재사회화를 하되 한계는 있어야.. 원론적일 수밖에 없다.

조영선 : 안 되는 애들이 있다기보다는 안 되는 행위, 죄가 있다?

똥코 : 살인, 폭행?

두런2 : 피해자는 회복이 불가능한데 가해지는 회복이 되는 것도. 사회적으로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 공분을 낳을 수도..

한날 :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너무 처벌이 없으니까 처벌을 강조하기도 하는 역사도 있어온...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 숙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심화 워크샵을 잡아보면 어떨까 싶다.

배경내, 「[인권교육, 날다] 미끄러지면서 상담을 배우다- 학생인권 상담의 달인 되기 워크숍」, 인권오름 제 278호, 2011. 12. 06.

[인권교육, 날다] 미끄러지면서 상담을 배우다

학생인권 상담의 달인 되기 워크숍

배경내

지난 달 광주에서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했다. 그리고 이달 서울시 의회에서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성사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 등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연대’가 결성되는 등 반격이 만만치 않지만, 인권의 잣대로 학교를 재구성하려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보다 더 큰 도전은,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제로 버팀목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이들은 ‘조례 이후’를 동시에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11월초 이틀간 열린 ‘학생인권 심화 워크숍’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경기, 서울, 대구, 전북 등 여러 지역의 청소년 활동가와 교사, 인권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머리를 맞댔다.

심화 워크숍의 첫째 날은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조항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 학교현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고민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았다. 이튿날은 실제 학생인권 관련 상담이 들어올 경우 가져야 할 자세와 대처 방법을 익혀보는 시간이었다.

날개 달기 - 귀를 열어봐

상담을 의뢰받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잘 듣기’이다. 잘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들어보면’ 안다.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열린 귀를 갖기 위한 훈련의 중요성을 느껴보기로 했다. 먼저 네 사람을 무대로 초대해 앞으로 나란히 앉게 한 다음, 맨 앞 사람이 3분 정도 요즘 고민거리를 뒷사람에게 털어봐 보라고 요청했다.

“엄청 바쁜 일이 끝나고 나니 다른 일이 손에 잘 안 붙어요 내가 나사가 풀렸구나 싶었는데 일이 자꾸만

쌓여요 술도 끊었는데……. 석 달째 붙들고 있는 원고도 있고, 자꾸만 중간에 일이 끼어 들고 일을 나누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잠수를 타는 바람에 또 일이 쌓이고 해도 해도 일이 줄지 않으니깐 다른 일까지 자꾸 지연되고, 압박이 장난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지금 하는 일은 예상보다 호응이 적고, 뭐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요즘 그러고 살아요”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들은 대로 뒷사람에게 전달하고, 세 번째 사람은 다시 뒷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보도록 했다.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순서도 바뀌고 사람들마다 강조하는 지점도 달라졌다. 마지막 사람까지 이야기를 옮긴 다음, 맨 앞 사람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어보았다.

“다들 잘 들어주셨는데……. 일단, 제게는 술을 안 먹겠다는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더군요. 노는 시간까지 없었으면 일이 줄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깐 좌절감이 생긴 거예요. 또 중간에 급하게 끼어드는 일, 당일치기로 저한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제게는 굉장히 힘든 부분 중 하나인데 이 이야기를 놓친 분도 있었어요”

이어서 이야기를 듣고 전달한 사람들의 느낌을 물어 보았다.

“들은 대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얘기가 바뀌어 버려요.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게 어려웠어요”

“말하는 사람이 지금 힘들다는 건 느껴졌는데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힘들음 이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리를 잘 해서 들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바람에 정작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잘 못 들여다본 것 같아요”

“메모를 하면서 들었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그냥 들으려니까 잘 정리가 안 돼요”

사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야기를 건넨 사람의 핵심을 자기 식대로 정리해버리기 쉽다. 또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정작 마음을 들여다보고 공감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기도 한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 판단이 끼어드는 일도 잦다. 간단한 체험을 통해 마음을 기울여 있는 그대

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껴본 다음, 상담의 실제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더불어 날갯짓 1 - 미끄러지면서 마음을 읽다

참여자 가운데 한 사람씩 무대로 초대해 네 가지 유형의 내담자(상담을 의뢰한 사람)를 만나보도록 했다. 전화나 얼굴을 맞댄 상황에서 상담을 의뢰받았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내담자가 원하는 게 무언인지, 내담자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를 찾아보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미리 짜둔 각본을 바탕으로 진행자가 내담자 역할을 맡고, 상담자는 참여자 중에서 가급적 상담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다.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학기 초에 목격한 강제 방과 후 수업이나 기합 같은 문제가 인권 침해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중학생의 전화였다. 그런데 상담자는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전화라고 잘못 해석해버렸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지?’라는 부담에 휩싸이자 상담자는 허둥거리기 시작했다. 참여자들과 함께 내담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따져보았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당연시하더라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단 한 마디가 필요한 순간이었음이 명확해졌다. 상담자 역할을 맡은 이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다음 사례로 넘어갔다.

두 번째 사례는 평소 학교에 불만이 많던 딸이 화집에 교사에게 ‘에이 xx’이라고 말했다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부모가 소송을 도와줄 수 있는지, 변호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다그치듯이 물어보는 전화였다. 그런데 상담자는 학부모가 원하는 도움을 주기에는 법 지식이 모자라고 이는 변호사도 없다는 생각에 찢찢매기 시작했다. 당황한 상담자를 위해 상담을 의뢰한 학부모를 도울 방법이 없는지 참여자들과 함께 찾아보기로 했다. 참여자들은 이내 ‘내담자는 딸의 퇴학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었지만 징계의 발단이 된 사건을 보면 퇴학은 과도하다.’는 것을 발견해 냈다. 또 ‘법적 대응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학생도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면 상담자는 학생이 퇴학을 당하기 전에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힘을 모아보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었다는 결론에 함께 이르렀다. 소송 지원은 딸의 퇴학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으니까. 이처럼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세 번째 사례는 학교의 요청으로 인권교육을 갔는데 교육이 끝난 뒤 학생이 찾아와 학교 인권상황에 대해 하소연을 늘어놓는 경우였다. ‘우리 학교는 통제가 진짜 심하다, 짜증나고 답답하다, 학생인권조례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학생의 고발성 하소연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학생인권을 지지해주는 외부 교육가를 만나게

되면 학생들은 평소 학교에서 문제라고 느꼈던 부분을 공감 받거나 고발하고 싶어진다. 그렇지만 대개 학교를 당장 어떻게 바꾸겠다는 결심까지 서 있지는 않다. 그런데 상담자는 ‘혈~ 진짜요?’, ‘대박이다’라며 몇 마디를 하더니 곧장 ‘우리 학교를 같이 뒤집어 볼까요?’라는 제안으로 훌쩍 도약해버렸다. 이 상황을 지켜본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준비된 정도를 앞질러 해결책을 제시해버리면 마음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마지막 사례는 조금 전 수업시간에 체벌을 당한 학생이 분노에 휩싸여 신고 전화를 걸어난 경우였다. 내담자는 격분한 상태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상담을 차분히 이어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런데 상담자의 감정 또한 흥분한 내담자에 휩쓸리면서 내담자가 쏟아내는 이야기에만 끌려 다니기 시작했다. 수업시간 종이 울렸다면 내담자가 전화를 딱 끊어버리지, 상담자는 망연자실한 상태가 돼 버렸다. 이런 조건의 상담이 갖는 어려움을 참여자들과 함께 찾아보았다. 그냥 분해서 전화를 한 것인지, 가해 교사의 처벌까지 원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이 사례를 알리고 싶은 것인지 내담자 자신도 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 학교 쉬는 시간 동안의 통화라는 조건에서 한 번의 통화로 많은 걸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읽어내고 다음의 통화나 만남을 가능케 할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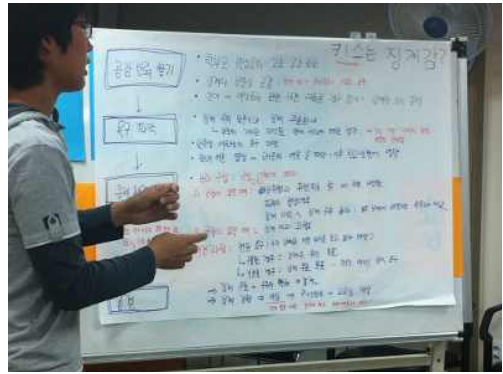
이렇게 가상의 상담 상황에 들어간 이들이 실수를 연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여자들은 상담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을 눈으로, 몸으로 읽어냈다. 상담을 의뢰한 사람들의 마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 내담자 스스로 원하는 것이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호흡과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 상담자가 선불리 내담자의 준비된 정도를 앞질러 해결책을 제시하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을 알리고 이슈화하려는 욕심 때문에 내담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과 같은 주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해지는 순간이다.

더불어 날갯짓 2 - 달인은 아니더라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상담의 첫 고개를 잘 넘는다 해도 끝은 아니다. 이제는 구체적 사례를 갖고 본격적인 해결 절차를 밟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광활한 벌판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도를 꼼꼼히 그리고 나침반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상담을 의뢰받았다고 가정하고, 모둠별로 사건 해결의 절차도를 그려보도록 했다.

제시된 사례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연애’ 문제로 징계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사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다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학생 대표조차 학생의 의견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학교 사례, 불이익에 대한 염려 때문에 체벌 교사를 쫓아내준다는 확답을 해주기

전에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학생 사례, 동성애를 비하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교실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성소수자 학생 사례, 기숙사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왕따를 당할 정도로 지쳐 있는 상황인데도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강제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밀어붙이는 사례 등이었다. 모듈별로 한 가지씩 사례를 골라 내담자와 신뢰를 형성하는 방안, 내담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안, 주어진 조건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 방안과 절차, 대응 논리 구성,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았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을 하나하나 놓다보니 내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한 토론이 자연스럽게 일었다. 내담자의 욕구는 조건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인 만큼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이 심리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학내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 방안과 학내에서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 학교는 시끄러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만큼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협상카드를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선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등이 오갔다.

머리를 맞대어

되찾을 수 없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권리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 때 권리는 비로소 진짜 권리가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학교 안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날은 없을 것이다. 학생인권 상담은 잃어버린 인권을 되찾고자 하는 학생과 그 지지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인권을 살아 꿈틀대는 생물체로 만들려는 과정이다. 그러나 경직된 학교에 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나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상담가들이 비록 사건의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주저앉지 않으려면 상담을 처리해나가는 과정이 즐겁고 풍성해야 한다. 상담의 달인(?)이 된다는 것은 귀를 여는 즐거움, 마음을 나누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아닐까.

난다, 「학생인권조례가 끝인 건 아니지!-〈학생인권 심화워크샵〉 후기」, 인권교육센터 ‘들’ 소식지 〈소란〉 21호, 2011년 11·12월호.

학생인권조례가 끝인 건 아니지!

〈학생인권 심화워크샵〉 후기

난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지난 11월5일-6일, 이틀에 걸쳐 <학생인권심화 워크샵>이 열렸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워크샵이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각 지역 별 학생인권조례 추진... 비야흐로 학생인권조례의 시대를 맞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민들을 함께 풀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번 워크샵을 통해 만났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청소년인권운동이 그 동안 요구해온 어떤 것이었다.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요구였다. 그런데 그 학생인권조례가 현실이 되었을 때,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수면 위로 떠오른 또 다른 장면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차별 금지 이후, 새로운 대안이 된 상벌점제, 성찰교실... 학생인권조례를 막아서는 목소리들, 교권추락, 학교폭력... 이번 심화워크샵을 통해 알쏭달쏭한, 우리를 주춤거리게 만드는 고민들을 모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첫째 날, 학생인권조례 아작아작 씹어 먹기... 소화도 좀 됐나?

학생인권조례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조례 조항을 하나하나 다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의 대략적인 내용은 알아도 그것이 언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날, 첫 번째 시간은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 조항은 이럴 때도 정말 쓸모 있겠다!”, “이 조항은 좀 알쏭달쏭한데?” 싶은 것을 모둠 별로 구체적 사례들을 뽑아보는 시간으로 가졌다. 조례안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중심으로 보았고, 조례의 각 조항을 총 12가지 정도로 나누어보았다. 인권교육, 학습에 관한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치·참여의 권리, 표현의 자유,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그것이다.

진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쏭달쏭”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다. “교사는 아니지만 학교

구성원인 직원에 관한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을 받고 싶지 않으면 거부해도 되나? 학습에 대한 권리에서 학습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되는거야?”, “학생회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의 참여권은?”, “체육시간에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것도 개성실현의 자유일까?”, “왕따 등 학내 문제 파악을 위해 무기명으로 학생들에게 조사를 하는 게 표현의 자유에 속하나?” 다양한 주제에서 다양한 ‘알쏭달쏭함’이 나온 것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때부터 방방거리며 돌아다닌 나도 이 시간만큼 조례를 꼼꼼히 뜯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생각지 못한 ‘알쏭달쏭한 고민’들은 그래서 재미있었다. 인권교육의 경우,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부터 각 학교로 인권교육 요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학생인권조례 안에 ‘연2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인권교육이라는 게, 학교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보니, 학생도 교사도 듣기 싫은데 억지로 듣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말로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지만 교사 등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이 고민이 되는 것이다. 학교는 인권교육을 실적으로 채우기만 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그냥 대충 했다고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존중이 커진다면 그 교육에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홍보 부분이나 교육의 질적 부분이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야기가 나왔다.

개인적으로 ‘참여할 권리’ 부분에서 모듬 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참여할 권리라는 것이 그리 세세하게 적혀 있지 않아서, 참고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지금도 많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발언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항을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교 운영에 얼마나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하는 것은 역시나 자치회의 활성화나 자발적인 참여 등과 관련된 밀접한 문제인 것 같다. 또한 지금의 학생회는 특정 집단-모범생, 성적 높은 학생들-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랬을 때, 비(非)학생회 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는데, 학생회 활동을 공개하고 학생회에 참여하는 규칙 방법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조례 안에 들어가지 않은, 또는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절차를 통해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 지금과는 좀 다른 학교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학생인권조례 이후, 만난 북병들과 마주하기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된 해결하기 힘든 난관들, 그야말로 ‘북병’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학생이 무슨 두발자유야?”, “애들은 맞으면서 커야지!” 같은 아주 오래되고 낡은, 학생인권에 혀를 내두르는 말들이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은 학생인권이 이런 소릴 듣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학생(청소년·아동) 또한 권리를 존중받을 존엄하고 소중한 인간”이라는 이 명제에 좀 더 진심으로 끄덕거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새롭게 떠오른 쟁점들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을 가져다주었고, 그 질문을 뽑아보고 함께 풀어보고자 했다.

이번 심화 워크숍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쟁점들이 나왔다. 상벌점제 / 짝통 조례(교육공동체, 교육권리현장, 학교권리조례) / 학교 폭력 / 엄벌징계. 역시나 모두 별로 논의를 가져갔는데, 본인이 들어갔던 ‘짝통 조례’를 마주했던 이야기를 풀어놓을까 한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오래 전부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계속해왔던 광주에서도 최근 제정되었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바람이 불고 있는데, 몇몇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는 아닌데 학생인권조례인 것처럼 뭔가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일명 ‘짝통 조례(유사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남의 ‘교육공동체조례’, 인천 ‘학교공동체조례’, 대구의 ‘교육(권리)현장’이 그렇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우선 이름에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이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이 짝통조례를 추진하는 지역은 학생인권 상황이 그리 좋지 않고, 심지어 대구는 참으로 열악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짝통 조례들이 하나둘 등장하는 걸까?

대구 교육권리현장을 좀 더 뜯어보자. 일단 참 난감하다. 대구교육권리현장이 유사학생인권조례가 쓰여진 첫 번째 케이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파급력이 있었던 것만큼, 이것도 파급력이 있어서 몇몇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걸 하겠다는 곳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대구 교육권리현장을 보면, 먼저 ‘공동체’를 강조하는 조항들이 눈에 띈다. ‘인권’보다 ‘공동체’나 ‘평화’ 같은 말이 좀 더 부드럽게 먹히는 지금, 사회적 논쟁이 되는 부분을 일부러 피해가는 느낌이다. 그렇기에 교육권리현장의 조항에는 약자인 학생에게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프레임이 존재한다. ‘유사학생인권법률/조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간에 있었던 사회적 논쟁과 합의가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은 문제도 함께 보여준다. ‘교육3주체’라고 표현하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반반 존재한다. 권리 하나에 의무 하나...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책임 명시가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이야기할 때,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교사 집단인데, 그 ‘서운함’에서 교육권리현장 같은 정말 빨하지만 그래도 인권조례보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사법률이 등장하게 되는 것 같다. 그 ‘서운함’을 들여다보면 교사들 주체로 보지 않는다 류의 얘기도 있지만, 학교 교사들이 아닌,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인권이 혹은 학생인권조례라는 ‘차가운’ 법률이 지금까지의 교사와 학생 간의 끈끈한 관계를 냉각시킨다는 생각을 만나게 된다.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교사들이 ‘공동체’를 놓지 못하는 것 같다. 서로에게 문제제기하고 하는 낯선 관계 말고 공동체, 품는 관계를 원하면, 당파성 두드러지는 학생인권조례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이 교육권리현장 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영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 이런 짝통조례라든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거라도 제정되는 게 긍정적인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였다. 한편으로는 교사가 가해자인 것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시기가 왔다는 판단과 함께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일명 ‘짝통조례’로는 그런

쟁점을 가려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로 갈 수 있다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다. 두발자유 차별금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하자, 하면 교육공동체조례라도 내용을 넣어서 가는 것이고, 학생의 권력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면 학생인권조례로 하는 게 낫다, 라는 이야기였다.

학생인권조례가 끝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이번 심화워크샵에서도 당연하게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번 후기에는 둘째 날에 진행한 ‘본격 상담 워크숍’ 이야기는 빠져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곧 등장할 속기록을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후기에는 모두 담지 못했지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롭고, 재미있는 쟁점들이 튀어나와서, ‘심심화워크샵’을 기획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꼼짝없이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와 평생 같이 갈 것만 같다.

‘인권’이 ‘생활인권지도’라는 협소한 범주로 묶일 때, “인권 보장을 위해 진정으로 교사가 ‘지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 지역 마다 다른 조항, 다른 성격의 법률이 제정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신경 써볼까 하는 이야기, 개인의 의무가 아닌 시스템의 의무, 그리고 더 나아가 학생인권조례가 미처 담지 못한 빈 곳을 채워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깨알 같은, 꼭꼭 담아둘 만한 이야기들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만든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1주년이라고 하고, 이것저것 변화도 생기고, 여러 지역에서 꿈틀거리는 것들도 보이고 사실 이제야 실감이 난다. 과거에는 학생인권 지켜! 학생인권법 만들어! 라는 것들이 우리의 요구이고 바람이었다면, 실제로 ‘학생인권 보장’이 좀 뒤죽박죽이긴 해도 실제 법률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새로운 학교를 어떻게 만나야 할 지에 대한 고민과 과제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느낌이다. 학교의 역할, 교사의 역할, 학생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림을 그려나 가야 할 때가 왔다.

〈2011 학생인권심화워크숍〉 소장사진, 2011. 11. 05.

